국제고려학 제17호

ISSN 1347-7307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2018
국제고려학회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 17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제 17호

차례

제13회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심포지엄
아리랑 -상실과 재생

들어가는 말	宋南先	1
중국 조선족 사회의 『아리랑』 이미지 지도	姜寶有	5
본조아리랑의 유래에 대한 고찰	공명성	31
'아리랑'의 사회적 구축에 대하여	森 類臣	43
Politics of Arirang: Tripartite Function and the Social Dynamics of a Korean Folksong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China	Byong Won Lee	61
아리랑의 전통성과 근대성	이용식	77
나가는 말	森 類臣	101

일반논문

해방시단의 불꽃, '전위시인'들의 창작과 그 후일담	고철훈	109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에 대한 일고찰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高紅姬	133
국어 통사 변화의 여러 양상	권재일	151
『몽어류해』를 통한 18세기 조선어와 몽골어의 관계 고찰	金光洙	179
왜땅에 있었던 백제의 세 다무로	김영덕	207
중국의 조선어규범화사업에 대한 고찰과 소견	金永寿	237
현진건의 『타락자』와 다야마 가다이(田山花袋)의 『이불(蒲團)』 비교 연구	金英姬	251
김학철(金學鉄), 그 생애와 문학	大村 益夫	273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에 나타난 자아 이미지	朴铃一	289
Analysis of Errors Made by German Learners and Korean Learners -Subject to Case and Postposition that Indicate a Place	Eun Joo Park	307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용어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외래어를 중심으로	서광웅	331

실증 분석에 입각한 언어 간섭에 대한 고찰 -한중 번역을 위주로	申泉, 김미연	349
Mutual-Aiding Culture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4-1960	Duk Hee Lee	383
묵자 사상의 현대적 이해 -한국사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병욱	407
금강산 玉流洞 巖刻文에 대한 일고찰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題名文化를 겸하여	林侑毅	427
한국어 문법단위 '구'와 '절'에 대하여	全永根, 李善	455
1910년-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이주	정웅철	473
파스파 문자의 喩母와 훈민정음의 欲母 -왜 한글에서는 모음자에 /ㅇ/를 붙여 쓰는가?	정광	489
한국대학생의 나눔경험이 향후 기부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趙衡範	521
일제가 조작한 『인구정책확립요강』의 반동적 본질에 대하여	조희승	543
한국 효사상과 문화문법 고찰	최태호, 이대현	559

제13회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심포지엄
아리랑 - 상실과 재생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Arirang — Lost and Regained

들어가는 말
Foreword

宋南先[1]
大阪経済法科大学

'아리랑'은 조선(한) 민족에 있어서 특별한 노래이다. 오늘날 한(조선) 반도의 북과 남 그리고 해외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부를수 있는 노래가 많지 않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애국가를 부르며 민족의 소원이라고 하는 통일의 노래 마저 이제 함께 부를수가 없다. 북과 남은 '도라지'나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를수 있어도 그것은 그들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행위가 될수 없다. 그럴때 사람들은 기꺼이 또는 하는수 없이 '아리랑'을 부른다.

"왜 '아리랑'이며 왜 아리랑이라야 하느냐." 이것이 답하지 않으면 안

1 Nam Sun Song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E-mail : namsun@keiho-u.ac.jp

될 소박한 질문이다.

이른바 '본조 아리랑'이 1926년에 나운규 감독의 무성 영화 '아리랑'의 성공과 더불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조선반도와 당시의 일본제국의 온 누리에 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 애처로운 노래는 세기를 넘도록 조선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놓질 않았다.

'아리랑'은 흔히 '신민요'로 분류되는 새롭고도 오래 된 노래이다. 그 음악 예술적 가치와 매력은 전통과 창조, 연속과 단절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아리랑'의 유례 없는 폭발적 인기는 이 노래가 가지는 참신함을 떠나서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이 노래가 이렇게 오래도록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로 애창되어 왔다는 사실은 '신민요 아리랑'이 등장하기 전에 '아리랑 소리, 타령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집합적 역사와 그것으로 인하여 민중에게 공유된 정서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설명될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랑'이 갖는 근대와 전통의 혼혈적 성격은 그 전파 과정과 분포의 실상에도 부합된다. '아리랑'의 특징의 하나는 그것이 고도로 생산적이며 열린(open ended) 현상이라는데 있다. '아리랑'처럼 다양하고 많은 변종을 가진 노래는 드물다. '아리랑'을 처음으로 채보하고 수록한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의 지적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노래가 19세기 후반에는 이미 널리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강원도의 향토 소리를 중심으로 '아리랑'은 벌써 다양한 선율과 리듬의 변종을 가지고 널리 분포됐었다고 추정된다. 그것을 역사적 뿌리로 하여 '아리랑'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 가요로 재생하였으며 아리랑 현상은 '본조 아리랑'을 구심점으로 새로 번식하여 그 분포를 넓히며 변종을 늘였다. 아리랑 현상의 재편성이 일어난 것이다.

'아리랑'의 전통성과 근대성 문제와 더불어 심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가 '아리랑'이 가지는 상징성이다. '아리랑'처럼 수많은 의미 부여를 받은 노래는 찾기 힘들 것이다. '본조 아리랑'의 곡조와 가사는 간결하며

비이데올러기적이다. ‘아리랑’은 그 간결성과 은유성, 비이데올러기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이입을 가능케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아리랑’의 기호작용은 비한정적이며 다양한 해석과 섬세한 함의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랑’을 단순히 ‘탄압과 저항’이란 문맥에 한정하여 본다면 그 전모를 놓칠수 있다. 더 넓은 문맥에서 식민지 시기의 사람들이 ‘아리랑’에 이입한 감정의 기조가 무엇이었는가를 추정하는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아리랑’을 일본에 의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저항의 노래로 성격짓는 경향은 이 노래가 일본제국에 대한 혐오와 저항을 담은 영화와 함께 등장하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일본 총독부가 ‘아리랑’의 가사 제5절을 삭제시키거나 ‘아리랑’레코드를 금지하는 등 탄압적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화 ‘아리랑’이 첫 상영 이후 몇 년간에 걸쳐 전국에서 상영되었으며 노래 ‘아리랑’도 지상파로 온 조선에 흘렀고 광범위한 조선사람들이 조선 해방의 날까지 ‘아리랑’을 불렀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리랑’의 가사 중에서 압도적 상징성을 갖는 것은 제1절이다. 그 메시지는 ‘상실’이다. 이 메시지가 자율적인 근대 형성에 좌절한 식민지 조선에 고이던 상실감과 결합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실과 한탄의 감정은 특정한 문맥에서는 분노와 저항으로 쉽게 이어져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상실’의 원흉인 식민지 지배가 끝나 자율적 국가를 도로 찾은 한(조선)민족에 있어서 상징으로서의 ‘아리랑’에 대한 애착은 점차 사라져가야 마땅하였다. 그러나 한때 잠잠하였던 ‘아리랑’은 1991년 일본 치바현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 공동팀의 공식 국가로 채택됨으로써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다. 통일 코리아라는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찾을 때에 남과 북은 분단전 과거의 아이콘 ‘아리랑’으로 회귀하는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상실’의 상징이였던 ‘아리랑’은 관제적 힘으로 나마 새로운 의미 부여를 받아 되살아난다.

최근 남에서는 ‘아리랑’이 국가 브랜딩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북에서는 ‘아리랑’의 이름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국가적 힘을 기울여 개최되기도 한다. 오늘날 ‘아리랑’은 사회, 정치, 문화, 경제에 걸치는 복합적 현상으로 재생되었다. 거기에는 지난날 사람들이 삶의 애환을 담아 부르던 ‘아리랑’의 모습은 더는 찾을수가 없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리랑’이 조선(한국)사람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아이콘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중국 조선족 사회의 『아리랑』 이미지 지도

The “Arirang” Image Map of the Korean Society in China

姜寶有[1]
复旦大学

1. 머리말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로서의 아리랑은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 속의 아리랑이 됐다. 한민족의 민요 아리랑은 한국음악 대표로서의 ‘아리랑’, 한국문화 전령으로서의 ‘아리랑’, 세계문화 유산으로서의 ‘아리랑’으로 세계인에게 이미지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아리랑은 조선족을 상징하고 한국과 한민족을 상징하면서 아리랑은 이미 조선족 그리고 한국과 한민족을 인지하는 문화 키워드로 되었다(강보유 2013: 33-46).

19세기 중엽, 중국 조선족 선조들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살길을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왔고 아리랑과 함께 중국 땅에 삶의 터전을 닦았다. 세월이 흘러 아리랑은 모국에 대한 향수를 부르던 노래로부터 항일의 노래로, 민족 해방의 노래로, 조선족 동포 사회 건설의 노래로, 그리고 개혁개방과 세계화의 노래로 승화되었다.

1 Bao You Jiang (Professor, Korean Department,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 Fudan University)
E-mail : byjiang@fudan.edu.cn

아리랑은 오늘날 중국에서 슬픔의 벽을 넘었다. 슬퍼도 아리랑, 기뻐도 아리랑이다. 민족의 동질성 향상과 진흥을 부르고 흥과 멋이 우러나는 대중가요로 거듭났다.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의 탄생과 변화와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인 정서를 아리랑으로 함축할 만큼 중국 땅에서 아리랑이 애창되고 있다. 그래서 '아리랑 스리랑'은 중국 조선족의 노래를 상징하기도 한다.

2015년 7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연변 시찰을 노래한 송가(頌歌) 『難忘的那一天(잊을 수 없는 그 날)』(柴景春 作詞 桑楠 作曲 佟娜 演唱)에서는 '啊 親人那 安寧哈西妮嘎 阿里郎 斯里郎(아, 그대여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스리랑)'과 같이 '아리랑 스리랑' 후렴구로서 조선족의 노래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 땅에서 불리고 있는 아리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이주와 함께 고국으로부터 지니고 온 전승된 아리랑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땅에 정착하여 1945년 해방과 함께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이다.

전승 『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영천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경상도아리랑』을 비롯하여 19종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중국 땅에서 기보되고 채보된 아리랑은 52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김봉관·이광인 2015: 292, 320-387).

창작 『아리랑』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창작된 『새 아리랑』(채택룡 작사 허세록 작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여 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땅에서 창작되어 애창되고 있는 『아리랑』 50수[2]를

2 자료 수집 미완성인 『모내기 아라랑』(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 1952년), 『행복의 아리랑』(최창규 작곡, 1981년), 『희망의 아리랑』, 그리고 작곡 미완성의 『부부아리랑』(김철수 작사), 『아리랑타령』(한일송 작사), 『천지의 아리랑』(리복 작사) 등 창작 가사들도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잠시 제외하였다.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50수 가사 말뭉치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의 창작 『아리랑』의 이미지 지도를 펼쳐 보기로 한다.

2. 창작 『아리랑』 가사 말뭉치 구축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의 창작 『아리랑』은 김봉관·리광인의 『중국조선족아리랑』(민족출판사, 2015년), 김승철·남희철의 『우리 노래 50년』(연변인민출판사, 2008년), 김창근의 『연변방송가요 700수』(연변인민출판사, 2007년), 김창근의 『중국조선족가요 100수 분석』(연변인민출판사, 2014년), 대중가요대백과 편찬소조의 『대중가요대백과』(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년), 연변아동음악학회의 『중국조선족 동요대전』(연변인민출판사, 2013년),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의 『중국조선족가요대전』(연변교육출판사, 2007년),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연길시문학예술계련합회의 『조한대역 조선족애창가요 60수』(연변인민출판사, 2012년) 그리고 『노래샘터동네』 사이트(http//cafe.daum.net/gecicun)에서 50수를 수집, 정리하였는데, 그 목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귀향 아리랑』 이동춘 허동규 작사 허동규 작곡 김지협 노래
② 『내 겨레 아리랑』 김창회 작사 리채렬 작곡 마복자 노래
③ 『내 사랑 아리랑』 최현 작사 림만호 작곡
④ 『눈물의 아리랑』 고송숙 작사 송은룡 작곡
⑤ 『늙은 총각 아리랑』 전광하 작사 리충모 작곡
⑥ 『동녕아리랑』 김창희 작사 문경택 작곡
⑦ 『된장아리랑』 황상박 작사 김일규 작곡 김선희 노래
⑧ 『두만강아리랑』(1) 김승길 작사 작곡 백설화 노래
⑨ 『두만강아리랑』(2)(작사 작곡 미상)
⑩ 『사과배 따는 처녀』 장동운 작사, 최삼명 작곡 방초선 노래
⑪ 『사랑아리랑』 주룡 작사 림성호 작곡 임향숙 노래

⑫ 『사랑아리랑 행복아리랑』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 노래
⑬ 『사랑의 아리랑고개』 허도 작사 최삼명 작곡 임향숙 노래
⑭ 『삶의 사랑 넘치는 기쁨』 리춘하 작사 장영남 작곡
⑮ 『새 아리랑』(1) 채택룡 작사 허세록 작곡
⑯ 『새 아리랑』(2)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
⑰ 『새 연변아리랑』 김문희 작사 김동하 작곡 송경철 노래
⑱ 『술 한잔 아리랑』 김성욱 작사 리광윤 작곡
⑲ 『신아리랑』(1) 김학송 작사 리철수 작곡
⑳ 『신아리랑』(2) 석화 작사 김봉호 작곡 김선희 노래
㉑ 『아리랑』 최금란 작사 김경애 작곡
㉒ 『아리랑 가락 속에』 김정 작사 김웅 작곡
㉓ 『아리랑 꽃타령』 최건 작사 림만호 작곡
㉔ 『아리랑, 나의 사랑』 리흥국 작사 림봉호 작곡
㉕ 『아리랑 메아리』 채관석 작사 최룡운 작곡 김혜옥 노래
㉖ 『아리랑 사랑』 리흥국 작사 박서성 작곡 한선녀 노래
㉗ 『아리랑 새 고개』 박장길 작사 문승호 작곡
㉘ 『아리랑 세월』 정호원 작사 김창근 작곡 현철 노래
㉙ 『아리랑 소녀』 김학송 작사 김동하 작곡
㉚ 『아리랑 연변』 백진숙 작곡 리하수 작곡 박소연 노래
㉛ 『아리랑 우리 노래』 김영택 작사 초산 작곡
㉜ 『아리랑 인생』 김동환 강춘 작사 오미란 작곡
㉝ 『아리랑 주막』 리성비 작사 최룡운 작곡
㉞ 『아리랑 처녀』 김학송 작사 리규남 작곡
㉟ 『압록강 아리랑』 석화 작사 동서길 작곡 김광현 노래
㊱ 『연변아리랑』(1) 김학송 작사 김봉관 림성호 작곡
㊲ 『연변아리랑』(2) 조일권 작사 김철 작곡
㊳ 『연변아리랑』(3) 김동진 작사 위철복 작곡

㊴ 『연변아리랑』(4) 김미조 작사 안계린 작곡 안룡수 마복자 노래
㊵ 『열두 아리랑』 정호원 작사 오영란 작곡 장홍련 노래
㊶ 『영원한 아리랑』(1) 주룡 작사 박광춘 작곡 김선희 황매화 노래
㊷ 『영원한 아리랑』(2) 김영식 작사 변강 작곡
㊸ 『우리의 아리랑』 조일권 작사 박광춘 작곡
㊹ 『인생 아리랑』 리군필 작사 최석호 작곡 김예화 노래
㊺ 『장백산아리랑』 김학송 작사 김정송 작곡
㊻ 『장백송』 김학천 작사 장천일 작곡 홍인철 박정금 노래
㊼ 『장백아리랑』 김태현 작사 최룡운 작곡 렴수원 노래
㊽ 『장백의 새 아리랑』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 김재분 노래
㊾ 『타향의 아리랑』 황철청 작사 성기화 작곡 구련옥 노래
㊿ 『해변의 아리랑』 허강일 작사 박일송 김혜자 작곡
허강일 작사 리룡해 작곡 박은화 노래

창작 『아리랑』 50수 가사에서 일차적으로 쓰인 기초 단어[3]가 903개가 등장하였다. 품사별로 그 순위를 보면, 명사 470개, 동사 248개, 부사 74개, 형용사 69개, 감탄사(조흥구) 20개, 대명사 13개, 관형사 9개이다. 창작 『아리랑』 50수 가사에서 사용된 단어 총수는 3,361개로 매 단어가 평균 3.7번 정도로 반복 출현되었는데, 3번 이상 출현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아리랑』 노래 제목에 쓰인 단어는 노래 가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1) 아리랑(449)[4], 고개(77), 길/고갯길(16), 인생(13)/삶(3)
노래(50)/노래하다(9)/부르다(35), 춤(10)/춤추다(4), 멜로디(5), 성수/신명(4)
사랑(48), 행복(19)/행복하다, 꿈(20), 희망(6)/미래(3)/소망(3), 낭만(6),
연분홍(6)
연변(23), 고향(22), 타향/타향살이(4)
백의민족(8), 겨레(7)/민족(5), 어머니(9)/아버지(5), 품(4), 치맛자락(3)
임(16), 처녀(7)/총각(4), 친구(5), 청춘(3)
마음(15개), 정(6)/정답다(7), 그리움/그립다(9)
기쁨(11)/기쁘다(2), 슬픔(7)/슬프다(2)
웃음(5)/웃다(9), 자랑(9)/자랑하다(3)
꽃(20), 사과배(9), 진달래(7), 배꽃(2)/목란꽃(2)/장미꽃(2)/월계화(2)
장백산(30)/천지(7), 두만강(19), 압록강(7), 해란강(3)
해(16), 달(6), 산(10), 산천(10), 강산(5), 하늘/하늘가(6), 메아리(4)
땅(10), 구름(10), 물(8), 언덕(5), 해변(5), 비바람(5), 노을(4), 바다(4)
세월(15), 세상(9), 옛날(8), 오늘(4), 천년/만년(10)

(2) 가다(63)/오다(18), 넘어가다(35)/넘다(25), 피다(21), 흐르다(20)
나다(17), 떠나다/떠나가다(16), 돌아가다(13), 뜨다(11), 울다(8)

(3) 함께(19)/모두(8), 동동(16), 절로(10), 잘(6), 빠꾹(6)

(4) 하얗다(12)/희다(4개), 아름답다(13)/곱다(8), 푸르다(11), 붉다(4)
영원하다(20), 좋다(16), 많다(4), 높다(4), 멀다(4)

4 낱말 '아리랑'은 명사로서의 '아리랑'과 조흥구로서의 '아리랑'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하나로 뭉뚱그려 명사로 처리하였다. 단어 뒤의 소괄호 안의 숫자는 단어 사용 빈도 수치를 말한다.

(5) 아라리(90), 아리(58), 스리랑(39), 스리(30), 아(19)/아하(5),
에헤야(요)/데헤야(요)(8), 흥(3)

(6) 우리(74), 나/내(48), 너/네(22), 이(28), 그(21)

(7) 새(10), 온(2), 첫(2), 무슨(2), 열두(24), 두/둘(6), 한(5)

『아리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고개'라고 할 만큼 '아리랑'과 '고개'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창작 『아리랑』 가사 말뭉치에서도 출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아리랑』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의 창작 『아리랑』에서는 '아리랑'과 '고개'는 어떤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기로 한다.

창작 『아리랑』에서 고빈도 낱말 '아리랑'은 50수 모두에서 449번 출현되었는데 사용 빈도는 거의 9번으로 나타났다. '고개'는 50수 모두에서 출현된 것이 아니라 23수에서만 77번 출현되었는데 사용 빈도는 23수에서는 3.4번이고 50수에서는 1.5번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이로써 창작 『아리랑』 지도에서는 '고개'의 운명이 여전치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아리랑'과 '고개'가 합성된 '아리랑 고개'(27)의 지형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창작 『아리랑』에서 '아리랑 고개'는 높아서 힘들고 울면서 넘는 '이별의 고개', '가난의 고개'로 각인되어 있었다.

미투리 무명치마 강을 건넸네
허위허위 넘어온 아리랑 고개 - 『아리랑 세월』

아리랑이 태여난 곳 아리랑인데
울며 넘는 아리랑 고개 왜 아리랑이야 - 『인생 아리랑』

고개 고개 리별 고개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고개 고개 높은 고개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 『신아리랑』(1)

우리 선조 쪽박 차고 아리랑 부르며
가난의 고개를 넘어간다네 - 『연변아리랑』(4)

'아리랑 고개'는 또 '아리랑 열두 고개'로 확대 합성되어 인생의 고된 삶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작가 류원무의 장편소설『아리랑 열두 고개』(2005년)에서는 주인공 남매와 마을 사람들의 고된 삶을 그려낸 바와 같이 '아리랑 열두 고개'는 인생의 고된 삶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그래서『타향의 아리랑』에서도 '아리랑 열두 고개'를 아래와 같이 그리움과 슬픔, 괴로움과 고달픔에 지쳐도 넘고 넘는 고개로 부르고 있다.

그리움에 지쳐도 슬픔에 지쳐도
가고 가는 아리랑 열두 고개를 아리랑
괴로움에 지쳐도 고달픔에 지쳐도
넘고 넘는 아리랑 열두 고개를 아리랑 - 『타향의 아리랑』

하지만 창작 『아리랑』에서는 '아리랑 (열두) 고개'는 넘기 힘든 인생의 고개만은 아니다. '아리랑 고개'는 '넘다', '넘어가다', '넘어오다'와 연어 관계를 이루면서 힘든 시련을 이겨 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 지어 잘 살아 잘 살아 보련다
아리랑 인생 열두 고개 넘더라도 잘 살 거야
꿈 이루어 잘 살아 잘 살아 보련다
아리랑 인생 열두 고개 넘더라도 잘 살 거야 - 『아리랑 인생』

두만강에 고운 마음 살짝쿵 풀어놓고
하얀 배꽃 하얀 마음 노래하며 춤을 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열두 고개 넘어간다 - 『아리랑 처녀』

『아리랑 인생』에서는 '아리랑 열두 고개'는 인생을 잘 살아 보려는 '희망의 고개'로, 『아리랑 처녀』에서는 노래하며 춤추면서 넘는 '흥의 고개'로 재탄생되었다.

아리 아리 살짝 스리 스리 슬쩍
인생도 열두나 고개 넘어 넘어 가잔다 -『새 아리랑』(2)

기쁨이 찰랑 님이 오는 고개길에 아라리가 났소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넘어간다 -『연변아리랑』(1)

『새 아리랑』(2),『연변아리랑』(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작 『아리랑』에서는 '아리랑', '아라리', '아리', '스리랑', '스리', '아'/'아하', '에헤야(요)'/'데헤야(요)' 등 조흥구로 흥을 더욱 돋우면서 '아리랑 고개'는 흥의 선율로 거듭나게 된다.

'아리랑 고개'는 또 '사랑의 아리랑 고개', '아리랑 새 고개'로 점점 더 밝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봄나비 쌍쌍이 날아예는 고개길
아리랑 동동 사랑의 아리랑 고개
음 사랑의 아리랑 고개 사랑의 아리랑 고개 - 『사랑의 아리랑 고개』

아아 친구야 눈빛을 빛내라 마음 잡고
아리랑 새 고개 넘어보자

자 아리랑 새 고개 넘어가 보자 - 『아리랑 새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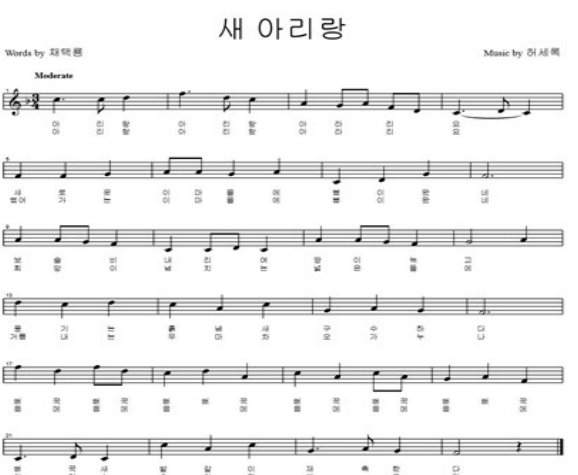
우리는 창작 『아리랑』에서 '아리랑 고개'가 본연의 어두운 모습으로부터 밝은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면 창작 『아리랑』의 전반 지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욱 궁금해진다.

3. 창작 『아리랑』의 이미지 지도

『아리랑』은 '아리랑'이라는 기표(signifint)를 통해 다양한 기의(singifie)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조선족 사회의 창작 『아리랑』의 이미지 지도를 그려 보면 아래와 같다.

3.1. 『아리랑』은 해방의 노래

1945년 해방 맞은 기쁨과 함께 토지개혁의 첫해인 1947년에 창작된 『새 아리랑』(채택룡 작사 허세록 작곡)의 악보와 가사를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새로운 이 마을에 봄이 왔네
보슬비 내리여 땅이 녹고
풍기는 흙 냄새 구수하다
뻐꾹 뻐꾹 뻐뻐꾹 뻐꾹 뻐꾹 뻐뻐꾹
뻐꾹새 밭갈이 재촉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뻗어가는 이 마을에 봄이 왔네
희망이 넘치는 넓은 들에
거름 내는 우마차 오가누나
음매 음매 음매 음매 음매 음매
어미소 송아지 부른다 -『새 아리랑』(1)

『새 아리랑』(1)은 해방의 봄을 맞아 농민들이 분배받은 자기 땅에 풍년을 기약하며 봄갈이하는 기쁜 심정을 노래한다. 그래서 『새 아리랑』(1)은 중국 조선족들에게는 '해방의 아리랑', '기쁨의 아리랑', '행복의 아리랑'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3.2. 『아리랑』은 이민과 개척의 노래

중국 조선족 동포는 살길을 찾아 그리고 나라 독립을 위해 한반도로부터 중국으로 이주한 민족으로서 이민의 아픔을 갖고 있었다.

우리 선조 쪽박 차고 아리랑 부르며
가난의 고개를 넘어간다네 - 『연변아리랑』(4)

전설 속에 이민력사 그려왔네

원한 서린 눈물이요 - 『장백아리랑』

망국 노예 두루마기 찢긴 리정표
미투리 무명치마 강을 건넜네 - 『아리랑 세월』

창작 『아리랑』은 쪽박 차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는 이민의 역사를 호소하면서도 이민의 아픔과 서러움을 단호히 털어버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겨레의 하얀 넋을 아래와 같이 노래하고 있었다.

오늘은 이 땅에 연변이라
아름다운 좋은 세상 절로 세웠네 - 『연변아리랑』(4)

장백폭포 쏟아지며
이 강산 고이 지켜 겨레 넋을 심어가네
흰눈 같이 어루쓸며
이 강산 고이 지켜 겨레의 넋을 꽃 피우네 - 『장백아리랑』

두만강 건너 이 땅에 첫 괭이 박을 때
할아버지는 아리랑의 하얀 꿈 심으시고 - 『아리랑 연변』

『아리랑 세월』에서는 이민의 역사와 함께 새 삶의 터전의 개척자, 선구자를 노래하고 있었다.

줄레줄레 남부녀대 하얀 그림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화전 개척자
용진용진 우리 민족 우리 선구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의 선조여 - 『아리랑 세월』

3.3. 『아리랑』은 고향의 노래

창작 『아리랑』은 고향의 노래로서 살기 좋은 고향을 특별히 많이 노래한다.

멋이로다 우리 산천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노래하자 우리 고향 아리랑 스리랑 좋구요 - 『연변아리랑』(2)

살기 좋은 내 고향 산천은 꿈결에도 잊을 수 없어
아 아리 아리랑 아 스리 스리랑 - 『아리랑 가락 속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사과배는요
내 고향 좋아서 그 맛도 좋소 - 『사과배 따는 처녀』

창작 『아리랑』은 고향의 노래이면서 고향 건설의 노래이다.

자치 기발 이 땅 우에 높이 높이 휘날리던 날
아버지는 아리랑 가락에 덩실덩실 춤추셨네 - 『아리랑 연변』

기와집 짓고서 아들딸 기르니
꽃 피는 새살림 깨기름이 흐른다 - 『새 아리랑』(2)

창작 『아리랑』에서의 고향은 이제는 모국도 아니고 살길을 찾아 떠나온 이주의 땅도 아니다. 새 삶의 터전인 중국 땅이다.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중심지 '연변'이 고향의 대표로서 우뚝 솟아 있다.

아름다운 아리랑 고향 우리의 연변이라네 - 『아리랑 연변』
아름다운 우리 연변 살기 좋아라 살기 좋아라 - 『연변아리랑』(2)

연변 땅에서 길이길이 살아가세 - 『연변아리랑』(4)
꽃 펴나는 연변 땅에 새 세상 온다 - 『새 연변아리랑』

창작 『아리랑』 가사 말뭉치에서의 '고향'(22)과 '연변'(23)의 높은 출현 빈도와 『연변아리랑』, 『새 연변아리랑』, 『아리랑 연변』, 『장백의 새 아리랑』, 『장백산아리랑』 등 제목으로부터 창작 『아리랑』이 고향 연변을 많이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아리랑』은 민족의 노래

백의 넋이 살아 숨쉬는 정겨운 노래 - 『아리랑 메아리』
백의 넋이 살아서 숨쉬는 고개
내 겨레 아리랑 아라리요 - 『내 겨레 아리랑』

상상봉 정기 타고 꿈을 키운 백의민족 아리랑 - 『장백아리랑』
백의겨레의 영원한 멜로디여 아리랑 연변이여 - 『아리랑 연변』
우리 겨레 미풍량속 고운 마음 비꼈구나 - 『된장아리랑』

흰 옷의 숨결이 열두나 메아리 - 『열두 아리랑』
하얀 집 하얀 마을 감돌아 출렁 - 『연변아리랑』(1)
하얀 배꽃 하얀 마음 노래하며 춤을 추네 - 『아리랑 처녀』
바라보니 흰 옷자락 초록 춘풍에 춤을 추고 - 『장백산아리랑』

조선족 동포의 대명사로 '백의민족', '겨레', '우리 민족'의 출현은 물론 '하얗다/희다'의 수식어가 많이 동원됨으로써 중국의 조선족과 한민족은 혈연적으로 동궤임을 보여주고 있다.

3.5. 『아리랑』은 꿈과 희망의 노래

하얀 배꽃 하얀 마을 푸른 꿈 펼치네 - 『아리랑 소녀』
구름 밖에 하늘 밖에 푸른 꿈을 펼쳐가네 - 『아리랑 처녀』
너와 나 어울려 푸른 꿈을 이루고 - 『우리의 아리랑』

할아버지는 아리랑의 하얀 꿈 심으시고 - 『아리랑 연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얀 꿈 - 『우리의 아리랑』
희망의 꿈을 따라 우리 갑니다 - 『영원한 아리랑』(2)

아리랑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 - 『내 사랑 아리랑』
희망의 우리 노래 하늘가에 울려 퍼져라 - 『압록강아리랑』
고향 벌에 두만강은 희망 심누나 - 『새 연변아리랑』

아리랑 가락에 맞춰 우리 소망 불러가네 - 『아리랑 우리 노래』
미래를 위해 떠나간다 오기를 위해 떠나간다 - 『신아리랑』(1)

'꿈'(20)과 '희망'(6)/'소망'(3)/'미래'(3)의 높은 출현 빈도와 '하얀 꿈', '푸른 꿈'으로부터 창작 『아리랑』은 조선족 동포의 아름다운 이상과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아리랑』은 희로애락의 노래

창작 『아리랑』은 오늘날 중국에서 슬픔의 벽을 넘었다. 슬퍼도 아리랑, 기뻐도 아리랑을 부르게 되는 희로애락의 노래이다.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 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 아리랑 슬픔 아리랑 - 『사랑아리랑 행복아리랑』

아 기뻐도 아리랑 아 슬퍼도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연변 아리랑 - 『연변아리랑』(3)

슬플 때도 아리랑 기쁠 때도 아리랑
울고 웃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인생 아리랑』

아리랑 그 슬픔 스리랑 그 기쁨
슬픔 기쁨 함께 나누자 - 『삶의 사랑 넘치는 기쁨』

창작 『아리랑』은 '기쁨'(11)/'기쁘다'(2)와 '슬픔'(7)/'슬프다'(2)가 거의 대칭적 균형을 이루면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리랑을 부르지만 결국에는 기쁨과 즐거움에 더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었다.

아리랑 우리 노래 오늘도 변함없네
아리랑 그 장단에 우리 기쁨 노래하고 - 『아리랑 우리 노래』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에헤야 좋은 날 데헤야 궂은 날
삶의 사랑에 기쁨 넘친다우 - 『삶의 사랑 넘치는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 아라리요
어른들이 춤추며 부르는 노래
즐거운 명절마다 나오는 노래
아리랑에 정이 들며 자라납니다 - 『아리랑』

창작 『아리랑』은 더는 원한과 원망과 슬픔의 아리랑이 아니다. 명절마다 부르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재창조되었다.

3.7. 『아리랑』은 이별과 상봉의 노래

창작 『아리랑』은 이별과 상봉의 노래로 주로 사랑하는 임과의 연정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국 타향 떠나는 길에 사랑을 울리네
사랑도 울고 있네 떠나는 리별 앞에 - 『눈물의 아리랑』

아리 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 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 『사랑아리랑 행복아리랑』

꽃 보고 웃었던가 님 보고 웃었던가
꽃 피자 님 만나 사랑 꽃도 피였네 - 『새 아리랑』(2)

그 옛날 쪽박 차고 울고 넘던 고개
오늘은 사과배 꽃 구름처럼 흐르오 오랑캐령 굽이굽이
기쁨이 찰랑 님이 오는 고개길에 아라리가 났소 - 『연변아리랑』(1)

창작 『아리랑』에서의 이별은 상봉을 전제하면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달 뜨자 님 떠나 울고불고했던가
해 뜨자 님 오니 꽃은 다시 피였네 - 『새 아리랑』(2)

웃기 위해 울고 있다 만남을 위해 헤여진다
미래를 위해 떠나간다 오기를 위해 떠나간다 - 『신아리랑』(1)
울며 넘는 아리랑 고개 왜 아리랑이야
떠나가도 아리랑 돌아와도 아리랑 - 『인생 아리랑』

3.8. 『아리랑』은 그리움의 노래

『타향의 아리랑』, 『귀향 아리랑』에서는 노래의 제목에 걸맞게 고향과 부모처자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부르면서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 저 멀리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
> 그리움에 지쳐도 슬픔에 지쳐도
> 가고 가는 아리랑 열두 고개를 아리랑 - 『타향의 아리랑』

> 이 아들이 돌아가노라
> 고향산천 부모처자 그리워서
> 영을 넘어 돌아가노라
> 고향산천 푸른 꿈을 심으려고
> 아리랑 산천 내 고향으로
> 우리 모두 아리랑 노래 부르며
>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노라 - 『귀향 아리랑』

『귀향 아리랑』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국 타향에서 노무 생활을 하는 사연을 그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움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고자 고향으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었다.

3.9. 『아리랑』은 사랑과 행복의 노래

창작 『아리랑』은 사랑의 노래로서 '사랑'이란 낱말의 출현 빈도가 명사로서는 '아리랑', '고개', '노래' 다음으로 많이 쓰였다. '사랑'이 들어간 노래 제목만 해도 『내 사랑 아리랑』, 『사랑아리랑』, 『아리랑 사랑』, 『사랑의 아리랑고개』, 『아리랑, 나의 사랑』, 『사랑아리랑 행복아리랑』, 『삶의 사랑 넘치는 기쁨』으로 7수가 된다.

청실홍실 아리랑 백년가약 아리랑
우리 함께 부르자 사랑의 노래 – 『내 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영원한 사랑 노래 영원한 너와 나의 노래
영원한 너와 나의 사랑 – 『아리랑 사랑』

님이랑 정답게 사랑 안고 넘어가면
둥근 해님 방실방실 반겨 웃는 산마루
아리랑 동동 사랑의 아리랑 고개 – 『사랑의 아리랑고개』

청단홍단 쌓아가며 님과 함께 꽃핀 사랑
정을 주고 마음 주며 함께 엮은 사랑 노래
아리랑 아리랑 사랑의 아리랑 – 『사랑아리랑』

창작 『아리랑』은 또 행복의 노래로 '행복'과 '행복하다'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리랑 그 가락에 장상모춤을 추고
아리랑 장단 맞춰 우리 행복 노래하네 – 『아리랑 우리 노래』

사랑해도 아리랑 행복해도 아리랑
그리워도 아리랑 추억에도 아리랑 – 『인생 아리랑』
아름다운 장미꽃 사랑의 꽃이여
향기로운 국화꽃 행복의 꽃이요 – 『아리랑 꽃타령』

아리랑 스리랑 아리스리요
아리랑 이 노래는 행복의 노래 – 『내 사랑 아리랑』

정다워라 사랑스런 어머니 두만강
행복의 아리랑이 절로 나네 - 『두만강아리랑』(2)

3.10. 『아리랑』은 자연의 노래

창작 『아리랑』은 자연의 노래로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집거 생활하는 고향의 산천을 노래하고 있었다.

장백산에 해 둥실 뜨니
해란강도 노래한다 노래한다
두만강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 『장백산아리랑』

두만강 아리 아리랑 두만강 아리 아리랑
푸른 물이 출렁이는 력사의 두만강
몇 천년을 흘렀어도 변함없는 두만강 - 『두만강아리랑』(1)

내 고향의 푸른 강아 흘러 흘러라
우리의 춤과 노래 가득 싣고 흘러라
압록강 아리랑 아라리요 - 『압록강아리랑』

칠색단을 곱게 펼친 천지의 폭포수는
이 나라 강산을 아름답게 단장하네 - 『장백의 새 아리랑』
장백산 천지물에 살짝 살짝쿵 미역 감고
두만강에 고운 마음 살짝 살짝쿵 풀어놓고 - 『아리랑 소녀』

온 누리에 백두산은 웃음 날리고
고향 벌에 두만강은 희망 심누나 - 『새 연변아리랑』

창작 『아리랑』은 고향 산천을 노래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 자연의 상징이자 고향의 대표적 상징물들인 ‘장백산’, ‘백두산’, ‘천지’, ‘폭포수’, ‘두만강’, ‘압록강’, ‘해란강’이 빈도 높게 등장하고 있다.

창작 『아리랑』은 고향 산천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고향의 특산물도 노래하면서 ‘사과배’와 ‘진달래’ 쓰임이 빈도 높게 나타났다.

연분홍 진달래야 춤추어 다오
우리 마을 과수나무 꽃 피여 난다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사과배는요
연변의 특산이라 자랑도 많소 - 『사과배 따는 처녀』

『연변아리랑』(2)에서는 연변의 춘하추동 사계절의 자연 풍경을 ‘진달래’, ‘벼’, ‘사과배’, ‘눈꽃’에 담아 입체화하고 있다.

봄이 오면 진달래 아리랑 스리랑 활짝 핀다
여름이면 푸르른 벼 파도 넘실넘실
가을이면 사과배 아리랑 스리랑 주렁진다
겨울이면 새하얀 눈꽃이 눈부신다 - 『연변아리랑』(2)

3.11. 『아리랑』은 공생의 노래

창작 『아리랑』은 더불어 사는 공생의 노래로서 ‘우리’(74), ‘나/내’(48), ‘너/네’(22) 그리고 ‘함께’(19) 등 낱말의 사용 빈도가 특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춤을 춘다 우리 산천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자랑하자 우리 고향 아리랑 스리랑 좋구요
아름다운 우리 연변 살기 좋아라 살기 좋아라 - 『연변아리랑』(2)

세월과 더불어 강산이 변하여도
아리랑 우리 노래 오늘도 변함없네
아리랑 그 장단에 우리 기쁨 노래하고 - 『아리랑 우리 노래』

저 산 언덕을 넘어 이 강반에 울렸네
산과 물의 정이여 너와 나의 희열이여
장백림해 물들이여 행복을 엮어가네 - 『아리랑 사랑』

너와 나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 우리의 소망이 움터 나고
너와 나 함께 만드는 사랑 속에 우리의 행복이 여울친다
너와 나 함께 물드는 노을 속에 우리의 정열이 넘쳐나고
너와 나 함께 달리는 미래 속에 우리의 꿈들이 서려있다 -
『영원한 아리랑』(1)

창작 『아리랑』은 또 중국 땅에서 조선족이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과 더불어 형제 민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아리랑 부르면 진달래꽃 붉게 붉게 피여나고
아리랑 부르면 황금파도 넘실넘실 춤추는 곳
형제 민족 손에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리랑 고향 우리의 연변이라네 - 『아리랑 연변』
세상에 부럼없는 이 고장에서
형제 민족 행복하게 살아가네
우리 민족 세세대대 아리랑 부르며
연변 땅에서 길이길이 살아가세나 - 『연변아리랑』(4)

창작 『아리랑』은 중국과 조선의 우호적인 친선의 화폭도 담고 있었다.

두만강은 칠백리라 친선의 강 두만강
두 나라의 인민들이 살아가는 두만강 - 『두만강아리랑』(1)

친선의 꽃 활짝 피는 우리의 장백산은
조국의 명산이요 연변의 자랑일세 - 『장백의 새 아리랑』

3.12. 『아리랑』은 개혁개방과 세계화의 노래

중국 조선족의 생활 터전이 연변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만이 아니다. 개혁개방의 봄바람을 타고 생활 공간이 해내외로 넓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경 간다 청도 간다 너도나도 떠나간다
꿈을 찾아 덩실 님을 찾아 둥실
한국 간다 미국 간다 여기저기 떠나간다
구름 타고 덩실 바람 타고 둥실 - 『신아리랑』(1)

세관을 나드는 장사군들 천하의 도화원 여기라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동녕 아리랑 - 『동녕아리랑』

창작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중국을 넘어 세계로, 지구촌으로 확장하면서 개혁개방의 노래로, 세계화의 노래로 승화되었다.

아리랑 우리 노래 아리랑 고개를 넘고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너도 나도 부르고 부르네 - 『아리랑 우리 노래』

도문강 푸른 물에 설레는 노래

4. 맺는말

중국 조선족 창작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면서도 전반 흐름이 과거를 뒤로하고 오늘을 많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창작 『아리랑』은 개방성과 생산성으로 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민과 개척 그리고 해방, 고향과 민족, 꿈과 희망, 희로애락, 이별과 상봉, 그리움과 추억, 사랑과 행복, 자연과 공생, 개혁개방과 세계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더 이상 상실과 한을 찾아볼 수 없다. 『아리랑』의 지형이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었다. 어두움보다 밝음을 표현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짙어서 창작 『아리랑』은 한을 극복한 아름다운 멜로디로 승화되었다.

창작 『아리랑』이 그린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이미지 지도는 어떤 것일까.

지리적으로 조선족 동포사회의 중심지 연변을 중심으로 전 동북아가 망라된다. 백두산이 우뚝 솟아 천지와 폭포를 이루어 두만강, 압록강, 해란강이 흐르는 천하 절승이다. 봄이면 진달래꽃이 피고 여름이면 푸른 벼 파도 넘실거리고 가을이면 사과배 주렁지고 황금파도 출렁이며 겨울이면 새하얀 눈꽃이 피는 사계절이 분명한 살기 좋은 고향이다. 그곳에는 백의민족이 형제민족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데,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추억, 이별과 상봉이 조화된 희로애락의 세계에서 행복과 사랑과 희망의 노래로 춤추는 공생의 세계지도이다.

【참고문헌】

강보유(2013) 「중국인이 느낀 아리랑의 이미지」, 『남도민속연구』 26, 남도민속학회, 33-46.

김봉관·리광인 집필(2015) 『중국조선족아리랑』, 민족출판사.

김승철·남희철(2008) 『우리 노래 50년』, 연변인민출판사.

김연갑(1998) 『아리랑- 그 맛, 멋 그리고…』, 집문당.

김창근·주필(2007) 『연변방송가요 700수』, 연변인민출판사.

김창근(2014) 『중국조선족가요 100수 분석』, 연변인민출판사.

김태준·김연갑·김한순(2011) 『한국의 아리랑 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대중가요대백과 편찬소조 편(2012) 『대중가요대백과』,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연변아동음악학회 편(2013) 『중국조선족 동요대전』,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등 편(2007) 『중국조선족가요대전』, 연변교육출판사.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연길시문학예술계련합회 편(2012) 『조한대역(朝汉对译) 조선족애창 가요 60수』, 연변인민출판사.

조용호(2011) 『아리랑의 원형연구』, 학고방.

본조아리랑의 유래에 대한 고찰

On the Origin of Poncyo Arirang

공명성[1]
조선사회과학원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사랑하고 즐겨온 우리 인민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로동과 사회생활과정에 자기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수많은 노래들을 만들어 불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요〈아리랑〉에서는 아름답고 유순한 선률로써 조선사람의 민족적감정과 넋을 잘 살려냈기때문에 선률만 들어도 민족수난에 찬 력사가 되새겨지고 향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진다.》(《김정일선집》 11권, 431).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해방전까지는 우리 인민들이 봉건사회의 숨막히는 질곡속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시기였으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온 민족수난의 시기였다. 이시기 우리 인민이 창조한 대표적인 민요가운데는 오늘날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로 불리우는 '아리랑'이 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인민창작인것으로 하여 언제 누구에 의하여 불리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채보는 언제 정확히 되였는가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설이 없이 여러가지 견해들이 류포되고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본조아리랑의 유래에 대하여 력사적인 자료들에 기초하여 필자의 견해를

1 Myong Song K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밝혀보려고 한다.

종래의 연구들에서 기본적으로 일치되는 견해는 해방전까지 '아리랑'의 발전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 따라 봉건시기인 조선봉건왕조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근대시기와 현대초기로 나누어보았다는것이다.

'아리랑'과 관련한 자료는 조선봉건왕조전반기와 후반기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으므로 이 시기 '아리랑'의 발전에 대해서는 력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명할수 없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아리랑에 대하여 공백으로 남겨둔다면 '아리랑'의 발전과정을 전반에 걸쳐 다 알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자료적근거도 없이 이 시기에 '아리랑'은 어떻게 발전하여왔다고 나름대로 말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 '아리랑'의 발전은 근대시기에 나온 자료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꺼꾸러 올라가면서 그려보는수 밖에 없다.

근대시기에 나온 '아리랑'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해 본데 의하면 이 시기에 '아리랑'은 전국 각지방들에 고착되여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는 우선 '아리랑'의 첫 채보자인 헐버트와 『해동죽지』의 저자 최영년이 남긴 기록자료들이 그것을 말하여주고있기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1896년에 이 노래를 처음으로 채보하여 출판한 헐버트는 "…이 노래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고 하였고 『해동죽지』의 저자 최영년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이 노래가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으나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였다. 최영년의 『해동죽지』가 1925년에 나온것만큼 이보다 앞서 30년전이라고 하면 19세기 말경이라고 할수 있다.

이 자료들은 '아리랑'이 19세기중엽에 이미 전국 각 지방들에서 다 불리워지면서 고착되여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 근거는 또한 1920년대에 발굴된 '아리랑'가운데는 각이한 지방명칭

이 붙어있는 노래들이 적지 않게 발굴되였기 때문이다.

1920년-1930년까지 발굴수집된 '아리랑'에는 강원도, 정읍, 서울, 밀양, 정선, 공주, 구례, 남원, 서산, 안주, 영일, 하동 등 각이한 지방명칭이 붙어있는 노래가 12편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 '아리랑'들은 모두 근대시기인 조선봉건왕조말까지 각 지방들에서 불리워지고있던 노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근대시기에 '아리랑'은 전국각지에 다 분포되여있었고 그것은 매 지방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노래로 고착되여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근대시기에 '아리랑'이 각지방들에 고착되여 있었다면 그것은 그 이전시기인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각지방들에 전파되면서 점차 고착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17세기-19세기중엽)에 '아리랑'이 각지방들에 흘러들어가게 되였다고 볼수 있는것은 우선 이 시기에 조성되였던 사회력사적환경과 관련된다.

임진조국전쟁이후 우리 인민은 1627년 후금의 침략과 1636년에 있은 청나라의 침략으로 전국적범위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고 전후에는 봉건통치배들의 악날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 나서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17세기후반기의 기록자료에 "사람들 모두가 란을 일으킬 생각만 품고 있을뿐"이라고 한데서 당시 인민들이 통치배들에 대하여 얼마나 증오하고 있었는가를 알수있다(『현종 개수실록』4권, 원년 8월 무자).

또한 이 시기에는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로 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깊은 산골로, 변방으로, 바다가나 외진 섬으로 떠나는 류랑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았기때문이다.

『현종개수실록』에 의하면 각도에서 국가의 역을 피하여 10-100명씩

무리를 지어 산골로 들어갔으며 1674년 평안도 성천에서는 4천명의 류랑민들이 모여 화전농사하고있다고 하였으며 1711년 전라도 무안고을에서는 5천호가운데 2천호가 떠나갔고 1723년 평안도 구성에서는 8천호 가운데서 남은것은 3천호도 못되였다고 하였다(『비변사등록』 숙종 37년3월20일, 『경종실록』 11권, 3년 3월 경자).

이런 기록자료를 통하여 이 시기에 류랑민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의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은 자연히 리별을 낳게 하였을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류랑하는 과정에 리별의 슬품과 괴로움을 담은 '아리랑'도 그들과 함께 각 지방으로 흘러들어가 점차 자리를 잡게 되였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 시기에 '아리랑'이 각지방으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근대시기인 1800년대말에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불리워지지 못하였을것이다.
이처럼 '아리랑'은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각 지방으로 전파되면서 각지방들에 점차 뿌리를 내리게되였다고 볼수 있다.

'아리랑'이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각 지방으로 전파되기 시작였다면 그것은 조선봉건왕조전반기(13세기말-16세기)에 각 지방으로 전파될수 있으리만큼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고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은 우선 민요 발생발전의 합법칙적과정과 관련되여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민요이든지 지금의 가요처럼 처음부터 완성되여 나오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정한 기간 반복하여 부르는 과정에 공고화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점차 보충세련되면서 완성된다.

마찬가지로 '아리랑'도 발생초기에는 매우 단순하고 수준이 낮은 노래였겠지만 여기에는 당시 인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바라던 문제들이 반영되여 있는것으로 하여 이 노래는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졌

을것이다.

이시기는 인민들에 대한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특히 공물과 진상, 부역에 의한 착취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었고 그들의 생활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공물(정부에 현물로 바치는지방의 특산물)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1590년 윤두수가 편찬한 『평양지』와 1618년에 리수광이 편찬한 『승평지』에 의하면 평양부에서는 약 40종, 승평부(전라도 순천)에서는 근 80종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15세기에 비해 근 2배나 늘어난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1552년(명종7년)에는 몇년째 큰물과 가물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고 거기에 전염병까지 덮쳐들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른 지방으로 떠나갔다.

자료에 의하면 “옛날에 열집이 있던 동리가 이제는 아홉집이 비여버리고” 1576년 5월에 평안도에서만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만명이나 되였고 그뒤에 4000명이 더불어났다고 한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다 (『명종실록』 13권, 7년 정월 경자, 『선조실록』 10권, 9년 8월 신유). 또한 당시의 기록에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나가 마을은 쓸쓸해지고 논밭은 거칠어 졌으며 100리를 가도 사람의 그림자를 보기힘든 처량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였다”라고 한 자료는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떠나 갔는가를 말하여 준다 (『률곡신서』 3권, 사간원에서 당시 형편을 진술한 상서).

이로부터 시기에 우리 인민은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전국각지에서 무장투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대표적인것만 보아도 1500년을 전후로하여 벌어진 홍길동의 무장투쟁, 1503년에 평안도 홍자관이 지휘한 무장투쟁, 1507년경기도 김포에서있은 백정들의 무장투쟁, 1530년에 전라도 중들이 일으킨 무장투쟁, 1559년을 전후하여 황해도 에서있은 림꺽정의 무장투쟁 등을 들수 있다. 특히 이시기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된 임진조국전쟁(1592-1598)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은 자연히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안해, 형제들 사이에 리별을 낳게 하였고 이러한 리별의 괴로운 심정을 담은 '아리랑'이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워질수 있었고 그 과정에 '아리랑'은 점차 세련되면서 자기의 면모를 뚜렸하게 갖추게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 시기에 '아리랑'이 자기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게 되는것은 또한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이 노래가 각 지방으로 전파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지만 '아리랑'은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각지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만일 이 노래가 다른 지방의 인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면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각지방으로 전파되지 못하였을것이다. 이 노래가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각 지방으로 전파되였다는것은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 다른 지방으로 전파될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초엽에 나온 '아리랑'은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 자기의 면모를 뚜렷하게 갖춘 세련된 노래로 발전하였고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는 각지방으로 전파되였으며 근대시기에 이르러 그것이 지방마다 고착되였다고 볼수 있다.

근대시기는 우리 인민의 반침략 및 반봉건투쟁력사에서 가장 복잡다난했던 1860년대로부터 192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이 시기는19세기중엽-20세기초인 조선봉건왕조말기와 1905년-1920년대 전반기 일제의 조선강점시기로 나누어볼수 있다.

19세기중엽-20세기초인 조선봉건왕조말기는 사회경제관계에서 변화가 촉진되여 봉건제도가 급속히 와해되고 자본주의 렬강의 침략과 봉건사회의 모순으로 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이 격화되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는 근대적 발전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높아지던 시

기이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경영형태가 급속히 발전하고 수공업분야에서 임금로임제가 실시되였다. 이에 따라 수백년간 내려오던 량반제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고 파산몰락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 몰려들어 수공업자로 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유미자본주의 렬강들의 침략이 강화되여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 1882년에는 미국과 '조미조약'이 체결되고 이어 영국, 짜리로씨야, 도이췰란드, 프랑스 등과 예속적인 불평등조약들이 련이어 체결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근대발전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개화사상이 발생되고 애국적문화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이 시기에 '아리랑'은 각 지방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노래로 고착되여 있었고 그에 대한 발굴과 소개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와서 '아리랑'은 각 지방들에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노래로 고착되여 있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각 지방으로 흘러들어간 '아리랑'은 해당 지방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적요구에 맞게 조식, 음조, 리듬, 장단 등이 변하면서 점차 지방적특성을 띠고 발전하여왔으며 이 시기에 와서 각 지방들에 고착되여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 하였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는 출판물을 통하여 '아리랑'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발굴된 '아리랑'은 모두 4편인데 헐버트가 채보한것은 1896에 출판된 영문잡지 『조선류기』에, 노부오가 채보한것은 1901년에 출판된 『조선반도』에, 알렌이 채보한것은 1908년에 출판된 『조선견문기』에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이 발굴한 『아르랑타령』의 가사는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8일부에 소개되여 있다.

이처럼 '아리랑'은 조선봉건왕조말기인 근대시기에 와서 각 지방마다 고착되여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발굴과 함께 소개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1905년-1920년대 전반기는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 대한 악독한 폭압정책과 경제적략탈을 강화하던 시기였다.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5조'을 날조하고 1910년 8월 22일에 '한일합병조약'을 강박하여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실시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문화발전의 길을 가로막아 나섰다.

일제는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허용하지 않았고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인사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또한 일제는 산업분야에서 모든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갔고 '토지조사령'을 발표하여 조선사람의 토지를 대대적으로 빼앗아 냈으며 귀중한 민족문화재보들을 강탈하여 본국으로 실어갔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리랑'에 대한 발굴사업이 점차 심화되였다.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와 생활풍습, 기호와 취미, 성격과 기질 등을 알아내여 제놈들의 정책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하여 주체1(1912)년에 조선총독부의 지시로『리언, 리요 및 통속적독물등조사』(토속적인 말, 노래, 통속적인 글 등)놀음을 벌렸다.

이 조사보고서에는 '아르랑타령', '아리랑가', '아라리타령' 등 각이한 곡명을 가진 가사 7편이 들어있다.

그후 1926년까지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15편의 '아리랑'들이 발굴되여 『조선속곡집』(1914), 『신구시형잡가』(1914), 『증보신구잡가』(1921) 등 이 시기에 출판된 여러 신문, 잡가집들에 소개되여 있으

나 그 대부분은 가사뿐이였다.

이 시기에 '아리랑'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1926년에 작곡가 김영환에 의하여 무성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인 '아리랑'이 새롭게 편작되여 나온것이다.

이 '아리랑'은 당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음과 왜놈들에 대한 원한을 민족적감정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만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때부터 이 노래는 왜놈들에 대한 항거와 투쟁의 노래로, 조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곡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리고 이 '아리랑'이 나오게 됨으로써 각 지방의 '아리랑'들은 해당 지방의 노래로 고착되였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며 그에 대한 발굴 및 연구사업과 창작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무성영화의 주제가인 '아리랑'이 세상에 새로 나와 일제를 반대하는 항거의 노래로 널리 불리워지게 되자 일제는 1929년에 이 '치안방해'라는 구실로 금곡령을 내렸고 1931년에 발행한 『정선조선가요집』에 수록된 이 노래의 5절 가사를 삭제하게 하였으며 '아리랑'이 수록되여 있는 레코드제작과 판매를 일체 금지시키는 악날한 조치까지 취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깊이에 뿌리를 내린 이 노래를 없앨수도 빼앗아 낼수도 없었다. 왜놈들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일제와 맞서 싸웠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리랑'에 대한 발굴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아리랑'이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되자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발굴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1926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적지 않은 '아리랑'들이 발굴되여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들과 『조선』, 『농민』 등 잡지들 그리고 『조선민요집』, 『조선가요선집』 등 출판물들에 소개되였다.

특히 '아리랑'에 대한 발굴사업은 이 노래가 가장 널리 불리워지던 1929-1931년에 많이 진행되였는데 이때 발굴된것만 하여도 20여편이 넘는다.

그런데 해방전에 발굴된 '아리랑'들은 대체로 가사로만 발굴하여 출판되였기때문에 해당 노래가 어떤 곡조에 맞추어 불렀는지 알수 없다. 이것은 이 시기 '아리랑'에 대한 발굴사업이 주로 언론인, 민속학자, 문학 전문가들에 의하여 진행되였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아리랑'에 대한 창작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김영환에 의하여 영화주제가인 '아리랑'이 나온 이후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음악가들속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 넋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아리랑'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그 가운데는 『신아리랑』(조선농민 38호 1929년), 『신작아리랑』(조선 153호 1930, 7) 등과 같이 선률은 그대로 두고 곡명과 가사만 새로 만든것도 있다.

또한 『봄맞이 아리랑』(김정섭작사, 리면상작곡), 『삼아리랑』(창작가 미상, 리면상 개작), 『아리랑 랑랑』(박영호 작사, 김교성 작곡)등과 같이 '아리랑'의 후렴 가사를 리용하여 가사와 선률을 새롭게 창작한 노래도 있다.

이 시기에 새로 창작된 '아리랑' 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을 보면 『삼아리랑』(작시 작곡 미상, 편작 리면상), 『아리랑랑랑』(박영호 작사, 김교성 작곡)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에 새로 창작된 '아리랑'들은 전통적인 '아리랑'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공통적인것은 주제내용에서 다 같이 남녀간의 련정을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차이점은 '아리랑'의 반복부가사를 그대로 또는 변화시켜 조흥구로 리용하고 있는것이고 시가형식에서 전렴과 후렴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

은것이며 선률은 민족적정서가 진하며 밝고 명랑하고 흥겨우면서도 현대감이 나는것이다.

새로 창작된 이러한 노래들은 사람들에게 민족의 넋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리랑'에 대한 연구사업도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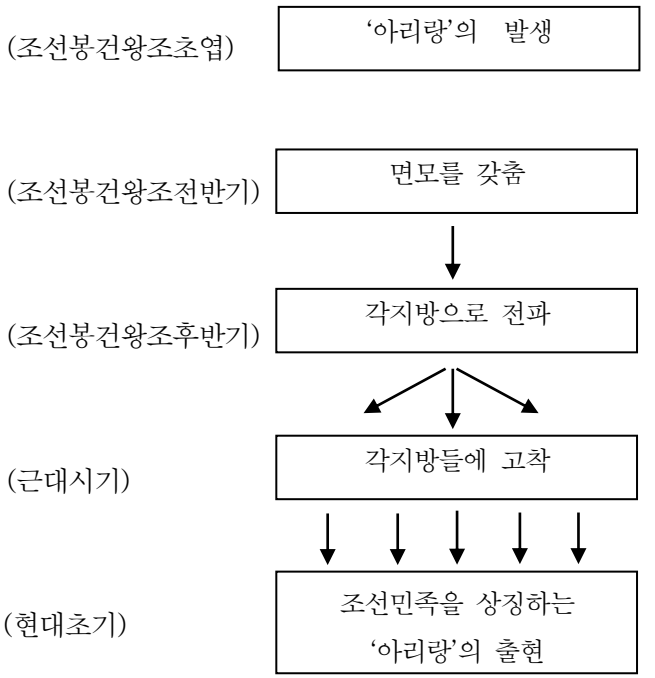
'아리랑'이 각계각층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게 되자 학계에서도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였고 '아리랑'의 발생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여러가지 설들을 내놓게 되였다.

이 시기에 내놓은 설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알영설』(인명설)(김지연)
② 『아랑설』(전설)(김재주)
③ 『아리랑설』(한자풀이설)(김덕장)
④ 『아이롱설』(한자풀이설)(남도산)
⑤ 『아난리설』(한자풀이설)(강태호)
⑥ 『아리롱설』(한자풀이설)(권상도)
⑦ 『아미일영설』(한자풀이설)(인민)
⑧ 『아랑위설』(한자풀이설)(리능화)

이처럼 현대초기에 '아리랑'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의 민족적설음과 울분, 놈들에 대한 원한과 항거의 노래로 널리 불리워졌고 이에 따라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굴, 창작, 연구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해방전시기까지 '아리랑'의 발전과정을 도식을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초엽에 발생한 '아리랑'은 조선봉건왕조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오랫동안 부단히 발전해왔고 근대시기에 이르러 각 지방별로 고착되였으며 현대초기에 영화주제가로 '아리랑'이 새로 나온이후 그것은 우리 나라의 민요를 대표하고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아리랑’의 사회적 구축에 대하여

About Social Construction of “Arirang”

森 類臣[1]
大谷大学

1. 들어가며

‘아리랑’[2]과 ‘코리아 (Korea) ’는 분리할 수 없다. ‘아리랑’ 하면 ‘코리아’이고, ‘코리아’하면 ‘아리랑’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조선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조선반도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안 역시 각자의 집단에서 독자적인 ‘아리랑’을 창작하여 노래하며 계승하고 있다. 이른바 ‘아리랑’은 ‘코리아’의 상징이면서 민족 통합을 표상하기도 한다. 즉 한/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아리랑’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아리랑’은 “하나의 노래이자 노래 이상의 민족사와 사회 합의를 담은 상징”(植村幸生 2013: 15)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실체이기도 하다. 이는 남북과 재외 코리안 사회에서 실제로 기능하며 작동하고 있다.

‘아리랑’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리랑’의 기원과

1 Tomoomi Mori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Letters, Otani University, Chief executive secretary of ISKS Japanese Branch).
E-mail : tt-mori@res.otani.ac.jp

2 본고에서는 괄호를 붙여 ‘아리랑’이라고 표기한다. ‘아리랑’이 가리키는 개념은 광범위하여 전문가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소리로서의 아리랑, 즉 ‘아리랑소리’를 중심으로 다룬다. ‘아리랑소리’는 이보형이 소리의 형태로 한/조선반도에 전승되는 수많은 종류의 아리랑들을 총칭하여 제시한 용어이다(이보형 2009: 95).

어원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본고에서는 '아리랑'이 문화 표상(cultural representation)의 기원이 된 시기와 수용 과정,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기능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즉 '아리랑'의 사회적 구축 실태를 살피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있다. 때문에 본고에서 그 전부를 다루고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문적인 성과 중, 일부를 소개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추가적으로 제시해 보았다[3]. 즉,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 '아리랑'의 구축 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2. '아리랑'의 다양한 성격

'아리랑'의 성격은 실로 복잡 다양하다.

'아리랑' 연구는 기원설과 어원설과 같이, 그 근원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근원에 대한 결론이 매듭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원래부터 민중들이 폭넓게 부르며 계승해 온 민요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아리랑'은 본조아리랑이 대표적으로 근대에 이르러 민요로써 재편됐다. 즉 '아리랑'은 전근대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근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선 본고에서 다루는 '아리랑'의 성격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아리랑'은 여러가지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재창조되었다. 본조아리랑[4]을 비롯한 다양한 아리랑소리가 대표적이다. '아리랑'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폭점이 된 영화 <아리랑>을 위시하여, 제목과 내용에서 '아리랑'

3 본고는 새로운 학술 지견을 발견 및 제시하는 원저논문이 아님을 명시한다. '아리랑'에 관한연구사 연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4 김영운(2013: 6)에 의하면 남측의 본조아리랑은 북측에서 '신아리랑'이라고 불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본조아리랑'이라고 한다.

을 핵심 주제로 표방한 영화, 연극과 오페라 및 집단체조와 같은 무대예술, 현대시와 소설 형태의 문학 작품, 대중 가요, 심지어는 종교계의 찬송 예배로까지 '아리랑'은 실로 무궁무진한 장르의 소재로 각광을 받았다(김은희 2016: 305-308).[5] 강등학(2007)은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양상이 '아리랑' 전승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의 형상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는데, 형질실현과 의미표상이 바로 그것이다.[6] 본고에서는 '아리랑'이 의미표상으로 전승된 예를 중심으로, 각 문화콘텐츠의 주제가 '한반도와 민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경우와 '아리랑'이 '남북 평화와 통일'의 매개로 표현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권갑화 2014).[7]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분단 이후의 대한민국(이하, 남측)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측)의 연구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역사 내 문화사례를 어떻게 드러내왔는지를 서술하였다.

먼저 반드시 다루어야할 것은 나운규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감독 및 출연한 영화 <아리랑>(1926년)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노래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아리랑'의 통속성에 의하여 1930, 1940년대 당시 일본 본토에서 '아리랑' 문화콘텐츠가 크게 유행했다. 일본에서의 '아리랑' 은 여러 면에서 환골탈태하여 재창작 되었는데, 원래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코리아의 이미지인 이국적 정서의 그

5 2016년 4월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한 한·중 신촌음악회 기독교의 예배 찬송에서 '아리랑'을 주제로 전도곡을 소개, 발표하였다. 찬송가의 가사의 일부분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나의 주님/ 아리랑 고개로 오시었네/ 이 민족의 상처와 한을/ 치유해 주실 분은 우리주님"(김은희 2016: 305-308).

6 강등학은 '아리랑'의 전승이 형질실현과 의미표상의 두 측면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전자는 '아리랑'의 본래적 형질을 되살리는 일로, 본조아리랑을 비롯한 각종 '아리랑소리'를 한 예로 들 수있다. 후자는 '아리랑'을 한/조선반도와 민족을 상징하는 문화기호로 인식하고 여기에 내포한 의미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7 권갑화는 '아리랑' 문화콘텐츠 가운데 의미표상을 중심으로 한 창작 지향을 주제별로 세분화시켰다. 즉 한국과 한/조선민족의 정체성 표상・민족적 고난 서사와 극복 의지・평화·통일과 희망상징・한/조선민족 디아스포라의 표상・지역 '아리랑'과 역사형상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각 주제별로 '아리랑' 문화콘텐츠를 서로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다. 이들 주제를 나타내는 '아리랑' 문화콘텐츠는 서로 관련있으며 연동하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른 발표자와의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앞서 언급하고 선정한 주제별 분류로 한정시켜 '아리랑' 문화콘텐츠의 내용을 다루었다.

것만을 차용했던 것이다. 곡조와 가사는 대폭 변경하여 이른바 피식민지로서의 코리아 취향을 남긴 일본산 '아리랑'을 창작하여 소비했다. 통속적인 오락과 소비의 대상이 된 '아리랑'은 저항의 노래로 민족성을 담았던 '아리랑'과는 상반된다.

한편 이 영화로 유명해진 '아리랑고개'도 한/조선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동권(2004: 189)은 "아리랑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가시적으로는 정든 고향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나뉘는 것이다. (중략) 아리랑고개를 넘는 것은 일제 식민지의 기득권층인 지주와 일본인에게 삶의 뿌리가 뽑혀서 고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측에는 전국 각지에 '아리랑고개' 라는 지명이 붙어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아리랑고개'이다. 나운규가 영화 <아리랑>을 이곳에서 찍었다고 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북측의 '아리랑고개'는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고개이고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다.[8] 반면 남측에서는 '아리랑고개'를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아리랑고개는 좌절과 시련의 역사, 그리고 이를 극복한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도 존재하는 지명으로써 소개하고 있다.[9]

'아리랑'은 다채로운 족적을 남겼다. 이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써 역사적 접근이 있다. 조동일은 2011년에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주최한 「아리랑 국제학술대회」에서 '아리랑'의 역사적 위상을 6개로 구분했다. 이에 대해 植村幸生(2013: 7-18)는 "이 견해는 《아리랑》의 원류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흐름에서 한국 내 연구 성과와 인식의 도착점을 거의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植村 자신의 음악학적 관점을 기본으로, 조동일이 제시한 역사적 위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8 「북한 잡지가 소개한 '아리랑' 연원과 의미」『연합뉴스』2002년 2월 20일 (게재지는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17)

9 「근대이후-아리랑고개」『성북문화원 우리동네 문화찾기』(http://www.tour.isbcc.or.kr/htour/remain06.php?board_idx=122&endcode=00GG23)

아리랑① 강원도 지방에 전하는 ‘아리’라는 말을 포함하는 다수의 민요군을 지칭
아리랑② 목공들이 노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락화한 것
아리랑③ 19세기 말, 기존의 민요를 개작한 ‘신민요’로서 생긴 ‘아리랑’과 ‘소리아리랑’으로 ‘정선아리랑’의 개작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아리랑③-1 ‘경기 긴 아리랑’
아리랑③-2 ‘경기 긴 아리랑’에서 파생된 ‘구조 아리랑’
아리랑③-3 ‘구조 아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리랑, 즉 ‘본조 아리랑’
아리랑④ 20세기 초에 ‘서울아리랑’을 기본으로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생긴 ‘아리랑’으로 ‘진도아리랑’등
아리랑⑤ 1910년 이전에 아리랑③과 아리랑④를 가지고 이주한 사람들의 ‘아리랑’으로 연변과 사할린, 중앙아시아 등에 분포
아리랑⑥ 아리랑③을 기본으로 각 미디어에서 전개된 아리랑 문화

(植村幸生 2013: 8-9)

植村는 ‘아리랑’의 구축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기본적인 연구의 지형 지도로서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이 지형 지도를 기초로 ‘아리랑’의 역사 족적을 살펴보았다.

3. ‘아리랑’ 연구 실태 및 역사적 사례

3.1. 남측을 중심으로

해방 직후 1940년대 남측의 ‘아리랑’ 연구는 주로 민요 어원 분석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순수 문학 분야에서 ‘아리랑’을 분단과 통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다루기도 했다. 한 예로 1948년 원한생 (怨恨生) 이 발표한 현대시 ‘아리랑 삼팔선(三八線)’에서 가감없이

이것이 표현되었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김연갑 1986: 423-424).[10]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삼팔선(三八線)고개에 가마귀운다
> 삼팔선(三八線) 못넘는고개
> 삼천만원한(三千萬怨恨)이 사못처고나
> 후략

1950년대 '아리랑' 연구는 1940년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제목상에 구체적으로 민족과 '아리랑'을 결부시킨 서적이 다수 출판됐다.[11] 한편 대중 문화 속에서는 대중가요로서 1958년 '아리랑 맘보'와 1959년 '아리랑부기우기'가 '아리랑'과 외국 음악이 합쳐진 형태로 등장하였다. 명랑 소설을 싣던 대중 잡지로 '아리랑'이 출간되었던 때도 1950년대였다(김현주 2012). 상대적으로 1940년대에 비해 '아리랑'이 한/조선반도 통일의 이미지로 차용된 문화콘텐츠는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연구 측면에서 1960년대의 '아리랑'은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 대중가요로서 '아리랑'은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아리랑 럭키세븐」, 「아리랑 트위스트」와 같은 외국 리듬을 차용한 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다. 1966년에는 서기원(1966: 166-181)은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여 남북 분단과 이로 인한 재일 교포의 현실, 그리고 이념과 관련하여 감시가 뒷따르던 남측의 현실을 통렬히 풍자하였다.

---

10 이 책에서'아리랑 삼팔선(三八線)'은 '창작편'에 소개되고 있다.

11 다음 인터넷 페이지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출간된 '아리랑' 관련 서적의 이름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1940년대에는 '민족'과 '아리랑' 이 함께 제목에 등장하는 서적이 한권도 없지만 1950년대에는 다소 출판됐다.(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435&index_id=cp04350226&content_id=cp043502260001&print=Y)

1970년대에 비로소 남측에서, 정부 차원에서 민족을 투사한 '아리랑'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예가 등장하였다. 1976년 정부가 주도한 제1회 '정선아리랑' 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1970년대는 남측과 북측 모두 민족주의의 열풍과 주체사상의 정립에 따라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시기였다(김기현 2004: 170). 대중 문화에서도 '아리랑'과 관련된 문화콘텐츠가 많이 등장했다. 그 예로 1974년과 1976년에 각각 발표된 가수 하춘하의 대중가요인 '영암아리랑'과 '아리랑목동'이 있다.[12]

1980년대부터 남측과 북측 통합의 상징으로 '아리랑'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 1985년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문화예술교류를 시작하였는데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그 기점이었다. 1985년 9월 21, 22일 이틀동안 평양과 서울에서 서울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이 각 2회씩 공연을 하였다(유병문 2005: 146-149). 남북고향방문 예술공연단은 평양대극장에서 다음 가사의 '아리랑'을 불렀다(조현주 1989: 55).

> 어두운 세월은 다 지나가고/ 희망찬 새아침 밝아온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복된 내일을 기약하며/ 육천만 하나로 뭉쳐간다.
> 우리네 모두가 형제자매/ 내 몸처럼 아끼며 살아가세

한편 1986년 남측의 군부는 '아리랑'을 군가로 채용했다. 1986년에 제정된 '아리랑겨레'이다.[13] 또 1988년 4월에 개최된 '제1회 아리랑제'

12 가수 하춘하는 나훈아와 함께 1985년 9월 남측 가수 최초로 평양공연을 하였다.

13 「[군가이야기] 격동의 세월속 65곡 탄생...대부분이 가요풍」『국방일보』2015년 9월 24일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m/view.do?ntt_writ_date=20150925&bbs_id=BBSMSTR_000000001112&parent_no=1). 또한 '아리랑겨레'는 2016년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에서 유난히 애용되기도 하였다. 2017년에도 군대에서 10대 군가 중 하나로 애창되고 있다. '아리랑'이 군대 콘텐츠와 결합하는 경우는 적지 않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부터 독립군과 광복군이 '아리랑'을 군가로 채용한 사례는 많이 존재했다(이용식 2005:154).

에서 '아리랑선언문'이 채택됐다. 그리고 음악학자·국문학자들이 「아리랑연구회」를 발족하여 '아리랑'의 음악적 특성과 가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1989년 8월 초 「한민족아리랑보존연합회」가 결성됐다. 같은 해에는 국내 최초로 '아리랑'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인 '아리랑의 문학적(文學的) 연구'로 박민일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조현주 1989: 50).

1989년 3월 남북체육회담에서 북측이 아리랑연주곡을 연주하였고, 이어 3월 25일에는 문익환 목사가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대담하였는데 이 때 본조아리랑을 국가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하였다고 한다(김연갑 등 2011). 같은 해에는 남북이 제11회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단가로 본조아리랑을 채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1989년 한 해에 '아리랑'과 관련된 사안이 줄을 이었으며, 당시 대학가에서는 「통일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조현주 1989: 50).

> 우리 모두 아리랑 마음에 새겨
> 아리랑 통일을 이뤄보세
> 아리랑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랑가 났네
> 남한에도 아리랑 북한에도 아리랑
> 아리랑은 이 나라의 통일의 노래

1990년대에는 정부와 민간 모두 '아리랑'을 통일과 평화의 이미지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조했다. 또한 학계에서도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조선족과 고려인과 같은 재외동포들의 연구에 '아리랑'을 연관시킨 많은 저작물이 등장하였다.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단일팀이 본조아리랑을 공식 단가로 지정했다.

1990년 12월부터 조정래가 한국일보에 소설 '아리랑'을 연재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제1회 윤이상통일음악제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그

이전에 1970년에 북측의 최성환이 작곡한 ‘관현악곡 아리랑’을 남한의 작곡가 박범환이 평양국립교향악단 지휘로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공연하였다(박범훈 1999: 13-17). 민중 가요에서 힙합까지 여러가지 장르로 편곡된 ‘아리랑’이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많이 발표되기도 했다.

2000년에 들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아리랑’은 남북 공동의 무대에서 주목받았다.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기념공연에서도 본조아리랑이 연주됐다. 공식 음악회와 각종 환영식에서 ‘관현악곡 아리랑’· ‘영천아리랑’· ‘경상도아리랑’· ‘통일아리랑’을 환영음악으로 연주했고, 8월에는 남측에 온 평양국립교향악단이 공연 첫 목록으로 ‘관현악곡 아리랑’을 선보였다(김연갑 2002b: 33). 같은 해 9월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공동팀의 국가 대신 본조아리랑이 연주되기도 했다. 2005년 조용필이 평양에서 처음 공연했을 때, 북측은 조용필에게 예정에 없던 1990년에 작곡된 남측 대중 가요 ‘홀로아리랑’을 노래해달라고 부탁했다.[14] ‘아리랑’에 대한 남북 공통의 공명을 상기시켜주는 일화이다. 민간에서도 2000년대에 ‘아리랑’을 주제로 한 각종 문학 작품과 대중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졌다. 민간 내부의 자발적인 수요보다 월드컵 축구 대회나 정부의 국가브랜드 전략과 같은 외부 영향이 ‘아리랑’ 문화콘텐츠 촉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권갑하 2014: 324).

2010년에는 ‘아리랑’과 관련하여 많은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바로 남측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한 ‘아리랑’을 둘러싼 문화 알력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남측 사회의 많은 ‘아리랑’ 관련

14 <홀로아리랑>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저멀리 동해바다 외로운섬 오늘도 거센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잤느냐/ 금강산 맑은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물도 동해가는데/ 우리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가보자”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소동은 2012년 12월 유네스코가 '아리랑'을 남측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확정하여 일단락됐다. 이는 학계 내의 '아리랑' 관련 연구 활성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3.2. 북측을 중심으로

해방 후 북측 문화공간에는 소련의 사회주의 문화가 들어왔다. 이 시기 북측은 친일 세력을 배제하면서 사회 구조를 사회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제 시대라는 과거와의 단절을 추진했다. 이 때에 "아리랑이 주목 받거나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은 힘들었을 듯 하였다"(林慶花 2013: 81). 이후 북측은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기초한 민요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민요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林慶花(2013: 83-85)에 의하면 1956년에 조선작곡동맹이 간행한 '해방 후 조선음악'에는 '아리랑'이 인용되어있지 않으며 테라오 고로(寺尾五郎)의 북측 방문기인 '38선의 북쪽'에도 '아리랑'은 거의 부르지 않았다. 이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문화 형성을 시작한 시기에 '아리랑'이 거의 주목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57년에는 커다란 분기점이 있었다.

1957년에 나운규가 북측에서 재평가 받은 일이 바로 그것이다.[15] 그리고 같은 해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제6회 세계 청년 학생 제전에 참가한 조선 청년 학예단이 민요 합창 '아리랑'을 연주하였다.

林慶花(2013)는 북측에서 '아리랑'이 정통성을 가진 조선 민요로 떠오르게 된 요소로서 다음을 지적한다.[16] ①1957년 나운규의 재평가 ②

15 영화잡지 '조선영화' 1957년 8월호는 나운규 서거 20주년 추도호이었고 여기서 전문가들이 나운규의 역사적 평가를 내렸다. 또한 나운규를 북측 문학예술사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문헌 중에 문학예술총동맹이 편찬한 「라운규와 그의 예술」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년)등이 있다.

16 林慶花(2013)는 이를 '캐논화' (カノン化)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논문 내에서 이루어져있지 않다. 그러나 캐논화는 '정전화'(正典化), 즉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 차원을 넘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족의 노래'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요 수집 작업을 한 과학원 어문 연구소가 아리랑의 개사곡을 소개한 점 ③조선작가동맹의 창작시, 이 3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김연갑(2002b: 156-160, 172-180, 184-185)은 북측이 나운규를 둘러싼 관점을 7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북측이 '아리랑'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의 하나를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었다고 설명하고 이 영화가 항일 영화 및 사회주의 현실주의 작품으로서 북측 가치관에 맞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62년 3월 11일에 발표된 김일성 주석 교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3년 1월에는 본조아리랑을 도쿄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의 국가로 채택했다. 林慶花(2013)는 1957년 나운규의 재평가가 원인이 되어 '아리랑'이 부상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왜 1957년이라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배경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의한 민족적 표상을 기본으로 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북측은 '아리랑'의 평가를 시작했다. 사회주의 현실주의로 활용하는 '아리랑'이기 보다는, 남측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리랑'을 북측 문화사에 위치, 부여하여 민족적 정통성을 견지시키려 했다고 여겨진다. 1991년 4월에 열린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남북 코리아 합동팀을 결성하여 국가 대신에 '아리랑'이 연주됐다.

북측에서는 1992년에 시작된 대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의 시작 장면에서 본조아리랑이 배경 음악으로 등장했다.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일본군 (또는 경찰)에게 몰려가는 민중의 모습이 묘사되었는데, 본조아리랑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었다. 여기에서 '아리랑'은 착취 당하는 슬픈 민족을 상징하며 동시에 일제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김연갑(2002b: 187-188)은 북측이 영화 '민족과 운명'에 본조아리랑을 사용한 근거로 "이미 통속성을 확보한 기존의 음악을 사용할 필요성"과 1930년대의 시대성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김정

일 총비서의 특별한 배려, 즉 '아리랑'을 특별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0년 6월 1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기념공연에서 '아리랑'이 연주됐다(김규정 등 2008). 같은 해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선수단이 합동 입장을 할 때에 국가 대신 연주된 곡이 본조아리랑이었다.

북측에서 '아리랑'의 문화 표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역시 2002년에 시작한 '예술공연과 대집단체조"아리랑"'(이하 '아리랑 매스게임')이었다. '아리랑 매스게임'은 김일성 주석 탄생 90주년에 맞춰 개최됐으나, 현재 형태의 기초는 1961년 9월 19일에 있었던 평양 모란봉 경기장 공연 '모란봉시대'이다.[17] 또한 1972년의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 따라'(김일성 주석 환갑에 맞춰 열린 공연)도 하나의 모델이 됐다. 이후 2000년 10월에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도 나왔다.[18]

'아리랑 매스게임'은 일제 시대부터 조국 해방, 북측의 건국·개발, 남북 통일의 희망까지 표현한 서사시이면서, 한/조선민족을 상징했다. 작품의 주제곡은 본조아리랑이며 한/조선민족을 '아리랑민족'이라고 지칭하는 점이 흥미롭다.

전영선(2004: 153)은 '아리랑 매스게임'에 대하여 "정치사회적으로는 민족적 문제를 통해 반외세의 의미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규정 등(2008: 148)은 "기존의 집단 체조보다 '민족적' 색채가 짙은 제목으로 공연한 예로서 전무후무" 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견해를 덧붙이자면, 북측에서 '아리랑'은 원래 일제시대에 경

17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집단체조」항목 참조(http://encykorea.aks.ac.kr/)

18 조선예술영화 '푸른 주단 우에서'는 매스게임을 소재로 등장하지만 2000년이란 제작 시기를 감안해볼 때 '아리랑 매스게임'이 모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전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영화의 배경으로 추정된다. 후자는 북측에서 '조선의 20세기 문예부흥의 총화작'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험한 민족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지만 '아리랑 매스게임'을 기점으로 해방 후 한/조선반도가 분단된 비극 역시 '아리랑'에 내포시켰다. 즉 '아리랑'이 가진 상징성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리랑 매스게임'은 북측이 지닌 '아리랑'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북측에서는 '아리랑'을 정리 및 분석한 학술서 '조선민요 아리랑'(윤수동, 문학예술출판사)을 출판하였다. 이 학술서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은 "어떻게 되여 하나의 평범한 민요가 이처럼 한 나라의 민요를 대표하고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로 되였는가"이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위해 " 《아리랑》은 어떤 노래이며 왜 이 노래를《아리랑》이라고 부르게 되였는가,《아리랑》은 몇곡이나 되며 각 지방들에 어떻게 분포되여있는가,《아리랑》의 내용과 형식과 이 노래가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였는가" 라는 과제를 설정하였다(윤동수 2011: 6).[19]

2016년 9월 9일에 북측에서는 국립 민족 예술단의 공연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가 열렸다. 사회적 의미의 메시지가 강한 공연으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더 다루어보기를 희망한다.

4. 나가며

이상으로 거칠지만 남북에서 다뤄진 '아리랑'의 사회적 구축과 작용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아리랑'의 사회적 구축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과 견해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아리랑'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남북의 '아리랑' 연구가 각각 분리되어

19 인용문의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이다.

행해진다는 점과 남측에서 연구된 북측 '아리랑'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더불어 재외 코리안의 '아리랑'에 관한 연구량도 비교적 적었다. 현시점에서 범민족적 시점에서 '아리랑'의 사회적 구축 연구를 심도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아리랑'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아리랑'이 지닌 한/조선민족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에 입각한 접근 역시 더욱 이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리랑'과 같은 사례는 현상으로서는 드물지만 그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을 더 객관적, 이론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세계 다른 지역의 민요(넓은 범위에서 불려지고 있는 민요)와의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아리랑'을 둘러싼 '민족' 또는 '민족성'이라는 담론에 대해서도 객관성 및 검토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코리안 이외의 코리아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 역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7월에 시작한 본 학회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획기적이며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심포지엄도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근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한/조선민족 내 '아리랑'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아리랑'을 통해 한/조선민족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등학(2007) 「1945년 이전시기 통속민요 아리랑의 문화적 성격과 가사의 주제양상」, 『한국민요학』 21, 한국민요학회, 23-52.

강등학(2004) 「형성기 대중가요의 전개와 아리랑의 존재양상」, 『한국음악사학보』 32, 한국음악사학회, 5-36.

강보유(2013) 「진도아리랑의 보존과 진흥; 중국인이 느낀 아리랑의 이미지」, 『남도민속연구』 26, 남도민속학회, 33-46.

공명성(2015)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아리랑》의 곡명과 곡수에 대한 연구」, 『제12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논/론문집』, 국제고려학회, 1220-1227.

권갑하(2014) 「아리랑의 문화콘텐츠화 양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303-336.

김규정·김봉화(2008) 「북한공연예술의 특징과 "아리랑"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관한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9(1), 한국기초조형학회, 145-153.

김기현(2004) 「아리랑 노래의 형성과 전개」, 『퇴계학과 유교문화』 35(1),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39-177.

김기현(2000) 「아리랑요의 형성 시기」, 『어문론총』 34, 한국문학언어학회, 25-42.

김동권(2004) 「아리랑 연구」, 『드라마 연구 (DR)』 23, 한국드라마학회, 169-198.

김동권(2010) 「현대 대중예술의 아리랑 수용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6,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101-124.

박범훈(1999) 「모란봉 아리랑- 제1회 윤이상통일음악제 참관기」, 『한국음악사학보』 22, 한국음악사학회, 13-17.

김승우(2012)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의 아리랑 논의에 대한 분석적 고찰」,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2), 국제비교

한국학회, 43-80.
김연갑 편(1986) 『민족의 숨결, 그리고 발자국 소리 아리랑』, 현대문예사.
김연갑(2002a) 「아리랑공연 참관 어떻게 볼 것인가? '연대와 대동정신으로 참여하자'」, 『통일한국』 20, 평화문제연구소, 33.
김연갑(2002b) 『북한아리랑 연구』, 도서출판 청송.
김연갑·김한순·김태준(2011) 『한국의 아리랑문화』, 박이정 출판사.
김영운(2013) 「민요 아리랑에 대한 북한의 인식 태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신문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54, 한국국악학회, 5-30.
김완수(1982) 「민요 '아리랑'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35, 한국국어교육학회, 502-516.
김은희(2016) 「통일 후 효과적 전도의 도구로서 민족의 애가 아리랑의 사용방안 연구」, 『성경과 신학』 79,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97-312.
김현주(2012)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73-206.
김홍련(2006)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아리랑의 확산과 의미변천」, 『음악과 민족』 31, 민족음악학회, 227-254.
서기원(1966) 「아리랑」, 『창작과 비평』 1(2), 창비, 166-181.
송효섭(2012) 「아리랑의 기호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3), 국제비교한국학회, 29-49.
유병문(2005) 「[분석]변화하는 북의 공연문화- "조용히 경청하는 것에서 손뼉치며 환호하고 기립박수까지"」, 『민족21』 55, 민족21, 146-149.
윤수동(2011) 『조선민요 아리랑』, 문학예술출판사.
이보형(2009) 「아리랑소리의 생성문화 유형과 변동」, 『한국민요학』

26, 한국민요학회, 95-128.
이소영(2013) 「아리랑의 문화적 변용에 따른 음악적 특징 -유성기 음반의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학』24, 한국음악학학회, 39-77.
이용식(2005) 「만들어진 전통: 일제 강정기 기간 아리랑의 근대화, 민족화, 유행화 과정」, 『동양음악』27,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27-159.
이창식(2001) 「북한 아리랑의 문학적 현상과 인식」, 『한국민요학』9, 한국민요학회, 215-230.
이채원(2012) 「80년대, 산업 현장과 아리랑-영화 <구로아리랑>의 사회적, 수사적 의미」, 『Comparative Korean Studies』20(2), 국제비교한국학회, 279-310.
전영선(2002) 「북한의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 아리랑 " 의 정치사회적 , 문화예술적 의미」, 『중소연구』 26(2),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131-158.
조현주(1989) 「북한의 "아리랑", 얼마나 달라졌나」, 『통일한국』68, 평화문제연구소, 50-55.
최현식(2011) 「제국의 취향, 전시되는 "아리랑" -식민지 "아리랑 엽서"의 성격과 의미」, 『대동문화연구』7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35-270.
평화문제연구소(2005) 「2005 아리랑 축전 집단체조와 교예 등 종합대예술작품 "아리랑"」, 『통일한국』263, 평화문제연구소, 82-82.
황영미(2012)「『아리랑』 영화들에 나타난 내셔널 시네마적 특성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3), 국제비교한국학회, 79-99.
植村幸生(2013) 「《アリラン》の複数性と複合性—葛藤と統合のなかで」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12, 韓国・朝鮮文化研究会, 7-18.
林慶花(2009) 「民族の歌としての〈アリラン〉の創出『民謡』概念の導入から『郷土民謡』の発見まで」,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会—油

谷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 528-557.
林慶花(2013) 「忘れられた冷戦下の〈アリラン〉ー1963年南北単一チームの国歌になるまでの南北朝鮮におけるカノン化過程」,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12, 韓国・朝鮮文化研究会, 69-109.

Politics of Arirang : Tripartite Function and the Social Dynamics of a Korean Folksong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China

Byong Won Lee[1]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 Introduction

"Arirang" is best-known New Folksong (*sin-minyo*), whose musical style and aesthetics rooted in central region's folksong (*Kyŏnggi minyo*) of Korea. The song is probably emerged as the most popular song from the early period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1910-1945). It has been the best-known Korean song in and outside of Korea until July 15, 2012, when the phenomenal Psy's "Gangnam Style" was uploaded to the YouTube.[2] It is, course, not fair to weigh the historical values of "Arirang" and "Gangnam Style" from the same socio-historical horizon. The popularity of "Arirang" has lasted for a century, or even much longer, with gradual transformation from the *sin-minyo* style in a bit of Japanese or Western intonation of the early 20th century to the Koreanized style of traditional music.

1 Professor of Ethnomusicology
E-mail : byong@hawaii.edu

2 Psy's "Gangnam Style" has been viewed 3 billion times on YouTube as of November 27, 2017. The BTS's "DNA" in YouTube is fast gaining increase of viewer records, too, following their A merican Debut at the American Music Awardson November 17, 2017 at the Microsoft Theater in Los Angeles.

Although many Koreans inclined to think that the "Arirang" traces a long but unclear history, and its origin is still shrouded in mystery. Apart from tracing its origin, it has evolved to be the iconic song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s from 1990s.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shown interest in the song by designating it as the Korean ethnic minority's musical heritage in the Northeastern China in 2009.

Since 2012 "Arirang" has come into the limelight with hot political backdrops, as well as becoming a controversial subject in a disorderly heap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The practical use and the role of "Arirang" in these three countries current political contexts are different. Therei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cultural performance[3] of the song and examine the tripartite complex affairs and the social dynamics involving the song.

Table 1.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red), Jilin Province (orange) of China; North & South Koreas (green).

3 Milton Singer defines the cultural performance as an unit of analysis in large-scale societies in wh ich people exhibit theirculture to themselves and visitors. Focus is on the performance as a totality and its relationship to the larger society(Singer 1955: 23-26).

2. Historical Origin of "Arirang"

The term "folksong" (Gr. *Volkslied*) was coined by Johann Gottfried Herder (1744-1803), German philosopher and theologian, who was critical of the post-industrial revolution legacy and advocated the folksongs as the antidote to the ills of the urban popular music and elite's classical music of the post-Industrial Revolution. The contemporary concept of "folksong (*minyo*)" was introduced to Korea from Japan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1910-1945). Prior to the "folksong (*minyo*)," the loosely understood indigenous terms were *sori* (lit. "sound"), *norae* (lit. "song"), *karak* (lit. " tunes"), or *ch'ang* (singing).

According to Kim Yŏngap's collection of the Arirang-related songs, there exist more than a hundred songs whose titles are either prefixed or suffixed with the word "arirang," such as "Miryang Arirang" (Arirang of the Miryang Town), "Kin-Arirang" (The Long Arirang), "Arirang Kogae" (Arirang Hill), etc (Kim 1986). Its inclusive definition poses various meanings and types depending on its musical style and regional aesthetic preferences. Out of endless lists of variety of the folksong, "*Ponjo* Arirang" (lit. "Original Arirang") is the specific style of song chosen for this paper. "Ponjo Arirang" is interchangeably used with more commonly known "Kyŏnggi Arirang (Arirang of the Kyŏnggi Province)," or simply "Arirang."

Table 2. Early Chronology of the "Arir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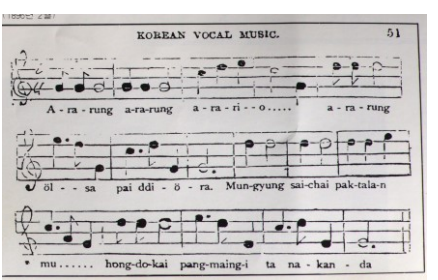
1914	Yi Sangjun, Chosŏn Sokkokjip (Collection of Korean Folksongs, Vol. I)
1921	Yi Sangjun, Chosŏn Sin-japka (New Folksongs of Korea)
1926	Na Ungyu's silent movie Arirang
1929	Yi Sangjun, Chosŏn Sokkokjip, hagwŏn (Collection of Korean Folksongs, Vol II). The first appearance of "Arirang" in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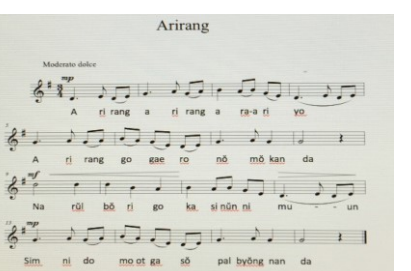
The first literary source documenting "Arirang" is Yi Sangsun's (1884-1948) *Chosŏn Sokkokjip* [The Collection of the *Chosŏn* Folksongs, Volume

II] of 1929. The publication appeared three years after the sensational silent movie *Arirang* by Na Ungyu (1902-1937), who was the playwright, director, and hero in the movie. Yi Sangjun's prior publications *Chosŏn Sokkokjip* [*Collection of the Korean Folksongs, Volume I*] of 1914 and *Chosŏn Singu Japka* [*New and Old Folksongs of Korea*] of 1921 did not contain "Arirang." The emotional effect of using the *sin-minyo* tune "Arirang" in the prologue and epilogue of the 1926 anti-Japanese movie became enormously popular in Korea. Rightfully, the song found its place in the 1929 edition of the *Chosŏn Sokkokjip II*.

Some scholars credit 1896 Homer B. Hulbert's transcription of a "KOREAN VOCAL MUSIC" as the oldest transcription of "Arirang" in print. However, it is hard to argue this is the oldest version of "Arirang" because the lyric includes such vocables as "*a ru rung*." However, the melody, melodic contour and intonations are quite different with the present "Arirang" as compared in Example 1. It shows the similarity of rhythm with the present "Arirang." But, musically, it is too different to claim that the Hulbert's transcription has an affinity to the present "Arirang" (Lee 2005: 141-158).

Example 1. 1896 Homer B. Hulbert's transcription (left) and the present "Arirang" (right).





The term sin-minyo implies a certain degree of influence of the modern Japanese music as the country was under Japanese annexation. Due to the

in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of the time, most of the new movements and actions took place in the capital city. Naturally, the sin-minyo style of "Arirang" surfaced in Seoul area, and later, underwent a transformation to fit into the Central region's folksong style. Chang Sahun (1916-1991), who was a musician of the Yi Dynastic Music Department (이왕직 아악부 Yiwangjik aakpu)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ra, confirms the historical circumstance by saying that "the song is modern, easy to hum, and was able to express the resentment against the colonial Japan (Chang 1984: 472)." Some of the sin-minyo adopted Japanese tunes with Korean lyrics. In other words, they were "modern" and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folksongs.

The *Sin-minyo* is usually based on traditional folksong rhythms of triple meter, or compound of triple meters like rhythm of 6 beats (3+3) or 12 beats (3+3+3+3). Its melody and melodic intonation reflect the influences from Japan and the West with smoother vocal projection, less ornamented, and simpler intonation than the traditional rural folksongs of the time. Some of the "unnatural" musical contents gradually transformed into more traditional folksong.

As a case in point, Kim Sohi (1917-1995), who was one of the great *p'ansori* singers of the 20th century, has confessed that the "Boat Song (뱃노래 *Paennorae*)," which she recorded in 1934 was a Japanese boat song.[4] Indeed, the tune reflects the Japanese musical intonation as well as the use of the Japanese words "*e ya no ya no ya*" (No one will cry even if I leave this world 내가 죽어도 누가 울어줄 사람도 없다). However, the present "Boat Song" has gone through a musical adjustment and Koreanization in the style of the Central region's folksong. The Japanese lyrics in the refrain are replaced with Korean vocables "*ŏ gi ŏ di yŏ cha!*" (어기어 디여 차!), which are sailors' common oarage shouts.

In sum, "Arirang" appears to be a *sin-minyo* of Seoul area, which surfaced

4 Kim Sohi p'ansori ilsaeng. CD Jacket not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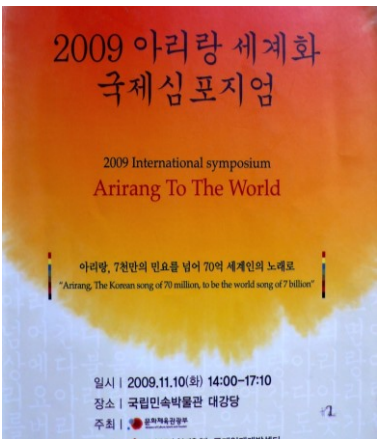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The early Korean migration to Hawaii between 1903 and 1920s were not aware of the song's existence while they were in Korea.[5] This supports a hypothetical aspect of the origin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melodic lines are treated with minimal use of elaboration and vibrato, the typical characteristic style of the *sin-minyo* of the time. The use of the tune in the 1926 silent movie *Ariang* has ignited its explosive popularity throughout the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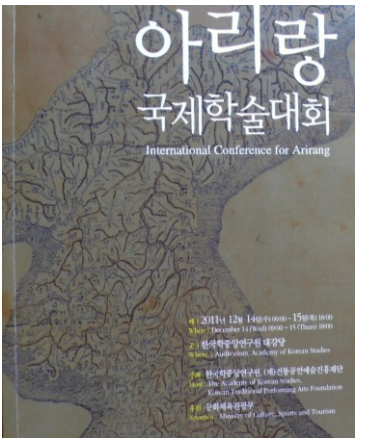
3. "Arirang" in South Korea

One of the visible cultural movements in the 21st century in South Korea has been the re-defining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dentity. Recently,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seeking to produce a series of nation-branding projects. I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국가브랜드위원회) in 2009. Needless to say, among 100 government -chosen cultural icons, "Arirang" represents Korean music. Two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Arirang" took place in 2009 and 2011 respectively, and, I am certain, there had been more of them annually thereafter. The primary goals for these activities were to construct a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musical icon, and re-affirm the appropriation of the musical heritage. This effort can be seen as a subtle bluster to China that the appropriation of the song belongs to South Korea.

5 In a conversation in 2015 with Ms. Duk Hee Murabayashi, the leading historian on the early Korean migration to Hawaii.

Table 3. Two conference proceedings' covers





In 2009 the Jilin Provincial government of China designated the "Arirang" as Class 2 of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the Province. In 2011, the central Chinese government has registered "Arirang" as a part of the sixty-eight cultural heritages of ethnic Koreans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of Jilin Province.[6] These moves were efforts to upgrade the status of the heritage from provincial level to the state level by the central Chinese government.

These Chinese moves have outraged patriotic Koreans who suspected it as an extension of the Chinese Academy for Social Sciences' Northeast Project, which critics say sought to co-opt the culture of the early Korean kingdoms. Also, the move is seen as a precursor to registering those cultural asset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7] South Koreans felt that the move is a definite threat at a time when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chosen "Arirang" among 100 icons representing Korea and has linked the song with efforts to promote nation-branding.

The South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dismisses the fears by

6 Current State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tangible Cultural Asset.
7 China Lays Claim to 'Arirang' - The Chosun Ilbo english.chosun.com/site/data/html.../2011062301297.html

stating "It is like designating an important cultural asset to protect it by law." A CHA official said China only listed "Arirang" as sung by ethnic Koreans there, not Korea's version of the song. Therefore, the Chinese move cannot be seen as a part of the Northeast Project. Belatedly, the CHA revised the mechanisms for protecting Korea's cultural heritage by following global trends, such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South Korea finally succeeded registering the "Arirang" to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no. 11-27 on December 5, 2012. It plans to register the different styles of "Arirang" in Korea, including versions sung in Miryang, South Kyŏngsang Province and Jindo, South Chŏlla Province, etc. But, China has gotten off to a head-start when it comes to registering the song with UNESCO.

4. "Arirang"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 lack of ideological message conveyed by the song lyrics and the regional centrism of the North, "Arirang" was not popular in North Korea on the surface from her foundation in 1948 until the early 1990s. No mention is made on "Arirang" in Kim Il Sung's (1912-1994) canonical guide *Hyŏkmyŏngjŏk munhak yesullon* [*On the Revolutionary Literature and Arts*] (Kim 1971).[8] Kim Il Sung rejected most of the "southern" music as being of the *Yangban* bourgeois heritage. He advocated the use of the northwestern region's folksongs (*Sŏdo minyo*) as the basis for new compositions.[9]

8 This publication is a collection of Kim Il Sung's writings on the literature and arts from 1946 to 1970.

9 "창극도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도민요가 바탕으로 되여있는 "강건너마을에서 새노래 들려온다"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민족음악은 이것을 표준으로 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Han Chungmo & Chŏng Sŏngmu 1983: 502)."

Table 4. Cover page of Japanese translation of the Kim Il Sung's *On the Revolutionary Literature and Arts*)

In 1990 a miraculous relationship was developed between the two-archrival enemy states of South and North Koreas. They have agreed to form a South and North Korea United Table Tennis Team to enter the 1991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held in Chiba, Japan. The negotiating teams of South and North wasted no time in rushing through their agreements on the selection of the folksong "Arirang" as the official anthem and the flag with the blue Korean peninsula design as the official flag. Probably, this was the very first and only occasion when both parties came to agree with their work without a single second opinion. North Korea was in charge of providing "Arirang" transcription, which happened to be identical with the music used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 providing orchestral arrangement and performance for recording for use in Chiba. The Women's Team comprised of two South Korean players and two North Korean players won the gold medal defeating the mighty Chinese team.

Many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too, probably felt an arching void in their heart on the imminent unification. That hollow emotion short lived as the North Korean players bussed out of the Chiba City without a hint of promise to meet again. The ecstatic emotional moment was dramatized in the movie *Korea*, which premiered in the South Korea in May of 2012. The experience of

South-North United Team later inspired the forming of the South-North Korea United Team at the 2000 Sydney Olympic, even wearing the uniforms with the same design (Plate 2).

Plate 1. Li Bun-Hui (left) & Hyun Jung-Hwa (right) at the Women's Doubles. (Courtesy of Joongang Ilbo.)

Plate 2. South and North Korean United Team at the 2000 Sydney Olympic Opening Ceremony. (Courtesy of Joongang Ilbo.)

The Chiba event was the turning point for North Koreans in rediscovering the cultural value of "Arirang," which had otherwise been buried under the *chuch'e* (self-reliance) ideology. The occasion and the song "Arirang" provided an improved image of the nation. "Arirang" has been alive and rejuvenated in North Korea ever since. The title has been appearing more frequently in the North Korean news media and musical scenes. Noteworthy is the change of the national festival name "*T'aeyangjŏl*" (Sun Festival) [10] to the "Arirang Mass Games." [11] The sun was the symbol of Kim Il Sung.

North Korea began to present the Arirang Mass Games since 2002 coinciding with the 90th birthday of Kim Il Sung and 60th birthday of Kim Jung Il respectively. That event marked new turning point in North Korea by embracing the title "Arirang" in more positive sense.[12] By adopting the name "Arirang," the mass games softened the austere and rigid image of the hermit kingdom as well as avoiding strong ideological symbolism. The mass games combined with gymnastics display of Communist Party solidarity and mass mobilization in addition to being a source of revenue through tourism. The mass game mobilizes an enormous assembly of 100,000 people at once.[13]

Such "cultural performances" have always suggested a promising future for the nation. Since the founding of North Korea in 1948, the waiting game for a utopia continues, now into the third generation, from Kim Il Sung to Kim Jong Il to Kim Jong Eun, without visible signs of progress in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10 Sun was Kim Il Sung's iconolatry symbol; and Kim Jung Il's was "Kwangmyŏngsŏng (Bright Star)."

11 For detailed history and production on Arirang Mass Games, see Lisa Burnett's excellent article (Burnett 2013:3-32).

12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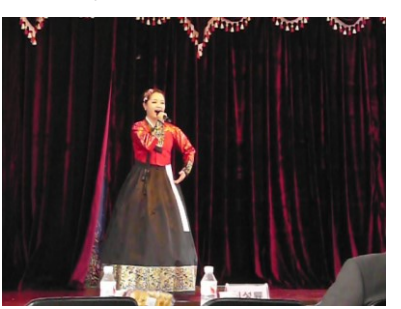
13 The 2007 Arirang Mass Games has made Guinness World Record as the biggest event with 100,000 participants.

5. “Arirang” in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of Jilin, China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YKAP) borders with the northwestern part of North Korea and the eastern tip of Russia (see Table 1). Migration from the northern part of Korea to Yanbian began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migration was more visible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promulgated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1952. Out of the 2.3 million first and latter generations of Koreans (2009 census) in China, 854,000 live in the Yanbian Prefecture, which is approximately 40% (2000 census)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YKAP. The Korean minority’s community is unique among the 55 ethnic minorities in China in the sense that they are the only group who moved to China (legally or illegally), whereas the other minorities were occupied by China.

“Arirang” was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the Jilin Province in 2009.[14] In 2011, the central Chinese government has registered “Arirang” as a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s of ethnic Koreans of the YKAP recognizing the song statewide.

Plate 3. “Arirang” sung at the 2012 Arirang Song Competition in the Yanji City,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The singer Li Sŏllhwa is from the Korean Cultural Center, Dalian City, China.



14 연변 조선족 자치주 비물질문화 (무형문화재) 현황.

6. Conclusion

"Arirang" is a musically simple folksong with no strong ideological or political message. Despite its short history, however, from 1920s through 1940s,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xpressing frustration and resentment against colonial Jap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Modern musical ingredients nurtured in the song and the emotional-epic-making insertion in the 1926 movie *Arirang* made the song "Arirang" possible for the immense popularity and longevity.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the social environment and role of the song have changed. Presently, the same song stresses cultural identity and nationalism. "Arirang" became an indispensible musical icon in branding the national identity of South Korea. Freeing the song from the ideological ambiguity in lyrics and the inconspicuous regional musical color of "Arirang" also made it possible for the song in representing both South and North Korean anthem in joint sports games. Furthermore, North Korea effectively adopted the title and tune of "Arirang" for political disguise presenting a softer image for the success of the Arirang Mass Games.

South Korean reaction toward the Chinese attempt at designating "Arirang"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China can be seen as overly critical, because no one doubt about its origin in the Seoul area, South Korea. Even if China succeeds in registering the song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China does not claim the ownership. Unlike the tangible items, one cannot clearly spell out the qualification for the appropriation for the song as it wandered around the vast geographical hemisphere from person to person.

On the surface, "Arirang" creates what Benedict Anderson calls an "imaginary community" (Anderson 1991) as many people, in many different places at the same time period, sing the song. The performers in different places

may have the same perception on the song, such as protest, resentment, longing and forgiving. However, the ones who manipulate the context of the performance have differing purposes as pointed out how the song is socially and politically utilized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cknowledgements

Parts of this paper were presented at the November 2012 Society for Ethnomusicology annual conference in New Orleans and at the August 2017 biennial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 Auckland, New Zeal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for its support on this project with Faculty Research Grant and Core University Funding Program.

【References】

Anderson, Benedict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and extended edition. London: Verso. 224.

Chang, Sa-hun. (1984) "Arirang," Kugak taesajŏn. Seoul: Segwang ch'ulp'ansa.

Han, Chungmo & Chŏng Sŏngmu, co-author. (1983)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Chuch'e ŭi Munye Riron Yŏngu* [Study of Juche's Theory on Literature and Arts . Pyongyang: Sahoe kwahak ch'ulp'ansa. 502.

Kim, Il Sung. (1971) 혁명적문학예술론 Hyŏkmyŏngjŏk munhak yesullon [On the Revolutionary Literature and Arts]. Tokyo: Miraisha. (Japanese edition).

Kim, Yŏngap, editor. (1986) 민족의 숨결, 그리고 발자국 소리: 아리랑 *Minjok ŭi sumgyŏl, kurigo paljaguk sori: Arirang*." [National breath, and the sound of footsteps: Arirang]. Seoul: Hyŏndae munyesa.

Lee, Yongshik. (2005) "만들어진 전통: 일제 강점기 기간 <아리랑>의 근대화, 민족화, 유행화 과정," Mandŭrŏjin chŏnt'ong: Ilje kangjŏmgi kigan Arirang ui kundaehwa. [Invented Tradition: Arirang's Modernization, Nation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Arirang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Tongyang ŭmak*:141-15 8.

Burnett, Lisa. (2013) "Let Morning Shine over Pyongyang: The Future-Oriented Nationalism of North Korea's *Arirang* Mass Games," *Asian Music* (44-1) *Journal of the Society for Asian Music*.

Singer, Milton. (1955) "The Cultural Pattern of India," *The Far Eastern Quarterly* 15: 23-26.

아리랑의 전통성과 근대성

Traditionality and Modernity of Arirang

이용식[1]
전남대학교

1. 머리말

<아리랑>은 '한민족의 노래'이다. 아리랑은 근대 이후 한민족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 한 노래이다. 미국인 저널리스트인 님 웨일스(Nym Wales)가 1930년대에 중국 연안에서 빨치산 활동을 펼치던 조선인 독립운동가 김산을 인터뷰해서 쓴 『아리랑(The Song of Ariran)』에서 김산은 <아리랑>이 조선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한 "유구한 역사"를 갖는 노래라는 대목이 있다.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는 당시 한성에서 널리 불리던 <아리랑(Ararung)>의 악보를 『Korean Repository(1896)』에 수록했다. 미국인 민족음악학자 앨리스 플렛처(Alice Fletcher)는 당시 미국 하워드대학교에 유학했던 조선인 학생들이 부르는 <아리랑(Arirang)>을 1896년에 녹음하였고, 이는 현재 미국 의회도서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으로 차출되었다가 소련군의 포로로 잡히고 다시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던 조선인들은 독일에서 <아리랑>을 녹음했다. 해외에 이주한 한민족은 <아리랑>

1 Yong Shik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 yongshiklee@hanmail.net

을 '모국에의 기억'으로 노래하고,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을 이루어 국제 스포츠 행사에 나갈 때에는 '한반도기(旗)'와 더불어 <아리랑>을 '국가'로 부른다. 결국 아리랑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 아이콘이다.

이렇듯이 <아리랑>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노래이기에 '매우 오래된 노래'라는 환상을 갖는다. <정선아라리>는 고려가 망하면서 강원도 정선에 은거한 죽림칠현이 부르던 노래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밀양아리랑>은 밀양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랑'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렇듯이 아리랑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는 노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전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926년 나운규(羅雲奎, 1902-1937) 감독 · 주연의 영화 <아리랑>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현재의 <(본조)아리랑>이 유행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원도의 <정선아라리>와 더불어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전라도의 <진도아리랑>과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민요'이다. 이는 이들 <아리랑>의 음악적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은 음악적으로 향토성을 벗어난 선법, 경쾌한 리듬, 밝은 음색 등이 전통적인 향토민요라기보다는 신민요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이들 <아리랑소리>[2]는 '작곡(compose)'된 노래는 아니다. 이들 <아리랑소리>는 전통적으로 전승되는 향토민요에 기반하여 새롭게 '편곡'된 노래이다. 이글에서는 <아리랑소리>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음악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아리랑의 전통성

우리나라에 분포된 수많은 종류의 <아리랑소리> 중에서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에서 전승되는 <아라리>는 <아리랑소리>의 원형으로 여겨진

2 이보형(1997: 85)은 여러 종류의 <아리랑> 민요들을 "아리랑소리"라 명명했다.

다. 주로 농사를 지을 때나 밭일을 할 때 불렀던 강원도의 <아라리>는 인근의 경기도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인 <아리랑>의 모태가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가 된다.

2.1. 강원도 아라리

강원도에 전승하는 <아라리>에는 <긴아라리> <자진아라리> <엮음아라리>의 세 종류가 있다. <긴아라리>는 조금 느린(♩.=40~60) 3소박 3박자(9/8박자)의 세마치장단에 얹어 부르고, <자진아라리>는 보통 빠르기(♪=150)의 혼소박 4박자(10/8)의 엇모리장단에 얹어 부른다.[3] <엮음아라리>는 <긴아라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노랫말을 빠르게 주워 섬기다가 나중에는 원래의 <긴아라리>의 가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긴아라리>는 주로 밭일 혹은 가사노동과 같은 개인적인 노동에 부르거나 신세한탄조의 노래로 부른다. 이렇게 <긴아라리>는 혼자 부르는 노래이다보니 다양한 선율의 노래가 전승된다. 대부분의 민요가 후렴구는 일정한 선율로 부르지만, <긴아라리>는 다양한 선율의 후렴구가 존재한다. 또한 <긴아라리>는 혼자 부르는 노래이기에 실제 가창에서는 3소박 3박자에 정확하게 부르지는 않는다. <긴아라리>는 노래가 느리다보니 요성(搖聲) 등의 장식기교가 발달했다. 정선지방 가창자가 부른 <긴아라리>의 서두 부분에 출현하는 전성(轉聲)의 폭은 4도 이상의 넓고 요성도 폭이 넓고 상당한 음악적 기교를 요하는 것이다(이용식 2009).

<자진아라리>는 보통 빠르기의 혼소박 4박자(10/8) 장단에 얹어 부른다. 이런 혼소박 4박자는 전통음악계에서는 보통 엇모리장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장단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장단 중의 하나이다.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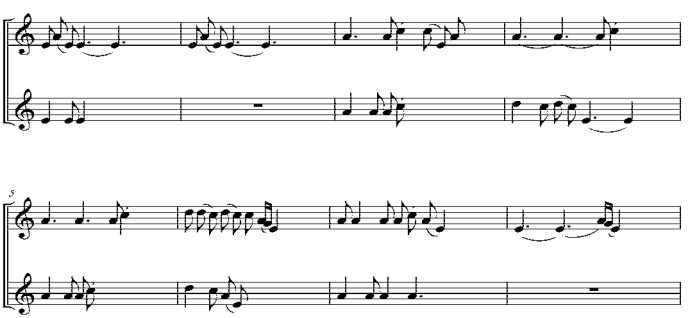
3 실제로 현장에서 '세마치'나 '엇모리'라는 장단이름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장단이름이 한국음악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두 곡의 장단을 지칭하고자 한다.

냐하면 엇모리장단은 2소박과 3소박이 2+3 혹은 3+2으로 이루어진 불균등박자(asymmetric meter)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이용식 2009).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는 주로 농요로 부른다. <긴아라리>는 강원도 영서지역과 경기도 동부, 충청도 동부 등지에서 모심는소리·김매는소리의 농요나 나무꾼소리 등으로 부른다. <자진아라리>는 강원도 강릉, 명주, 양양, 고성, 평창 등 영동지역에서 모심는소리로 많이 부르고, 강원도 영서지역, 경기도 동부, 충청도 동북부 등지에서는 나물캐는 소리나 방아타령으로 <자진아라리>를 부른다(강등학 1998;1992). 이런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의 지역에 따른 기능적 유형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심는소리로 부르는 경우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주로 <자진아라리>를 부르고 강원도 영서지방에서는 <긴아라리>를 부른다는 점이다.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자진아라리>는 농요보다는 부녀자들의 노동요로 많이 불린다. 즉, 강원도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에서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의 기능이 다른 것이다.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를 음악적으로 비교하면 두 곡의 연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두 곡의 받는소리 선율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두 곡이 서로 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례 1>).

<보례 1> 긴아라리(상단)와 자진아라리(하단)의 받는 선율의 비교



한국음악에서 빠르기(tempo)가 다른 두 곡이 '긴-자진'의 한 틀을 이루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느린 '긴소리'로 시작하여 점차 음악이 빨라져서 '자진소리'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는 '긴-자진'의 한 틀을 이루는 노래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 두 곡은 서로 다른 지역(영동의 <자진아라리>와 영서의 <긴아라리>)에서 모심기라는 집단노동을 위한 노래로 부르는 다른 악곡이다. 그러다가 정선을 비롯한 영서지방에서 <긴아라리>는 주로 개인노동이나 신세한탄조의 노래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선을 비롯한 영서지방에서는 <자진아라리>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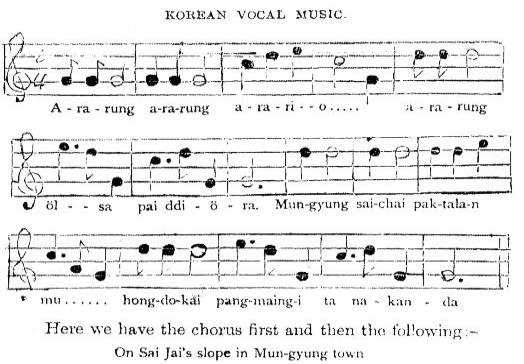
강원도 <긴아라리>는 3소박 3박자(9/8박자)의 세마치장단에 얹어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 노래는 주로 개인 노동요나 신세한탄조의 노래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정확한 박자에 맞춰 부르지는 않는다. 더욱이 노랫말의 자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자를 넘나들면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긴아라리>는 노래의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장식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긴아라리> 가창자의 요성(搖聲)은 전라도 민요보다도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자진아라리>는 3+2 혹은 2+3의 혼소박 4박자(10/8박자) 장단에 얹어 부르는데, 이런 장단형은 매우 오래된 고형의 장단으로서 우리말의 억양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불균등박자는 '일탈'(엇/어긋남)의 미학을 보이는 매우 어려운 장단이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 <아라리>와 <자진아라리>는 향토민요의 전통적인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2.2. 경기도 아리랑

강원도 <아라리>는 인근의 경기도에 영향을 미쳐 경기도 <아리랑>의 원형이 된다(이보형 1997). 강원도 <아라리>가 서울 소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서울의 <아리랑>은 1896년에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Hulbert)가 채보한 악보가 <Korean Repository>에 실린 것을 보면(<보례 2>) 19세기 말엽에는 서울에서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례 2> 헐버트 채보의 <아리랑>



1896년 서울에서 불리던 <아리랑>은 강원도 <자진아라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두 노래는 언뜻 다른 노래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선율의 흐름은 두 곡의 파생관계를 보여준다(<보례 3>).

<보례 3> 강원도 자진아라리(상단)와 서울 자진아리랑(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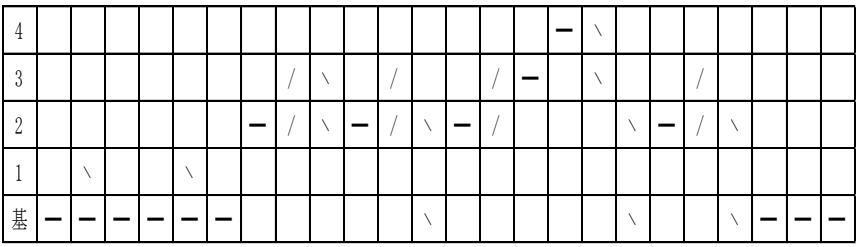
4											—			—						
3										—			—		—					
2						—		—	—							—				
1																		—		
基	—		—	—															—	
4						—														
3					—			—												
2	—		—	—					—		—		—	—		—	—	—		
1																				
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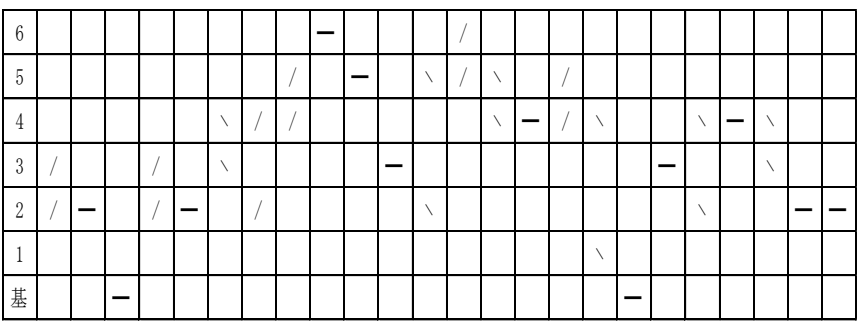
4									—			
3								—				
2							—			—		
1												
基	—	—		—	—							—
4				—								
3	—	—			—			—				
2							—					
1												
基						—			—	—	—	—

<자진아라리>와 <자진아리랑>의 선율흐름을 비교해보면 두 곡이 모두 가장 낮은 음으로 시작하여 2-3-4를 거쳐 가장 높은 음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가장 낮은 음으로 하행하여 반종지를 하고, 2 혹은 3의 높은 음으로 시작하여 가장 높은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가장 낮은 음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부분까지는 같은 선율흐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곡의 종지부분(<보례 3>의 음영처리부분)이 <자진아라리>는 중간음으로 마치는데 비하여 <자진아리랑>은 가장 낮은 음으로 마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선율흐름을 비교하면 혼소박 4박자의 불균등리듬으로 된 <자진아라리>를 3소박 4박자의 균등리듬으로 변형하여 노래한 것이 서울의 <(자진)아리랑>인 것이다(<보례 2>). 이 노래는 또한 나운규가 편곡한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인 <(본조)아리랑>의 모곡(mother tune)이 되는 노래이다.

서울의 <긴아리랑>은 강원도의 <긴아라리>를 변형한 것이다. 이는 3소박 3박자의 세마치장단으로 된 <긴아라리>를 변형하여 <긴아리랑>으로 만든 것이다(<보례 4>).

<보례 4> 강원도 긴아라리(상단)와 서울 긴아리랑(하단)





결국, 서울의 '긴/자진'<아리랑>은 강원도의 '긴/자진'<아라리>에서 각각 변형된 곡이다. 이는 강원도의 '긴/자진'<아라리>가 '긴→자진' 혹은 '자진→긴'으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두 곡이 각자 별도의 곡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서울의 '긴/자진'<아리랑> 또한 '긴→자진'으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각각 강원도의 '긴/자진'<아라리>에서 파생된 것임을 의미한다. 즉, 강원도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는 각각 경기도 <긴아리랑>과 <자진아리랑>의 모곡(mother tune)이 되는 것이다. 즉, 강원도 <아라리>에서 경기도 <아리랑>이 만들어진 것이다(이용식 2009).

3. 아리랑의 근대성

앞서 언급했듯이 전라도의 <진도아리랑>과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이다. 이들 <아리랑소리>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흥행에 힘입어 지방의 <아리랑소리>가 만들

어진 결과이다.

3.1.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은 진도 출신의 대금 명인인 박종기(朴鍾基, 1880-1947)가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종기는 이 노래를 일본으로 음반을 취입하러 가는 길에 만들었다고 한다(김연갑 1986: 292;이보형 1997: 105). 이후 <진도아리랑>은 많은 판소리 소리꾼들이 부르면서 전라도를 대표하는 민요가 된다.

<진도아리랑>의 음악적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지춘상·나경수(1988)는 <진도아리랑>의 근원을 전라도 향토민요인 <산아지타령>으로 간주하고 음악적 문제 및 문화적 관련성을 밝혔다. 이보형(1997)은 <진도아리랑>은 1920년대 <아리랑> 열풍에 힘입어 <경기아리랑>과 유사한 <남도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박종기가 편곡한 노래라고 주장했다. 이렇듯이 <진도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 향토민요인 <산아지타령>과 <아리랑>의 열기에 힘입은 '아리랑소리'에 근거해 창작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악적 창작자는 박종기로 꼽힌다.

이보형(1997: 114)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였던 김소희(金素姬, 1917-1995)와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였던 김득수(金得洙, 1917-1990)와의 대담자료에 근거하여 박종기가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 유성기판을 취입하러 일본에 가는 배에 金素姬명창이 大笒名人 朴鍾基와 동행하여 탔는데 이 배에서 박종기가 남도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편곡한 것이 진도아리랑의 시초이고 이것이 일본에서 최초로 취입된 것이 오케 1728 진도아리랑이라고 김소희는 증언하는 것을 필자는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이것은 김득수도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종기는 남도아리랑을 토대로 하여 진도아리랑과 곡조가 비슷한 전라도민요 물레타령이나 산아지타령을 본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보형 1997: 114).

<진도아리랑>이 오케1728의 음반으로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36년이고 경성방송국에서 처음 방송된 것이 1937년이다. 그러므로 이보형의 주장에 의하면 박종기가 <진도아리랑>을 창작한 것은 1936년 무렵일 것이다.

<진도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는 <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에 비해 덜 알려진 노래였다. 또한 경성방송을 통해 <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부른 가창자는 대부분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경성 기생 출신의 '가수'였으나(이용식 2005: 153), <진도아리랑> 가창자는 무명의 소리꾼이나 심지어는 지역의 비전문가를[4] 포함한다(이용식 2013). 이는 이 시기의 <진도아리랑>은 주로 호남 출신의 판소리 소리꾼에 의해 불리는 '호남'이라는 지역을 탈피하지 못한 '지역의 노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5]

<진도아리랑>이 '진도'를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한 것은 1950년대 이후의 현상이다. 1950년대부터 전라도 출신의 판소리 소리꾼들이 <진도아리랑>을 음반에 취입하면서 이 노래는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도아리랑>은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과 더불어 '3대 아리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진도아리랑>은 '3대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로 자리매김한다. 아리랑과 관련된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서 <진도아리랑>이 빠지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진도아리랑>은 공연이나 행사의 피날

4 1937년 6월 25일 경성방송국의 <진도아리랑> 가창자 이름은 정분이, 최음전, 오선이, 박순이인데, 이렇게 '순박한' 이름은 세련된 예기의 이름이 아니다. 즉 이들은 지역의 비전문가로 추정된다.

5 이런 사실은 1915년 이후 폭발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해서 1950년대까지 간행된 각종 잡가집에도 <진도아리랑>이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레(finale)를 장식하면서 참여자 모두가 (심지어는 관객과 더불어) 합창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진도아리랑>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 노래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민요의 하나가 된다(이용식 2013).

3.2. 밀양아리랑

대부분의 학자들은 <밀양아리랑>이 '근대민요'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 노래의 형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김기현(1991: 24)은 사당패들이 부르던 경기잡가가 널리 전파·확산된 1900년대를 전후하여 <양산도> 가락과 당시 널리 불리던 아리랑소리 후렴의 차용으로 밀양인들에 의해 새로이 탄생된 "신민요"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보형(1997: 99)은 일제 강점기 초기에 <아롱타령>(<해주아리랑>이라고도 함)에서 파생되어 민요화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달리 권오성(1991: 844)은 "작곡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50-60년 전에 밀양출신의 작곡자가 지어서 불리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보형(2005)과 권오성(2005)은 <밀양아리랑>의 '작곡자'로 유명한 가요 작곡가인 박시춘(1913-1996)의 아버지인 박남포(1894-1933)를 지목한다. 실제로 많은 밀양인들은 <밀양아리랑>의 형성에 박남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밀양역 앞에 세워진 '밀양아리랑 노래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도판 1>).

<도판 1> 밀양아리랑 노래비 (밀양시 소재)

밀양아리랑은 영남(嶺南) 지방에서 유일(唯一)하게 전해오는 흥겨운 노래이다. 작자(作者)와 연대(年代)는 잘 알 수 없으나 아랑각(阿郎閣)을 둘러싼 여인의 애절(哀切)한 한(恨)을 달래는 이야기가 정(情)으로 이어져 초동(樵童)들에 의해 지게목발 장단에 마추어 후렴 부분에서 아리당닥궁 쓰리당닥궁으로 불리워 지든 것을 박남포(1894-1933)선생이 다시 간추려서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지난날 만주(滿州)벌판에서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해 싸우던 독립군(獨立軍)의 군가(軍歌)의 곡조(曲調)로 부쳐서 널리 불리워진 노래이다.

밀양인들은 <밀양아리랑>의 기원을 조선시대 명종조(1545-1567)에 정절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아랑(阿娘)설화에서 찾는다. 아랑은 처녀귀신이 되고 당시 밀양부사로 새로 부임하는 이상사(李上舍)가 아랑의 원혼을 풀어주고 이후 밀양에는 아랑을 추모하는 사당인 아랑각(阿娘閣)을 지었고 "아랑 아랑"하며 노래를 부른 것에서 <밀양아리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아랑설화류(類)의 설화는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종류의 설화의 주인공은 대개 신격화하고 일부는 『춘향전』처럼 판소리나 소설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6] 밀양에서는 이 설화의 주인공을 '아랑'이라고 부르고 이 '아랑'이 1912년 조사된 <아랑가>와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같은 명칭이라는 것은 설화에서 발생한 노래와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아랑설화에서 비롯된 "아랑 아랑"하며 부르던 노래는 주로 민간의식요(주문 형태였을 가능성도 있다)로 불린 듯하다. 왜냐하면 이런 후렴을 갖는 민요가 그동안 수집된 밀양 지역의 민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아랑각에서 올리는 제의에서 이런 종류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무교 의식행위에서 고사소리처럼 무교 종사자들이 "아랑 아랑"하는 노래(혹은 주문)를 읊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6 이렇게 신화가 소설의 동기가 되는 것은 신화적인 원형을 바탕으로 17세기 이후 소설이 등장하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클로드 레비스트로스 2000: 93).

밀양에서는 전통적인 무교 종사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길은 없다. 그러나 1971년 정부 조사의 통계연보에 노출된 밀양의 무교 종사자가 21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광규 1972: 24)은 밀양에 무교 종사자들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들이 "아랑 아랑"과 관련된 소리를 했었을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결국, 현재는 밀양에서 잊혀진 "아랑 아랑"하는 소리가 <아랑가>라는 제목으로 1912년 조사에서 수록된 것은 이 시기에는 이런 노래가 민간의식요로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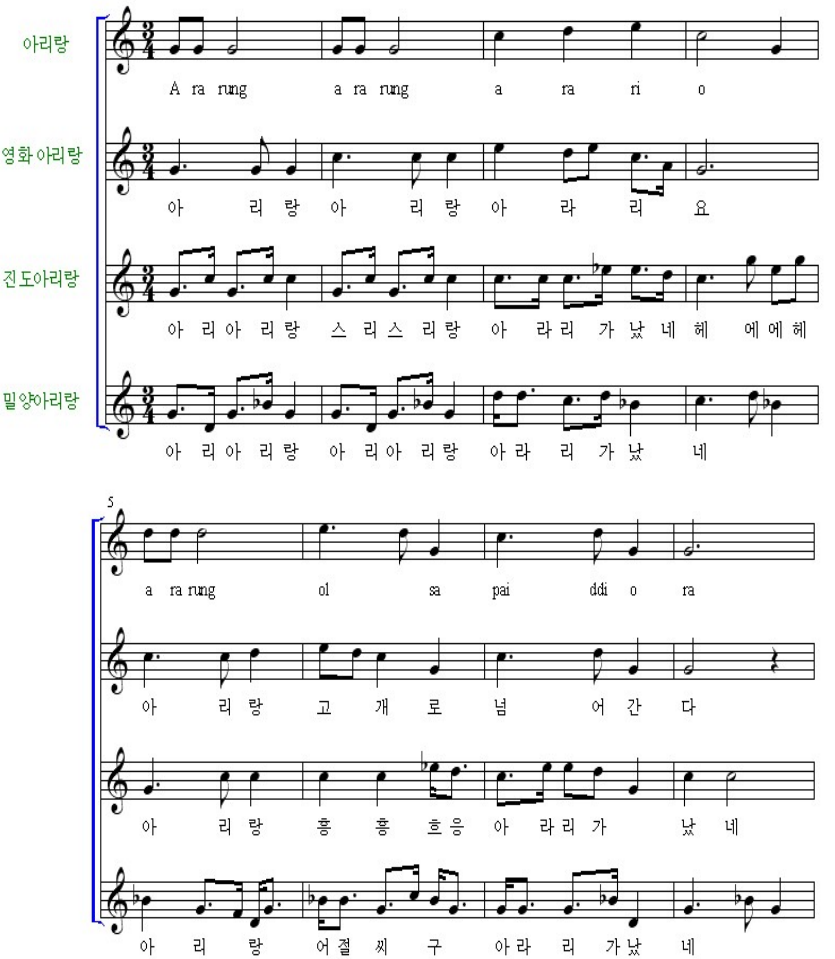
<아랑가>가 음악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밀양아리랑>과는 다른 형태의, 원형의 <밀양아리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신앙의 의식요로부터 만들어진 원형 <밀양아리랑>이 현재의 <밀양아리랑>으로 탈바꿈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이 박남포로 여겨진다. 왜냐 하면 193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시중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밀양아리랑>은 현재의 <밀양아리랑>과 거의 같은 가락으로만 노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남포가 직접 이 노래를 '작곡'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전국적으로 소문난 지주이자 한량이었던 그의 집(혹은 권번)을 수시로 드나들던 수많은 예능인 중의 한 명이 가락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사실 나운규의 영화음악이었던 <아리랑>이 이전에 존재했던 가락을 이름 모를 "단성사의 음악인"(김열규 1987: 76)이 변주하여 만든 것이고 박종기가 <진도아리랑>을 만들었듯이 당시 유행하던 <아리랑> 후렴구를 변주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음악적 창의력이 있는 음악인이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단지 "솔솔솔 - 솔솔솔 - 도레미 도-솔"로 단순히 진행하는 본래의 <아리랑>에 "솔솔솔 도도도 미레도솔"로 변주하여 영화음악 <아리랑>을 만들었듯이, 경상도 메나리조의 맛을 살려 "라미라도라 라미라도라 미미레도 레미

7 이는 아리랑의 기원이 '메아리'이고, 이는 '산(山)의 소리' 즉 "산신에게 드리는 노래(주문)"로서 "신가(神歌)"의 역할을 했다는 김연갑(1989: 23)의 주장과도 맥이 닿는다.

도"로 변주한 수준이다 (<보례 5>).[8]

<보례 5> 헐버트 채보 아리랑, 영화음악 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의 후렴구[9]



8 이런 점에서 권번을 운영하며 "예능소양이 남달랐던"(박시춘 1978. 3. 4) 박남포가 직접 지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9 각 악곡의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헐버트가 채보한 <아리랑>에 기하여 3/4박자를 기준으로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은 약간씩 박자를 변형하고 조옮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박남포의 집(혹은 권번)을 드나들던 정체 모를 음악인이 당시 유행하던 <아리랑>의 후렴구를 경상도 소리풍으로 변주시켜 만든 <밀양아리랑>에 박남포가 현재와 같은 형태의 후렴구를 개사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그가 거느리고 있던 기생들에게 노래하게 하면서 '밀양의 노래'로 화류계에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아리랑>의 노랫말에는 "날 좀 보소"나 "정든 님이 오시는데"와 같이 다른 아리랑소리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화류계에서 많이 쓰는 유흥적인 노랫말이 많은 것이다. 더욱이 "밀양에서 <밀양아리랑>은 그리 많이 불리지 않는다"(밀양문화원 1987: 294)는 사실은 이 노래가 여느 민요처럼 민간에서보다는 기생을 중심으로 한 화류계에서 집중적으로 불리기 시작되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를 '유력가의 창작'으로 공로를 돌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10]에 의해 박남포가 <밀양아리랑>의 창작자로 떠받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밀양아리랑>은 본래 무교인들에 의해 민간신앙 의식요로 불리던 노래가 19세기 말 이후 급속히 퍼진 아리랑소리의 영향으로 <아랑가>(혹은 원형 <밀양아리랑>)가 만들어지면서 산간에서 초동이 부르는 향토민요가 된다. 이런 <밀양아리랑>의 원형적 형성과정은 "신가"(神歌, 즉 巫歌)의 역할을 하고 "산악농요"로서의 성격을 지닌 강원도 원형의 아리랑소리(김연갑 1989: 24)와 궤를 같이 한다. 이후 향토민요인 원형의 <밀양아리랑>을 밀양의 박남포와 그의 집을 드나들던 어느 음악인이 개작을 해서 기생들을 중심으로 한 화류계에서 불리면서 밀양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소리, 즉 <밀양아리랑>이 된 것이다.

10 예를 들어 <여민락>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것이나 <새마을노래>를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다는 것이다.

4. 아리랑의 국가(國歌)화 과정

<아리랑소리>는 1930년대에 시중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노래'가 된다. 이 과정에서는 아리랑소리가 '민족의 노래'로 자리매김하던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고, 한편으로는 1930년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레코드 산업과 방송이라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이의 주역이었던 기생 출신의 민요가수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급속히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노래'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아리랑소리>는 '오래된 노래'라는 환상이 더해진다.

식민지 조선에서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졌지만 더 이상 부를 수 없었던 <애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저항노래가 필요했고 이것이 당시 <아리랑>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사회적 토대가 된다. 물론 <아리랑>은 이미 19세기 말에 매우 유행하던 '민요'였다. <아리랑>이 '국가'를 대체하면서 마치 1900년대 수많은 각편(version)의 <애국가>가 만들어지듯이 수많은 각편의 지방 <아리랑소리>가 급속도로 파생한다. <진도아리랑>을 만든 박종기의 경우나 <밀양아리랑>을 근대민요화시킨 박남포의 경우처럼 각 지방의 민중, 유력가, 혹은 음악가들은 수많은 지방의 <아리랑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는 우리 민요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아리랑>은 하나의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기능하면서도 각 지방마다 독특한 '토리'에 의해 '지방 아리랑'을 만드는 향토민요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런 지방 <아리랑소리>는 각 지방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노래로 어느 지방이나 <아리랑소리>가 없는 곳은 마치 근대화 과정 혹은 민족국가화 과정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여겨지듯이 각 지방 <아리랑소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제 <아리랑소리>는 피식민지 언어로 된 피식민지 민족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 베네딕트 앤더슨 2002)를 대표하는 의사소통어(linga franca)로서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

아리랑소리가 '민족의 노래' 혹은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나운규이다. 나운규는 1926년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면서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있던 <아리랑>을 영화 주제가로 채택한다. 나운규는 피식민지 민족의 한을 담을 수 있는 노래로서의 <아리랑>의 정치적 효용성을 이미 간파했었고, 이 노래를 영화의 소재로 선택함으로서 <아리랑>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도구로 영화 <아리랑>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아리랑>이 당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아리랑>은 식민지 조선인의 심금을 울리는 민족의 노래로, <애국가>를 대체한 국가로 "입에 한 구절씩 못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노래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아리랑고개"는 겨레의 의지와 절망이 교차하는 역사의 고개가 되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사랑하는 연인에서 피식민지 조국으로 승화된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운규는 해방에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애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아리랑>의 가능성을 파악했고, 이 노래가 국가화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이런 와중에 <아리랑소리>에 대해 '오래된 노래'라는 환상이 입혀진다.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노래인 민요에 대한 재인식을 추구하던 많은 문화계 인사들은 '아리랑소리로의 회귀'를 주창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아리랑소리>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오래된 전통민요로 자리매김한다. <아리랑소리>는 이제 상상된 민족국가의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래 된 노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다. 대부분의 만들어진 전통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들면서, 제나름의 과거를 구성하기 마련인데(에릭 홉스봄 외 2004: 12), 이런 '전통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리랑소리>는 국가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1930년대 들면서 방송과 음반 산업이 식민지 조선에서 영향력을 파급하면서 <아리랑소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최고의 '인기가요'가 된다. 이 시기에 들면 <아리랑소리>는 이미 '민요'로서의 본질을 넘어서서 '가요'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민중에 의해 불

리던 <아리랑소리>는 기생 출신의 민요가수에 의해 대중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가요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아리랑소리>는 더 이상 향토적인 구수한 맛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가수에 의해 세련된 '근대민요'로 탈바꿈한다. 특히 <밀양아리랑>은 세마치장단에 경쾌한 리듬으로 되어있어서 느리고 늘어지는 템포의 여느 <아리랑소리>에 비해 생동감 있는 가락을 갖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아리랑소리>였다(이용식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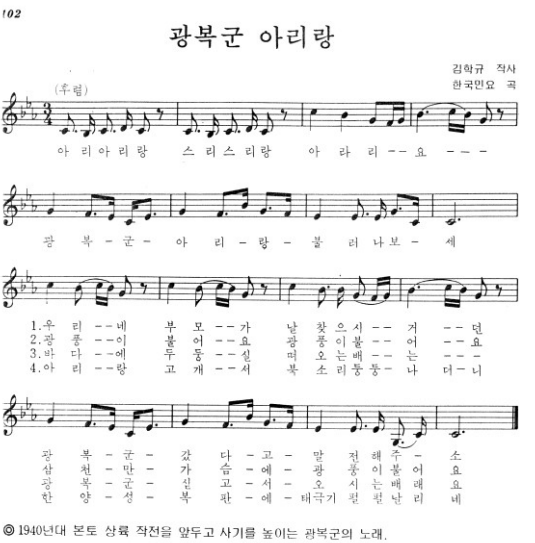
또한 <아리랑소리>는 이제 '유행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식민지 조선인의 정체성의 동일화라는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식민지 조선인들은 <아리랑소리>를 들으면서 국가로서의 <아리랑소리>를 옹호하는 주체가 되고, 무의식적으로 <아리랑소리>를 통한 항일의식이라는 사회화의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아리랑소리>의 사회적 역할이었고, 이런 운동의 선봉에 <아리랑소리>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사상문제'로 인한 치안방해로 <아리랑> 레코드를 압수하고 <아리랑>을 금지곡으로 삼지만, 이미 민중에게 폭넓게 퍼져 있던 노래를 제도적 장치로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제주도에서 조차 "거리의 술집 비바리가 「아리랑」「도라지타령」을 목맷처 부르며 가게의 레코-드가 「양산도」 가락을 넘기고"(김능인 1939; 최철・설성경 1984: 192 재인용) 있는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소리>는 여전히 민중들 사이에서 불릴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도 맹위를 떨친 것이다.

이렇게 <아리랑소리>는 이제 민중의 '지하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의 노래로 모습을 바꾸지만 여전히 피식민지 민족의 저항노래라는 본질적 성격은 간직한다. 예를 들어 <밀양아리랑>은 독립군 사이에서도 <독립군 아리랑> 혹은 <광복군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애창되었다(<보례 6>). 독립군들의 노래는 <밀양아리랑>의 가락에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수준이었다. 독립군들이 그 많은 아리랑소리 중에서 <밀양아리랑>의 가락을 그들의 '군가'로 채택한 이유는 <밀양아리랑>의 경쾌하고 힘찬 가락과 정서가 '군가'의 필요조건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11] 이렇게 '유행가'로서의 <밀양아리랑>은 이제 단순한 유행가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일의 노래라는 사회화의 의식요로 격상되면서 독립군가로 애창되었던 것이다.[12]

<보례 6> 광복군 아리랑 (독립군가보존회 1982: 102)



◎ 1940년대 본토 상륙 작전을 앞두고 사기를 높이는 광복군의 노래.

11 밀양인들은 "이 시기 독립군의 지도적 인물 중에는 영남 쪽의 애국청년들이 많았던 점"(밀양문화원 1987: 294)으로 인해 <밀양아리랑>의 곡조가 독립군가로 불렸다고 하지만, 이는 그리 근거있는 이유가 아니다. 당시 독립군 지도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물들이었고, '밀양'이라는 한 지방의 노래를 독립군을 대표하는 노래로 삼는 것은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이 노래의 경쾌하고 힘찬 가락이 군가의 기본적 성격과 맞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독립군가로 채택했을 것이다. 이런 점은 당시 독립군이 즐겨 부르던 민요로 <독립군 아리랑>(밀양아리랑) 외에도 흥겨운 가락을 갖는 <독립군 늴리리아>가 있는 것을 보아도 (독립군가보존회 1982: 104) 알 수 있다.

12 당시 대부분의 혁명가나 독립군가가 일본 창가나 군가의 가락에 얹어 부르는 와중에도(이강숙 외 2000: 55-60) 민요를 '노가바'해서 만든 <밀양아리랑>은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아리랑소리>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노래를 통해 식민지 치하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있을 해방조선이라는 민족주의 국가, 즉 인위적인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의 사회 통합과 소속감을 구축하고 상징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의 <아리랑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아리랑소리>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상상의 공동체를 지방마다 고유의 노래를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아리랑소리>를 통해 망국의 한의 정서를 표출했고 해방조선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용식 2016).

5. 맺는말

<아리랑>은 일제 강점기 치하 피식민지 조선인들의 해방된 민족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근대문화의 산물이다. 19세기 이전에도 <아리랑소리>는 존재했다. 강원도 지역의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은 본래 일노래로 불리는 향토민요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경기민요 소리꾼들이 부르면서 통속민요화한다. 강원도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는 경기도 <긴아리랑>과 <자진아리랑>의 모태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방송과 유성기 등의 대중매체가 발전하면서 경기민요 소리꾼들이 강원도의 향토민요를 통속민요화하였다.

현재 <아리랑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 여기는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은 모두 일제강점기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발표되면서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상징하는 일종의 국가(國歌)로서의 상징을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에서는 지방의 음악적 어법을 담은 지방 <아리랑소리>들이 급속도로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이 탄생한다. 대부분의 민요처럼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은 ‘작곡(composition)’되는 것이 아니라 <산아지타령>과

<아랑가> 등 그 지역에서 전승되는 향토민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 만들어졌다.

<아리랑소리>가 '민족의 노래'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애국가>를 대체하는 노래로 근대 민족국가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특히 1930년 급속도로 발전한 음반 산업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기생 출신 가수들에 의해 <아리랑소리>는 '민요'라기보다는 도시문화를 표상하는 '유행가'로 대중들에게 급속하게 보급된다. 이렇게 <아리랑소리>는 '민족의 노래'로 '국가'로 여겨지고 또한 <광복군아리랑>, <독립군아리랑> 등이 만들어지면서 '독립군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여느 '만들어진' 전통의 특수성에서처럼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에릭 홉스봄 외 2004: 21) <아리랑소리>는 제 나름의 과거를 구성한다.

해방 이후 <아리랑소리>는 대한민국의 국가로 제정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에게 국가의 지위를 넘긴다. 더욱이 민요가 '전(前)근대적인 저급하고 고루한 노래'로 인식되면서 <아리랑소리>는 점차 대중(민중이 아닌)에게서 멀어진다. 이런 와중에 경상도를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은 더욱 설 자리를 잃는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진도아리랑>의 경우는 판소리 소리꾼들이 계속 주요 레퍼토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생명력을 담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판소리 소리꾼과 같은 전문적인 소리꾼이 그다지 없었던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은 점차 '민중의 노래'로만 남게 되고 일제 강점기의 화려한 명성을 뒤로 한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 동안 <밀양아리랑>의 주된 가창자였던 중앙의 소리꾼들이 '경상도 소리'인 <밀양아리랑>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밀양아리랑>은 이제 '중앙의 인기 민요'로서의 자리도 잃고 경상도 민중의 지역아리랑으로 점차 왜소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막연히 <아리랑>이 매우 오래된 노래이고,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늘 불리는 노래라는 환상을 갖는다. 그러나 오래된 향토민요로서의 <아리랑>

은 강원도에 전승되는 노래에 국한된 것이고, 나머지 지역 <아리랑소리>는 근대 이후 만들어진 통속민요이다. 그러나 통속민요 <아리랑>은 향토민요 <아리랑>의 음악어법을 계승하였기에 우리 민족의 노래로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참고문헌】

강등학(1992)「정선아라리의 기능」, 『역사민속학』2, 역사민속학회.

강등학(1988) 『정선아라리의 연구』, 서울: 집문당.

권오성(1991)「밀양아리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8,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기현(1991)「밀양아리랑의 형성과정과 구조」, 『문학과 언어』2, 문학과 언어연구회.

김능인(1939)「제주도 멜로디」, 『삼천리』8월호.

김연갑(1986) 『민족의 숨결, 그리고 발자국 소리 아리랑』, 서울: 현대문예사.

김연갑(1989) 『아리랑 그 맛, 멋 그리고...』, 서울: 집문당.

김열규(1987)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서울: 조선일보사.

김지연(1930)「조선민요연구, 조선민요 아리랑」, 『조선』151-153호.

독립군가보존회(1982) 『광복의 메아리』, 서울: 독립군가보존회.

밀양문화원(1987) 『밀양지』, 밀양: 밀양문화원.

박시춘(2005)「나의 이력서」1-40, 『한국일보』, 3월 1일-4월 19일.

이강숙 외(2000) 『우리 양악 100년』, 서울: 현암사.

이광규(1972)「총론」,『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편』,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이보형(1997)「아리랑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5, 한국민요학회.

이용식(2008)「만들어진 전통: 일제 강점기 기간 <아리랑>의 근대화, 민족화, 유행화 과정」,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한국 근대 민속의 이해 I: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구비문학과 민간신앙』, 서울: 민속원.

이용식(2009)「강원도 <아라리>의 음악적 특징과 원형적 특질」,『한국민요학』25, 한국민요학회.

이용식(2013)「<진도아리랑>의 대중화 과정에 끼친 대중매체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39, 한국민요학회.
이용식(2016)「<아리랑>의 토속성과 통속성」,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정동화(1977)「아리랑 어원고」, 『국어국문학』 76, 국어국문학회.
정재호(2002)『한국속가전집』 3, 서울: 다운샘.
지춘상·나경수(1998)「진도아리랑형성고」, 『호남문화연구』 18,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최철·설성경 엮음(1984) 『민요의 연구』, 서울: 정음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5) 『한국의 민속음악 - 경상남도민요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양명(1989)「진도아리랑타령의 전승에 대한 접근」, 『한국민속학』 22, 한국민속학회.
베네딕트 앤더슨(2002),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에릭 홉스봄 외(2004),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2000) 임옥희 옮김. 『신화와 의미』, 서울: 이끌리오.
Homer B., Hulbert. (1896) “Korean Vocal Music”, *Korean Repository,* February.

나가는 말
Afterword

森 類臣[1]
大谷大学

2017년 8월 3-4일에 열린 본 학회 '제13회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The 13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에서는 메인 심포지엄으로 '아리랑 -상실과 재생'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본 학회가 최초의 국제 공동 연구의 장으로 추진한 'ISKS International Workshop on New Perspective for Korean Studies' (2016년 7월 15-17일, 중국 심양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2].

또한 본 학회에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음악 심포지엄의 주제로 삼은 것은 '제5회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1997년 8월, 오사카 국제교류센터)에서 <제3 심포지엄 '코리아 음악, 예술 동질성과 다양성'> 이후 처음이다.

본 심포지엄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심포지엄은 송남선

1 Tomoomi Mori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Letters, Otani University, Chief executive secretary of ISKS Japanese Branch).
E-mail : tt-mori@res.otani.ac.jp

2 'ISKS International Workshop on New Perspective for Korean Studies'에서는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나는 '음악: (본조) 아리랑을 중심으로'이며 다른 하나는 '19 세기 후반 이후의 Korea의 인구 변천과 해외 이민'이다. '19 세기 후반 이후의 Korea의 인구 변천과 해외 이민'은 '제13회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에서 '특별분과: 인구이동'으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측'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측'으로 표기한다.

교수(본부 부회장, 오사카경제법과대학)이 사회를 맡았고 발표자로서는 강보유 교수 (아시아 분회, 복단대학), 공명성 교수 (평양지부, 사회과학원)[3], 이병원 교수 (북미지부, 하와이대학교), 이용식 교수 (서울지회, 전남대학교), 모리 토모오미 (일본지부, 오타니대학)의 5 명이 등단하였다.

심포지엄의 취지는 송남선 부회장의 '들어가는 말'을 참조해주기 바라며 취지의 핵심은 "남북/북남 코리아, 그리고 해외 동포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는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랑'은 특별한 노래로 존재한다. 그런데 왜 '아리랑'이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왜 '아리랑'이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었다.

발표자는 각자의 전문성에 입각하여이 물음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각 발표자의 원고를 참조해주기 바란다.

이용식 교수는 음악학의 관점에서 '아리랑의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9 세기 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아리랑'과, 1926 년에 영화 '아리랑'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노래 '아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용식 교수는 먼저 님 웨일스(Nym Wales)의 'The Song of Ariran'을 소개하고 당시 외국인 님 웨일스가 "아리랑"은 한/조선민족에게 특별한 존재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Korean Repository (1896)'에 수록한 '아리랑', 그리고 음악 학자 앨리스 플레처(Alice Fletcher)가 같은 해 (1896 년)에 음원으로 수록한 '아리랑'(당시 하버드대학교에 유학하고 있었던 조선인 학생들이 직접 부른 노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19세기 말 아리랑은 이미 조선인에게 광범위하게 불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용식 교수는 음악 학자로서 아리랑 전체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강원도 아리랑 (아라리)'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운규의 영

3 단 공명성 교수는 사정에 의해 이번 심포지엄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화 '아리랑'에 대해 언급하고 그 주제가인 '아리랑'은 근대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조선반도의 정서적 및 음악적 독자성도 담겨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조선반도에서 선호하는 것은 3박자이며 음계(솔레도레미 5 개로 이루어진 서울 지역 노래)라고 말하였다.

이용식 교수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박자, 창가(唱歌), 동요 등은 한/조선반도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쉬웠고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 흐름에서 1930년이 되어서 신민요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아리랑'도 신민요라는 분야에서 빠져 나가기 어렵다. 또한 1930년대에 지방에서도 많은 '아리랑'이 만들어졌다. 특히 밀양 아리랑은 대표적인 신민요이다. 공명성 교수의 발표 주제는 '본조 아리랑의 유래에 대한 고찰'이었다(공명성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룡 전 사무총장이 대독하였다).

공명성 교수는 '아리랑'에 대하여 그 발생부터 해방 전까지의 궤적을 추적하였다. 공명성 교수에 따르면 조선왕조[4] 초기에 '아리랑'이 발생하였고 조선왕조 전반기에 형태가 만들어졌으며 조선왕조 후반기에 각 지역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근대기에는 각 지방에 고착되어 현대에 들어서 민족을 상징하는 '아리랑'이 출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명성 교수는 영화 '아리랑'을 계기로 노래 '아리랑'이 항일 투쟁의 노래이며 민족을 대표하는 명곡이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공명성 교수는 아리랑의 어원에 대한 가설을 8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병원 교수는 'Mystery of Origin and the Social Dynamics of the Korean Folksong "Arirang"'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병원 교수는 '아리랑'이 갖는 가치를 음악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우선 음악적 가치를 (1) 경기 지방 민요에 바탕을 둔 신민요, (2) 장사훈 (1916-1991) 극앙 대사전(1984), (3) 선율이 한 옥타브 내에서

4 공명성 교수의 발표문에서 '조선봉건왕조'라고 표현되고 있다.

진행되는 단순한 노래, (4) 세마치 혹은 3 박자 장단, (5)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가사 내용이 특이함, 이상의 5 가지로 정리하였다.

또 이병원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1991년과 2009년의 사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2009년의 사건은 중국이 길림성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남측 (한국)이 반발하여 그때부터 아리랑에 대한 학술대회 등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관계해서 201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는 흐름을 설명하였다.

1991 년의 사건으로는 1991 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991 년 4 월에 일본 치바현(千葉県) 치바시(千葉市)의 컨벤션센터 [당시, 현재는 마쿠하리(幕張)멧세] 에서 개최)에서 남북이 통일팀으로 출전 해 우승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상식에서 남북의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른 것이다.

모리의 발표 주제는 '아리랑의 사회적 구축에 대하여'였다. 모리는 아리랑의 인식 상황 및 연구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측에서는 1970년대에 정부 차원에서 민족을 투사한 아리랑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예가 등장하였고 1980년대부터 남측과 북측의 통합의 상징으로 아리랑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정부와 민간 모두 아리랑을 통일과 평화의 이미지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조하였다.

또한 북측의 아리랑에 대한 인식 및 연구 상황(북측의 연구자들에 의한 아리랑 연구뿐만 아니라, 남측 또는 해외의 연구자들에 의한 "북측이 아리랑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도 포함)을 정리하였다. 북측에서는 1957년에 나운규가 재평가를 받은 것이 가요 '아리랑'의 평가에 있어서도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1962년 3 월에 발표된 김일성 주석의 교시가 결정적이었다. 그 후 1990년대에 시작된 대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의 시작 장면의 배경 음악으로 아리랑이 채택되었고 2002년에 '예술공연과 대집단체조 "아리랑"'이 시작된 것도

중요한 일이다. 연구적인 측면으로는 2011년에 '아리랑'을 정리 및 분석한 학술서 '조선민요 아리랑'(윤수동, 문학예술출판사)가 출판되었다. 모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1) 재외 코리안의 '아리랑'에 관한 연구, (2) 범민족적 시점에서 '아리랑'의 사회적 구축 연구를 더 심도있게 해야할 필요성, (3) '아리랑'이 지닌 한/조선민족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에 입각한 접근, (4) 한/조선민족 내 '아리랑'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아리랑'을 통해 한/조선민족을 재인식하는 것, 이상의 4가지를 들었다.

강보유 교수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의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보유 교수는 우선 전제로써 '아리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나는 한/조선반도에서 발생한 원색 그대로의 '아리랑'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조선족에서 새로 만들어진 '아리랑'이다. 중국 조선족에서 '아리랑'은 "모국에 대한 향수를 부르던 노래로부터 항일의 노래로, 민족 해방의 노래로, 조선족 동포 사회 건설의 노래로, 그리고 개혁개방과 세계화의 노래로 승화되었다[5]"이다. 강보유 교수는 "아리랑은 오늘날 중국에서 슬픔의 벽을 넘었다. 슬퍼도 아리랑, 기뻐도 아리랑이다[6]"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강보유 교수는 중국 조선족의 '아리랑' 50개를 선정하고 가사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중국 조선족이 갖는 '아리랑'의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해당 키워드를 '해방', '고향', '민족', '꿈과 희망', '희로애락', '이별과 상봉', '그리움과 추억', '사랑과 행복', '자연과 공생', '세계화'라고 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역시 송남선 교수가 사회 및 진행을 맡았다. 먼저 공명성 교수의 논문에 대한 코멘트를 이병원 교수, 이용식 교수가 하였다. 공명성 교수의 발표문 중에 '아리랑'이 조선왕조 초엽에 발생하였다고

5 강보유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의 아리랑' "제 13 회 코리아학 국제학술 토론회(심포지엄 '아라랑- 상실과 재생') 자료집", 18
6 상동.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즉, 공명성 교수가 말하는 조선왕조 초엽에 있던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인지가 궁금하다라는 것이었다. 남측의 음악 학계에서는 학술적 도달점으로서 아리랑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강원도 아리랑'을 추측하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공명성 교수의 불참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지만, 이 부분은 '아리랑'의 기원을 생각하는 데에 중요한 점이다. 앞으로 남북/북남 연구성과의 교환이 필요할 것 같다.

다음으로 사회자인 송남선 교수의 질문이 있었다. 그 내용은 "아리랑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가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식 교수가 대답하였다. 이용식 교수에 따르면 1930년대에는 '본조 아리랑'뿐만 아니라 많은 항일 노래가 신민요로 창작되었다. 대표작 하나를 예로 들자면, 함경도 북청지방의 '돈돌라리'이다. 단 '본조 아리랑'은 서울을 중심으로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기에 전국에 파급되는 힘이 강하였고 항일이라는 요소도 작용해서 한/조선민족을 대표하는 노래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설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송남선 교수는 "'아리랑'이 1991년에 그랬던 듯이, 남북 및 재외 동포의 화해의 기회를 준다면,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싶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다. 강보유 교수는 "'아리랑'은 옛날에는 고통과 슬픔의 노래였다면 지금은 그 시기를 넘어서 자기 행복,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중국 조선족 안에서는 그렇고 한국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아리랑'은 이미 슬픔을 넘었다. 앞으로는 통일의 노래, 행복과 즐거움과 사랑의 노래로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대답하였다.

모리는 "'아리랑'은 저 같은 한/조선민족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노래이다. '아리랑'이 민족통합의 계기를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한편으로 '아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 혹은 국민국가를 지향하고 그것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이 있다. 그래서 혹시 민족통합 논리를 떠나서 '아리랑'을 '세계화'하려고 한다면 '아리랑'은 그

안에 있는 벽을 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대답하였다.

이 후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거기서는 "'아리랑고개'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많다. 그렇다면 한/조선반도의 '아리랑'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사례가 있다면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가?", "'아리랑'을 부를 때 어떤 방식 및 형태가 있는지"등의 질문이 적극적으로 나왔다.

또한 본 대회에서는 본 심포지엄 외에 일반 발표로 '중국 주류 사회에서의 "아리랑" 수용 연구 -인기 아이돌 그룹 "아리랑"을 중심으로-(서영빈/중국대외경제대학, 장효화/중국대외경제대학)'라는 중요한 발표도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덧붙여 말한다.

해방시단의 불꽃, ‘전위시인’들의 창작과 그 후일담

The Works and Sequels of the ‘Avant-garde Poets’, Sparks of the Liberated Parnassus

고철훈[1]
조선사회과학원

일제식민지기반으로부터의 조국해방은 조선인민의 생활과 운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의 해방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감격과 환희는 강토의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다를바가 없었으며 북받쳐 오르는 격정을 안고 목청껏 부르는 만세의 환호소리는 거리를 누비고 강산을 진감하였다.

조국의 해방은 남조선의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작가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으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이들 중에는 해방의 시단을 투쟁의 불꽃으로 아로새긴 새 세대 시인들, ‘전위시인’ 들도 있다.

조선현대시문학사에 빛나는 장을 펼친 이들의 창작과 그들의 후일담에 대하여 더듬어보려고 한다.

1 Chol Hun Ko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1. 해방직후 남조선의 문단실태

1945년 8월15일, 조국의 해방과 함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찾은 우리 인민은 새 력사를 창조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된 우리 인민은 끝없는 기쁨과 커다란 희망을 안고 흥분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있으며 불타는 건국열의로 들끓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2권 65페지). 기쁨과 환희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조국개선을 맞이한 북조선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조선건설의 혁명적인 대강을 높이 받들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남조선에서도 이르는곳마다에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이 세워지고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남조선의 각지에 결성되였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새 조국건설을 위해 떨쳐나섰다.

그러나 새 조선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난관과 애로에 부닥치게 되였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은 첫날부터 38도선을 국토와 민족을 갈라놓는 인공적인 장벽으로 만들고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해방후 민주주의적자주독립의 기치높이 새 나라, 새 사회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북조선과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된 남조선은 전혀 판이한 형세에 놓이게 되였으며 혁명과 반혁명, 민주와 반동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와졌다.

해방직후 남조선문학은 이처럼 격동적이면서도 복잡한 정치정세속에서 자기 발전의 첫걸음을 떼게 되였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작가들은 식민지시대문학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제기하였지만 이 과제에 대한 해석과 실천과정은 진보와 보수간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있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민족분렬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북남간에 정치사상적, 리념적대립이 뚜렷해지고 남조선사회자체내에서도 미제와 반동들의 부추김밑에 각종 정치, 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리념을 내세우며 대립되게 되자 그 영향밑에 남조선문단도 좌우로 갈라져 첨예한 대립을 이루게 되였다.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활동의 사회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저들의 조직단체를 내오기에 급급하였다. 하여 해방후 제일 선참으로 '조선문학건설본부'라는 문인단체가 조직되게 되였다. 이 단체는 자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선음악건설본부', '조선미술건설본부', '조선영화건설본부' 등과 련합하여 1945년 8월18일에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를 결성하였다(권영민 2014: 29). 이 단체는 남조선공산당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박헌영, 리승엽도당의 지시밑에 림화, 리태준, 김남천 등이 하루밤사이에 날조한 사이비 좌익단체에 불과하였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마치도 문학예술의 '전국적중앙'이나 되는것처럼 놀아대자 변영로, 오상순, 박종화, 김영랑, 리하윤, 김광섭, 김진섭 등의 우익작가들은 이해 9월 18일에 보수적인 문인단체인 '중앙문화협회'를 설립하여 이 단체와 정면으로 맞섰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대한 반발은 당시 진보적인 좌익계렬의 작가들속에서도 일어났다. 해방전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무산계급문학건설을 지향한 '카프' 작가들인 리기영, 한설야, 송영, 윤기정 등은 각 부문의 문화예술인들을 다시 규합하여 9월 30일에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을 조직하여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지도로선으로 내놓은 '문화활동의 기본적일반방책'에 반기를 들고 해방전 '카프' 문학의 정통성계승을 주장하였다. 사실상 림화가 주동이 되여 '조선문화건설중

앙협의회'가 내놓은 문화활동의 기본방책이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 박헌영의 '8월테제' 를 문화령역에 그대로 적용한것이며 문화의 계급적성격을 부정하고 부르죠아민족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설교한것이였다.

이처럼 해방직후부터 남조선문단은 좌왕우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나름대로의 민족문학건설을 제창하였다.

로선상 차이로 두갈래로 갈라진 좌익계렬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련맹'은 그후 좌익운동의 통일전선을 확립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1945년 12월에 '조선문학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통합을 이루었다.

'조선문학동맹' 은 자기 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1946년 2월에 전국문학자대회를 소집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단체의 명칭을 '조선문학가동맹'으로 개칭하고 ①일본제국주의잔재 소탕, ②봉건주의의 잔재 청산, ③국수주의 배격, ④진보적 민족문학의 건설, ⑤조선문학의 국제문학과의 제휴라는 다섯개 항목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좌익적인 '조선문학가동맹' 의 조직세력이 강화되자 이들의 정치적립장을 반대하던 보수진영의 작가들은 '중앙문화협회'를 중심으로 1946년 3월13일에 '전조선문필가협회' 를 창설하였으며 이 단체에 가담하고있던 조연현, 김동리, 서정주, 조지훈, 곽종원 등이 별도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조직하여 '조선문학가동맹'과 대립하였다(권영민 2014: 30).

이 단체들은 겉으로는 문학인으로서 민주주의국가건설에 공헌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가자는 강령을 채택하였지만 실제는 계급문학을 반대하고 순수문학을 표방하면서 남조선문학을 퇴폐와 부패타락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책동한 보수적인 문학단체들이였다.

그러나 진보적세력과 민주주의진영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던 해방직후의 정치정세는 문단에서도 좌익이 중요 신문과 잡지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언론계와 문화계는 대부분 조선문학가동맹에 속한 진보적작가들

편에 쏠리고있었다.

이러한 시대적분위기에 바빠맞은 미제는 남조선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민주주의단체들의 활동을 비법화하고 그에 대한 탄압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그 화살을 좌익적인 진보적작가들에게로 돌리였다. 미군정은 각종 악법을 내걸고 진보적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방해하였으며 그들을 체포구금하고 그들의 작품들을 압수하여 출판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탄압이 심해지고 북과 남의 국토량단이 기정화되자 리기영, 한설야를 비롯한 많은 핵심인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북조선에 넘어갔으며 나머지 작가들도 체포구금되거나 지하에 들어가면서 '조선문학가동맹'은 1947년에 예정하였던 제2차 전국문학자대회를 취소하고 사실상 자기 존재를 마치게 된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조국해방이라는 변천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진보적문학을 창작발전시키기 위하여 떨쳐나선 작가들은 새 나라, 새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지향과 념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지난날의 생활경위와 사회계급적처지, 세계관과 미학견해 등에서 한결같지 않았으며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었다.

일제통치시기에 갖은 탄압과 박해를 무릅쓰고 무산계급의 문학작품창작을 위해 붓을 들었던 작가들인 리기영, 한설야, 박세영, 송영, 채만식 등은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사회와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진보적인 문학을 창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부터 시창작을 하여 이름이 알려진 리용악이나 오장환과 같은 경우에는 해방을 맞이한후 선진적인 사상적립장에서 창작사업을 활발하게 벌려 당시 남조선의 진보적문학계에서 중견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문학활동에 관여한 작가들가운데는 김기림, 정지용과 같이 지난날 예술지상주의와 순수문학을 표방하고 자연주의나 모더니즘경향의 작품들을 썼지만 해방을 맞이하여 종전의 그

릇된 창작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문학창작의 길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 반면에 해방전과 같이 문학의 사회적성격을 부인하고 이른바 '문학의 자률성'을 주장하면서 순수문학을 추구한 김동리, 김광섭, 박종화, 서정주, 리하윤 등의 작가들은 진보적문학과 대립하면서 순수문학 창작에 몰두하였다.

해방직후 복잡한 사회정치적환경속에서 출현한 남조선의 진보적문학은 초기에 순수문학을 추구한 부르죠아문학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였으나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리승만단독정부의 조작으로 박해와 탄압이 강해지자 날이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며 결국 진보적인 문학작품창작과 발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였다. 그러한 해방의 정국속에서 불꽃시인들로 활약한 시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새 세대 청년시인들인 '전위시인'들이였다.

2. 해방직후 '전위시인' 들의 창작활동

'전위시인' 들은 해방직후 남조선에 조성된 사회력사적현실에 토대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규탄하고 혁명적인 시창작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김상훈, 유진오, 리병철, 김광현, 박산운, 최석두, 류종대, 최찬용 등 젊은 세대의 시인들은 1946년에 출판된 『전위시인집』이라는 표제의 시집에 자기들의 혁명적인 시들을 수록하였다. 이때로부터 이들을 '전위시인' 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이들은 해방후 남조선혁명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의 거세찬 흐름속에 뛰여들어 대중의 심장속에 투쟁의 불을 지펴주는 격동적인 시를 지어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원래 해방직후 남조선문단에서 좌익경향의 시인들로서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시부위원회에 소속되여 창작활동을 벌린 권환, 박세영, 박아지,

박팔양, 백인준, 리용악, 김상오, 민병균, 오장환, 조벽암, 김기림, 김동석, 조운, 조남령 등을 들수 있다. 그에 맞선 우익경향의 시인들로서는 김광섭, 김상옥, 김억, 모윤숙, 박남수, 박두진, 박목월, 박종화, 서정주, 량주동, 리하윤, 리한직, 조지훈 등이다. 이들은 수적으로도 좌익진영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권영민 2014: 78).

좌익시단에서는 오장환, 리용악, 박아지, 림학수 등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려 주목을 끌었다. 오장환의 시『병든 서울』(1946),『공청으로 가는 길』(1946), 리용악의 시집『오랑캐꽃』(1947)에 속한 시『오월에의 노래』, 림학수의 『필부의 노래』(1948), 박아지의 『심화』(1946) 등은 좌익진영의 시단에서 관심사가 되였던 작품들이다.

'전위시인' 들은 비록 시단에 새롭게 등장한 젊은 신인들이였지만 리용악, 오장환 등 기성시인들의 지도를 받으며 끓어넘치는 열정과 진취적기백을 지니고 사상적지향성이 뚜렷한 시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해방직후 남조선시단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피끓은 20대의 '전위시인' 들은 비록 학도병출신들은 아니였지만 미제의 악랄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극심한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학도병동맹[2]의 투쟁강령에 공감하여 그 조직의 성원으로 되였으며 서재가 아니라 격렬한 투쟁현실속에서 반미항쟁의 붓을 높이 들고 정의의 목소리로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격려하였다.

학병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위구를 느낀 미제와 그 주구들은 청년학생들의 투쟁의기를 꺾고 그들의 혁명적진출을 제압할 목적밑에 1946년초에 학도병조직들을 강제해산시켰으며 백색테로의 무지한 몽둥이로 학도병동맹조직과 성원들을 모조리 파괴, 체포,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럴수록 '전위시인' 들은 미제를 반대하고 민

2 학도병동맹은 일제강점말기 제국주의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려갔다가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학도병출신의 청년들이 조직한 청년단체로서 애국인사 려운형의 지도밑에 남조선의 정치정세에 영향을 행사하고있었다.

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전위가 될것을 맹세하고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시들을 창작하며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전위시인’으로 불리운 청년시인들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전개한것은 유진오였다. 그는 해방전 일제의 ‘학도병’ 징집을 피해 2년간이나 태백산에 숨어지내다가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을 내려 서울에 왔다.

유진오는 1948년에 출판된 시집 『창』의 발문에서 이렇게 썼다.

“시인이 되기는 바쁘지 않다. 먼저 투철한 민주주의자가 되여야겠다. 시는 그다음에 써도 충분하다. 시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진정한 민중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여야 할것이다. 투철한 민주주의자가 된다는것은 인민을 위한 전사가 되는것이다. 나의 시다운 시는 금후의 문제이다.” (리창혁 2011: 16-17).

유진오는 시인이 되기에 앞서 먼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사상적관점과 사회정치적립장에 의하여 그의 시문학의 정치사상성이 규정되였다.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위해 시를 썼다. 하기에 그는 언제나 시위와 파업의 선두에, 학살당한 전우의 령전에, 군중대회의 연단에 서있었다.

유진오는 일제침략자들이 ‘한일합병’을 조작한 때로부터 3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진행된 문예강연회에서 반미감정을 고취한 시 『38이남』(1945)을 랑송하였으며 1946년 9월 1일 국제무산청년절을 기념하는 군중대회장에서 시 『누구를 위한 벅찬 우리의 젊음이냐』(1946)를 랑송하여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더욱 강렬하게 토로하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도록
두주먹을 부르쥐고 일어선것은

누구를 위해 바칠 붉은 심장이냐

이렇게 피 끓는 웨침으로 시작된 시는 남조선에서 '새 주인' 으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굴종하여 또다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꿈 꾸며 날치는 반동파와 친일잔재세력의 추악성을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절규하였다.

누구를 위해
피 끓는 우리의 젊음이냐
38년전 그때의 조국과 같이
나라가 팔려 눈물 머금으며
이국땅에 쫓기고 살륙되던
이 땅의 사람들은
팔리고 죽어 간 그날을
가슴 쥐여 뜯으며 잊지 못한다

오늘은 또
썩은 강냉이에 배탈이 나고
구데기 쓴 밀가루에 부황이 드는데
그 우에 또한
3500만딸라의 빚을 짊어 지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놈들의 발밑에 짓밟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눈물 글썽해 우리앞에 섰다
누구를 위한
벅찬 우리의 젊음이냐
어디, 어느 놈이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느냐
우리의 젊은 힘은
피보다도 세차고 뜨겁다

시인은 시를 이렇게 끝 맺었다.

피를 뿜고 미쳐 난
새로운 제국주의와
망녕된 늙은 강아지에게
저승길로 가는 로자를 주어
지옥으로 내여 쫓자

이처럼 시는 지난날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대신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새 주인' 으로 군림한 남조선에서 오늘은 미제의 살벌한 '군정' 과 허울 좋은 '원조' 로 짓밟히고 시달리는 가난한 겨레들의 참상을 두고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주구도당에 대하여 증오와 격분에 넘쳐 죽음을 선고하였다.

유진오는 국제무산청년절기념군중대회에서 이 시를 랑송한것으로 하여 검거투옥되였으며 출옥후 지리산에서 유격투쟁을 벌리다가 1949년에 체포되여 사형선고를 받고 희생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8살이였다.

해방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항쟁의 대오에서 어깨 겯고 싸운 '전위시인' 들의 생활경로는 각이하였다. 도꾜문화학원에서 프랑스문학을 전공한 유진오와 서울연희전문학교 문과출신의 김상훈, 일본중앙대학 법학부 중퇴생인 박산운과 일본도꾜대학 예술과를 다닌 김광현 그리고 리병철 등이 해방전부터 문학에 뜻을 두고 시창작에 열중한 사람들이였다면 광주농업학교를 거쳐 경기도 려주의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은적이 있는 최석두는 문학에 각별한 취미를 가지고있었

으나 조국의 해방과 함께 창작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였다.

비록 각이한 생활로정을 걸어왔지만 그들 모두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서 배움에 대한 희망을 안고 떠돌아다닌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이였으며 가슴에 간직한 뜨거운 애국심만은 하나같았다. 하기에 이들은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위' 들로 결합될수 있었으며 시대를 선도하고 온갖 부정의를 타매하는 '전위시인' 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었다.

'전위시인' 들의 시는 해방직후의 격동되고 앙양된 시대정신을 떠나 순수 자연을 찬미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의 3인합동시집 『청록집』(1946)에 실린 시들이나 서정주나 유치환의 서정성 일면만을 강조한 『귀촉도』(1948), 『생명의 서』(1947)와 같은 순수시들과는 사상정서적내용에서 완전히 구별되였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규탄한 '전위시인' 들의 시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도 새 민주건설을 위하여 약동하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찬양의 감정을 유감없이 토로하고있는것이다.

유진오의 시 『보고싶은 북쪽하늘이여 ! 』(1949), 최석두의 시 『전원이상』(1946), 『전선전단』(1948)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유진오의 시 『보고싶은 북쪽하늘이여 ! 』는 당시의 출판물에 발표된 시가 아니다. 지리산에서 유격투쟁을 하다가 지휘부의 임무를 받고 서울에 내려왔다가 밀정의 밀고로 감옥에 갇힌 유진오가 교형리들과 수인들앞에서 읊은 시다.

어둠이 어깨를 짓누르는 감방
밝은 해살은 비쳐들고
고문에 상처입은 창백한 뺨을
북쪽하늘은 어루만진다

어둠이 짓누르는 차디찬 감방에서 북쪽하늘을 우러르는 시인의 사상

정서적감정에는 밝은 해살이 남녘땅에도 비칠것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의 새 세상이 펼쳐진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절절하게 비껴있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이 시는 후날 연고자들의 회상에 의하여 정리된것이다.

최석두는 시 '전원이상' 에서 지난날 땅이 없어 소작살이로 등심살을 벗기우던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된 북녘인민들의 생활과 예나 다름없는 남쪽 두메에 사는 농민들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행복이 넘치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과 찬양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푸르는 하늘이
자꾸만
푸르러만 가는 날
메밀꽃 피는
아득한 38이북에서는
온 산과 들에 무르익어가는
기름진 곡식의 구수한 내음새
바람결에 묻어 넘어오고

이렇게 시작된 시에서는 북쪽농군들은 지주도 마름도 없는 땅에서 알농토의 임자가 되여 가난과 영 하직했지만 남쪽 두메에 사는 농군들은 지난 여름치고 보리알 하나 마음 놓고 씹어보지 못하였다고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저렇게 온 들이 미여지도록
알뜰히 짓고 지어도
누구네 장난인가
누구네 주머니를 불리기에

우리네 농민들은
수수대만 빨아야 하는가
북쪽 이야기가 한사코
부러워만 지는 날이여

꼭 무슨 일이 일어날것만 같이
꼭 무슨 일이 일어날것만 같이

시인은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농민들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북녘인민들에 대한 부러움의 감정을 토로만 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남쪽에서도 북녘에서와 같이 '꼭 무슨 일이 일어' 나기를 바라는 자기 심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전위시인' 들의 시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일제의 식민지적잔재가 채 가셔지기도전에 미제의 식민지탁류속에 휘말리게 된 남조선사회에 대한 치솟는 울분과 저주를 터뜨리고있는것이다.

박산운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1945), 『소』(1946), 리병철의 『청량리역두에서』(1945), 『지옥』(1947), 류종대의 『락동강』(1947), 김상훈의 『전원애화』(1946), 『짓밟힌 고향아』(1947), 최석두의 『전원이상』(1946), 『빈민촌』(1947) 등의 시작품들은 사랑하는 고향과 귀중한 조국강토를 빼앗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치솟는 울분과 저주를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시들에서는 미제를 '해방자' 가 아니라 침략자, 강탈자로 락인하면서 미제가 강점한 남녘땅에 진정한 조국해방이란 있을수 없다는 사상정서적지향을 보여주고있다.

고향이라 못잊는 고향이라
안타까이 기쁨안고 돌아와
보아야 보아야 기만과 착취와 강요속에 다시 찾아온 재해
이 밤에 우리는 어디로 쫓기고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시 '락동강' (류종대)의 한 구절이다. 왜놈들이 망했다는 통쾌하고 시원스러운 소리에 한달음에 고향으로 달려온 농민은 이제야 사는 보람을 가지고 전야의 포기마다 피땀을 바쳤건만 또다시 겹쳐든 '재해' 로 모든것을 잃어야 했고 그래서 어느 한번도 펴보지 못하고 얽히기만 하는 운명을 두고 울분을 터치고있는것이다. 시인은 락동강을 휩쓴 '다시 찾은 재해' 는 단순히 자연에 의한 물란리가 아니라 '기만과 착취' 가 판을 치는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사회가 빚어낸 '재해' 라는것을 폭로하고있다.

박산운의 시 '산하여' 에서도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을 신랄하게 고발하고있다.

어제는
일제의 식민지
오늘은 미국의 령지

세상은 바뀌였어도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고있는데
그렇게만 알고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면 빨갱이
포승에 질러 뒤산으로 끌고간다.

시에서는 '참다못해 죽창을 벼리면/어머니들앞에서 아들을 쏘아죽인' 남조선사회에 항거하면서 '저 아들들의 피를 멈출수 없다면/ 저 어머니들의 통곡을 멈출수 없다면' 차라리 그 저주러운 사회가 '무너지라 ! 무너지라 ! 무너져 없어져라 ! ' 고 울분을 터치고있다.

'전위시인' 들은 자기들의 작품들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썩어드는 남조선사회에 대하여 치솟는 울분과 저주를 퍼부었을뿐아니라 억압자, 수탈자들에게 단호히 맞서나서는 항거의 기백도 세차게 표

명하고있다.

박산운의 시『소』는 의인화된 소의 형상을 통하여 서정적주인공의 항거의 정신과 기백을 잘 보여주고있다.

한자리에 머물러 움머움머 울다가
목덜미에 채찍자리가 남은 소
순하기만 하던 눈에 불을 켜들고
오늘은 하늘을 가리키던 뿔을 낮춘다
보려무나 저것이 내 손으로 길러낸 소다

서정적주인공은 순박한 농민들에 대한 동정을 시적으로 서정화하면서 우리 인민들은 결코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는 그런 어질고 순하기만 한 인민이 아님을 형상적으로 밝히면서 항거의 정신을 구가하고있다.

'전위시인' 들의 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을 폭록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을 반미구국투쟁에로 고무격려하는 시들을 많히 창작한것이다.

해방후 패망한 일제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미명하에 '해방자' 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만성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여짐에 따라 더욱 로골화되기 시작하였다. 더는 민족적수치와 멸시에 대한 울분에만 머무를수 없었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에 일떠섰다. 남조선사회의 이러한 격동적인 투쟁현실은 '전위시인' 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였으며 반미구국항전에 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시창작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전위시인' 들은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에 대한 시적형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유진오의 시『누구를 위한 벅찬 우리의 젊음이냐』(1946), 『10월』(1946), 최석두의 시 『폭풍의 거리』(1946), 『민청의 기발아래』(1947),

『전단대』(1947), 박산운의 시 『항쟁의 어머니』(1948), 『가자 총을 잡고』(1948), 리병철의 시 『목숨이사 하나밖에 없는것』(1947) 등이 그 대표작들이다.

이에 대하여 오장환은 자기의 시평에서 "…<문학>3호에 작품을 실은 시인들은 약속이나 한것 같이 모두가 10월을 노래하였다."고 하면서 "진오, 산운, 남령 등 약관 시인들의 작품을 읽고서 되레 나는 넘쳐나는 감격을 걷잡을 수 없다. 이 중에도 진오의 <10월>은 감격과 분노와 희열을 가지고 노래한 10월 이후 10월의 시 30편 가운데 제일급의 것이라고 추상(追賞)하고싶다."(김재용 2002: 472-473)라고 쓰고있다. 오장환이 높이 평가한 시 『10월』은 유진오가 국제무산청년절을 기념하는 군중대회장에서 시 『누구를 위한 벅찬 우리의 젊음이냐』(1946)를 랑송한 죄아닌 '죄' 로 철창속에 갇혀있으면서 창작한 작품이다. 시는 당시 출옥하는 동지의 편으로 보내여 『문화일보』 신문과 『문학』 잡지에 발표되였다.

앙칼스런 눈깔처럼 반짝이는
총부리에 앙가슴을 디밀어라

기름 발라 곱게 빗은 하이칼라 뒤통수에
돌팔매로 보석을 박아주마

피 피 선지피가 엉이가 졌다
피를 밟고 미끌어지며
시체를 둘러메고 앞을 달린다

시에서는 10월인민항쟁이 일어난 직접 동기인 반동경찰의 대구학살사건을 시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보이면서 우리 인민의 굳센 투쟁의지와 북받치는 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철창을 열고 오래비를 꺼내라
놈들을 몰아넣고 철창문을 닫아라
철창은 너의 것이다. 저승까지 너의 것이다.

불꽃이 인다
유리창이 터진다
도망치는 정강이에 삽자루가 날은다
쌀을 내라 !
땅을 내라 !
아니 목숨을 내라 !
피묻은 10월은 앞날을 본다
피에 젖은 10월은 비약을 한다

시에서는 철창에 갇히여 항쟁에 합류하지 못하는 시인의 모대김과 함께 가슴을 두드리며 원쑤들을 철창속에 쓸어놓고야말 원쑤격멸의 사상이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10월인민항쟁에 시적계기를 두고 창작된 작품들로서는 김상훈의 시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1946)와 박산운의 시 『항쟁의 어머니』(1948)도 있다. 이 시들은 다같이 어머니의 시적형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각성하고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낡은 행주치마에
눈물도 아롱진채
자식과 며느리와 딸의 목숨을 지키려고
총알받이나마 싸우러 가는 어머니
편지 읽듯 혁명가를 웨이며
바람속에 내닫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 당신의 아들들도
이렇게 함께 갑니다

이것은 시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의 구절이다. 남편을 빼앗기고 쌀을 빼앗기고 자식을 잡혀 보내고 이제 결연히 싸움터에 나선 어머니의 모습은 억압과 박해에 피투성이가 된 조선의 평범한 녀인의 모습이면서도 자식을 위해 총알받이가 될지언정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모든 원한을 갚고야말 굳센 의지를 지닌 강인한 조선의 어머니인것이다.

이 시와 달리 박산운의 시 『항쟁의 어머니』에서는 시에 흐르는 강렬한 전투적기백이 순탄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속에서 승화되고있다.

저기 어머니가 오신다
타는 가슴으로
미제침략에 항거한 첫 함성을 터뜨린
10월인민항쟁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오신다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저 노한 눈이
원한과 분노에 이글이글 불타는
그 눈이다

오랜 박해와 착취에
메마르고 찌들은 저 손이
10월의 아들들의 조고만 머리를
보배처럼 어루만지던 그 손길이다
앞으로 내여민 저 가슴이

10월의 아들들의 이마 비비던
그 요람이다

시에서는 10월인민항쟁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친근하면서도 경건한 모습을 생활적으로 보여주면서 '불굴한 내 고향 아들들' 을 키운 어머니는 밤이슬이 내리는 엄혹한 산중에도, 시위대오를 짜는 대학가와 파업에 돌입한 공장과 기관구들에도 항쟁의 불꽃튀는 거리와 마을, 싸우는 아들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고 노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맺고있다.

동무들이여
저기 어머니가 오신다
우리는 조국의 아들
우리는 고향의 아들
우리는 투쟁과 승리의 아들
어느때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투쟁과 승리와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보는바와 같이 시는 어머니와 자식간의 사랑을 시의 정서적기초로 하면서 10월인민항쟁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단순히 자식들에 대한 육친의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가 아니라 조국의 아들, 고향의 아들들과 함께 싸우며 투쟁과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어머니라는데 대하여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최석두의 시 『민청기발아래』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로 앙양된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진출과 단결의 위력을 민청기발아래서 높이 든 홰불로 '어둠'을 밀어내며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현실적화폭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강렬하게 노래하고있다.

오, 이 얼마만이냐
반동의 눈시울 독에 질려
노리며 치여다 보고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다 같이 굳게 깍지를 끼고
분노의 눈 부릅뜬 채 다시 여기 모여섰구나
…

이렇게 시작되는 시에서는 열혈청년들의 뜨거운 피가 스민 조국에 바치는 뜨거운 마음이 훨훨 타는 민청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총부리도 감히 그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으며 청년학생들의 단결의 힘을 꺽을수 없음을 증오의 감정과 엇갈려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
기어코 민주조선은 이루어져야 한다
기어코 인민은 모두다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기에 청년은 살고 죽는
보람이 어디 있는가를
몸으로 피로 나타내야 한다

청년이 있는곳 어떠한 도적도
이 나라를 흠쳐가진 못하리라
청년이 있는 곳 어떠한 좀도
이 나라를 롱간하지 못하리라

보다싶이 시에서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애국의 용암을 느낄수 있다. 서정적주인공은 청년들에게 모든 인민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 민주조선을 위해 삶과 죽음의 보람을 몸과 피로 나타낼 것을 절절히 호소하고있다.

이러한 시와 함께 박산운의 시 『가자 총을 잡고』, 최석두의 시『유격대』, 『총아』 등의 작품들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총대로서 풀고야말 결전의 맹세를 노래하고있다.

이처럼 '전위시인' 들은 붓을 단순한 시창작을 위한 붓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무기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된매를 안기는 철퇴로 삼았다.

하기에 오장환은 합동시집 『전위시인집』의 발문에서 '전위시인' 들을 "시단의 결사대 이런 말을 할수 있다면 여기에 나온 시인들이 바로 결사대의 대원들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남조선에서 발간되는 잡지 『실천문학』 (1991년 여름)에서는 1948년에 '조선사' 에서 발행한 최석두의 시집 『새벽길』을 새로 발굴하면서 '해방정국의 불꽃시인 최석두' 라는 표제하에 그의 대표적인 시작품들과 함께 평론 『최석두의 문학과 삶』(윤여탁, 군산대교수)을 실었다.

이 평론의 필자는 머리말에서 "<행동의 시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는 해방정국의 시인들 중에 우리는 유진오와 최석두라는 생소한 시인의 이름을 거론할수 있다"라고 쓰고있다.

'해방정국의 불꽃시인', '행동의 시인' 들인 '전위시인' 들이 남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속에 사라지는 '생소한 시인' 으로 되고있지만 조선의 현대시문학사에 남긴 불꽃튀는 그들의 시작품들은 진리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며 통일문학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할것이다.

3.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시인들

'전위시인' 들에 대한 후일담을 한다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여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린 행복한 시인들이였다. 시대의 전위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대중의 심장속에 투쟁의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여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줄기찬 창작전투를 벌려온 그들은 지하와 감옥에서 지조를 지키며 싸워오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공화국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였다.

이때를 회상하여 시인 박산운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 미제강점하의 서울은 참말을 하는 시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도 살벌했다. 그래서 나도 그곳을 버리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이 계시는 공화국북반부로 넘어왔던것이다. 새로운 창작생활에 들어섰던 나를 따뜻이 품어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은 나에게 시의 진실을 익히게 한 요람이였으며 나의 시를 활짝 꽃피워준 은혜로운 하늘이며 땅이였다.'(리창혁 2011: 23).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를 1951년 3월 새롭게 조직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시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자기의 창작적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온갖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북녘의 인민들은 시인 박산운과 함께 그가 창작한 가사 '통일렬차 달린다' 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1997년 7월 21일 76살을 일기로 생을 마칠때까지 8편의 시집과 '10월의 노래', '두더지고개'등 10여편의 서사시, 장편소설, 산문집을 비롯하여 천여편에 달하는 작품을 세상에 남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붓대를 틀어쥐고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 자기 한생을 바친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하여 남진의 길에 올랐던 '전위시인' 김상훈은 1951년 5월 부상으로 제대된 후에 조쏘출판사의 잡지과장으로 사업하였으며 그후 로동신문사, 체신성출판사의 기자, 편집원으로 일하면서 시창작을 활발히 벌리였다. 그의 시들인 『남녘의 철창속에

서도』(1976), 『축원』(1975), 『흙』(1970), 시초 『4.19의 노래』, 『어머니에 대한 생각』(1980) 등은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반영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와 함께 고전문학작품편찬에 힘을 기울인 그는 『력대시선집』(1963)과 『한시집』(1,2,3, 1985) 『가요집』(1,2. 1983), 『리규보작품집』(1,2.1990)을 비롯하여 여러권의 고전작품집들도 번역윤색하였다. 그의 개인시집으로는 『흙』 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7년 8월 30일 시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기관장으로 그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조국통일상'을 수여해주심으로써 영생하는 작가로 내세워주시였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의 해방과 함께 서대문감옥에서 시인 리용악 등과 함께 출옥한 '전위시인' 최석두는 북행길에 오르는 도중에 기총소사로 부상을 당하나 그후 건강을 회복하여 1951년 1월부터 문화선전성 문화예술국에서 사업하면서 시창작사업을 계속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동무는 우뚝이 우리들의 진두를 걸어나간다』(1951), 『영웅 최치정』(1951), 『들판에서』(1951) 를 비롯한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노래한 시편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1951년 10월 미제의 폭격에 의해 평양에서 희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떠나간 전사를 잊지 않으시고 1957년에 그의 시집 『새벽길』을 출판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인 최석두가 세상을 떠난지 수십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의 공적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전위시인' 유진오는 28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아내와 딸이 공화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리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떠나간 전사를 잊지 않으시고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출판된 많은 종합시집들에 그의 시들을 포함시키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전위시인' 류종대도 공화국의 품에 안긴후 가사 '복구건설의 노래'를 창작하여 우리 인민과 친숙해졌으며 그는 오래동안 『문학신문』 편집부

장사업을 하면서 당의 문필전사로서의 복받은 삶을 누리였다.

‘전위시인’ 김광현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후 교편을 잡고 평양문학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당시) 창작강좌에서 ‘희곡창작수업’을 가르쳤는데 나 역시 그의 희곡창작강의를 흥미있게 받은 제자의 한사람이다.

‘전위시인’으로서 해방시단을 불꽃으로 장식한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젊은 혈기에 열정과 피로써 시를 창작한 그들의 공적은 해방후 현대조선시문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믿어주시던 통일시인들의 뜨겁고도 진정이 어린 문학세계를 빛내여주시기 위해 주체104(2015)년에 김상훈작품집 ‘통일을 불러’ 를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출판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 작품집에는 시인이 해방전부터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의 창작생활 전기간에 쓴 160여편의 시작품들과 예술산문들이 실려있다. 이는 비단 시인 김상훈에게만 돌려진 배려가 아니며 ‘전위시인’ 모두를 품어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다. 따사로운 조국의 품,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참된 작가적삶을 누린 그들의 한생은 오늘도 아니 래일도 영원할것이다.

【참고문헌】

권영민(2014)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9-30, 78.

김재용 편(2002) 『오장환전집』, 실천문학, 472-47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81) 『조선전사』 23권, 24권,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리창혁(2011) 『「전위」 시문학연구』 (석사론문), 인민대학습당, 16-17, 23.

한중모(2003) 『남조선의 진보적문학』 1, 사회과학원.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에 대한 일고찰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A Study of Chinese and Korean Negative Purpose Complex sentences

—Centered on the Syntactic Features

高紅姬[1]
山東大学

1. 서론

본고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관계 접속문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위를 취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2]은 원하지 않는 일이나 현상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취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중국어에서는 종속절에 부정 의미를 포함한 별도의 연사

1 Hong Ji Gao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Shandong University)
E-mail : honghee9999@hanmail.net

2 贾崇柏(1984: 9)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관계 복합문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积极目的复句(긍정적의미의 목적관계 복합문)'과 안 좋은 일이나 현상을 피하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消极目的复句(부정적의미의 목적관계 복합문)'으로 나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후자에 해당하는 부정적의미의 목적관계 복합문으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이라 칭하고자 한다.

(連詞)가 쓰이거나 또는 '不'과 같은 부정형 부사어가 쓰여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실현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부정형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종속절에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실현한다.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목적관계 접속문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졌다. 중국어에서는 주로 목적관계 개사(介词), 연사(連詞)를 연구 대상으로 의미, 통사, 구조적 특징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어에서는 주로 목적관계 연결어미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의미, 통사적 특징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단독으로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들어 한예진(2010), 최지희(2010), 장지현(2013), 김정연(2013)과 같이 목적관계 연결어미 교육을 논한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중한 목적관계 접속문 대조 연구로는 朴爱华(2009)와 尹悦(2010)이 있다. 朴爱华(2009)에서는 문법, 의미, 화용 등 측면에서 중한 목적관계 접속문을 대조함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밝혔다. 尹悦(2010)에서도 목적관계 접속문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구조, 의미, 통사적 측면에서 특성과 대응 형식을 고찰하였다. 두 연구 모두 목적관계 접속문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정형 목적관계 표현의 모든 유형과 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고의 논의를 위해 제시된 용례는 주로 '북경대학교중국언어학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현대중국어 말뭉치 자료,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서 제공하는 현대한국어 말뭉치 자료, '네이버 사전' 예문에서 추출한 것이다[3]. 본고는 구체적인 용례 분석을 통해 우선 중국어와 한국어에서의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의 실현 양상을 밝히고, 다음으로 중

3 논의의 편이를 위해 '북경대학교중국언어학연구센터(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의 말뭉치 자료 출처는 'CCL'로 표시하고,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말뭉치 자료는 'KL', '네이버 사전'의 예문은 'ND'로 표시한다.

한 부정형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의 통사적 제약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 표현에 있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와 중국어를 공부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목적관계 접속문 이해와 표현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2.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 유형

고립어인 중국어와 교착어인 한국어의 언어 특징의 차이로 인해 두 언어 사이에는 층위 전환 현상이 존재한다. 부정형 목적관계 표현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주로 '免得', '以免', '省得', '以防' 등 연사(連詞)에 의해 실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부정형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려고/으려고', '-도록', '-게'와 통어적 구문 '-기 위하여' 앞에 '안', '못'과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나 '-지 않다', '-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통어적 구문이 결합되어 실현된다. 아래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가. 我再说明一下, **免得**引起误会。(ND)

나. 收一收他的性子, **省得**他到处惹事。(CCL)

다. 车速不要太快, **以免**发生事故。(ND)

라. 政府的确要尽量存钱, **以防**未来出现财政危机时要花20%的利息去借债。(CCL)

마. **为了不**冒犯他的西方客人, 他却以质问来冒犯我们?(CCL)

바. **为了避免**毁坏这棵树, 把一只木钉敲进那个洞里。(ND)

(1)은 현대중국어에서 부정형 목적관계 표현의 실현 양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1가), (1나), (1다), (1라)는 연사(連詞)로 실현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으로, 목적 종속절은 후행절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가-1나)에 쓰인 연사들은 자체가 '면하다', '방지하다'의 의미를 갖는 유사 문법으로 뒤에 긍정형의 서술어가 따른다. (1마)와 (1바)는 목적을 나타내는 '为了(위하다)'에 부정 의미를 갖는 부사 '不'과 동사 '避免(면하다)'이 결합하여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형성한 예로, 목적 종속절은 '为了'의 문법적 특징에 따라 선행절에 위치한다. '为了'는 앞의 연사와는 달리 '면하다', '방지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뒤에 반드시 부정형 또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서술어가 따른다.

한국어의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실현 양상과 문법 항목의 통사적 특징이 복잡하므로 형태별로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2) 가.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다. (ND)

나. 군대에 **안** 가**려고** 징집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올리거나 내렸다.(KL)

*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려고**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다.

*라. 군대에 **못** 가**려고** 징집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올리거나 내렸다.

(2가), (2나)에서 보듯이 '의도'나 '욕망'을 나타내는 '-려고'는 행위주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부정형 '-지 않-', '안'과 결합하여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형성할 수 있으나, (2다)와 (2라)에서처럼 '능력'을 표현하는 '-지 못하-', '못'과는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 말뭉치 자료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예문이 장형 부정 '-지 않으려고'로 실현되었고, '안 …… -려고'로 실현된 예는 아주 적다.

(3) 가. 실수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ND)

나.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상대방의 신경을 **안** 건드리**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KL)

다.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놓았다.(ND)

라. 다시는 도둑놈들이 굴뚝에 **못** 올라가**도록** 꺽쇠를 몽땅 뽑아버리게!(KL)

(3)에서 보듯이 '의도'나 '목적성'이 보다 약한 '-도록'은 '안' 부정, '못' 부정과 모두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말뭉치 자료에서 보면 부사 '안', '못'보다는 장형 부정 '-지 않-'과 '-지 못하-'와 결합하여 쓰인 예가 많다.

(4) 가.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 살살 만져라.(ND)
나. 아이들이 **안 다치게**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다음 뉴스)
다.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다음 뉴스)
라. 단 한 마리의 낙지도 밖으로 **못 나가게** 능숙한 손놀림을 보였다.(KL)

(4)에서 보듯이 '-게'도 '-도록'과 마찬가지로 '안' 부정, '못' 부정과 모두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빈도 상으로 볼 때, 부사 '안', '못'보다는 장형 부정 '-지 않-'과 '-지 못하-'와 결합하여 쓰인 예가 훨씬 많다.

(5) 가. 가난하게 자란 그는 자기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ND)
나. 목주름을 조금이라도 **안 만들기 위해** 잘 때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KL)
*다. 지각하**지 못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라. 지각을 **못 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마. 선생님은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했다.(ND)
마'. 선생님은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했다.

(5)에서 보듯이 '목적성'이 강한 '-기 위하여'는 '안' 부정과만 결합하여 쓰이고 '능력'을 표현하는 '못' 부정과는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말뭉치 자료에서 보면 '-기 위하여'는 거의 대부분 긍정적 의미와 결합하여 쓰이고 부정형과 결합한 용례는 아주 적다. 부정형과 결합하여 쓰인 예문 중 (5나)와 같이 단형 부정 '안'과 결합하여 쓰인 예는 기타

말뭉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기 위하여'는 긍정적 의미에 더욱 많이 쓰이고 부정형 목적관계를 나타낼 시장형 부정형과 결합하여 쓰임을 보여 준다. (5마)는 '-기 위하여' 앞에 사동을 나타내는 '-도록 하-'의 부정형 '-지 않도록 하-'가 결합하여 부정형 목적관계를 형성한 예이다. (5마)는 (5마')에서처럼 실현될 수도 있겠으나, 더욱 강한 목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동 표현 뒤에 '-기 위하여'를 결합하여 실현한 것이다.

(6) 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말로 잘 타일러라. (ND)

나. 메르스가 경북도 전체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막아야 하는 시점이다.
(다음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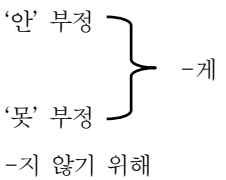
다. 주모자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빙빙 돌아가면서 서명을 한 것이다.(KL)

(6)은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도록', '-게'가 부정의 뜻을 가진 단어 '없다', '모르다'와 결합하여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실현한 예인데 말뭉치 자료에서 아주 드문 몇 개의 예만 보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종속문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현된다. 본고에서는 (7)에 제시한 문법 형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대조·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7) 중국어: '免得','省得', '以免', '以防' 등 연사(連詞)
'为了不', '为了避免'

한국어: '안' 부정 + -려고
'안' 부정
'못' 부정
} -도록



3.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의 통사적 특징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언어 내유의 문법의 용법을 구별하여 올바른 사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한 목적관계 접속문의 대응 양상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본장에서는 주어 제약, 목적 종속절 서술어 상태성 제약, 서법 제약 등으로 나누어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주어 제약

본 장에서는 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 목적 종속절 주어 유정성 제약을 함께 고찰할 것이다.

(8) 가. 我们把头发弄干吧, **免得/省得**(我们)患感冒。(일치, [+유정성])(ND)
나. 你把孩子带走吧, **免得/省得**(孩子)在家里捣麻烦。(불일치, [+유정성])(ND)
다. 他再三叮嘱用完洗衣机要拧紧水龙头, 一是**省得**机器锈蚀受损,二是**免得**漏水。(불일치, [-유정성](CCL)

(8)에서 보듯이 ‘免得’, ‘省得’가 쓰인 접속문은 주어 일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목적 종속절 주어가 [+유정성], [-유정성] 모두 가능하다.

(9) 가. (我们/你)早点儿起床, **以免**上学迟到。(일치, [+유정성])(ND)
나. 车速不要太快, **以免**发生事故。(불일치, [+유정성])(ND)

다. 不用时或用完后要随时将灯罩盖上, **以免**酒精挥发。(불일치, [-유정성])(CCL)

라. 这个女人紧紧抓住了她男人的肩膀, **以防**自己跌倒。(일치, [+유정성])(CCL)

마. 我特意绕了一圈, **以防**有人跟踪。(불일치, [+유정성])(ND)

바. 不用热水, **以防**鸽蛋壳裂开。(불일치, [-유정성])(CCL)

(9)에서 보듯이 '以免', '以防'이 쓰인 접속문은 주어 일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목적 종속절 주어가 [+유정성], [-유정성] 모두 가능하다.

(10) 가. **为了**(我们)**尽量不**冒犯人, 我们最终什么也没说。(일치, [+유정성])(ND)

?나. 夫妇俩**为了**孩子**不**寂寞, (夫妇俩)给八岁的儿子买了一只小狗喂养。
(불일치, [+유정성])(CCL)

*다. 为了(花草)不被人踩, **花草**想躲起来。(일치, [-유정성])

(10)에서 보듯이 '목적성'이 강한 '为了……不'는 한 주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행위를 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므로 (10가)와 같이 주어가 [+유정성]이고 일치한 경우에 많이 쓰인다. (10나)는 선후행절 주어가 불일치하고 목적 종속절의 주어가 [+유정성]인 경우이지만 실제로 목적 종속절의 '孩子不寂寞'는 '不让孩子寂寞'의 의미로 사동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 용언의 특징 상 주술 관계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로, 말뭉치 자료에게 기타 유사 예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즉 '为了……不'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 경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다)는 [-유정성] 명사가 주어로 쓰여 비문을 형성한 예문이다.

(11) 가. 그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바싹 긴장해 있었다. (일치, [+유정성])(ND)

*나.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엄마가 옷을 두껍게 입혔다.
(불일치, [+유정성])

*다.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일치, [-유정성])

(11)에서 보듯이 '-지 않으려고'로 실현된 접속문은 '-려고'의 문법적 특징에 따라 반드시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가 일치해야 하고, 목적 종속절의 주어도 반드시 [+유정성] 명사 또는 대명사여야 한다. (11나)는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비문을 형성한 예문이고, (11다)는 [-유정성] 명사가 주어로 쓰여 비문을 형성한 예문이다.

(12) 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라. (일치, [+유정성])(ND)
나. 문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불일치, [-유정성])(ND)
*다. 너 실수하**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일치, [+유정성])
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어. (불일치, [+유정성])(ND)
마. 우리는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밤에 움직였다. (일치, [+유정성])(ND)
바.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 살살 만져라. (불일치, [-유정성])(ND)
*사. 나는 감기에 걸리**지 못하게** 옷을 두껍게 입었다. (일치, [+유정성])
아. 나는 그 놈을 놓칠세라 달아나**지 못하게** 꼭 잡았다.
(불일치, [+유정성])(ND)
*자. 나무가 넘어지**지 못하도록/못하게** 꽉 잡고 있어.(불일치, [-유정성])

(12가), (12나), (12마), (12바)에서 보듯이 '-지 않도록', '-지 않게'는 주어 일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목적 종속절 주어의 유정성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는 '-도록'과 '-게'가 '목적'의 의미 외에 '사동'의 의미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못하도록'과 '-지 못하게'는 (12라)와 (12아)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불일치한 경우에만 적격문으로 되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할 경우에는 (12다), (12사)와 같이 비문이 된다. 그것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체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함을 나타내므로 '-지 않-' 부정형과 결합하여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 못하도록'과 '-지 못하게' 목적 종속절의 주어는 반드시 [+유정성] 주어여야 하며 [-유정성] 주어일 경우, (12자)와 같이 비문이 된다. 그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지 못-'

이 [-유정성] 체언과 결합하여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13) 가. 부모님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매사에 조심조심하고 있다.
(일치, [+유정성])(ND)
*나.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매사에 조심조심하고 있다.
(불일치, [+유정성])
*다.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일치, [-유정성])

(13)에서 보듯이 '-지 않기 위해'는 '-기 위해'의 통사적 특징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가 일치해야 하며 목적 종속절의 주어가 [+유정성]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3나), (13다)에서처럼 비문을 형성하게 된다.

3.2. 서술어 상태성 제약

본 장에서는 목적 종속절 서술어의 상태성 제약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중국어에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은 목적 종속절의 서술어가 일반적으로 동사로 쓰여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때 사용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14) 가. 我们把头发弄干吧, 免得/省得**患**感冒。(동사)(ND)
나. 车速不要太快, 以免/以防**发生**事故。(동사)(ND)
다. 为了尽量不**冒犯**人, 我们最终什么也没说。(동사)(ND)

(14)에서 보듯이 중국어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의 목적 종속절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동사로 실현된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목적 종속절 서술어가 형용사로 실현된 경우도 있다.

(15) 가. 总要准期寄给你, 一个不少, 省得你为我这般**辛苦**。(형용사)(CCL)

나. 最好能解释几句, 以免他**伤心**。(형용사)(CCL)

다. 夫妇俩为了孩子不**寂寞**, 给八岁的儿子买了一只小狗喂养。(형용사)(CCL)

(15가)와 (15나)는 '省得'와 '以免'뒤에 형용사절이 결합되어 사용된 예이고, (15다)는 '为了' 뒤에 '孩子不寂寞'라는 부정형 형용사절이 결합된 예이다. '夫妇俩为了孩子不寂寞'는 '夫妇俩为了不让孩子寂寞'의 의미로 쓰인 종속절로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말뭉치 자료에 보면 사동을 나타내는 '为了不让……' 형태로 실현된 용례가 대부분이고 (15)의 예문과 같이 [+상태성] 형용사가 목적 종속절 서술어로 쓰인 예는 극히 적다.

(16) 가.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어서 갔다. (동사)(ND)

나. 모두들 **외롭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산답니다. (동사)(KL)

다. 자신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으려고** 시작한 짓이었다. (동사)(KL)

(16가)에서처럼 '-지 않으려고'는 앞에 [-상태성]의 동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6나), (16다)와 같이 [+상태성]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앞에 부정형과 결합하지 않은 '-려고'는 [+상태성]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이지 못하는 것에 반해 '-지 않으려고'는 [+상태성]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4].

(17) 가. 괜히 **소문나지 않도록** 입 조심해.(동사)(ND)

나. 저는 겨울 밥상이 너무 **썰렁하지 않도록** 된장찌개나 무국 한 가지는 끓여 먹어요. (형용사)(KL)

4 이밖에도 '그래서 자기가 발붙인 사회에 무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비극적이지 않으려고 웃음을 보이는 글쓰기'와 같이 [+상태성] 서술어와 쓰인 예문도 있다.

다.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 살살 만져라.(동사)(ND)

라. 겨울 삭풍에 손끝이 **시리지 않게** 장갑 한 켤레 만든 일이 있었나? (형용사)(ND)

(17)에서 보듯이 '-지 않도록'과 '-지 않게'는 서술어의 상태성 제약을 받지 않고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사와 결합하여 쓰이고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인 예는 아주 적다.

(18) 가. 사람들이 너를 **성가시게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일러두마.(동사)(ND)

*나. **뚱뚱하지 못하도록** 음식을 적게 섭취하세요.(형용사)

다. 나는 그 놈을 놓칠세라 **달아나지 못하게** 꼭 잡았다.(동사)(ND)

*라. 아이가 **춥지 못하게** 옷을 두껍게 입히세요.(형용사)

(18)에서 보듯이 '-지 못하도록', '-지 못하게'는 [-상태성]의 동사와 결합하여 쓰이고 [+상태성]의 형용사와는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이는 형용사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지 않-'으로 실현되는 특징 때문이다.

(19) 가. 부모님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매사에 조심조심하고 있다.(동사)(ND)

나. **고독하지 않기 위하여** 급하게 값싼 해결책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형용사)(KL)

(19가)에서처럼 '-지 않기 위하여'는 [-상태성]의 동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나)와 같이 극히 적은 경우이지만 [+상태성]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기 위하여'가 [+상태성]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이지 못하는 것에 반해 '-지 않기 위하여'는 [+상태성]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3.3. 서법 제약

본 장에서는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이 평서법, 의문문, 명령법, 청유법에 사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어의 부정형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연사는 일반적으로 서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 가. 我再说明一下, **免得(省得)**引起误会。(서술)(ND)

나. **免得**大捆大捆的现钞捧来捧去, 支票转账, 不是方便多了吗？(의문)(CCL)

다. 你把孩子带走吧, **免得/省得**(孩子)在家里捣麻烦。(명령)(ND)

라. 我们把头发弄干吧, **免得/省得**(我们)患感冒。(청유)(ND)

마. **为了不**让女儿受到我体弱多病的影响, 他还十分重视女儿后天的体能训练。(서술)(CCL)

바. **为了不**冒犯他的西方客人, 他却以质问来冒犯我们？(의문)(CCL)

사. **为了不**浪费时间, 还是行动起来吧。(명령, 청유)[5](CCL)

(20)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부정형 목적관계 연사는 서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에 모두 쓰일 수 있다.

(21) 가.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다.(평서)(ND)

나. 그대는 결코 남의 앞에서 아내를 비난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하는가? (의문)(KL)

*다. 출발 시에 허둥대지 **않으려고** 보따리 짐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명령)

*라. 출발 시에 허둥대지 **않으려고** 보따리 짐을 미리 준비해 둡시다.(청유)

(21)에서 보듯이 '-지 않으려고'는 평서법, 의문법에는 쓰일 수 있으

5 '为了不浪费时间, 还是行动起来吧。'는 문장의 주어가 이인칭인 경우에는 명령법으로 해석되고 문장의 주어가 일인칭 복수형 '我们'인 경우에는 청유법으로 해석된다.

나 명령법과 청유법에는 쓰일 수 없다.

(22) 가. 나는 붕어빵이 식지 **않도록/않게** 품속에 품었다.(평서)(ND)
나.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않게** 잡아 주시겠어요? (의문)(네이버 블로그)
다. 실수하지 **않도록/않게** 정신 바짝 차려라. (명령)(ND)
라. 그럼 우리 밖에 **안** 들리**도록** 가만가만 하자.(청유)(KL)

(22)에서 보듯이 '-도록'과 '-게'의 '안' 부정형은 서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에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평서법과 명령법에 사용되며 의문법과 청유법에 사용된 용례는 많지 않다.

(23) 가.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못하게** 길을 막아 놓았다.(평서)(ND)
나. **못 가게/가도록** 누가 잡았나?(의문)(KL)
다. 다시는 도둑놈들이 굴뚝에 **못** 올라가**도록/**올라가**게** 꺽쇠를 몽땅 뽑아버리게!(명령)(KL)
라. 다른 하나는 햇빛을 받**지 못하게/못하도록** 상자를 씌웁시다.(청유)(KL)

(23)에서 보듯이 '-도록'과 '-게'의 '못' 부정형도 서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에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안' 부정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평서법과 명령법에 사용되며 의문법과 청유법에 사용된 용례는 많지 않다.

(24) 가. 목주름을 조금이라도 **안** 만들**기 위해** 잘 때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평서)(KL)
나.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의문)(KL)
다. 슬퍼하기보단 잊**지 않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라.(명령)(네이버 블로그)
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합시다.
(청유)(국민일보20150310)

(24)에서 보듯이 ‘-기 위하여’의 ‘안’ 부정형도 서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가 평서법으로 쓰였고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에 쓰인 예는 아주 적다.

4. 결론

본고는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사적 제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을 형성하는 문법 형태로 봤을 때, 중국어에서는 주로 부정형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연사(連詞)로 실현되었고, ‘为了不……’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어에는 부정형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려고’, ‘-도록’, ‘-게’, ‘-기 위하여’의 부정형으로 실현되었다. 도표로 3장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사적 제약 / 부정형 목적관계 문법형태		주어 제약		서술어 상태성	서법 제약
		일치성	유정성		
중국어 부정형 목적종속절	免得	+-	+-	+-	-
	省得	+-	+-	+-	-
	以免	+-	+-	+-	-
	以防	+-	+-	+-	-
	为了不……	+	+	(+)-	-
한국어 부정형 목적종속절	-지 않으려고	+	+	(+)-	평서,의문
	-지 않도록	+-	+-	+-	-
	-지 못하도록	-	+	-	-
	-지 않게	+-	+-	+-	-
	-지 못하게	-	+	-	-
	-지 않기 위해	+	+	(+)-	-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부정형 목적관계 연사로 실현된 접속문과 한국어의 '-지 않도록', '-지 않게'로 실현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은 구조상 후행절과 선행절 위치의 차이를 제외하고 기타 통사적 특징이 동일하다. 그리고 중국어의 '为了不……'와 '-지 않기 위해'의 통사적 특징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어의 '-지 않으려고'는 서법 제약에 있어 평서문과 의문문에만 쓰이는 특징을 제외하고 '为了不……'와 '-지 않기 위해'와 통사적 특징이 동일하다. '-지 못하도록'과 '-지 못하게'는 '-지 않도록'과 '-지 않게'와 달리 통사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즉, 선후행절 주어는 반드시 서로 다른 [+유정성] 체언이어야 하고, 목적 종속절의 서술어는 반드시 동사로만 실현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면 '-지 못하도록'과 '-지 못하게'는 '-지 않으려고', '-지 않기 위해'와 절대 바꿔 쓸 수 없으며 중국어의 '为了不……'와도 대응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의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다루었을 뿐, 의미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통사적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의미적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야 유의문법의 분별이 더욱 용이하고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 접속문의 대응 관계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중한 대역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한 부정형 목적관계의 번역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대역에서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이러한 내용들을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며 본고의 논의를 마친다.

【참고문헌】

김정연(2013) 「한국어 학습자의 목적·결과 관계 연결어미 습득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尹悦(2010) 「중한 목적 관계 접속문의 대조연구」, 상해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래호(2014) 「한국어 교재에서 제약 중심의 연결어미 기술의 방향과 그 교육에 대한 연구」, 『언어학연구』, 한국중원언어학회, 201-226.

임채훈(2014) 「목적 종속절의 유형론적 특성과 한국어 학습자의 목적 관련 연결어미 습득 양상」, 『語文論集』, 중앙어문학회, 463-486.

장지현(2013) 「한국어 목적 연결어미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경준(2014) 「국어관계절연구」, 『청람어문교육』 51집, 233-264.

최지희(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목적 표현 연결어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예진(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목적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丁健(2012) 「汉语目的范畴及其表达手段」,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韩明珠(2013) 「现代汉语目的复句的类型及其偏误研究」,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黄伯荣 · 廖序东(2007) 『现代汉语』(增订四版)下册, 高等教育出版社.

贾崇柏(1984) 「论目的连词和目的复句的今昔」, 『汉语学习』 03期, 8-19.

景士俊(1999) 「漫谈"目的复句"」, 『西安建筑科技大学学报』 第18卷第1期, 37-41.

刘海莉(2011) 「语序视角下现代汉语形合目的复句研究」, 安徽大学 硕士学位论文.

朴爱华(2009) 「汉韩目的复句对比」,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王桐楠(2013) 「韩国语目的关系连接语尾在汉语中的对应关系研究」,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국어 통사 변화의 여러 양상

Some Aspects of Syntactic Changes in Korea

권재일[1]
서울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통사 변화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수행된 국어의 통사 변화에 대한 여러 양상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문법범주 실현방법의 변화, 문장 구조의 변화 등의 양상을 살펴보아, 국어 통사 변화의 특징을 확인하고, 앞으로 전개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언어학의 연구 대상은 19세기 이래 음운 변화, 형태 변화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통사 변화는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역사언어학에서 통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사 변화의 한두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법범주 실현 방법이 변화한 예로, 형태적 방법에서 통사적 방법으로 변화한 경우이다. 국어의 사동법은 주로 사동접미사에 의한 형태적(파생적) 방법과 통사적 구성 '-게 하-'에 의한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1 Jae-il Kwon (Professor,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 kwonjil@snu.ac.kr
이 글은 글쓴이의 선행 연구인 권재일(1998 및 2001)에서 제시한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제13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2017년 8월 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한 참가자, 그리고 유익한 도움말을 준 홍윤표선생님께 감사한다.

15세기 국어에서는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되던 것이 현대 국어에 와서는 통사적 방법으로만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문장에서 보면, 15세기 국어에서는 사동접미사 '-오-, -이-' 등으로 사동을 실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얕-오-, *깊-이-'처럼 쓰이지 않고 통사적 구성 '-게 하-'로 사동을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문법범주의 실현방법이 통사적 방법에서 형태적 방법으로 변화한 사실을 보여 주는 예이다.

(1) a. 15세기 국어
녀토시고[=녙-오-시-고] ᄯᅩ 기피시니[=깊-이-시-니] (용비어천가 20)
b. 현대 국어
얕-게 하-시-고 또 깊-게 하-시-니

다음 문장에서 보면, '다르다, 주다, 삼다'와 같은 용언이 구성하는 문장 구조가 역사적으로 변화하였다. 15세기 국어의 '무엇-에 다르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무엇-과 다르다'로, '누구-를 주다'는 '누구-에게 주다'로, '무엇-을 삼다'는 '무엇-으로 삼다'로 변화하였다.

(2) a.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훈민정음-언해 1)
b. 四海ᄅᆞᆯ 년글[=년ㄱ-을] 주리여 (용비어천가 20)
c. 后ᄅᆞᆯ 尊ᄒᆞ슨와 皇太后-ᄅᆞᆯ 삼ᅀᆞᆸ고 (내훈-초간 2하:17)

2. 역사통사론의 현황

역사비교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연구 대상은 주로 음운 변화와 형태 변화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통사 변화 연구는 이들의 연구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19세기 초 역사비교언어학의 발달과 더불어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통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료 수집의 단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심은 그 후 오래 계속되지도 못

하였다. 그래서 통사 변화 연구는 역사언어학에서 오랫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통사론이 언어학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것은 역사언어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언어보편성과 유형론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통사 변화에 관심을 돌렸다. 그래서 역사언어학에서 역사통사론은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음운 변화나 형태 변화의 연구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역사언어학에서 역사통사론 연구가 부진했는데, 그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역사통사론의 연구 부진의 근거로 연구 대상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역사통사론에서 문법형태의 기능이 주로 연구되었다는 사실은 역사통사론의 연구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즉, 역사통사론과 역사형태론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통사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로 다른 두 시기의 공시태가 기술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에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문헌 자료에 의지하는 연구는 직관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에 비하여 훨씬 많은 제약을 받는다. 문헌 자료는 단지 한 언어의 가능한 문장 가운데 일부만 보여 줄 뿐, 그 언어에서 불가능한 문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말해 주지 않는다. 문법성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의 관점에서이다. 역사통사론 연구가 부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연구 방법의 기반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론이 없으면 연구는 자료의 관찰과 분류에 그치고 만다. 결국 역사통사론의 전통적인 연구는 문장 유형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어순 유형을 분류하는 등, 관찰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통사 변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규명할 연구 방법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역사통사론 연구에서, 서로 무관한 듯 보이는 여러 통사 변화를 대상으로 이들

변화가 동일한 기저 동기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법론이다.

한편 국어의 역사통사론 연구 역시 각 시대별 공시적 연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부진하였다.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 문법에 대한 공시적 연구에 머무르는 것이었지 이를 바탕으로 한 통시적 연구로 이어진 연구는 드물었다.

3. 문법범주 실현 방법의 변화 양상

3.1. 개관

문법범주의 실현 방법은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문법범주 실현 방법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현 방법이 바뀐 경우이다.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되던 문법범주가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된다면 이것은 실현 방법이 바뀐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 있-'으로 실현되던 시제법이 '-었-'으로 실현된다면, 이것은 통사적 방법에서 형태적 방법으로 바뀐 경우이다. 또한 앞에서 예를 든 '녀토시고[=녙-오-시-고]'로 실현되던 사동법이 '얕-게 하-시-고'로 실현된다면, 이것은 형태적 방법에서 통사적 방법으로 바뀐 경우이다.

둘째, 실현 방법이 없어진 경우이다. 실현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법범주 자체가 소멸한 것이다. 예를 들어 15세기 국어의 인칭법과 같은 문법범주는 소멸한 문법범주이다.

3.2. 통사적 방법에서 형태적 방법으로

통사적 방법에서 형태적 방법으로 문법범주 실현 방법이 변화한 경우를 시제법의 경우를 대상으로 살펴보자.

시제법은 시간이나 이에 관련된 양상, 양태 등의 문법관념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15세기 국어의 전형적인 시제법의 실현 방법은 선어

말어미에 의한 형태적 방법이다. 다음은 허웅(1975 및 1987)에서 기술된 15세기 국어의 시제법 체계이다.

(3) 15세기 국어의 시제법

a. 현실법 : -ᄂᆞ-

b. 회상법 : -다/더-

c. 확정법 : -은-, -으니-, -과-

d. 추정법 : -을-, -으리-

위와 같은 15세기 국어의 시제법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현대 국어의 '-었-'은 15세기 끝 시기부터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다. 제1단계로서 '-어 이시(잇)-'라는 통사적 구성으로서 어떤 상태나 동작이 끝나서 그 모습이 지속됨을 나타내었다(문장 4a). 즉, 통사적 방법으로 시제법이 실현된 경우이다. 제2단계로서 이 통사적 구성에서 모음이 축약하여 중모음의 형태로 나타나 '-엣/앳-'으로 실현된다(문장 4b). 제3단계로서 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바뀌어 '-엇/앗-'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발생한 '-엇/앗-'은 문법형태로 생성되어 선어말어미로서 문법 안에 자리 잡았다. 다시 말하여 통사적 방법에서 실현되던 것이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는 (5)와 같이 현대 국어에 이르러 '-었/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문법범주 실현 방법이 통사적 방법에서 형태적 방법으로 변화한 것인 동시에, 문법형태의 생성이며, 문법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4) a. 네 이제 사ᄅᆞᄆᆡ 모ᄆᆞᆯ 得ᄒᆞ고 부텨를 맛나-아 잇-ᄂᆞ니 (석보상절 6:11)

b. ᄃᆞᆯ기 소리 서르 들여 ᄒᆞᆫ ᄀᆞ새 닗-엣-고 (월인석보 1:46)

(5) -어/아 잇- > -엣/앳- > -엇/앗- > -었/았-

현대 국어의 미정법을 실현하는 '-겠-' 역시 통사적 구성 '-게 ᄒᆞ엿

-’에서 발생하였다. 원래 15세기 국어에서 미정법은 ‘-으리-’에 의해 실현되었는데, 16세기부터 ‘-으리-’의 분포가 제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틈에 나타난 것이 ‘-겟-’이다. ‘-겟-’은 원래 사동을 나타내는 ‘-게 ᄒᆞ-’의 완결형인 ‘-게 ᄒᆞ엿-’ > ‘-게엿-’에서 온 것인데(문장 6, 7), 이 통사적 구성이 축약하여 18세기 말에 ‘-겟-’의 형태가 완성되어 (8)과 같이 미정법 선어말어미로 자리를 굳혀 ‘-으리-’와 교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되던 미정법이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되게 된 것이다. 이 역시 문법범주 실현 방법이 통사적 방법에서 형태적 방법으로 변화한 것인 동시에, 문법형태의 생성이며, 문법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6)a. ᄌᆞ녀ᄂᆞᆫ 됴히 살-게 ᄒᆞ엿-녀 (한듕록 삼 260)
b. 병이 이러ᄒᆞ니 어듸 살-게 ᄒᆞ얏-ᄂᆞᆫ가 (한듕록 삼 230)
(7) a. 내일이야 가-게엿-ᄉᆞᆸ마ᄂᆞᆫ …… (언간자료)
b. ᄶᅥ나도 잇지 못하-게엿-ᄉᆞᆸ …… (언간자료)
(8) -게 ᄒᆞ엿- > *-게 ᄋᆞ엿- > -게엿- > -겟- > -겠-

한편 현대 국어의 보조용언 구문은 통사적 구성인데도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된다. 다음은 보조용언 구문이다. 문장 (9a)에서 ‘가-도록 하-’ 구성에서 ‘가-’의 주어는 ‘철수’로 상정되며 ‘하-’의 주어는 ‘나’로 상정되어 분명한 통사적 구성이다. 그러나 (9b)에서 ‘가-고 싶-’ 구성에서는 두 용언 ‘가-’와 ‘싶-’의 주어는 모두 ‘나’로 상정된다. 이 경우, ‘가-고 싶-’ 구성은 그 본질은 통사적 구성이지만,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되어, 통사적 구성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즉, 두 용언 사이에 긴밀한 통합 관계가 이루어져서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된다. 결론적으로 보조용언 구문은 통사적 구성에서 형태적 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9) a.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가도록 하였다.

b.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3.3. 형태적 방법에서 통사적 방법으로

형태적 방법에서 통사적 방법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사동법의 예를 들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사동법의 주요 실현 방법은 현대 국어나 15세기 국어나 모두 다음과 같다.

(10) 사동법의 실현방법

a. 파생적 방법 : 사동접미사에 의하여

b. 통사적 방법 : 통사적 구성에 의하여

다음 문장 (11a), (12a)는 파생적 방법으로, 문장 (11b), (12b)는 통사적 방법으로 사동법이 실현된 경우이다.

(11) a. 제 座를 ᄂᆞᆫ호아 안치면[=앉-히-면] (석보상절 19:6)

b. 座를 ᄂᆞᆫ호아 앉-긔 ᄒᆞ-면 (월인석보 17:51)

(12) a. 나는 철수에게 옷을 입-히-었다.

b. 나는 철수가 옷을 입-게 하-였다.

그런데 15세기 국어는 현대 국어와는 달리 사동접미사 분포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15세기 국어의 사동사는 문헌에 따르면 141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현대 국어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 50개가 된다. 이와 같이 사동접미사에 의한 사동법의 실현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이 15세기 국어에서는 사동접미사의 결합이 가능하여 사동법을 실현하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는 사동접미사 결합이 불가능하여 사동법을 실현하지 못한다.

(13) 버리다 (버리-우-다 : *버리-우-다)　　닛다 (ㄴㅣㅿ-우-다 : *이-우-다)
　　밍ᄀᆞᆯ다 (밍ᄀᆞᆯ-이-다 : *만들-이-다)　　ᄒᆞ다 (ᄒᆞ-이-다 : *ᄒᆞ-이-다)
　　어둡다 (어두-이-다 : *어두-이-다)　　깊다 (깊-이-다 : *깊-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았으나, 실제 상당수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위 예에서 현대 국어에서 사동접미사에 의해서는 사동법이 실현되지 않지만, 통사적 방법으로는 모두 실현된다.

(14) 버리다 (버리-게 하-다)　　잇다 (잇-게 하-다)
　　만들다 (만들-게 하-다)　　하다 (하-게 하-다)
　　어둡다 (어둡-게 하-다)　　깊다 (깊-게 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면 사동법은 파생적, 즉 형태적 방법에서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방법이 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동법은 주로 사동접미사에 의한 형태적 방법과 통사적 구성에 의한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되는데, 현대 국어로 올수록 형태적 방법의 실현은 제약되고 통사적 방법의 실현은 보편화되었다.

역사적으로 형태적 사동법이 제한되고 통사적 사동법이 보편화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동일한 파생접미사가 어느 단계에서 사동접미사와 피동접미사로 기능하게 되면서, 사동법과 피동법을 변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결국 파생접미사로 실현되던 사동법이 제약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실현방법인 통사적 사동법이 보편화되었다.

3.4. 문법범주의 소멸

문법범주의 실현방법이 없어진 경우가 문법범주의 소멸이다. 예를 들

어 인칭법을 살펴보자. 인칭법은 주어가 인칭의 대립을 실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15세기 국어 서술문에서 인칭법은 1인칭과 2/3인칭의 대립으로 실현되었다. 문법형태소 '-오-'와 '-ø-'의 대립에 따라 1인칭과 2/3인칭의 대립을 실현하였다. (15a)는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오-'가 나타나 있으나, (15b)는 문장의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오-'가 나타나 있지 않다.

(15) a. ᄒᆞ오ᅀᅡ 내 尊호라[=尊ᄒᆞ-오-라] (월인석보 2:34)
b. 아ᄃᆞᆯ딜히 아비 죽다[=죽-ø-다] 듣고 (월인석보 17:21)

그런데 이러한 인칭의 대립은 17세기에 거의 소멸하여 현대 국어에 이르렀다. 인칭법의 실현이 소멸한 것은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간결하게 하려는 데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 이렇게 15세기 국어에서 형태적 방법으로 1인칭과 2/3인칭의 대립을 보였던 인칭법은, 17세기에 해당 문법형태소가 사라지면서, 소멸하여 현대 국어에 이르렀다.

4. 문장 구성의 변화 양상

4.1. 논항 구조의 변화

용언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논항 구조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형용사 '같다'는 현대 국어에서 '무엇-이 무엇-과 같다'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는 주로 '무엇-이 무엇-이 ᄀᆞᆮᄒᆞ다'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문장 (16a)는 15세기 국어의 예이고 (16b)는 이를 현대 국어로 옮긴 것이다. '쇼ㅎ-이 ᄀᆞᆮ디 아니ᄒᆞ니'가 '속인-과 같지 아니하니'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16) a. 出家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쇼ㅎ[=쇼ㅎ-ㅣ] ᄀᆞᆮ디 아니ᄒᆞ니 (석보상절 6:22)
b. 出家한 사람은 속인-과 같지 아니하니

문장 (17)에서 보면, '다르다, 주다, 삼다'의 논항 구조도 역사적으로 변화했다. 중세 국어의 '무엇-에 다르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무엇-과 다르다'로, '누구-를 주다'는 '누구-에게 주다'로, '무엇-을 삼다'는 '무엇-으로 삼다'로 변화하였다.

(17) a.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훈민정음-언해 1)
b. 四海ᄅᆞᆯ 년글[=년ㄱ-을] 주리여 (용비어천가 20)
c. 后ᄅᆞᆯ 尊ᄒᆞᄉᆞ와 皇太后-ᄅᆞᆯ 삼ᅀᆞᆸ고 (내훈-초간 2하:17)

이제 역사적으로 분명한 변화를 보인 논항 구조를, [1] 논항 'NP-을'이 (a) 'NP-에 대하여', (b) 'NP-에게', (c) 'NP-으로'로 변화한 경우와, [2] 논항 'NP-이|에|과'가 (a) 'NP-과', (b) 'NP-을'로 변화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4.1.1. 'NP-을 V'의 변화

먼저 'NP-을 V'이 'NP-에 대하여 V'로 변화한 경우를 포괄적인 발화동사 '말하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현대 국어 '말하다'의 논항 구조와 예문이다

(18) a. NP-이 NP-에게 NP-을 V
그 사람은 나에게 자기의 경험을 말했다.
동수는 영수에게 영희가 떠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b. NP-이 NP-에게 NP-에 대하여 V
그 사람은 나에게 자기의 경험에 대하여 말했다.
동수는 영수에게 영희가 떠난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현대 국어 '말하다'처럼 중세 국어에서 포괄적인 발화동사는 '니ᄅᆞ다'

이다. ‘니ᄅᆞ다’는 그 쓰임이 역사적으로 변화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국어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논항 구조는 모두 ‘NP-이 NP-의게 NP-을 V’이다.

(19) a. 부텻 긔별-을 地神이 닐어늘 (월인천강지곡 상 기82)
b. 釋迦ㅣ … 四十年을 般若 等 敎-를 니ᄅᆞ시니 (월인석보 14:43)

(20) a. 네 그저 ᄑᆞᆯ 갑슬[=값-을] 니ᄅᆞ라 쇽졀업시 간대로 갑슬 바도려 ᄒᆞ노괴여 (번역노걸대 하 10)
b. 그 늘근 사ᄅᆞᆷ이 한가ᄒᆞᆫ 저긔 廣ᄃᆞ려 이 계교-를 니ᄅᆞᆫ대 (번역소학 9:88)

(21) a. 네 그저 ᄑᆞᆯ 갑슬[=값-을] 니ᄅᆞ라 쇽졀 업시 이리 간대로 갑슬 ᄭᅬ오ᄂᆞᆫ다 (노걸대언해 하 9)
b. 님굼이 王事-를 니ᄅᆞ고 國事-를 니ᄅᆞ디 말며 大夫士ㅣ 工事-를 니ᄅᆞ고 家事-를 니ᄅᆞ디 마롤디니라 (가례언해 9: 37)

이를 살펴볼 때, ‘니ᄅᆞ다’의 격틀 구조는 15세기 이래 ‘NP-이 NP-의게 NP-을 니ᄅᆞ다’ 구문을 유지하면서, 현대 국어에 이르러 ‘NP-이 NP-에게 NP-을|에 대하여 말하다’ 구문으로 확대,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NP-에 대하여 V’ 구문은 19세기말, 즉 현대 국어 초기 문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장 (22a)는 『독립신문』 예이고, (22b)는 『대한매일신보』 예이다.

(22) a. 청국 텬진에 쥬차ᄒᆞᆫ 일본 령ᄉᆞ가 청국의 모든 쳘도-에 ᄃᆡᄒᆞ야 ᄂᆞᄂᆞ이 보고ᄒᆞ얏ᄂᆞᆫᄃᆡ 근일 정황이 좌와 ᄀᆞᆺ다더라 (1899.9.8.)
b. 우리 대한ᄆᆡ일신보의 목뎍은 대한의 안녕 질셔에 관한 모든 데목-에 ᄃᆡᄒᆞ야ᄂᆞᆫ 공평한 변론을 쥬쟝ᄒᆞᆷ이라 (1904.8.16.)

다음에는 ‘NP-을 V’ 구문이 ‘NP-에게 V’ 구문으로 변화한 경우를 동사 ‘주다’를 통해 확인해 보자. 15세기 국어에서 ‘주다’의 논항 구조

는, 다음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이 NP-을 NP-을 주다'로 나타난다.

(23) a. 四海ᄅᆞᆯ 년글[=년ㄱ-을] 주리여 (용비어천가 20)
b. 부톄 오나시ᄂᆞᆯ … 나-ᄅᆞᆯ 죠고맛 거슬 주어시든 (석보상절 6:44)
c. 이제 너-를 올ᄒᆞᆫ녁 웃니ᄅᆞᆯ 주노니 (석보상절 23:7)
d. 奇異ᄒᆞᆫ 터리ᄅᆞᆯ 시혹 매ᄅᆞᆯ 주시놋다 (두시언해-초간 8:8)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주다'의 논항 구조는 'NP-이 NP-을 NP-에게 주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위 문장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24) a. 四海를 누구-에게 주겠느냐.
b. 부처님이 오셔서, 저-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신다면
c. 이제 너-에게 오른쪽 윗니를 주니
d. 기이한 털을 간혹 매-에게 주시도다.

16세기 이후 자료를 통해 이를 더 확인해 보기로 하자. 다음은 각각 16세기와 17세기 문장인데, 모두 'NP-이 NP-을 NP-을 주다' 구문으로 나타난다.

(25) a. 勘合 써 즉재 인 텨 날[=나-ㄹ] 주더라 (번역박통사 상 3)
b. 일뵉 낫 돈애 너-를 언메나 주워여 ᄒᆞᆯ고 (번역노걸대 상 53)
c. 네 나-ᄅᆞᆯ ᄒᆞᆫ 가짓 됴ᄒᆞᆫ 은을 다고려 (번역노걸대 하 61)
(26) a. 勘合을 써 이믜셔 인 텨 나-ᄅᆞᆯ 주드라 (박통사언해 상 3)
b. 一百 낫 돈에 너-를 얼머나 주어야 올ᄒᆞᆯ고 (노걸대언해 상 48)
c. 네 나-ᄅᆞᆯ ᄒᆞᆫ 가지 됴ᄒᆞᆫ 은을 주고려 (노걸대언해 하 55)

그런데 위 문장들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NP-이 NP-을 NP-에게 주다' 구문이다.

(27) a. 勘合을 써서 이미 도장 찍어 나-에게 주더라.
b. 일백 냥에 너-에게 얼마나 주어야 할까.
c. 당신이 나-에게 한 가지 좋은 은을 다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문장 (27)의 a. '나-에게', b. '너-에게', c. '나-에게'는 각각 '나-를, 너-를, 나-를'과 같이 쓰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1) '-에게'와 '-를' 가운데, 사용 빈도로 보면 '-에게'가 월등이 높다. 2) '-에게'보다는 '-를'을 사용하는 경우 [강조]의 의미가 더해 진다.

'NP-을 V' 구문이 'NP-에게 V' 구문으로 변화한 경우를 다른 동사를 통해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 (28)은 15세기, (29)는 16세기 이후 국어의 문장이다.

(28) a. 또 니ᄅᆞ샨 十二部 經을 摩訶迦葉-을 맛디노라 ᄒᆞ시고 (석보상절 23:31)
b. 迦葉-일 머기시니 (월인천강지곡 상 기104)
c. 須達ᄋᆡ 아ᄃᆞᆯ-ᄋᆞᆯ ᄯᅳᆯᄋᆞᆯ 얼유려터니 (월인천강지곡 상 기149)
d. 하ᄂᆞᆯ히 부러 ᄂᆞᄆᆞᆯ[=ᄂᆞᆷ-ᄋᆞᆯ] 뵈시니 (용비어천가 68)
e. 朝臣-을 거스르샤 (용비어천가 99)

(29) a. 두 드렛 믈 기러 잇다 ᄆᆞᆯᄃᆞᆯᄒᆞᆯ[=ᄆᆞᆯᄃᆞᆯᄒᆞ-ᄋᆞᆯ] 머기라 (번역노걸대 상 35)
b. 두 드렛 믈 기러시니 ᄆᆞᆯᄃᆞᆯ-을 먹이라 (노걸대언해 상 31)
c. 츰기름 ᄒᆞᆫ 되ᄅᆞᆯ 아ᄒᆡ-ᄅᆞᆯ 날마다 머기면 (언해두창집요 상 13)
d. 녯 宋 仁宗이 사ᄅᆞᆷ-을 勸奬ᄒᆞᄂᆞᆫ 글에 닐러시되 (첩해몽어 1:11)

문장 (28a)의 '摩訶迦葉-을 맛디노라'는 현대 국어에서는 '摩訶迦葉-에게 맡기노라'로 이해되는데, 여기에서 'NP-을 V' 구문이 'NP-에게 V' 구문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迦葉-일 머기시니, 須

達ᄋᆡ 아ᄃᆞᆯ-ᄋᆞᆯ ᄯᅩᆯᄋᆞᆯ 얼유려터니, ᄂᆞᄆᆞᆯ[=ᄂᆞᆷ-ᄋᆞᆯ] 뵈시니, 朝臣-을 거스르샤, ᄆᆞᆯᄃᆞᆯᄒᆞᆯ[=ᄆᆞᆯᄃᆞᆯᄒᆞ-ᄋᆞᆯ] 머기라, ᄆᆞᆯᄃᆞᆯ-을 먹이라, 아ᄒᆡ-ᄅᆞᆯ 머기면, 사ᄅᆞᆷ-을 勸奬ᄒᆞᄂᆞᆫ' 등은 현대 국어에서는 '迦葉-에게 먹이시니, 須達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보내려 하니, 남-에게 보이시니, 朝臣-에게 거스르셔, 말들-에게 먹여라, 말들-에게 먹여라, 아이-에게 먹이면, 사람-에게 권장하는'으로 이해되어, 'NP-을 V' 구문이 'NP-에게 V' 구문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NP-을 V' 구문이 'NP-으로 V' 구문으로 변화한 경우도 있다. 동사 '삼다'를 통해 확인해 보자. 현대 국어에서 '삼다' 동사의 논항 구조는 'NP-이 NP-을 NP-으로|을 삼다'로 나타난다. 15세기 국어의 경우, 다음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을'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根本-을 삼곡, 自然-을 삼ᄂᆞ다, 제 體-ᄅᆞᆯ 사ᄆᆞᆷ딘댄, 維那-ᄅᆞᆯ 삼ᅀᆞᄫᆞ리라, 皇太后-ᄅᆞᆯ 삼ᄉᆞᆸ고'와 같이 모두 '-을'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根本-으로 삼고, 자연-으로 삼는다, 자기의 본체-로 삼을 것이므로, 維那-로 삼으리라'와 같이 모두 '-으로'를 취한다.

(30) a. 나라ᄒᆞᆫ 百姓으로 根本-을 삼곡 (두시언해-초간 16:19)
b. 네 … 아디 몯ᄒᆞ야 迷惑ᄒᆞ야 自然-을 삼ᄂᆞ다 (능엄경언해 2:66)
c. ᄒᆞ다가 ᄯᅩ 空ᄋᆞ로 제 體-ᄅᆞᆯ 사ᄆᆞᆷ딘댄 (능엄경언해 2:66)
d. 維那-ᄅᆞᆯ 삼ᅀᆞᄫᆞ리라 王ᄋᆞᆯ 請ᄒᆞᄉᆞᆸ노이다 (월인석보 8:79)

4.1.2. 'NP-이|에|과 V'의 변화

먼저 'NP-이|에|과 > NP-과' 변화이다. '같다'의 논항 구조는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는 서로 다르다. 다음 문장은 'ᄀᆞᆮᄒᆞ다'가 쓰인 15세기 국어 문장인데, 이를 살펴보면, 'ᄀᆞᆮᄒᆞ다'의 구조는 'NP-이 NP-이 ᄀᆞᆮᄒᆞ다'로 설정된다.

(31) a. 손과 발왜 븕고 히샤미 蓮ㅅ고지[=蓮ㅅ곶-이] ᄀᆞᄐᆞ시며 (월인석보 2:57)
b. 法이 펴디여 가미 믈 흘러 녀미[=녂-이] ᄀᆞᄐᆞᆯ씨 (석보상절 9:21)
c. 執杖釋의 ᄯᆞᆯ이 金像-이 ᄀᆞᆮᄒᆞ샤 (월인천강지곡 상 기37)
d. 蓮ㅅ고지 고ᄌᆞ로셔 여름 여루미[=여룸-이] ᄀᆞᆮᄒᆞᆯ씨 (석보상절 13:33)

그런데 이들 문장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다음과 같아, '같다'의 논항 구조는 'NP-이 NP-과 같다'로 설정된다.

(32) a. 손과 발이 붉고 희심이 연꽃-과 같으시며
b. 법이 펴져 가는 것이 물 흘러가는 것-과 같으므로
c. 執杖釋의 딸이 金像-과 같아서
d. 연꽃이 꽃으로부터 열매 맺음-과 같으므로

16세기 국어와 17세기 국어에서도 문장 (33), (34)와 같이 'NP-이 NP-이 ᄀᆞᆮᄒᆞ다' 구조로 나타난다.

(33) a. 臣下ㅣ 님금 셤교미 ᄌᆞ식의 부모 셤교미[=셤굠-이] ᄀᆞᆮᄒᆞ니 (삼강행실도충신 24)
b. 仁者ᄂᆞᆫ 射홈-이 ᄀᆞᄐᆞ니 (맹자언해 3:35)
c. 房舍ㅅ 가온대 안자 四面이 다 담이며 ᄇᆞᄅᆞᆷ-이 ᄀᆞᆮᄐᆞ니 (소학언해 5:11)
(34) a. 이운 남기 엇쎠시 어믜 얼굴-이 ᄀᆞᆮ거ᄂᆞᆯ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자 1:6)
b. ᄆᆞᅀᆞᆷ이 ᄆᆞᆯ근 ᄃᆞᆯ의 ᄀᆞ린 것 업ᄉᆞ미[=업ᄉᆞᆷ-이] ᄀᆞᆮᄃᆞ니라 (여훈언해 하 23)
c. ᄆᆞᅀᆞᆷ이 ᄇᆞᆯ근 거울의 드틀 업ᄉᆞ미[=업ᄉᆞᆷ-이] ᄀᆞᆮᄐᆞ며 (여훈언해 하 23)

그러나 17세기 국어에서는 문장 (35)와 같이 'NP-이 NP-과 V' 구조로 나타난다. 이처럼 '같다'의 구문 구조는 15세기 이래 'NP-이 NP-이 ᄀᆞᆮᄒᆞ다'로 실현되다가 17세기 국어 이후 'NP-이 NP-과 같다'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다.

(35) a. 힝역이 ᄀᆞᆺ도ᄃᆞᆯ 제 ᄠᅳ리과 ᄠᅳᆷ도 약기-과 ᄀᆞᆮᄂᆞ니 (언해두창집요 상 15)
b. 만일 宗子ㅣ 제 喪主ㅣ 되면 祝版이 前-과 ᄀᆞᆮ고 (가례언해 9:16)
c. 네 닐오미 맛치 내 ᄠᅳᆮ-과 ᄀᆞᆺ다 (노걸대언해 상 10)

'같다'뿐만 아니라, '다르다'도 역시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음 문장은 각각 15세기, 16세기, 17세기 국어에서 '다ᄅᆞ다'가 쓰인 문장인데, 구문 구조는 'NP-이 NP-에|에셔|의게셔 다ᄅᆞ다'로 나타나는데, 이 구조 역시 현대 국어로 오면서 'NP-이 NP-과 다르다'로 변화하였다. '中國-에 달아, 사ᄅᆞᆷ-에셔 다ᄅᆞ니라, 즘ᄉᆡᆼ-의게셔 다ᄅᆞ기ᄂᆞᆫ'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중국-과 달라, 사람-과 다른 것이다, 짐승-과 다르기는'이다.

(36) a. 나랏 말ᄊᆞᄆᆡ 中國-에 달아 (훈민정음-언해 1)
b. 公이 德과 그르시 이러키 모ᄃᆞᆫ 사ᄅᆞᆷ-에셔 다ᄅᆞ니라 (소학언해 6:5)
c. 사ᄅᆞᆷ의 사ᄅᆞᆷ 되오미 즘ᄉᆡᆼ-의게셔 다ᄅᆞ기ᄂᆞᆫ (경민편언해 21)

다음은 'NP-에 > NP-을' 변화이다. 동사 '보다, 알다, 모르다'의 경우, 15세기 국어에서 'NP-이 NP-에 V'라는 구문을 가지는 예가 있다. 다음 문장들이 그러한데, '이 經卷-에 (恭敬ᄒᆞ야) 보ᄃᆡ, 法說-에 (ᄒᆞ마) 아라, 밧 物-에 (제) 모ᄅᆞ거뇨'의 현대 국어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이 經卷-을 보되, 法說-을 알아, 밖 物-을 모르느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동사 '보다, 알다, 모르다'의 경우, 15세기 국어에서 'NP-이 NP-에 V'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NP-이 NP-을 V'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a. 이 經卷-에 恭敬ᄒᆞ야 보ᄃᆡ 부텨 ᄀᆞ티 ᄒᆞ야 (법화경언해 4:72)
b. 舍利弗이 法說-에 ᄒᆞ마 아라 (월인석보 12:2)
c. 엇더콴ᄃᆡ 뒤ᄒᆞ로 ᄃᆞᆯ요매 제 일흐며 밧 物-에 제 모ᄅᆞ거뇨 (월인석보 13:3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언은 그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논항 구조가 다른데, 논항 구조는, NP로 구성되는 통사 구조로서, 한 언어의 문장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논항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은 문장 구성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접속문의 변화

다음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어미가 역사적으로 교체하여 접속문 구성이 변화한다(이기갑 1981, 구현정 1999 참조).

(38) a. 世尊이 … 니버[=닙-어] 겨신 僧伽梨衣를 아ᅀᆞ시고 (석보상절 23:8)
b. 남ᄌᆞ는 이싱의 이실 제 한삼 닙-고 … 이실ᄉᆡ (부모은중경 2; 1563년)

(39) a. 네 ᄆᆞᆯ 풀라 가-거니, 우리 벋지ᅀᅥ 가미 마치 됴토다 (번역노걸대 상 8)
b. 네 ᄆᆞᆯ 풀라 가-거든, 우리 벗지어 가미 마치 됴토다 (노걸대언해 상 7)

(40) a. 이ᄃᆞᆯ 초ᄒᆞᆺ날 王京의셔 ᄠᅥ나-거니, 이제 반ᄃᆞ리로ᄃᆡ (번역노걸대 상 1)
b. 이ᄃᆞᆯ 초ᄒᆞᄅᆞᆫ날 王京의셔 ᄠᅥ나시-면, 이제 반ᄃᆞᆯ에 다ᄃᆞ라 ᄭᅥᄃᆞᆫ
(노걸대언해 상 1)

(41) a. 갑곳 잇-거든, 풀오 ᄒᆞ다가 ᄀᆞ장 디-거든, 안직 머추워 두어든
(번역노걸대 상 70)
b. 갑시 이시-면, 풀고 ᄒᆞ다가 ᄀᆞ장 쳔ᄒᆞ-면, 아직 잠ᄭᅡᆫ 머믈워 두리라
(노걸대언해 상63)

4.3. 명사절의 변화

문장 (42)는 각각 15세기 국어, 개화기 국어의 명사절 구성이다.

(42) a. 이 諸佛ㅅ 甚히 기픈 ᄒᆡᆼ뎌기라 信ᄒᆞ야 아로미[=알-오-ㅁ-이] 어렵거늘
(석보상절 9:26)
b.種油의 燈火ᄂᆞᆫ 携帶홈에 甚히 不便ᄒᆞ도다(국어독본 6:4)

문장 (42a)는 명사절이 명사형 어미 '-ㅁ'을 통해 '어렵거늘'이라는 서술어에 안겨 있다. (42b) 역시 명사절이 명사형 어미 '-ㅁ'을 통해 '不便ᄒᆞ도다'라는 서술어에 안겨 있다. 이 두 문장의 현대 국어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다음과 같다.

(43) a. 이 여러 부처가 매우 깊은 행적이라고 믿어서 알기가 어려우니
b. 씨앗기름 등불은 휴대하기에 / 휴대하는 데에 매우 불편하다.

15세기 국어나 개화기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 '-ㅁ'에 의해 구성되었던 명사절이 현대 국어에서는 '-기'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혹은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42a)에서 보면 명사형 어미 '-ㅁ' 앞에, 현대 국어와는 달리, '-오-'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명사절 구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15세기 국어에서 전형적인 명사형 어미는 '-음'과 '-기'이다. 여기에 '-디'가 더 있었다. '-ㅁ'은 반드시 '-오/우-'를 앞세워 결합하였다. 이러한 명사형 어미의 역사적인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ㅁ' 앞에 결합해 있던 '-오/우-'가 소멸되었다. 둘째, '-기'가 명사형 어미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셋째, '-디'가 '-기'에 합류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예문과 같이 명사절 구성이 역사적으로 교체해 온 양상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음' 명사절 구성이 '-기' 명사절 구성으로 교체되는 변화와 둘째, 명사절 구성이 관형절을 가진 의존명사 구성으로 교체되는 변화이다.

먼저 15세기 국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음' 명사절 구성이 축소되고, 역사적으로 이 자리가 '-기' 명사절 구성으로 교체되는 변화이다. 문장 (44)는 15세기 국어의 예인데, 서술어 '싱각ᄒᆞ다, 勸ᄒᆞ다, 쉽다' 등이 '-음' 명사화 구성을 안고 있다.

(44) a. 샹녜 스승의 ᄀᆞᄅᆞ쵸ᄆᆞᆯ[=ᄀᆞᄅᆞ치-오-ㅁ-ᄋᆞᆯ] ᄉᆞᄉᆡᄋᆞ각ᄒᆞ야
(월인석보 7:45)
b. 相ᄋᆞᆯ 여희여 發心호ᄆᆞᆯ[=發心ᄒᆞ-오-ㅁ-ᄋᆞᆯ] 勸ᄒᆞ샨 이치니라
(금강경삼가해 3:36)
c. 어즈러운 ᄆᆞᅀᆞᄆᆞ로 부텨 일ᄏᆞᆯᄌᆞ오미[=일ᄏᆞᆯ-ᄌᆞ오-오-ㅁ-이] 쉬오ᄃᆡ
(법화경언해 1:223)

이에 대하여 16세기 이후 문장 (45)는 각각 '-기' 명사절 구성을 안고 있다. 이는 '-음' 명사절 구성이 '-기' 명사절 구성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5) a. 그 허ᄒᆞ-기-ᄅᆞᆯ 가히 싱각ᄒᆞᆯ디라 (두창경험방언해 43)
b. 사ᄅᆞᆷ이 ᄆᆞᄅᆞᆯ 보내여 ᄃᆞ라나-기-ᄅᆞᆯ 권ᄒᆞᆫ대 듣디 아니ᄒᆞ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충신 1:72)
c. 샤치ᄒᆞᆫ ᄃᆡ 들-기-ᄂᆞᆫ 쉽고 (소학언해 6:129)

이러한 교체는 다음 문헌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6세기 문헌인『번역노걸대』와 17세기 문헌『노걸대언해』를 통하여 살펴보자.

(46) a. 법다이 ᄆᆡᆼᄀᆞ로ᄆᆞᆯ[=ᄆᆡᆼᄀᆞᆯ-오-ㅁ-을] 됴히 하엿ᄂᆞ니라 (번역노걸대 상 24)
법다이 ᄆᆡᆼᄀᆞᆯ-기-를 됴히 ᄒᆞ엿ᄂᆞ니라 (노걸대언해 상 23)
b. 믈읫 우리 짐ᄃᆞᆯᄒᆞᆯ 설어 주믈[=주-우-ㅁ-을] 지그기ᄒᆞ고 (번역노걸대 상 59)
믈읫 우리 짐들흘 收拾ᄒᆞ-기-를 극진히 ᄒᆞ고 (노걸대언해 상 53)
c. ᄠᅡᆨ을 가져다가 부븨요ᄆᆞᆯ[=부븨-요-ㅁ-ᄋᆞᆯ] ᄀᆞᄂᆞ리ᄒᆞ야 (번역박통사 상 38)
뎌 쑥을 다가 부뷔-기-를 ᄀᆞᄂᆞᆯ게 ᄒᆞ야 (박통사언해 상 35)

다음은 명사절 구성이 관형절을 가진 의존명사 구성으로 교체되는

변화이다. 현대 국어에 이르면서 '-음' 명사절이나 '-기' 명사절 구성은 그대로 '-음' 명사절이나 '-기' 명사절 구성으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이 더 자연스러운 실현 방법이다. 이는 명사절 구성이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 (47)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 16세기 및 18세기 예이다. (47a)의 '닐옴'[=니ᄅᆞ-오-ㅁ]이 (47b)에서 '니ᄅᆞ-ᄂᆞᆫ 말'로 교체되었다.

(47) a. 네 닐옴도[=니ᄅᆞ-오-ㅁ-도] 올타커니와 (번역노걸대 상 5)
b. 네 니ᄅᆞ-ᄂᆞᆫ 말-이 올커니와 (몽어노걸대 1:6)

다음은 개화기 국어의 '-음' 및 '-기' 명사화 구성이다. (48)은 (49)로도 실현되지만,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인 (50)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48) a. 여셧 가지의 근본을 아지 못ᄒᆞ면 <이ᄂᆞᆫ 김생과 달홈> 업심이오 (노동야학독본 1:1)
b. <정ᄒᆞᆫ 시간을 직힘이> 극히 필요ᄒᆞ니 (초등소학 5:24)
c. 비록 볼 ᄉᆞᄅᆞᆷ은 업스나 <남의 거ᄉᆞᆯ 몰ᄂᆡ 먹기ᄂᆞᆫ> 올치 아니ᄒᆞ니 (신정심상소학 1:19)
(49) a. 여섯 가지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이는 짐승과 다름> 없다.
b. <정한 시간을 지킴이> 극히 필요하니
c. 비록 보는 사람은 없으나 <남의 것을 몰래 먹기는> 옳지 아니하니
(50) a. 여섯 가지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b.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극히 필요하니
c. 비록 보는 사람은 없으나 <남의 것을 몰래 먹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와 같이 '-음' 명사절이나 '-기' 명사절 구성은 현대 국어에서는 점차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은 명사절 구성이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성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예측하게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른바 명사문에서 동사문으로 변화하는 흐름의 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4.4. 관형절의 변화

15세기 국어에서 관형절이 명사절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장 (51)의 밑줄 친 관형절 구성은 각각 '다할 것 없어, 다할 것 없으니, 슬플 것 없이, 아니할 것을 아니한다'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51) a. 너펴 돕ᄉᆞ오미 다ᄋᆞᆷ 업서 (법화경언해 서 18)
b. 내 천량앳 거시 다ᄋᆞᆷ 업스니 (법화경언해 2:75)
c. 놀애ᄅᆞᆯ ᄂᆞ외야 슬ᄑᆞᆷ 업시 브르ᄂᆞ니 (두시언해-초간 25:53)
d. ᄆᆞᅀᆞ매 서늘히 너기디 아니ᄒᆞᆷ 아니ᄒᆞ노라 (내훈 서 6)

위 예는 '-을'의 경우인데, '-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장 (52a)의 '겨시ᄂᆞᆫ'은 관형형 '겨시-ㄴ'에 보조조사 '-ᄋᆞᆫ'이 결합한 것으로, '계시는 사람은'의 의미로 해석되며, (52b)의 '그딋 혼'은 '그대가 한 대로'로, (52c)의 '威化振旅ᄒᆞ시ᄂᆞ로'는 관형형 '威化振旅ᄒᆞ-시-ㄴ'에 부사격 조사 '-ᄋᆞ로'가 결합한 것으로, '威化振旅하신 것으로'의 뜻이다. 이러한 관형절의 명사절 기능은 16세기 국어에서도 그 흔적이 보이나, 바로 소멸한 문법 현상이다.

(52) a. 西方애 겨시ᄂᆞᆫ[=겨시-ㄴ-ᄋᆞᆫ] 阿彌陀如來와 度一切世間苦惱如來시니
(월인석보 14:5)
b. 그딋 혼[=ᄒᆞ-오-ㄴ] 조초ᄒᆞ야 뉘읏븐 ᄆᆞᅀᆞᄆᆞᆯ 아니호리라 ᄒᆞ더니

(석보상절 6:8)

c. 威化振旅ᄒᆞ시ᄂᆞ로[=ᄒᆞ-시-ㄴ-ᄋᆞ로] 輿望이 다 몯ᄌᆞᄫᆞ나 (용비어천가 11)

다음으로는 관형절 구성의 주어-객어 대립을 살펴보자. 관형절이 구성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인 경우와 객어인 경우에 따라 보이는 대립이다. 수식받는 명사가 객어(구체적으로, 목적어와 부사어)인 경우에는 문법형태소 '-오-'가 나타나지만,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장 (53)이 그러한 예이다.

(53) 겨집ᄃᆞᆯ히 子息을 낳다.

a. 주어인 경우 : 子息 나ᄒᆞᆫ[=낳-ø-ᄋᆞᆫ] 겨집ᄃᆞᆯ

b. 객어인 경우 : 겨집ᄃᆞᆯ히 나혼[=낳-오-ᄋᆞᆫ] 子息

이와 같이 15세기 국어에서 관형절 구성이 이루어질 때,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인 경우와 객어인 경우에 따라 선어말어미의 대립이 실현된다. 즉, 수식받는 명사가 객어인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관형사형 어미에 결합하고, 주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15세기 국어 관형절 구성의 특징은 16세기 이후 소멸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들어와 거의 소멸하여 현대 국어에 이르렀다.

문장 (54)는 16세기 자료인데, 같은 문장 안에서 주어-객어 대립이 실현되기도 하고,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관형절 구성의 주어-객어 대립이 16세기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54) a. 비록 주논[=주-ᄂᆞ-오-ㄴ] 배 ᄀᆞᆮ디 아니ᄒᆞ나 주ᄂᆞᆫ[=주-ᄂᆞ-ø-ㄴ] 배 업다 몯ᄒᆞᆯ 거시라 ᄒᆞᆫ대 (번역소학 9:91)

b. 하ᄂᆞᆯ히 내샨[=내-시-오-ㄴ] 바와 ᄯᅡ히 치시ᄂᆞᆫ[=치-시-ᄂᆞ-ø-ㄴ] 바애 오직 사ᄅᆞᆷ이 크니 (소학언해 4:18)

『번역소학』(1518년)과『소학언해』(1588년)를 대비해 보면 관형절 구성의 주어-객어 대립의 소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번역소학』에는 '-오/우-'가 결합되어 있으나, 『소학언해』에는 그렇지 않다.

(55) a. 내 자바 ᄒᆞ논[=ᄒᆞ-ᄂᆞ-오-ㄴ] 이리 (번역소학 7:2)
비록 자반ᄂᆞᆫ[=잡-앗-ᄂᆞ-ø-ㄴ] 배 다 올흘디라도 (소학언해 5:36)
b. 자연이 잘 ᄒᆞ논[=ᄒᆞ-ᄂᆞ-오-ㄴ] 일을 길워 (번역소학 6:4)
자연히 능히 ᄒᆞᄂᆞᆫ[=ᄒᆞ-ᄂᆞ-ø-ㄴ] 거슬 칠디니 (소학언해 5:4)
c. 진실로 太子의 니르논[=니르-ᄂᆞ-오-ㄴ] 말와 ᄀᆞᆮᄒᆞ냐 (번역소학 9:46)
진실로 東宮의 닐으ᄂᆞᆫ[=니르-ᄂᆞ-ø-ㄴ] 바 ᄀᆞᆮᄐᆞ냐 (소학언해 6:42)
d. 삼가 이베 ᄀᆞᆯ히욜[=ᄀᆞᆯ히-요-ㄹ] 마리 업ᄉᆞ며 (번역소학 6:13)
입에 ᄀᆞᆯ힐[=ᄀᆞᆯ히-ø-ㄹ] 말이 업스며 (소학언해 5:13)

다음 16세기의『번역노걸대』와 17세기의『노걸대언해』에에서도 관형절 구성의 주어-객어 대립이 소멸되었음을 보여 준다. 같은 문헌이지만 (56a,b)의『번역노걸대』에서는 주어-객어 대립이 실현되어 있으나, (56c,d)의『번역노걸대』에서는 소멸되었다. 물론『노걸대언해』에서는 모두 소멸되었다.

(56) a. 우리 너희를 자디 몯게 ᄒᆞ논[=ᄒᆞ-ᄂᆞ-오-ㄴ] 주리 아니라
(번역노걸대 상 47)
내 너희를 재디 아니려 ᄒᆞᄂᆞᆫ[=ᄒᆞ-ᄂᆞ-ø-ㄴ] 줄이 아니라
(노걸대언해 상 43)
b. 밤마다 먹논[=먹-ᄂᆞ-오-ㄴ] 딥과 콩이 ᄒᆞᆫ가 아니니 (번역노걸대 상 12)
每夜의 먹ᄂᆞᆫ[=먹-ᄂᆞ-ㄴ] 딥과 콩이 ᄒᆞᆫ 가지 아니라 (노걸대언해 상 11)
c. 요ᄉᆞ시예 사괴논[=사괴-ᄂᆞ-ø-ㄴ] 사ᄅᆞ미 와 닐오ᄃᆡ (번역노걸대 상 8)
요ᄉᆞ이 서ᄅᆞ 아ᄂᆞᆫ[=알-ᄂᆞ-ø-ㄴ] 사ᄅᆞᆷ이 와 니ᄅᆞ되 (노걸대언해 상 8)
d. 이 오ᄂᆞᆯ 주긴 됴ᄒᆞᆫ[=둏-ø-ᄋᆞᆫ] 도틔 고기라 (번역노걸대 상 20)

이 오ᄂᆞᆯ 주긴 됴ᄒᆞᆫ[=돇-ø-ᄋᆞᆫ] 豬肉이라 (노걸대언해 상 18)

4.5. 인용문의 변화

현대 국어의 인용문 구성은 인용동사가 인용절을 안고 있는 구조로서, 여기에 '-고' 또는 '-라고'와 같은 인용표지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의 인용문 구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실현된다. 이러한 구성은 한문 문체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57) 이 比丘ㅣ ᄉᆞᆫ지 高聲으로 닐오ᄃᆡ, "내 너희ᄅᆞᆯ 업시오ᄃᆞᆯ 아니ᄒᆞ노니, 너희ᄃᆞᆯ히 다 당다이 부톄 ᄃᆞ외리라" ᄒᆞ더라 (석보상절 19:31)

문장 (57)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인용문 구성의 실현방법이 역사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58) 이 比丘가 오히려 큰 소리로 "내가 너희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니, 너희들이 다 반드시 부처님이 되겠다."-고 말하더라.

위의 문장 (57)을 (58)과 대비해 보면, 세 가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인용문 구성의 형식이 바뀌었다. 15세기 국어의 경우, '이 比丘ㅣ 닐오ᄃᆡ'와 같은 도입절을 앞세우고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둘째, 15세기 국어의 경우, '-고'와 같은 인용표지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고'가 결합되어 있다. 셋째, 15세기 국어의 경우, 도입절에는 '니ᄅᆞ다', 인용동사 자리에는 'ᄒᆞ다'가 나타나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인용동사 자리에 '말하다'가 나타나 있다.

중세 국어, 근대 국어에 걸쳐 존재하지 않았던 인용표지는 18세기말에 발생하여, 개화기 국어에서부터 활발하게 결합되기 시작하여 현대 국어에 이르렀다. 인용표지는 인용동사로 기능했던 'ᄒᆞ다'의 접속형 'ᄒᆞ

고’가 문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인용표지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ᄒᆞ다’의 접속형 ‘ᄒᆞ고’와 인용동사가 겹쳐 ‘ᄒᆞ고 말ᄒᆞ다’ 구성이 실현되었다. 이 구성에서 ‘ᄒᆞ고’는 인용동사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기능이 약화되면서 형태의 약화도 수반되어, ‘ᄒᆞ-’의 ‘ㆍ’가 줄어들어 ‘-코’ 형태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ᄒᆞ-’까지 약화되어 ‘-고’가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고’가 인용표지로 보편화되면서 문법화된 것이다. 문법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59) 인용 표지 ‘-고’의 생성 과정
인용동사 겹침(ᄒᆞ고 말ᄒᆞ다) > ‘ᄒᆞ다’의 서술기능 약화
> 형태 약화 (ᄒᆞ고 > 코 > -고) > 인용표지로 기능 보편화

5. 맺음말: 앞으로의 연구 방향

지금까지 통사 변화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수행된 국어의 통사 변화에 대한 여러 양상들을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문법범주 실현방법의 변화, 문장 구조의 변화 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앞으로 전개해야 할 통사 변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첫째, 국어 연구에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에 관심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정신세계를 이끌어 온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어의 공시적 특성뿐만 아니라 통시적 전개 과정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어 연구에서 연구의 기본적인 세 분야, 즉 음운론, 의미론, 문법론에 대한 연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어떤 특정 분야가 연구의 중심이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분야를 경시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국어사 연구에서 통사 변화에 대한 연구가 경시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사 변화 가운데서도 어느 특정 주제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통사 변화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어순 변화에 대한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사 변화 사실을 바탕으로 언어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일반 원리를 규명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지향하면 훨씬 더 경제성 있는 통사 변화의 연구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현정(1999) 「Grammaticalization of Conditionals in Korean」, 『어학연구』 35(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43-558.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범주의 변화에 대한 연구」, 『朝鮮學報』150, 일본: 朝鮮學會, 1-17.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도서출판 박이정.

권재일(2001) 「한국어 격틀 구조의 역사적 변화」, 『어학연구』 3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35-155.

권재일(2004) 「국어사 연구 방법과 외래 이론 수용」, 『국어학』 43, 국어학회, 385-405.

권재일(2016) 「북한의 국어 문법사 연구에 대하여」, 『한글』 311, 한글학회, 55-87.

김방한(1988) 『역사-비교언어학』, 서울: 민음사.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이기갑(1981) 「씨끝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어학연구』 17(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27-236.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채 완(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95-107.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 15세기 형태론 -』, 서울: 샘문화사.

허 웅(1989) 『16세기 우리 옛 말본』, 서울: 샘문화사.

허 웅(1991) 『15·16세기 우리 말본의 역사』, 서울: 탑출판사.

홍윤표(1994) 『근대국어 연구 1』, 서울: 태학사.

『몽어류해』를 통한 18세기 조선어와 몽골어의 관계 고찰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and Mongolian Language in 18th Century through Mongoyuha

金光洙[1]
延边大学

1. 들어가기

『몽어류해』는 중국어 · 조선어 · 몽골어 어휘집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1790년(정조14)에 보권이 첨가되여 중간된 것이다. 이는 분류 대역 어휘집으로서 한어 또는 한자어를 표제어로, 이를 같은 천문, 시령 등 의미 항목에 속해있는 것끼리 모은 다음, 각각의 표제어에 대해 조선어 대역어와 몽골어의 단어를 대비해놓은 체재로 되여있다. 수록된 단어들은 일정한 의미 기준인 부류에 따라 분류되여 있는데 부류 자체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류들은 린접한 부류들과도 또한 의미의 류사성을 찾아낼 수 있다. 조선말 대역어들이 나타나는 양상은 보면 각각 고유어로 대역된 것, 표제어와 동일한 한자어로

1 Guang Zhu Jin (Professor, College of korean studies, Yanbian University)
E-mail : kuangsu2820@hanmail.net

대역한 것, 표제어와 다른 한자어로 대역한 것, 뜻풀이로 대역한 것 등이고 몽골말 대역어들이 나타나는 양상은 각각 몽골말 고유어로 대역된 것, 표제어와 동일한 한자어로 대역한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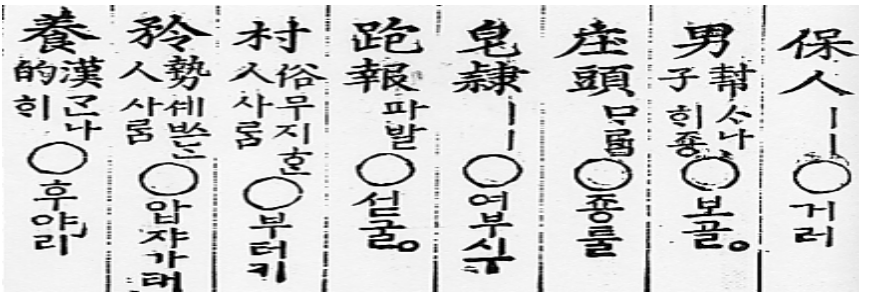
『몽어류해』를 비롯한 사역원에서 간행한 류해류 역학서는 기본적으로 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재로서 편찬되였지만 이들 문헌에 수록되여있는 단어들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어휘들의 전체 목록은 아닐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단어라고 인식된 것들이였을 것이다. 『몽어류해』 상·하권이 2권 2책, 보권이 1권 1책으로 수록된 표제어의 수는 54개의 부류에 상·하권 3,842개, 보권 1,475개로서 총 5,317개이다.

본고는『몽어류해』의 중국어에 대한 조선어, 몽골어 대역어(천문, 시령, 지리, 인륜, 인품, 신체, 용모, 기식, 성정, 언어, 동정, 인사, 궁실, 관직) 등 14개 항목, 1,112개 표제어를 중심으로 표기와 음운, 문법적 형태, 단어조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근대시기 조선어와 몽골어의 서로 같거나 다른 언어적 특성을 고찰 한다.

2. 표기와 음운

표기와 음운특성에서는 주로 정음자 표기와 보충기호, 한자음, 모음조화 등 현상들을 고찰한다. 단어는 어음을 통하여 표기되는바 우리말은 시기마다 그 표기가 서로 달리 나타난다. 정음창제 이전시기 우리말 표기는 주로 한자의 음과 뜻을 통해 표기되였다면 그 후 시기에는 정음자로만 표기된 것 또는 정음자와 한자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대조선어에는 정음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몽어류해』표제어는 한어(漢語) 즉 한자로 표기되고 그 밑에 조선어 대역이 정음 및 한자로 적혀있으며 권점 아래에 해당 몽골어를 조선글로 적어놓았다.

[보기1]



2.1. 정음자 표기와 부호의 사용

『몽어류해』에서 조선어 어휘는 정음자 혹은 한자로 표기하고 몽골어 어휘는 정음자로 표기하면서 일부 경우는 다른 부호까지 보충하여 사용하였다. 『몽어류해』정음자 표기에 나타난 조선어와 몽골어의 전체 음소수는 (5758/9464[2]), 음소 종류수는 (53/51)이다. 여기에서 초성에서 초성 음소수 (2485/4183), 초성 종류수 (21/14)이다. 초성표기에서 두 언어에 같게 쓰인 초성자모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등 14자모이고 조선어에만 쓰인 초성자는 합용병서 “ㅄ, ㅄ, ㅅㄱ, ㅆ, ㅆㅂ, ㅆ, ㅆ” 7개이다. 이로 보아 조선어에는 된소리가 있고 몽골어에는 된소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성에서 중성 음소수 (2485/4209), 중성 종류수 (20/29)이다. 중성표기에서 두 언어에 같게 쓰인 중성자모는 “ㅏ, ㅐ, ㅑ, ㅓ, ㅔ, ㅕ, ㅖ, ㅗ, ㅘ, ㅚ, ㅛ, ㅜ, ㅝ, ㅟ, ㅠ, ㅡ, ㅣ” 17개이고 조선어에서만 쓰인 중성은 “ㅢ, ㆍ, ㆍㅣ” 3개, 몽골어에만 쓰인 중성자는 “ㅒ, ㅙ, ㅞ, ㅘ, ㅙ, ㅘ, ㅘ, ㅜ, ㅠ, ㅠ, ㅜ, ㅜ” 12개이다. 이로 보아 조선어에는 모음 ‘ㆍ[ʌ]’가 몽골어에 비해 더 있었고 몽골어에는 조선어보다 겹모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의 앞의 수치가 조선어, 뒤의 수치가 몽골어임, 아래도 마찬가지임.

종성에서 종성 음소수는 (788/1072), 종성 종류수(12/ 8)[3]이다. 종성 표기에서 같게 쓰인 종성자모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개이고 조선어에만 쓰인 종성 “ㅋ, ㄺ, ㄻ, ㅭ” 4개이다. 이로 보아 조선어와 몽골어는 근대시기 8종성을 보류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몽골어 발음을 표기할 때 ‘ㄹ’의 표기가 나타나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 따라 서로 달리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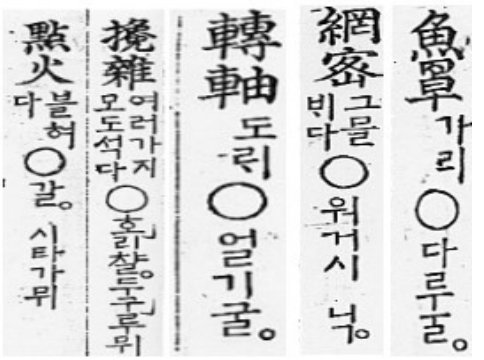
2.1.1. ㄴ:

蒼蠅(프리/ 이라ㄴ가), 蜻蜓子(준자리/ 워루머 후라ㄴ개치), 明白了(명빅히 ᄒᆞ다/ 토돌해라ㄴ뮈), 顯然(顯然/ 이럴ㄴ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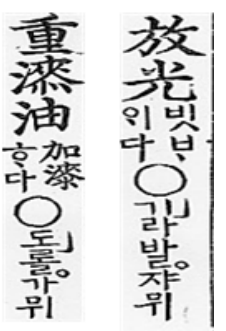
2.1.2. ㅇ:

遮蔽(ᄀᆞ리오다/ 할。하라ㄴ뮈), 掛着(거다/ 얼。구뮈), 脱卸(버서지다/ 알。다라뮈), 双生子(双生子/ 이커러컨一云어부쳘。 ᄀᆞᆫ컨), 口饞(입 ᄃᆞ다/ 아마 쟐。기닥), 磨麵(ᄀᆞᄅᆞ 민드다/ 탈。하라ㄴ뮈) 등

3 수치는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 프로그램(SynKDP)를 리용하여 얻었음.



이와 같이 몽고어에서의 'ㄹ'의 표기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나는데 서로 다른 어음환경에서 즉 조선어 발음과 같을 때 'ㄹ', 모음 사이에서의 'ㄹㄹ', 받침의 발음은 'ㄹ。'로 서로 다른 발음적 특징을 설명해준다.



모음의 표기에서도 '◦, ˋ, ㅿ' 등 부호가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몽어류해』의 편찬자들의 몽고어 어음 표기에 과학성과 정밀성을 추구하였음을 말해준다. 모음 'ㅜ'도 '우', '우◦', '우ˋ' 등 세가지 표기가 나타난다.

2.1.3. ◦:

衫児(젹삼/ 울◦투 챰챠), 吐哺(비얏다/ 불◦。구뮈), 水滲(믈 스믜다/

우◦수 시먼버), 縱(셰/ 굴◦。두), 双親(双親/ 터굿 우◦룩), 脊髓(등ㅅ골/ 누◦구수), 臉黃(ᄂᆞᆺ 누르다/ 니굴◦ 사라라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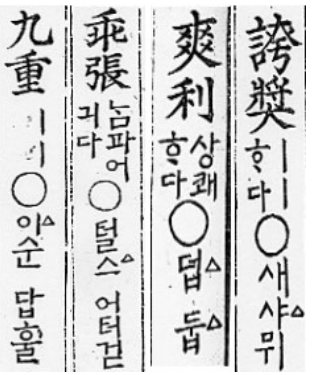
2.1.4. ` :

補子(흉ᄇᆡ/ 푸`스), 不識(아지 못게라/ 후`루ㄴ베), 預度(預度ᄒᆞ다/투`수뒤), 全備(全備ᄒᆞ다/부`리두뒤), 正面(正面/툽`), 外結喉(넘쥬쌔/ 투`분), 腹大(ᄇᆡ부룩ᄒᆞ다/ 커비리ㄴ 툰`투굴), 弱小(주울드다/ 무`칠。)

2.1.5. △ :

'△'의 표기가 모음 'ㅏ, ㅜ, ㅣ, ㅐ, ㅡ, ㅓ'뒤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조선말 모음과 다른 음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 준다.

匱隔 (간막이/ 타샤△랍ㄴ치), 隔斷(간막다/ 타샤△라ㄴ뒤), 冬菇(동화/ 둥`△ 과), 執繆人(우기ᄂᆞᆫ 이/ 무시△캬치), 王妃(王妃/ 왕페△), 世子(世子/ 시즈△), 誇獎(誇獎ᄒᆞ다/ 새샤△뒤), 爽利(상쾌ᄒᆞ다/ 덥△ 둡△) 등



2.1.6. △。,ㄱ。: 부호를 연속 두번 씀

可矜 (불샹ᄒᆞ다/ 워루셜△。테), 可疑(의심젓다/ 서직럴ㄱ。테취굴`수모도)등 표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몽골어와 조선어가 어음체계에서 초성, 중성, 종성에서 같게 쓰이는 어음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어음체계가 존재한다는 점, 몽골어는 조선어와 달리 설음(류음) ‘ㄹ[r/l]’이나 모음 ‘ㅜ[u]’, ‘ㅑ[ja]’, ‘ㅜ[u]’, ‘ㅣ[i]’, ‘ㅖ[əi]’, ‘ㅡ[ɨ]’, ‘ㅓ[ə]’와 같은 음들이 더 세분화 되여있었음을 말해준다.

2.2. 한자음표기

한자어는 고유어휘를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오래 동안 중국과 접촉하는 과정에 어휘구성 속에 한자어라는 하나의 어휘부류를 가지게 되였다. 한자음은 한자어를 발음할 때 나는 소리를 말한다. 한자음은 각 나라마다 중국음 그대로 발음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발음법칙에 맞게 서로 달리 받아들였다. 즉 고대중국음이나 웥남음에서《kiəl[결]》로 되는《結》을 조선음으로는 《결[kiəl]》, 일본음으로는 《게쭈[ketsu]》또는 《게찌[ketsi]》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그 나라 어음체계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김영황 2009: 59). 이

와 같이 한자는 매개 나라에서 그 나라 음운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한자음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몽어류해』를 통하여 18세기 조선어한자음과 몽골어한자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일부 단어를 통해 분석해본다.

2.2.1. 조선어한자음 ㄱ:(ㄱ→ㄱ/ㄱ→ㅈ)

閣老(閣老/ 거란˩[kər˩ao]), 柑子(柑子/ 간ㅿ즈[kanㅿts ɨ]), 公主(公主/ 우ㅇ룻˩ ᄀᆞᆫ 궁쥬[uᴼr˩us˥ ungu ᄀ uʧju]), 覚羅(ᄃᆡ진ᄒᆞᆫ 종실[tʌitsinhʌn tso ᄀ ʃil]/교로[kjoro]), 打更(경뎜 치다[kjə ᄀ djəm ʧ ʻida]/징 쵸키바[ʧi ᄀ ʧ ʻjok ʻiba]), 更(경[kjə ᄀ]/징[ʧi ᄀ]), 二更(二更/ [igjə ᄀ]/호야두갈 징[hojadugal ʧi ᄀ]), 将軍(将軍/쟝쥰[ʧja ᄀ ʧjun])

자음은 조선어한자음‘ㄱ[k]’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ㄱ[k]’와 ‘ㅈ[ʧ]’로 나타나는데 이는 몽골어 한자음에서 뒤자음 ‘ㄱ[k]’가 ‘ㅣ[i] ’혹은 반모음 ‘ㅣ[j]’의 앞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음도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ㅗ[o]’가 ‘ㅜ[u]’ 혹은 ‘ㅗᆫ[ao]’, ‘ㅏ[ə]’가 ‘ㅡ[ɨ] ’, ‘ㅗ[o] ’, ‘ㅛ[jo]’, ‘ㅜ[u]’가 ‘ㅠ[ju]’, ‘ㅕ[jə]’가 ‘ㅣ[i]’로 대응되고 조선어 한자음에서의 입성운미 ‘閣(ㄱ[k])’가 몽골어한자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2.2. 조선어한자음 ㄴ:(ㄴ→ㄹ)

老爺(老爺/ 노얀[nojan]), 老米(老米 ᄊᆞᆯ[romi s’ʌl]/로오미 아무[roomi amu])

자음은 조선어한자음‘ㄴ[n]’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ㄴ[n]’, ‘ㄹ[r]’로 나타나고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ㅗ[o]’가 ‘ㅗ[oo]’로, ‘ㅑ[ja]’가 ‘ㅑㄴ[jan]’으로 대응되고 있다.

2.2.3. 조선어한자음 ㄷ:(ㄷ→ㄷ/ㄷ→ㅌ)

冬苽(동화[to ŋ hwa]/둥ˋ ㅿ 과[gu ŋ ˋ ㅿgwa]), 煙俿(담빙ㅅ대[tambʌis t′ ai]/다마가 대[tagama tai]), 斗子(말[mal] /덛[təi]), 頭更(초경[ts ′ogjə ŋ]/ 터리군 징[t ′ərigun ʧi ŋ]), 茼蒿菜 (믈빡[mɨls'uk¬]/ 퉁호[t ′hoo]), 提督(提督[tjədok ㄱ]/티두[t ′idu])

자음은 조선어한자음 ‘ㄷ[t]’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ㄷ[t]’와 ‘ㅌ[t ′]’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자음을 받아들일 때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 모음에서도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ㅗ[o]’가 ‘ㅜ[u]’, ‘ㅜ[u]’가 ‘ㅢ[əi]’, ‘ㅕ[jə]’가 ‘ㅣ[i]’, ‘ㅗ[o]’가 ‘ㅛ[oo]’로 나타난다.

2.2.4. 조선어한자음 ㄹ:(ㄹ→ㄹ)

涼穀米(쳥량미[ts ′rja ŋ mi]/ 량구ˋ 호녹 아무[rja ŋ guˋ ho nok¬ amu])

자음은 조선어한자음 ‘ㄹ[r]’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ㄹ[r]’로만 나타나고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穀(ㅗㄱ[ok ㄱ])’이 ‘ㅜ[u]’로 나타난다. 한자음의 입성운미가가 무시되였음을 알 수 있다.

2.2.5. 조선어한자음 ㅁ:(ㅁ→ㅁ)

說滿州話(清語ᄒᆞ다/만쥬왈 커럴ᄂᆡ。쳐뮈[manʧiuual k ′ə rə lᄂᆡ。ʧ ′iəmui]), 說蒙古話(蒙語ᄒᆞ다/ 몽고ᄂᆡ롤 커럴ᄂᆡ。쳐뮈[mo ŋ gorolk ′ərə lᄂᆡ。ʧ ′iəmui])

여기 자음과 모음에서는 차이가 없음이 보인다.

2.2.6. 조선어한자음 ㅂ:(ㅂ→ㅍ)

王妃(王妃[uaᅙbi]/왕페ㅿ[oangpʻəiㅿ]), 棚子(가가/펑[pʻəᅙ])

자음은 조선어한자음 'ㅂ[p]'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ㅍ[pʻ]'로 나타나고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ㅣ[i]'가 'ㅔ[əi]'로 나타난다.

2.2.7. 조선어한자음 ㅅ:(ㅅ→ㅅ/ㅅ→ㅊ)

生菜(싱치[sʌiᅙtsʻʌi]/ 성ㅿ세[səᅙsəi]), 序班(序班[səba n]/쉬반[ʃjuiban]), 世子(世子/ 시즈ㅿ[ʃi tsiㅿ]), 元師(元帥/완쉐[juanʃjuai]), 丞相(丞相/ 청향[ʧʻjəᅙhjaᅙ])

자음은 조선어한자음 'ㅅ[s]'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ㅅ[ʃ]'또는 'ㅊ[tsʻ]'로도 나타나고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ㅏ[a]'가 'ㅡ[ɨ]', 'ㅡ[ɨ]'가 'ㅑ[jə]', 'ㅠ[ju]'가 'ㅞ[juai]', 'ㅝ[uə]'가 'ㅘ[jua]', 'ㆍㅣ[ʌi]'가 'ㅓ[ə]' 혹은 'ㅔ[əi]', 'ㅓ[ə]'가 'ㅟ[jui]', 'ㅔ[əi]'가 'ㅣ[i]', 로 나타난다.

2.2.8. 조선어한자음 ㅇ:

桜桃(桜桃/잉톨[iᅙtʻool]),蜈蚣(진에[tsinəi]/우궁[uguᅙ]), 梧桐(梧桐나모[odonᅙnamo]/ 우퉁ㅇ 모도[utʻuㅇᅙ modo]), 王(王[uaᅙ]/왕[oang]), 元師(元師/완쉐[juanʃjuai]), 山薬(마[ma]/ 샨요[sjanjo])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ㅗ[o]'가 'ㅗ[oo]', 'ㅜ[u]', 'ㅝ[uə]'가 'ㅘ[iua]'로, 'ㅏ[a]'가 'ㅑ[ja]'로 '薬(ㅑㄱ[jakㄱ])'가 'ㅛ[jo]'로 나타나고, 입성음 운미 ㄱ 가 탈락되였는 바 이는 몽골어 한자음이 운모를 받아들일 때 조선어한자음과는 달리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2.2.9. 조선어한자음 ㅈ:(ㅈ→ㅈ)

醬(醬[ʧjaㄱ]/쟝△[ʧjaㄱ△]), 將軍(將軍/쟝쥰[ʧjaㄱʧjun]), 宰相(宰相/[tsa isaㄱ]/재샹[tsai˩jaㄱ]), 節鉞(節鉞/ 졔△웨[ʧjəi△juəi]), 知縣(원/지햔[ʧihjan]), 淸醬(ᄀᆞᆫ쟝[kʌnʧjaㄱ]/ 퉁가락˩ 쟝△[t ʻuㄱgar˩ak¬ʧjaㄱ△])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ㅜ[u]'가 'ㅠ[ju]', 'ㅕ[jə]'가 'ㅑ[ja]'로 나타난다.

2.2.10. 조선어한자음 ㅊ: (ㅊ→ㅅ)

生菜(싱치[sʌiㄱts ʻʌi]/ 성△세[səㄱ△səi])

자음은 조선어한자음 'ㅊ[ts ʻ]'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ㅅ[˩]'로 나타났다.

2.2.11. 조선어한자음 ㅌ:(ㅌ→ㅌ)

太監(고쟈/ 태간)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ㅏㅁ[am]'이 'ㅏㄴ[an]'으로 나타나는 바 조선어한자음이 양성운미 [m]를 오래 보존함을 알 수 있다.

2.2.12. 조선어한자음 ㅍ:(ㅍ→ㅂ)

貝勒(貝勒/ 베`러˩[pəi`r˩ə]), 貝子(貝子/ 베스[bəisɨ])

자음은 조선어한자음 'ㅍ[pʻ]'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ㅂ[b]'로 나타나

고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ㅐ[ai]’가 ‘ㅔ[əi]’, ‘勒(ㅡㄱ[ɨk ㄱ])’이 ‘ㅓ[ə]’, ‘ㅏ[a]’가 ‘ㅡ[ɨ]’로 대응된다.

2.2.13. 조선어한자음 ㅎ:(ㅎ→ㅎ/ㅎ→ㄱ)

海棠花(海棠花[haidaᄀhwa]/ 해당 치칙[haidaᄀ ts ‘its ‘ik ㄱ]), 黃瓜(외[oi]/황과[hwanᄀgwa]), 皇帝(皇帝[huaᄀtjəi]/황디[hoaᄀdi]), 皇太子(皇太子[huaᄀt ‘aitsa]/황태즈ㅿ[hoaᄀt ‘aitsɨ]), 皇后(皇后[huaᄀhu]/황후ㅿ[hoaᄀhɨuㅿ]), 冬瓜(동화[t oᄀhwa]/둥`ㅿ 과[guᄀ`ㅿgwa])

자음은 조선어한자음 ‘ㅎ[h]’는 몽골어한자음에서 ‘ㅎ[h]’ 또는 ‘ㄱ[k]’로도 나타나고 모음은 조선한자음이 몽골한자음에서 ‘ㅖ[jə]’가 ‘ㅣ[i]’, ‘ㅏ[a]’가 ‘ㅡ[ɨ]’, ‘ㅜ[u]’가 ‘ㅠ[ɨu]’로 대응된다.

우의 례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음(초성)에서 “ㄱ→ㅈ, ㄷ→ㅌ, ㅂ→ㅍ, ㅅ→ㅊ, ㅊ→ㅅ, ㅍ→ㅂ, ㅎ→ㄱ”처럼 같은 발음부위의 순한소리와 거센소리 차이가 나며, 어음의 변화영향 즉 뒤자음의 구개음화 현상 그리고 발음부위의 근접성과 관계된다.

모음(중성)에서 조선어한자음이 몽골어한자음에서 ‘ㅏ[a]’가 ‘ㅡ[ɨ]’, ‘ㅗ[o]’, ‘ㅑ[ja]’, ‘ㅛ[jo]’로, ‘ㅑ[ja]’가 ‘ㅑㄴ[jan]’로, ‘ㅓ[ə]’가 ‘ㅟ[jui]’로, ‘ㅖ[jə]’가 ‘ㅣ[i]’, ‘ㅑ[ja]’로, ‘ㅗ[o]’가 ‘ㅜ[u]’, ‘ㅗ[oo]’, ‘ㅛ[ao]’로, ‘ㅜ[u]’가 ‘ㅠ[ju] ’, ‘ㅢ[əɨ] ’, ‘ㅠ[ɨu]’로, ‘ㅠ[ju]’가 ‘ㅞ[juai]’로,‘ㅡ[ɨ]’가 ‘ㅖ[jə]’로, ‘ㅣ[i]’가 ‘ㅔ[əi]’로, ‘·ㅣ[ʌi]’가 ‘ㅓ[ə]’, ‘ㅔ[əi]’로, ‘ㅐ[ai]’가 ‘ㅔ[əi]’로, ‘ㅔ[əi]’가 ‘ㅣ[i]’로 ‘ㅝ[uə]’가 ‘ㅘ[jua]’로 대응된다. 받침(종성)에서도 조선어한자음이 몽골어한자음에서 ‘ㅗㄱ[ok ㄱ]’가 ‘ㅜ[u]’로, ‘ㅑㄱ[jak ㄱ]’가 ‘ㅛ[jo]’로, ‘ㅡㄱ[ɨk ㄱ]’이 ‘ㅓ[ə]’로 나타나는데 몽골어 한자음에는 입성자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양성운미 ‘ ㅏㅁ[am]’이 ‘ ㅏㄴ[an]’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조선과 몽골은 모두 한자어를 받아들여 자기 민족의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였지만 그것을 자기의 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랐다. 하여 같은 음으로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서로 다른 음으로 받아드렸음을 말해준다.

2.3. 모음조화 현상

한 단어의 형태부 안에서나 일정한 형태부들 사이에서 성질이 같거나 비슷한 모음들끼리 배렬되여 조화되는 현상 즉 소리닮기 현상의 하나를 모음조화(母音調和)라 한다. 모음이 조음될 때의 높낮이에 따르는 조화의 류형과 혀의 앞뒤에 따르는 조화의 류형과 입술의 모양에 따르는 조화의 류형들이 있다.

우리 말에서는 력사적으로 혀의 높낮이에 따르는 류형의 모음조화가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모음인 밝은 모음 'ㅏ[a]', 'ㅗ[o]', 이미 없어진 'ㆍ[ʌ]'와 상대적으로 높은 모음인 어두운 모음 'ㅓ[ə]', 'ㅜ[u]', 'ㅡ[ɨ]'가 서로 대립되는 계렬을 이루어 끼리끼리 배렬되며 두 계렬이 다 중성모음인 'ㅣ[i]'와는 제한 없이 함께 배렬되였다.

『몽어류해』를 통하여 18세기 조선어어휘와 몽골어어휘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례를 들면:

雲(구룸[kurum]/어구러ㄴ[əgurㄴ ə]), 霞(노올[nool]/ 우래ㄴ산 어구러ㄴ[urㄴ aisan əgurㄴ ə]), 電(번게[pəngəi]/챠킬。간 [ʧ ʻjakʻil。Kan]), 氷雹(무뤼[murui]/문`둘[mu`ndul]), 今日(오ᄂᆞᆯ[onʌl]/어너둘[ənədul]), 早晨(아ᄎᆞᆷ[atsʻʌm]/월루ㄴ거[uəlrㄴugə]), 晩上(져녁[ʧjənəkㄱ]/우더시[udəsi]), 暖和(ᄃᆞᄉᆞᄒᆞ다[tʌsʌhʌda]/하론ㄴㄴ한[harㄴoohan]), 江(江[ㄱㄹㅁ-karʌmㅇ]/무런[murən]), 海(바다[pada]/다래ㄴ[tarㄴ ai]), 津頭(ᄂᆞᄅᆞ[nʌrʌ]/오롬ㄴ[orㄴom]), 兄弟(아ᄋᆞ[aʌ]/더쿠[təgu u]), 児子(아ᄃᆞᆯ[adʌl]/

컨컨[k ʻəok ʻən]), 人(사ᄅᆞᆷ[sarʌm]/쿠문一云쿤[k ʻumun一云k ʻun]), 漢子(사나ᄒᆡ[sanahʌi]/ 어러[ərə])

상술한 실례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8세기에도 조선어와 몽골어에서 많은 어휘들이 아직도 모음조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음조화 현상을 몽골어 친족어에서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3.1. 祖父-어부거[əbugə]/(祖母-어머거[əməgə]:

始祖　始祖툴。굴。어부거t ʻul。gul。 əbugə
高祖父　高祖父후룬ㄴ쳐 어부거hurㄴ unʧ ʻiə əbugə
高祖母　高祖母후룬ㄴ쳐 어머거hrunㄴ ʧ ʻiə əməgə
曾祖父　曾祖父어룬ㄴ쳐 어부거ərunㄴ ʧ ʻiə əbugə
曾祖母　曾祖母어룬ㄴ쳐 어머거ərunㄴ ʧ ʻiə əməgə

2.3.2. 父親-어치거[əʧʻigə]/母親어커-[əkʻə]

父親　父親어치거əʧ ʻigə
母親　母親어커一云어지ək ʻə一云əʧi
継母継母다라가 어커 taraga ək ʻə
養父　養父터지걱선 어처거 t ʻəʧigək⌒sən əʧ ʻik ʻə

2.3.3. 伯父-[이△커 아바가[i△kʻə abaga]:

伯父　ᄆᆞᆫ아ᄌᆞ비이△커 아바가[i△k ʻə abaga]
伯母　ᄆᆞᆫ아ᄌᆞ미이△커 아바가 벌건[i△k ʻə abaga pəlgən]
叔父　아ᄌᆞ비　　바가 아바가[paga abaga]
叔母　아ᄌᆞ미　　바가 아바가 벌건[paga abaga pəlgən]

姑母　姑母　　아바가 어거치[abaga əgəʧʻi]
姑夫　姑母夫　　아바가 쿨컨 아하[abaka kʻulkʻən aha]

2.4. 모음의 련속된 발음

『몽어류해』 조선어와 다르게 몽골어는 모음의 련속적인 발음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2.4.1. 같은 모음:

過樑(듥보-태부[tʻaibuu]), 心窩(명치-아요리ㄱ해[ajoorㄱih ai]), 大季(冬至使-이ㅿ커 우라ㄱ릴。ㄱ 촌햔[iㅿkʻə urㄱaril。un ʧʻjoohjan]), 鰻夫(鰻夫-고니[gooni]), 醜(더럽다-모해[moohai]), 没了麼(업ᄂᆞ냐-우게ㅜㅜ[ugəj uu]), 閏月(閏月-이러ㄱ쿠 사라[irəkuu sara]), 兄弟(아ᄋᆞ-더쿠[təguu])

2.4.2. 다른 모음:

昏迷(어득ᄒᆞ다-얼기ㅜ[əlgju]), 皂隷(皂隷-여부싀[jəbuʃju]), 瓦窑(벽굼ᄂᆞᆫ굴-요[joo]), 背陰処(음달-컈시[kʻəosi]), 児子(아ᄃᆞᆯ-컈컨[kʻəkʻən]), 有麼(잇ᄂᆞ냐-배뇨[painao])

몽골어에 대한 모음의 련속된 발음표기는 우선 근대조선어시기 몽골어에는 조선어보다 장모음이 있었고 겹모음에서 조선어와 다른 류형 'ᄀᆞ[iu]', 'ᄭᅩ[ioo]]', 'ᄂᆞ[ao]', 'ᄀᆞ [əo]'와 같은 겹모음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3. 문법적 형태

문법적 형태라고 하면 단어(서로 같거나 다른 품사)들 사이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나는 일종 형식형태소를 말한다. 조선어를 말하면 형태가 붙는 품사의 성격에 따라 체언형태와 용언형태로 나누고 위치적 성격에 따라 위치적 형태와 비위치적 형태로 나눈다.『몽어류해』는 중국어에 대응되는 조선어와 몽골어 단어 혹은 단어결합으로 된 어휘집이기에 단어결합에서 결합관계가 문법적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아래 단어들과의 문법적 관계를 찾아본다.

3.1. 주격

주격은 조선어나 몽골어 모두가 절대격(령격)형태로 나타난다.

日出(히 나다[hʌi nada]-나란 갈바[naran kal ba]), 虹現(무지게 셔다[muʃigəi ʃjəda]-소롱ㅣ가 타타바[sorㅣ oŋga t'a t'aba]), 下露水(이슬 오다[isɨl oda]-시구더리 바구바[sigudəri paguba]), 刮風(ᄇᆞ람 부다[pʌram puda])-살。킨 살。키라ㅣ뮈[sal。k'in sal。k'irㅣamui])

3.2. 소속격

체언과 체언의 규정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인 소속형태가 보인다. 조선어는 주로 절대격(령격), 혹은 사이 '-ㅅ-'가 나타나고 몽골어는 "-연-, -ㅜ-/-ㅜㄴ-" 등 형태가 나타난다.

-연-:

3.2.1. 天道(하ᄂᆞᆯ[hanʌl]-텅거리[t'əŋgəri)]

天涯(하ᄂᆞᆯᄭᅡ [hanʌl s k'ʌ]-텅거리 연 홀뫼[t'ə ŋ gəri jən holmoi])/ 天河(은하슈[ɨnha ʃ ju]- 텅거리 연 오요달 。[t'ə ŋ gəri jən ojotal。]), 上弦 (첫 조곰[ts ʻəs ㄱ tsogom]-더거두 연 하갓[təgədu jən hagas]), 後年(後年[hunjən]-회투 연 회투 질 。[hoit ʻu ijən hoit ʻu ʧil。]

조선어: -ㅅ- , 몽골어: -ㅜ-/-, -ᄀᆞᆫ-:

3.2.2. 山(山[san]-아구라ㄴ[agurㄴ a])

山崗(뫼ㅅ부리[moispuri]-아구란ㄴ ㅜ 시나가[agurㄴ an u sinaga])/ 山坡(뫼ㅅ비탈[moispit ʻal]-아구란ㄴ ㅜ 쿠툴。[agurㄴ an u k ʻut ʻul 。])

3.2.3. 手(손[son]-갈[kal])

手背(손등[sondi ŋ]-갈 ᄀᆞᆫ 아루[kal un aru])/ 手掌(손ㅅ바당[sonsㄱ pada ŋ]-갈 ᄀᆞᆫ 아라ㄴ가[kal un araga])/ 手紋(손ㅅ금[sonsㄱki ŋ]-갈 ᄀᆞᆫ 알[kal un al])

3.3.4. 脚(발[pal]-쿨。[k'ul])

脚背(발ㅅ등[palsㄱti ŋ]-쿨。ᄀᆞᆫ 월메 [k ʻul un uəlməi])/ 脚心(발ㅅ바당[palsㄱpada ŋ]-쿨。ᄀᆞᆫ 우라[k ʻul un ura])

3.3. 종결형태:

3.3.1. 용언의 원형

조선어: -다[ta], 몽골어: -뮈[mui]; -라뮈[ramui]/ -러뮈[rəmui]; -루

뮈[rumui]/-로뮈[romui]; -더뮈[təmui]/-투미[t ʻumui]:

① -뮈[mui]:

認得(사ᄅᆞᆷ아다[sarʌmata]/타니뮈[t ʻanimui]), 忘了(닛다[nis⌒ta]/말타뮈[malt ʻamui]), 覚得(ᄭᅵᄃᆞᆺ다[sk ʻʌidʌs⌒ta]/서러뮈[sərəmui]), 心悶(민망ᄒᆞ다[minma ŋ hʌda]/위두뮈[uidumui])

② -라뮈[ramui]:

行諂佞(아당ᄒᆞ다[ada ŋ hʌta]/빌。ᄯᅡᆫ치라뮈[pil。daoʧ ʻiramui])

讒(ᄎᆞᆷ소[ts ʻʌmso]/ 홉치[hob⌒ʧ ʻi]), 行讒(ᄎᆞᆷ소ᄒᆞ다[ts ʻʌms o hʌta]/ 홉라ᄂᆡ뮈[hob⌒r ᄂᆡamui]), 怒([셩ᄀᆞiə ŋ]/키렁[k ʻirᄂᆡI ŋ]),

③ -러뮈[rəmui]:

惱了(셩내다[ᄀᆞiə ŋ naita]/키렁ᄂᆡ러뮈[k ʻirᄂᆡi ŋ rəmui]), 水決了(믈터지다[mɨl t ʻəʧita]/우ㅇ수서터러뮈[uㅇsu sət ʻərəmui]),

④ -루뮈[rumui]:

化了(녹다[nok⌒da]/ 해루ᄂᆡ뮈[hairᄂᆡumui])/下雹子(무뤼 오다[murui oda)-문ˋ둘 오로뮈[muˋndul oromui])

⑤ -더뮈[mui]:

磨児(돌매[tolmai]/ 터걸머[t ʻəgəlmə]), 磨一磨(매ᄀᆞ다[maigʌta]/터걸머더뮈[t ʻəgəlmədəmui])/箒子(뷔[pui]/시굴[ᄀᆞigul]), 掃子(쓰다[sʼɨt a]/시굴더뮈[ᄀᆞigult əmui])

⑥ -투미[t ʻumui]:

氷(어름[ərɨm]/뭐수[muəsu]), 氷凍(어름어다[ərɨməta]/뭐수투뮈[muəsu t ʻumui])

3.3.2. 의문형태(원형과 의문형)

조선어와 몽골어의 의문 형태를 비교해 보면 조선어에는 어간에 문법적 형태 '-ᄂᆞ냐'가 붙고 몽골어는 보통 용언의 기본형에 모음으로 끝난다.

有啊(잇다[js⌒ta]-아뮈[amui]/ 有麼(잇ᄂᆞ냐[is⌒nʌnja]-배ᄂᆞᆫ[painao]

没有(업다[əp⌒ta]-우게[ugəi]/ 没了麼(업ᄂᆞ냐[əp⌒nʌnj a]-우게ㅜㅜ[ugəjuu]

好麼(평안ᄒᆞ냐[p ‘jəㅋanhʌnja]-샌ㅜ[sainu]

3.3.3. 명령형태(원형과 명령형):

조선어와 몽골어의 명령 형태를 비교해보면 조선어에는 어간에 문법적 형태 ‘-라’가 붙고 몽골어는 용언의 기본형에서 “-뮈[mui]”만 떼여버린다.

조선어: -라[ra]
몽골어: -뮈[mui](-어뮈의 생략)
站着(셔다[ʃjəta]-죡소뮈ㅇ又머무다[ʧjok⌒somui]/起罷(셔라[ʃjəra]-죡소[ʧjok⌒so])
坐(안짜[anst’a]-사구뮈[sagumui])/ 坐着(안즈라[antsɨra] -사구[sagu])
走了(가다[kata]-어치뮈一云오두뮈[əʃ ‘imui一云odumui])/去罷(가라[kara]-어치一云옫[əʃ ‘i一云ot⌒])
來了[오다[ota]-이러뮈[irəmui])/ 來罷(오라[ora]-이러[ir ə])

3.4. 단어결합적 형태

중국어 단어가 조선어 혹은 몽골어에서 단어결합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단어결합에는 “주술적 결합, 보충적 결합, 수식적 결합, 규정적 결합, 부정적 결합”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문법적 형태와 어순의 특징이 나타난다.

3.4.1 주술적 결합:

日出(히 나다[hʌi nada]-나란 갈바[naran kal ba])/日矬(히 기우다[hʌi kiuda]-나란 타시바[naran t ʻsiba])

風住(ᄇᆞ람머즉ᄒᆞ다[pʌrammətsɨk⌒hʌda]-살。킨토호로바[sal。k ʻin t ʻohoroba])/

風息(ᄇᆞ람 자다[pʌram tsada]-살。킨 배바[salk ʻin paiba])

虹現(무지게 셔다[muʧigəi ʃ jəda]-소롱ㅣ가 타타바[sorㅣ oㆁga tʻa tʻaba])/ 虹消(무지게 스다[muʧigəi s ɨda]-소롱ㅣ가 살니바[sorㅣ oㆁga salniba])

주술적 결합관계는 조선어와 몽골어 그리고 중국어가 문법적 형태도 개입하지 않고 같은 어순으로 결합됨을 알 수 있다.

3.4.2. 보충적 결합:

點頭(마리 그더기다[mari kɨdəgita)-토로ㅣ개 거킬져뮈[t ʻor ㅣogai kək ʻilʧiəmui])/ 低頭(마리 수기다[mari sugit a]-토로ㅣ개 다루뮈[t ʻor ㅣoga darumui])/ 做夢(ᄭᅮᆷ꾸다[sk'umsk'uta]-져구두러ㅣ뮈[ʧjəgudurㅣ əmui])/敬長(어룬공경ᄒᆞ다[ərun koㆁgjəㆁhʌda]-아핫치라ㅣ뮈[ahas⌒ʧ ʻirㅣamui]) /送東西(物件보내다[mulgən ponaita]-쿨거뮈[k ʻulgəmui])

보충적 결합관계는 문법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어순은 조선어와 몽골어가 같고 중국어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와 조선어 그리고 몽골어 어순이 같은 경우도 나타난다.

步走(거름 것다[kərim kəs⌒ta]-알。후뮈(al。humui)/ 遠行(먼 길 가다[mənkil gata]-호라ㅣ치란ㅣ[horㅣaʧ ʻirㅣan]

3.4.3. 수식적 결합:

說話(말ᄒᆞ다[malhʌta]-커ㄴ럴ㅇ쳐뮈[k ʻərəl。ʧ ʻjəmui])/悄悄說(ᄀᆞ만이말ᄒᆞ다[kʌmani malhʌta]-서머걸 커ㄴ럴。쳐뮈[səməgəl k ʻərəl。ʧ ʻjəmui])/ 開了(여다[jəda]-너거뮈[nəgəmui])/ 大開(훤이 여다[huəni jəda]-챠래ㄴ타라ㄴ 너거버[ʧ ʻjar ㄴait ʻarㄴanəgəbə])

笑了(웃다[us⌒ta]-이녀뮈[iniəmui])/冷笑(冷笑ᄒᆞ다[nai ㅱ sohʌta]-퀴턴-열 이녀뮈[k ʻuit ʻən -iəl iniəmui])

顚倒笑(ᄀᆞᆫᄀᆞᆫ웃다[kʌnkʌnusus⌒ta])-타챠다타라ㄴ이녀뮈[t ʻa ʧ ʻiadat ʻarㄴa iniəmui]

수식적 결합은 문법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중국어, 조선어, 몽골어의 어순이 같다. 즉 수식어가 피 수식어의 앞에 온다.

3.4.4. 규정적 결합:

① 地(짜[stʼa]-갸쟐[kjaʧjal])/凸地(두두러진 짜[tudurəʧin stʼ a]-골비가쟐[kolbi gaʧjal])/ 凹地(우묵ᄒᆞᆫ 짜[umuk⌒hʌn stʼ a]-호토골 가쟐[hot ʻgolgaʧjal])

② 天道(하ᄂᆞᆯ[hanʌl]-텅거리[tʻəㅱgəri])/ 蒼天(蒼天[tsʻjaㅱt ʻjən]-쿠커텅거리[kʻukʻətʻəㅱgəri])

③ 雲(구룸[kurum]-어구러ㄴ[əgurㄴ ə])/ 彩雲(彩雲[ts ʻaiu n]-웡거투어구러ㄴ[uəㅱgətʻu əgurㄴ ə])/浮雲(浮雲[puun]-너구무 어구러ㄴ(nəgəmu əgurㄴ ə)

④ 人 (사ᄅᆞᆷ[sarʌm]-쿠문一云쿤[k ʻumun一云k ʻun])/ 聖人(聖人[sjəㅱin] -복다 쿠문[pok⌒ta k ʻumun])/ 相士(샹 보ᄂᆞᆫ 사ᄅᆞᆷ[ʃjaㅱponɐn saɾɐm]-신지치 쿠문[ʃinʧiʧ ʻi k ʻumui])/ 会卦的(졈ᄒᆞᄂᆞᆫ 사ᄅᆞᆷ[ʧjəmhɐ nɐn saɾɐm]-우졀 。거치 쿠문[uʧjəl。gəʧ ʻI k ʻumui])/ 沙石地(사셕만 잇ᄂᆞᆫ 짜[saʃjək⌒man is⌒nʌn stʼa]-어러ㄴ수 치라ㄴ구태 가쟐

[ərㄴəsu ʧ ʻirㄴagu t ʻ ᴱ kadʒjal])

규정적 결합은 중국어, 조선어, 몽골어가 어순이 같다. 즉 규정어가 피 규정어의 앞에 온다.

3.4.5. 부정적 결합:

부정을 나타내는 결합을 보면 한국어는 "-(지) 아니타/-(지) 못•다/-업다"가 용언의 뒤에 쓰인다면 몽골어는 "-우게"가 붙어서 부정법과 부정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어는 부정사가 앞에 붙는다.

①沒有(업다[əp⌒ta]-우게[ugəi]), 沒了麼(업ᄂᆞ냐[əp⌒nʌnj a]-우게ㅜㅜ[ugəjuu])
② 不知道(모로다[morota]-머더쿠 우게[mədək ʻu ugəi])/ 料事不差(일헤아려 그르지 아니타[il hjəiarjə gɨriʧianit ʻa]-언더쿠 우게[əndək ʻu ugəi])/ 不偏邪(편벽지 아니타[p ʻjəbjək⌒ʧianit ʻa]-워리쿠 우게[uəriguu ugəi]
③ 無坐性(진득지 못ᄒᆞ다[ʧindɨk⌒ʧi mos⌒hʌta]-탑툴 우게[t ʻap⌒t ʻul ugəi]/ 無定向(이리토 져리토 못ᄒᆞ다[irit ʻoʧjə rit ʻo mos⌒hʌta]-니시 챠시 우게[niʃiʧ ʻjaʃi ugəi]
④ 無主張(쥬쟝 업다[ʧjuʧjaᄀəp⌒ta]-어졀컥 우게[əʧjəlk ʻək⌒ ugəi])/ 無內囊(안쏭 업다[ansts' oᄀəp⌒ta]-치다부리 우게[ʧ ʻidaburi ugəi])/ 無知識(지식 업다[ʧiʃik⌒əp⌒ta]-우하부리 우게[uhaburi ugəi])
⑤ 知道(아다[ata]-머더뮈一云투수거러뮈[mədəmui一云t ʻu sugərəmui]) / 不知道(모로다[morota]-머더쿠 우게[mədək ʻu ugəi])

4. 단어조성 방법

단어조성방법이란 단어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하는바 민족마다 그 결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어와 몽골어는 모두 합성법과 접사법으로 단어를 이루었다.

4.1. 합성법:

조선어는 명사와 명사가 직접 합성하거나 혹은 사이시옷을 사용하지만 몽골어는 규정형태 'ㅜ[u]'가 들어간다.

① 眼(눈[nun]-니두[nit ʻu])
眼珠(눈+ 망울[nunma ŋ ol]-니둔 쳐쳐게[nidun ʧ ʻjəʧ ʻjəgə i])/ 眼邊(눈+ 시울[nun ʃ iul]-니둔 ㅜ 탈[nidun u t ʻal])/ 眼淚(눈+ 믈[nunmɨl]-니둔 ㅜ 닐。부수[nidun u nil。pusu])
② 耳朶(귀[kui]-치키[ʧ ʻik ʻi])
耳根(귀+ 믿[kuimit⁀]-치킨 ㅜ 이샤굴[ʧ ʻik ʻin u i ʃ jagul])/ 耳輪(귀ㅅ박회[kuis⁀pak⁀hoi]-치킨 ㅜ 쿠버거[ʧ ʻik ʻin u k ʻubəgə])/ 耳孔(귀ㅅ구무[kuis⁀kumu]-치킨 ㅜ 홍길。[ʧ ʻik ʻin u ho ŋ gil。])

4.2. 접미사법:

조선어는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지만 몽골어는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접미사가 붙어 사용한다.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치[ʧ ʻi]
媒人(듕ᄆᆡ[tju ŋ mʌi]-쟈구치[ʧjaguʧ ʻi]/ 跟馬人(구죵[kuʧjo ŋ]-쿠투치[k ʻut ʻuʧ ʻi]), 孫子(孫子[sontsa]-아치[aʧ ʻi])/ 曾孫(曾孫[tsɨ ŋ son]-지치[ʧiʧ ʻi])/ 鄕導官(길 ᄀᆞᄅᆞ치ᄂᆞᆫ 관원[kil kʌrʌʧ ʻinʌn guanuən]-가쟐치[kaʧjalʧ ʻi])

-턴[t ʻən], -테[t ʻəi], -태[t ʻai]:

君子(君子[ku ŋ tsa]-샏 얼덤턴[sait⁀əldəmt ʻən])/ 隱士(隱士[insa]-니국산 얼덤턴[niguk⁀sanəldəmt ʻən])/ 英雄(英雄[jə ŋ ju ŋ]-바가툴이더테[bagat ʻul idət ʻəi])/ 豪傑(豪傑[hogər]-이더테[idət ʻəi])/ 糊塗人(흐린 사ᄅᆞᆷ[hɨrin sarʌm] -뭉학태[mu ŋ hak⁀t ʻai])/ 矜勢人(셰ᄲᅳ는 사ᄅᆞᆷ[ʃ jəips'nʌn sarʌm]-압쟈가태[ap⁀guʃ ʻiga t ʻai])

-쿠문[k ʻumun]:

閑人(閑人[hanin]-수라ᄂᆡ 쿠문[surᄂᆡa k ʻumun])/ 買売人(흥졍ᄒᆞ는 사ᄅᆞᆷ[hi ŋ ʧjə ŋ hʌ nʌn sarʌm]-후달。두가 키쿠 쿠문[hudal。Duga k ʻik ʻu k ʻumun])/ 干証人(증인[tsi ŋ in]-쿤더런ᄂᆡ 쿠문[k ʻundərən k ʻumun])

색갈 형용사에 조선어는 '-스레하다' 몽골어는 '-ㅂ툴'이 붙어서 접미사가 붙어서 색갈의 옅은 정도를 나타내다.

-으스레ᄒᆞ다[irəhʌta]:-ㅂ툴[p⁀t ʻul]

紅(붉다[pulk⁀ta]-우라ᄂᆡ간[urᄂᆡagan]/淡紅(붉으스러ᄒᆞ다[pulgɨsɨrəhʌta]-우랍ᄂᆡ툴[urap⁀t ʻul]), 黃(누루다[nuruta] -시라[ʃ ira])/ 淡黃(누루스러ᄒᆞ다[nurusɨrəhʌta]-시랍툴[ʃ Irap⁀t ʻul]), 白(희다[hɨita]-챠간[ʧ ʻja gan])/淡白(희읍스러ᄒᆞ다[hɨiip⁀sɨrəhʌta]-챠갑툴[ʧ ʻjagap⁀t ʻul], 黑(검다[kəmy a]-하라[hara])/淡黑(검으스러ᄒᆞ다[kəmsɨrəhʌta]-하랍툴[h arap⁀t ʻul]

동사지만 접미사적으로 쓰인 형태도 보인다. 즉 '말ᄒᆞ다' 몽골어의 '커럴ᄂᆡ。쳐뮈[k ʻərəl。ʧ ʻjəmui]'는 접미사적으로 쓰인다.

說話(말ᄒᆞ다[malhʌda]-커ᄂᆡ럴ㅇ쳐뮈[k ʻərəl。ʧ ʻjəmui])

說漢話(漢語ᄒᆞ다[hanəhʌda]-키타달 커럴ᄂᆡ。쳐뮈[k ʻit ʻadal k ʻərə lᄂᆡ

。ʧ ʻjəmui]0
說蒙古話(蒙語ᄒᆞ다[mo ɳ əhʌda]-몽고ᄂᆡ롤커럴ᄂᆡ。쳐뮈[mo ɳ go rolk ʻərəlᄂᆡ。ʧ ʻjəmui])
說滿州話 (清語ᄒᆞ다[ts ʻə ɳ əhʌda]-쥬왈 커럴ᄂᆡ。쳐뮈[manʧ juual k ʻə rə lᄂᆡ。ʧ ʻjəmui])

사동과 피동 접미사:
사동이나 피동은 조선어에서 접미사 "-이-/-히-/-기-"가 붙어 표현되지만 몽골어는 "-다뮈/-더뮈/-구루뮈"가 붙어 사용된다.

搶了(앗다[as⌒ta]-부랴ᄂᆡ뮈[purᄂᆡjamui])/被搶了(아이다[aita]-부랴ᄂᆡ다뮈[purᄂᆡjak⌒tamui])
躐着(ᄂᆞᆷ다[pʌlp⌒ta]-기시ㅿ키뮈[kiʃiㅿkʻimui])/被躐(ᄂᆞᆷ피다[pʌlp⌒p ʻita]-기시ㅿ킈더뮈[kiʃi ㅿk ʻidəmui])
看見(보다[pota]-우져뮈一云실터뮈[uʧjəmui一云ʃilt ʻəmui]) /眼裏瞧(눈에 뵈다[nunəiboita]-우적더뮈[uʧjək⌒dəmui]
搬移(옴다[omta]-덥시뮈[təp⌒ʃi mui])/搬移了(옴기다[omg ita]-덥시구루ᄂᆡ뮈[təp⌒ʃi gurᄂᆡumui]

5. 결론으로

18세기 말기에 간행된 『몽어류해』에 수록된 조선어와 몽골어 대역어를 중심으로 비교언어학적 방법으로 "표기와 음운, 문법적 형태 그리고 단어조성"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류해류 역학서가 실용적인 성격을 지닌 어휘집이였기에 당시의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조선어의 어휘 체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고 또한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언어적 관계를 고찰할 수 있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어음에서 조선어에는 된소리가 있고

몽골어에는 된소리가 없는 것으로 고찰되고 조선어에는 모음 ‘ㆍ[ʌ]’가 몽골어에 비해 더 있었으며 몽골어에는 조선어보다 겹모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와 몽골어는 모두 근대시기 8종성을 보류하고 있었음을 긍정하면서 몽골어외에 조선어에만 쓰인 종성 “ㅋ[k‘], ㄺ[rk], ㄾ[rb], ㅀ[rs]” 4개가 더 나타난다. 이외에도 몽골어와 조선어가 어음체계에서 초성, 중성, 종성에서 같게 쓰이는 어음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어음체계가 존재한다는 점, 표기로 보아 몽골어는 조선어보다 섬음(류음) ‘ㄹ[r/l]’이나 모음 ‘ㅜ[u]’, ‘ㅑ[ja]’, ‘ㅜ[u]’, ‘ㅣ[i]’, ‘ㅖ[əi]’, ‘ㅡ[ɨ]’, ‘ㅓ[ə]’와 같은 음에서 더 세분화 되여있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한자음 표기에서 자음(초성)에서 조선어 한자음이 몽골어 한자음에서 “ㄱ[j]→ㅈ[ts], ㄷ[t]→ㅌ[t‘], ㅂ[p]→ㅍ[p‘], ㅅ[s]→ㅊ[ts‘], ㅊ[ts‘]→ㅅ[s], ㅍ[p‘]→ㅂ[p], ㅎ[h]→ㄱ[k]”처럼 같은 발음부위의 순한소리와 거센소리 차이가 난다. 이는 어음의 변화영향 즉 뒤자음의 구개음화 현상 그리고 발음부위의 근접성과 관계된다. 모음(중성)에서 조선어한자음이 몽골어한자음에서 ‘ㅏ[a]’가 ‘ㅡ[ɨ]’, ‘ㅗ[o]’, ‘ㅑ[ja]’, ‘ㅛ[jo]’로, ‘ㅑ[ja]’가 ‘ㅑㄴ[jan]’로, ‘ㅓ[ə]’가 ‘ㅟ[jui]’으로, ‘ㅝ[uə]’가 ‘ㅘ[jua]’등으로 대응된다. 받침(종성)에서도 조선어한자음이 몽골어한자음에서 ‘ㅗㄱ[ok˺]’가 ‘ㅜ[u]’로, ‘ㅑㄱ[jak˺]’가 ‘ㅛ[jo]’로, ‘ㅡㄱ[ɨk˺]’이 ‘ㅓ[ə]’로 나타나는데 몽골어 한자음에는 입성자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양성운미 ‘ㅏㅁ[am]’이 ‘ㅏㄴ[an]’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자는 매개 나라에서 그 나라 음운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한자음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몽어류해』를 통하여 18세기 조선어어휘와 몽골어어휘의 일반어휘와 친족어에서 “兒子(아ᄃᆞᆯ[adʌl]/ᄏᆞᆫ컨[k ‘əok ‘ən]), 人(사ᄅᆞᆷ[sarʌm]/쿠문一云쿤[k ‘umun一云k ‘un]), 漢子(사나ᄒᆡ[sanahʌi]/ 어러[ərə])”, “始祖(始祖-툴。굴。어부거[t ‘ul。gul。 əbugə])” 등과 같이 모음조화가 진행되였음을 알 수 있고 몽골어에 대한 모음의 련속된 발음표기는

우선 근대조선어시기 몽골어에는 조선어보다 장모음이 있었고 겹모음에서 조선어와 다른 'ᅮ[iu]', 'ᅭ[ioo]', 'ᅩ[ao]', 'ᅩ [əo]'와 같은 겹모음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문법적 형태라고 하면 단어(서로 같거나 다른 품사)들 사이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나는 일종 형식형태소를 말하는데 본고에서는 주격, 소속격, 종결형태(서술, 의문, 명령), 단어조성법에서도 두 언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즉 종결형에서 조선어의 '-다[ta]'와는 다른 몽골어의 다양한 형태 '-뮈[mui]; -라뮈[ramui]/ -러뮈[rəmui]; -루뮈[rumui]/-로뮈[romui]; -더뮈[təmui]/-투미[t 'umui]'의 대응을 고찰할 수 있었고 단어조성에서 접사법에서 "-으스레ᄒᆞ다[ɨrəhʌta]/-ㅂ툴[p ̄t 'ul]"와 같은 접미사 대응현상이 있었으며 결합관계에서도 두 언어의 어순의 같은 점과 다른 점도 보아낼 수 있었다.

역학서에 모두 나오는 부류는 이들 부류에 속한 단어들이 그 당시 편찬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라고 인식되었던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아울러 당시의 실생활에서도 가장 긴요한 어휘들일 것이다. 이후 어휘적 특성(다의관계/ 동음관계/ 류의관계/동음이의어/상징어)등에 대한 비교, 분석하려 한다.

【참고문헌】

강은국(1993) 『조선어접미사의 통시적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김영황(2009) 『조선어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종훈(1997) 『한국어역사』, 서울: 대한교과서.

김형수(1996) 『한국어발달사』, 서울: 세종출판사.

권재일(2014) 『한국어문법론』, 서울: 태학사.

리득춘(1995) 『고대조선어중세조선어개요(상, 하)』, 연길:연변대학출판사.

리득춘(2006) 『중한언어문자관계사연구(상, 하)』, 연길:연변교육출판사.

리득춘·이승자·김광수 등 (2006) 『조선어발달사』, 연길:연변대학출판사.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서울: 세영사.

안병호(1983) 『조선어발달사』, 심양: 료녕인민출판사.

최윤갑(1987) 『중세조선어문법』, 연길:연변대학출판사.

왜땅에 있었던 백제의 세 다무로

Three Baekje Damuros/Provinces in Wa Japan

김영덕[1]
서강대학교

1968년 일본 사이다마현 이나리야마 고분에서 철검이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1978년에 이 철검을 보존 처리하면서 X선 촬영 중 이 검에 금상감 글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총 115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었고, 이 결과 철검은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명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일본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이 이나리야마 철검이야말로 일본 왕실이 5세기에 도쿄 지방과 규슈까지 호족을 보내며 온 일본을 다스리던 명백한 고고학 증거라고 믿는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정설에 의문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별히 저자는 철검 명문의 한자를 다시 살펴보면서 일본 학계의 정설이 몇몇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 정설에서는 명문에서 "데弓" 자와 "신臣" 자로 본 한자가 사실 각각 "호互" 자와 "거巨" 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또한 이 철검은 백제사람이 백제어로 적은 글이라는 가설이 옳다고 여기므로 저자는 5세기 당시의 한자 중고음을 바탕으로 철검의 명문을 이두로 풀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적절하고도 명백한 고고학 증거가 추가적으로

1 Yong Duk Kim (Prof. Emeritus, Sogang University)
E-mail : bahine@hanmail.net

제시될 경우, 우리는 이 철검 명문이야말로 백제가 5세기에 일본 도쿄 지방을 다무로(檐魯)로 다스렸다라는 결론에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무로란 백제가 왕실 사람을 보내 다스리던 새로 차지한 고을을 뜻한다. 물론 다무로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 백제 왕실의 영향력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으며 군사적인 경우뿐 아니라 행정적, 심지어 문화 상징적 영향력에 따라 다무로가 성립되었다고 저자는 본다.

한편 일본 규슈 다마나시 근처에 있는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 1873년에 발굴된 칼에는 75자의 글자가 은상감 되어 있었고, 1989년 이래로 면밀한 X선 투과 촬영 등을 거쳐 보존 처리 이후 칼글에 관한 여러 학자의 연구가 잇달았다. 그런데 이나리야마 철검에 등장하는 대왕 이름 "확가다기로"가 에다후나야마 철검에도 확인된다. 에다후나야마 철검 연구자 가운데 18명의 글자 판독 결과가 1993년에 출판된 동경 국립 박물관에서 발간된 자료에 실려 있다. 이것을 보면 판독자마다 결과가 다르며, 이 칼글의 풀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일본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에다후나야마 칼글의 대왕 이름이 이나리야마 칼글의 대왕 이름과 같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다만 저자는 이 칼글의 대왕 이름이 사실 정설에서 주장하는 유랴꾸 천황이 아니라 백제의 개로 대왕이며, 이 칼을 만든 이가 개로 대왕의 458년 상표문에 나오는 우현왕 여기(余紀)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결국 5세기 중/말 고대 일본의 중앙정권이 나라에 있었고 도쿄 지방과 규슈를 아우르는 중앙 집권적 정권이라는 정설을 부정하고 이 곳들은 백제 다무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글자 판독을 다시 하고 이 칼글을 중고음으로 이두풀이를 하고, 역사적 문헌을 참고하며 한결 같은 역사성과 고고학 증거를 아울러 검토하게 것이다. 또한 두 칼글에 나오는 대왕 이름이 같으며, 다만 개로 대왕이라는 것이 주장의 주요한 논제를 이룰 것이다. 더 나아가 에다후나야마 칼글을 지은이 이름을 '기리(乎利)'로 보고, 개로 대왕의 상표문(458년)에 나오는 우현왕 여기余紀에 비정하고 규슈 다마나 시 일대에

도 백제 다무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백제 개로대왕의 아우 곤지왕은 좌현왕으로 백제 상표문(458년)에 적혀 있으므로 이 곤지왕이 있던 오사카 남부의 옛 가와찌(河內) 지방 역시 백제의 다무로 일 수 밖에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논제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들 세 다무로 즉 도꾜 북쪽 지방, 규슈 중서부지방, 가와찌 지방에 위치하였다고 믿어지는 세 다무로를 아래의 1장, 2장, 3장에서 각각 알아본다. 끝으로 결론에서 이들 다무로의 역사가 지닌 뜻을 밝히도록 하겠다.

1. 고(乎) 다무로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다무로는 도꾜 북쪽에 있던 다무로이며 1968년에 일본 교다(行田)시의 이나리야마 고분에서 발굴된 철검에 나오는 고확기의 고을 이름 고를 따서 편의상 고 다무로라고 명명할 것이다. 이 철검은 일본 국보에 지정되면서 많은 학자가 그 명문을 연구했다. 먼저 이 명문을 보는 일본 역사 학계의 정설을 알아 본 다음에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끝으로 이두로 본 풀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1.1. 일본 학계의 정설

고바야시 도시오의 정설 풀이에 따라서 정설을 요약해본다(小林敏男 2001: 94).

이 정설에서 본 명문은 다음과 같다.

철검 전면:

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臣

上祖名意富比垝

其児多加利足尼

其児名弓已加利獲居

其児名多加披次獲居

其児名多沙鬼獲居

其児名半弓比

후면:

其児名加差披余

其児名乎獲居臣

世々爲杖刀人首　奉事來至今

獲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

吾左治天下

令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原也

고바야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신해년 (서기 471년) 7월에 적는다. "워"(wo) 와께 신(臣)의 조상 이름은 "오호" 꼬, 그 아이는 "다가리" 수꾸네, 그 아이 이름은 "데요가리" 와께, 그 아이 이름은 "다까하시" 와께, 그 아이 이름은 "다사기" 와께, 그 아이 이름은 하데히, 그 아이 이름은 "가사하요", 그 아이 이름은 "워" 와께 신(臣)이다. 세세로 장도인(杖刀人)의 머리가 되어 섬기며 이제에 이르다. "와까다께루" 대왕의 마실(寺)이 "시끼" 에 있을 때, 나는 천하를 도와 다스리고, 온번 달군 이로운 칼을 만들고, 내 섬긴 근원을 적는 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설은 다섯 가지 오류을 저지르고 있다고 본다.

첫 째, 결정적인 두 글자를 잘못 읽었고, 둘 째, 이두 표기에서 5세기의 중고음 대신 8세기의 만요가나식 한자소리를 써 지명을 잘못 해석하였다. 셋 째, 확가(或加)가 존칭이며 확기(獲支)는 벼슬이름이라는 것을 몰랐고, 넷 째, 벼슬이름 확가 앞에는 지명이어야 하나, 본 정설에서는 인명으로 보았다. 다섯 째, 대왕 이름 기로를 일본서기의 유랴꾸 천황의 이름인 와께다께루로 잘못 보고 있다. 따라서 위 정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칼글을 우리 이두 표기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손환일의 논문 “이나라야마 고분 출토 칼에 새긴 글을 다시 보다”를 참고하면서 우선 두 글자 “巨”거 와 “互”호를 바로 잡은 이 칼글은 다음과 같다(손환일 2007).

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巨
上祖名意富比垝
其兒多加利足尼
其兒名互已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次獲居
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互比

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巨
世世爲杖刀人首奉事來至今
獲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
吾左治天下
令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原也.

나라 문화재 연구소 발간 목간 자전의 “ 데” 자가 정설의 “데(弓)”자의 판독 근거라고 하는데 칼들의 “ ”자와 목간의 “데” 자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글자이며, 북위의 “ ” 자와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정설에서 “신臣” 자로 본 칼글의 글자 “ ” 도 후시미의 서도 대자전의 “ ”거 와 닮았다. 글에 나오는 낱말을 5세기 때 한자 소리를 빌려서 이두로 적힌 옛 지명을 참작해 알아본다(류열 1983). 이 칼 글을 적은 서기 471년 당시에 쓰였을 백제 말을 당시 배운 한자 소리로 이두 표기했다고 보고, 이 칼 글에 나오는 낱말의 이두 표기를 살펴본다. 다음에서는 칼글의 한자의 중고음과 이두로 읽은 소리를 차례로 적어본다.

한자 중고음은 여숙상의 음표를 참고했음을 밝혀둔다(여숙상 1993). 먼저 명문에 등장하는 주요 이름을 차례로 검토 해석하고 1.2에서 종합적인 해석을 제공하도록 한다.

1.1.1. 乎獲居

“乎(ɣo→ko)”는 고, “獲(ɣuak→huak)”은 확, “居(kio→ki)”[2]는 기를 표기했다고 본다. . 3세기 위서 왜인전에 獲支라는 벼슬 이름이 나오는 것과, 8세기 일본 고사기(古事記)에는 和氣(huaki)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獲居”는 확기를 적은 것으로 본다. 이는 태수나 왕에 해당한다. 일본 서기에는 “와께” 別로 나온다. 곧 “乎獲居”는 “고 확기”로 본다. 이 칼이 발굴된 무덤이 있는 고장 이름은 현재 교다(行田)이다. 이 행(行)자는 “고”라고도 일본 말로 부르기도 하며, 다(田)는 땅을 뜻하므로 이 고장 이름은 원래 “고”였다고 볼 수 있으며, “고” 땅을 다스리는 고을님이 “고 확기”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한자 중고음은 여숙상의 음표를 참고했음(여숙상 1993).

1.1.2. 意富比垝

“意(Iə→O)”는 오, “富(Piau→Pu)”는 후, “比(Pi→Bi/Hi)”는 히, “垝(kiwe→ki)”는 고를 표기했다. 곧 “意富比垝”는 오후히고이고, 이 오호히고가 곧 오오히꼬가 됐다고 추정한다. “오후”는 크다는 백제 말에서 현재 일본말에 크다는 뜻의 “오오”가 됐다고 본다. “히꼬”는 현 일본말에서 선비 언(彦) 자로 적고 “히꼬”라고 부른다. “비꼬”는 여러 중앙 아시아의 말에서는 귀인 또는 부자의 뜻으로 아직도 쓰이는 말이다. “오오히꼬”라는 이름은 이 집안이 백제에서 살던 4세기 때 이름이고, “오오가라”는 720년대 일본 서기에 나오며, 고령가야를 가리키는 이 나라 이름은 13세기 말 삼국유사에 대가야로 나오므로 “오오”는 “크다”는 뜻하는 백제말인 것이다.

1.1.3. 多加利足尼

“多(Ta)”는 다, “加(ka)”는 가, “利(li)”는 리, “足(tsiwok→ sok)”는 소구, “尼(ni)”는 니를 표기했다. 곧 이 말은 다가리 소구니이다. 현재 일본말로는 “다까리 수꾸네(宿禰)”로 읽힌다. “다가리”는 백제말로 현재 대가리로 바뀌었으나 원래 머리나 우두머리의 뜻으로 썼을 것임. 김수로 왕을 맞이한 아홉 마을 우두머리 이름에 모두 “도간(刀干)”이 붙는데 참고가 된다.

1.1.4. 互已加利

“互(ɣo→ko)”는 고, “已(jiə→i)”는 이를 표기했다고 본다. 곧 이 말은 고이가리가 되겠으나 류렬, 418쪽에서 “扶余”를 bio-ia → po-I → po-ri로 읽고 있고, 류렬, 532쪽에서 “多已”를 ta-iə → ta-ri로 읽은 보기에 따라, ‘고이가리’는 ‘고리가리’가 될 수 있겠다. 류렬에 따르면, “고녕가야(古寧伽倻)”는 ko-neng-ka-la → ko-ne-ka-ra → ko-ra-ka-ra

로서 '고라가라'의 이두 표기라고 한다. "가리"는 가라의 형태 변종이고 이곳은 현재 함창(咸昌)이다.

1.1.5. 多加

이 말은 (3)처럼 '다가'로 읽히며, 중국 사서에는 탁(卓), 일본서기에는 도꾸(喙)로 적힌 나라 이름이며, 현 영산(靈山)이다. "꼭대기"란 말의 대기는 다가와 통하며 높은 산을 뜻한다.

1.1.6. 披次

"披(phie→Pi/hi)"는 히, "次(tshi→si)"는 시를 표기했다고 본다. 이 말은 백제 말로는 '히시'이며, 우리 말에는 비사(比斯)에 비정되며 현재 창녕(昌寧)이며, 백제가 창녕을 다무로로 다스릴 때는 히시로 불렀을 것이다.

1.1.7. 多沙鬼

"多(ta)"는 다, "沙(sa)"는 사, "鬼(kiwəi→ki)"는 기를 표기했다고 본다. 이 말은 다사기로 읽히며, '기'는 성을 뜻하는 백제 말로 보면, 다사는 곧 현 하동(河東)으로 비정된다. 신라는 일본말로는 시라기라고 일컫는데 참고가 된다.

1.1.8. 半互比

"半(puan→ Pan/han)"은 한, "互(ɣo→ko)"는 고, "比(pi→hi)"는 히를 표기했다고 본다.

이 말은 한고히로 읽히나 이두 표기에서 '반(半)'은 바나 → 바라로 흔히 표시되므로 이 땅이름은 백제 이두로 읽으면 "하라고히"가 될 수 있겠다. 류렬, 415쪽에 보면, 땅 이름 "반나(半奈)"를 pan-nai →

para-na 곧 바라나로 읽고 있다.

우리말 “바위”의 옛말은 “바히”이며, 이 본에 따라 하라고히의 첫 마디에서 ㅎ이 빠지고, 고히가 현재 일본말 가와라고 보면, 이 땅 이름은 아라가와(荒川)가 될 수 있으며, 동경만에 흐르는 강이 된다. 이제 고히(互比)를 가와(川)라고 보는 근거를 더 알아보기로 한다. 강화(江華) 땅의 옛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이다. 그런데 이 땅 이름을 고구려는 혈구(穴口)를 뜻하고 신라는 해구(海口)라고 했다. 그렇다면 백제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백제 이두로는 이 땅 이름을 “가히고치”라고 불렀을 것으로 짐작되며 “가히”가 강화의 “강(江)”에 해당하면 현재 일본말 “가와(川)”가 됐다고 본다. 곧 가히는 가와(川)의 옛말이 되겠고 고히(互比)는 가히(甲比)와 통하는 말인 것이다. 고치는 현재 구찌라는 일본 말로 쓰이고 있다.

1.1.9. 加差披余

“加(ka)”는 가, “差(tsa→sa)”는 사, “披(phie→hi)”는 히, “余(jio→io)”는 여를 표기했다고 본다.

류렬, 418쪽을 보면 “부여(扶餘)”는 bio-jao → bo-I → bo-ri 로 읽고 있다. 이 본에 따라 “가차비여(加差比余)”는 “가사히리”로 읽을 수 있다. 교다(行田) 이웃한 곳에 가사하라(笠原)라는 곳이 있는데, 이 땅 이름으로 비정된다.

1.1.10. 獲加多支鹵

“獲(ɣuak→huak)”은 확, “加(ka)”는 가, “多(ta)”는 다, “支(tsie 또는 ki)”는 기, “鹵(ləu→ro)”는 로를 표기했다고 본다. 곧 이는 “확가 다 기로”가 된다. 흉노 대왕을 “뎅그리고 도 선우”라하며, “뎅그리고”는 하늘 아들, “도”는 크신, “선우”는 대왕을 뜻한다. 이 본에 따라 “다”도 크다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류렬에 따르면, “다”多는 가나 곧 크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한편 개로(蓋鹵)는 kai-lo → ki-ro의 소리옮김으로 보면, 이 이름은 개로 임금을 높혀 적은 “확가 다 개로”가 된다. “다(多)”는 우리 옛말로 머리를 뜻하기도 한다. 확가라는 존칭은 위서 한전에 나오는 목지국의 임금 이름에도 일본 서기의 아홉 임금 이름에도 이름 앞에 나온다. 이제 3세기 위서 한전에 나오는 다음 글을 고찰해 보자:

辰王治月(目)支國臣智或加優呼, 臣雲遣支報安邪踧支 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표준 해석에 따르면 임금 진왕은 目支(miuk-tsie => mi-tsi) 곧, 미치나라의 확가(獲加) 우호라는 것이다. “호(呼)”의 중고음은 고이이다. 彌鄒忽은 그 중고음이 미치이며, 고이(古尒)왕은 성이 우씨이고, 이름이 고이였던 것이다. 신치 이름 우고 앞에 확가라는 존칭이 있는 것을 본다. 한편 720년에 지은 일본서기에는 유랴꾸 천황의 이름이 와까(幼)다께(武)로 나온다.

1.1.11. 斯鬼

“斯(sie→si)”는 시, “鬼(kiwəi→ki)”는 기를 표기했다고 본다.
이 말은 ‘시기’가 된다. 삼국사기에는 진사왕때 사성(蛇城)에서 숭산(崇山)까지 뚝을 쌓다는 기록이 있다. 蛇는 dzia → zia → zi/za로 보면, 사성(蛇城)을 ‘시기’의 이두 표기로 볼 수 있고, 위 말은 이 ‘사성(蛇城)’에 비정된다. ‘시기’라는 말은 님의 땅이라는 알타이 말이라고도 한다.

1.1.12. 臣

“臣(gio→gi)”는 게를 표기했다고 본다. “께”는 누구”에게”라는 뜻이다.

1.2. 종합적 해석

이제 이들 중고음으로 이두풀이 한 해석으로 이 철검 명문의 전체 뜻을 알아볼 수 있겠다.

> "신해년(471년)에 적은바 고 확기께 옛 조상 이름은 오오 히꼬, 그 아들은 다가리 소구니, 그 아들은 고리가리 확기, 그 아들은 다가 히시 확기, 그 아들은 다사기 확기, 그 아들은 하라고히, 그 아들은 가사 히리, 그 아들 고 확기께(서는) 대대로 장수로서 섬기며 오늘에 이르렀다. 확가이신 크신 개로 대왕이 시기궁에서 일 보실 때 천하를 다스림을 도왔도다. 온 번 달구어 만든 이 좋은 칼에 우리가 섬겨온 근원을 적는 바이다."

이 명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조상들의 호칭이 백제 관례대로 지명+벼슬로 적혀 있는 점이다. 가령 "고 확기"에서 확기는 차지한 땅 곧 다무로를 다스리는 벼슬 이름이며, 태수나 후왕을 뜻하는 백제 말인 것이다. 그리고 확기 앞에 이름은 다스리는 땅 곧 다무로의 지명인 것이다. "고(乎)"는 이 칼이 나온 고장의 이름 교다(行田)의 옛 지명을 뜻하는 것이다. "고리가리"는 고녕가야(古寧伽倻, 현 함창)이며, "다가 히시"에서 "다가"는 현재 영산(靈山)을, "히시"는 현재 창녕(昌寧)을 각각 가리키며 "다사기"는 현재 하동(河東)을 가리킨다. 그리고 "하라고히"는 현재 동경만에 흘러드는 아라가와(荒川)를, "가사히리"는 현재 가사하라(笠原)라는 지명이라고 본다. 곧 고 확기의 조상들은 낙동강 연안의 가야 나라들에 있던 다무로에서 확기였다는 것이 이 해석이 시사하는 바이다. 이 집안은 4세기 말에 하동에서 동경만으로 흘러드는 아라가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세력을 키우다가 교다 지방에서 다시 고 확기로 그곳 다무로에 백제로부터 책봉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동경만 동쪽 보오소오(房總) 반도에서 살던 가시와데(膳) 씨족은 "다가하시

씨 글”이라는 고문서를 남긴 집안인데 그 조상이 오오히꼬이므로 고 확기 집안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동경에 가까운 지바현 이나리다이 무덤에서는 왕사(王賜)라는 글자가 새겨진 칼이 나왔는데 이나리야마 칼 글과 모양이 같고 서체도 비슷하며 이곳에서는 백제 옷차림의 인물 토우도 나와 고 확기 집안과 관련이 있는 백제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듯이 고 확기 집안은 동경만을 끼고 퍼져 산 백제 이주민들이어서 그들의 자취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한편 고 확기가 섬긴 대왕 이름은 이 칼글에 “확가 다 기로(獲加多支鹵)”로 적혀 있다. 여기서 “확가”는 대왕을 기려서 붙이는 존칭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는 전례가 있다. 삼국지 위서의 한전을 보면 목지국 임금 이름인 우호(優乎)에 유독 혹가(或加)라는 미칭이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위서 동이전 한전(韓傳) 권30: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여기서 한자 혹(或)의 중고음이 “확”인 것이다. 그 동안에 혹가(或加)를 학자마다 달리 읽고 있어서 혼란스러웠다. 일본 역대 천황이름을 보면 9, 13, 20, 22, 23, 26 대등 여섯 명의 이름에 “와까”(稚)라는 말이 이름 첫머리에 붙어 있고, 백제 확가(或加)와 같이 임금 이름에 붙이는 존칭임을 알 수 있다. 이름 끝에 붙는 “와께”(別)와 대조된다. “와께(別)”는 곧 獲居라고 정설도 주장한다. 히미꼬 여왕 시대에 벼슬 가운데 확기(獲支)라는 말이 있으며, 獲居와 통한다. 고지끼(古事記)에는 화끼(和氣)로 나오며, 소리와 뜻이 獲居와같다.

이렇게 볼 때 獲加와 或加의 중고음이 “확가”로 같고, 백제 전통을 따랐을 야마도 임금 이름에 존칭으로 보이는 “와까”(稚, 幼)가 잦으므로 “확가”는 임금 이름 머리에 붙이는 존칭일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한편 훈족(匈奴)의 대왕 이름 “댕그리고도 선우”에서 “도”는 위대하

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다(多)”를 이두에서는 “대(大)” 대신에 쓰기도 하며, 위대하다는 뜻으로 본다. 다가리에서 다는 머리를 뜻하는 옛말이기도 하다. 한편 개로(蓋鹵)에서 “개”는 복합 모음이며, 이두에서 개는 “가” 아니면, “기”를 적은 것으로 본다. 곧 이두 표기에서 개로는 “가로”아니면 “기로”를 옮겨 적은 것으로 볼 때 “기로(支鹵)”와 “개로(蓋鹵)”는 같은 이름인 것이다.

곧, 고 확기는 백제 개로 대왕을 섬기면서 일본의 도쿄 북쪽에 있는 교다라는 땅에 있던 “고” 다무로를 471년(신해년)에 다스리던 백제 후왕이었던 것이다.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어림잡아 보면 이 집안 조상들 가운데 다사기 확기 때 곧 고구려가 396년에 백제를 쳤을 무렵에 이 집안은 하동 곧 다사기 다무로를 떠나 왜 땅으로 망명한 백제 장수 집안인 것이다. 조상 바라고히 때에는 동경만 아라가와 강변으로 망명했기에 이 조상은 확기가 아니였고 그 다음 조상 가사히리도 확기가 아니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칼글의 내용은 고확기 집안의 족보였던 것이다. 도쿄 지방에 5세기에 백제 다무로가 있었음이 이나리야마 칼글이라는 고고학 발굴로 뒷받침된 것이다. 또한 백제 사람이 적은 이 칼글은 백제 말 일 수 밖에 없으며, 백제식 이두로 적은 금석문인 것이다.

1.3. 고고학 고찰

1.3.1 토우(土偶, 교다시 박물관 1991)

간또 지방 두 곳에서 발굴된 인물 토우를 보면 그 옷차림이 백제풍이다. 머리에는 반쪽 고깔, 넓은 저고리 소매, 널찍한 바지, 코가 치솟은 신발, 이러한 모습은 바로 6세기의 양 직공도에 그려진 백제 사신의 옷차림을 빼 닮았다.

이런 인물 토우가 사이따마 고을 사끼마끼 14호 고분에서 두 개 나왔고, 멀리 지바 고을 야마꾸라 고분에서도 두 개가 나왔다. 사끼마끼

14호 고분에서는 네 마리 말 토우도 나왔는데 그 한 마리 말 등에는 꼬불한 기꽂이 대가 달려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이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고 가야 고분에서도 실물이 나오고, 교다 시 쇼군야마 고분에서도 출토됐고, 백제 공산성에서도 나왔다. 백제의 이런 마갑 풍속이 간또 지방에도 있었다는 물증인 것이다.

이 고장에서는 씨름꾼 토우도 나왔는데 허리에는 방울이 달린 모습이다. 그런데 백제 외사리 절터 전돌에는 방울을 허리에 찬 신령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 허리에 방울을 찬 씨름꾼 풍습이 백제에서 전래됐음을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구리솥(鍑) 모양한 토우도 나왔으며, 백제 기마 전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본다. 이렇듯이 이 고장 관동에는 유달리 6세기까지도 백제 유습이 많이 엿보이며, 고 확기 집안이 이곳에 세력을 오랫동안 떨쳤던 결과로 생긴 문화 유산이라고 우리는 본다.

1.3.2. 구리 거울

이나리야마 고분에서는 구름 무늬 짐승 테 거울(畵文環狀乳神獸鏡)이 나왔는데 이 같은 거울이 군마 현 간논쓰까 고분, 지바 현 오다끼 고분, 미에 현 나미기리쓰까 고분, 후꾸오카 현 미야꼬군나이 고분, 미야자키 현 야마노부 고분 등지에서 나오고 있다. 구리 거울은 당시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던 신기(神器)여서, 백제와 고 다무로를 잇는 교통 요로에 있는 이들 지방 사이에는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 있었을 정치 내지 문화 유대의 결과라고 본다.

1.3.3. 고리 자루 칼(조원영 2004)

백제 유품 가운데 고리자루 칼은 특히 백제 왕실의 권위의 상징인 듯 그 다무로들과 그에 딸린 세력가의 무덤에서 볼 수 있다.

1.4. 『일본 서기』 진구 49년 대목

고 확기의 조상들 가운데 세 사람이 한반도 내 다무로의 확기 곧, 백제 후왕이었음에 주목한다. 이들이 다스리던 나라 이름 가운데, 다가(多加) 히시(披次)와 다사기는 『일본 서기』 진구 49년 대목의 일곱 가야 평정 기사에 나오는 지명과 일치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가야 지방을 평정한 나라는 백제였음이 이 칼글의 발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기사를 바로 새기면, 백제는 서기 369년 즈음해서, 탁순(독산, 벽진 가야), 오오가라(대가야), 다라(합천), 다가(영산), 히시(창녕), 아라(아라가야), 아리히시 가라(남가야) 등 일곱 가야 나라를 친 다음에는 남해안을 돌아 강진에 와서는 신미 다라라는 나라를 무찔렀다고 한다. 그리고는 히리, 히쥬, 호무기, 한고라는 네 나라가 항복했다는 내용이다. 평정한 이들 경상도 가야 나라와 전라도 마한 나라에 다무로를 두고 확기를 보내 백제는 다스렸던 것이다. 그 동안에 고고학계의 발굴로 이들 거의 모든 옛 가야 유적에서 백제 유물인 고리자루 칼 아니면 그 본딴 고리 자루 칼이 나온 것이다. 특히 동경 국립 박물관에 있는 가야산 은상감 고리자루 칼에 새긴 열 여섯 글자 가운데 “고천(高遷)” 이라는 말은 백제가 하사한 칼임을 시사한다. 곧 다무로이던 이들 가야 나라들은 396년과 400년에 있었던 고구려 침공으로 백제가 쇠약해지자 독립 왕국으로 거듭났던 것인 바 이들 가야 나라들의 왕릉 급 무덤이 흔히 5세기 이후에 지어졌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문헌과 고고학 성과를 놓고 볼 때, 이나라야마 칼 글이야 말로 백제가 서기 471년 즈음에 일본 동경 근처 교다시 일대에 다무로를 두었을 뿐 아니라, 서기 369년 즈음에는 한반도 남부에 다무로들을 차렸음을 밝혀주는 소중한 자료인 것이다.

2.1. 규슈에 있던 고마(肥) 다무로

놀랍게도 “확가 다 기로”라는 대왕 이름이 규슈 다마나 시의 에다후

나야마 고분에서 나온 칼에도 적혀 있어 이곳 역시 백제가 다스리던 다무로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제 이 에다후나야마 칼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규슈, 구마모또(熊本) 현, 다마나(玉名) 시, 기꾸수이(菊水) 죠(町)에 있는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을 1873년에 발굴해서 출토한 칼에는 은 상감한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밝혀졌다. 후꾸야마가 판독한 글 가운데 "弖"데를 "工"공으로, "寸"촌 자는 "才"로, 또한 "无"무는 "兂"기로 고쳐 읽으면 다음과 같다(에다후나야마 고분 위원회 1989; 류렬 1983: 손한일 2007).

治天下獲□□□鹵大王世奉事典曹人名无利工八月中
用大鑄釜併四尺廷刀八十練六十振三才上好□□刀服
此刀者長□子孫洋洋得三恩也不失其所統作刀者
伊太加書者張安也.

이 글을 이두로 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천하를 다스리는 확가 다 기로 대왕 때 섬기던 전조인 이름 기리가 만들다. 팔월에 큰 가마솥을 써서 여든 번 달구고, 예순 번 후려서 넉자 칼로 아울다. 이 칼을 차는 이는 장수하고 자손이 양양하고 세 은덕을 입을 것이고, 그 다스리는 바를 잃지 않을 지이다. 칼 만든이는 이다가이고 글쓴이는 장안이로다."

여기서 대왕 이름 獲□□□鹵는 앞뒤 글자와 못 읽은 글자 셋을 아울러 다섯 자로 된 이나리야마 칼글의 대왕의 이름 "확가 다 기로"와 동일하다고 학계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칼을 만든 "기리"는 기로 곧 개로(蓋鹵)대왕을 모시던 백제 벼슬아치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왕 이름에서 확가는 존칭, "다"는 크시다 또는 머리라는 말이고 "기로"는 개로와 통하는 것으로 본다.

이 칼글의 대왕 이름이 '확가다기로' 라는 데 에는 일본 역사 학계의

정설에서는 본 저자나 이견이 없다는 것은 이미 천명한 바 이다. 다만 본 저자는 이 대왕이 개로이며 따라서 이곳 역시 백제 다무로였다는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소견은 문헌과 고고학 증거를 2장에서 열거한 바 이다. 일본 정설에서는 이 대왕 이름을 유랴꾸(雄略)천황 곧 "와까다께"로 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이름에는 "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가설이다. 더구나 이나리야마 칼글에서 나오는 네가야 나라는 한반도 안에 있어서, 4세기에 왜 조정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다음에는 만든이 "기리"를 알아본다. 서기 458년에 송나라에 보낸 개로 대왕의 상표문을 보면, 좌현왕(左賢王) "여곤"(余昆)과 우현왕(右賢王) "여기(余紀)"라는 이름이 보인다. "여곤"에서 곤은 곤지(昆支)의 첫 자를 딴 이름이다. 곤지왕은 개로 대왕의 아우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는 "기리"의 첫 자만 딴 이름으로 볼 때 이 칼을 만든 이는 바로 백제의 왕족인 우현왕 여기(余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흉노 군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는 직할지 왼쪽 다무로는 좌현왕이, 직할지 바른 쪽 다무로는 우현왕이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에가미 나미오 1986).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두 칼글에서 "鹵"로의 서체와 6세기 능산리에서 나온 목간에 적힌 "鹵"로자의 서체가 꼭 같다는 것이다(창원 국립 문화재 연구소 2004: 316). 도노(東野)와 후꾸야도리(福宿)도 그들 논문에서 이 두 칼글의 자체가 같다고 적고 있고, 출처가 같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세 글자의 글솜씨는 백제 서울 "가나구루(漢城)"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 이 칼글의 글귀 팔월 "中"중에서 중자는 무라야마와 밀러가 지적한 바 백제식 용자이며, 처격 "에"를 뜻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Murayama. S and Millar, R.A. 1979: 405-438).

한편 글쓴이 "장안"을 보면, 백제로 낙랑에서 옮겨온 한인들 성씨인 장(張)씨 일 것이 짐작된다. 또한, 손환일에 따르면, 이 칼글의 서체는 고구려 서체와 닮았다 하며, 이 칼글이 백제에서 쓰였음을 시사한다(손

환일 2007). 이 칼이 출토된 고분이 있는 지명 “다마나”는 “다마라”라는 흔한 백제 지명에서 나왔을 것이며, 백제 이주민이 살던 고장임을 알 수도 있다(오바(大場) 이와오 1975: 58;김성호 1982).

그러므로 우리는 에다후나야마 칼 글의 주인공 “기리” 곧 “여기”는 백제 우현왕이며, 그 옛 지명이 “히노구니(肥國)”라고도 하고 “고마”라고도 불렀던 이곳 다무로를 다스리던 백제 확기 곧 후왕이였다는 것이다. 이 다무로를 편의상 고마 다무로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곳이 백제 다무로였음은 이 무덤에서 쏟아져 나온 숱한 백제 유품 특히 금동 고소가리(冠) 에서도 여실히 뒷받침 된다.

2.2. 고고학 유품과 유적

이 옆 튼 고분에서는 숱한 백제 유품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 살펴보려 한다.

2.2.1. 금동 고소가리(冠, 박종환·이훈 2006: 50-59)

백제는 확기 곧 후왕에게 금동 고소가리와 금동 신발을 하사하는 관례가 있었다. 최근에 금동 고소가리가 옛 백제 땅 여러 군데에서 발굴되고 있다. 이들 고소가리는 등이 둥근 고깔 모양이고 뒤쪽에는 술을 꾸며 달을 대가 붙어 있기도 하다. 이들 고소가리가 발굴된 유적지는 군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공주 수천리, 서산 부장리, 고흥 길두리 등이다. 그런데 이런 금동 고소가리가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도 나온 것이다. 이 유물이야말로 이곳에 백제 다무로가 있었다는 유력한 고고학 증거인 것이다.

2.2.2. 금동 신발(편집 2001: 96)

금동 신발은 흔히 고소가리와 함께 발굴되나 그 수는 고소가리 수

보다 많다. 이 백제 금동 신발은 나주 신촌리, 나주 복암리, 익산 입점리, 무령 대왕 무덤, 원주 복천리, 공주 수천리, 서산 부장리, 고흥 길두리 등지에서 출토됐다. 이들 금동신발은 모양이 비슷하고, 흔히 구갑무늬로 꾸며졌고, 신발 바닥에 징이 아홉 개 박힌 것이 특징이다. 에다후나야마 고분의 금동 신발도 이들과 닮았고 백제 대왕의 하사품이다.

2.2.3. 구리거울(박종환·이훈 2006: 32)

구름 무늬와 짐승 도안이 찍힌 구리 거울 외에 수레나 말 도안이 들어 있는 것이 이 고분에서 발굴됐다. 구름 무늬와 짐승 도안이 찍힌 구리 거울은 무령 대왕의 무덤과 사까이시에 있는 다이센 무덤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며, 이들 거울은 한곳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2.2.4. 다른 유물들

금동 고소가리, 금동 신발, 구리 거울 외에도 이 무덤에서는 숱한 꾸미개, 마구, 갑옷 등이 출토되었고, 백제서 가져온 것들일 것이다.

2.3. 기꾸찌 산성(구마모토 교육 위원회 보고서 2006)

끝으로 기꾸찌 산성을 알아본다. 이 산성은 여느 백제 산성처럼 고을 가까이 지었다. 산과 벼랑을 에워 싼 백제식 산성이며 둘레는 3.5km이고 돌과 진흙으로 싼 성벽은 높이가 4.3m가 넘는 곳도 여럿 있다. 성안에는 집터가 열 군데 있고 백제 기와 조각이 나오기도 한다. 더구나 여덟 모 기단을 가진 사당 터가 발굴됐는데, 백제의 이성 산성 안에 있는 사당 터와 그 꼴이 매우 흡사하다.

이렇듯 에다후나야마 고분의 칼 글은 그 주인공이 백제 개로 대왕이 보낸 우현왕 여기 곧 기리이며, 백제 확기 곧 후왕인 우현왕이 다스리던 다무로가 다마나 시 일대에 5세기 가옷에 있었음을 밝혀주는 소중

한 고고학 자료이다. 이 고분에서 나온 숱한 백제 유품인 금동 고소가리, 금동 신발, 구리거울 그리고 여덟모 신앙터가 있는 백제식 산성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3.1. 가와찌(河內) 다무로

이제 마자막으로 세 번째 다무로인 가와찌 다무로를 알아 보기로 한다. 우현왕 "여기"가 다스리던 다무로가 규슈 다마나 시 일대였음은 이미 살펴본 바다. 그렇다면 좌현왕 여곤이 다스리던 땅은 어디일까 궁금해진다. 백제에서 볼 때 왜땅 규슈는 오른쪽이기에 이 곳에 우현왕을 두었더라면, 좌현왕이 다스리던 왼쪽 다무로는 당연히 왜땅의 혼슈 어디인가에 있었을 것이 짐작된다. 이 우현광과 좌현왕 구조는 개로 대왕이 송나라에 서기 458년에 보낸 상표문에 나온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개로 대왕은 서기 455년에 즉위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458년에 보낸 이 상표문의 중요한 내용을 삼국사기는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다른 모든 상표문들은 인용하면서 이 상표문만은 뺀 까닭은 무엇일까? 여곤은 개로 대왕의 아우 곤지왕을 가리키며, 곤지(昆支)는 본 이름 "고니끼"의 이두 표기이고, 관례로 외자 곤(昆)으로 이름을 적은 것이다.
좌현왕은 권력 서열이 대왕 다음이며, 이 자리를 여곤이 맡고 있던 것이다. 좌현왕 여곤은 서기 461년에 백제 개로 대왕을 뵙고 난 뒤에 왜땅에 왔을 때 그곳 도성에 이미 다섯 아이를 두고 있었다고 일본서기 유랴꾸 5년 대목은 적고 있다.

아이들이 다섯이나 그곳에 있었다면 곤지왕은 벌써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고 서기 458년에는 왜의 수도에 이미 있었다는 뜻이 된다. 곧 왜의 수도가 좌현왕 여곤이 임명된 곳이고 이곳이 백제 다무로였던 것이다. 이 다무로는 가와찌 일대에 있었으므로 편의상 우선 가와찌 다무로라고 부르기로 한다. 왜의 왕도에 있던 곤지왕은 458년에 개로대왕의 좌현왕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 왕도라면, 왜왕이 그곳에서 다

스리던 땅 가와찌 일대를 다스리던 나라의 성도이다. 한 왕도에 두 왕이 있을 수는 없으며, 곤지왕은 바로 가와찌 땅의 수령인 확기였던 것이고, 이곳은 백제 다무로였던 것이다. 또한 좌현왕 곤지는 왜왕이기도 했으며 바로 왜왕 고오(興)였고, 이 사실은 502년에 무령대왕이 된 왜왕부(武)가 478년에 송나라에 보낸 상표문에서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이 다무로의 왕성은 어디였을까? 명백한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와찌(河內, 오사카 만의 동쪽 일대)의 어느 곳이었을 것이고 아스까에 있었을 것으로 본다. 가와찌(河內)란 본시 가이쥬(開中)라는 백제 말에서 나왔고 갯벌이라는 뜻이다. 옛 고장 이름이 가와찌인 곳에는 후루찌(古市)무덤떼와 모즈(百舌鳥) 무덤떼가 있으며, 5세기 고분이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백제 관례로 봐서 임금이 살던 도성 가까운데 왕실의 무덤을 쓰게 마련인 것이므로, 거대한 이들 무덤 떼 가까운 데에 왕도가 있었을 것이다.

왜왕 부武의 상표문(서기 478년)에서 "망고사이(亡考濟)"라는 글귀와 "엄상부형(奄喪父兄)"이라는 글귀가 있다. "망고사이"는 돌아간 아버지 사이를 뜻하고 이이가 왜왕 부(武) 곧 사마왕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진철이 밝힌 바 "(엄상부형)"은 475년 고구려 침공 때 돌아간 개로 대왕(곧 왜왕 부의 아버지)과 태자의 상사(喪事)를 뜻한 것이다(소진철 1994).

왜왕 사이(濟)와 개로 대왕은 둘 다 왜왕 부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이것은 443년 이래로 왜왕이던 사이가 455년에 개로 대왕으로 자리를 옮김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455년에 왜왕 자리는 사이(곧 가스리)의 아우인 곤지(곧 고니기)가 이어 받아 왜왕 고오(興)가 됐음을 뜻한다. 실제로 송서는 451년과 460년 사이에 왜왕 사이가 죽고, 세자 고오(興)가 상표문을 보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왜왕 사이는 죽지 않고 백제로 갔던 것이다. 그러고 3년 뒤 458년에는 형왕인 개로왕이 곤지를 좌현왕에 임명하면서 가와찌 다무로 일대를 다스리는 백제의 확기 곧 후왕이 됐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왜왕 부의 아버지도 왜왕 사이였기에 그 둘 사이에 있어야 할 왜왕 고오(興)은 당연히 곤지왕인 것이다.

이제 왜왕 고오(興)가 된 곤지는 개로 대왕의 458년 상표문에서 보듯이 이 해에 백제의 좌현왕에 제수되는데 그 재위는 언제까지였을까? 송서에 따르면, 477년에도 왜왕이 상표문을 올렸고 478년에는 왜왕 부武가 상표문을 올렸다. 곧 관례에 따라 477년의 상표문에서는 왜왕 고오의 사망을 송나라에 알린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왜왕 고오를 왜왕 부가 이은 것이 되고, 이 왜왕 부는 개로 대왕의 아들 시마/사마임은 두 말 할 것 없다.

그렇다면 455년부터 477년까지 22년 동안 곤지왕은 왜왕으로 재위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따르면 유랴꾸 천황도 457년에서 479년까지 22년 동안 재위한 것으로 적혀 있다. 송서에 따르면 477년에 왜왕의 교체가 있었으므로 유랴꾸 재위 말년의 연도는 477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같은 땅을 다스리고 치세 기간 22년이 같은 왜왕 고오/곤지와 유랴꾸 천황은 같은 인물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곤지 왕/ 왜왕 고오(興)도 아이가 다섯 있었고, 유랴꾸도 아들 셋에 딸이 둘 있었다고 일본 서기는 적고 있다. 유랴꾸의 형왕인 안꼬(安康)천황이 곤지/왜왕 고오의 선왕이므로 왜왕 고오/유랴꾸의 선왕인 안꼬는 왜왕 사이에 비정된다.

3.2. 고고학 고찰

이제 가와찌 다무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고고학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3.2.1. 다이센(大山) 릉

왜왕 부가 송나라에 보면 478년 상표문에서 짐작되는 3년상을 지냈을 개로/왜왕 사이의 빈소는 왜나라에 있었겠고, 477년에 돌아간 곤지/

유랴꾸의 빈소도 왜왕 부/시마는 3년상을 치른 다음에 무덤을 썼을 것이다. 이 무덤이 다름아닌 다이센 릉(소위 닌도꾸 왕릉)일 것으로 우리는 본다.

고고학계의 정설로 다이센 왕릉은 5세기 말기에 지었다고 한다(모리 고오이찌 1986).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봉황 무늬 고리 자루 칼과 짐승(神獸) 새긴 구리 거울이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보존되고 있는데, 무령 왕릉의 유품인 고리자루 칼과 구리거울을 닮았다는 것이다(공주박물관 2001). 또한 로마 유리 잔과 접시, 달개(瓔珞)가 달린 금동 갑옷과 투구도 출토됐다는데, 이런 위세품은 백제 왕실에서 전수됐을 것이 짐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품은 다이센 무덤의 모난 곳 쪽에서 출토됐고, 둥근 부분에서는 빈 돌널만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무덤의 높은 둥근 쪽에는 혹시 개로/사이의 가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모난 아래쪽에는 곤지/유랴꾸의 널이 묻혀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은 왜왕 부/시마가 돌아간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효심으로 모신 무덤이였던 것이다.

서기 461년에 형왕 개로를 찾아온 좌현왕 곤지는 군사 문제 곧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는 일, 경제 문제 곧 백제 바치(工人)를 대거 왜땅에 보내는 일, 가족 문제 곧 만삭인 개로 왕비가 왜 땅에 가서 낳을 왕손의 양육 등 굵직한 논의를 했을 것이 틀림없다.

사실 서기 475년에 고구려가 대거 남침할 때 왜군 백만이 백제를 도우려 했음을 왜왕 부의 478년 상표문은 시사하며, 일본 서기, 유랴꾸 7년 463년 대목은 이민간 백제 바치 곧 딜그릇, 길마, 길쌈, 그림 바치, 글꾼 등이 각 분야에서 왜 문화 개척에 이바지했음을 적어놓았고, 일본서기는 시마 왕자가 서기 461년에 규슈 가가라 섬에서 태어났고, 서기 477년에 왜왕 부가 되기까지 곤지왕 곧 왜왕 고오(興)가 조카를 보살핀 것을 시사한다. 시마가 왜왕부가 되고 이가 나중에 백제 무령 대왕이 된 것을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와 무령 대왕의 묘지로 알 수 있

는 것이다.

3.2.2. 모즈(百舌鳥) 고분군(群)과 후루이찌(古市) 고분군

가와찌 다무로의 존재를 밝히는 고고학 증거는 더 무엇일까? 이곳에 지어진 크나큰 고분군 두 군데 곧 모즈(百舌鳥) 무덤 떼와 후루이찌(古市)무덤떼와 더불어 이곳 가와찌 평야에 널린 백제 유품이 나오는 유적과 유품이다(후루이찌 고분군 연구회 1985). 어째서 이곳에 큰 무덤떼가 그것도 두 군데나 5세기 초에 지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가와찌 일대를 다스리던 여씨 왕족이던 왜왕 두 집안의 임금들과 그 일족이 모즈 무덤떼에 묻히고, 이 왕권을 지탱한 백제계 모노노베 씨족이 묻힌 묘역이 바로 후루이찌 무덤떼이기때문인 것이다. 우선 후루이찌 무덤떼를 보면 가와찌 평야에 흘러드는 야마도강과 이시가와강이 만나는 곳 가까운 둔덕에 자리하고 있고 남북 4km, 동서 4km 되는 곳에 곤다야마(譽田山) 고분을 비롯한 100기 가량이 지어져 있다.

이들 고분에서 나온 스에끼 그릇, 가진 토우, 가마, 토기나 갑옷 등 무구의 출토로 봐서 5세기 중에 지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후루이찌 무덤 떼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쓰도시로야마(津堂城山) 고분이고 가장 큰 것은 길이가 425m인 곤다야마 고분이다. 한편 이보다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오사카 만을 바라보는 둔덕에 지은 모즈 무덤 떼에는 길이 486m인 다이센(大山) 고분을 비롯한 120기의 무덤이 있었으나 현존하는 무덤 수는 46기이다.

이 두 무덤떼는 고대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 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모즈 무덤 떼 안에 있는 다이센 무덤은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이며 둥근 부분 지름이 71.3m, 높이 17m이고 온 길이는 486m인 그 축조시기가 5세기 말이자 그 유품이 용무늬 고리 자루 칼이며, 로마 유리잔의 출토와 달개(步搖) 달린 금동 갑옷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2]보아 곤지 곧 유랴꾸 임금의 무덤일 것이라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

왕족 집안이 같은 무덤 떼에 묻혔을 것으로 미루어 이 모즈 무덤 떼는 여씨 왜왕족의 묘역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한편 후루이찌 무덤 떼는 이미 밝혀진 바 무구가 많이 나오는 고고학 성과와 문헌을 근거로 5세기에 지은 모노노베 씨족의 묘역이라고 한다. 사실 모노노베 씨족의 조상 니기하야히는 일본 서기 진무 대목에 세 번이나 아메노 이와후네(天磐船)를 타고 내려왔다고 적혀 있고, 진무/오진 천황이 동방으로 진출할 때 최후 승리를 도운 천손으로 나온다. 진무나 니기햐아히는 백제의 천손 사상을 반영한 천손으로 일본 서기는 적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모노노베 씨족은 5세기 대왜 개국의 일등 공신이었기에 후루이찌 무덤 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후루이찌 무덤 떼에서 딸린 무덤들은 네모난 무덤들이 많고, 모즈 무덤떼에서 딸린 무덤들은 둥근 무덤이 많다는 것이다. 아마도 모노노베 씨족이 백제를 떠난 5세기 이전까지는 백제에서는 네모난 무덤만을 썼고, 5세기 백제 왕실의 무덤은 둥근 무덤들뿐이었던 것이 무덤 떼의 딸린 무덤 양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스까에는 150년 동안 왜나라 도성이 있고 왜왕족이 살았던 오시사까 궁이 있던 사꾸라이 시, 왜왕 부 곧 무령 대왕의 후손인 야마또(大和) 집안이 살았던 덴리 시, 곤지 왕의 후손이 살았던 하비끼노 시 등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며 5, 6세기를 통해 고대 일본의 정치 및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5세기 중반 이래로 가와찌 평야에는 딜(陶) 그릇 가마터가 즐비하게 생겨난다. 이윽고 이른 바 스에무라(陶邑)라는 요업 고을이 일어난 것이다. 이곳에는 500년 동안에 1000기가 넘는 용 가마 터가 밝혀졌다. 시루나 부뚜막 등 한식 토기와 더불어 딜 그릇(1200℃ 이상에서 구워낸 토기)은 백제 이주민이 도입한 것이다. 크나큰 고분에는 원통 토기를 두르게 됐고, 제사용 딜 그릇인 명기와 식기의 수요도 많고 고분 축조가 각지에서 늘어나면서 요업이 크게 발달됐다는 것이다. 요업과 더불어 논공구, 갑옷, 마구, 도금 등 수공업이 백제 바치들의 이바지로 크

게 발전한 것이다.

곤지/유라꾸를 이은 시마왕은 왜왕 부(武)로서 서기 477년에서 서기 501년 까지 가와찌 다무로를 다스렸고 따라서 왜왕 부의 재위 동안에 있었다는 네 천황은 가공인 것 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가와찌 다무로는 백제 왕실의 자제가 다스렸고, 모쯔와 후루이찌 고분 유적을 남겼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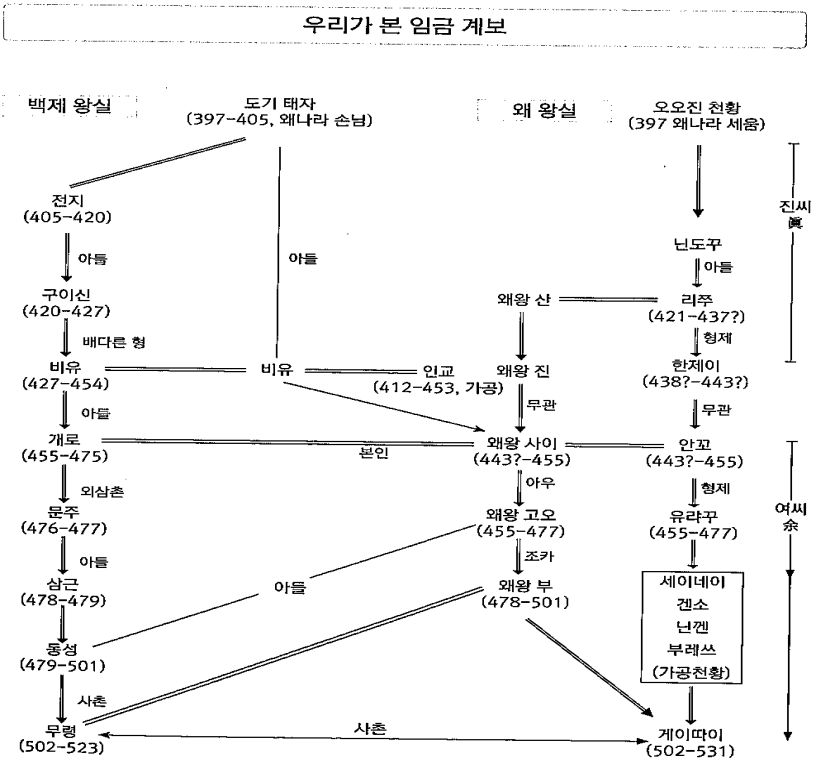
4. 맺는 글

직공도(職貢圖)는 서기 523년 중국 양나라 원제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외국의 사신들과 그 나라의 역사 등을 간략히 적은 화첩을 말한다. 직공도 안에 그려진 백제 사신의 초상화 곁에 적힌 글에는 백제가 22개의 다무로를 통치하고 있다고 써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22개 가운데 세 다무로가 왜 땅에 있었음을 일본 고분에서 나온 철검들에 새긴 글과 여러 상표문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특별히 이나리야마 철검은 5세기에 동경 북부 지방이 백제의 다무로였음을 밝히는 소중한 고고학 자료로 판명이 되었다. 이 철검의 명문은 백제 사람이 백제말로 지은 글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471년 즈음에 일본 사이다마 현 교다시 일대는 백제의 다무로였고, 이 곳을 다스리던 백제 후왕 고 확기의 조상은 일찍이 4세기 후반에 현 함창에 있던 고리가리 곧 고녕 가야에서 백제 다무로의 후왕이였고 뒤이은 조상은 백제가 가야 일곱 나라를 평정한 뒤, 현 창녕, 영산과 현 하동에 있던 백제 다무로에서 확기 곧 후왕을 지낸 큰 집안이었으며, 396년 고구려가 백제를 칠 때 왜 땅으로 건너간 것이었다.

백제 대왕을 섬기던 후왕인 고 확기의 선조가 백제에서 왜 땅으로 건너왔다는 증거는 이들 선대 확기들이 가야에서 대대로 다무로를 다스렸던 사실이다. 그러기에 백제 말인 “히꼬,” “스꾸네,” “확기(와께)” 같은 말은 일본 말에 그대로 살아 있고, “다가리” 같은 말은 우리 말에

남아 있고, “고리가리” (고녕 가야), “히시” (비사 가야), “다사기”(현 하동) 같은 땅 이름은 한반도에 있고, “가사히리(笠原),” “하라고히(荒川),” “고(行田)” 같은 땅 이름이 일본에 있는 것도 고 확기 집안이 한반도에서 왜 땅으로 건너간 집안임을 시사한다. 그 동안에 밝혀진 고고학 자료들 가운데, 다무로를 상징하는 백제 고소가리가 규슈, 다라(옥전 유적) 등 여러 백제 영향권 내 지역에서 잇달아 발견됐고 가야산 은상감 고리 자루 칼, 무령 왕릉과 다이센 왕릉에서 나온 용무늬 고리 자루 칼 등도 백제 문화유산이며, 백제와 다무로 땅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고 다무로 밖에도 백제 다무로는 두 군데나 더 있던 것이니, 곧 오사카 동남부의 옛 가와찌 지방과 규슈 다마나 시 일대가 그것이다. 이들 다무로 가운데 가와찌 다무로는 가장 역사가 깊고 백제 왕실의 자제가 다스렸으며 그 후손이 현 일본 왕실과 직결된다. 곧 개로대왕이 젊었을 때 왜왕 사이였고 그 아우 곤지왕이 왜왕 고오였고 그 뒤를 무령 대왕이 된 개로 왕의 아들 시마가 왜왕 부가 이어간 것이다. 이들 세 다무로는 서기 531년에 가와찌 다무로와 고마 다무로(규슈 다마나)가 싸울 때까지 평화롭게 공존했던 것이다. 그 뒤에 이들 다무로는 531년에 있던 이와이 난리 이후에 가와찌 다무로 곧 대왜에 아우러지면서 긴메이 천황 이래로 독립 왕국으로 발전하다 백제 멸망 후에는 일본으로 거듭나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일본이란 나라는 백제 다무로가 그 모태였던 것이다. 가와찌 다무로를 다스리던 왜왕들은 백제 왕실에서 나왔고 이 왕실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왕실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부록.


우리가 본 임금 계보
백제 왕실
도기 태자
(397-405, 왜나라 손님)
왜 왕실
오오진 천황
(397 왜나라 세움)
진씨
眞
전지
(405-420)
아들
아들
닌도꾸
아들
구이신
(420-427)
왜왕 산
리쭈
(421-437?)
배다른 형
형제
비유
(427-454)
비유
인교
(412-453, 가공)
왜왕 진
한제이
(438?-443?)
무관
무관
아들
개로
(455-475)
본인
왜왕 사이
(443?-455)
안꼬
(443?-455)
여씨
余
외삼촌
아우
형제
문주
(476-477)
왜왕 고오
(455-477)
유랴꾸
(455-477)
아들
조카
삼근
(478-479)
아들
왜왕 부
(478-501)
세이네이
겐소
닌껜
부레쓰
(가공천황)
동성
(479-501)
사촌
사촌
무령
(502-523)
게이따이
(502-531)

【참고문헌】

교다시 박물관(1991) 『바다를 건너온 문화』.

구마모토 교육 위원회 보고서(2006) 「기꾸찌 산성」.

국립 공주 박물관(2001) 『백제 사마왕』, 통전 문화사, 96.

김성호(1982) 「비류 백제와 일본국가의 기원」, 지문사.

김재붕(1975) 『고대일본국과 조선』, 야아도 서점.

류렬(1983) 『세 나라 시기 이두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사, 24.

모리 고오이찌(1986) 『거대 고분의 세기』, 이와나미 서점.

박종환·이훈(2006) 『한성에서 웅진까지』, 공주 국립 박물관, 충남 역사문화 연구소, 32, 50-59.

소진철 (1994) 『금석문으로 본 무령 대왕의 세계』, 원광대학 출판부.

손환일(2007) 「이나라야마(稲荷山) 고분 출토 철검과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출토 철검의 서체」, 『문화사지』 27.

여숙상(呂叔湘)(1993)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오바(大場) 이와오(1975) 『고대 씨족의 연구』, 나가이 출판사, 도쿄, 58.

에가미 나미오(1986) 『기마 민족사 국가』, 중앙 신서.

에다후다야마 고분 위원회(1989) 『에다후나야마 고분, 구마모도 현, 다마나 군, 기꾸스이 쬬』.

조원영(2004) 『황강 옥전 그리고 다라국』, 합천 박물관.

창원 국립 문화재 연구소(2004) 『한국 고대목간』, 316(도판 297).

후루이찌 고분군 연구회(1985) 『후루이찌 고분군과 그 주변』, 세쓰가와이즈미 문고.

小林敏男(2001) 「五世紀の前后円墳の動向と稲荷山古墳」, 『積荷山古墳の鐵劍を見直す』, 金井塚良一 編, 學生社.

Kim, Yongduk (2009) “The inscription on the Inariyama Tumulus Sword Revisited: Lord Ko served Baekje King Gaero”, *The*

*Review of Korean Studies*12(4).
Murayama. S and Millar, R.A.(1979) “The Inariyama Tumulus sword Inscription”, *Journal of Japanese Studies*5(2), 405-438.

중국의 조선어규범화사업에 대한 고찰과 소견

Investigation and Suggestions on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Language in China

金永寿[1]
延边大学

1. 서론

조선어는 중국에서는 과경언어로서 중국조선족의 민족언어에 속하고 세계적으로는 조선(한)반도의 조선어(한국어)의 한 갈래로서 조선(한)반도의 언어와 공통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자체의 특수성도 갖고 있다. 1945년 8.15광복 전까지 세계의 모든 조선 (한) 민족은 다 같이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공포한《한글맞춤법통일안》과 1936년에《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에 준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하여 왔기에 조선(한)반도와 중국의 조선어 사이에는 언어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외세에 의하여 조선(한)반도가 분렬되고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민족이 중국의 공민으로 되면서 조선(한국)어는 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명칭도 달라지고 언어에도 일정한 차이가 생기게 되였다.

중국에서는 조선어의 이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동북의 해방초기부터 조선어규범화사업에 중시를 돌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70여년의 력사

1 Yong Shou Jin (Professor, College of Korean Studies, Yanbian University)
E-mail : yj1956111@hanmail.net

를 갖고 있다. 이 규범력사를 대체적으로 1945년부터 1953년까지《한글맞춤법통일안》을 따르던 시기, 1954년부터 1969년까지 조선의 규범을 따르던 시기, 1970년부터 1976년까지 자체의 규범을 모색하고 제정하는 시기, 1977년부터 현재까지 자체의 규범을 제정, 수정하고 실시하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네개 단계에 따라 중국의 조선어규범화사업을 회고하면서 서로 다른 시기의 조선어규범화사업의 특징, 성과, 단점들을 분석하고 중국에서의 조선어사용현황에 비추어 중국조선어 규범화 수정의 방향, 원칙과 구체적인 세칙들을 론의하고저 한다.

2. 중국조선어 규범화사업에 대한 사적 분석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범화사업은 1945년 민간의 자발적인 규범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77년 후의 정부 주도하의 정규적인 규범화사업으로 발전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초창기에는《한글맞춤법통일안》을 따라 조선반도와 별반 차이가 없었고 후에는 조선의 규범을 기준으로 하다가 자체의 규범을 제정하는 단계에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한국어규범의 충격으로 원유의 규범이 흔들리고 통제력이 약화되여 조선어사용에 혼란한 국면이 나타남과 아울러 현유의 규범을 수정, 보완하여야 시기에 처하고 있다.

2.1. 규범화사업의 초창기 (1945년~1953년)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을 맞으면서부터 중국에서의 조선어사용은 일대 흥성기에 들어서서 조선문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매체들이 우후죽순마냥 나타났다. 하지만 1953년까지 새로운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광복전과 마찬가지로 1933년의《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서사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면서 조선어에 대한 규범화사업이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1952년 4월부터 서사어에서 조선을 따라 한자를 폐지하여 한국과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휘사용은 자치주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존어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명확한 어휘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연히 1936년 문세영의《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과 《조선어사전》을 기준으로 하면서 조선문사용 매체들에서 자발적으로 부분적 어휘들을 규범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중국의 조선어가 독자적인 규범체계가 없이 대체적으로 기존의 규범을 따르면서 자발적으로 어휘규범을 하던 시기로서 조선반도와 규범상의 차이가 크게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2. 조선의 규범을 따르던 시기(1954년~1969년)

1954년부터 1969년까지는 중국조선어의 규범화사업으로 놓고 보면 두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체의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로 우리와 사회제도나 리념이 같고 또 서로의 접촉이 빈번한 조선의 규범을 그대로 따랐다. 초기에는 조선의《조선어철자법》(1954)과 《조선어소사전》(1956)을 기준으로 하였고 후에는 《조선말사전(6권)》(1960~1962)과 《조선말규범집》(1966)을 따랐다. 이 시기 중국에서 생기는 새로운 어휘거나 한어에서 차용하는 어휘들은 연변교육출판사, 동북조선인민보사, 연변인민방송국, 민족출판사 등 조선어사용단위들에서 자체로《교열통신》,《업무간보》,《명사통일》,《술어통일》등과 같은 내부간행물을 꾸리고 규범하였는데 통일적인 규범화기관이 없이 각자가 각자대로 어휘규범을 하는 바람에 일부 경우에는 제각기 서로 다르게 규범해 쓰는 폐단도 생기였다. 그리하여 1958년부터는 “연변조선어문연구회준비위원회”(1957.12), “연변언어문자연구위원회”(1962.5), “연변민족어문력사연구위원회”(1963.8)[2] 등 조선어문기관들

2 1964년 10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 력사언어연구소”로 개칭.

을 선후로 설립하고 통일적으로 어휘규범화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또한 "좌"적 로선의 교란으로 어휘규범화 사업에서 두차례나 큰 좌절을 겪었다.

한번은 1958년-1963년 사이에 "반우파투쟁", "반우경투쟁", "민족정풍" 등 정치운동의 "좌"적 영향을 받아 곡절적인 길을 걸었다. 특히 1958년 "전국 제2차소수민족어문과학토론회"[3]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당시 조선문출판보도물에 우리 말의 내적 발달법칙에 맞지 않는 "촨단, 후조, 좐쟈, 공인, 초생, 피발, 경색, 차간, 합동, 성본" 등과 같은 한어 차용어들이 범람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1963년도까지 지속되였다. 1963년 6월,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어문력사연구위원회에서는《연변조선족자치주어문사업잠정조례(초안)》와 《조선어 명사, 술어 제정통일시행방안(초안)》, 《한어음차어표기법방안(초안)》 등을 작성하고 근 2년간의 반복적인 사회조사와 규범화방안에 대한 수차의 수정을 거쳐 1966년 3월에《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화잠정방안(초안)》과 총칙 및 6장, 20항으로 된 《제1차 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의견(초안)》을 작성하여 주내 각 인민공사에까지 발부하였다.

이 《규범화잠정방안》의 출범은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범화의식이 비교적 성숙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규범화 잠정방안은 또 한차례의 좌절로 되는 전례없은 "문화대혁명"으로 하여 얼마 실시되지 못하고 좌절되였으며 조선문 신문, 출판, 방송 등 매체들에 조선어의 어휘규범에 맞지 않는 한어의 차용어들이 대량으로 등장하여 조선어의 정확한 사용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였다.

1954년부터 1969년까지의 규범화사업을 보면 이 시기는 개별적인 어휘규범으로부터 통일적인 규범으로 전이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두 차례의 엄중한 좌절을 겪기는 하였지만 중국조선어의 특수성

3 1958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북경에서 "전국 제2차소수민족어문과학토론회"가 열리였는데 이 회의에서 "지방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소수민족언어들로 하여금 한어와의 "공동성분을 증가"할 것을 요구함.

으로부터 규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선의 규범을 따르면서 중국에서 생긴 새로운 어휘거나 한어차용어들을 조선말의 발전법칙에 맞게 규범하려고 한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2.3. 자체로 규범을 마련하던 시기(1970년~1976년)

이 시기는 중국조선어가 좌절당하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극“좌”적 로선의 산물인 “문화대혁명”의 동란시기로서 1966년에 출범한《규범화잠정방안》이 제대로 실시될 수 없었고 조선어문사업기구들이 취소되고 조선문간행물들이 폐간되였으며 몇개 남지 않은 신문, 간행물들에 또다시 비규범적인 한어차용어들이 홍수처럼 범람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 전시기부터 배태되기 시작한 규범리론과 중국조선어의 규범원칙, 규범세칙들이 작성되였고 부분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중국조선어의 규범을 제정하는 초기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조선어 서사법의 합법칙성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과학성과 대중성을 통일한 《조선말띄여쓰기(초안)》(1969)가 “조선족언어문제 모택동사상학습반”에서 채택되여 1970년 1월부터 우리 나라 조선문 간행물과 출판물들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조선어 규범화사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자체의 규범이 없이 조선의 규범을 따르던 데로부터 독립적으로 중국조선어규범을 제정하는 단계에로 들어선 셈이였다. 이《조선말띄여쓰기(초안)》를 이어 1974년 3월과 5월에 《조선말표준발음법(초안)》과 《조선어철자법(초안)》이 각기 출판되여 중국조선어가 자체의 규범의 틀을 갖추게 되였다.

이 시기는 중국조선어가 처음으로 자체의 규범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당시의 환경에서는 민족언어의 중요성이 살아날 수 없었고 규범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어 조선어의 사용

이 극히 혼란한 상태에 처해있었다.

2.4. 규범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집행하는 시기(1977년~지금까지)

1977년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4]가 성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조선어의 규범화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온당하게 발전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이 해 8월 흑룡강성 해림에서 열린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 제1차 실무회의에서 “조선말표준발음법, 조선어맞춤법, 조선말띄여쓰기, 문장부호법” 4법이 채택되고 11월에 《조선말규법집》(의견청취고, 초고, 시용방안)이 출판되였으며 1983년 8월 할빈에서 열린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 제6차 실무회의에서 채택되였고 1985년 1월에 《조선말규법집》이 정식으로 출판되였다. 이 규범집외에 1978년 12월 동북3성조선어문사업 제2차실무회의에서 언어의 민족화, 대중화, 과학화원칙을 견지하며 새로운 명사, 술어는 조선어의 단어조성법에 맞아야 한다는《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화원칙》과 구체적 방안들이 채택되였다.

1986년 12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사정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규범화사업이 진행되였고 1988년 7월, 길림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 사업 조례》가 채택되고 1989년 8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 조선어문 학습과 사용의 상벌규정》이 반포되면서 중국에서의 조선어문사업은 법적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27차실무회의를 열고 선후로 조선어“4법”규범, 명사, 술어규범원칙, 어휘규범세칙, 방언어휘규범원칙, 자연과학기술용어규범원칙, 한어어휘에 대한 조선어표기법, 외국어표기법, 외래어표기세칙, 지명표기세칙, 법률용어통일안, 정보처리용어통일안, 외국인명표

4 국무원 [1975]49호문건에 의하여 1977년도에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가 성립되였다.

기세칙 등 각항 규범원칙들을 채택하였고 기본어휘를 위주로 하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령역의 1만 2,000개 이상에 달하는 용어들을 규범하였고 1996년에 《조선말규법집(수정본)》을 출판하였다. 2006년 10월 제19차 실무회의에서 "4법"을 "4칙"으로 개칭하고 1996년의《조선말규법집(수정본)》의 부분적 내용을 수정하여 2007년에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편 《조선말규법집》을 출판하였으며 2016년에는 최근 10여년간 조선어사용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에 비추어 2007년의 규범집을 수정, 보충하여 새로운《조선말규법집》을 내놓았다.

이 시기의 규범화사업을 돌이켜보면 중국조선어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한자어, 차용한자어와 방언어휘 규범으로부터 새로운 단어조성법과, 술어통일방향으로 확대하여 어휘규범체계를 세웠고 조선어의 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와 부호법을 제정하여 중국조선어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따라서 전방위적인 규범화궤도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조선어규범화사업에서 상술한 성과가 있는 동시에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부딪치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게 안고 있다. 특히 1992년 중한 수교후 한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방면의 교류가 밀접해지면서 중국조선어의 원유의 규범이 통제력이 약화되고 조선문 신문, 출판, 방송 등 매체들에서 한국어규범을 혼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조선어의 일상언어생활에 적지 않는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조선어규범화사업을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3. 중국조선어 규범화사업의 특징과 존재하는 문제점

중국조선어의 규범화사업은 자발적인 어휘규범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독자적인 규범화체계를 갖추고 집행하며 보완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 사이에 규범집만 하여도 선후 다섯번 수정하여 출판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조선어규범화사업에 얼마나 중시를 돌리

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내용 면에서 한국이나 조선과 다른 아래와 같은 특징적인 것들이 있고 동시에 일부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

3.1. 중국조선어규범화의 특징

첫째, 한자어휘를 망라한 어휘규범을 중점과제로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의 규범 력사를 보면 발음법, 문법 등도 포함되고 있지만 주요한 내용은 어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의 조선어사용은 시종 국가통용어 한어의 강력한 충격 속에 있기에 재래의 한어어휘의 영향은 물론이고 새로운 어휘들을 우리 말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시종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하여 조선말사용에서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는 거의 해마다 한번씩 한자어휘에 대한 규범회의를 열고 조선어에 새로운 한자어휘들을 보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조선과는 차이가 큰 규범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조선족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민족화, 대중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조선어학계에서는 규범원칙을 제정할 때 조선족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세계 조선민족과의 교류에도 리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규범 내용을 보면 조선족의 민족화, 대중화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일례로 중국조선족들 가운데서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 함경도방언에서 “가장치기, 고동마, 굴뱀, 남북골” 과 같은 적지 않은 사투리를 표준어휘로 인상한 것과 한어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중국조선족들 사이에서만 흔히 쓰이는 “개혁개방, 철밥통, 전문호, 당외인사” 등 어휘가 표준어휘로 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국정이 다르기에 이러한 현상들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역시 중국조선어규범의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3.2. 중국조선어규범의 문제점

중국조선어의 규범화사업은 상술한 특징을 갖고 있는 동시에 언어와 규범의 관계 그리고 규범화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

첫째, 규범의 연속성과 점진성 사이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언어행위는 사회적 속성으로 사회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변화되기에 언어행위를 규제하는 언어규범은 반드시 연속성과 점진성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언어행위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언어의 정확한 사용과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헌데 중국조선어의 규범력사를 보거나 출판된 규범집들을 보면 학술용어거나 규범의 순서배렬에서는 약간한 수정이 있었지만 언어의 변화에 따른 적시적인 수정이 제때에 뒤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일례로 1996년의《조선말규법집(수정본)》과 2007년의《조선말규법집》을 들 수 있는데 10년이란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언어규범의 충격과 사회의 발전으로 신어를 망라하여 중국조선어의 사용에는 적잖은 변이가 생겼지만 이 두 규범집에 실린 맞춤법과 띄여쓰기 규범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는 지나치게 규범의 연속성에만 치우치고 변화에 따르는 규범의 점진성이 다소 무시되였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규범의 과학성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조선어규범을 제정할 때 취지는 민족성, 대중성, 과학성을 충분히 살리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규범내용들을 보면 민족성, 대중성은 괜찮게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과학성에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물론 규범에서의 과학성은 언어의 정책성, 경제성, 연속성 또는 사회의 약정속성의 저애를 받으므로 과학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없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1977년도와 같은 시기에 처음으로 중국조선어의 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 부호법을 제정할 때에는 랭전시기였으므로 조선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한국과의 교류도 밀접하고 조선과의 교류도 의연히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조선과 한국의 규범 그리고 중국 현상태의 조선어사용양상을 분석하고 규범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규범계에서는 아직도 어느 규범을 따르느냐의 모순 속에서 방황하며 과학적 연구가 잘 뒤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일례로 띄여쓰기와 사잇시옷에 관한 표기법을 들 수 있는데 조선어의 구조적 특징으로나 발음법의 실질로 보아 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하지만 관습의 영향과 경제성 등 요인으로 하여 과학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4. 중국조선어의 실정에 맞는 규범화 방향과 원칙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국조선어는 규범화사업에서 많은 성과도 이룬 동시에 상술한 문제점들도 안고 있는데 근본적 원인은 중국조선어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따라가지 못하였고 언어규범의 리론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한 데 있다. 따라서 중국조선어사용에서 존재하는 언어적 모순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중국조선어의 성격을 정확히 포착하고 규범원리에 따라 중국조선어의 규범화 방향과 원칙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조선어는 조선반도의 조선어(한국어)와 한 뿌리의 언어인 동시에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하는 조선족의 언어로서 조선반도의 언어와 같은 맥락의 언어이면서 부분적으로 중국의 특색을 갖고 있다.

중국조선어의 규범화사업은 우선 중국조선어의 이 성격과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의 발전조류에 따라 자체의 특색을 살리면서 조선반도 언어와의 공동성분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중국 경내의 조선민족의 언어소통도 념두

에 두어야 할 뿐만아니라 전세계 조선민족과의 교류에 리롭게 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어규범화사업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언어규범의 과학성, 민족성, 대중성, 연속성, 점진성, 정책성 등 규범원리에 맞게 현유의 중국조선어규범을 재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규범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우선, 조선어의 민족성, 과학성에 따라 고유어를 토대로 하는 조선어 어휘체계를 세우고 한어 또는 기타 어에서 어휘를 받아들이는 경우와 새롭게 만드는 명사거나 술어는 조선어의 단어조성법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어휘규범을 하되 될수록 한어원음을 음차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조선과 한국의 규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첫째, 한국과 조선의 규범이 일치한 것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조선어를 한국에서는 한국어, 조선에서는 문화어[5]로 지칭하고 있고 규범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줄기의 언어로서 동질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조선의 규범이 일치한 것은 따로 규범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과 조선의 "규범합의안"[6]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선의 학자들은 1996년도부터 《겨레말큰사전》편찬을 두고 한국과 조선의 차이를 보이는 규범세칙들을 수차 론의하여 자모이름, 자모배렬순서, 띄여쓰기, 문장부호, 형태표기 등을 통일할 데 합의하였다. 헌데 이 합의안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에만 국한되였고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한국과 조선의 현행규범으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한국과 조선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차 론의하고 달

5 1966년 5월 14일에 조선에서는 표준어를 문화어로 개칭하였다.
6 "겨레말 큰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한국과 조선의 학자들이 협의하여 내놓은 언어규범의 통일안을 가리킨다.

성안 합의안으로서 조선반도의 언어와 공동성분을 늘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고 또한 중국조선어의 립장에서 조선반도의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부담없고 과학성이 뒤받침한 방안이기에 이 합의안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현유의 규범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셋째, 한국과 조선의 규범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성원칙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선의 규범을 보면《겨레말큰사전》 편찬을 두고 합의한 부분도 있지만 두음법칙, 사잇시옷과 같은 부분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외래어와 띄여쓰기 세칙 같은 데서도 의연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 이와 같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성원칙 즉 조선어의 법칙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사잇시옷과 같은 문제는 재래의 규범에서 조선을 따르는 원칙에 의하여 부정되였지만 조선어의 사용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언어현상으로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띄여쓰기도 마찬가지인데 언어와 과학기술의 밀접한 접촉은 언어연구의 견지에서나 전산화의 수요로부터 보아도 과학성을 뒤받침한 띄여쓰기로 수정하여야 한다.

넷째, 어휘규범에서 포옹력이 있는 규범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선의 어휘규범에는 차이 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외래어에 대한 태도에서나 똑 같은 사물에 대한 명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에 대해서 협소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니라 포옹력이 있는 규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뉴스”, “스포츠”, “핸드폰”, “샴푸”와 같은 외래어와 조선에서 한자어 또는 고유어로 쓰이는 “소식”, “체육”, “손전화”, “물머리비누” 등과 같은 어휘들은 비록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비슷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어휘들이다. 그리고 학술용어에서도 서로 말다듬기를 달리한 데서 한자술어와 고유어술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접두사”와 “앞붙이”, “어근”과 “말뿌리”, “접미사”와 “뒤붙이” 등은 필경 같은 지시

대상을 갖고 있기에 동의어와 같은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에도 편리하고 한국과 조선과의 교류에도 유리하므로 포용력이 넓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섯째, 정책성, 연속성과 점진성이 조화를 이루는 원칙에서 수정하여야 한다. 언어는 사회적 속성을 가지므로 국정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 우리의 조선어는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로서 중국의 국정에 따라 중국사회를 반영하는 어휘들이 있기 마련이고 력사적 언어전통과 더불어 중국의 인명, 지명 등을 조선어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여 왔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한국의 외국어정책에 따라 한어의 원음으로 표기하고 조선에서는 한자음과 한어원음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중국조선어의 전통으로 보거나 실정으로 보아 한어의 원음으로 표기하면 한어원음에 대한 리해상의 차이로 한국과 꼭 일치하게 표기한다는 보장도 없고 중국조선족의 언어문자생활에 부정적인 요소가 첨가되여 한어와의 동화를 재촉하여 민족의 언어문자를 살리는 데도 리롭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규범의 연속성, 점진성, 민족성 원칙에 따라 계속 한자음을 살리는 방향에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5. 맺는 말

총적으로 필자는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조선어의 규범화사업은 규범의 기본원리를 지키는 전제하에 조선반도의 조선어(한국어)와 공동성분을 늘이는 방향에서 과학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중국조선어의 정확한 사용에는 물론이고 전반 조선민족의 발전에도 리로울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편(1996) 『한국어문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3-36.
김영수(2012) 『중국조선어 규범원칙과 규범세칙 연구』, 인민출판사, 35-38.
김영수(2013) 「규범원리와 조선어규범에 대한 소견」, 『중국조선어문』 4, 5-8.
강은국(2015) 「중국조선어의 규범화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 10-17.
동북삼성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판공실(1996)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1-12.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2016) 『조선말규범집』, 연변교육출판사, 1-80.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편(2007)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1-45.

현진건의 『타락자』와 다야마 가다이(田山花袋)의 『이불(蒲團)』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Hyun Jin-gun's "A ruined man" and Katai Tayama's "Futon"

金英姬[1]
广东外语外贸大学

1. 들어가면서

현진건은 한국 근대소설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근대소설의 확립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작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한국 근대소설이 형성되고 확립되던 1920년대 초기에 1인칭 화자의 고백 형식을 취한 새로운 양식의 소설, 즉 작자 자신을 직접 작품 속에 드러내면서 작자의 내면세계까지 숨김없이 폭로하는 새로운 양식의 소설을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소설은 일본 사소설의 영향 하에 나타났고, 또한 일본 사소설과 비교해 볼 때 문학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사소설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함께 일본 사소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다야마 가다이(田山花袋)의 『이불

1 Ying Ji Jin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 jinyingji72@126.com

(蒲團)』과 현진건의 『타락자』를 비교 분석하면서 현진건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근대소설사의 형성과 확립 과정을 돌아보고 더욱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의 현진건의 문학사적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현진건과 그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는 현진건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 및 비평가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다소간의 관점과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주의 문학인으로서의 사회적, 역사적 측면에서의 조명과 작가의식의 변모 과정, 표현기법 등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대종을 이루었다. 본고는 다야마 가다이의『이불(蒲團)』과 현진건의 『타락자』를 비교하면서 현진건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주로 현진건의 초기 창작과 일본문학의 영향관계를 밝힌 논의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현진건을 비롯한 1920년대 작가들의 작품 차용에 있어서 일본 근대문학의 영향이 다른 어느 나라의 문학적 영향보다 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헌상에는 일본 근대문학과 관련된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이는 당시 작가들이 그것에 대하여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였을 수도 있고(김학동 1997: 123) 또 다른 이유는 일제로부터 받은 과거 36년간의 식민지 비애와 학계에서 크게 지탄받아 온 식민지사관을 극복하려는 반일감정이 크게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우선 현진건의 초기 창작과 일본문학의 영향관계를 논한 논문들로는 정인문(1990)의 「현진건 초기 소설과 일본 문학과의 관련 양상」과 도모나가노리(1988)의 「比較文學的으로 본 田山花袋와 玄鎭健」, 「比較

學的으로 본 岩野泡鳴와 玄鎭健—『墮落者』의 源泉으로서의『耽溺』」(도모나가노리 1981)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정인문은「현진건 초기 소설과 일본 문학과의 관련 양상」에서 일본 사소설의 성립 과정과 정의, 그리고 문학적 특징을 살펴본 후 비교문학적 입장에서 일본 사소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자전적 요소와 1인칭 서술 방식이 현진건의 초기 소설에 어떻게 굴절되고 수용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모나가노리는「比較文學的으로 본 田山花袋와 玄鎭健」,「比較學的으로 본 岩野泡鳴와 玄鎭健—『墮落者』의 源泉으로서의『耽溺』」등 논문에서 현진건과 다야마 가다이(田山花袋), 현진건과 이와노 호우메이(岩野泡鳴)의 영향관계를 밝힘으로써 현진건의 일본문학 수용과 그 양상을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작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교나 논의가 없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다음 이신동(2009)과 전학근(2012)은 학위논문에서 현진건과 중국의 욱달부(郁达夫)의 소설을 비교하면서 일본 사소설의 영향을 논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신동은 박사학위논문「욱달부와 현진건 소설의 비교 연구」에서 주로 이들 작품의 미학적 특징을 일본 사소설과의 관련성 속에서 비교 분석하였고, 전학근은 석사학위논문「현진건과 욱달부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 비교 연구—1920년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일본 사소설과의 연관성 속에서 현진건과 욱달부의 성장배경과 근대체험을 밝힘과 동시에 두 작가의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일본 사소설의 수용과 그 양상, 그리고 나름대로 사소설과의 변별성까지 찾으면서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역시 일본 사소설 작가나 개별 작품과의 비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시피 현진건과 일본문학의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초기 창작과 일본 사소설과의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그의 성장배경이나 초기 작품에서 보여지는 사소설적인 경향에 대해서만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일본 사소설 작가나 그들의 작품을 현진건의 초기 소설과 비교 분석하면서 현진건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이나 그 의미를 보다 깊이있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다. 현진건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가이고 또한 일본 유학 당시 일본에서 성행했던 일본 사소설의 영향을 받고 창작활동을 시작했던만큼 현진건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일본 사소설과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하나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사소설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야마 가다이(田山花袋)의 『이불(蒲團)』과 현진건의 『타락자』를 비교 분석하면서 현진건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진건과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하고 동시에 그의 문학이 지니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 및 사조적 특성 등을 밝히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일본 사소설과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蒲團)』

3.1. 일본 사소설과 그 문학적 특징

사소설은 일본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고 발전된 일본 근대소설의 가장 독특한 형태로서 작가 개인의 생활체험과 그 생활체험에서 느꼈던 감정과 정서를 작가의 내면세계에 국한시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폭로하는 자기고백체의 소설을 말한다.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는 사소설의 개념에 대하여 “사소설은 작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체험을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소설로서 자기의 생활기록에 기탁하여 인생관과 생활태도를 표현하는 시야가 좁은 일본의 독자적인 소설 양식(박재범 1995: 327, 재인용)”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니자끼 세이지(谷崎精二)가 "대정(大正)시대 이후의 작가들 가운데서 자기소설을 쓰지 않은 작가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谷崎精二 1974: 640)”라고 언급할 정도로 사소설은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지하다시피 사소설은 일본 문인들이 서구로부터 자연주의를 수용

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여 그후 대정시대(大正時代, 1912~1926)를 거치면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주의는 유럽에서 사실주의 뒤를 이어 등장한 문예사조로서 실증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문예창작의 기본원칙을 자연이라 보면서 창작 활동의 근거를 자연에 두어야 한다는 문예이념이다. 자연주의는 졸라(Zola)에 의해 체계화되고 확립되었는데 그는 과학자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과 사회의 모든 현실에 대해 절개 수술하되 화학자나 물리학자가 무기물을 대하듯, 그리고 생물학자가 유기체를 대하듯이 자연과학 실험 이론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며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졸라의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자연과학적 실험론을 문학에 적용하려 한 것이 바로 자연주의이다.

서구의 자연주의가 인간과 사회현실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한 데 반하여 일본에서는 특수한 사회적 요인[2]으로 인해 개인의 신변과 내면세계만 깊이 파고드는 풍조만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자아의 내면을 폭로하는 고백문학으로 변용된 일본의 자연주의는 작가의 내면으로 문제의 핵심을 끌어들였다. 자연주의의 시선은 거울과 같아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 거울이 작가의 내면투사용으로 전용되어 작가 자신의 내장을 찍는 내시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자연주의 소설은 그 대상이 주로 주인공 개인의 삶과 행동, 심리 등의 노출과 해부에만 머물게 되었고 또 이러한 자연주의 소설의 흐름 속에서 그 대상을 작가 자신의 생활과 심리 등 내면세계에 국한시켜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한 사소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박재범 1995: 329).

『중국현대소설사(中國現代小說史)』(趙遐秋・會慶瑞 1987: 462-463)에서는 사소설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 설명함으

2 명치시대는 실증주의가 부재한 풍토에서 중공업이 개화한 시대였고 공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민사회였으며 국가 지상주의와 개인 존중 사상이 공존하면서 봉건적인 정신주의와 상업주의가 병립되어 있던 복합적인 시대였다.

로써 사소설의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사소설은 “나”를 예술적 기초로 간주하고 작자 자신의 생활의 재현을 강조하면서 작자의 생활과 작품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한다.

둘째, 사소설은 이상을 배척하고 외부 사건에 대한 묘사를 중시하지 않으며 다만 작가의 심경에 대한 노골적 묘사만 중시한다.

셋째, 노골적인 심경묘사는 자연주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는 작가의 사생활과 사생활 중의 육욕적 고뇌, 그리고 관능적 자극 및 변태적 성심리를 폭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허위적인 도덕성에 대해서도 추악 폭로적 색채를 띤다.

보다시피 일본 사소설의 특징은 바로 작가가 작품 속에 거짓을 섞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생활체험을 담으려 했다는 점, 적어도 독자로 하여금 그것이 전적으로 작가의 실생활이라고 믿게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사소설은 신변적인 것으로 제재를 국한시킨 결과 작품 세계가 협소하고 사회성 및 시대의식이 결여되었으며 풍속성 내지 작가 정신이 희박한 등 결함을 지닌 장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결함들은 작가라는 한 인물의 내면묘사에 전념한 사소설의 자전적 성격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결과이다. 작가의 자아편집의 성향은 객관주의의 성숙을 저애하였고 허구 부정의 경향은 소설을 수필적인 경지로 몰고 갔으며 성과 본능에 대한 과장된 폭로는 인성을 직시하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3.2. 사소설로서의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蒲團)』

다야마 가다이(田山花袋, 1872~1930)는 명치(明治1868~1912) 말기부터 대정(大政, 1912~1926) 초기에 걸쳐 일본문단에 큰 영향력을 미친 작가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서구의 자연주의문학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일본적 자연주의를 수립했다는 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까무라 미쯔오(中村光夫)가 『풍속소설론(風俗小說論)』에서

“일본의 자연주의문학과 그에 이어서 문단의 주류를 이룬 사소설의 정형은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蒲団)』에 의해서 만들어졌다.(中村 1997: 26)”라고 평가한 것처럼 『이불(蒲団)』은 시마자끼 도오손(島崎藤村)의 『파계(破戒)』(1906)의 뒤를 이어 일본의 자연주의 소설을 확립시키며 동시에 사소설의 효시(嚆矢)를 이룬 작품으로서 일본 자연주의가 자전적이며 사생활 고백 쪽으로 흐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불』은 일본 문단에서 최초로 여제자에 대한 애욕 때문에 고민하는 작자 자신의 체험적 사실과 내면세계를 대담하게 고백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불』은 모두 11개 장으로 구성된 중편소설인데 가정이 있는 중년 작가가 문학공부를 하려고 찾아온 여제자를 만나면서 그녀한테서 연정을 느껴 고민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테면 주인공 다께나까 도끼오(竹中時雄)는 34살의 문학가로 단조롭고 우울하게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 자식이 셋이나 딸린 한 집안의 중년 가장이다. 그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에 권태를 느끼면서 어느 서적 회사의 청탁으로 지리서 편찬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기회가 되면 소설다운 소설을 써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열애를 통하여 가정이나 직장의 모든 생활을 바꾸고 싶어한다. 이렇게 한창 무엇인가 변화를 꾀하고 싶어하던 도끼오가 어느날 고베에서 사는 요꼬야마 요시꼬(横山芳子, 19세)라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제자가 되어 열심히 문학공부를 해 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며, 결국 그 여학생을 제자로 받아 들이면서 그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요시꼬에게는 이미 애인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또한 전통적 도덕의 벽을 깰 용기가 없었다. 요시꼬에 대한 사랑을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게 된 도끼오는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것처럼 처신하지만 암암리에 요시꼬를 감시하면서 그녀와 애인 사이의 사랑을 방해한다. 이렇게 소설은 도끼오의 어두운 내면세계까지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동시에 말 못할 사랑으로 하여 괴로워 술을 마시고 울분과 고통을 토로하는 도끼오의 취중 추태, 그리고 요시꼬가 떠나가자 그녀

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쓰던 이불을 끌어안고 그녀의 체취를 맡으면서 흐느끼는 주인공의 가련하고 추한 모습 등을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작품 속의 주인공 도끼오가 바로 다야마 가다이의 화신이라는 점이다.

다야마 가다이가 『이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세상과 싸우는 동시에 나 자신과도 용감하게 싸우려고 생각했다. 숨겨두었던 것, 덮어놓았던 것, 그것을 털어놓으면 자신의 정신도 파괴될 것처럼 생각되는 것, 그러한 것도 드러내 보이려고 생각했다.(양연실 2006: 8, 재인용)[3]" 라고 밝힌 것처럼 다야마 가다이는 『이불』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력과 비밀까지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불』은 다야마 가다이가 실제로 있었던 여제자 오까다 미찌요(岡田美知代)와의 사건을 용기내서 있는 그대로 쓴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 다께나까 도끼오(竹中時雄)는 다야마 가다이 자신이고, 요꼬야마 요시꼬(横山芳子)는 실제 인물 오까다 미찌요(岡田美知代, 1885년 4월 10일생, 히로시마현 출신)로서 다야마 가다이의 다른 소설 『아내(妻)』(1908)와 『인연(縁)』(1910)에서도 요시에 데루꼬(吉江てる子), 기노시다 도시꼬(木下敏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다야마 가다이는 1903년(명치36) 6월부터 오까다 미찌요와 편지로 왕래하다가 1904년(명치37) 2월 말에 그녀가 상경하여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하는 아내 때문에 그해 3월에 다야마 가다이는 그녀를 누님 집으로 옮기게 된다. 1905년(명치38) 9월 나가요 시즈오(永代静夫)의 상경으로 오까다 미찌요는 다시 그의 집으로 오게 된다. 그 후 1909년(명치42) 1월 다야마 가다이는 그녀를 양녀로 입적했다가 1917년(대정6) 2월에 다시 이적(離籍)하게 된다(金殷主 2005: 24).

이렇게 『이불』은 다야마 가다이가 실제 있었던 여제자와의 관계를

3 田山花袋(1995:159), 「東京の三十年」,『田山花袋』, 日本図書センター」

직접 고백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문단에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작자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력과 암울한 심경에 대한 노골적인 폭로는 유교적 도덕이 근엄히 지켜지고 있던 1900년대 당시 사회현실에서는 그야말로 놀랍고 파격적이고 반동적인 것이었다. 그 후『이불』은 일본 자연주의 소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불』이 발표되면서 일본 자연주의문학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바 미추의 관념을 떠나 작자 자신의 실제 체험으로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붐이 일었다.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이 던진 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간 이유는 그것이 일본인의 적성에 맞는 예술양식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자신의 내면을 피력하는 일이 금기시되었던 당시 사회현실에서 이러한 자기 폭로의 풍조는 독자들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현진건의 초기 창작과 일본 사소설

현진건은[4] 1900년 음력 8월 9일 당시 대구의 우체국장을 지내던 부친 현경운 씨와 모친 이정효 씨 사이에서 4남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는데 열한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내면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의 형제들은 모두 출중하였는바 이를테면 큰형인 홍건(鴻健) 씨는 러시아 사관학교 출신으로 러시아 대사관의 통역관으로 근무하였고, 둘째형 석건(奭健) 씨는 일본 명치대학 출신으로 대구, 진주 등지에서 변호사로 활약하였으며, 그리고 빙허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셋째형 정건(鼎健) 씨는 1928년 중국 상해 한인청년동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인청년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평양에서 옥사하였다.

4 현진건의 생애에 관한 내용은 최원식(1974)의 「현진건 연구」, 윤병로(1993)의 「현진건」, 이영식(1975)의 「현진건 작품 연구」, 이재민(1973)의 「새 자료로 본 빙허의 생애」을 참조하였음.

이러한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은 훗날 그의 문학창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진건은 1915년 16세 되던 해 고향에서 자기보다 2살 위인 대구 부호로 이름난 이길우의 딸 이순덕과 중매로 결혼한 후 도일(渡日)하여 동경의 성성중학(成城中學)에 입학하였다. 1917년 성성중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그 이듬해 상해로 건너가 호강대학 독일어 전문부에 입학하였으나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게 된다. 귀국 후 20세 되던 1919년 오촌 당숙인 보운 씨에게 입양되어 아내와 같이 양부(養父) 보운 씨 집에서 양모(養母)를 모시고 서울 살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상화, 이상백, 백기진 등과 교우하여 작문지 『홰불』을 만들면서 문학에 뜻을 두게 된다. 그러다가 1920년 5월 『개벽』에 처녀작 『희생화』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특히 1921년에 발표한 『빈처』로 문단의 호평을 받아 작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게 된다. 그 후 박종화, 홍사용, 나도향, 박영희 등을 중심으로 한 『백조』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 등 소설작품들을 연속 발표함으로써 백조파 작가들 중에서도 큰 각광을 받게 된다.

현진건의 이러한 초기 창작활동은 그의 유학시기 즉 문학 수업기인 1915-1917년, 당시 일본 문단을 휩쓸고 있던 사소설의 영향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다. 이를테면 현진건은 일본에서 사소설의 영향을 받아 작가적 기초를 닦게 되는데 특히 이와노 호우메이(岩野泡鳴)와 다야마 가다이(田山花袋)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와노 호우메이는 일본 자연주의 작가들 중에서도 성욕묘사에 가장 과격하였던 작가로서 일찍 반수주의(半獸主義)적 육욕의 갈등을 다루어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현진건의 『유린』과 『지새는 안개』와 같은 일련의 작품에서 나타난 치밀하면서도 과격한 성욕묘사의 장면들은 이와노 호우메이의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현진건은 다야마 가다이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이를테면 다야마 가다이의 『슈세끼헤이몬의 최후(重石衛門の最後)』를 모방하여 『불』을, 『생』을 모방하여 『할머니의 죽음』을,

『아내』를 모방하여 『빈처』와 『술 권하는 사회』를 창작하게 된다(도모나가노리 1988: 388).

이렇게 현진건은 일본 사소설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의 영향을 받아 손쉽고도 충실한 소재인 자기 주변의 신변사를 작품화하면서 작가적 기초를 닦게 되는데 그의 『빈처』와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 등 초기의 자전적 신변소설들은 작자 자신의 실제 생활체험들을 반영하여 더욱 주목된다. 즉 현진건이 어린 청소년 시기에 청운의 꿈을 안고 아내와 헤어져 일본과 중국을 전전하면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공부를 중단하고 귀국하게 된 상황과 식민지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던 모습, 그리고 나라를 잃은 통한을 술로 소일하면서 실망과 괴로움에 방황하다가 결국 술집과 기생집을 편답하던 자신의 신변사를 모두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다.

5. 현진건의 『타락자』와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蒲団)』 비교

5.1. 『타락자』와 『이불』의 유사점

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은 일본 사소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소설로서 일본 자연주의가 자전적이며 사생활 고백 쪽으로 흐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다. 따라서『이불(蒲団)』에는 사소설의 문학적 특징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바 작품 전편에는 작자의 실제 생활체험이 그대로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와 폭로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불』의 이러한 사소설적인 특징에 비추어 『타락자』의 사소설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작품에 투영된 자전적 신변요소

『이불』은 비록 아내도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한 중년 작가가 젊은 여제자를 사랑하여 고민한다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주인공과 제자 사이의 사랑이야기가 아닌 작자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직접 고백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 도끼오의 상황이 바로 다야마 가다이 자신의 것이라는 말이 되겠다. 다야마 가다이는 실제로 명치 35년 6월 다른 도시로 이사하였으며, 작품 중의 요시꼬는 미찌요로서 실제로 그녀는 1904년 2월에 상경하여 다야마 가다이 집 2층에 머물러 있은 적도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한 아내 때문에 누님 집에 그녀를 옮기고는 이 문제에 얽힌 괴로움을 더는 한 방법으로 박문관 파견의 사설 제2군 종군사진반 주임으로 종군할 결심까지 하였다고 한다.

현진건의 『타락자』도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춘심이라는 기생을 만나 사랑에 빠져들어 가정에 불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병까지 얻어 아내와 태아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좌절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작자 자신의 신변사와 심경을 고백하여 더욱 주목된다. 이를테면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주인공은 갑자기 오촌 당숙이 별세하는 바람에 그의 입후(入後)가 되어 유학을 포기하고 중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 나의 유일한 벗은 서책뿐이었다. 나에게 위안을 주고 오락을 주는 것은 지식뿐이었다. 공부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술궂은 운명은 그것을 훙뎅이 치고 말았다. 불의에 오촌 당숙이 별세 하시여 나는 그의 入後가 아니 될 수 없었다. 80이 넘은 증조모님의 홀손자가 되고 30세 남짓한 당숙모님의 외아들이 되고 말았다(현진건 2006: 103).

이는 현진건이 실제 유학 중 당숙 보운 씨가 불의에 별세하자 폐학하고 돌아와 입후가 되어 80세가 넘은 증조모와 30세 남짓한 당숙모를 모시게 되었던 피치 못할 사정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 “나”는 꿈과 기대가 무산되자 자포자기하다가 새로운 꿈이나 기대처를 찾아 방황하면서 결국 공부와 아내, 술로 얻지 못하는 어떤 감동과 삶의 위안을 기생-춘심에게서 얻으려 한다.

> “이름이 무엇?”
> “춘심이야요.”
> “고향이 어디야?”
> “○○이야요.”
> 나는 먼저 그가 나와 한 고을 사람임을 기뻐하였다(현진건 2006: 109-110).

> 마음의 방축은 그만 터지고 말았다. 유혹의 흐름은 거리낌 없이 밀렸다. 이 물결 가운데는 싸늘한 이지와 뜨거운 감정이 부딪고 마주쳤건만 이지는 흔히 쩔쩔 끓는 열수에 넣은 얼음조각 모양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을 잊고 나는 종종 춘심을 방문하였다(현진건 2006: 160).

위의 인용문은 현진건이 22세 때 대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방골 기생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실과 거기에서 실제로 “춘심”이라는 기생의 유혹을 받아 한때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다(이재민 1973: 358).

그밖에 주인공 “나”의 신분, 즉 20대의 젊은 지식인으로 “○○사”에 다닌다는 설정도 현진건이 1920년에 조선일보사에 입사했던 것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 “나”와 현진건은 외모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로부터 현진건이 자기의 실제 체험을 소설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골적인 묘사

다야마 가다이는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움과 작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소박함과 자연으로의 무한한 지향성을 추구하였다. 그는 평론 「노골적인 묘사(露骨なる描写)」(1904)에서 "무엇이든 노골적이어야 한다. 무엇이든 진실되어야 한다. 무엇이든 자연 그대로여야 한다…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리 부자연스럽더라도 써라. 그건 사실이니까.(金殷主 2005: 5, 재인용)[5]"라는 본능을 중요시하는 자기 나름의 관점을 제기하였다. 그가 주장한 "노골적인 묘사"는 소설이라는 장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는데 다야마 가다이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사소설 형식을 형성시킨 이유도 이에 다름이 아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창작된 소설작품이 바로 그의 출세작 『이불』이다.

『이불』은 대단한 스케일은 아니지만 묘사법이 이전의 로만적인 작품과는 전혀 다른 자연주의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자연의 밑바닥에서 횡령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발로되는 성욕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여 연정이 고조되어 가는 것을 "자연의 힘이 이 몸을 압박하는 것과 같이…", "생식의 힘은 한창 나이의 여자를 유혹하기에 주저치 않는다.", "자연의 가장 으슥한 데 감추어진 암흑한 힘에 대한 염세의 정이 지금 가슴을 뭉클 엄습해 왔다." 등과 같이 묘사하면서 연애가 열화같이 불타오르다가 점차 시들어가는 과정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조락해 가는 식물의 생태와 같은 자연의 힘의 작용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제자를 고향에 보낸 후 그녀가 사용하던 침구를 내어 놓고 느끼는 걷잡을 수 없는 성욕의 충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도끼오는 그것을 꺼내었다. 여자의 그리운 머릿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말할 수 없이 도끼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눈에 띄게 때가 탄 비로도의 이불깃에 얼굴을 지그시 누르고 그리운 여자의 냄새를 마음껏 들이 마셨다. 성욕과 비애와 절망이 걷잡을 새 없이 도끼오의 가슴에 엄

5 田山花袋(1968:201),「露骨なる描写」,『田山花袋集』, 金殷主(2005:5), 「다야마 카타이 (田山花袋)의 『이불 (蒲團)』에 나타난 주인공의 심리묘사」, 嶺南大學校 碩士論文에서 재인용.

> 습해 왔다. 도끼오는 그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차갑고 때묻은 비로드 동정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田山花袋 2003).

이렇게 『이불』은 주인공의 성적인 감정과 체험을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극히 대담하고 획기적인 것이다.

『타락자』도 『이불』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주인공이 기생 춘심이를 사랑하여 느끼는 감정과 성적 충동을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자석에 끌리는 쇠끝 모양으로 우리 둘의 사이는 점점 다가들어 갔었다. 나의 손은 그 부드러운 살에 대기 전에 먼저 그 보들보들한 옷자락에 더할 수 없는 쾌미를 맛보았다…(현진건 2006: 116)
> 그 아름다운 입술이란! 모든 것을 잊고 열렬한 키스를 하고 싶었다…자릿자릿 눌리는 가슴이란! 나는 황홀했다…그 부드러운 입술이 나의 귀를 스칠듯 말듯하며 달콤한 키스를 주었다…나의 입술은 무슨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이 근질근질 하였다(현진건 2006: 117-124).

명월관에서의 상봉을 계기로 주인공은 다시 춘심이를 찾아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데 그때의 감정과 충동을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다.

> 나는 마치 그의 가슴의 사랑을 파악하려는 것처럼 그를 휩싸안았다. 나는 그의 가슴의 온미와 고동을 느끼었다. 마치 그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속살거리는듯 하였다. “나는 다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날과 같이 따뜻합니다. 나의 숨은 아주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맥이 뜁니다. 오오 나를 덥혀주세요, 복돋워주세요.(현진건 2006: 151)”
> 피를 뿜는듯한 언언구구(言言句句)가 단 쇠끝 모양으로 나의 가슴에 들어박혔다. 따근따근한 고통을 느끼면서 신랄한 쾌감을 맛보았다. 나도 그를 지근지근 물어주고 싶었다. 물지는 못할 지언정 나의 입술은 그의

> 입술을 열렬하게 빨고 있었다. 그 위에 핀 키스의 꽃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것처럼... (현진건 2006: 166-167)

보다시피 『타락자』도 주인공 "나"의 성적 충동과 감정을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 『이불』의 주인공 도끼오는 미모의 젊은 여제자 요시꼬에게 넋을 잃고 있다가 요시꼬의 애인 다나까가 상경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이번 여름방학에 스마에서 서로 만났을 때부터 육체관계를 맺어, 교토에서의 행위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고, 이번도 그리움에 못 이겨 여자 뒤를 쫓아 상경한 것인지도 모른다. 손을 잡았겠지. 가슴과 가슴이 서로 접촉했겠지, 남이 보지 않는 여관방 이층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아. 더러워지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도 순간이다(田山花袋 2003).

연령이나 자신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흥분하는 중년 남자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타락자』도 아내가 춘심이의 사진을 찢었을 때, 그리고 춘심이가 김승지의 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실성하여 미쳐 날뛰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아내가 그의 사진을 찢었을 때 참혹히 죽은 시체를 본 것처럼 간담이 서늘했다. 칼로 에여내는 듯한 슬픔을 느끼었다. 그러자 뒤미처 불덩이 같은 의분이 치받쳐 올랐다. 나는 아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독하게 소리를 질렀다. 분노는 비등하였다. 나는 성을 어찌할 줄 몰라 침을 부글부글 흘리며 더듬거렸다. 허파가 벌컥 뒤집히는듯 하였다. 숨이 콱 막힘을 느끼자 문득 때 아닌 눈물이 핑그르 눈초리에 넘치였다..." 둘도 없는 나의 애인이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그

> 하나뿐이다, 참 착한 여자이다. 어진 여자이다. 말이 기생이지 참말 지상 선녀이다. 나는 그에게로 가련다. (현진건 2006: 172)"

> 나의 피는 혈관에서 불을 피우며 미쳐 날뛰었다. 어떻게 생긴 놈인지 상판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춘심의 앞에서 보기 좋게 모욕해 주고 싶은 잔혹한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 "어제 살림 들어갔어요."라는 말은 비수같이 나의 심장을 찔렀다. 이때야말로 어안이 벙벙하여 한동안 화석과도 같이 우두커니 서있었다.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꺼지는 듯하였다. 눈앞이 캄캄하였다. 집 잃은 어린애나 같이 속으로 울며불며 거리로 방황하였다(현진건 2006: 173).

이렇게 『타락자』도 질투심과 분노로 절망하고 방황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노골적으로 대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이불』과 『타락자』는 모두 작자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인공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느끼는 사랑과 성적 충동을 감상성과 노골적인 묘사로 대담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작품이 아무리 다야마 가다이와 현진건의 생활경력과 체험이 표백된 자전적인 소설작품이라 하더라도 주인공 도끼오와 "나"가 곧 작자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다야마 가다이 자신이 실제로 여제자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명상이나 질투로 괴로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불』에서의 도끼오가 제자 요시꼬에 대한 감정은 그의 생활의 전부인 것이다. 다만 다야마 가다이는 여제자를 둘러싸고 그의 내부를 휩싸고 도는 여러 가지 정념이나 고뇌를 여제자에게 밀착하여 체취도 같이 하는 주인공 도끼오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하나의 스토리로 전개시켰을 뿐이다. 이는 『타락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현진건이 실제로 대구에서 기생 춘심이와 가깝게 사

귀었다고는 하지만 작품에서처럼 성병에 걸릴 정도로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현진건도 다야마와 마찬가지로 당시 자기의 상황과 심경을 작품에 확대하여 하나의 스토리로 전개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불』과 『타락자』는 모두 작자 자신의 신변에서 취재하여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랑과 성적 충동을 노골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두 작품은 내용과 표현기법, 그리고 제재 선택 등 면에서 많은 비슷한 점을 보인다. 두 작품이 공유하는 점이 이렇게 많게 된 것은 바로 현진건이 일본 유학 당시 일본 문단에 만개되었던 사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타락자』에는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의 흔적과 자취가 많이 남아있다.

5.2. 『타락자』와 『이불』의 차이점

첫째, 『타락자』는 『이불』과 달리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불』은 전형적인 사소설로서 그 소재가 주인공의 내면으로 한정되었는바 주로 주인공 도끼오의 침울한 내면과 비도덕적인 영혼, 그리고 여러 가지 추태들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자기 표백을 시도한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작품에는 이야기가 발생하는 사회정치적 풍토나 시대적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서술은 일절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타락자』는 작자의 내면세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현진건만의 사회적 관심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체험의 반영이 아니라 자기 경험의 일부를 통하여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의 강한 민족의식과 지식인의 단면을 그려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불』은 다만 젊은 여제자에 대한 주인공의 모순된 감정과 성적 충동, 그리고 그로 인한 고민과 방황을 아무런 가식이 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한 데 반하여 『타락자』는 3.1 운동 직후의 암울한 사회상황과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았던 지식인으로서의 작자 자신의 고뇌에 찬 모습, 특히 현실에 적응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기생과 사랑에 빠져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작자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지식인의 추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의 이러한 고뇌와 고통, 절망과 울분 등은 식민지 치하라는 당시 정치, 사회현실과 직결되어 있어 『타락자』는 『이불』보다 사회성과 시대성이 더 짙은바 당시 한국의 사회상황과 시대적 배경은 물론 지식인들의 생활과 추구 등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둘째, 『타락자』는 『이불』에 비해 인물 성격의 형성 과정이 보다 뚜렷하며 스토리 전개 또한 곡절적이고 완정하다.

이를테면 우노고오지(宇野浩二)가 「시시한 세상이야기」에서 사소설에 대해 "무턱대고 '나'라는 영문을 모르는 인물이 나오고 그 사람의 용모는 물론 직업도 성격도 일체 설명되지 않는다. 소설 속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가 하면, 묘한 감상 같은 것만 나열되어 있다.(전학근 2012: 28-29, 재인용)"[6]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불』은 전형적인 사소설로서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현실 같은 것은 밝히지 않고 다만 주인공의 일상생활의 단편과 심경을 주로 담아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작자 자신의 신변잡사와 내면세계에 대한 토로가 주를 이룬다는 말이 되겠다. 따라서 소설에는 주인공 도끼오가 작가라는 신분만 밝혀져 있을 뿐이 작품의 시대배경이나 주인공의 사회적 위치, 경력, 경제적 상황이나 기타 가족관계는 물론 주인공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주장을 지니고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소설에서 전개되는 사건도 사회와 동떨어져 있고 그 사건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의 내면만이 그 형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스토리도 없고 사건도 없다는 말이 되겠다. 하지만 『타락자』는 전통적인 소설의 구성형식에 따라 보다 완정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동시에 그 스토리 발전 과정에서 강한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진출을 꿈꾸지만 그 꿈이

6 우노 고오지(宇野浩二, 1920.9), 「시시한 세상이야기」, 『중앙공론』, 전학근(2012:28-29), 「현진건과 욱달부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 비교 연구-1920년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재인용.

좌절되자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현실에서의 도피처를 술과 여자에게서 찾다가 결국 여자의 배신으로 타락해 가는 젊은 지식인의 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타락자』 는 『이불』에 비해 인물성격의 형성 과정이 뚜렷하며 스토리 발전 과정도 보다 곡절적이고 완정하다. 특히 『타락자』는 1920년대 초 일제 식민지 시대 한국 지식인들의 고뇌와 좌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동시에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자학만 있을 뿐 현실을 개혁해 나가려는 굳은 의지와 적극적인 저항의식이 부족한 나약한 지식인-타락자의 형상을 창조하여 더욱 주목된다.

6. 나오면서

본고는 일본 사소설의 문학적 특징에 비추어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과 현진건의 『타락자』를 비교 분석하면서 현진건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진건은 일본 유학시절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을 비롯한 일본 사소설의 영향을 받아 창작활동을 시작했던만큼 『타락자』는 일본 사소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자전적 색채가 극히 짙다. 따라서 작품 전편에는 작자 자신의 실제 경력과 체험이 많이 깔려있는가 하면 또한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세계에 대한 대담하면서도 노골적인 묘사도 아주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진건의 『타락자』가 소설의 내용과 표현기법, 그리고 제재 선택 등 여러 면에서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과 많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두 소설작품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불』은 일본의 전형적인 사소설로서 주로 주인공의 침울한 내면과 비도덕적인 영혼, 그리고 각종 추태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발생하는 사회적 풍토나 시대적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서술은 일절 생략되어 있다. 하지만 『타락자』는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사회성과 시대성을 담아냄으로써 소설에는 1920년대 초 식

민지 하에서 한국 지식인들이 겪은 불화와 갈등, 좌절과 타락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진건은 당시 한국의 시대상을 바탕으로 일본 사소설의 표현수법을 창조적으로 응용하여 사소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전적 신변소설을 창작했다는 말이 되겠다. 현진건이 사용한 자전적 서술 방식은 진실된 자기의 폭로를 통하여 한 시대 청년들의 고민을 폭로하였는데 이는 당시 지식인의 인생과 사회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현진건의 『타락자』와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현진건은 일본 유학시절 일본 사소설을 접하고 이를 수용하여 독특한 창작개성으로 자기의 신변사를 소설화하면서 한국 근대문학사에 자전적 신변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 형성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근대소설사적 의미와 가치를 구명하는 데도 실제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인숙(1987) 『자연주의 문학론』, 서울: 고려원.

金殷主(2005) 「다야마 카타이 (田山花袋)의 『이불(蒲團)』에 나타난 주인공의 심리묘사」, 嶺南大學校 碩士学位論文, 5, 24.

김학동(1997) 『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23.

김효자(1982) 「일본 사소설의 성립요인과 그 주제의식」, 한국 일본학회.

도모나가 노리(1988) 「比較文學的으로 본 田山花袋와 玄鎭健」, 『日語日文學研究』(2), 388.

도모나가 노리(1981) 「比較學的으로 본 岩野泡鳴와 玄鎭健-『墮落者』의 源泉으로서의 『耽溺』」, 『日語日文學研究』(2)

박미희(1989) 「현진건의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범(1995) 「郭沫若, 郁達夫의 身邊小說과 日本의 私小說」, 『중국어문논총』 (18), 327-329.
변태수(1982) 「현진건문학에 나타난 사회성 고찰」,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연실(2006) 「다야마 카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團)』 연구-고백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상현(1994) 「일본 사소설의 이론과 유형」, 『비교문학(19)』
윤병로(1993) 「현진건」, 『한국현대명작총서』(3), 서울벽호.
이등정 외(1997) 『일본 사소설의 이해』, (한림신서 일본학 총서 34), 서울: 소화.
이신동(2009) 「郁達夫與玄鎭健小說的比較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식(1975) 「현진건 작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민(1973) 「새 자료로 본 빙허의 생애」, 『문학사상』, 358.
이재선(1973) 「개인과 사회의 갈등」, 『문학사상』(7)
전학근(2012) 「현진건과 욱달부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 비교 연구-1920년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인문(1990) 「현진건 초기소설과 일본문학과의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10).
최원식(1974) 「현진건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진건(2006) 『타락자』, 『현진건 단편 전집』, 도서출판 가람기획, 103-173.
趙遐秋 · 會慶瑞(1987) 『中國現代小說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462-463.
田山花袋(2003)『蒲團』, 岩波书店, 오경 역(2004), 『이불』, 소화, 39-40, 125-127.
谷崎精二(1974)「葛西善藏論」, 『葛西善藏全集』, 津輕書房, 640.
中村光夫(1997)『일본 私小說의 이해』, 유은경 역, 소화, 26.

김학철(金學鉄), 그 생애와 문학

Kim Hakchol －His Life and Literature

大村 益夫[1]
早稲田大学

1. 생 애

김학철은 중국에서 한족(漢族)과 함께 일본과 투쟁한 항일전사이며, 제2차대전 후 한국・북조선에서 짧은 생활을 보낸 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족 작가로서 활동했으나, 사상 투쟁으로 인해 24년간 집필을 금지당했으며, 금지 조치 해제 후엔 방대한 저작들을 남겼다.

김학철은 1916년 11월 4일, 조선 함경남도 원산부(元山府) 남산동(南山洞) 96번지(현재 원산시)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가업은 누룩제조업이었다. 당시 이름은 홍성걸(洪性杰). 6세 때 부친이 사망한 후 누이동생 성선(性善), 성자(性子)와 주로 조모 슬하에서 자랐다. 8세 때 원산제2보통학교 입학. 4학년 시절부터 『킹』, 『소년구락부』를 읽었다. 한자에 독음이 달려 있어 읽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6학년 무렵, 원산 항만파업을 접하게 되는데, 일본인 노동자가 조선인 파업에 응원을 보내는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느꼈다 한다.

1929년 4월, 경성보성고등보통학교 입학. 모친의 친정인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69번지(1989년11월, 39년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무렵, 필

1 Masuo Omura (Prof. Emeritus, Waseda University)
E-mail : momuramasu@gmail.com

자와 함께 관훈동을 걸으며 확인)에서 살았다.
이 해,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했으나 용케 검속을 피했다. 1931년 「만주사변」 발발에 이어 그 다음해인 1932년 4월, 윤봉길의 상해 홍구공원 폭탄사건이 터지자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1934년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해 상해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하여, 석정(石正: 尹世胄)밑에서 반일 지하 테러활동에 종사한다.

1936년 테러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조선민족혁명당에 입당하여 김약산(金若山:金元鳳)휘하에 들어간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호북성(湖北省) 강릉중앙육군군관학교(교장 장개석)에 입학. 당시 교관으로는 김두봉(金枓奉), 한빈(韓斌), 석정(石正), 왕웅(王雄), 이익성(李益星) 등이 있었다. 동기생에 김학무(金学武), 김창만(金昌満), 이상조(李相朝), 문정일(文正一) 등이 있었다. 제2차 국공합작기를 맞아서는 김두봉 등의 영향으로 마르크스주의자가 된다.

1937년 7월, 중앙육군군관학교를 졸업(졸업 직전 중일전쟁 발발)하고 소위로 국민당군에 배속된다. 10월, 무한(武漢)에서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의 전신) 제1지대에 배속된다. 대장은 김원봉(金元鳳). 부대 상부에 주은래(周恩来), 곽말약(郭沫若)이 있었다.

1939년, 호남성(湖南省) 북부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선전활동을 전개하다가 후일 호북성으로 옮긴다.

1940년 8월 29일, 중국 공산당에 입당.

1941년 초, 조선의용대 제1지대원으로 낙양(洛陽) 일대 전투에 참전. 여름 무렵 신사군(新四軍)을 거쳐 팔로군 관할지역에 투입되어,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제2분대 분대장으로 참전.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이 된다)무정(武亭)이 지도하고 있었다. 12월 12일, 하북성(河北省) 원씨현(元氏県)의 호가장(胡家莊)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된다.

1942년 1월부터 4월 사이, 석가장(石家莊) 일본총영사관에서 취조를

받는다. 4월 30일, 「홍성걸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 예심종결 결정」(「사상월보」101호)에 따라,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로 이송되었다. 5월, 북경에서 열차로 부산까지 이송되었다. 도중 서울에서 수원까지 모친 및 누이동생과의 차내 면회가 허용되었다. 호송 형사도 김학철이 다리를 다쳐 도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1943년 6월 22일, 전시 포로 대접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치안유지법이 적용되어 나가사키재판소에서 사형이 구형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사상월보」103호)한다는 판결을 받고 수감된다.

1945년, 간발의 차이로 나가사키 원폭을 면하고, 이사하야(諫早) 병원에서 좌측 다리 절단 수술을 받는다. 10월 9일, 정치범 석방령에 의해 송지영(宋志英: KBS이사장 역임)과 함께 11월 서울 도착. 송의 소개로 이무영을 알게 된다. 1946년 내내 좌익정치활동을 하면서 항일전쟁 체험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 10편을 쓴다. 이태준・안회남・김남천・지하련・김동석・윤세중 등과 알게 된다.(김학철 소설「균열」합평회 사진이 남아있다)

1946년 11월, 미군정의 좌익 탄압을 피해, 38선을 넘어 월북. 마포에서 배편으로 누이동생과 해주로 탈출한다. 동행했던 호위 간호원이 후일 김학철의 부인이 된다.

1947년, 『노동신문』기자가 된다. 박팔양이 동료였다. 그는 후일 『인민신문』 발행인이 된다. 북조선문학예술동맹기관지 『문학예술』에 중편「범람(氾濫)」을, 『민주청년』에 단편을 발표한다. 이 해, 인천 출신의 김혜원(金惠媛), 본명 김순복(金順福)과 결혼.

1948년, 장남 김해양(金海洋) 출생. 외금강 휴게소에서 결핵 요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인민군 후퇴시 강계(江界), 만포진(滿浦鎭)을 통해 중국 집안(集安)행. 국경에서 문정일(文正一)의 도움을 받는다.

1951년 1월부터 중국 중앙문학연구소(소장 정령丁玲)연구원으로서 이화원(頤和園) 일각에서 거주하며 문학 수업.

1952년 주덕해(朱德海), 최채(崔采)의 초청으로 연길로 이주. 연변문학예술연합회 준비위원회 주임, 53년에 주임 사퇴. 전업작가가 됨. 이즈음 왕성한 창작 활동. 그중 『연공(年功) 메달』은 인민문학출판사 간행으로 10만 부가 팔렸다 한다.

1957년, 반우파투쟁시 비판을 받고 1980년 12월까지 24년간 집필 정지 처분을 받음.

1961년 북경의 소련대사관에 망명을 시도했으나 실패. 문정일(文正一)이 같은 사회주의국에 가려 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옹호.(망명 미수사건은 미공개를 전제로 필자에게만 말해주었다)

1966년 7월, 홍위병의 가택 수색시, 은밀히 써서 보관하고 있었던 『20세기의 신화』 원고가 적발되어 몰수당함.

1967년 12월부터 10년간(문혁 기간 중), 감옥에서 복역함. 연길구치소(미결수), 장춘(長春)감옥, 추리구(秋梨溝)감옥을 전전함.

1977년 12월, 만기 출옥. 그 후 3년간 반혁명 전과자로 감시 당함. 무직 생활 계속.

1980년 12월 복권. 64세 나이에 다시 왕성한 문학활동 재개.

1983년, 출옥 후 최초의 장편소설 『항전별곡(抗戰別曲)』을 출판.

1985년 중국 국적 취득. 항일간부로서의 대우를 받음.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부주석이 됨. 1986년 중국작가협회 회원이 됨.

1989년 중국공산당 당적 회복. 9월 해외 항일활동 공적자로 국무원 총리의 초청을 받고 한국 방문. 그 걸음에 12월 청구문화사(青丘文化社)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함.

1993년 5월부터 7월, 일본 방문. 7월 6일 와세다대학에서 강연.

1994년 3월, KBS해외동포특별상 수상차 한국 방문.

1996년 12월 『20세기의 신화』가 한국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됨. 출판기념회차 방한. 그 후 1998년, 1999년, 2000년 방한.

2001년, 한국 밀양시 초청으로 석정(石正) 생탄 백주년기념국제심포지엄 참가차 방한.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 적십자병원에 입원. 중국 연

변으로 돌아갔으나 병세 호전없이 9월 25일 타계.

2. 실록과 소설

간단한 연표를 통해 김학철의 족적을 따라가 보았다. 기구하면서도 위대하고 신념을 관철해 나아갔던 일생이었다. 처음에는 중국공산당 당원으로서, 해방 후 한때는 조선노동당원으로서, 그리고 재차 중국공산당원으로서 일생을 걸고 투쟁한 조선인이었다.

그는 불요불굴의 사회주의자였다. 이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빈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했던 팔로군 생활이었다. 그는 집요할 정도로 되풀이해서 자신의 체험을 소설화했다. 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전기소설을 쓰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이상향이 팔로군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팔로군 당시의 전투 활동 시절을 그릴 때의 그의 붓은 가볍고 상쾌하다. 전투에는 승리도 패배도 있는 법. 그는 그 희비의 세계를 유모어를 섞어 그렸다.

1985년 6월부터 다음해 2월에 걸쳐, 십 수회, 매주 두세 시간 연길시내의 김학철 씨 댁을 찾아, 소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의 인생역정을 들었다. 가끔씩 중국어와 조선어가 섞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창한 일본어로 들려 주었다.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이야기도 두 차례 있었는데, 내가 질문하고 김학철 씨가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다. 인터뷰 중 김학철은 이렇게 말했다.

> 팔로군은 민중과 평등해. 내가 팔로군에 가서 말이야. 목욕을 못하니까, 냇물을 막아서 몸을 씻었단 말야. 그랬더니 농민 한 명이 괭이를 들고 달려와선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내가 물을 막아서 밭에 물이 안 간다

고. 농부가 장교한테 호통을 치는 거야. 팔로군 대단하지. 국민당에서 이런 짓 했다면, 농민들 만신창이가 됐을 거야.

태항산은 우리가 가기 전엔 염석산(閻錫山) 지배하에 있었지. 가보니 민중이 30년 앞의 세금까지 내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기가 막힌 착취였지. 당시는 무서워서 찍소리도 낼 수 없었지. 그런데 팔로군이 오니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또 실패한 예로 메기 소동 이야기도 한 바 있다.

최채(崔采) 패하고 태항산 늪 속에서 사람 등짝만한 메기를 봤지 뭐야. 왠떡이냐 싶어서 구워먹었지. 소금이 없으니까 그냥 먹었어. 그걸 마을 사람이 보고는 곧바로 여단 사령부에 항의를 넣은 거야. 그 메기가 수 천년 전부터 용왕님이셨다는 거야. 거긴 비가 적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메기는 저주가 무서워서 못 먹는다는 거야. 우린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저주를 믿을 리가 없지. 그래도 농민들에게는 메기가 신령님이란 말이에요. 신령님을 잡아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님들(인민)이 신령님이라 하면 방법이 없어. 마을 사람한테 야단을 심하게 맞았어. 그래도 모르고 먹었다고 용서를 받았지. 그런데 그 해 신령님이 심사가 뒤틀려서 비 한 방울 내려주시지 않는 거야. 그거 보소, 하고 농민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 리가 없지. 그래서 기우제 출석 명령이 떨어져선 농민하고 같이 깃발을 들고, 짚을 태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기우제를 올렸지. 이런 걸 전부 (소설로)썼지. 혁명은 위대한 것만이 아니야. 재미있는 실패도 있는 법. 거짓말을 해선 안 되지.

이 이야기는 『항전별곡』의 끝부분쯤에 나오는 이야기와 일치한다. 『항전별곡』에서는 최채(崔采)는 양손에 향연(선향)을 들고 농민의 행렬을 따라 산을 오르내리고, 사람들을 따라 절을 하고 기우제를 올린다. 최채는 마음 속으로 맹세한다.

> 두 번 다시 메기는 안 먹겠습니다. 먹는다면 저희는 인간이 아닙니다. 생선가게에서 파는 것도 안 먹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구절은 북조선이나 중국의 공식(公式)적 혁명사를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다. 현장을 체험하고 실정을 상세하게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일 것이다.

혁명전사였던 김학철이 왜 소설가가 되었는가. 저변의 사정을 그 자신의 말을 통해 듣기로 하자. 앞의 인터뷰 속에서 그는 밝힌다.

> 원래 소설을 쓸 생각은 없었지. 그래도 어쩌다 일본군이 총알 한 방을 내다리에 선물해 줘서 말이야. 한쪽 다리가 없어져서 군인으로서는 쓸모가 없어졌지. 그래선, 이 참에 잘 됐다. 쓰자, 하고 규슈의 이사하야 감방 안에서 마음을 먹었어. 조선의용군은 노동자 군대가 아니야. 농민 군대도 아니지. 지식인 군대야. 그들은 배가 고파서 직업이 없어서 참가한 것이 아니야. 자기 민족이 타민족에게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일어섰을 뿐이야. 내가 쓰자고 한 것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게 무얼까, 그걸 위해 쓴다. 내 평생은 눈 앞에 뭔가 불합리한 현실이 있으면,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 조선의용군도 그랬고 『이십 세기의 신화』도 그런 거였지.

제2차국공합작으로 중공군의 일부로 편입된 조선의용군은 중국군 전체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1938년 처음 생겼을 때는 2백 명 정도. 마지막 때는 3천 명 정도였다. 3천 명 갖고서는 중국군 몇 십만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일본군과 조우하면 전투를 하긴 했지만, 조선의용군의 주요 임무는 선전활동이었다. 반전 삐라 작성 및 배포, 일본군에 대한 심야 마이크 방송 등이 주된 임무였다. 강제로 배운 일본어이긴 했으나 전투 중에는 도움이 되었다. 조선의용

군의 활동을 그린 것이 그의 작품의 태반을 차지한다. 그 대표작이『항전별곡』이요,『격정시대』다. 그 중에서도『항전별곡』은, 강제노동 10년을 포함하여 24년간의 집필금지 조치가 풀린 뒤 나온 최초의 장편이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품이다.

『이십 세기의 신화』는 대약진 후 모택동의 실정를 정면에서 비판한 작품으로, 소재 면에서는『항전별곡』과 이질적이지만, 김학철의 경우에는 「눈 앞에 불합리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과 맞서 싸운다」는 의미에서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다.

3.「항전별곡」

『항전별곡』은 1983년 12월,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서 인쇄・출판되어 목단강지구 신화서점(牡丹江地区新華書店)에서 발행되었다. 김학철이 사는 연변이 아니라 흑룡강성에서 출판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연변지구에서는 당 선전부가 실권을 갖고 있어서, 허가 없이는 신문・잡지 출판이 불가능했다. 기사 역시도 당이 판단하기 때문에 관리가 엄격해진다.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민생부(民生部) 관할이 된다. 민중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출판이 가능하다. 그 미묘한 틈새를 노려 연변이 아닌 흑룡강성에서 출판한 것이었다. 그것도 판권난에 「한(限) 국내발행」이라는 조건이 붙어서였다. 연변인민출판사에서『항전별곡』이 나온 것은 2012년에 들어선 뒤의 일이다.

실은 1985년 필자가 연변에 체류하던 시기, 일본에서 번역 출판을 해줄 수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당시는 제목은『무명 용사』, 저자 소개도 해서는 안 되니 서랑연(徐狼煙)으로 해달라는 조건이었다. 망설인 끝에, 결국 나는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말았다. 1977년 십년 만기 출옥 후, 3년간의 우파분자 조치가 덧씌워져 직업도 얻을 수 없었던 김학철이, 1980년, 65세 나이로 명예회복이 된 후 처음으로 쓴『항전별곡』이, 국내 발행을 조건으로 출판이 허가되었는데, 그 금령을 어기고

일본에서 출판된다면 다시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저자는『항전별곡』후기에서 이 책을 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 수많은 조선민족혁명가들이 중국인민과 어깨걸고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뼈가 묻힌 무덤들은 주강(朱江)가에도, 양자강가에도, 황하가에도, 또 태항산 기슭에도 도처에 흩어져 있다. 역사는 그들의 공적을 망각의 류사 속에 그대로 파묻혀 버리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
> 신화가 아닌, 날조도 아닌, 진실한 역사적 면모 즉 있는 그대로를 꾸밈없이 적어서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전통에 대한 긍지감으로 가득차게 할 때는 드디어 왔다.—[중략]—
>
> 조선의용군 용사들의 피로써 적어놓은 장렬한 영웅적 서사시들은 이 땅 위에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다.
>
> 1982년 11월

집필이 완료되었을 때의 고양된 기분이 느껴지는 발문이다. 무명용사들을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써 내려간 결과가 『항전별곡』이다.

『항전별곡』 속(32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 해방전쟁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조선전쟁에서 피흘리고 쓰러진 사람은 더욱이 많다. 나도 그 후 간난신고를 무수히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목숨만은 여전히 붙어서 이렇게 안연히 살아 있다. 한데 어쩐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총 들고 싸우다 죽어간 소박하고도 용감한 전우들에 대해서 미안한 느낌이 있다.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자기 가책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그들의 무덤을 찾아서 풀 한 번 깎아 본 적이 없다. 하긴 그들은 대개 다 죽은 뒤에 무덤도 안 남겼다. 하기에 나는 그들을 기념하는 글을 써서 가슴 속 깊이 그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면서 이 목숨이 다하

는 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노신(魯迅)의 「망각을 위한 기념」에 다름 아니다.

가능하다면 논픽션으로 쓰고 싶었다. 김학철은 전기소설을 썼다. 작중 인물은 태반이 실명 그대로 등장한다. 그러나 상당 부분에서는 가명이 등장하기도 한다. 가명을 쓴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작중의 김원보(金元보)는 실존하는 김원봉(金元鳳), 장지광(張지光)은 실존 인물인 장진광(張振光), 강병한(康炳한)은 강병학(康炳学), 고기봉(高起峰)은 고봉기(高峰起: 후일 평양시 당위원장. 김학철의 누이동생과 결혼. 김일성 암살을 기도했다 해서 처형됨), 이런 식으로 작중의 인물명으로부터 실존 인물명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팽덕회(彭德懷), 나서경(羅瑞卿), 주은래(周恩来), 이선년(李先年), 허정숙(許貞淑), 김태준(金台俊)、김사량(金史良) 등등 많다. 물론 김학철도 본명 그대로 등장한다.

『항전별곡』은 「무명용사」, 「두름길」, 「작은 아씨」, 「맹진(孟津)나루」, 「항전별곡」, 이렇게 전 5장으로 되어 있다. 이 소설은 어느 장이나 항일전사(태반은 전사)의 열전과, 팔로군 병사들의 생활과 전투 에피소드로 되어 있다.

처음 「무명용사」의 장을 보자.

이 장은 김학무(金学武), 팽덕회(彭德懷), 그리고 팔로군의 대일 일본어 선무 활동, 일본군내의 조선인 병사에 대한 조선어 선전, 김학철의 연애 이야기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김학무(金学武)는 34세로 태항산에서 전사한다. 김학철은 군관학교에서 조선인 김학무를 만난다. 이웅(李雄)은 전향해서 일본군 압잡이가 되어 있었는데, 겉으로는 극좌파의 얼굴을 하고 김학무에게 장개석 암살을 사주한다. 국공합작기의 군관학교 교장 장개석은 당장 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게 된 김학무는 거꾸로 이웅을 살해한다.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던 중, 김학무는 당 회의에서 이런 사이비 항일전선에서 썩으

면서 우리의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김학철 등과 함께 신사군(新四軍)을 거쳐 태항산의 팔로군으로 들어간다.

국민당 지구에서 봉쇄선을 뚫고 해방구에 들어 온 조선청년들을 환영하기 위한 대회가 개최된다. 팽덕회(彭德懷)가 축사를 한다.

> 나는 국민혁명군 제18군 70만 장병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의 무기고 문은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골라 가져 가십시오.

제18군 산하의 팔로군이었지만, 팽덕회가 팔로군을 대표해서 환영인사를 한 것이 아님에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김학철은 팽덕회를 존경하고 있었다. 1958년부터 모택동의 「대약진」을 비판하다가 실각한 팽덕회와 김학철은 비슷한 길을 걸었다. 김학철은 1962년부터 시작된 대약진 운동이 몰고 온 사회적 왜곡상을 그려놓았던 『20세기의 신화』가, 1966년 홍위병의 가택 수색 때 발각되어 강제노동 10년형을 받은 바 있었다.

앞의 인터뷰 속에서도 팽덕회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 바 있다.

> 언젠가 삐라 속에 태극기를 그려넣는 게 문제가 됐었지. 우리는 반대했어. 그런 건 망한 대한제국시대의 유물이라고. 그래서 적기를 만들었지. 조선의용군의 골격은 중국공산당원이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팽덕회가 이렇게 물었어. 「여러분 나라가 망하던 때의 국기는 뭡니까?」「태극기입니다」「그럼, 그걸 그리세요。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은 극단적인 좌익이군요」라 했다. 「조선동포에게 고함」이란 삐라를 만들던 당시의 이야기야. 그것 말고도 「일본병사에게 고함」삐라라든가 통행증 같은 걸 만들었지. 그걸 가져온 사람은 목숨을 보증한다고

4. 20세기의 신화

중국엔 한때 상흔문학이란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청년들이 문혁(1966-67)때 입은 상흔을 그린 작품들이 그것이다. 중국에서 문혁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대약진(1958-60), 그리고 인민공사(1958-82)도 실패로 판명되었다. 반우파투쟁(1957-58)기에 흑오류(黑五類)로 분류된 55만 명 중 99퍼센트가, 1978년부터 80년까지 명예회복되었다. 김학철도 1980년 12월에 복권되었다. 실로 24년만에 집필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20세기의 신화』는 분노로 가득 찬 정치소설이다. 팔로군 시절을 그리던 때의 유머는 온데간데 없다. 이 소설은 전편인 「강제노동수용소」(1964년 9월작), 후편「수용소 이후」(1965년 3월작)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한국(창작과비평사)에서 출판된 『이십 세기의 신화』에는, 위에 「부록」(1992년 1월 14일작)과 출판을 즈음해서 쓴 「후기」(1996년 10월 10일)가 붙어 있다.

한편 『이십 세기의 신화』는 한국에서만 출판되었다. 중국에서는 출판된 적이 없다. 2002년 연변인민출판사 간 『김학철전집』(총 12권)의 광고에는, 제12권에 『이십 세기의 신화』가 들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출판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출판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 현대사의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십 세기의 신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문혁을 전면 부정했던 것처럼, 대약진이나 반우파 투쟁을 전적으로 부정해도 되는가. 인물로 본다면 팽덕회(彭德懷)·나서경(羅瑞卿)을 전면 부정해도 되는가, 말하자면 모택동의 정책이 어느 시점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이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십 세기의 신화』에는 「부록」이 붙어 있다. 이 부분은 1960년대에 씌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설을 붙이는 식으로 1992년에 쓴 것이다. 이 소설을 쓴 상황과 배경을, 저자 자신의 언어로 쓰고 있다.

「부록」은 「인권의 황무지」, 「공판(公判)놀이」, 「문명한 감옥」,

「만기출옥은 했지만」,「가시지 않는 여운」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부록」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에서 세 번 공판을 받았다. 세 번 모두 정치범이라는 신분으로.

그 중 방청객이 가장 많았던 것이, 1975년 5월 중국 공판이었다. 1968년 1월 홍위병의 가택 수색과 (문제 원고의) 발견으로 수감되었다. 예심 기간이 무려 7년 4개월, 그리고 1975년 본심이 진행되었다. 1300명의 방청객이 임시법정으로 쓰이던 문화궁(文化宮) 1,2 층에 빼곡했다. 입장을 못한 이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날 공판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구치소에서 공판정까지 차로 5분. 변호사도 붙지 않았다. 승차 시간 5분 동안 각오를 하고 마지막에 외칠 슬로건을 정했다.

마르크스 만세 !

엥겔스 만세 !

레닌 만세 !

팽덕회 만세 !

나는 최후의 각오를 했다. 최후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관례를 깼다. 독재자의 이름을 빼버린 것이었다.

육십 넘은 노인에게 「머리 수그려 ! 허리 굽혀 !」, 이 고함소리 속에서도 나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허리를 폈다. 경찰이 뛰어와 내 머리를 눌러 숙이게 한다. 더러운 수건을 철봉으로 입 속 깊이 쑤셔 넣어 아갈잡이를 한다. 「반혁명분자를 타도하라」「김학철을 타도하라」는 슬로건이 우뢰처럼 장내를 뒤흔든다.

세면대도 욕실도 도서관도 없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

1977년 12월 만기출옥은 했지만, 그 뒤에도 3년간 반혁명 전과자 신분으로 완전 실업자 신세. 몇번 고등법원(고등재판소)에 불복 상고했지만, 그때마다 기각되었다. 3년 후 직접 최고법원(최고재)에 직소하여, 처

음으로 우파라는 모자를 벗었다.

『이십 세기의 신화』 원고는 제3차공판 뒤, 1978년 8월이 되어 「발표 불허」라는 조건 아래 겨우 내 품으로 돌아왔다.

김학철은 그 원고를 내게 보여주었다. 전편·후편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전편인「강제노동수용소」는 저자가 직접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상태였다. 1960년대 당시의 번역이었다. 일본 출판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1980년, 명예회복이 되었던 즈음에도 재판소에서 원고 소각을 제안했었다 한다. 저자는 단호히 거부했다. 재판소 기록을 보면, 『이십 세기의 신화』는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으며, 집필 자체는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무죄로 되어 있었다. 무죄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 작품의 사상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전 아리랑 편집인 임일평(林一平)이다.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여물죽에 섞여 있는 콩깻묵을 골라 먹는다. 대약진, 인민공사화의 결과는 대기근이었다. 초·중학생들이 높이 80센티, 직경 40센티의 용광로를 전국 곳곳에 만들어, 쓸모없는 철 제조에 나섰다. 밤 거리에선 굶주린 여성들이 손님을 끌었다. 담뱃값이 급등하고 사람 값은 떨어져, 담뱃잎 두 세 줌을 신문지에 말면, 하룻밤 여자를 살 수 있었다. 거리에 고양이 자취가 끊겼다.

한 청년이 마야코프스키 시를 흉내내서(행만 짧게 고쳐서)모택동을 찬양하는, 시라고도 할 수 없는 시를 갖고 아리랑 편집부를 방문한다.

모택동
  시대의
    아침이여!
아아, 가슴
  벅찬

모택동의

, 시대여 !

편집자는 고함소리밖에 없고 사람의 심금을 전혀 울릴 수 없다고 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편집자는 5년간 비인간적인 강제노동형에 처해진다.

『이십 세기의 신화』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산주의 농장(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의 열전 형식 이야기가 진행된다.
후반부에서는 농장을 나온 뒤 임일평에게 감시가 계속되는 한편 그가 접하는 주변 사람들의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그린다.

대약진 시절, 양로원 노인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경비가 없는 양로원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사후에 묻힐 무덤을 노인들 스스로 파게 했다. 노파들은 삽을 내던지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통곡을 해대고 남자들은 묵묵히 묫자리를 파나간다. 이를 본 임일평은 6억 인민에게 이런 재앙을 안긴 독재자 모택동을 마음 깊이 증오한다.
농장을 나온 후 거리에서 지인을 만나 악수를 건네도 상대방은 손을 뒤로 빼는 사태가 계속된다. 일평은 「공산주의농장은 해체된 것이 아니라, 960만 평방 킬로미터(전국)에 확대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5. 마무리

김학철은 항일전사였다. 전투 중 왼쪽 대퇴부를 잃고서는 일본의 치안유지법에 걸려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형기 도중 해방을 맞아, 조선으로 돌아가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미군정을 피해 38선을 넘어 공화국에 들어가선 다시 조선전쟁으로 중국에 들어간다. 대약진 이후 24년간이나 집필정지 상황에 놓여 있다가, 1980년 64세 때 부활, 왕성한 창작활동을 전개했다. 2001년, 84세로 서거하기까지의 기구한 생애는, 조

선인으로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추구한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란 무엇이었는가. 모택동도 김일성도 스탈린도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통렬한 비판일 것이다. 팽덕회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팔로군의 부지령(副指令)이었던 팽덕회가 어느 날 호위병 한 명만 데리고 조선의용군 처소로 온다. 김학철은 감격한다. 국민당군이었다면 앞뒤로 호위병을 쭈욱 거느리고 왔을 터였다. 그때 했다는 팽덕회의 이야기가 좋다.

> 지금 여기 오다가 길에서 병사를 만났다. 지저분하고 단추도 안 잠근 상태였다. 나를 보고도 경례도 안하고 히히 웃고는 사라져 버렸다. 엄격한 일본의 군기에 비하면, 팔로군의 군기는 한참 떨어진다. 하지만 일본의 군기는 강제된 거다. 팔로군에게는 강제가 없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운다. 이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재판에 임하는 김학철이 죽음을 각오했던 그때, 팽덕회 만세를 외친 것은, 그렇게 겸허하고 소박하고 과학적인 지도자의 배후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평화롭고 생기있게 살아가는 사회를 보아냈기 때문이 아닐까.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에 나타난 자아 이미지

The Ego Image of Jeong Lyae Jo Potrayed in His Novel Great Jungle

朴铃一[1]
中央民族大学

1. 들어가며[2]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한 양국은 천년에 달하는 긴 세월을 이어오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영역에서 밀접한 교류를 유지해왔다. 특히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양국 국민의 빈번한 교류와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로 인해 상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많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긴 세월의 교류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에서 많은 중국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3]는 2013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역시 중한 양국의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의 소산이다. 소설은 경제대

1 Ling Yi Piao (Doctoral Program, Chinese Minority Languages and Literatures, Minzu University of China)
E-mail : piaolingyi@126.com

2 본 논문은 『한국어 교수와 연구』(흑룡강출판사, 2016)에 게재한 「조정래 <정글만리>의 이국형상에 투영된 자아 및 그 의미」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3 이하 본고에서는 발표 지면과 연도를 생략하고, (조정래(2013) 『정글만리』(1,2,3), 해냄출판사) 판본의 내용을 출처로 권 번호, 쪽 수를 적는다.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파견된 한국인의 시각으로 중국의 비즈니스 현장을 묘사했으며 중국 특유의 문화와 중국인들의 특징을 다양하게 보여주었다.

『정글만리』 출판 후, 소설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많지 않고 대체로 "중국 소개서, 세일즈맨의 자기 소개서" (이욱연 2014), "중국 시장에 관한 민족지(ethnography),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학습 보고서" (임춘성 2013), "중국입문서 성격을 띤 기업소설, 기업소설의 옷을 입은 계몽소설, 급변하는 중국이라는 제재를 빈 작가의 강연집"(임춘성 2014)과 같은 평가가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물론 "소설의 의의는 글로벌화와 지방화의 부딪침으로 일으킨 문화적 충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탐구하는데 있다"(김주영 2014)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적지 않은 평론가들은 "인물형상화의 상투성, 사건의 산만한 나열을 넘지 못한 서사, 중국 사회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생기 없는 대화"(오길영 2013), "디테일의 거친 처리"(이남주 2014), "위험한 중국 해석"(이욱연 2014), "민족주의와 남성주의"(임춘성 2014)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평론가들의 비판적 시각은 냉철하고 예리하지만 소설에 나타난 인물이나 사건의 진위 여부에 치우치거나 중한관계의 역사와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보인다.

프랑스의 당대 형상학의 대표적 인물인 파로(D.-H.Pageaux)의 말에 의하면 "모든 형상의 근원은 자아와 타자, 본토와 이국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각(自覺)적 의식에 있다. 형상학은 자아와 타자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즉 '자아'는 '타자'를 주시(注視)하는 동시에 관찰자, 화자, 서술자의 어떤 이미지를 타자형상에 비칠 수도 있다."(孟华 2001: 4) 비교문학 형상학에서 '타자'에 대한 묘사는 사회집단 상상의 특수한 표현형태이다. '타자'는 '자아'를 위한 존재이며 '자아'는 '타자'를 통하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에서의 이국형상을 단순한 현실의 복제와 묘사가 아닌, '자아'와

‘타자’, 그리고 ‘본토(本土)’와 ‘이역(異域)’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체-타자의 대응관계 및 여러 변화형식 측면에서도 연구할 수 있다.

개인(한 작가), 집단(한 사회, 한 나라, 한 민족) 혹은 반(半)집단(한 사상유파, ‘여론’)의 측면에서 타자형상은 필연코 타자에 대한 부정으로 표현되거나 자신이 처한 공간에 대한 보충과 외연(外延)으로 표현된다. 작가는 이국문화를 인지할 때 자신의 전통적인 사유방식과 관점에 따라 이국을 이해한다. 이것은 개인 욕망의 표현 혹은 일종의 변형(變形)으로 볼 수 있다. 소설 『정글만리』는 중국형상을 부각함에 있어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이국형상을 묘사하는 동시에 본국의 형상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작가 조정래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의식하여 ‘타자’와 서로 호응하는 여러가지 ‘자아’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소설에 나타난 중국, 즉 한국인의 ‘타자’에 대한 인식은 ‘타자’ 그 자체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아에 대한 우월감 및 반성, 그리고 불안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작가가 소설에서 부각한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출발하여『정글만리』의 이국 형상에 투영된 ‘자아’ 이미지 및 작가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아우월감의 표현 및 그 의미

작가는 흔히 자신의 이해와 수요에 따라 인물 형상을 부각하거나 이국에서 본 ‘타자’형상을 통해 본국문화심리를 설명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민족의 문화전통과 본국의 우수성을 긍정하는 문화 해석법이다. 『정글만리』에서도 작가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그들의 행운에 대하여 위안과 기쁨을 느낀다.

소설에서는 순발력, 단결력, 행동력으로 중국이라는 경제시장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한국인들의 사업심, 사명감, 애국심 등을 부각하고 있다. 『정글만리』는 기업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중국

벼락부자 리완싱 외에 전대광, 김현곤, 하경만, 이토 히데오, 도요토미 아라키, 자크 카방 등 여러 나라 비즈니스맨들을 소설에 등장시키고 있다. 종합상사원 전대광과 포스코 직원 김현곤은 중국 생활 10년을 넘긴 영업부장으로서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지만 세일즈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중국어를 익히며 중국인 직원들의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진지한 우정을 유지하여 중국인이 개념화시킨 '루상(儒商)'의 범주에 드는 상인들로 인정 받는다.

> 루상이란 중국사람들이 한국 상사원들에게 남다른 호감과 신뢰를 나타내는 별칭이었다. 한국 상사원들은 현지 밀착 영업을 위해 누구나 영어는 기본이었고 중국어까지 막힘없이 구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가 일류대학을 나온 학식에다가 중국 역사와 풍습 같은 것들까지 두루 공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위한 예의와 겸손까지 몸에 익히고 있었으니, 10년을 중국에 있어도 중국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 상사원들과는 달리 보일 수밖에 없었다. (1권, 248)

작가의 눈에 비친 한국의 비즈니스맨, 즉 종합상사원 전대광과 포스코 직원 김현곤 등은 덕행과 문화적 소양을 겸비한 '루상'들이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일류기업일수록 명문대 출신들이었고, 하나같이 집념과 열정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은 느리고 까다로운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지치거나 포기하는 일 없는 끈질김으로 중국 시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었다."(3권, 251) 작가는 이와 같은 칭찬도 성 차지 않아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대한 폄하를 통해 한국인의 우월감을 과시한다. 중국어를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국 비즈니스맨들과는 달리 일본 비즈니스맨들은 통역 없이는 중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본인인 이토 히데오 부장과 중국인인 우치추과장의 '항복없는 싸움'에서 일본 주재원이 중국인 직원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로부터 본국인의 우수성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칭다오에서 액세서리 사업으로 성공한 광바오(光寶)회사 하경만 사장도 주목되는 인물이다. 그가 중국으로 사업하러 떠난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한 말씀대로 하경만 사장은 칭다오에서 사업을 시작하자 공장 마을 어른들 하나하나를 생신 때마다 찾아다니며 챙기고, 봄가을이면 마을 노인들을 다 모시고 경로잔치를 베풀며, 공장 앞 도로와 마을 청소를 하고, 한 달에 한번은 칭다오 해변으로 확대해서 청소를 했다. 또 주변 마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도 꾸준히 해왔다. 10년 넘도록 변함없이 해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어른들은 감동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에서도 감사장을 수여했다. 작품에서 전대광, 김현곤, 하경만은 모두가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우수한 한국인들이다.

송재형이란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어머니의 강권으로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바야흐로 중국사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베이징대 한국 유학생이다. 송재형은 앞으로 중국은 틀림없이 미국과 맞먹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다방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전도유망한 청년이다. 그는 자신의 지향추구에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심을 갖추고 있다. 송재형은 여자친구 리옌링과 같이 소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이미지로 부각되었다. 중국 여대생 리옌링이 아버지의 벼락부자 문화를 극복했다면 송재형은 어머니의 배금주의 사상을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한국인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내용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세웠던 공”, “사람들에게 월급 주어가며”, “제조업 전문기술자로 양성시켜준 것”,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인가”(3권, 116) 등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소설에서는 마치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돈이 아닌 자선사업이 목적인듯 그들을 극도로 미화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

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기업들의 현지 인재 육성은, 인건비 절약을 통하여 이윤의 확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타 기업보다 월급 수준이 높은 만큼, 노동강도도 상당하다. 이로부터 소설에서는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의 목적을 미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 조정래는 중국 경제시장의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품에서 유일하게 여러 나라 비즈니스맨과 업무적, 금전적 거래가 있는 중국인 관리 샹신원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샹신원은 상하이 세관 주임으로 세관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다. 출세의 야망이 큰 그는 돈을 좋아하며 세관 주임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비법적인 거래를 한다. 승승장구로 출세하자 그는 비리로 부를 쌓고 축첩을 하여 결국 아내와 이혼한 후 비밀리 운영한 성형 병원 전세금을 모두 빼가버리고 한국에서 온 성형 의사 서하원의 돈을 사취하여 외국으로 도망간다. 소설은 샹신원이란 중국 관리의 부패한 형상을 전형(典型)화함으로써 기략적인 수단으로 공무적 권한을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실시한 탐관(貪官)이자 색관(色官)인 부정적인 중국 정부관리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정부와 공무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작가의 인식,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한국 관리와 정부에 대한 인식이다.

> 한국의 관리와 중국의 관리는 그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권력의 무게와 존재감의 비중이 완전히 달랐다. 한국의 관리들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나라의 일을 보는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의 관리들은 관리이기 이전에 중국공산당 당원이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공산당이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국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 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공산당의 당원 수는 8,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
> 당원의 권위와 관리의 권력을 함께 가진 중국 관리들의 콧대는 가히 하늘이라야만큼 높았던 것이다.(1권, 288-289)

작가 조정래는 소설에서 한국인 관리나 정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관리는 “나라 일을 보는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인식으로 중국의 사회문화현실을 관조하여 중국 관리 및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장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작가의 자아우월감, 그리고 작가의 선입견과 더불어 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풍자, 조소, 야유의 표현이다.

> 중국의 고급 공무원 나리들께옵서는 그 입맛이 고상하고 취미 또한 우아하여 얼나이감으로 여대생들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파다한 것은 오래된 일이었다. 그 소문에 회답하듯이 퍼진 또 하나의 소문이 베이징 대학에 ‘얼나이그룹’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마다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올림픽 오륜마크 닮은 동그라미 4개 단 검정색 아우디들이 줄을 선다는 것이었다. 고급 당원이나 고급 관리들이 여대생들을 싣고 놀러 가려고.
>
>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얼마나 딱한가. 축첩은 뇌물수수보다더 큰 범법행위로 지목하고 있으니. 중국 공무원들이 한국 공무원들의 사장을 안다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동정을 할까. 이렇듯 한국의 도덕과 윤리의 순도가 99퍼센트의 순금 수준이니 ‘공자학당’ 1호가 서울에 세워진 것은 역사적 필연이 아닐 수 없었다. (2권, 155)

> “한국에서는 관리들이 절대로 축첩을 할 수가 없어요. 얼나이를 두면 곧바로 파면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사업가들이라고 해도 중국처럼 내놓고 얼나이들을 줄줄이 거느릴 수가 없어요. 서양 선진국들과 똑같이 사회 전체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3권, 349)

중국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엄중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중앙기율위는 2015년 1월~11월까지 11개월 간 ‘4대악풍’

추방 및 ‘8항규정’위반 32,128건, 총 43,231명을 처벌했다고 발표했다. 직급별로는 성부급(省部级, 중앙기관 장관급 및 지방정부 성장급) 8명, 지청급(地厅级=厅局级, 중앙기관 국장급 및 지방정부 시장급) 441명, 현처급(县处级, 중앙기관 처장급 및 지방정부 현장급) 3,818명으로, 처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0%에 달했다(신경도 2016.1.4). 하지만 부정부패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는 중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첩, 이른바 ‘얼나이’가 있고 뇌물만 밝히는 부정한 이미지로 중국을 그리고 있다. 시진핑(習近平)이 등장하면서 8항규정[4]과 같은 반부패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부정부패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도덕과 윤리의 순도가 99퍼센트의 순금 수준’이라고 하면서 한국관리를 미화하며 자랑한다. 작가의 선재한 이데올로기 기준이 편향된 정치의식을 초래한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건국 이래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유지해왔으며, 한국사회 전반은 또한 장기간의 냉전으로 말미암아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주류 언론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 및 그들의 위기가 보편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정글만리』에서는 “중국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습관 때문에 서비스라곤 할 줄도 모른다.”(1권, 324) “중국 관리들 노골적으로 돈을 밝힌다.”(2권, 18) “당원이나 관리들 앞에서 인민들은 꼼짝을 못하고, 그들은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멋대로 해먹는다.”(2권, 168) “중국이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2권, 309) 등과 같은 중국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이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의 권위성만 강조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당의 근본적인 취지를 홀시하다 보니 실제 현실과 거리감

4 8항규정(八项规定): 2012년 12월 4일, 시진핑이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시 강조한 내용으로 정치국원의 ‘차량 및 수행인원 최소화, 회의 풍조 개선, 언론접촉 삼가, 개별문건 남발금지, 근검절약 솔선수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있는 것이다. 조정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부분적이거나 표면적인 개별 현상,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로 전체를 대신하여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중국의 정치적 이미지를 '악마화'한 것이다. 그것은 문학 중의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신속한 발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아'가 '타자'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부분적이고 주관적인 한계 때문에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갖춘 인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아'와 '타자' 즉 관찰자와 피관찰자 측면에서 볼 때, 관찰자는 항상 우세(優勢)의 위치에 처해 있고 피관찰자는 열세(劣勢)에 처해 있다. 작가가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세계관과 본국의 문화적 심리로 이국(異國)인 중국을 이해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의 발전 속도, 새로운 변화 및 정보 등은 곧바로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점 역시 중국에 대한 인식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한 두 나라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훨씬 빈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배타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기비판의식 및 그 표출 양상

이국형상의 부각은 '타자'를 빌어 자아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이며 자문화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조정래는 『정글만리』에서 이국과 본국의 비교에서 자신의 부족점을 발견하여 자기비판과 자아각성을 실현한다. 소설의 첫 시작에서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선입견이다. 한국인들은 "중국 하면 싼 인건비, 짝퉁, 불량식품 같은 것만 생각하지 초스피드의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모든 분야의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한다."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선입관도 있고, 발전이나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심사도 작용"(1권, 32쪽)하고 있다. 이로부터 소설에서는 작가의 사상을 대변할 전대광과 김현곤이라는 인물을 선택하

여 자기비판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소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성형의사 서하원, 전대광의 아내 이지선, 송재형의 외할아버지 등과 같은 한국인의 눈에 비친 중국은 싼 인건비의 짝퉁천국과 같은 것으로 중국에 대한 나쁜 인상뿐이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살면서 정이 들게 되었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다. 주재원 부인들은 중국에서 두 번 운다는 말이 있다. 처음 왔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울며 떠날 때 너무 편히 지냈고 떠나기 싫도록 정이 들어 운다는 것이다.

『정글만리』는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오해와 편견에 다양한 목소리로 대응하여 대체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래는 미국 비즈니스맨 앤디 박이 중국을 비난할 때 한국 비즈니스맨인 김현곤의 반응과 생각에 대한 묘사이다.

> "당신은 당신의 미국 이름처럼 너무나 미국의 시각에서 말하고 있다. 모든 걸 미국 기준과 수준에 맞춰놓고, 그것과 같지 않으면 미개하고 야만이라고 취급해 버리는 것 말이다…… 자기와 생활습관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미개함이나 야만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건, 그런 행위야말로 미개하고 야만적인 문화폭력이 아닌가. 서양인들의 자기중심적 일방주의, 자기들만이 옳고, 모두는 자기네를 따라야 한다는 우월주의는 이제 그만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21세기의 동양은 20세기의 동양이 아니다."(2권, 226-231)

위의 김현곤의 말과 생각에 대한 묘사에서 중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현재의 발전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앤디 박의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며 야만적인 문화폭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정글만리』 제3권의 「어머니의 백기」에서는 현재 한국의 교육 문제에 주목한다. 한국 유학생 송재형이 여자 친구 리옌링에게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교육 열풍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없는 질긴

이유와 '공교육 파괴'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한다. 송재형의 말에 의하면 한국엄마들은 자식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목표를 정해놓고는 자식들을 몰아댄다. 자식들은 엄마들한테 떠밀려 학원에도 가야하고, 매일 새벽 2시까지 잠 못 자고 공부해야 한다. 작가는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소설에서 한국 어머니인 전유숙은 송재형이 경제학으로부터 중국사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반대했고 중국 아버지인 리완싱은 리옌링이 한국인 송재형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소설은 전유숙과 리완싱 두 인물을 통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중한의 서로 비슷한 부모 형상을 부각했으며 더 나아가서 양국에서 유사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교육에 과도한 투자와 공교육 파괴 등과 같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식교육에 올인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같은데,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나라는 미국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영어의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사교육 시장만 과열되어 소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영어학원 억만장자가 생겼으며 한국도 20조를 영어 배우는데 쓰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미래가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자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과외를 받도록 하는 현상이 중한 양국에서 증가되고 있다. 자녀가 수학이나 외국어 등 특정 과목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학부모들도 있으나, 자녀를 여러 면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의 경우,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사교육 강박증[5]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사교육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소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공교육을 마비시키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

5 사교육 강박증이란 교육정책의 급변화와 사교육 열풍으로 내 아이가 남보다 뒤처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증상으로 최근 학부모의 정서를 반영하는 신조어이다. 포미즈여성병원, 『학부모72% '사교육 강박증'』, 네이버 카페(2012.06.19).

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에 과도한 투자는 아이들의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이어진다. 하나뿐인 자식들이 모두 왕쯔청룽(望子成龍: 자식이 용처럼 크게 되기를 바람)하기를 바라는 중국 부모들의 마음 못지 않게 한국 엄마들의 극성이 무한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 조정래는 중국 체험을 통해 본국의 현실과 비슷한 사교육 현상을 묘사하면서 자기비판의식을 갖고 집단적 성찰을 실현하도록 한다.

4. 미래에 대한 전망 및 그 의의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한국을 모델 중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었지만 남과 북이 대치하는 악렬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최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실현했다.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어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의 파워를 선보였던 것이다. 아래는 일본의 상징이고 자존심인 소니가 한국 삼성에 처절한 패배를 당한 사실을 논하는 대목이다.

> "소니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20여 년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쓰는 그 수도 없이 많은 텔레비전 카메라는 전부가 소니 거였어. 그 시절에 소니는 한국을 향해 외쳤어. '한국이 우리 일본을 따라오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그때 한국에선 LG가 선두주자였고, 삼성은 햇병아리였을 뿐이야.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겨우 20여 년 만에 참혹하게 패배하고 말았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1권, 172)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과거 수출 한국이 지상 목표이던 시절에 한국 기업들의 세일즈 신화에 대한 향수가 있다. 이러한 향수는 특정 세대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난 과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현재의 한국, G2시대를 맞은 한국의 미래에 관련된 정체성 세우기와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욱 놀란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 방영이었다. 그 한류는 순식간에 중국 천지를 뒤덮었다. 중국사람들은 남녀노소 없이 한국 드라마에 홀려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두 마약에 취한 듯한 그런 현상에 대해 신문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소설가들이 소설에도 쓸 정도였다. (2권, 270)

이처럼 중국은 지난날 한국을 많이 배웠고, 한류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작가는 소설에서 "중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에 대해 이상야릇한 이중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중국이 G2가 되면서 중국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 뭐 볼 거 있어? 조그만 나라가 힘써봤자지. 여전히 드라마는 좋아하고, 한국 배우들이 하나 같이 잘생겼다고 부러워하면서도 그런 부정적인 이중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권, 270)

> "한국은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이중적 감정의 대상입니다. 중국과는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관계가 깊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교역량도 많고 해서 친한 나라인 건 분명한데, 국가 안보는 미국과 동맹관계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힘이 증대되어 만약 미국과 군사적 긴장관계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3권, 191)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본보기의 역할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까? 과거와 현재 중한 경제발전 수준의 낙차로 인한, '한강 기적'이나 '세일즈 신화'에 대한 향수의 '수심(愁心)'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중국 위협론의 힘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정글만리』에는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시각과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

> "우리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국이 싼 인건비에 목을 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번지수가 영 틀린 생각입니다. 중국은 변해도 엄청나게,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G2가 된 것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참, 예상을 30년이나 앞당겨버렸으니 각 나라가 받은 충격이 어땠겠어요. 일본은 날벼락 맞아 기절해버렸고, 미국은 야구방망이로 뒤통수 맞아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유럽 국가들은 라이트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맞아 비틀비틀하고, 우리 한국사람들은 무슨 소린지 감이 잘 안 잡혀 눈을 껌벅껌벅하고 있는 상태지요."(1권, 17)

>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다가 끝날 일이죠. 중국이거 가만히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골치 아픈 나라예요.……"(2권, 12)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시아는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다. 기존의 미국이 있고 신흥의 중국이 있으며 또 일본이 있으므로 중미관계, 중일관계 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국은 잘못하면 "줄 서기"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발언도 없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중국과 미국사이의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정글만리』는 당장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이라는 점을 전면에 부각시킨 데 이어 바로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둘째 질문을 던진다. 소설에 나타난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대처는 비교적 성공적이다. 전대광 등 주요 인물들이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미래 지향의 관점에서 젊은 대학생들의 시각이 중요함으로 소설에서 대학생 연인 송재형과 리엔링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가는 두 사람의 연애를 양념으로 삼아 상호 호감의 시선으로 상대국을 바라보게 설정한다(임춘정 2014: 104-109). 그리고 소설 전반 스토리는 이들이 노력 끝에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차별적 세계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초국가성을 실험하고 확장하고 있다'(정병호・송도영 2011: 7)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이주와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은 탈냉전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현대문학작품에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황석영의 『바리데기』, 그리고 조정래의 『정글만리』를 비교해 보면 중국인에 대한 한국의 다문화 인식의 진화 과정과 문학적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1979년에 발표한 오정희의 대표작 「중국인 거리」에서는 9살 여자아이의 눈에 비친 신비로운 젊은 중국남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었다면, 2007년에 발표한 황석영의 장편소설 『바리데기』에서는 상언니를 온갖 고난을 겪은 후 마약중독 때문에 동생 같은 주인공 바리의 돈을 훔치고 그의 아이를 죽게 만들며, 나중에는 자살하게 되는 부정적 인물로 부각하였다. 중한양국의 외교정책에 따라 이해관계가 소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사회가 점차적으로 오픈마인드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의 변화양상 및 그 문화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1년의 20만으로부터 2011년에는 140만명까지 증가되었다. 그중 절반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 한국의 국제결혼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았으나 2008년에는 2000년의 3.5배로 많아졌다(丹尼尔 2015: 243).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전반적으로 외래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 한국은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지역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앞서서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정글만리』는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소재들에 대한 서술이 지나친 과장이나 사실관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옌링과 송재형의 만남은 중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의 막강해진 경제력, 과학기술력과 어마어마한 내수시장에 대한 묘사는 중국이 엄청난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아야만 세계시장이란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부분에서 한국현대문학이 중국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가늠할 수도 있다.

5. 나가며

소설 『정글만리』는 이국(異國)인 중국을 주시하는 동시에 본국에 대한 인식과 발견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인접국가 및 국민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한국인의 중국관(中國觀), 더 나아가서 한국인의 민족정체성(identity)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인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자아 우월감의 표현이 있는 동시에 이국과 본국의 비교에서 공교육 파괴와 같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여 자기비판과 자아각성도 실현한다. 그리고 송재형과 리옌링의 만남은 다문화시기 한국의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 더 나아가 중한 양국의 협력의 미래를 희망하는 작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국문화심리와 자아의 표출양상은 본질적으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정글만리』에는 중국이라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적인 '타자' 이미지들의 파편과 함께, 시선의 주체인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욕망이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여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시선을 통해서 독자들은 한국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남주(2014) 「『정글만리』에 나타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균차이나브리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110-114.

이욱연(2014) 「『정글만리』 신드롬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217-223.

임춘성(2014) 「『정글만리』를 '네 번' 읽고」, 『성균차이나브리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104-109.

정병호·송도영(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 현암사, 1-7.

조정래(2013) 『정글만리』(1,2,3), 해냄출판사.

丹尼尔·图德[英]著·于志堂·江月译(2015) 『太极虎韩国』, 重庆出版社.

孟华主编(2001) 『比较文学形象学』, 北京大学出版社.

金海鹰(2012) 『韩国现代游记文学中的中国形象研究——以北京体验为例』, 中国语文论丛, 第55期, 279-297.

金周英(2014) 『全球化和地方化碰撞中的中国——评赵廷来的<丛林万里>』, 外国文学研究, 2014年01期, 159-162.

Analysis of Errors Made by German Learners and Korean Learners

－Subject to Case and Postposition that Indicate a Place

Eun Joo Park[1]
Osaka Jogakuin University

1. Introduction

This paper examines errors made by German native speakers wh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hereinafter called German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who learn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hereinafter called Korean learners).

German and Korean have different syntax, making it difficult for both learners to pick up the languages. Among them are postpositions in Korean and declensions in German. Korean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that makes up a word by adding a meaning to an etymon, followed by an affix, which changes the parts of speech or an ending(남기심·고영근 1985: 24). This feature of an agglutinative language is shown in the grammar forms of postpositions and endings. Therefore, learning postpositions is a critical process for Korean-language learners. Still, many foreign Korean-language learners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1 Lecturer of Women's Global Leadership
E-mail : geheimnis6525@gmail.com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s an agglutinative language (이정희 2002: 8).

On the other hand, it is not so easy for Koreans to accurately use the changes of declension in German, which appear in every component of a sentence, as the changes differ from one part of the sentence to another and the forms of changes greatly vary. The greater the linguistic gap between the mother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the more likely errors will appear while learning the target language (迫田 2002: 82-97).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learners use different declensions and postpositions, what errors they make, and how they learn from them when using their target language.

This paper seeks to observe the errors of declensions and postpositions that describe place as used by the learners of Korean or German. We limit the scope of observation to the "Case and postposition that describe place" because even in Korean, which can easily omit as Case- postpositions, the Case-postpositions that describe place are rarely dropped with few exceptions[2]. Therefore, examining Korean postpositions and German declensions that refer to places will provide greater insight as we look closely at the examples of errors[3] made by German and Korean learners is a clearer alterna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writings of the learners, identify the situations in which they make errors, and delve into the causes of the errors.

2 '-에 /e/' is used for verbs that indicate a location or a place. '-에' that indicates a place is essential and cannot be dropped, with exceptions for pragmatic – not syntactic – translation of the meaning (남기심 1993: 16-18). Also, it is difficult to tell whether a learner did not mark a postposition in speaking and writing, because he/she found it difficult to use it, or whether he/she dropped it intentionally, if it easily can be omitted.

3 This paper assumes the misuses shown in the learners' writings as errors, not as simple mistakes. The learners were asked to describe a picture verbally and then transcribe it in writing. It seems fair to believe that if the errors had been a result of a mistake, the learners should have had enough time and opportunity to correct them when transcribing their speech.

2. Previous work

Few studies are found on the errors made by German and Korean learners. 성상환 (2006) mention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discussed the errors of German learners in displaying and dropping subjects that appear in parallel texts as well as in misusing postpositions arising from the syntac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박세진(2012) described Korean native speakers who misuse the German vowels 'e-', 'ö-', and 'ü-' owing to a negative influence of their mother language. 이해욱(2014) conducted an experiment in which a subject is presented with a picture card and describes it orally to analyse the errors made by German speakers in making present-continuous expressions in Korean.

As such, few studies compared errors made by language learners with regard to German declensions and Korean postpositions. However, such comparative analysis is critical for learners whose target language is either German, which has a variety of declension changes, or Korean, which has highly developed postpositions, and can guide their learning.

3. Experiment methodology and study data

The examples of errors mentioned in this paper come from an experiment[4] that was conducted on 10 Korean learners and 10 German learners[5]. The subject

4 Five rounds of experiments were conducted between April 2014 and October 2015 to meet the conditions of learners for both languages.

5 German learners refer to college students who learn Korean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or students who attend Korean classes at the Hamburg- Korean school. Korean learners refer to Korean students of College of Music, Hamburg, or students who attend the University of Hamburg on an exchange program. The subjects were those who learnt the target language for one year to a maximum of two years (100 hours or more but less than 300 hours). Keeping in mind that German learners were trying t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e same conditions applied to Korean learners, so the subjects were students who learnt German in Korea and who had stayed in Germany less than three months.

learners of this research are limits of as follows, they have learned more than 1 year and have been taken basically the grammatical knowledge of Korean and German, also above fixed vocabulary. It means, they can be already “speaking”, “listening”, “writing” in Korean and German of above a primary grade.

Each German student was paired with a Korean student and two such pairs constituted a group. There were a total of five groups. First, the subjects were presented with 12 pictures and asked to describe them orally.

The both learners of German and Korean were given each 15minutes to do the assignment in his/her target language. Each learner was asked to speak for at least seven minutes. Only one speaker spoke at a time while the rest of the learners and the partner were asked to make a note of the errors made without correcting or pointing them out during the speech. After the speaker finished a speech, he/she was given 30 minutes to write down what was just said and was allowed look at the picture while writing. Each group was given a total of 60 minutes for speech and writing.

This study analyses the examples of errors that were made in the writings of the German and Korean learners.

The error analysis takes place in the following order:

1）Examining under what circumstances a learner makes an error and identifying the causes from the examples.

2）Comparing the examples to see whether there are similarities in errors made by learners within the same native speakers.

3）Comparing the causes of errors made by both learners and looking into the distribution of the errors made.

4. German and Korean sentences

We looked into how German declensions and Korean postpositions are

used when describing a place.

(Example 1) describes German sentences.

(Example 1)

1. Er ist noch im(dat.) Bett.
2. Sie ist jetzt in der(dat.) Klasse.
3. Das Bild hängt an der(dat.)Wand.
4. Die Kinder sind auf dem(dat.) Spielplatz.
5. Sie ist im(dat.) Büro.

Sentences 1, 2, 3, 4, and 5 of (Example 1) all use 'dative' which is equivalent to a Korean postposition '-에/e/', which indicates a place.

（Example 2）is what （Example 1）translates into in Korean.

(Example 1)

1. 그는 아직 침대에 있다.
2. 그녀는 지금 교실에 있다.
3. 그림이 벽에 걸려있다.
4.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다.
5. 그녀는 사무실에 있다.

As shown in (Example 1) and (Example 2), both German and Korean use the same declension and postposition when referring to a place. When implying the presence of something or someone, which is denoted by the word '있다/itta/' 'dative' is used in German while '-에/e/' is used in Korean. Hence, the two words are case markers that serve the same role of indicating a 'place' where 'something' or 'someone' is present.

5. Examples of errors

As shown in chapter 4, both German and Korean use postpositions and declensions that serve the same role when indicating a place. Conversely, both language learners are probably positively influenced, if at all, by their native language in the process of learning the target languag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learners will not make errors when indicating a place in their target language. Let us see the following examples to find if this inference is correct.

(Example 3) of section 5.1 describes writing examples of German learners while (Example 4) of section 5.2 shows writing examples of Korean learners. The square marks and underlines in (Example 3) and (Example 4) indicate that they convey the same meaning in both languages and also indicate a place. The words of square marks indicate examples that both learners used correctly while underlined words indicate errors.

5.1. Examples of errors made by German learners

(Example 3) shows a German learner's writing of what he/she just verbally described of a presented picture[6]. Let us see where we can find errors. Spacing, postposition errors, or awkward expressions aside from the underlines are not discussed in this paper.

(Example 3)

[P-1][7]

6 The learner was instructed to describe a single picture in five sentences. The total number of sentences stands at 1200 with 600 from German learners and 600 from Korean learners.

7 [P-1] indicates 'picture 1'. For ease of discussion, each sentence is numbered. Owing to space limitations, this paper groups learners' writings into (Examples) and the number of errors that were made by other learners and that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he learner in the (Example) is shown in <the number of misusers> at the end of the error sentence in the (Example).

1) 목장 안에 말 3마리, 아빠와 아이가 있어요.
2) 왼쪽은 엄마 말은 아기 말에게 뽀뽀해요.
3) 오른쪽은 아빠 승마준비하고, 아이는 말에게 사과 주어요.
4) 목장 밖에서 한 남자가 못을 울타리를 쳐요. [error 9 learners]
5) 남자 옆에 도구Kasten (상자) 있어요.

[P-2]

6) 길에 사람 너무 많아요.
7) 아이가Ampel(신호등) 기다리고, 사람들 핸디전화해요.
8)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신문읽어요.
9) 엄마와 아이가 자전거를 타요.
10) 아이가 편지를 우체통을 넣어요. [error 8 learners]

[P-3]

11) 시장에 사람들 그리고 가게들 많아요.
12) 남자가 아이에게 소세지를 줘요.
13) 여자는 소세지를 사요.
14) 야채집 남자가 토마토를 종이가방을 넣어요.[error 8 learners]
15) 남자가 오렌지를 저울을 올려요.[error 8 learners]

[P-4]

16) 부엌에 컵, 남비, 그릇이 많이 있어요.
17) 엄마가 접시를 그릇장를 넣어요.[error 8 learners]
18) 그리고 아이가 옆에 장난감을 놀아요.
19) 방에 상자가 많이 있어요.
20) 아빠가 짐정리해요.

[P-5]

21) 아이가 가방을 바닥을 놓았어요.[error 9 learners]

22) 방에 두명 아들 그리고 엄마가 있어요.

23) 형은 엄마 옆에 서있어요.

24) 엄마와 형이 아이에게 화내요.

25) 하지만 아이는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그림을 그려요.[error 9 learners]

[P-6]

26) 빵집 여자가 신선 빵을 테이블을 놓아요.[error 9 learners]

27) 빵집앞 차에 엄마와 아이들이 있어요.

28) 엄마가 시계를 보아요.

29) 아이들이 학교가는 시간이어요.

30) 아이가 차에서 뛰어 내려요.

[P-7]

31) 벽에 그림이 몇 걸려있어요.

32) 아이들이 그린 동물그림이에요.

33) 한 아이가 그림을 벽을 걸어요.[error 8 learners]

34) 뒤에 선생님이 그림들을 보아요.

35) 다른 아이가 그림을 가지고 와요.

[P-8]

36) 여자아이가 아기를 안아요.

37) 소파에 엄마, 아빠, 언니, 동생이 앉아 있어요.

38) 여자아이가 아기를 침대를 놓아요.[error 9 learners]

39) 여자아이가 아기를 보고 웃어요.

40) 여자아이가 아기 Binde (기저기)를 바꾸어요.

[P-9]

41) 동생이 상자 안에서 이를 딱아요.

42) 언니가 동생 보고 많이 웃어요.

43) 언니와 동생이 목욕방에 있어요.

44) 동생이 옷을 바닥을 놓아요.[error 9 learners]

45) 언니는 장난감을 물통을 넣어요.[error 8 learners]

[P-10]

46) 벽앞에 아이들이 있어요.

47) 아이들이 좋아한 색을 벽을 칠해요.[error 9 learners]

48) 모두 다른 색깔이에요.

49) 아이들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50) 아이들이 서로 보고 즐겁게 웃어요.

[P-11]

51) 남자가 토마토를 안고 가요

52) 아이가 야채를 가지고 놀아요.

53) 아이가 상자 위에 서있어요.

54) 아이가 파프리카를 길을 던져요.[error 8 learners]

55) 파프리카가 남자를 때려요.

[P-12]

56) 왼쪽 트럭 앞에 두 남자가 있어요.

57) 남자들이 상자를 트럭을 실어요.[error 8 learners]

58) 오른쪽 남자가 아이에게 말을 해요.

59) 하지만 아이는 듣기 싫어요.

60) 계속 남자는 아이에게 얘기해요.

5.2. Examples of errors made by Korean learners

(Example 4) is a German version of (Example 3) and is written by Korean learners. Let us see where they made errors. Aside from the underlined parts, missing prepositions or articles, misuses of plural or singular forms, spelling errors, or awkward expressions are not discussed in this paper.

(Example 4)

[P-1]

1) Auf der Koppel stehen 3 Pferde.

2) Dabei sind Sohn und Vater.

3) Vater bereitet sich für das Reiten vor.

4) Sohn gibt Apfel dem Pferd.

5) Außer der Koppel schlägt ein Mann an dem Zaun eine Nadel.[error 9 learners]

[P-2]

6) In der Straße sind viele Leute.

7) Ein Kind steht vor dem Ampel.

8) Einige Leute sprechen mit dem Handy.

9) Ein Kind steckt einen Brief in dem Postkasten.[error 9 learners]

10) Am Fenster sind 2 Männer.

[P-3]

11) Auf dem Markt sind viele Leute.

12) Eine Frau kauft eine Wurst.

13) Im Gemüseladen steckt Kaufer Tomaten in der Tüte.[error 9 learners]

14) Ein Mann legt Orange in der Waage auf.[error 9 learners]

15) Kaufer gibt Wurst einem Kind.

[P-4]

16) Mutter stellt den Teller auf dem Schrank ein.[error 9 learners]

17) In der Küche gibt viele Geschirre.

18) Das Kind spielt mit Spielzeug in der Küche.

19) Vater räumt im Zimmer auf.

20) Im Zimmer sind viele Kasten.

[P-5]

21) Der Junge legte seine Tasche auf dem Boden.[error 10 learners]

22) Im Zimmer sind Mutter und 2 Sohne.

23) Mutter spricht zu kleinem Sohn etwas.

24) Mutter und älterer Bruder sind ärglich auf kleinen Sohn.

25) Aber kleiner Sohn malt weiter auf dem Papier.[error 10 learners]

[P-6]

26) Die Frau legt frische Brotchen auf dem Tisch in der Bäckerei.[error 10 learners]

27) Vor der Bäckerei steht ein Auto.

28) Im Auto sitzen 2 Kinder und Mutter.

29) Mutter guckt ihre Armbanduhr.

30) Die Kinder müssen eilig in die Schule gehen.

[P-7]

31) Einige Bilder hängen an der Wand.

32) In den Bilder stehen viele Tiere.

33) Ein Junge hängt ein Bild an der Wand.[error 8 learners]

34) Ein anderes Kind bringt ein Billd.

35) Die Lehrerin guckt die Bilder.

[P-8]

36) Auf dem Sofa sitzen eine Familie.

37) Das Baby schläft im Arm von Mädchen.

38) Das Mädchen legt Baby im Bett.[error 10 learners]

39) Mädchen macht Binde von Baby wechseln.

40) Mutter ist bei dem Bett.

[P-9]

41) Im Kasten putzt kleines Mädchen die Zähne.

42) Ältere Schwester guckt dem lachenden Mädchen.

43) Im Badzimmer sind 2 Mädchen.

44) Kleines Mädchen legt ihre Kleidung auf dem Boden.[error 10 learners]

45) Ältere Schwester stellt das Spielzeug in dem Wassereimer ein.[error 9 learners]

[P-10]

46) Vor der Wand stehen viele Kinder.

47) Die Kinder malen ihre liebe Farben an der Wand an.[error 10 learners]

48) Die Farben sind alle unterschiedlich.

49) Alle Kinder machen viel Spaß damit.

50) Die Kinder lachen miteinander.

[P-11]

51) Ein Mann lauft mit Tomaten.

52) Ein Kind spielt mit viele Gemüse.

53) Das Kind steht auf dem Kasten.

54) Das Kind wirft viele Paprika in der Straße.[error 9 learners]

55) Ein Mann lauft schnell weg.

[P-12]

56) Vor dem Wagen liegen viele Karton.

57) 2 Männer laden einen Karton in dem Wagen auf.[error 9 learners]

58) Ein Mann spricht ein Kind an.

59) Das Kind guckt den Mann an.

60) Der Mann sieht komisch aus.

The underlined errors in (Example 3) and (Example 4) describe a place. German learners incorrectly used '-를/leul/' where '-에/e/' should have been used instead while Korean learners incorrectly used 'dative' where 'accusative' should have been used. The numbers of misusers are similar between the both learner groups.

6. Error analysis

From the examples, we will examine the situations in which learners make errors and identify the causes behind them. We will also look into any similarity between learners who speak the same mother tongue and compare the examples of errors between both language learners.

6.1. German learners

The underlined parts in (Example 3), which are Korean sentences written by German learners, are examples of errors of a postposition that indicates a place. However, error of a preposition was not seen in any of the sentences from [P-1] to [P-12] that described a place as shown in the square mark's words. We will consider the underlined errors in (Example 3) to find out why they were made.

6.1.1. Error sentences

The verbs used in the error sentences of (Example 3) are as follows:

'치다/박다 (nail)' in [P-1], '넣다 (put)' in [P-2], '넣다・올리다 (put・place)' in [P-3], '넣다 (put)' in [P-4], '놓다・그리다 (put・draw)' in [P-5], '놓다 (put)' in [P-6], '걸다 (hang)' in [P-7], '놓다/누이다 (put/lay)' in [P-8], '놓다・넣다 (put・place)' in [P-9], '칠하다/그리다 (paint/draw)' in [P-10], '던지다 (throw)' in [P-11], and '싣다 (load)' in [P-12].

What these verb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ccompany an action or a movement by a subject and bring about a result or a change. For example, if the sentence in [P-2] is to be corrected, {아이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요/ai-ga pyeonji-leul uchetong-e neooyo/.} is grammatically correct; however, this German learner chose '-를/leul/' instead of '-에/e/'. We will look at German expressions to find the reasons behind such a choice. (Example 5) is a German-translated version of the erroneous sentences written by German learners in Korean as seen in [P-1] to [P-12].

(Example 5)

[P-1] Außer der Koppel schlägt ein Mann an den(acc.) Zaun eine Nadel.

[P-2] Ein Kind steckt einen Brief in den(acc.) Postkasten.

[P-3] Der Käufer steckt die Tomaten in die(acc.) Papiertüte im Gemüseladen.

Ein Mann legt die Orangen in die (acc.)Waage auf.

[P-4] Mutter stellt den Teller auf den(acc.) Schrank ein.

[P-5] Der Junge legte seine Tasche auf den Boden.

Aber das Kind malt auf das (acc.)Zeichenbuch am Schreibtisch.

[P-6] Die Bäckerin legt frische Brötchen auf den(acc.) Tisch.

[P-7] Ein Kind hängt ein Bild an die(acc.) Wand.

[P-8] Das Mädchen legt das Baby ins (acc.)Bett.

[P-9] Die kleine Schwester legt ihre Kleidung auf den(acc.) Boden.

Die ältere Schwester stellt das Spielzeug in den (acc.)Wassereimer ein.

[P-10] Die Kinder malen ihre liebe Farben an die(acc.) Wand an.

[P-11] Das Kind wirft viele Paprikas auf die(acc.) Straße

[P-12] 2 Männer laden einen Karton in den (acc.)Lastkraftwagen auf.

As seen in (Example 5), 'accusative' is used in all the German sentences. This means that German learners' error of '-를/leul/' can be attributed to the negative transfer of their native language. Still, as seen in (Example 1), German, like Korean, also uses 'dative' to indicate a place. In (Example 5), on the other hand, 'accusative' is used to indicate a place. How can this discrepancy be expla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is,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expressions. German is a subject-focused language where the act of a subject is primarily expressed. For example, if [P-2] is to be written in Korean, it is supposed to be {아이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요/ ai-ga pyeonji-leul uchetong-e neoeoyo/.} while in German, it becomes {아이가 편지를 우체통을 넣어요/ ai-ga pyeonji- leul uchetong-eul neoeoyo/}. This shows that German focuses on the act of the subject – putting letter into a mailbox – rather than the resulting change or outcome of the act – the letter that has been put into the box by the subject. In German, since focus is placed more on the act of the subject, German learners pick 'accusative', which can actively express the place or the direction where the act took place or is about to take place. 'Accusative' serves to highlight the action of the subject. German expressions too place greater importance on the 'active movement or act of a subject' than on the outcome or resulting change of an act. For this reason, 'dative' is used when expressing a place where one has been staying and where the subject's movement or action is not made as shown in (Example 1) while 'accusative' is used to indicate a place where the subject's movement or action is made and which appears at the end of the

action as seen in (Example 5).

6.1.2. Similarities between speakers with the same native language

The examples of writings of German learners will show whether they display similarities in Korean expressions. Let us take a look at sentences in [P-2] of (Example 3).

6) 길에 사람 너무 많아요.
8)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신문읽어요.
10) 아이가 편지를 우체통을 넣어요.

Sentences 6) and 8) of [P-2] have parts that need '-에/e/', which indicates a place, and eight or more. German learners used it correctly in sentences similar to these. In sentences similar to sentence 10), eight or more learners incorrectly used '-를/leul/'. This phenomenon is not only seen in [P-2] but is also widespread across [P-1] to [P-12]. Correct or incorrect uses of postpositions, which indicate a place, are found in similar or same scenes, it seems a cause of their mother tongue. German learners are influenced by their mother tongue when referring to places in their target language Korean. Sometimes they are positively influenced in using the target language correctly but, in this case, they seem to have misused the preposition under the negative transfer of their mother tongue.

6.2. Korean learners

The underlined parts in (Example 4) show that Korean learners wrongly used declensions to indicate a place. As seen the words of the square marks and underlines in sentences [P-1] to [P-12], not all sentences display errors with a declension for a place. Let us examine the examples of errors as underlined in

(Example 4) to see how the errors were made.

6.2.1. Error sentences

In (Example 4), the verbs used in error sentences are as follows:

'schlagen (nail)' in [P-1], 'stecken/einstellen (put)' in [P-2], 'stecken/einstellen・auflegen (put・place)' in [P-3], 'stecken/einstellen (put)' in [P-4], 'legen・malen (put・draw)' in [P-5], 'legen (put)' in [P-6], 'hängen (hang)' in [P-7], 'legen (put/lay)' in [P-8], 'legen・einstellen (put・place)' in [P-9] 'anmalen/malen (paint/draw)' in [P-10], 'werfen (throw)' in [P-11], and 'aufladen (load)' in [P-12].

What these verb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indicate the subject is making a movement or an action, causing something to change its state or stay still {as a result of an action}. For example, if [P-2] is correctly translated in German, it should be {Ein Kind steckt einen Brief in den(acc.) Postkasten}. This means that the Korean learner incorrectly used 'dative' where it should have been 'accusative'. To find the cause of doing this, let us look at Korean expressions. (Example 6) shows the Korean-translated versions of the error sentences from [P-1] to [P-12] written in German by Korean learners.

(Example 6)

[P-1] 목장 밖에서 남자가 울타리에 못을 박아요.
[P-2] 아이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요.
[P-3] 야채가게 판매원이 봉지에 토마토를넣어요.
남자가 오렌지를 저울에 올려요.
[P-4] 엄마가 그릇장에 접시를 넣어요.
[P-5] 남자아이가 바닥에 가방을 놓았어요.
작은 아들이 종이에 그림을 그려요.
[P-6] 빵집에서 여자가 테이블에 신선한 빵을 놓아요.

[P-7] 남자아이가 벽에 그림을 걸어요.
[P-8] 여자아이가 침대에 아기를 놓아요(뉘어요)
[P-9] 여자아이가 바닥에 옷을 놓아요.
언니가 물통에 장난감을 넣어요.
[P-10] 아이들이 벽에 좋아하는 색을 칠해요.
[P-11] 아이가 길에 파프리카를 던져요.
[P-12] 두 남자가 차에 상자를 실어요.

As can be seen in the underlined words in (Example 6), the preposition '-에 /e/' is used in all the Korean sentences. This indicates that the Korean learners' error of 'dative' as shown in (Example 4) is attributable to the negative transfer of their mother tongue. However, (Example 1) and (Example 2) showed that there were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German when indicating a place. Still, the use of 'dative' in (Example 4) is inappropriate unlike in (Example 1). This is because Korean and German have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s when referring to a place. Let us take an example of sentences in [P-7] of (Example 4).

31) Einige Bilder hängen an der Wand.
32) In den Bilder stehen viele Tiere.
33) Ein Junge hängt ein Bild an der Wand.

The underlined parts in the sentences above can be written in German as follows: in sentence 31) and 32), 'Dative' should be used as they respectively mean '벽에/byeok-e/' and '그림(안)에/geurim(an)-e/' while in sentence 33), 'accusative' should be used as it should read '벽을/ byeok-eul/' following the nature of German expressions. In Korean, however, '-에/e/' should be used in all three sentences. Unlike German, Korean takes a form of expression that focuses on the resulting change or outcome of an event, which can be called "statement-form for the

stress-of-an-affair (Park, Eunjoo, 2016: 209)". Therefore, '-에/e/'is used to highlight the 'place' where a change occurred, thereby limiting it to the place.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native language's expressive forms, Korean learners chose to use 'dative' in sentences 31), 32), and 33) of [P-7].

6.2.2. Similarities between speakers with the same native language

Let us take a look at German expressions made by Korean learners to see if they display any similarities. The following sentences come from [P-7].

31) Einige Bilder hängen an der Wand.
32) In den Bilder stehen viele Tiere.
33) Ein Junge hängt ein Bild an der Wand.

As mentioned in 6.2.1, Korean learners often choose 'dative', which is equivalent to '-에/e/' to indicate a place. It can be presumed that Korean learners associate with '-에/e/'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ir native language. In German, 'dative' or 'accusative' should be chose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Still, it is unfamiliar for many Koreans to use 'accusative' to mean a place where the subject brings about 'some' change or makes 'something' happen, as seen in sentence 33). Subsequently, they make errors in using 'dative' in place of 'accusative'. The error of 'dative' by Korean learners can be attributable to the negative transfer of their native language.

6.3. Comparisons of both learners' examples of errors

We examined the errors in (Example 3) and (Example 4), which are sentences written by German and Korean learners, respectively, after looking at the same picture. It seems that German learners incorrectly used '-를/leul/' as

influenced by their mother language, which focuses on the subject. Korean learners are likely to have misused ‘dative’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mother language, which tends to be a “statement-form for the stress-of-an-affair”.

The following verbs in <Table 1> are the ones that were used in (Example 3) and (Example 4). Let us compare the number of misusers among the two groups for each verb.

In <Table 1>, the number of misusers is eight or higher in both groups for every verb. The numbers of misusers for ‘치다/chida//schlagen’ in No.1 and ‘걸다/geolda// hängen’ in No.6 are identical and for the remaining verbs, the number of misusers is higher in Korean learners than in German learners. The gap is not great, but considering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t should not be neglected. We believe that more studies should be performed to find out why the number of Korean misusers is greater than their German counterparts.

<Table 1>

	German learners		Korean learners	
No	Verbs	Misusers	Verbs	Misusers
1	치다(박다)	9	schlagen	9
2	넣다	8	stecken (einstellen)	9
3	올리다	8	auflegen	9
4	놓다	9	legen	10
5	그리다(칠하다)	9	malen (anmalen)	10
6	걸다	8	hängen	8
7	던지다	8	werfen	9
8	싣다	8	aufladen	9

7. Conclusion

This paper examined German learners wh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Korean learners who learn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to see how they made errors in using case and postposition that indicate a place.

For analysis, we looked at examples of errors that were made in sentences that learners wrote while in their target language after seeing the same picture. Based on these examples, we examined the situations in which the errors appeared and the similarities between learners with the same native language and compared the errors between the both learner groups.

The German learners' error of '-를/leul/'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negative transfer[8] of their mother language, which focuses on the action made by the subject rather than the resulting change. The place where 'something' occurs in relation to the subject's movement or action is used with 'accusative'. 'Accusative' in this case serves to highlight the 'active action of the subject'.

Korean learners' error of 'dative' in sentences that indicate a place also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negative transfer of their mother language, which focuses more on the resulting change or outcome of an event brought about by the subject rather than the action made by the subject. As such, '-에/e/'is used to limit the scene to where the change took place.

In other words, the learners incorrectly used German declensions or Korean postpositions in sentences that described the same content because they were influenced by their native language: German prefers subject-oriented expressions while Korean prefers event-focused statements. It can be inferred, therefore, that the errors of the learners come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ressive forms

8 Recently, it has come to be known as "cross-linguistic influence" (Kellerman and Sharwood-Smith 1986;Ordlin1989) since the influence may come from not only the mother language but also another foreign language the speaker has already learnt.

of their mother language. Nevertheless, the influence of the mother language did not only result in errors as shown in (Example 3) and (Example 4); in some sentences in (Example 3) and (Example 4), 'dative' or '-에/e/' were correctly used. This suggests that a mother language influences the learning of a target language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For this reason, the characteristics or linguistic information of a target language's expressive form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so that learners can quickly pick up the target language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ir mother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As Corder (1967;1971;1981) argued, learners making errors is not entirely a bad thing. If making an error comes across negatively for a learner, he or she may come to avoid learning the challenging parts of the target language. That is, the learner may formulate a strategy to avoid making errors rather than try to learn the target language accurately[9]. If a learner intentionally avoids the challenging parts of the language or refuses to use them in order to not make errors, he or she is likely to end up learning very little of the target language.

Making errors is a natural proces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hose errors will set the path for future learners because they may give rise to better teaching methods.

9 If learners recognise errors negatively, they are very likely to avoid expressions of the target language that they find different from their mother language. These invisible errors (or unused parts) are called '非用'in水谷 (1985). Also, as mentioned by 朴恩珠 (2005;2008), learners may choose ambiguous expressions to avoid expressions that they find hard to use accurately.

【Bibliographies】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 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울 :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 塔出版社.

박세진(2012)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의 독일어모음에 대한 발음오류 -e-, ö-, ü-음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57, 한국독일언어문학회, 1-19.

성상환(2006) 「독일어권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모습」, 『국어교육연구』16, 국어교육학회, 389 - 417.

이정희(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이해욱(2014) 「독일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텍스트 산출 전략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34, 한국 독일어 교육학회, 99 - 119.

迫田久美子(2002) 『第二言語習得研究』, 東京：アルク出版.

朴恩珠(2005) 「日本語と韓国語の受身文対照研究―被害受身文における誤用をめぐって―」, 『日語教育』34, 韓国日本語教育学会, 103-124.

_____ (2008) 「日韓両学習者にみられる助詞の捉え方の相違をめぐって―『ばかり・だけ・のみ』と『만/man』の対照を通して―」, 『日本学会』76, 韓国日本学会, 29-43.

水谷信子(1985) 『日英比較：話とことばの文法』, 東京：くろしお出版.

Corder, P. (1967)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5, 161-169.

_____ (197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9, 147-159.

_____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Press.

_____ (1983) A role for the mother tongue. In Gass, S. and Selinker, L. (eds.) *Language Transfer in Language*. Rowley: Mass. Newbury House.

Kellerman, E. and Sharwood-Smith, M. (eds.) (1986) *Cross- linguistic Influen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Odlin, T. (1989) *Language Transfer: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k, E. (2016) 'On Subject Omission in Japanese and Korean-Declarative Sentences and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6, 국제고려학회, 179-210.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용어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외래어를 중심으로
Standard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erms
— Focusing on Loan Words

서광웅[1]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전진하는데 따라 우리 말의 어휘도 더 늘어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새 단어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김일성전집32: 355).》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생활에서 과학 기술이 차지하는 몫이 더욱더 커지고있으며 이로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용어들이 수많이 생겨나 적극 쓰이고있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가 보다 활발히 벌어져 많은 과학기술들은 한 나라나 민족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나라나 민족들에게로 급속히 보급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많은 학술용어들이 세계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쓰이고있으며 이러한 시대적환경속에서 우리 말에도 다른 나라에서 생겨난 과학기술분야의 용어들이 적지 않게 들어

1 Kwang Ung So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오고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을 우리 민족어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규범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말의 주체적발전의 측면에서 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언어가 노는 역할의 측면에서 보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아래에서는 해당 민족어의 어휘구성속에 들어와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들을 통털어 외래어라는 용어로 취급하려고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에 대한 규범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말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언어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존재하고 발전하는 현실적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민족어의 운명을 론할수 없으며 매개 민족어에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고유한 특성이 있는것만큼 민족성을 무시하여서는 민족어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언어가 잡탕화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은 우리 말에서 생겨난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들에서 생겨나 우리 말속에 들어오는것들로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규범화사업을 잘하여야 우리 말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에 대한 규범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언어가 노는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언어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리론화, 체계화하며 인민대중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뿐만아니라 언어는 전 세대가 이룩하여놓은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의 시대적조건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여 생겨나는 외래어들을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규범화하여야 과학분야별 학술용어의 체계성과 과학성, 규범성을 더욱 완비하여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은 물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에 대한 규범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끝으로 북과 남사이의 언어차이를 줄이며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차이들가운데는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용어들의 차이도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주체적인 립장에서 어휘정리사업을 진행하여과학기술분야의 많은 용어들을 우리 말로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외래어들을 다듬어왔지만 남에서는 국어순화과정에 외래어를 표기법에 맞게 다듬는것을 기본으로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용어들도 적극 받아들인것으로 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있다.('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반영된 외래어표기를 대비해보면 각각 4,900개, 37,410개)

북과 남의 외래어는 그에 대한 정리와 토착화정도, 표기법상의 차이로 하여 같은 뜻의 용어라고 해도 원어자체가 다른것, 원어는 같아도 적기가 다른것, 외래어표기와 원어가 다른것 등을 비롯하여 큰 차이를 가진다.

	(북)	(남)
례1:	아스피린: Aspirin(도)	aspirin(영)
	벤졸: benzol(도)	benzol(영)
	크레용: crayon(영)	crayon(프)
	멜로디: Melodie(도)	melody(영)
	도그마: догма(로)	dogma(영)

(북) (남)

례2: Aluminium(영): 알루미니움 알루미늄

gallium(영): 갈리움 갈륨

gothic(영): 고지크 고딕

canoe(영): 커누 카누

concrete(영): 콩크리트 콘크리트

(북) (남)

례3: 이리디움 Iridium(도) 이리듐 iridium(영)

티부스 Typhus(도) 티푸스 tiphus(영)

옥시토겐 oxytogen(영) 옥시토신 oxitocin(영)

류마치스 rheumatismus(도) 류머티즘 rheumatism(영)

뜨락또르 трактор(로) 트랙터 tracctor(영)

이러한 현실은 북과 남사이의 호상교류와 협력은 물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된다.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규범화가 우리 민족어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언어학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

1. 외래어의 규범화에서 제기되는 일반적문제

외래어는 들어오는 시기와 경로가 각이하고 특히는 사회적보급정도가 각이하며 그때그때 규범화하는 작업이 따라서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언어규범화에서 복잡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언어규범화란 한마디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작용으로 보다 전형적이고 인민적인 언어규범들을 제정하고 언어사용규칙과 규정을 세워나

가는 과정이다.

언어규범화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해당한 언어규범을 만드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언어규범은 민족어의 특징과 요구를 일반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언어사용준칙이라고 말할수 있다.

언어규범에는 서사규범으로부터 어휘규범, 발음규범, 문법규범 등 언어구조의 모든 분야의 규범이 다 포괄된다.

외래어의 규범은 크게 2가지 측면을 포괄한다.

첫째로는 외래어를 어떻게 우리 말의 주체적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우리 말로 정리하여야 할 외래어들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써야 할 외래어들을 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로 나선다.

둘째로는 정리대상에 속하지 않는 외래어들은 어떻게 적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외래어의 적기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선 외래어는 말그대로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온 단어인데 다른 나라 말과 우리 말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음운의 수나 음운체계의 차이 등으로 하여 외래어를 우리 말로 적는데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서사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외래어를 우리 글자로 적겠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문자로 적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외래어라고 하여도 우리 말에 들어와 우리 말 어휘구성을 보충하고 발전풍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글자로 적는것이 옳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공통되여있는 일부 기호화된 단어들 특히 단위기호같은것은 국제적으로 공용되고있는 로마자를 그대로 쓰는것

으로 하여 이 범위를 규정하는것도 외래어규범화의 범위에 들어간다.

셋째로는 세워진 언어규범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언어규범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바로서지 않은것으로 하여 해당한 언어규범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요구대로 쓰지 않는 현상들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옳지 못한 관점과 태도에도 있지만 그와 관련한 지도와 통제를 비롯하여 언어규범의 성과적실행과 관련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여있지 못한데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규범화에서는 언어규범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언어학적문제뿐 아니라 세워진 언어규범을 지키는데서 나서는 방도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언급이 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외래어의 규범화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2. 과학기술분야 외래어규범화의 원칙적문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말에는 없는 외래어과학기술용어가 계속 들어오는것으로 하여 어떤 용어들은 우리 말로 바꿀수 없는것들도 있고 또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는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외래어들에 대한 정리사업을 홀시한다면 언어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런만큼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을 될수 있는 한 우리 말로 정리하는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가 우리 말과 뜻같은 관계에 놓이는 경우는 우리 말로 다듬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외래어는 새로 생겨나거나 우리 말에 새로 들어온 단어

들로서 원래의 언어자료와 관계없이 전혀 새로운것으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는 원래의 언어요소를 토대로 하여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새말을 만드는 방법에는 물론 연구자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파생법과 합침법, 모조법, 의미분화법 등으로 갈라볼수 있다.

파생법이란 하나의 자립적의미부에 다른 비자립적인 의미부가 덧붙거나 자립적의미부의 형태를 바꾸는 방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실례로 '곡식'이라는 단어에 앞붙이 '햇'이 붙어 '햇곡식'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것이라든가 '줄이다'라는 단어로부터 '졸이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것을 들수 있다.

합침법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자립적인 의미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실례로 '아침'과 '저녁'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아침저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것을 들수 있다.

모조법이란 이미 있는 단어의 조성구조를 모방하여 그 단어와 대상론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한계렬에 들어가는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실례로 '주물품'이라는 단어에 기초하여 '주강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것을 들수 있다.

의미분화법이란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되였거나 한 단어가 두개로 갈라져 동음이의어로 되여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실례로 '물갈이'라는 말이 어항이나 물을 담아드는 곳에서 원래 있던 나쁜 물을 새물로 갈아대는것을 의미하였는데 일정한 단위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그 성원들을 교체한다는 의미도 가지게 된것을 들수 있다.

새말이 생겨나는 이러한 방법은 과학기술용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 말과 뜻 같은 관계에 놓이는 정도는 서로 다르며 파생법이나 합침법으로 이루어진 단어인 경우에 그 정도가 제일 크다고 볼수 있다.

실례로 정보용어에서 많이 쓰이고있는 'multicast(다중방송)', baseband(기초대역)', 'cryptography(암호표기)'라는 말은 '많은, 다량의'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multi-', '기반, 기초'의 의미를 가진 'base', '비밀'의 의미를 가진 'crypto-'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다른 단어와 합쳐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단어는 비록 그것이 새 단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매 단어나 언어요소들은 이미부터 자기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고있던 단어들이거나 언어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말과 뜻 같은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말로 능히 바꿀수 있으며 또 바꾸는것이 합리적이다.

둘째로, 국제공용어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듬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나라나 하나의 언어에서 생겨난 어휘들이 다른 여러 나라 말에는 그러한 말이 없거나 적절한 말로 대치할수 없는 경우에 그것이 생겨난 나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쓰게 되면서 국제공용어들이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공용어'라는 말은 공식언어로서의 공용어(公用語)와 공통적인 용어로서의 공용어(共用語)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있는데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여 쓰이는 국제공통적인 어휘들을 념두에 둔다.

국제공용어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언급되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공용어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면서 적기나 발음 그리고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어휘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현재 국제무대들에서 공용어로

쓰이고있는 영어, 로어, 프랑스어, 도이취어, 에스빠냐어, 중어와 일본어까지 포함한 언어들을 넘두에 둔다.

국제공용어들은 원래는 한 언어에서 생겨나 그것이 다른 여러 나라 말에로 전파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콤퓨터의 출현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정보과학기술의 용어들, 첨단생물공학기술의 용어들, 나노기술공학용어들은 오늘날 전세계적인 연구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그의 국제적인 규격화가 이루어지고있으며 국제공용어의 성격을 나타내고있다.

국제공용어는 또한 해당 학문분야의 전통적인 계승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학부문에서 중요의약품의 라틴어명칭, 생물학분야에서 국제적인 명명규약에 따라 통일적으로 표기하는 라틴어학명, 화학분야에서의 영어, 라틴어, 도이취어, 프랑스어 등의 문자로 공통적으로 쓰이는 화학원소명이나 화합물명은 개별적인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통일적으로 표기하고 부르고있으며 이 전통은 계속 계승되고있다. 이와 같은 국제공용어는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통일을 위한 견지에서 다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제공용어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는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다른 언어로부터 들어오는 학술용어들이 해당 분야의 용어를 풍부히 하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족어표현이 외국어의 차용보다 우선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용어는 우리 말로 만들어질 때 모호한 의미가 적어지고 용어의 개념이 정확히 인식된다. 일반어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학술용어는 본래의 일반적인 뜻과 용어들의 개념이 잘 어울릴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의식을 통하여 용어가 나타내는 뜻을 더 뚜렷이 파악할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국제공용어라고 하여도 우리 말로 다듬은

실례들이 적지 않다.

그가운데서 몇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 반도체3극소자
영어: transistor
로어: транзистор
프랑스어: transistor
도이취어: transistor
일본어: トランジスター
중어: 半导体三级管

조선어: 검안계
영어: ophthalmometer
로어: офтальмометр
프랑스어: ophthalmometer
도이취어: ophthalmometer
중어: 检眼计
일본어: オフサルモメーター

이러한 단어들을 다듬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어나 로어, 프랑스어, 도이취어와 같은 언어들은 기원상 공통성이 많은 언어들로서 많은 경우 일부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쓰이고있으며 조선어와 중어, 일본어는 다같이 한자를 수단으로 하여 단어를 만들면서 일련의 공통성이 생기게 되였는데 두 언어집단에서 대응되는 단어가 있다는데 있다.

실례로 물리학과 화학에서 쓰는 용어인 '물분해'는 영어나 로어, 프랑스어, 도이취어에서 다같이 'hydrolysis'이지만 조선어나 중어, 일본어에서 이에 대응되는 한자말단어가 있는데로부터 우리 말로 다듬게 되

였다.

또한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우리 당의 어휘정리방침에 의하여 새로 들어오는 많은 과학기술용어들을 우리 말로 다듬었다.

우에서 실례로 든 전자공학용어인 'transistor'는 조선어와 중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 더우기는 일본어에서까지 공용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반도체2극소자'라는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조건에서 그와의 체계성에 맞추어 '반도체3극소자'로 다듬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볼 때 국제적인 공용어라고 하여 리유여하를 물론하고 그대로 살려쓸 필요는 없다.

기초적인 국제공용어들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써야 하지만 우리 인민들의 언어의식속에 자리잡힌 용어들, 학문분야의 체계성과 련관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용어들, 우리 말로 대응되는 용어들은 모두 우리 말로 고쳐야 한다.

셋째로, 비록 우리 말과 뜻 같은 관계에 있는 단어라고 하여도 그 의미가 원래의 의미와 달라져 새로 생겨난 과학기술용어들은 다듬지 않는다.

과학기술용어의 실례로 '마우스'를 들수 있다.

원래 '마우스'라는 단어는 '생쥐'를 의미하는 일반용어였다. 그런데 콤퓨터분야에서 윈도우즈체계의 출현과 함께 위치지시기로 쓰이는 새 기구를 만들어내면서 그 모양이 생쥐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 이 단어는 영어나 로어, 프랑스어, 도이취어에서 다 '생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그대로 쓰고있다.

영어: mouse

로어: мышь

프랑스어: Mous

도이취어: souris

그러나 정보공학에서 쓰이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른데로부터 일본어나 중어에서는 다르게 쓰고있다. 일본어에서는 영어단어의 음을 그대로 따라 'マウス'라고 하며 중어에서는 '쥐모양의 표시기'라는 의미에서 '鼠标器'라고 한다.

우리 말에서도 영어단어의 발음 그대로 '마우스'라고 하고있다.

또 다른 실례로 체육용어인 '미들'을 들수 있다.

이 단어의 원어는 'middle'로서 우리 말에서는 '중간의'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단어는 프로권투의 몸무게급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중간급'이라고 다듬어놓으면 몸무게급의 체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것들을 의미적공통성만 보고 우리 말과 뜻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하여 정리하여놓으면 어휘수가 늘지 못할뿐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가져야 하는 과학기술용어의 특성을 파괴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넷째로, 일정한 단어결합의 략어로서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은 다듬지 않는다.

앞에서 본것처럼 새로운 대상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는데는 이미 있던 단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용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해당 기원어와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용어를 만드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비록 구체적인 용어는 대부분 자기 나라 말로 만들고있지만 그것을 략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며 통일적으로 리해하고있다.

실례로 정보학에서 쓰이는 용어인 'CPU'를 보기로 하자.

'CPU'의 기원어는 영어로서 'central processor unit(중앙처리장치)'이다. 이 단어결합은 다른 나라 말들에서도 그 의미에 대응되는 단어로 쓰고있다.

로어: центральное утрой ство процессора

도이취어: zentrale verarbeitungseinheit

프랑스어: unite de traitement central

중어: 中央处理机

일본어: 中央處理裝置

그러나 이러한 단어인 경우에도 다른 모든 나라 말들에서 략어로 표기할 때에는 'CPU'로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말에서도 일반어로는 '중앙처리장치'라고 정리할수도 있지만 전문용어로는 기원어의 발음 그대로 '씨피유'라고 하는것이 좋다.

다섯째로, 고유명사가 들어가 이루어진 과학기술용어는 다듬지 않는다.

현대과학기술용어들가운데는 고유명사가 들어가 생겨난 용어들이 매우 많다. 그것들을 부류별로 갈라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한 대상, 현상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생겨난 과학기술용어들이 있다.

다음으로 해당 대상, 현상의 고유한 이름이 그대로 과학기술용어로 된것들도 있다.

실례로 정보학에서 쓰이는 프로그람들의 이름들인 '워드', '액쎄스', '엑쎌' 등의 용어들은 원래 처음에 나올 때에는 해당 체계의 이름들로서 고유명사였지만 지금은 다른 단어들과 같이 쓰이면서 하나의 과학기술용어들로 되였다.

고유명사가 들어간 외래어들은 대체로 그자체로 리해가 국제적으로 공통적이다. 다시말하여 고유명사가 들어간 외래어들은 그 어느 언어에서나 동일한 형식으로 쓰이며 그에 대한 리해도 공통되여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은 국제공용어들을 그대로 살려쓴다는 원칙에 비추어 다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를 정리하는데서는 민족어의 주체성, 민족성을 적극 살리면서도 국제공통적인 방향을 옳게 고려하여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외래어규범화를 위한 적기문제

외래어의 적기에서 나서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갈라볼수 있다.

하나는 외래어를 우리글로 적는가 라틴글로 적는가 하는 적기수단과 관련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외래어를 우리 글자로 어떻게 적겠는가 하는 적기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외래어의 적기수단에 대하여 보자.

우리 나라에서는 외래어를 적는 수단으로는 국제공통적인 단위기호를 내놓고는 철저히 조선글자로 적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첫 시기부터 문맹퇴치운동과 병행하여 언어생활에서 한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려 주체 38(1949)년에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였으며 이때부터 우리 인민의 서사생활에서 외래적인 요소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고수되여오고있다.

우리 글에서 다른 나라의 글자들이 쓰이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적인 단위기호와 수량기호뿐이며 그밖에 일부 다른 나라 통신사의 이름이나 군사장비의 자호를 적는데 국한되고있다.

한편 일부 과학기술부문 특히 콤퓨터부문에서 장치나 체계의 이름이나 일부 줄임말들을 비롯한 새로운 학술용어들을 우리 말로 다듬고 일정한 인식시기까지 괄호안에 넣어 우리 말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범위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국한되여있다.

이러한 라틴문자표현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일종의 기호로서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고수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주지 않는것만

큼 어휘정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살려써야 할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외래어적기수단과 관련하여서는 철저히 우리 글자로 적으면서도 일부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기호화된것는것들만 외국글자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다음으로 외래어의 적기방법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외래어를 적는데서는 기원어에 토대하여 해당 나라 말의 발음에 충실하면서도 우리 말의 어음론적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 적기법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외래어표기법'은 따로 없으며 원래부터 들어와 쓰이는 외래어들은 매 단어마다 구체적으로 사정하여 사전에 올리는것과 함께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들은 '외국말적기법'의 규정을 따라 적고 있다.

'외국말적기법'은 외래어를 우리 말로 표기하는데서 그 나라 사람들의 발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 적기법으로서 51개의 어종에 따라 매개 언어의 적기를 구체화하여 서술하고있다.

로어와 에스빠냐어, 도이취어, 아랍어, 라틴어의 적기는 그것을 적은 해당 언어의 글자와 글자결합의 발음에 우리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일본어는 그것을 적은 일본어의 '가나'글자의 발음에 우리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는 그 발음을 적은 국제발음기호에 우리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중어는 한자의 표준발음을 적은 라틴자의 발음에 우리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적게 되여있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언어가 가지고있는 특성을 반영한것으로서 로어나 에스빠냐어, 도이취어, 아랍어, 라틴어는 거의나 글자대로 발음하지만 영어나 프랑스어는 글자대로가 아니라 국제음성기호를 리용한 발음법에 따라 발음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로어나 에스빠냐어, 도이취어, 아랍어, 라틴어는 전자법으로 적고 영어와 프랑스어는 전사법으로 적는다고 말할수 있다. '외국말적기법'은 세계 여러 언어들의 발음을 정확히 우리 글로 적기

위한 기준을 밝혀주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들어오는 학술용어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명과 도시이름, 세계적인 발명가들의 이름 등이 '외국말적기법'의 해당 나라 말의 표기법에 준하여 우리 글로 표기되고있으며 이와 함께 이미전부터 쓰인 학술용어들도 기원어에 립각하여, 여러가지 표현으로 쓰이던 용어들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다듬고있다.

실례로 정보용어인 'paradigm', 'packet', 'pattern', 'fatware', 'hacker'의 표기를 볼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단어들을 음운대응의 원칙에서 '파라다임', '파키트', '파턴', '파트웨어', '하커'로 적는것이 일반적이였으나 오늘날 이러한 단어들은 기원어의 발음대로 '패러다임', '패키트', '패턴', '패트웨어', '해커'로 표기하고있다. 또한 'game'은 '게임'으로, 'datagram'을 '데이터그램'으로 적고있다.

'뽜쏭곁수'에서 '뽜쏭'(프랑스학자)을 '뽀아쏭', '뿌아쏭', '포아손', '포아송'으로, '판 데르 왈쓰방정식'에서 '판 데르 왈쓰'(도이췰란드학자)를 '반 데르 왈스', '완 데르 왈스', '환 데르 왈스'로, '디리끌레문제'에서 '디리끌레'(프랑스학자) 를 '디리클레', '디리흘레'로, '랭뮤어의 공식'에서 '랭뮤어'(미국학자)를 '랑그뮤어', '랭그뮤어'로 서로 차이나게 표기하는것으로 하여 그 이름과 결합된 '~공식', '~정리', '~방정식' 등의 용어들이 수십가지로 사용되던것을 적기법의 원칙에 따라 다듬어 한가지로 규범화하였다.

외래어의 적기에서는 발음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민족어의 적기방식, 서사습관을 옳게 적용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외래어나 외국말을 그 나라에서 발음하는대로 정확히 적는다고 할때 거기에는 우리 인민들이 써본적이 없는 까다로운 소리마디글자들이 얼마든지 섞여있다.

물론 우리 글자는 소리마디식글자인것으로 하여 우리 글자로서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발음도 충분히 적을수 있다.

우리 글자는 자음이 19자, 모음이 21자이지만 실지 글자로 적을 때

에는 소리마디를 단위로 하여 묶어쓰는 방식을 취하고있다. 우리 말에서 자음과 모음이 소리마디단위로 결합이 가능한 글자수는 11,172자이지만 언어실천에서는 실지 쓰이는 글자의 수는 3천여자이다.

우리가 쓰지 않는 부호를 덧붙여가면서 외래어를 적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우리가 쓰지 않는 글자까지 만들지 않으면 적을수 없게 규범화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부호를 덧붙이고 괴상한 소리마디글자까지 적용한다고 하여도 외국말단어의 어음적외피를 모조리 꼭같게 적을수는 없는 조건에서 우리의 실지 글자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로, 우리의 서사습관을 따라 적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실례로 정보분야에서 쓰이고있는 영어기원의 외래어인 'option'을 들수 있다.

우리 말에서는 하나의 음절이 모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둘받침'뒤에 다시 자음이 오는 경우에도 실지 발음에서는 둘받침중의 하나만이 발음된다. 그런데 이 단어의 발음에서는 'p', 'ʃ'와 'n'이 나란히 온것으로 하여 적기가 매우 불편하다.

즉 '-tion'은 우리 말로 '숀, 슌, 션'의 여러가지로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민족어의 서사습관을 따라야 한다.

오늘날 우리 말의 적기에서는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숀, 슌, 션'이라는 글자는 쓰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 말의 력사에 '문션, 됴션'과 같이 '션'이라는 글자가 있을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 글자생활에서 한번도 쓰이지 않은 글자로가 아니라 '션'으로 적는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기원어가 우리 말에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의 적기는 보다 복잡하다.

이미전에 우리 말에 들어온 외래어들인 경우에는 기원어를 잘 알수 없는것들이 있다.

기원어를 추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원어대로 적는 방식이 있다.

우리는 영어나 도이취어와 프랑스어나 이딸리아어, 에스빠냐어 등에서 같은 글자라도 서로 다르게 적고있다.

실례로 'p, t, k, s'를 영어나 도이취어에서는 우리 말의 'ㅍ, ㅌ, ㅋ, ㅅ'의 거센소리로, 프랑스어나 이딸리아어, 에스빠냐어 등에서는 조선어의 'ㅃ, ㄸ, ㄲ, ㅆ'의 된소리로 적고있다.

그러므로 기원어가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나 이딸리아어, 에스빠냐어라고 추정할수 있고 원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해당 기원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을 규범화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우리 나라에서의 학술용어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용어외래어의 규범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보다 심화시켜 현실성있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말의 주체적발전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실증 분석에 입각한 언어 간섭에 대한 고찰
-한중 번역을 위주로

An Empirical Study on Linguistic Interference that Includes the Translation of Koean & Chinese

申泉[1], 김미연[2]
对外经济贸易大学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번역 공부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어 학습의 기본을 충족하는 학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학습 중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난관 가운데 하나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언어간섭 현상을 들 수 있다. 이 언어간섭(language interference)[3] 현상에 있어 모국어는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노출되어온 익숙한 환경 속에서 본능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1 Quan Shen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2 Mi Yeon Kim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E-mail : squan54@sina.com
3 본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간섭'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주로 나타나는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기로 한다.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영향은 중국어 및 번역 학습에 도움을 주고 효율을 높여 주지만, 이와 반대로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의 역할도 들여다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간섭'은 영어권 지역에서 확립된 용어로서, 외국어를 학습함에 있어 모국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로 인해 생기는 오류 현상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다.

Czochralski는 '간섭은 긍정적 및 부정적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오류를 유발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여 '타 언어 체계의 구성 법칙에 따라 목적 언어 체계의 요소를 사용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여기서 목적 언어요소의 사용을 회피하는 것을 긍정적 전이로 그 언어요소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 전이로 규정했다(주효진2008: 8). 또한, 학습 초기 단계에는 상당량의 모국어 언어 항목과 제 2 언어 항목 (negative interlingual transfer) 즉, 간섭(interference)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연구로 중간어 혹은 발전적 언어 형태 그리고 형태소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래리 세링커(Larry Selingker)는 그가 1972년에 발표한 Interlanguage를 통하여 제2언어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 언어체계(linguistic system of first language)나 제2언어 언어 체계(linguistic system of second language) 와는 독립적인 언어 체계(independent linguistic systems)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중간어 혹은 발전적 언어 형태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언어전이(language transfer), 문법 법칙의 단순화(simplification of grammatical rules) 그리고 문법 법칙의 지나친 일반화 등을 들 수가 있다(정한석 · 최주열 2013: 115-116).

실제로 목표 언어의 수월한 습득을 위해 학습자는 종종 본인의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이 때 발생하는 언어전이 현상은 모국어의 간섭으로 제2언어 습득의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는 제2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

생하는 과정으로 제2언어 학습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이 학문적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제2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학계에서 재조명을 받게 된다.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 외국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처음 학습하게 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는 모국어의 간섭현상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어 학습을 포함해 외국어 학습 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특히, 중국어에 있어서는 영어권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어져 왔고, 중국 내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있어 발생하는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한자에 관련된 오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국어가 한국어인 중국어 학습자들의 한자 사용 오류 현상과 모국어 간섭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이를 한•중 번역 과정에 접목시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실증조사를 통해 중국어나 한•중 번역학습자들이 실제로 느끼거나 그들이 나타내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간섭의 부정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효율적인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논문에서는 주로 번역의 장애요소 중에서도 언어간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언어간섭은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국어의 직・간접적인 간섭과 유형을 분류하고 원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외국어로써 중국어를 학습하고 나아가 번역하는데 있어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모국어 간섭과 효율적인 번역 방법 및

오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언어 간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연구가 진행될 방향과 연구 방법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오류 분석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중국어 학습자 및 번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텍스트 번역을 실시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텍스트 번역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중국어 학습자 및 번역자들에게 자주 출현하는 오류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텍스트 번역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모국어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 간섭현상의 유형들을 분류하고 이런 언어간섭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어휘적인 면, 문법적인 면, 화용론적인 면으로 나누어 언어 간섭의 유형을 정리 기술하였으며 텍스트 번역의 오류 현상 분석을 통해 한·중 번역시 발생하는 언어간섭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간섭현상의 감소 및 해소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1.3. 선행연구

본 선행연구는 기존의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모국어가 번역 과정 중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가운데 언어간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형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오류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영미권의 교육과 중국어 학습에 있어 발생하는 한자어 오류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번역의 장애요소로서 언어간섭에 대한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본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그 자료가 많지 않아 중국어 및 제 2언어 학습에 있어 나타나는 모국어의 간섭현상과 동시통역 학습자 및 중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오류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중국어 및 제 2언어 학습에 있어 나타나는 모국어의 간섭현상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표적으로 장리(张丽)(2007), 주효진(2008), 김선형(2010), 양윈(杨云) (2014), 성경숙(2015) 등이 있다.

장리(张丽)(2007)는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에 있어 발생하는 모국어 간섭 현상을 다루며,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가 야기하는 학습 시의 문제점과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조·분석 및 중간어 이론을 적용하고, 여러 사례의 오류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주효진(2008)은 중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간섭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중국어 습득에 있어서 언어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익혀 중국어 학습의 방해요인을 해소하도록 하며 동시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간주하고, 어휘와 형태·통사를 중심으로 언어 간섭의 실례를 제시해 정리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선형(2010)은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오류의 원인을 '한자에 의한 간섭현상'으로 간주하고, 한자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인 화자가 범하기 쉬운 중국어 오류를 문법, 어휘, 표현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 있어 간섭현상과 오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대조분석이론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와 오류분석이론(Error Analysis Hypothesis)를 활용하였다.

성경숙(2015)은 세대별 학습자에게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모국어 간섭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모국어 간섭이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부터 노인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 간섭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관찰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점을 분류해,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가 학습자들에게 제2언어 학습의 어려움을 주며 특히 노인학습자들의 경우 더 많은 오류 현상이 발생하

고 있음을 발견해냈다.

다음으로 동시통역 학습자 및 중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오류에 관한 연구로는 노순릉(2006), 문혜경(2008), 윤희정(2010), 지창란(2011), 김은주(2011), 田苗(2012), 申炤姬(2013) 등이 있다.

노순릉(2006)은 현대 중국어와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비교・분석하고 어휘면에서 유사 혹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어의 특성 및 용법을 분석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각 국가의 사전을 비교・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한자어와 현대 중국어의 어휘를 비교 및 분석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문혜경(2008)은 한・중 동형어의 의미대조 및 분류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어휘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의 어휘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교과서에 출현한 동형어를 대상으로 의미대조를 통한 유형별 분류를 진행했다. 의미대조 결과를 활용하여 중국어 학습 시 동형어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시켜 보다 쉽고 정확한 동형어 학습의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윤희정(2010)은 선행연구를 통한 한・일 양국의 언어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언어간섭의 측면에 착안하여 한・일 동시통역 학습 시 나타나는 한자어의 오류의 특징을 언어간섭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동시통역 시 모국어로의 자연스러운 통역과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한 동시통역의 학습과 한자어 사용 오류의 개선책을 모색했다. 통・번역 학습과정을 수료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위주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오류의 경향을 파악해 한자어 간섭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창란(2011)은 한국 한자어와 현대 중국어 어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선행연구를 중

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서로의 언어구조를 이해하고 중국어 학습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은주(2011)는 한·중 어휘대조와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의 어휘 학습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수반되는 오류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어휘 오류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를 바탕으로 오류 유형별 어휘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톈묘(田苗)(2012)는 한국 학생의 중국어 학습 과정 중 나타나는 한국 한자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현상과 사례를 분석하고, 언어 전이가 나타나는 양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며 이러한 오류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비교 분석법, 오류 분석법, 언어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와 길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한자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신조우지(申炤姬)(2013) 는 선행 연구를 통해 아직 연구가 미흡한 한·중 유사 한자어의 학습 시 발생하는 오류 현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한자어 사용의 오류를 분석해 한·중 유사 한자어 학습 시 발생하는 오류의 각종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도 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로써,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에 있어 나타나는 언어간섭현상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오류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오류 유형의 분석을 바탕으로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학습에 근거한 연구결과로 이를 번

역 과정에 적용한 연구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언어간섭, 즉 모국어 언어간섭이 번역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번역 학습 시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인 등장 형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오류 현상의 분석을 통해 오류빈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한편, 이러한 오류를 포함한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번역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언어간섭에 대한 설문조사

한·중 언어의 어휘 및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휘적인 면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는 한자문화권이라는 한자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체계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번역을 함에 있어 용이함과 어려움이 공존한다. 이런 어휘 및 구조적인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텍스트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1. 언어간섭 관련 TEXT 선정

실험 대상자의 학습 상태를 고려해 경제, 과학, 에너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살펴본 뒤, 통번역 교육 중 오류가 발생했거나 오류가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 단락이나 구절에서 32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10개 TEXT를 발췌했다.

<표 2.1> 번역 TEXT 설문 내용

번호	문항수	번역 TEXT
1	4	①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②과열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력과 다른 원가 상승으로 인해, ②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④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吴钟明・박종연 2010: 100).
		(①)亚洲国家的经济(②), 且因劳动力及其他生产成本提高(③), (④)。
2	1	①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 안전과 독립이 없는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吴钟明・박종연 2010: 101).
		(①), 对于穷人来说不存在自由。
3	3	①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의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② 전체적인 형세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으며, ③에너지 총량의 부족 국면이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吴钟明・박종연 2010: 111).
		(①), 中国能源供需（供给与需求）(②)的发生了重大变化, (③)。
4	5	쌍방은 과학과 경제방면의 경험을 ①함께 나누고, ②쌍방에 이익이 되는 저 탄소 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이용 ③동반자 관계'등을 통해, 기후에 ④친화적인 기술을 위한 글로벌 시장을 ⑤빠르게 개발하는데 동의했습니다(吴钟明・박종연 2010: 114).
		双方(①)科学及经济方面的经验, (②), 坚持可持续发展, 通过 ' 可再生能源及能源效率(③)'等, 就开发(④)技术, (⑤) 开发全球市场达成了一致意见。
5	3	집을 ①살 수 없는 서민뿐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②집을 사기보다는 임대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것이 ③더 편하고 더 경제적인 그런 임대주택을 기획해야 한다(여진 2006: 277).
		不光是(①)房子的平民老百姓, 即便是(②)的人也觉认为花钱租房子住更好的话, 我们也有必要计划准备出(③)的出租房屋。
6	5	중화문명은 ①그 강력한 결속력과 심오한 매력으로 많은 ②우여곡절을 거치면서 ③온전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5000년의 문명사를 ④갖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중국인들의 ⑤자랑입니다(吴钟明・박종연 2010: 125).
		中华文明(①),(②) 却(③)。中国(④)5000多年的文明历史, 这是所有中国人的(⑤)。
7	1	얼마 전 한국의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①1.8%포인트로, 2009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가광위・송화영・이정민 2014: 15),
		韩国金融投资业和韩国银行目前表示, (①)。
8	4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①생산국이자 소비국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에너지 공급 간의 모순을 ②완화시키기 위해서, ③여러 해 동안 중국 정부는 에너지 투자와 개발이용, 가격, 신용대부 등 방면에 ④일련의 장려정책을 마련했습니다(吴钟明・박종연 2010: 132).
		中国是世界上最大的能源(①), (②) 经济快速增长与能源供给之间的矛盾, (③)中国政府在能源投资和开发利用、价格、信用贷款等诸多方面(④)。
9	5	우리 미국인들은 식사의 가정과 사회적 의미를 ①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이미 ②일종의 향유와 교류의 매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패스트푸드점에 모여서 ③먹는 둥 마는 둥 점심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④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⑤느긋하게 긴장을 풀고 집에서 만든 저녁의 맛을 함께 즐기고자 합니다(吴钟明・박종연 2010: 321).
		我们美国人(①)餐饮的家庭和社会寓意, 与家人和亲朋友共进晚餐(②)。虽然我们仍然会在快餐饮店里(③)自己的午餐, 但是我们下班后都希望同家人(④)在餐桌旁共进晚餐, (⑤)共享家宴的美味。
10	1	①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대표처 쾅젠(壮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하가 안정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작용과 영향이 큰데다가 현재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가광위・송화영・이정민 2014: 32).
		(①)表示, 降息对于稳定经济增长的作用和影响无疑更大, 且目前通胀形势处于可控范围, 也为利率下调提供了空间。

2.2. 실험 대상자 선정

TEXT 번역의 조사 대상자는 한·중 번역 학습자 및 중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그리고 HSK 5급 이상의 중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주어진 TEXT의 완전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중 번역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TEXT 번역 과정 중 모국어의 언어간섭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가 모국어이면서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과 현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하며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거나 학습한 경험이 있고 HSK 5급 이상의 수준을 가진 중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성인들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3. 조사 및 통계

조사한 설문 TEXT를 정답률과 오류율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 문항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는 오류율을 나타냈다. 설문 TEXT자료를 일반적인 교재가 아닌 통·번역 전문 서적에서 발췌하는 한편, 실험자들의 중국어 수준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 TEXT의 번역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낀 실험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부분과 중국어 사전에 의지해 번역함으로 인해 오답률의 정확한 체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몇몇 문항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가운데 공통적인 오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2.2> 설문 TEXT 정답률 & 오류율 비교

TEX	number	정답률(%)	오류율(%)
1	①	92.5	7.5
	②	55	45
	③	42.5	57.5
	④	15	85
2	①	15	85
3	①	7.5	92.5
	②	30	70
	③	47.5	52.5
4	①	62.5	37.5
	②	35	65
	③	75	25
	④	32.5	67.5
	⑤	42.5	57.5
5	①	57.5	42.5
	②	60	40
	③	82.5	17.5
6	①	55	45
	②	80	20
	③	70	30
	④	82.5	17.5
	⑤	82.5	17.5
7	①	30	70
8	①	60	40
	②	77.2	22.5
	③	62.5	37.5
	④	40	60
9	①	27.5	72.5
	②	55	45
	③	45	55
	④	77.5	22.5
	⑤	50	50
10	①	37.5	62.5
평 균		52.65	47.35

설문 TEXT의 분석과정 중 나타나는 오류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크게 세 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오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휘적인 측면과 문법적인 측면 그리고 화용론적인 측면에 두드러진 오류현상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문항별로 다양한 오류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평균 30%에 해당하는 오류율을 보였고, 이 가운데 한국식 한자어의 영향에 기인한 오류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평균 28.5%에 해당하는 오류율을 보이며, 한국어의 어순과 다른 중국어의 어순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과 문장내의 문법적인 요소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평균13%에 해당하는 오류율을 보이며 한국식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여 번역하려는 경향과 중국식 표현의 완전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류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번역TEXT의 내용을 어휘, 문법,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중복해서 오류 체크를 하였기 때문에 위의 정답률 및 오류율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음에 유의하길 바란다.

<표 2.3> 설문 TEXT 오류 유형별 비교

문 항	어휘적인 측면(%)	문법적인 측면(%)	화용론적인 측면(%)
1	56	30	·
2	5	32	·
3	43	8	37
4	81	19	1
5	7	11	18
6	39	12	·
7	18	24	1
8	54	19	4
9	18	12	64
10	9	14	1
평 균	30	28.5	13

3. 실증 조사에 의한 언어간섭현상의 분석

3.1. 언어간섭현상의 유형 분류

3.1.1. 어휘적인 언어간섭

1-① “일부”: 오류 역문- 一部(명사: 일부), 局部(명사: 국부, (일)부분)

→‘일부(一部)’는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으로 인해 오류가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一些(양사: 약간, 몇, 일부, 수량이 확실하지 않은 사물에 쓰임), 部分(명사: (전체 중의)부분, 일부(분))’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1-②“과열”: 오류 역문-过度(형용사: 과도하다, 지나치다), 过硬(형용사: 능숙하다), 过饱(명사: 과포(화)), 激烈(형용사: 격렬하다, 치열하다)

→ 이는 과열의 뜻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거나 문맥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한국식 한자어인‘过热(형용사: 너무 뜨겁다/비유: 과열되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달아오르다)’의 직접 대입을 오히려 간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어로 ‘过热’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직면해 있으며”: 오류 역문- 面对(동사: 직면하다, 마주 대하다), 直面了(동사: 직면하다, 직시하다)

→ 이는 사전적 의미에 의존하거나 한국식 한자어의 직접대응이 이루어져 어색한 표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어 어휘‘직면(直面)’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面临着’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1-④ “상승”: 오류 역문-上升(동사: 상승하다, 올라가다), 增长(동사: 증가하다, 성장하다), 加速(동사: 가속하다, 속도를 내다), 上扬(동사: 상

승하다, 오르다), 上涨(동사: (수위, 물가 등이) 오르다), 提高(동사: 제고하다 향상시키다/명사: 제고), 增加(동사: 증가하다, 더하다, 늘리다), 升值(동사: 가치가 오르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다)

→ 한국어 어휘 '상승'을 뜻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특히 한국어 어휘 '상승(上升)'에서 한국식 한자어로 인한 언어간섭으로 인해 오류가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같은 뜻의 여러 단어 가운데 문맥상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해야 하고, 중국어로 '加剧(동사: 격화되다, 악화되다, 심해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2-① "개인": 오류 역문-私人(형용사: 개인의, 개인 간의)

→'개인'에 해당하는 어휘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어진 TEXT상에서는 '个人(명사: 개인(단체와 구별됨))'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3-② "전체적인": 오류 역문-全体(명사: 전체), 整个(명사: 온, 모든 것/부사: 완전히, 충분히), 全整, 全面(명사: 전면, 전반, 전체/형용사: 전면적이다. 전반적이다)

→ 한국어 어휘 가운데'전체적인'을 뜻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특히, 한국어 어휘'전체(全体)'에서 한국식 한자어로 인한 언어간섭으로 인해 오류가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 '整体(명사: (한 집단의)전부, 전체, 총체, 일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3-③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오류 역문-结束了(동사: 끝나다, 마치다, 종료하다), 基本完成了(거의 완수하다, 거의 마치다, 대체로 끝나다), 基本上解决(기본적으로 해결되다, 근본적으로 해결되다)

→ 한국어 어휘 '기본적'과 '끝났다'가 결합된 문장으로, 완전한 번역

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미를 확대 해석하기도 하는 등 적절한 단어의 선택이 미흡해 오류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기초 중국어의 학습을 통해 습득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중국어로 '基本结束了'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 "에너지": 오류 역문-能量(명사: 에너지/비유: (사람이 가지고 있는)능력, 역량), 活力(명사: 활력, 생기, 활기)

→ 본 TEXT에서 '에너지'가 뜻하는 바는 비유의 뜻이 아닌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能源(명사: 에너지원, 에너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4-① "함께 나누고": 오류 역문-一起享受(함께 즐기다, 함께 누리다), 互相分享(함께 나누다), 分享(동사: (기쁨, 행복, 좋은 점 등을) 함께 나누다, 함께 누리다)

→'함께 나누고'가운데 특히, '함께'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인 의미에 주로 의존하고 적절한 단어의 선택이 미흡해 오류가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 '共享(동사: 함께 누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4-② * "저탄소 경제": 오류 역문-低碳素经济

→ 한국어 어휘 '저탄소 경제(低碳素经济)'를 번역하는 과정 중에 많은 설문 조사 대상자에게서 한국식 한자어로 인한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低碳经济'라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이용해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 "지속가능발전": 오류 역문-继续可能发展, 持续可能发展, 持续发展

→'지속가능발전'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식 한자어로 인한 언어간섭이 발행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배열된 단어 그대로 한국식 한자어를 대입하여 다소 어색한 중국어로 번역된 결과를 초래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可持续发展'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4-③ "동반자 관계": 오류 역문-伴侣(명사: 배우자, 동반자, 동료)关系, 同伴者(명사: 동반자, 반려자), 陪伴(동사: 동반하다, 짝이 되다, 함께 하다), 合伙(동사: 동료가 되다, 동업하다)

→ 이 어휘의 경우,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한 번역으로 인해 문맥상 다소 어색한 중국어 어휘의 선택이 이루어졌고, 특히 한국어 어휘'동반자(同伴者)'의 경우는 한국식 한자어를 그대로 대입해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중국어로 '伙伴(명사: 동료, 친구, 동반자)关系'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4-④ "(기후에)친화적인": 오류 역문-亲和的(형용사(관계가)친화적인, 잘 어울리 는), 绿色(형용사:친환경), 亲和性(친화성), 亲自然(자연친화적인), 生态型(생태형), 环保的(친환경적인)

→ '친화적인'을 뜻하는 여러 단어를 사용해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어 어휘 '친화성(亲和性)'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중국어로 '气候友好型'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4-⑤ "빠르게": 오류 역문-快地(빨리), 很快(빠르다), 迅速(형용사: 신속하다, 재빠르 다), 急速(부사: 쏜살같이, 빠르게, 급속히), 赶快(부사: 황급히, 다급하게, 재빨리), 飞速(형용사: 매우 빠르다, 급속하다)

→'빠르게'를 뜻하는 단어가 많기에 문맥에 따라 적절한 단어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의 나열된 번역 TEXT상의 여러 예문들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굳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중국어 '加速

(동사: 가속하다, 빨리하다)', '加快(동사: 빠르게 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5-② "집을 사기보다는": 오류 역문-买家(명사: 소비자), 与其(접속사: ~하기보다는, ~하느니(차라리)), 比(개사: ~에 비해, ~보다)
→'买家'는 한국어 어휘 '집'에 해당하는 한자어 '家'를 직접 대응시키면서 잘못된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집'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房子'가 보다 적절하다. 또한, 접속사와 개사를 이용한 예문도 각각 단어의 뜻은 틀리지 않았지만, 중국어로 '比起买房子'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6-① * "강력한": 오류 역문-强烈(형용사: 강렬하다, 맹렬하다), 坚强(형용사: 굳세다, 굳고 강하다), 强力(명사: 강력한 힘/형용사: 강력하다)
→ 위의 예문 가운데 특히 '강력(强力)'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중국어로 '强大(형용사: 강대한, 강한)'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 "결속력": 오류 역문-纽带(명사: 유대, 공감대, 연결체)感, 结束力(결속력), 团体(명사: 단체, 집단)性
→ 위의 예문 가운데, 특히 '결속력(结束力)'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중국어로 '凝聚力(명사: 응집력, 단결력)'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 "심오한": 오류 역문-深渊(명사: 깊은 물, 심연), 深切(형용사: 깊고 확실하다)
→ 이는 '심오한'의 뜻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거나 문맥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한국식 한자어인 '深奥(형용사: (함의나 이치가)심오하다, 깊다)', '深远(형용사: (의의나 영향 등이)심원하다, 깊고 크다)'의 직접 대입을 오히려 간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어로 '深奥', '深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6-② “우여곡절”: 오류 역문-曲折(명사: 우여곡절, 복잡한 사정) 历程, 不少曲折, 很多的 问题中

→‘우여곡절’의 중국어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서도 사자성어를 많이 이용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艰难曲折(성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의)고달픔, 어려움, 우여곡절)’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6-⑤ “자랑”: 오류 역문-自傲(형용사: 거만하다, 오만하다), 夸耀(동사: (자기의 장점을)자랑하다, 뽐내다, 과시하다), 优势(명사: 우세, 우위)

→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문맥의 의미가 더 반영된 ‘自豪(형용사: 스스로 긍지를 느끼다/긍지, 자부심)’, ‘骄傲(형용사: 자랑스럽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다/명사: 자랑, 긍지, 자랑거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7-① *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류 역문-记录了最低点

→ 위의 예문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记录了最低点)’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중국어로 ‘再创新低, 再次达到最低值, 开创历史新低’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 “3분기”: 오류 역문-3分期(동사: 시기를 나누다), 3分岔(동사: 분기하다)

→ 위의 예문 가운데 특히 ‘3분기(3分期)’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어로 ‘분기’는 ‘季度’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따라서 ‘第三季度’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8-②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류 역문-为放宽(동사: 완화하다, 늦추다)

→ 이는 '완화'의 뜻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거나 문맥의 뜻을 잘못 파악하였거나, 한국식 한자어인 '为了缓和(형용사: (상황, 분위기 등이) 완화하다, 느슨하다/동사: 완화시키다, 진정시키다)'의 직접 대입을 오히려 간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어로 '为了缓和'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8-③ "여러 해 동안": 오류 역문-许多年(수년 동안), 连年(부사: 여러 해 계속, 해마다), 多年(명사: 여러 해, 다년간), 千日(명사: (비유) 매우 긴 시간, 여러 해 동안), 这几年来(근래 몇 년 동안)

→ 위의 예문들은 사전적 의미에 주로 의존해 이루어진 번역으로 다소 어색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 가운데, 특히 '여러 해(多年)'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양한 번역 예문이 등장했지만, 중국어로 '多年(명사: 여러 해, 다년간)来(명사: ~동안, ~이래)'또는'几年来'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8-④ "일련의 장려정책": 오류 역문-一连的奖励政策, 一些奖励政策, 一种奖励政策, 连的奖励政策

→ 위의 예문 가운데 '일련(一连)'과 '장려(奖励)'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어로 '一系列(형용사: 일련의)的鼓励(동사: 격려하다)政策'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9-② "향유": 오류 역문-享有(동사: (권리, 명예 등을) 향유하다, 누리다)

→ 위의 예문에서 '향유(享有)'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 '享受(동사: 누리다, 향유하다, 즐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9-③ “둘러앉아”: 오류 역문-团圆(동사: 한 자리에 모이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다), 团聚(동사: 한 자리에 모이다, 한데 모이다)
→ 위의 예문에서 ‘둘러앉아’의 뜻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거나 문맥의 뜻을 잘못 파악하여 다소 어색한 표현의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 ‘围坐(동사: 둘러앉다, 모여 앉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10-① *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류 역문-高级(형용사: (단계, 급수 등이) 고급인, 선임인), 经济家(경제가, economist), 首席(명사: 수석, 처음, 첫 번째), 分析人士(분석가)
→ 위의 예문에서 ‘수석’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의 뜻을 원문을 직역하여 대응시켰기 때문에 역문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어로 ‘首席经济学家’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 “중국대표처”: 오류 역문 - 中国代表处, 中国代表, 中国代表方
위의 예문에서‘중국대표처(中国代表处)’에서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 ‘驻(동사: 주둔하다)中国代表处’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3.1.2. 문법적 언어 간섭

1-② “과열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오류 역문-过热的危险面临, 面临过热的危险
→ 주어와 서술의 위치관계 및 시제의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한국어 어순의 형태인 목적어+ 술어를 취하고 있어 문법적 언어간섭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着’를 동사 뒤에 사용해 어떤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면서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 관계를 바꾸어 주어야 하며 문맥에 따라 ‘경제’를 추가해 넣어야 한다. ‘面临着经济过热的

危险'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1-③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오류 역문-恶化贸易收益, 贸易支出被恶化, 贸易支出变恶化了
→ 중국어 어순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려 했으나, 주어와 목적어를 혼동하거나 피동사 '被'를 잘못 사용하고, 또는 불필요한 동사 '变'를 사용해 오류를 야기했다. 또한, 중국어 문장을 만들 때 동태조사[4] 해당하는 '了'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문맥상 적절한 이해를 돕는 동사 '导致'를 첨가하고, 새로운 동사를 삽입하면서 주어진 문장을 명사구인 목적어로 나타내었다. '导致贸易收支恶化'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1-④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오류 역문-上升通货膨胀, 增长通货膨胀, 通货膨胀也加速了
→ 전문용어인 인플레이션 '通货膨胀'와 '상승하다'에 해당하는 여러 동사들을 사용했는데, 이 문장 역시 중국어 어순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려 했으나, 주어와 목적어를 혼동하고 또는 동사의 적절하지 못한 선택 등이 오류를 초래했다. 위 문장에 주어와 적절하게 선택된 동사 '加剧'를 사용함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通货膨胀加剧'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2-①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 안전과 독립이 없는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류 역문-
真正个人的自由没有经济安全情况下不存在, 没有经济安全和独立下, 真正的个人自由是不存在的, 真正的个人自由是没有经济稳定和独立的情况下根本不存在的
→'在~情况下'는 '在'와 방위명사 '下'가 결합하여 '범위/상황/조건 하에

4 동태조사: 동사나 일부 형용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변화나 상태를 나타낸다. 동태조사에는 了, 着, 过 가 있다. 이 가운데 동태조사 了는 동사 뒤에 붙고 목적어가 그 뒤에 온다.

서'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위의 예문들은 주로 '在'를 생략하고 진행한 번역과 '존재하지 않으며'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是~的' 강조문의 미흡한 사용 및 '是'와 '的'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잘못된 배치로 인해 문법적인 오류를 범했다.
가정관계 접속사 '如果'를 이용해 조건절을 문장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주어를 문장의 뒷부분에 배치해 문법적인 오류를 없애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번역을 해야 한다. '如果没有经济稳定和独立, 真正的个人自由是不会存在的'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3-③ "에너지 총량의 부족 국면이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오류 역문-基本上结束了能源不足局面
→ 위의 예문은 중국식(SVO) 어순을 고려하여 번역을 한 것 같으나,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문장은 한국어 문장 그대로 '주어+ 술어'의 어순인 중국어로 번역하면 된다. '能源总量不足的局面基本结束了'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4-② "쌍방에 이익이 되는 저탄소 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며": 오류 역문-共同努力实现低碳经济和可持续发展使双方得到利益, 双方利益低碳素经济和继续可能发展共同努力实现
→ 위 문장은 '불특정 주어'인 주어가 생략된 가운데, 동사가 문장의 앞에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한국어 어순의 직접적인 영향아래 중국어 문장으로 번역하거나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잘못 파악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共同努力实现符合双方利益的低碳经济和可持续发展', '共同致力于发展符合双方利益的低碳经济, 实现可持续发展'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6-③ "온전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류 역문-接下来完整
→ 중국어 어순(SVO)를 고려하여 문장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

나, 문법적 파악이 불완전하여 오류가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장은 한국어의 문장 순서 그대로 형용사+ 구조조사[5]+ 술어의 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较为完整地传承下来', '完整地延续下来'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7-① "3년 만에": 오류 역문-3年以后
→ '以后'는 현재 혹은 어느 시간 보다 뒤의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국어로 '时隔', '以来'라고 써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말하는 그때까지를 가리키는 문맥상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时隔3年', '3年以来'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8-② "생산국이자 소비국 중에 하나입니다": 오류 역문-
生产国和消费国, 既是生产国又是消费国为中一个, 生产地, 又是消费国
→ 위 예문은 불필요한 접속사나 부사를 사용해 번역한 문장이 장황해지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중국어 '之一(명사: ~중의 하나)'를 사용해 간결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生产国和消费国之一'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10-①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대표처 좡젠(庄健)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류 역문-亚洲开发银行中国代表庄健首席经济学家
→ 중국어에서는 직급이나 직위 그리고 호칭 등은 인명 앞에 배치된다.[6] '亚洲开发银行驻中国代表处首席经济学家庄健'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

5 구조조사: 단어나 구 뒤에서 붙어 특수한 어법작용을 일으키는 조사이다. 자주 쓰이는 구조로는 的, 地, 得이 있다.
的: 주어나 목적어 앞에 있는 성분을 수식 성분으로 변화시켜 관형어로 만든다.
地: 술어 앞에 있는 성분을 수식 성분으로 변화시켜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를 만든다.
得: 동사나 형용사로 된 술어 뒤에 붙여 정도를 표시하거나 기능을 나타내는 보어로 만든다.

6 예를 들어, '시진핑(习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习近平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

다.

3.1.3. 화용론적 언어간섭

3-① “1990년대”: 오류 역문-1990年代, 1990年, 1990时代, 1990年期

→ 위의 예문은 한국식의 배열 순서와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과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의 파악이 불완전해 ‘1990년대(1990年代)’라고 번역하는 오류가 발생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로 연대를 표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기 (世纪)~年代(연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중국어로 ‘20世纪90年代末’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중국어의 표현이 되겠다.

5-① “(집을) 살 수 없는”: 오류 역문-买不到, 买不了, 不能卖

→ 위의 문장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起’를 사용하여 숙어적 용법의 가능보어[7]의 사용함이 보다 더 적절한 번역이 된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를 뜻하는 동사[8]를 사용해 번역하였다. 하지만, 중국어로 ‘买不起’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중국어의 표현이 되겠다.

9-①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류 역문-再次发现, 再关注, 重新发现, 再次定义

→ 위의 예문들 가운데 의미의 확대 해석으로 인한 번역과 더불어 특

7 주관 혹은 객관적인 조건이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능보어 가운데 일부는 숙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동사와 결합하여 한 단어처럼 사용되며, 현대 중국어에서 상용된다. 부정형만 숙어처럼 사용되는 보어도 있고 긍정, 부정형 모두 숙어처럼 사용되는 것도 있다.

8 ‘不能’, ‘不了(동사의 뒤에 쓰여 동작을 완료할 수 없음을 강조함)’

히, ‘재발견(再次发现)’에서는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도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로 ‘重新认识’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중국어의 표현이 되겠다.

9-③ “먹는 둥 마는 둥” : 오류 역문-像吃没吃, 吃是吃但很忙
→ 위의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고자 할 때 한국어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직역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문을 이해한 후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습관에 따라 ‘似吃非吃’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중국어의 표현이 되겠다.

9-⑤ “느긋하게 긴장을 풀고” : 오류 역문-宽松地放松, 消除一天的压力和紧张
→ 다양한 방법으로 위의 문장을 번역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한국식의 표현 방법으로 접근한 결과 한국식 중국어로 번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중국어로 ‘轻松悠闲地’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중국어의 표현이 되겠다.

3.2. 언어간섭현상의 영향 요소 분석

3.2.1. 어휘적인 측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고, 한국어 어휘 중 많은 부분은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으로 한·중 번역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어휘 가운데 한자어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이미 일정 수준의 한자를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중국어 어휘와 동일한 어휘를 이미 습득하고 중국어 학습이나 한·중 번

역의 학습에 있어 생소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한·중 번역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식 한자어를 그대로 적용해 번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식 한자어를 적용하는 과정 중 직접적인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대체는 동형이의어인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다른 의미와 형태[9]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와 반대로, 한국식 한자어의 의미와 형태, 용법 면에서 비슷한 경우[10]로 사용되는 경우를 간과해 발생하는 오류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타 오류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해 번역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문맥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또한, 다양한 어휘의 선택 가운데 문맥상 적절한 어휘의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휘적인 측면의 오류는 한국식 한자어의 간섭에 의한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2. 문법적인 측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품사나 문법 상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해 중국어 학습 및 한·중 번역의 학습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형태 및 구조에

9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 한자어 가운데 의미상의 차이로만 구분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암산(口算), 물건(东西), 난방(暖气), 자질(素质), 향상(提高), 상처(伤痕), 공연(演出), 세관(海关), 의사(医生), 선생님(老师), 공항(机场), 제어(控制), 비행기(飞机), 변호사(律师), 간호사(护士), 병원(医院), 장려(鼓励), 견학(参观)

10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 한자어 가운데 의미상의 차이로만 구분할 때 완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계산(计算), 수학(数学), 외교(外交), 학교(学校), 신체(身体), 국가(国家), 실습(实习), 연령(年龄), 고독(孤独), 청춘(青春), 개혁(改革), 종교(宗教), 신앙(信仰), 지리(地理), 지식(知识), 기술(技术)

있어서 차이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언어의 문법적인 형태와 문장 구조의 상이성은 중국어 학습과 번역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한다.

'주어+ 술어+ 목적어(SVO)'를 기본적인 어순으로 하는 중국어와 '주어+ 목적어+ 서술어 (SOV)'를 기본적인 어순으로 하는 한국어에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어에 있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고, 어순의 변화에 따라 같은 어휘일지라도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는 문법관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순이고, 한국어에서는 문장성분이 격조사의 적용 형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술어의 위치가 바뀐다 해도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법적 오류로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어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중국어 어순에 따르고자 주어를 목적어로 잘못 배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어의 독특한 문법구조의 이해가 부족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장문의 문장일수록 문법구조 및 어순 등에 있어서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한국어의 문법구조가 나타나거나 중국어의 문법형태를 단순화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격조사[11]가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문장구조와 어감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번역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11 주격 조사(이/가, 께서, 에서), 서술격 조사(-이다), 목적격 조사(을/를, ㄹ), 보격 조사(이/가), 관형격 조사(-의), 부사격 조사(에/에서, 에게/에게서, -한테, -으로), 호격 조사(-아/야)

3.2.3. 화용론적인 측면

한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특정 사회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의 언어 인식 및 사용 방법에 있어 차이점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어의 언어간섭으로 인해 한국식으로 번역하려는 경향과 기존의 중국어 학습 시 습득한 내용의 제한적인 적용으로 중국에서 활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전적 의미나 배경지식 또는 한국식 한자어에만 기본을 둔 번역에는 분명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중국식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고, 이를 한·중 번역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비록 의미 전달은 성공하더라도 중국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번역이 될 수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한 오류를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간과하고 한국어를 중국어로 그대로 대응시켜 번역하려는 경향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중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의 부족한 이해로 진정한 중국어다운 중국어로의 번역이 완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해결방안

외국어를 모국어와 같이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모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 개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두 가지의 다른 언어가 한 사람의 언어 능력 속에 공존하게 되면 이들 언어 체계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 중 간섭현상도 함께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 언어 체계간의 긍정적인 전환만 이뤄진다면 번역을 하는데 있어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간섭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번역 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가운데서도 특

히 모국어의 언어간섭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언어간섭을 유형별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분류된 유형에 따라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어휘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어의 학습에 바탕을 둔 번역에 있어 어휘의 학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단어의 의미, 형태 및 단어와 문장간의 체계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어휘만의 뜻에만 치중하여 암기하는 방식의 어휘학습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각 단어의 형태와 의미에 담긴 정보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사항이고, 각 단어의 뜻만 가지고 실제 언어활동을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어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비교적 추상적인 의미로 개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실제 언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 단어들이 해당 문장 안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어의 다양한 배경지식과 활용 정보를 함께 학습하여야 한다. 또한, 한자와 중국어가 같은 형태지만 의미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식 한자어의 언어간섭에 있어서는 자주 출현하는 중국어와 한자 유의어를 집중적으로 추출하여 각각의 용법을 자세한 예를 들어 충분이 학습하는 동시에 한국식 한자어의 대응 빈도수를 줄여 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맥에 맞는 적당한 중국어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어휘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두 번째, 문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어 암기 위주의 외국어 학습에 바탕을 둔 번역의 학습은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의 오류에도 영향을 미쳐 간섭을 피할 수 없게 한다. 단어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에서 탈피해 문장을 통해 문법과 단어를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며 적용하는 방법까지 익혀야 한다. 어법을 알면 이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향

상될 수 있다. 그러나 어감을 느끼지 못한 채 어법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많은 예문을 접하고 암기해서 어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법개념을 잡는 것이 좋다. 어법만 강조하여 번역을 하는 경우에 종종 중국인이 쓰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문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중국어다운 자연스러운 어순과 중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법에 대해 익숙해 지도록 학습하고 그런 표현들에 노출되는 것이 보다 중국어다운 중국어로의 번역을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주효진2008: 14).

세 번째,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간섭에는 모국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이외에도 사회와 문화적인 방면의 간섭요소들도 설문 조사를 통해 발견했다. 이는 한국어의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기반을 둔 번역과 함께, 도착어의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나타나는 오류이다.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화용론적인 측면의 간섭은 중국 현지 생활을 바탕으로 현지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극복함이 가장 좋겠지만, 국내에서도 다양한 중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극복해 볼 수 있겠다. 교재를 통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언론매체와 현지 생활을 통한 다양한 경험 및 배경지식의 축적 등을 통해 중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화용적인 측면의 간섭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결 론

본 논문은 설문 텍스트의 번역을 진행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간 번역에 있어서 언어간섭의 주된 요인으로 어휘적인 측면, 문법적인 측면, 화용론적인 측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의 구체적인 실례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외국어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을 함에 있어 모국어인 한국어를 바탕으로 각 문맥에서의 개념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원래의 뜻을 유지하면서 문맥상 올바른 관계와 원문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는 만큼 번역문의 적절한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한 텍스트 내의 낱말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텍스트 내의 단어와 문맥상의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어 적절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모국어의 언어간섭까지 완벽하게 배제되었다면, 본 논문에서 기술한 설문 텍스트의 오류들은 발생되지 않았거나 그 빈도수가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원문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또한 표현의 등가를 이룰만한 단어를 찾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며 명확하고 도착언어만의 도착언어다운 자연스러운 표현이 완성되어야 한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사례들의 유형을 체계화하여 번역 학습자들에게 자료로 제공하여 교수와 학습에 반영하고,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 및 학습하는 것도 언어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학문으로 학습하는 동시에 중국의 문화, 생활, 역사 등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좀 더 중국어다운 중국어로의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두 언어의 공통 분모라 할 수 있는 한자어로 인한 언어간섭에 대해 고려해 볼 때 능동적인 한자어의 직접대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정확한 도착언어의 표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경계의식과 원문의 파악이 끝난 후의 원문의 한자어에 대한 의미 집착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한국어와 중국어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어와 한국어간의 언어간섭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든 언어간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현상이기 때문에 모국어의 언어간섭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번역을 학습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노하우를 통해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조사 및 연구는 한국인 번역 학습자들이 겪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간섭들로 인한 오류 가운데 극히 일부분밖에 다루지 못했다. 또한, 선행연구와 한정된 조사인원을 대상으로 설문 텍스트의 번역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범위가 넓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논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모국어 간섭현상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각도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영역별, 유형별 간섭오류 빈도에 관해 정확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간섭으로 인한 오류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한・중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가광위 외(2014) 『통번역 대학원 中國語 중한번역 편』, ㈜한솔차이나로, 15-32.

고종석(2015) 『불순한 언어가 아름답다』, 로고폴리스, 98-120 186-198.

김은주(2011) 「한중 어휘대조와 오류분석을 통한 중국어 어휘지도 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64.

김선형(2010) 「고등학교 중국어I학습에 나타나는 한자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65.

김태은 외(2015) 『중국 언어학개론』, 교육과학사, 161-302.

노순릉(2006) 现代中国语和韩国汉字语对照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84.

문혜경(2008) 「韓中 同形語 의미대조를 통한 어휘지도 방안-외국어계열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51.
박종한(2004) 『한국어에서 중국어 바라보기』, 학고방, 195-332.
박흥수(2006) 『중국 언어와 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8-38.
성경숙(2015) 「모국어 간섭이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56.
여진(2006)『아줌마 아저씨의 우리 대한민국』, 출판사 투멘, 277.
윤희정(2010) 「동시통역 학습자들의 한자어 오류 실태에 관한 고찰-언어간섭」, 부산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정한석·최주열(2013) 『기초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115-116.
정윤철(2008) 『현대 중국 언어학 개론』, 소통, 91-111.
조선탁(2011) 『중국어 한자의 어원』, 지식과 교양, 60-62 82-84.
주양곤(2004) 『韩·中 한자어 비교 사전』, 동양문고, 78 161.
주영(2014)「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양상 및 교육 방안-중국어 모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4.
주효진(2008) 「중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간섭현상-어휘와 통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14.
지창란(2011) 「韓國 漢字語와 現代 中國語 語彙比較硏究－高等學校 中國語敎材를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중국어학과 석사학위논문, 17-85.
한국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39 76-123.
허세립·천소영 공저(2014) 『한·중 언어문화론』, 대원사, 70-175.
吴钟明·박종연(2010) 『노트 테이킹만 알면 당신은 벌써 중국어 통역 전문가』, 북&월드, 100-321.
岑运强(2009) 『语言学概论』 (第二版), 中国人民大学出版社.

崔希亮(2008)「第二语言习得认知研究」,『汉语作为第二语的习得与认知研究』,北京大学出版社, 21-37.
黄锦章·刘焱(2004)『对外汉语教学中的理论和办法』, 北京大学出版社, 78-130.
李思华 (2008)『对外汉语教学中的偏误分析与统计应用』, 上海大学出版社.
王建勤(2014)『第二语言习得研究』, 商务印书馆.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2012)『现代汉语词典』第6版. 商务印书馆.
申炤姬(2013)「汉韩近义汉字词对比与偏误分析」,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33-50.
田苗(2015)「韩国学生母语汉字词误推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5-32.
杨云(2014)「韩语母语者习得汉语存现句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5-37.
张丽(2007)「论韩语汉字词对韩国学生学习汉语的影响」, 天津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3-30.
한국 포털 SITE: www.naver.com
네이버 국어 사전, 중국어 사전
중국 포털 SITE: www.baidu.com, www.people.com

Mutual-Aiding Culture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 1904-1960

Duk Hee Lee Murabayashi[1]
Korean Immigration Research Institute in Hawai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utually assisting activities of 7,400 early Korean immigrants who arrived in Hawaii during a two and one-half year period starting in January 1903. While mutual-aiding activities can be 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paper looks at it from the viewpoint of a giver or provider: whether the help was rendered spontaneously and informally by individual(s), or given as a part of group activities, or performed by organizations which were formed for such specific purposes.

In the first section, a summary of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is provided. In the second section, eight activities rendered by individual Korean immigrants are traced. The third section analyzes ten activities provided by Korean groups established for other purposes. In the fourth section, four Korean organizations which were established to provide aid to fellow Koreans are

1 President
E-mail : dhmurabayashi@gmail.co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Overseas Leading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5-OLU-2250005).
The earlier Korean version of this paper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Vol. 40 (October 2016, 41-72). In this English edition, the sections on the Chinese and Japanese mutual-aiding activities of the published Korean edition have been eliminate to meet the length requirement, and other contents have been corrected, reorganized and expanded.

reviewed.

1.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Sugar cane was grown in all parts of the Kingdom of Hawaii beginning in 1840, and yet Koloa Plantation on Kauai was the only plantation on Kauai. Since then, sugar cultivation expanded and many large-scale plantations were established. Sugar exports rose from 180 tons in 1840 to 300 tons in 1847, and the expanding sugar industry required more laborers during a time when the native population was rapidly decreasing. Native Hawaiians, numbering 125,000 in 1831, shrank to 84,000 by 1850.

In order to meet the labor shortage, the Kingdom of Hawaii government passed An Act for the Government of Masters and Servants in June 1850.[2] This Ac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ntract foreign-labor system. Subsequently, Chinese immigrants began arriving in January 1852, and by 1898, 30,000-40,000 Chinese had arrived.[3] In February 1885, the first group of 148 Japanese contract laborers arrived and by 1900, 61,111 Japanese were residing in Hawaii.

Meanwhile, the Kingdom of Hawaii was overthrown in January 1893 and became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in 1898. Also, the Joseon dynasty opened its doors in May 1882 with the signing of the Treaty for Peace, Amity, Commerce,

2 For a legal background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see Baik, Tae-Ung and Duk Hee Lee Murabayashi, (2011)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arly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and its Legal Structure,' Journal of Korea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11-1, 77-99.

3 The number of Chinese immigrants from 1852 through 1898 is variously estimated between 50, 000 to 56,000. These numbers includes multiple entries. Ralph S. Kuykendall estimates the number to be 30,000 - 40,000 in The Hawaiian Kingdom, Vol. 3, (1967) University of Hawaii Press, 1 52. On the other hand, Clarence E. Glick estimates the number to be 46,000 in his book, Sojourners and Settlers, Chinese Migrants in Hawaii (1980), Hawaii Chinese History Center and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21. Although the 1882 Chinese Exclusion Act prohibited Chinese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 Kingdom of Hawaii continued permitting Chinese immigration. When Hawaii became a U.S. Territory in 1898, Chinese immigration to Hawaii stopped.

and Navig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May 1883 an American Legation was established in Seoul and Lucius Foote arrived as the first Resident Minister of the U.S. in Seoul. In 1897 Horace N. Allen became the American Minister and in March 1902 he promised the Hawaiian Sugar Planters' Association (HSPA) to help send Korean laborers to plantations, which were still facing a labor shortage. Allen, a trusted adviser to Emperor Gojong, convinced the Emperor to finally give his permission allowing Koreans to immigrate to Hawaii. On January 13, 1903 102 Koreans arrived in Honolulu, Territory of Hawaii. By June 1905, approximately 7,400 Koreans had landed in Hawaii. Of these, about 2,000 moved on to the U. S. mainland and 1,000 returned to Korea during the next few years. According to the 1910 U.S. Census, 4,533 Koreans, including 361 Hawaii- born, resided in various islands of Hawaii.

2. Spontaneous Individual Assistance Activities

2.1. Sangdong Young People's Institute

The first monetary donation by a Korean immigrant in Hawaii took place in late 1904. Soon upon being released from Seoul Prison on August 8, 1904, Syngman Rhee participated in organizing the Sangdong Young People's Institute (Sangdong Cheongnyeon Hakwon 상동청년학원) of the Sangdong Methodist Church in Seoul. Rhee set up the school system and even participated in raising funds. For his fund-raising efforts, Syngman Rhee stated that his friend residing in Hawaii sent a contribution for the school despite his own predicament. Syngman Rhee revealed this donation, without naming the contributor and amount, in an article in the *Sinhakwolbo* (신학월보) in November 1904.

2.2. Syngman Rhee's Travel

Sangdong Young People's Institute opened on October 15, but Syngman

Rhee abruptly left for America on November 4, 1904. On November 29, the S. S. *Siberia* with Syngman Rhee on-board stopped at Honolulu Harbor and Rhee was able to spend a day in Honolulu. Rhee visited the Honolulu Korean Methodist Church and delivered a speech at the Methodist church at Ewa Sugar Plantation in the late evening. Rhee stayed overnight at Ewa plantation with P. K.Yoon, a fellow student at the Paichai Hakdang a few years earlier, and returned to Honolulu early next morning to leave for San Francisco. As Rhee was departing, P. K.Yoon handed Rhee $30, which was donated by fourteen Koreans, including P. K. Yoon himself. The list of donors, which is kept in the Syngman Rhee Institute, Yonsei University, is the oldest record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helping a Korean visitor with "travel money."

2.3. Ewa Methodist Church Building

In 1905, approximately one hundred thirty-five of five hundred Koreans working and living at Ewa Sugar Plantation attended the plantation's Korean Methodist church. Church members requested George F. Renton, the plantation manager, to construct a church building for them with a presentation of $300. The money was voluntarily collected among themselves and this amount means that each church member contributed about $2 each when their monthly salary was $18 - $20. Deeply moved, Renton built a church for $1,000 and used the $300 from the Korean congregation for interior furnishings. The church was dedicated on April 30, 1905 as the first church building constructed for a Korean congregation in Hawaii. Unfortunately, the church building no longer exists.

2.4. San Francisco Earthquake Damage

During the great earthquake of San Francisco on April 18, 1906, the Gongnip Hyeophoe (공립협회) office building burned down, although no one was

hurt. Upon hearing the news, twenty laborers at Ewa Sugar Plantation collected $29, at Makaweli Plantation on Kauai collected $11.25, and at Mokuleia Plantation on Oahu collected $20.90 to be sent to Gongnip Hyeophoe.[4] This was done without anyone's direction or urging. Hawaii Koreans rendered helping hands from their meager earnings to fellow Koreans in San Francisco.

2.5. Korean Boarding School for Boys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Hawaii Education Superintendent, one hundred sixty-one Korean students were attending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1906.[5] School-aged students were attending nearby schools at various sugar plant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 lot of young adults who needed so-called “modern education” as well as English lessons. They were, however, unable to enroll at elementary schools due to their age. Realizing this situation in the summer of 1905, several Korean Methodist church leaders requested, with a pledge of $2,000, that John W. Wadman, superintendent of the Hawaii Mission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es (Hawaii Methodist Mission hereafter) start a school for Koreans in Honolulu. As a result, Hawaii Methodist Mission opened the Korean Boarding School for Boys (KBS) in the fall of 1906 for a total cost of $18,000. Of course, Koreans fulfilled their pledges. Unfortunately, no donor list has been found.

KBS opened with 65 students who paid $30-$50 boarding fees per year depending on their ages, although there was no tuition charge. Many plantation laborers voluntarily donated ‘scholarships’ for needy students. In September 1909, Korean laborers in the Kapahao and Kamai Sugar Plantations on the Island of Hawaii awarded $16.70 to 12-year old Se-Gil Kim , $11.85 to Myung-Suk Kwak

4 Gongnipsinbo, June 30, 1906.
5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to the Governor of the Territory of Hawaii (1906), 56.

and $3 to Jong-Ho Park.[6] In February 1910, laborers at the Union Mill of the Kohala Sugar Plantation, Hawaii gave $24.50 to Bong-Kwan Chung to attend Mills Institute, run by the Congregation Chuch in Honolulu.[7] In May 1910, Korean laborers at Kapaha Sugar Plantation, Kauai collected $72.50 for Jin-Kook Roh , who was attending KBS.[8]

Such collective action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were spontaneous, informal and voluntary. Laborers' meager monthly wages of $18 - $20 would not have allowed them to donate such sums, if they did not believe that education was the only way to recover their mother country's sovereignty. Korean laborers truly regretted and lamented that the lack of education of Korean citizens caused the downfall of the Daehan Empire.

2.6. Korean Girls' Seminary[9]

Syngman Rhee, who settled in Honolulu on February 3, 1913, was appointed as the principal of the KBS at the end of August. Upon his appointment, Rhee changed the name of the school to the Korean Central School (KCS 한인중앙학교) and allowed girl students to enroll. Since the school dormitory did not have room for girls, Rhee had to rent a house for them. Koreans contributed a total of $3,600 in response to Rhee's plea. The house soon became too small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girl students. Rhee purchased a bigger house on Puunui Avenue. The new dormitory, however, turned out to be too far for students to commute everyday. While Rhee contemplated another location, he decided to build a new facility to house school buildings as well as a dormitory. In the fall 1915, Rhee was able to open the Korean Girls' Seminary (KGS 한인여학원). Koreans

6 Sinhangukbo, September 21, 1909, 3.
7 Sinhangukbo, February 22, 1910, 3.
8 Sinhangukbo, April 26, 1910, 3, and May 3, 1910, 2.
9 For KGS, see Murabayashi, Duk Hee Lee (2008), Korean Christian Church, Korean Christian Institute, Korean Dongji Hoi.

contributed $7,700 in total from the first rented dormitory to the opening of KGS. Rhee resigned from KCS while the school was being constructed. KGS did not receive any support from the Hawaii Methodist Mission and the total cost was paid by Korean immigrants. KGS was the first school wholly funded by Korean contributions in Hawaii. In the spring semester, KGS admitted some boys in response to their parents urging. Subsequently, KGS was reorganized into the co-ed Korean Christian Institute(KCI) in the fall of 1918. KCI lasted until 1947 and the school land was sold in 1950. Funds from the land sale became the seed money for establishing Inha University in 1954. The name Inha comes from “In” for Incheon, the departure point for Korean immigrants and “Ha” for Hawaii where immigrants settled. The name was chosen by Syngman Rhe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7. Kehena Korean Mission Chapel

In 1917 a group of laborers of Kohala Sugar Plantation left the plantation to establish a corn farm in Kehena, some 12 miles from Kohala on the Island of Hawaii.[10] They were members of the Korean Mission (congregation) of the St. Augustine's Episcopal Church. Since the 12-mile distance prevented them from attending St. Augustine's worship services on Sunday, they collected money and purchased a 2.8-acre parcel to construct their own chapel. Although the Kehena Korean Mission (KKM, name given by this writer) was physically separated from St. Augustine's, the congregation continued under the ministry of St. Augustine's. Rector James Walker traveled on horseback each Sunday afternoon and officiated Sunday service and conducted a Sunday school class. KKM was a branch congregation of St. Augustine's and St. Augustine's record shows that KKM had

10 Murabayashi, Duk Hee Lee (2013) “Korean Episcopal Churches in Hawaii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38,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209-210.

twenty-five members in 1929.

When KKM member Yang Lul Chung died in April 1918, he could not be buried in Kohala Plantation cemetery since he was no longer a laborer of the plantation. It was customary for sugar plantations to allow their deceased workers to be buried in their plantation cemeteries. KKM members were not able to purchase a burial plot nearby for Mr. Chung and decided to bury him in their chapel yard. On April 18, 1918, Chung was buried in the church yard, just as St Augustine's yard was used for burial plots of their deceased members. Since then, eight more members were buried, according to St. Augustine's records. Perhaps the KKM burial site is the only Korean church-yard cemetery in and outside of Korea and the first “Korean cemetery” established in the Hawaiian islands. Interestingly, church members also allowed neighboring non-Korean(s) to be buried in the yard. In 1998 Kiku Lee, an elderly Japanese lady, told the writer that her Chinese husband was allowed to be buried there and she has since cleaned each tombstone and laid flowers to repay the kindness of the KKM members.

KKM lasted until 1935 and the chapel property was donated to St. Augustine's. In the 1960s St. Augustine's sold the property to a private owner. The new owner demolished the chapel and built a house, but did not disturb the burial ground. Although it was overgrown by bushes, the burial spot, including tombstones, was still there in 1998 when this writer visited.

2.8. Bophwan-Ri Church in Jeju

In June 1917, Han-Jun Kang of Paia Sugar Plantation, Maui pledged $60 per year for five years and asked that a church be started in his home town of Bophwan-Ri, Jeju Island. The Jeonra Namdo Presbyterian Conference sent evangelists there to start the church. In 1922 the Bophwan-Ri Church purchased a 3,000 sq-foot plot of land containing 2 small straw-thatched houses. Mr. and Mrs.

Kang voluntarily sent the funds even though they were raising 3 sons with a meager monthly salary of $30.

3. Assistance Rendered Partially by Organizational Activities

3.1. Hapseong Hyeophoe Members' Scholarship

In August 1907, the United Korean Association (Hapseong Hyeophoe 합성협회) was organized in Hawaii with the purpose of helping to recover Korea's sovereign power, providing helping hands to those in need, and promoting the education of Koreans. Immediately after its establishment, some members collected $30 to send three of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Korean Boarding School for Boys.[11]

3.2. Korean National Association's Scholarship

On the first day of February, 1909, Hopseong Hyeophoe and Gongnip Hyeophoe in San Francisco merged into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Kook Min Hur, its own spelling 국민회), consisting of a Hawaii Chapter and the North America Chapter. On March 24, 1909 Kookmin Hur published its constitution and declared its purposes "to improve education and business of Koreans, to promote national honor and pride by encouraging freedom and equality of Koreans, and to assist to regain national sovereignty."[12] These purposes of Kookmin Hur were similar to those of Hapseong Hyeophoe. Kookmin Hur changed its name to Korean National Association (KNA 대한인국민회) when Daedong Bokukhoe (대동보국회) of Pasadena, California joined in August 1909.

KNA started to provide scholarships in 1910 and Si-dae Han (21 years of

11 Korean Church Advocate, September, 7, 1907, 304.
12 For the history of KNA, see Murabayashi, Duk Hee Lee (2013), A Centennial History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Hawaii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 Yonsei University Press.

age) was the first recipient to attend KBS.[13] It is not known how long scholarships were provided.

3.3. Telegrams to Japan's Emperor, Yi Wan-Yong, and Song Byeong-Jun

Upon learning that Japan would soon colonize Korea, Koreans in Honolulu spontaneously held a meeting on February 19, 1909 and collected funds to send telegrams to Japan's Emperor, and two notorious pro-Japan high-ranking officials Yi Wan-Yong and Song Byung-Jun. One hundred thirty-six individuals in Honolulu, laborers of twelve sugar plantations on Hawaii, three plantations on Maui, one plantation on Kauai, and two plantations on Oahu collected a total of $330.90. Of this sum, $113.15 was used to send telegrams and other expenses. The remaining $220.75 was transferred to KNA. Although the meeting and fund-collection was not organized by KNA per se, executive members of KNA were involved.[14]

3.4. Defense of An Chung-Geun

From December 1909 through March 1910, Koreans collected funds to defray the expenses of An Chung-Geun's court case in Manchuria. One thousand five hundred ninety-five participated to raise $2,916.85. Of this sum, $1,700 was sent to the Korean organization in Vladivostok and $102.50 was spent for expenses.[15]

13 Sinhangukbo, May 10, 1910. 3.
14 Murabayashi (2013), 115-116.
15 Hong, Jong-Pyo, '대동위인 안중근 전, 부 의연금 총결산,' (1911). The remaining $1,015.31 was not accounted for in the report. The donors list, "Hawaii Contributors to the Defense of An Chunggun, 1909-1819" can be seen in www.korean-studies.info.

3.5. Evangelical Work in Korea

A *Korean Herald* (*Kookminbo* 국민보) article reported that the Honolulu Korean Epworth League (Methodist youth league of males 18-35 years of age) of the Honolulu Korean Methodist Church sent funds to purchase a piece of land to support evangelical work in Korea some years earlier.[16] Income from the 1913 crop appeared to be profitable and therefore the members would purchase more land to continue evangelical support. No record can be found about how much was sent, what happened to the land and what happened to their evangelic work thereafter. It is, however, certain that early Korean immigrant men established a long-term method to finance evangelical work for Koreans in their mother country.

3.6. Korean National Association's Relief Activities

The Hawaii KNA executive committee was comprised of eight members including a relief committee officer. Some KNA local chapters (more than 25 local chapters over various times), such as Honolulu, Kaanapali, and Kohala also had its local relief committee officer. The relief committee officer provided assistance to those in need of help, including burial when death occurred. The KNA initiation membership fee was $1 to $2 and each member also had to pay a monthly relief fee of 10-50 cents.

Before the official financial report including the detailed breakdown of each committee's finance was made public, KNA reported in the June 15, 1909 *Sinhangukbo* that Ki-Sun Shin of the Olowalu district on Maui was ill and had to be sent to a Honolulu hospital. When the news spread, 25 KNA members of the Olowalu district collected $13.70 and 11 KNA members in the nearby Lahaina district collected $4.00. This collection was voluntarily made without the

16 October 22, 1913, 3.

involvement of the KNA relief committee. Koreans again spontaneously provided help to a fellow immigrant.

The KNA financial report of 3rd quarter (July-September) of 1910 reported for the first time how the relief funds were used.[17] KNA received a total of $12 for relief purposes from eight local KNAs. KNA relief committee officer Won-Geol Park reported that these relief funds were depleted by June 1910 and the executive committee contributed an additional $6.20. Of this $6.20, $1.70 was spent for Bong-Nai Lim for inn fare and a transportation fee of $1.70 for Han- Yong Cho. It is not clear for how long such KNA's relief practices continued.

3.7. Korean Women's Association's Activities

On April 19, 1913, Sinmyeong Buinhoe (신명부인회), Buin Gyoyukhoe (부인교육회) and two other women's organizations merged into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Daehanin Buihoe 대한인부인회). KWA's purposes were to teach the Korean language to children, boycott Japan-made products, assist church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and help those in need.[18]

On September 2, 1923, KWA's bylaws were formulated and KWA decided to raise funds by running businesses to carry on its activities. Their first business was to sew and sell clothes for men and women. This decision to run businesses to raise funds was fresh and different from other organizations in Hawaii which relied on membership dues only in Hawaii. Several branch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on various islands from January 1914. Members of the Wahiawa branch on Oahu sewed 30 military-look uniforms for participants i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KNA parade. In May 1914, members sent $300 through

17 Sinhakgukbo, October 11, 1910, 5.

18 For detailed information on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and the Korean Women's Relief Society, see Murabayashi, Duk Hee Lee (2004) 'Activities of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Hawaii, 1903-1945,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들의 활동, 1903-1945,' Modern Immigration and IncheonIncheon City, 63-116.

American missionary William Arthur Noble in Pyongyang, Korea to help Koreans in western Manchuria.[19] In June 1918, they sent $250 to purchase a piece of land in Korea to support evangelical work.[20]

3.8. Korean Women's Relief Society's Activities

Upon learning of the March First Movement in Korea, 41 delegates from various branches of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gathered in Honolulu and re-organized their group as the Korean Women's Relief Society (Daehan Buin Gujehoi 대한부인구제회) on March 15, 1919. Its purposes were 1) to render assistance to those who died and were hurt during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ose injured in the Independent Army, and 2) to show the true virtue of Korean women by encouraging politeness and diligence among them.

KWRF's first fund-raising venture was printing 3,000 color copies of poster-siz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and raised a profit of $2,000. Of this, KWRF sent $1,500 to family members of those who were hurt in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500 to the Independence Army in Manchuria. Koreans in Hawaii rendered help to fellow Koreans at home and in Manchuria.

KWRF existed into the 1960s and raised a total of close to $200, 000 for patriotic and relief causes.[21]

3.9. Korean National Association's Funeral Assistance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revised its constitution on July 15, 1935

19 Kim, Won-yong(1959), Fifty-year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재미한인오십년사, Reedly, Calif., 232, and Ahn, Jeong-song Lee, 'An Abridged History of Korean Women's Association in Hawaii,' unpublished paper, date not known.

20 Sinhangukbo, July, 18, 1918. On the other hand, Ahn stated that $300 was sent through Rev. U -Soon Kim to purchase a piece of land in Hwanghaedo to support evangelical work. Rev. Kimreturned to Korea in 1913 after a 6-year ministry in Hawaii.

21 Kim (1959), 237.

to create the Funeral Assisting Division (Ho Sang Bu 호상부 護喪部) to take care of members' funeral/burials. KNA faced the reality of death occurring among old members. The KNA financial report of December 1936 shows that $50 each was paid for 7 member's funerals and $113 remained. From this record,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fifty some members who paid $1 each whenever a member passed away. At the beginning FAD was open to the public. At that time, a burial plot of 36 square feet cost $36, and total funeral costs, including embalming, coffin, hearse, and burial plot, was $190-$225. FAD helped to defray some of the funeral costs.

In April 1938, KNA revised the 1935 FAD bylaws and limited FAD membership to those KNA members who paid an additional initiation fee of $5. Members who were tardy in meeting KNA financial requirements and those who did not pay a funeral fee within 60 days from a member's passing lost their FAD membership. The number of members increased to about 200 and a $200 funeral assistance payment was paid to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deceased member. The funeral assistance fee was increased by a unit of $50 whenever the number of membership increased. The fund was managed by a 5-member group with a 3-year term and dispensed by signatures of the FAD treasurer and KNA president. The FAD operated in the black and even accumulated savings. When KNA moved its headquarters in 1946, it used $5,300 from FMD's savings to pay a part of the purchase price.

On December 12, 1956, FAD bylaws were revised. FAD members, who were tardy in paying a funeral assistance fee of $1 within 100 days of a member's passing lost the privilege of receiving his own funeral assistance fee when he died. When a member was behind in paying his funeral assistance fee due to a long hospitalization, he was forgiven but the dollar amount he had not paid was deducted from his share of the assistance fee when he died.

According to its 1962 report, FAD income was $4,458.80 while expenses

amounted to $4,870, and yet FAD had bank savings totaling $11,854.65. There had been an average of 10 FAD members dying each year, and there were 117 paid members in 1962. Meanwhile, the KNA Constitution and Bylaws were revised in September 1962 and KNA's name was changed to the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and membership was opened to those who were not Korean descendants. KCA became a charitable community organization and FAD was no longer a part of KCA. It is not known what happened to the remaining FAD funds.

In January 2002, KCA sol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headquarters building and a few surviving KCA members establishe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undation to carry on the legacy of KNA with the funds from the headquarters sale. The Foundation made a decision to support various community activities by contributing part of the interest income from the building sale funds. Sometime later the KNA Foundation contributed a part of its funds to the University of Hawaii Foundation to provide a scholarship in the name of KNA.

3.10. Dongji Hoi's Funeral Assistance

In July 1921, Comrade Association (Dongji Hoi, own spelling, 동지회) was organized by Syngman Rhee and his followers to protect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o promote the unity of Korean people. Since then, Dongji Hoi has carried o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business development, publication and political programs.[22] In June 1938, Dongji Hoi established its own Funeral Assistance Division to help with funeral matters. The annual membership fee was $1 and 50 cents was collected to cover funeral costs whenever a member died. At the beginning, membership was open to non-Dongji Hoi members. When a member did not pay 50 cents within 60 days after a deceased member's funeral, he

22 For Dongji Hoi, see Murabayashi (2008).

lost his membership. When membership reached 50, $25 funeral expenses were allowed and this went up to $50 when membership increased to 100.

On November 5, 1939, Dongji Hoi revised its bylaws and limited FAD membership to only legitimate Dongji Hoi members, who paid Dongji Hoi membership dues. When a member terminated his FAD membership, he forfeited the total amount he had paid so far. Annual membership dues had to be paid by April each year. Funeral expense assistance was increased to $230 to cover a tombstone and was planned to be increased even more two years later in 1941. Incidentally, the cost of a burial plot of 36 sq. ft. was $36 in December 1938 and the price was still the same in September 1941 according to a Oahu Cemetery Association's document. The total cost of a funeral, including casket, embalming, hearse and burial plot was $190 - $225, according to the Borthwick Undertaking Company. Therefore, FAD's payment of $230 was sufficient to cover one's funeral expenses.

The Dongji Hoi FAD membership steadily increased and FAD was able to accumulate sufficient funds. In fact, the number of members was 240 in February 1939, 323 in April 1939, and 600 in June 1940. With the increasing membership, the FAD bylaws was revised. Those who committed suicide were not eligible for their share of funeral expenses and those who has been ill for a long time and over 65 in age were not allowed to become members. For those who did not have surviving family members, FAD took care of their funeral/burial matters.

FAD's accumulated funds were deposited in a bank and the account had $4,000 by October 1942. Dongji Hoi purchased its headquarters building at 931 N. King Street, which they had rented since 1932, with the FAD's $4,000 and took out a mortgage loan of $6,018 from Bishop Trust Mortgage company. In order to pay off the mortgage loan in two years, Dongji Hoi increased its FAD membership fee to $2 and funeral expense dues to $1 from 50 cents in 1943. Dongji Hoi FAD became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Dongji Hoi, just as it did for KNA.

In January 1944, Dongji Hoi FAD's bylaws were revised with 22 regulations, and with an English translation, indicating an increase in non-Korean speaking family members. One noticeable change was to pay funeral expenses to those who committed suicide, which had been forbidden since 1940.

In January 1970, Dongji Hoi decided to sell its headquarters building, which was newly constructed in 1949. The building was sold for $190,000 and each surviving member of FAD was awarded $260. Those who had unpaid annual membership fees and funeral expense due had the unpaid amount deducted from their share of $260. Although the number of surviving FAD members eligible to receive the award is not known, 33 members were present at the decision making meeting in January.

Dongji Hoi still exists to manage the funds from the sale of its headquarters building. The funds have been well managed and its income is annually distributed as the Dr. Syngman Rhee scholarship to deserving high school graduates

4. Assistance Activities of Various Mutual Aid Organizations

4.1. Korean Mutual-Aid Association and Korean Oldmen's Home

In 1924, nine hundred ninety Korean laborers, less then 2% of the Korean population, remained on the sugar plantations and aging and death were creeping into those who arrived in Hawaii 20 years earlier. Funeral (and burial) expenses became a serious matter for the aged and in particular for those who had no jobs and and no family members. Kyung-Choon Chun tried to ease funeral problems for the aging population in urban Honolulu. Chun established the Korean Mutual Aid Society (Hanin Sangjohoi 한인상조회 韓人相助會). Many members of KNA joined KMAS by paying 25-cents monthly dues. When a member died, the Society took care of the deceased's funeral matters. Due to Chun's ceaseless efforts, albeit with no salary, membership fees were regularly collected and the Society

was able to accumulative about $1,000. In 1929, KMAS purchased a house on the back side of 270 North School Street and 2 houses on Makini Street for $18,000 with a bank mortgage of $11,000. KMAS operated the North School Street house as the Korean Old Men's Home, providing shelter for aging single males at a minimal rent. The Korean Old Men's Home, however, was not spared by the great depression and its ownership was turned over to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nuary 1939.[23] The Korean Old Men's home is still in operation as the Korean Care Home in Liliha.

4.2. The Korean Benevolent Society of Maui

On April 5, 1934, Ho Young Ham, along with eight other members of the Sprecklesville Korean Methodist Church in Camp 1 of the Wailuku Sugar Plantation on Maui established the Korean Benevolent Society of Maui, (Young An Hoe 영안회 永安會).[24] The Society was a voluntary eleemosynary association to take care of deceased members' burials. Although the organization's English title included the word “benevolent,” the intention was to help in funeral/burial matters. The Korean name, Young An Hoe means “eternal comfort.”

Membership was limited to church members between the ages of 16 and 65. The initiation membership fee was $5 with monthly dues of 25 cents. These funds were used mainly for purchasing a piece of property for a cemetery, making it the first Korean cemetery association in Hawaii. The ten founding members grew to 20-30 as the time went on. When a member passed away, a mere $2 was contributed for funeral expenses from its funds. On occasion when a deceased member with no family members left some money, his estate after funeral/burial

23 Murabayashi (2008), 90-94.

24 Ho Young Ham collection is housed as “Ho Young Ham Papers” in the UCLA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published The Ho Young Ham Papers, Special Collections of Research Library, UCLA' in 2013. Information on the Korean Benevolent Society of Maui is on pp.159-165.

expenses automatically belonged to the Society to help the needy. Six months later, the Society purchased a 71,002 sq. ft. parcel of land from the Wailuku Sugar Plantation for $75 on October 20, 1934.

Sung-Ho Kang died in 1935 after a long hospitalization. His last request to the Rev. C.H. Lim, pastor of the Sprecklesville church was to be buried among Koreans. Although he was not a member of the Society, he was allowed to be buried in the Korean cemetery. Furthermore, when church members realized there was no marking on Kang's plot in November 1936, thirty-five sympathetic church members collected $36.25 in total to erect a tombstone to mark Kang's plot.[25] It was done under the leadership of Ho Young Ham who was the president from the beginning until 1947, along with his wife Hannah Choi Ham as treasurer. According to Ham's 1947 record, 18 members were buried in the cemetery. It is not certain what happened to the Society after Ham's passing in 1954. However, Maui County's tax records as of July 2017 shows that the cemetery's ownership is still under the Korean Benevolent Society.

4.3. Korean Women's Funeral Aid Society

The Korean Woman's Funeral Aid Society (Daehan Buin Hosanghoi 대한부인호상회 護喪會) was organized by several women on November 6, 1934.[26] An article in the *Kookminbo*, March 20, 1957 (p.3) states that the society was organized one day in 1938 [1934] by several women who saw a single male body brought into a mortuary without a family member or friend. These women decided to form an organization to take care of funeral matters for those who died without family members. The society was open to both males and females.

25 Kookminbo, January 24, 1937. 2

26 The starting date of the Korean Women's Funeral Aid Society has been estimated from the article of Kookminbo, on November 2, 1938. The society was going to celebrate its 4th anniversary on November 6, 1938.

In March 1957, Sun-Yi Suh was president, Mr. Je-Man Cha was secretary, and Kyung-Soon Om was Treasurer. KWFAS' presidents were historically all females and the secretary or treasurer positions were filled occasionally by male members. The society dispensed $55 to pay for one wreath, renting 2 automobiles and night snacks for those who kept a night vigil for a deceased member. Members wore funeral attire of a black Korean skirt and white blouse and carried the casket of the deceased member. The initial membership fee was $5 and an annual fee of $4 was levied for those up to 60 years of age. For those who were 61 years or older, the annual fee ranged from $4 up to $45 in order to receive the full benefit of $55. The fee system, in a way, was a funeral savings system. As of March 1957, the society had savings of $5,000 plus.

Although the society was a funeral assistance organization, the society had equal status with other various Korean organizations in its legitimacy.[27] In February 1941, when a temporary meeting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Jaemi Hanjok Yeonhap Wiwonhoi 재미한족연합위원회) was held, representatives of 16 organizations, including KWFAS' Do- Kyung Woo (president) and Mr. Sal-Um Oh (secretary) were present. In 1942 the society purchased for $750 one share of a $1,000 face value US Victory War Bond when the Korean community was participating in the US war bond campaign. The society's level of involvement in the war bond campaign shines in comparison with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s purchase of 5 shares of war bonds. In addition, every member of KWFAS paid $1 independence duty (독립금), like members of any other organizations, such as KNA and Dongji Hoi.

The society still existed at the end of 1963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how long the society lasted or what happened to the remaining funds, if there were

27 It appears that the society held membership meetings at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Independence League (Daehan Doknipdan) in Palama district since 1940s, if not eralier. Thus, the societyname sometimes appears as Palama Women's Funeral Aid Society (Palama Buin Hosanghoi) in Kookminbo.

any. *Kookminbo* folded up at the end of 1963, leaving hardly any Korean news sources. Very few first generation immigrants had survived until then.

4.4. Wahiawa Women's Funeral Aid Association

Wahiawa Women's Funeral Aid Association (Wahiawa Buin Sangjohoi 와히아와 부인상조회 婦人喪助會) was organized by 41 women residing in Wahiawa, Oahu on October 25, 1938. It was to have a maximum of 50 members. The first president was Shin-Shil Bai. *Kookminbo* reports the 41-member list and the association's 17 rules on December 7, 1938. The initiating membership fee was $1 and members also paid 25 cents at each monthly meeting. In addition, members paid a 10-cent snack fee at their monthly meeting held at 7 pm.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was to provide an all night vigil with 3 shifts of 5 members each shift when one of its members faced a death in the family. When a member could not attend the night shift assigned, she had to pay a $2 penalty. When a member did not fulfill her duty for 3 months, she lost her membership. A funeral contribution of $50 was dispensed and a wreath was presented to a member who faced death in the family and association members wore Korean attire of black skirt and white blouse at the funeral.

5. Conclusion

As soon as they settled in Hawaii, Korean immigrants spontaneously helped those who were suffering from sickness and other needs. Since most of the immigrants did not have family members or relatives from whom they could obtain help as they traditionally did in Korea, immigrants had to rely on fellow immigrants. Their charitable activities were not, however, limited to those in Hawaii but extended to Koreans back in Korea, in San Francisco and even in

Manchuria. Although this paper looks at what various Korean mutual-aiding activities were provided, these activities may also be viewed in terms of the time spans in which they were rendered. Three time spans can be identified in general. Before 1910, Korean assistance was more “charity”[28] in general nature, such as helping the sick or those in need and these activities were practiced temporarily or occasionally. During the period from 1910 through 1930s, assisting activities were mainly focused to educational,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along the line of efforts to recovering Korea's sovereign power. From 1930, Korean mutual-aid activities shifted overwhelmingly to funeral and burial assistance, reflecting the needs of the aging population. Funeral-related activities were more systematized than other activities practiced during the earlier time spans. Funeral aiding activities were administered in a business-like manner and became, in fact, profitable businesses. The savings of both FADs of KNA and of Dongji Hoi were used to purchase headquarters buildings for their organizations. Eventually, the sale of their headquarters buildings became the basis of scholarship foundations in their name. Early immigrants' small helping hands transformed into endowed foundations providing scholarships for leaders of the coming generations.

28 Merriam-Webster defines charity as generosity and helpfulness especially toward the needy or suffering; aid given to those in need.

【REFERENCES】

Ahn, Jeong-song Lee (date unknown) 'An Abridged History of Korean Women's Association in Hawaii,' unpublished paper.

Baik, Tae-Ung and Duk Hee Lee Murabayashi (2011)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arly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and its Legal Structure,' *Journal of Korean Law*, 11.1.

Glick, Clarence E. (1960) *Sojourners and Settlers, Chinese Migrants in Hawaii*, Hawaii Chinese History Center and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Kim, Won-yong (1959) Fifty-year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재미한인오십년사, Reedly, Calif.

Kimura, Yukiko (1988) *Issei, Japanese Immigrants in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Kuykendall, Ralph S. (1967) *The Hawaiian Kingdom*, Vol. 3, University of Hawaii Press.

Duk Hee Lee Murabayashi (2013) A Centennial History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Hawaii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 Yonsei University Press.

Duk Hee Lee Murabayashi (2008) Korean Christian Church, Korean Christian Institute, Korean Dongji Hoi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

Hong, Jong-pyo (1911) 'List of Contributors (for the Defense of An Chunggun),' *An Chunggun, the Hero in the Great Asia*, Honolulu.

Murabayashi, Duk Hee Lee (2013) 'Korean Episcopal Churches in Hawaii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38.

Murabayashi, Duk Hee Lee (2004) 'Activities of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Hawaii, 1903-1945,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들의 활동 1903-1945,' *Modern Immigration and Incheon*,38, Incheon City.

Noh, Jae-yeon (1951) Abridged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재미한인사략, Vol. 1: 1902-1924, Los Angeles.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2013) The Ho Young Ham Papers, Special Collections of Research Library.

Gongnipsinbo 공립신보

Kookminbo 국민보

Sinhangukbo 신한국보

Korean Church Advocate 포와한인교보

Minutes of the First Session of the Hawaiian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6.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to the Governor of the Territory of Hawaii, 1906.

묵자 사상의 현대적 이해
-한국사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The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Mozi's Thought : Associated with a Korean Situation

이병욱[1]
고려대학교

1. 서론

현 단계 한국사회의 과제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안으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한국 내부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밖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 사회과학적 대안을 우선시 할 수 있겠지만, 철학의 입장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의 고대 사상가의 한 사람인 묵자(墨子)의 사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묵자는 이름이 적(翟)이고, 공자와 같은 노나라 사람이다. 송나라 사람 또는 초나라 사람이라고 하지만, 양계초는 노나라 사람이라고 고증한다. 묵자는 전국시대 초기의 인물이다. 묵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전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다. 『사기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서술되

1 Byung Wook Lee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Korea University)
E-mail : lbw33@hanmail.net

어 있다. “묵적(墨翟)은 송나라 대부(大夫)로서 성(城)을 방위하는 기술이 뛰어났고, 절용(節用)을 주장하였으며, 공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자보다 후세의 사람이라고도 한다.”

묵자는 처음에는 공자의 유학을 공부하였지만, 유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유가(儒家)의 번거로운 예(禮)가 백성의 생산 활동을 막고,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노나라는 중국문화의 중심지였고, 묵자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경』과 『서경』을 공부하고 예(禮)를 익혔다. 그는 사각(史角)이라는 학자의 후손에게 배웠다고 한다. 사각(史角)은 주나라 귀족이었고, 의례(儀禮)에도 밝은 인물이었다.

묵자의 집안은 공인(工人)이나 노동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집안은 결코 상류층은 아니었다. 그래서 묵자는 몸소 성(城)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제조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었고, 또 나무를 깎아서 하늘을 나는 솔개를 만들 수도 있었다(김학주 역주 2015: 13-15).

또한 묵자는 행동가이고, 분수에 넘치는 대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제자 공상과(公尙過)의 말을 듣고 월나라 임금이 많은 선물과 땅을 주겠다면서 묵자를 초빙하고자 하였지만, 묵자는 그것은 너무 과분한 대우이고, 그것은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초빙을 거절하였다.

“묵자는 앉은자리가 따스해질 겨를도 없다”(『여씨춘추』)고 할 만큼 부지런히 실천하였고, “묵자(墨子)네 연통은 검어질 수가 없다”(『회남자』)고 할 정도로 검약하였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신념을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묵가(墨家)는 모두 거친 옷을 입고, 나막신이나 짚신을 신고 밤낮으로 쉴 새 없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禹)임금의 도(道)가 아니고, 묵가(墨家)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장자』의 「천하편」에 서술되어 있을 만큼, 묵자를 비판하는 사상가조차도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김학주 역주 2015: 16-17).

『묵자』라는 저서는 묵자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또 저술된 시

기도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묵자』는 묵자의 말과 행동을 그의 제자들이 편찬한 것이다. 『묵자』는 제자백가의 저술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유가의 맹자가 묵자를 배척한 뒤에 학자들이 묵자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옛날의 책은 대쪽[竹簡]에 쓴 것이었으므로 대쪽이 빠져서 없어지거나 순서가 뒤바뀌어도,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래에 이르러 필원(畢沅), 왕념손(王念孫), 손이양(孫詒讓) 등이 본문을 교정하고, 주석을 하였기 때문에 훨씬 읽기 쉬워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읽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또 『묵자』가 읽기 어려운 다른 이유는 『묵자』의 문장이 간결하고 실질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 점으로 인해서 알기 어렵게 되었다(김학주 역주 2015: 17-18).

글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2장에서는 겸애, 비공(非功), 절용에 대해 검토하고, 3장에서는 겸애를 실천하게 하는 종교적 제재(制裁)로서 '하늘의 뜻'과 '분명한 귀신'을 살펴보며, 4장에서는 겸애를 실천하기 위한 정체적 제재로서 묵자의 '국가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겸애・비공・절용

2.1. 겸애: 널리 사랑함

묵자는 겸애(兼愛), 곧 보편적으로 사랑함을 주장한다. 묵자는 천하가 혼란스러운 원인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만을 아끼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아끼지 않는 데 있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성인(聖人)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일로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성인은]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는 유래를 알아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만약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혼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니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긴

다. 신하와 아들이 임금과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것[不孝]이 이른바 혼란이다. 아들은 자신만을 아끼고 아버지를 아껴주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를 해치면서 스스로 이롭게 한다. 동생은 자신만 아끼고 형을 아껴주지 않았으므로, 형을 해치면서 스스로 이롭게 한다. 신하는 자기만 아끼고 임금을 아껴주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해치면서 스스로 이롭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혼란이다."(「兼愛」 상)

위의 내용은 개인 사이에 관한 지적이지만, 가족과 국가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묵자는 말한다.

비록 대부(大夫)들이 집안을 서로 어지럽히고, 제후(諸侯)들이 나라를 서로 공격하는 것도 그러하다. 대부(大夫)들은 제각기 자기 집안을 아끼고, 남의 집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집안을 혼란스럽게 하여 자기의 집안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제후(諸侯)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를 아끼고 다른 나라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한다. 천하의 혼란된 사물은 이것[자신 집안과 국가를 아끼는 것]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兼愛」 상)

이러한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묵자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겸애(兼愛)이다.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남을 마치 자기 몸 같이 아끼듯이 아껴준다면, 그래도 불효(不孝)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버지와 형과 임금을 자기 몸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불효(不孝)한 짓을 하겠는가? 그래도 자애롭지 못한 사람[不慈者]이 있겠는가? 동생과 아들과 신하를 자기 몸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자애롭지 못한 짓을 하겠는가? 따라서 불효(不孝)와 자애롭지 못한 일[不慈]이 없어질 것인데, 그래도 도적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남의 거실[室]을 자기 거실처럼 여긴다면 누가 훔

치겠는가[竊]? 그리고 남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여긴다면 누가 도적질을 하겠는가[賊]? 그러므로 도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兼愛」 상)

또 집안과 집안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남을 자기처럼 볼 수 있다면, 서로 공격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묵자는 단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천하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고, 서로 미워하면 [천하는] 어지러워질 것이다."(「兼愛」 상)

그리고 겸애, 곧 널리 사랑한다는 것이 공허한 주장같이 보이지만, 묵자가 주장하는 겸애의 목적은 실용적인 것이다.

천하의 선비와 군자들은 겸애의 이로움을 알지 못하고서 그 이유만을 따진다. 지금 성(城)을 공격하고 들에서 싸워서 자신의 몸을 죽이는 것으로 명예를 삼는데, 이는 천하의 백성이 모두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임금이 [겸애를] 좋아하면, 선비와 무리가 [겸애를] 실천할 수 있다. 하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랴! 이러한 것은 이것[몸을 죽이는 것]과 다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 이것이 어찌 어려운 것인가? 다만 위에서 [겸애로써] 정치를 하지 않고, 선비가 [겸애로써]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兼愛」 중)

그래서 묵자는 겸애의 가르침이 실제적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겸애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효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겸애의 가르침이 훌륭하지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

였다. 묵자는 이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용해 보고 안 되는 것이라면, 비록 나라도 해도 비난하겠다.”(「兼愛」 중)

2.2. 비공(非攻): 침략전쟁의 반대

앞에서 소개한 겸애의 정신에서 비공(非攻),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온다. 묵자는 사람들이 개인생활의 영역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 등을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윤리적인 덕목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미화하고 찬양한다고 비판한다. 사람들은 작은 불의(不義)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의(不義)라는 것을 알지만, 전쟁이라는 커다란 불의(不義)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지적한다.

> 이제 어느 사람이 남의 과수원 밭에 들어가서 남의 복숭아와 오얏(자두)을 훔쳤다고 하자. 여러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들으면 그를 비난하고, 위로는 위정자가 잡으면 그를 처벌한다. 이것은 왜 그러한가? 남을 해치고 자기를 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
> 나아가, 남의 개, 돼지, 닭 등을 훔친 사람은 그 의롭지 못한 것[不義]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와 오얏을 훔친 것보다 더 심하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남을 해침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그의 어질지 못함[不仁]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죄는 더욱 무겁다.
>
> 나아가, 남의 마구간에 들어가서 남의 말과 소를 훔친 사람은 그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不仁義]이 남의 개, 돼지, 닭을 훔치는 것보다 더욱 심하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남을 해침이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을 해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질지 못함[不仁]은 더욱더 심해지고,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
>
> 나아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고, 그 칼을 취한 사람은 그 의롭지 못함[不義]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과 소를 훔친 것보

> 다 더 심하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남을 해침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을 해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질지 못함[不仁]은 더욱 심하고 죄는 더욱 무겁다. 이 때에 천하의 군자는 모두 그것을 비난할 줄 알고 그것을 의롭지 못하다[不義]고 한다.
>
> 그런데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 잘못임을 알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의롭다[義]고 한다. 이것을 의(義)와 불의(不義)의 차이점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의롭지 않다고 하면서, 반드시 한번 사형에 처할 죄라고 한다. 이런 논조로 밀고 나가면, 열 사람을 죽이면 열 배나 의롭지 못하고[不義], 따라서 열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이다. 백 사람을 죽이면 백 배나 의롭지 못하고, 따라서 반드시 백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이다. 이런 일에 마주쳤을 때는 천하의 군자는 모두 그것을 비난할 줄 알고, 의롭지 못하다[不義]고 한다. 그런데 이제 크게 불의(不義)를 행하여 나라를 공격함에 이르러서는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칭찬하고 의(義)라고 말한다. [이는] 진정 불의(不義)인 줄 알지 못함이다. (「非攻」 상)

묵자는 남을 해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불의(不義)라고 하였다.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남을 해치는 것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는 당연히 불의(不義)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불의(不義)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커다란 불의(不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검은 것을 조금 보면 검다고 말하는데, 검은 것을 많이 보고는 희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작게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알고 비난한다. 그러나 크게 잘못해서 나라를 공격하면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칭찬하고 의(義)라고 말한다. 이것을 의(義)와 불의(不義)를 구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非攻」 상)

2.3. 절용(節用): 절약을 통한 나라의 발전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 묵자는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나라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藏原 1999: 85). 이러한 내용은 『묵자』의 「절용」, 「절장(節葬)」, 「비악(非樂)」 등의 여러 편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절용」의 내용만을 살펴본다.

'절용'은 물건을 아껴 쓴다는 뜻이다. 묵자는 사치를 금하고 물건을 절약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성인(聖人)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의 부(富)는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이것을 확대해서 천하를 다스린다면, 천하의 부(富)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성인이 [부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밖에서 땅을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서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왕(聖王)이 정치를 하면, 영(令)을 내려 사업[事]을 일으켜서 백성이 재화[財]를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재물을] 더욱 사용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재물을 사용하는 데 낭비가 없고, 백성의 생활에 수고로움이 없으며, 이익을 일으킴이 많아진다. (「節用」 상)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백성의 옷, 집, 무기, 배와 수레를 제작하거나 만들 때에 화려하고 효용이 없는 것을 만들지 않고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든다. 그리고 귀족이 화려한 취미생활을 버리고, 위에서 말한 물건, 곧 백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늘린다. 그리고 백성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해서 인구의 수를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내

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 백성의 옷[衣裘]은 어떠한가? 겨울에는 추위를 막고, 여름에는 더위를 막는 것이다. 옷을 만드는 방법이 겨울에는 더 따뜻해지도록 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해지도록 한다. 화려하기만 하고 효용이 없는 옷은 만들지 않는다.
>
> 백성의 집[宮室]은 어떠한가? 겨울에는 바람과 추위를 막고, 여름에는 더위와 비를 막으며, 도적으로 인해서 더욱 견고하게 짓는다. 화려하기만 하고 효용이 없는 집은 만들지 않는다.
>
> 백성의 갑옷과 방패와 다섯 가지 병기[甲盾五兵]는 어떠한가? 혼란과 도적을 막는 것이다. 만약 전란이나 도적이 생기면, 갑옷과 방패와 다섯 가지 병기를 가진 사람이 이기고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갑옷과 방패와 다섯 가지 병기를 만들었다. 갑옷과 방패와 다섯 가지 병기를 만드는 방법은 더욱 가볍고 편리하고 견고하여 쉽게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화려하기만 하고 효용이 없는 것은 만들지 않는다.
>
> 백성의 배와 수레는 어떠한가? 수레로써 육지를 다니고, 배로써 강과 계곡을 다닌다. 그래서 사방(四方)에 통하는 이익이 있다. 배와 수레를 만드는 방법은 가볍게 하여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화려하기만 하고 효용이 없는 것은 만들지 않는다.
>
> 백성이 이러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물건을] 더욱 사용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를 사용하지만 낭비함이 없고, 백성의 덕은 수고롭지 않으며, 이익을 일으킴이 많게 된다.
>
> 또 대인(大人)들이 구슬•옥•새•짐승•말 같은 것을 모으기 좋아하는 버릇을 없애고, 옷•집•갑옷•방패•다섯 가지 병기•배•수레 같은 것을 더욱 늘린다면 [이러한 물건들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 같은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 배로 늘리기 어려운 것인가? 오직

> 사람만을 두 배로 늘리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과거에 성왕(聖王)의 법(法)은 다음과 같았다. "남자는 20세가 되면 감히 장가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여자는 15세가 되면 감히 시집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다."이것이 성왕의 법(法)이다. (「節用」 상)

그리고 묵자는 옛날의 현명한 임금이나 성왕(聖王)도 절약하는 것으로 백성을 잘 다스렸다고 주장한다.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옛날 현명한 임금이나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리고 여러 제후들을 바로 잡았던 방법은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여 삼가 충성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여 삼가 독실하게 하여, 충성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또 백성에게 이익됨[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싫증을 내지 않았고, 후세에도 싫증을 내는 사람이 없었다. 옛날의 현명한 임금이나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고 여러 제후들을 바로잡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은 절약하는[節用] 법을 제정하였다. (「節用」 중)

3. 겸애의 객관적 근거: 천지(天志)와 명귀(明鬼)

묵자는 겸애를 생활과 사회의 법칙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던 천(天)과 귀신의 신앙에 호소한다. 겸애의 사상은 하늘의 뜻[天志]과 귀신의 의향에 들어맞는다고 묵자는 주장한다(藏原 1999: 90). 이는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 제재(制裁)이다(풍우란 1995: 82).

3.1. 하늘의 뜻[天志]

묵자는 천하의 군자들이 '하늘의 뜻'을 살필 줄 모른다고 지적한다.

이 군자들은 집안에서는 가장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나라에서는 임금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하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른다.

> 묵자가 말하였다. "지금 천하의 군자들은 작은 것을 알면서도 큰 것을 알지 못한다. 무엇으로 그러한 줄 아는가? 그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만약 집에 있으면서 가장에게 죄를 지으면 그래도 이웃집으로 도피할 곳은 있다. 그러나 한편 부모나 형제와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찌 한 집안에 살면서 가장에게 죄를 짓고도 괜찮을 수 있겠는가?'고 할 것이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그러하다. 나라에서 살다가 나라의 임금에게 죄를 지으면 그래도 이웃나라로 도피할 곳은 있다. 그러나 한편 부모나 형제 및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누가 나라에 살면서 나라임금에게 죄를 짓고도 괜찮을 수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도피할 여지가 있는 경우인데도 서로 이와 같이 엄하게 경계하는 것이다. 또한 속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편안한가? 어찌 죄를 지어놓고서 장차 어디로 도피하려 하는가? 도피할 곳은 없으니 하늘[天]에서 보자면, 불가능하다. 숲이나 골짜기 속의 한적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해도, 언제나 밝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그러나 천하의 군자들은 천(天)에 대해서 갑자기 서로 경계할 줄을 모른다. 이것이 내가 천하의 군자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아는 까닭이다."(「天志」 상)

그 다음으로, 묵자는 하늘은 의(義)를 원하고 불의(不義)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가 의(義)를 행하면 하늘이 나에게 복록(福祿)을 주고, 내가 불의(不義)를 행하면 하늘이 나에게 재앙을 준다고

한다.

> 그렇다면, 하늘[天]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늘은 의롭게 되고자 하고, 불의(不義)를 싫어한다. 그러니 천하의 백성을 거느리고, 의(義)에 종사한다면, 나는 하늘이 바라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늘이 바라는 일을 하면 하늘도 내가 바라는 일을 해준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바라고 싫어하는가? 나는 복록(福祿)을 구하고자 하고 재앙을 싫어한다. 만약 내가 하늘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천하의 백성을 거느리고 재앙 가운데서 종사하는 셈이다. (「天志」 상)

위의 내용을 『묵자』의 다른 곳(「天志」 중)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옛날의 성왕은 하늘과 귀신이 복을 주는 내용을 알고 하늘과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시(四時)가 절도 있게 운행되고 논밭의 곡식은 익고 가축은 성장하고, 질병과 기근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 그러하니 하늘[天]이 바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하늘도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라지 않는 것을 행한다. 사람이 바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질병[病]과 재앙이다. 만약 자기가 하늘이 바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일을 행하면, 이는 천하의 만민을 이끌고 재앙의 가운데서 종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옛 성왕(聖王)은 하늘과 귀신이 복을 주는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하늘과 귀신이 미워하는 것을 피하고,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하늘은 차갑게 하기도 하고 뜨겁게 하기도 하며, 사시(四時)를 절도 있게 하고 음양(陰陽)을 조절하고, 비와 이슬을 내려준다. 그 때 곡식은 익었고, 여섯 가지 가축은 성장하고, 질병과 기근이 오지 않았다. (「天志」 중)

그리고 묵자는 하늘이 의(義)를 바라고 불의(不義)를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로서 천하에서 의(義)가 있으면 잘 살고 의(義)가 없으면 죽게 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구체적 논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현실세계에서는 義가 있더라도 반드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義가 없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게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무엇으로써 하늘[天]이 의(義)를 바라고 있고 불의(不義)를 싫어하고 있음을 아는가? 천하에서 의(義)가 있으면 잘 살게 되고, 의(義)가 없으면 죽게 되며, 의(義)가 있으면 부유(富裕)하게 되고, 의(義)가 없으면 가난해지며, 의(義)가 있으면 다스려지고 의(義)가 없으면 어지러워진다. 그렇다면 하늘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바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사람들이 잘 다스리는 것을 바라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의(義)를 바라고 불의(不義)를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근거이다.(「天志」상)

3.2. 분명한 귀신[明鬼]

또한 묵자는 귀신이 하늘과 마찬가지로 어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난폭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주장한다(「明鬼」하; 藏原 1999: 91). 그렇지만 묵자가 귀신의 존재를 증명한 내용을 볼 때, 반드시 귀신이 존재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묵자는 귀신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 묵자가 말하였다. 옛날과 현재의 귀신이 다른 것이 아니다. 천귀(天鬼)가 있고, 또한 산수(山水)의 귀신이 있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아들이 어버이보다 먼저 죽은 경우도 있고, 동생이 형보다 먼저 죽은 경우도 있다. 생각을 해보면 비록 그렇다고 하겠지만,

> 그러나 천하의 전해오는 말[陳物]에서 말하기를 "먼저 태어난 사람은 먼저 죽는다"라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먼저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이요, 형 아니면 언니일 것이다. 지금 정결히 술과 단술과 젯밥과 제물을 마련해 놓고서 공경스럽고 신중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자. 만약 귀신들이 있다고 하면, 그의 부모나 형이나 언니들이 먹고 마실 것이니 [이는] 어찌 두텁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귀신이 없다고 하면, 이는 술과 단술과 젯밥과 제물로 사용된 재물을 낭비할 것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낭비는 더러운 도랑과 구렁[汙壑]에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안으로는 집안사람[宗族]과 바깥으로는 마을의 사람[鄕里]이 모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비록 귀신은 없는 것이지만 이는 모인 무리를 제대로 기쁘게 하여 마을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明鬼」 하)

위 인용문에서는 귀신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를 말하고 있다. 귀신이 있다면 제사의 제물을 먼저 죽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고, 귀신이 없다면 집안사람과 마을사람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없다고 해도 제사를 지내면 집안사람과 마을사람이 친하게 지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하늘의 뜻'을 증명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앞에 소개한 '하늘의 뜻'을 증명하는 인용문에서 "천하에 의(義)가 있으면 살고 의(義)가 없으면 죽으며, 의가 있으면 부유하고 의가 없으면 가난해지며, 의가 있으면 다스려지고 의가 없으면 어지러워진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분명한 귀신'의 경우처럼 해석된다. "천하에 의(義)가 있으면 살고 의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사람들이 의(義)를 추구할 것이므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의(義)가 있으면 살고 의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믿는 것은 의미가 있

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묵자가 '하늘의 뜻'과 '분명한 귀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묵자가 '하늘의 뜻'과 '분명한 귀신'을 강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할 수 있는 종교적 측면의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묵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5세기경에는 현대처럼 개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시민의식이 성숙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 요구되었고, 묵자는 그 대중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늘의 뜻'과 '분명한 귀신'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묵자의 겸애가 오늘날에 다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란다면 기원전 5세기경에 묵자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도 과거에 비해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고 해도,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겸애를 실천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묵자가 '하늘의 뜻'과 '분명한 귀신'을 제시한 의도가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신념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것이다.

4. 겸애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론: 상동(尙同)

앞에 소개한 '하늘의 뜻'과 '분명한 귀신'이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 장치였다면, 묵자가 주장하는 국가론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제재이다(풍우란 1995: 84).

묵자는 혼란의 상태를 벗어나기 천하의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천자로 세운 것이 국가의 기원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다(풍우란 1995: 84;勞思光

1986: 288). 묵자는 「상동(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묵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백성이 처음으로 생겨나서 아직 형정(刑政)이 없을 때에는 대개 그 말하는 사람마다 의(義)를 달리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하나의 의(義)가 있고, 두 사람이면 두 가지 의(義)가 있고, 열 사람이면 열 가지 의(義)가 있었다. [이처럼]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의(義)라는 것도 많아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의(義)를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義)를 비난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였다.
>
> 그러므로 안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가 원한과 미움을 품어서 따로 흩어져서 서로 화합할 수 없었다. 천하의 백성이 모두 물•불•독약으로 서로 헐뜯고 해치게 되었다. 그래서 여력(餘力)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위로할 수 없었고, 여유 있는 재산을 썩히면서도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지 못하였다. 훌륭한 도(道)를 숨겨 두고 이것을 서로 가르치지 못하여 천하가 혼란한 것이 마치 짐승과 같았다. 대체로 천하가 혼란한 까닭은 정치의 우두머리가 없는 데서 생긴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천하의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천자(天子)로 삼았다. 천자가 세워졌으나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므로 천하의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삼공(三公)으로 삼았다. 천자와 삼공(三公)이 세워졌지만, 천하가 넓고 크기 때문에 먼 나라와 다른 땅의 백성이 옳고 그름과 이익과 손해에 대해 한두 사람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만국(萬國)으로 구획을 나누고 제후국의 임금으로 삼았다."(「尙同」상)

이처럼 천하의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천자로 세웠으므로 이 천자의 명령에 따를 것을 묵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천하가 다스려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천자가 오직 천하의 의(義)를 한가지로 똑같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가 다스려졌다."(「尙同」상)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천자를 포함한 윗사람의 견해를 숭상하여 같아지려고 하고 아랫사람과는 무리를 짓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 윗사람이 옳게 여기는 것을 반드시 옳게 여겨야 한다. 윗사람이 그르게 여기는 것을 반드시 그르게 여겨야 한다. 자기에게 선(善)이 있으면 주위에서 추천하고, 윗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諫)한다. 윗사람의 뜻과 같아지려고 하고, 아랫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尙同」 상)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정치기구를 건립하는 기본목적이 하나의 공동표준을 건립하는 데 있다고 묵자는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이 공동표준으로 통일적인 영도력을 세워야 한다(勞思光 1986: 288).

비판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이는 권위주의 측면이 강한 것이다. 토론의 문화는 생각해볼 수조차 없다. 아마 그래서 중국에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그렇지만 묵자가 이러한 권위주의 측면이 강한 주장을 한 것은 많은 사람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천하의 현명하고 유능한 천자가 겸애를 추구하면 모든 백성이 천자를 따라서 그 겸애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 묵자의 생각이다.

5. 결론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간단히 필자의 견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묵자의 사상을 검토해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2장에서 소개한 겸애, 비공(非攻), 절용이라고 생각한다. 겸애는 두루 사랑하는 것인데, 묵자는 천하의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겸애에서 비공(非攻), 곧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나온다. 묵자는 사람들이 개인의 영역에서는 비윤리적인 일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서로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묵자는 개인의 차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도록 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절용, 곧 절약하는 것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절약하는 것은 옛날의 현명한 임금이나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묵자의 겸애•비공(非攻)•절약의 정신은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겸애의 정신'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는 침략을 반대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비공(非攻)의 정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실질을 추구하는 '절약의 정신'이 요구된다.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경향에 대해 경제적 재화와 물질을 소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을 추구하는 절약을 통해서 지나친 소비지상주의에 대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자면, 묵자의 사상은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이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파악하면 여전히 한국사회에 호소력이 있는 사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장과 4장에서 '하늘의 뜻'과 '분명한 귀신', 묵자의 '국가론'을 다루었다. '하늘의 뜻'과 '분명한 귀신'은 많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묵자가 제시한 종교적 방책이다. 이는 기원전 5세기경 당시 중국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호소력이 크게 반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기에는 여전히 그들의 힘이 부족하므로 오늘날에 맞는 방책이 무엇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묵자의 '국가론'은 천하의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서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천자로 세웠으므로 천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천자가 겸애를 추구하면, 많은 백성도 이 천자를 따라서 겸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묵자의 생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묵자의 국가론은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한 것이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한계점도 있다. 그렇지만 묵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5세기경에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위주의 정치모델을 채택한 것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묵자가 많은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기 위해 고안한 것, 곧 '하늘의 뜻', '분명한 귀신', 윗사람의 견해에 따르는 '권위주의적 국가론'은 당시로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일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수용하기 힘든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묵자가 말한 겸애가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남은 일은 이 겸애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적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다. 묵자의 사상은 고대의 시대에 속하는 것이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사상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학주 역주(2015) 『묵자 상』, 서울: 명문당.
권오석 역해(2015) 『묵자』, 서울: 홍신문화사.
藏原惟人, 김교빈 외 옮김(1999) 『중국고대철학의 세계』, 서울: 한울 아카데미.
풍우란, 정인재 역(1995) 『중국철학사(한글판)』, 서울: 형설출판사.
勞思光, 정인재 역(1986) 『중국철학사(고대편)』, 서울: 탐구당.
송영배 편저(2005) 『제자백가의 사상』, 서울: 현음사.
정재현(2012) 『묵가사상의 철학적 탐구』, 서울: 서강대출판부.
임건순(2013/2015)『묵자, 공자를 딛고 일어선 천민 사상가』, 서울: 시대의 창.

금강산 玉流洞 巖刻文에 대한 일고찰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題名文化를 겸하여

A Study on the Petroglyphs at Okryu-dong in Mt. Kumgang - Combined with the Culture of Superscription of Joseon Intelligentsias

林侑毅[1]
國立政治大学

1. 들어가며

조선시대 이전부터 명승지를 유람하는 풍조는 계속 있어 왔다. 이러한 풍조는 특히 '江湖歌道'를 생성시키기도 하였으며(이혜순 외 1997: 11), 명산이나 명수를 유람하면서 읊은 수많은 山水遊記와 紀行詩가 줄지어 창작되었다. 명산으로는 당시 三神山으로 불리던 金剛山·妙香山·智異山, 그리고 小白山·淸凉山·漢拏山 등이 꼽혔다(이상균 2011: 168-170). 이 중 가장 각광을 받은 곳은 바로 금강산이었다.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꼭 한번 보고 싶어라.(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 [2]

1 Yu Yi Lin (Researcher, Korean Language Center,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E-mail : lice520@gmail.co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AKS-2015-OLU-2250002)
2 金錦園(1996: 487). "中國人亦有'願生高麗, 一見金剛'者, 則山海之壯觀, 雖周覽天下, 似未有敵此者."

라는 어느 중국 문인의 말이 있듯이, 금강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필적할 만한 대상이 없을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산으로 꼽혔다.

조선시대에는 금강산을 유람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강원도에 외직으로 부임하거나 친족을 동반하여 강원도에 가거나 사직을 청한 뒤에야 금강산 유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조선 지식인들이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유산기를 쓰기도 하고 금강산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암벽이나 사찰의 벽에다가 새기기도 했다. 조선 전기 문인 楊士彦(1517~1584)은 내금강산 萬瀑洞 암벽에 '蓬萊楓嶽元化洞天'이라는 여섯 글자를 새겼고, 또 三日浦에는 '永郎徒南石行'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후대의 문인들은 이를 보고 다시 題名을 남겼다. 내금강산과 외금강산에서 경치가 제일 으뜸으로 꼽히던 萬瀑洞과 九龍淵 일대에 특히 많은 題名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巖刻文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순석이 1994년에 경기도 抱川郡 金水亭과 玉屛洞의 巖刻文을 조사하여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이후 한반도 소재 巖刻文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계에서의 관심 역시 아직까지 크지 않은 편이다. 필자는 2015년 여름에 외금강산을 방문하여 암벽과 바위에 새겨진 巖刻文을 조사한 바 있다. 木蘭館에서 시작하여 蓼鹿水·金剛門·玉流洞·連珠潭을 거쳐 九龍淵까지 이르는 등산로를 조사한 결과 玉流洞 근처에 있는 암벽에 무려 800개가 넘는 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는 19세기에 척신으로 領敦寧府事를 지낸 金祖根(1793~1844), 19세기에 刑曺判書·工曺判書·兵曺判書·禮曺判書·吏曺判書를 두루 지낸 洪敬謨(1774~1851), 구한말에 척신으로 江華府留守를 지낸 閔應植(1844~미상) 등 유명한 고위관직자의 이름도 볼 수 있었다.

본고는 먼저 현전 문헌에 나타난 금강산 巖刻文의 상황과 당시 유행했던 題名文化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아울러 산수유람 문화의 하나인 題名文化에 대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식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

다음에 玉流洞에서 조사한 巖刻文을 바탕으로 외금강산 玉流洞 일대의 암벽에 남아 있는 巖刻文을 정리하여 玉流洞 巖刻文의 내용과 형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도로 공사와 끊임없는 관광객의 발길로 인해 점차 마멸되어 파괴된 玉流洞 巖刻文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금강산 巖刻文과 조선시대의 금강산 題名文化

2.1. 금강산에서의 주요 巖刻文들

금강산 題名文化는 기존 금강산 巖刻文에 수반하여 형성된 문화이다. 옛사람이 남긴 필적 근처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것, 즉 題名을 남기는 것은 조선시대 금강산 유람에 있어서 일종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내금강·외금강·해금강·삼일포를 포함한 금강산 유람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줄곧 있어왔다. 조선전기 문인 南孝溫(1454~1492)은 「遊金剛山記」에서 금강산의 발원지와 이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白頭山起自女眞之界, 南延於朝鮮國海邊數千里. 其山之大者, 在永安道曰五道山, 在江原道曰金剛山, 在慶尙道曰智異山, 而泉石之最秀且奇者, 金剛爲冠. 山名有六 : 一曰皆骨 ; 一曰楓岳 ; 一曰涅槃者, 方言也 ; 一曰枳怛 ; 一曰金剛者, 出華嚴經 ; 一曰衆香城者, 出摩訶般若經, 新羅法興王以後所稱也.(南孝溫 1988: 91)

금강산 발원지에 대한 남효온의 인식은 1402년에 李薈가 左政丞 金士衡(1341~1407)과 右政丞 李茂(1355~1409)의 명을 받아 李澤民의 「聲敎廣被圖」와 天台僧 淸濬 「混一疆理圖」를 상세하게 교정한 다음에 조선 지도를 더 넓히고 일본 지도까지 붙여 만든 「混一疆理歷代國

都之圖」(일명 「歷代帝王混一疆理圖」)[3]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당시 지식인들은 오직 금강산의 명성을 듣고 유람할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이미 지도와 다른 지식인들의 유산기를 많이 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유람 준비를 했을 것이다. 또 금강산은 皆骨·楓岳·涅槃·枳怛·金剛·衆香城 등 여섯 개의 이칭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강산에 대한 담론 역시 매우 다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경치가 으뜸으로 꼽힌 금강산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산수 유람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승지에 시문이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중국 東漢 때 시작되었는데 黃門卞玉이 石門(현재 陝西省 褒城縣)을 지나갈 때 楊孟文과 그의 후손 楊淮·楊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石門의 암벽에 「楊淮表紀」를 새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람하면서 巖刻文을 남기는 풍조는 당나라 때 유행하기 시작하여 송나라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았는데, 황제를 비롯한 현달한 조정 관리와 문인 사대부, 지방 관리, 일반 백성까지 모두 명승지에 시문이나 이름을 남겼다.[4]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金石文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갑골이나 청동기, 죽간, 바위에 기록된 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馬衡 2009: 1-2). 본고는 주로 암벽이나 바위에 새겨진 글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므로, 대상자료를 금석문이라기보다는 巖刻文이라고 총칭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름만 남긴 題名, 글을 남긴 題記 등은 모두 巖刻文의 여러 형

3 權近(1990: 220). “惟吳門李澤民聲教廣被圖頗爲詳備, 而歷代帝王國都沿革, 則天台僧淸濬混一疆理圖備載焉. 建文四年夏, 左政丞上洛金公【士衡】, 右政丞丹陽李公【茂】, 燮理之暇, 參究是圖, 命檢詳李薈更加詳校, 合爲一圖. 其遼水以東及本國疆域, 澤民之圖亦多闕略, 方特增廣本國地圖, 而附以日本, 勒成新圖。, 井然可觀, 誠可以不出戶而知天下也.”

4 毛遠明(2009: 306). “名山大川, 歷史遺跡, 是遊人經常駐足的地方. 觸景生情, 乃題寫銘文, 刻之於石. 遊歷題名始於東漢, 如漢熹平二年「楊淮表紀」, 摩崖刻, 在陝西省褒城縣石門之崖壁, 黃門卞玉經過石門, 有感於楊孟文治道之功德, 乃作文刊石以頌之. 到南北朝, 題記有所發展, 鄭道昭父子在山東便留下大量摩崖題刻. 唐代遊覽題記風靡天下, 而至宋代, 發展到鼎盛. 上至皇帝、朝廷顯貴、名人雅士, 下迄僚屬役吏, 乃至平民百姓, 僧道婦孺, 都有題名. 或是詩賦, 或是散文, 或題字, 或僅題姓名, 形式自由靈活. 桂林山水之間, 泰山崖壁之上, 處處可見歷代遊人題記·題名. 遊覽題刻以摩崖爲多, 也有的刻於碑石或者其他石質建築.”

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전 금강산 유기를 살펴보면 가장 이른 시기에 새겨진 금강산 巖刻文은 삼일포 포구의 바위 석벽에 붉은 글씨로 새겨진 '永郎徒南石行' 여섯 글자이다. 이 여섯 글자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였음은 확실하다. 魚叔權(1510-1573)은 『稗官雜記』 권4에서 '永郎徒南石行'의 작성자와 형성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증하였다.

> 高城三日浦, 有水石之勝. 新羅時, 有花郎安詳·永郎之徒, 來遊三日不返, 故名焉. 浦口巖壁, 有丹書六字曰, "永郎徒南石行." 俗釋之曰, "永郎者, 新羅四仙之一, 而南石者指此石也. 行者, 行于石也. 客之到郡者, 必訪丹書. 有一郡守, 厭其煩費, 以石擊字, 使之漫滅. 後行好事者, 再刻六字, 但字劃不古, 可恨. 南秋江辨之曰, "此石自高城視之則在北, 自金剛山視之則在東北, 自東海視之則在西. 其稱南石, 尤不可解. 且六字成文, 文理太疏, 古人文法, 必不如是. 若非出於兒童之好事, 則是永郎之徒有姓名南石行者, 題名乎?"(魚叔權 1966: 780)

현전 문헌에서 '永郎徒南石行' 여섯 글자를 작성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금강산 巖刻文이 늦어도 신라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섯 글자는 유람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번잡하고 비용이 드는 것을 싫어한 한 군수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후세에 호사자가 다시 새겼는데 자획이 古色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永郎徒南石行'을 제외한 다른 금강산 巖刻文은 모두 조선시대에 들어 새겨진 것이다. 역대 산수유기를 망라한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에 수록된 금강산 유기를 검토한 결과 조선시대 지식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금강산 巖刻文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금강산 유람에는 단순히 산수의 장관을 즐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련 불교 사적과 일화, 전설, 그리고 고적

지를 탐방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15세기 문인 南孝溫처럼 금강산 명칭에서 보인 불교적 색채에 대해 강한 거부의식을 보여주면서 금강산의 탈불교 작업을 착수한 경우도 있고,(이혜순 외 1997: 30-31) 16세기 문인 魚叔權처럼 현장에서 본 고적지의 연원에 대해 변증한 경우도 있으며, 17세기 문인 魚有鳳(1675~1740)처럼 단지 옛사람의 필적 옆에 題名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상 언급한 巖刻文 근처에는 題名이 많이 남아 있다. 자신이 금강산에 왔으며 또 옛사람의 필적을 보았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題名을 한 것이었다.

〈표1〉 금강산 巖刻文들

위치	작성자	巖刻文 내용
三日浦	四仙(述郎·南郎·永郎·安詳)	永郎徒南石行
萬瀑洞	楊士彦	蓬萊楓嶽 元化洞天
	金谷雲	天下第一名山
鉢淵	楊士彦	蓬萊山(蓬萊島)
碧霞潭	宋時烈	物外秖今成跌宕, 人間何處不啾喧.
		淸溪白石聊同趣, 霽月光風更別傳.
毘盧頂	宋時烈	題名
玉流洞	楊士彦	玉流洞門
九龍淵	宋時烈	怒瀑中瀉 使人眩轉

2.2. 조선시대의 금강산 題名文化

현전 문헌을 보면 조선시대에 최초로 금강산에 巖刻文을 남긴 사람은 楊士彦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楊士彦이 금강산 題名文化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중기 영의정을 지낸 李景奭(1595~1671)은 『楓嶽錄·萬瀑洞有懷』에서 당시 금강산 題名文化를 언

급하면서 이 풍습을 연 사람은 楊士彦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 龍(臥龍潭)龜(龜潭)之間有盤石, 間以巖石, 石上多有遊人刻名. 余戱謂僧輩曰, "人之遊此山, 而有力者爭持斤鑿而刻石, 則奇巖怪石, 畢竟殆無完形. 俑此者, 其楊蓬萊乎? 余以不題名爲題名, 不刻名爲刻名, 諸上人以爲何如?"(李景奭 1988: 500)

그는 당시 사람들이 금강산을 유람할 때 힘이 센 자들이 다투어 도끼를 이용해서 바위에 이름을 새겼기에 기암괴석들이 거의 완전한 형체가 없어진 것에 한탄하여 제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17·18세기 문인인 魚有鳳은 또한 「再遊金剛內外山記」에서는 당시 과도한 題名文化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十四日, 晴. 朝飯訖, 復出瀑上徜徉. 路傍有大壁, 橫覆如屋仰, 而題名其上, 遂行. 尋三日浦無船, 久坐沙邊, 望見彩閣縹緲出湖心, 可知四仙亭也. 意思益飛越. 俄而船到. ……又移舟往西匡下, 觀所謂丹書者, 字體欠奇古, 朱痕亦太分明, 或恐是後人轉加塗畫而失本態也. 又其左右上下, 游客亂雜題名, 幾埋沒了永郎徒. 甚矣, 人之好名也. 余擇其僻匡空處記名.(魚有鳳 1997: 220)

魚有鳳은 옛사람이 남긴 巖刻文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현장에 가서 이를 찾아 구경한 뒤에 자기의 이름도 거기에 새겼다. 그는 당시 금강산 유람객들이 옛사람 필적의 상하좌우에 임의로 제명을 하던 관습에 대해 크게 통감하고 제명을 즐기던 당시 사람들의 풍습을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결국 제명을 남겼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있어서 금강산을 방문하여 시나 자신의 이름을 암벽이나 바위에 새기는 일은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금강산 유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종의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魚有鳳과 비슷한 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李宜顯(1669~1745)은 조선 시대에 제명을 가장 즐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遊金剛山記」를 보면 당시 題名文化가 얼마나 성행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 己丑秋, 出知伊川府. 府距山下不遠, 信宿可至. 時庶從叔許統·甥姪權瑩隨余來留. 余謂二君曰, "楓岳是吾夢想處, 而今適駐近, 實天借其便, 而若不一往, 豈非平生大恨? 况今楓葉方酣, 天氣正佳, 入山遊賞, 時哉不可失. 君輩能從我乎?" 二君躍然曰, "此吾願也, 敢不樂從." 遂約於菊秋初吉登程. ……(飛虹橋)使許君題名於樑上。……(從木棧至鳴潭)題名石穴. ……登(表訓寺)樓瞻眺, 題名於樑上. ……(正陽寺)楣壁間, 多有親知題名, 余亦題之。……殿後有石塔, 塔前有光明臺, 其後爲般若殿. 中安佛像, 壁上多有遊客姓名. 我王考府君亦以甲辰仲秋之望, 與東里·梅澗諸公同遊而題名者, 今尙在壁. 其下又有王考題名, 或於其前後再遊而題之歟? 拂壁摩挲, 不勝愴慕, 仍題名其下, 略識續遊之意. ……(拭巾巖)與二君列坐楓林下, 題名臺上. ……轉向摩訶衍洞口, 楓檜參天翳日, 中通一路, 遂入寺題名. ……(山映樓)與二君題名樑上. ……(行至風穴)入坐小憩, 題名而出. ……入松林窟, 窟甚精洒, 中安石佛羅漢諸像, 與二君題名而出. ……轉入圓通寺攤飯, 題名於壁上. ……(至鉢淵)溪邊最幽處, 刻蓬萊島三字, 字畫奇健, 乃楊蓬萊筆也. 題名於瀑布邊立石, 仍列坐於磐石之最下層. ……入見瀑布菴, 亦頗淸閒, 題名壁上. 又入鉢淵寺題名. ……題名於丹書石窟中, 復放舟中流。……(龍貢寺)略如楡岾之樓而規制差小, 亦冒以山映之號, 與二君共登題名.(李宜顯 1997: 383-394)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李宜顯은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모두 열 세번의 제명을 했다. 石穴과 石窟, 사찰의 기둥, 바위, 암벽 등 제명할 만한 곳에 한결같이 자기의 이름을 새겼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명은 正陽寺 般若殿 벽에 있는, 현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조부 李挺岳(1610~1674)의 제명을 보고 그 아래에 자기의 이름을 남긴 것이다. 이러한 제명 형태는 금강산 제명 자료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당시 題名文化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제명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18세기 문인 李秉烈(1749~1808)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이러한 題名文化가 초래한 결과를 포착하였다. "대개 금강산의 한 골짜기에 수백 년 이래 卿相들이 이름을 남기지 않는 자가 없다.(大抵金剛一洞, 數百年來卿相無一人不題名.)(李秉烈 1996: 381)"라고 한 것처럼 금강산에 題名을 하는 것은 금강산 유람에 수반되는 일종의 관습 행위였다. 심지어 "제명을 하려고 하나 한 조각의 바위나 새길 만한 틈이 있는 자리조차 없다.(欲爲題名而無片石閒地)(李秉烈 1996: 381)"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처음에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전기의 지식인들이 금강산의 장관에 감탄하여 명승지 근처의 암벽이나 바위에 巖刻文을 남겼고, 후세 사람들은 그들의 巖刻文을 보고 금강산 유람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題名을 남겼다. 이로 인해 題名文化가 크게 형성되어 금강산 곳곳에서 옛사람의 필적과 유람객들의 제명이 섞여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魚有鳳이 본 것처럼 옛사람의 필적을 가릴 정도로 제명을 과도하게 새긴 경우도 있다.

題名文化가 과도하게 성행해지자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게 된다. 18세기에 篆書로 명성을 얻은 李東沆(1736~1804)은 「楓嶽總論」에서 당시 사람들이 특히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제명을 즐기던 문화를 묘사하고 이에 대해 혹독하게 비난하였다.

> 名區題名, 自是弊俗, 而此山爲最. 雖絶壑深洞, 苟有平石, 則鏤刻名字, 幾無一片空隙, 而皆是百年後人物也. 然則古人之名, 皆苔食水磨, 泯滅而無耶? 余念古人循蹈實地, 不喜浮夸, 故逢勝地佳景, 觴詠寄興而已. 或有留名山中以結眞緣, 則墨題巖廣軒楣. 『秋江錄』中, 松蘿菴楯上有故人金大猷提名者, 是也. 及其世下俗偷, 好名之心勝, 好事之習成, 墨之不足, 刻鏤石上, 刻之又刻, 刻無虛日. 故長安·表訓·楡岾·新溪之僧, 無非刻手, 又設置冶爐

> 鍛鍊鐵釘, 例隨遊客之輿後, 而無寸金酬工. 此可見古今之異, 俗習之變, 而惟金沙溪·金千鎰·僧惟政之名, 如披沙得金, 以古蹟愛之.(李東沆 1996: 347-349).

李東沆은, 명승지에 제명하는 것은 잘못된 습속인데 금강산에는 아무리 깊숙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평평한 돌만 있으면 이름과 字를 새겨 거의 한 조각의 빈틈도 없을 정도로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그는, 옛사람은 과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경치 좋은 곳을 만나면 오직 술잔을 잡고 흥을 일으킬 따름이었으며 혹 제명을 남기는 경우에는 먹물로 암혈의 판액이나 문미에 글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풍속이 투박해지자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 먹물로 쓰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새기고 또 새겨, 새기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어서 李東沆은 당시의 題名文化에 대해 長安寺·表訓寺·楡岾寺·新溪寺의 스님들은 모두 조각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대장간을 설치하여 쇠를 달구면서 유람하는 손님의 가마 뒤를 쫓아다니지만 금 한 치의 보답도 얻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지식인들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특히 長寺安·表訓寺·楡岾寺·新溪寺 등 명승지에 가게 되면 의례적으로 조각을 잘 하는 스님들을 시켜 제명을 하게 하였다. 新溪寺의 경우, 외금강산 지역에서 경치가 가장 으뜸인 九龍淵에 올라가기 전에 투숙하던 곳으로,(최정훈·장용경 1988: 249) 등산객들은 대개 이튿날 출발할 때 가마꾼과 산길 안내를 담당하던 新溪寺의 스님을 대동하였다. 新溪寺에서 九龍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玉流洞 일대에는 병풍처럼 펼쳐진 큰 암벽이 있었는데, 오전에 玉流洞에 이르러 스님을 시켜 제명을 하게 한 다음 九龍淵으로 올라가 유람하고, 돌아올 때 다시 玉流洞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명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현재 玉流洞 일대에는 무수한 제명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 玉流洞 題名文化의 성황과 제명 방식, 그리고 현전 玉流洞

巖刻文의 내용 및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玉流洞의 題名文化와 巖刻文의 내용 및 형태

3.1. 玉流洞의 題名文化

조선시대에 들어 題名文化가 크게 성행하면서 각 명승지에는 많은 지식인들의 이름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다. 玉流洞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1825년 이후에 성책된 것으로 추정되는 『關東誌』에 수록된 「高城邑誌」에 의하면, 玉流洞은 바로 九龍淵의 하류에 위치하여 岩石이 번드럽고 희며 潭水가 맑아 노닐 만하다고 한다(即九龍淵下流, 岩石滑白, 潭水澄泓, 可玩.)(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6: 447). 이 때문에 조선시대 문인들은 九龍淵에 오른 후에 玉流洞에 내려와 쉬면서 노니는 것을 즐겼다.

1825년에 21세의 나이로 친척 아저씨인 西園(인명 미상), 친구 李孟全과 더불어 금강산의 명승지를 두루 탐방한 李豊翼(1804~1887)은 자신이 지은 東遊記와 東遊詩, 그리고 금강산의 대표적인 경관을 그린 實景山水畵 28폭을 모아 『東遊帖』을 제작하였다. 그는 玉流洞의 아름다운 풍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洞壑鬆寬, 左右石峰, 戌削環擁, 亂石啗呀. 大盤陀鋪其底, 臥瀑如湘水. 簾下而爲潭, 潭深其聲擂礮若, 潭深其聲鼓鍾若. 淸綠無點塵, 蓋山深而水實. 其腹水之狀, 隨石以變, 或大石阨其勢, 水怒傍衝倒瀉, 不勝其奇. 至此洞, 洞稍廣, 石差平, 水始拗怒徐行, 匯爲澄泓, 激爲淺灘, 使人愈覺其愛.(李豊翼 2005: 461)

李豊翼은 玉流洞 상류에서 깊은 곳과 얕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이 포성이나 북소리, 종소리와 같은 소리로 울리고 큰 바위에 부딪쳐 성난 듯 거꾸로 쏟아져 내리다가 넓고 평평한 계곡 하류에 이르러 노여움을

거둔 채 느릿느릿 흐르는 모습을 위와 같이 묘사하였다. 이러한 물과 바위로 이루어진 대자연의 壯觀이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이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많아지자 평평한 암벽에 새겨진 제명도 역시 자연히 많아지게 되었다.

조선후기 영의정을 지낸 金壽恒(1629~1689)의 다섯째 아들로, 형 昌集(1648~1722)·昌協(1651~1708)·昌翕(1653~1722)·昌業(1658~1721) 및 아우 昌立과 함께 六昌이라 일컬어지던 문장가 金昌緝(1662~1713)은 자신의 금강산 견문록인 「東游記」에서 이미 玉流洞 암벽에 새겨진 많은 제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 初五日, 晴晩陰. 蓐食平明, 西行三里許渡溪, 西南入谷, 又渡溪而行. 自此路漸崎嶇, 皆行亂石密林中, 可輿處絶少, 又渡溪至玉流洞, 卽九龍下流, 而隨地而異名耳.(金昌緝(1996: 455)

그는 1712년에 금강산 유람을 떠나, 九龍淵에 올라가기 전인 玉流洞에서 여기저기에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제명을 남겼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제명을 한다는 기록을 남긴 문인으로는 星湖 李瀷의 문인으로 1774년 7월 21일에 李鎭宅(1738~1805)과 함께 서울을 출발해 38일 간 金剛山을 유람한 安景漸(1722~1789), 그리고 순조 때 대사간을 지낸 문인 睦萬中(1727~1810)을 들 수 있다. 安景漸은 그의 「遊金剛錄」에서 "玉流洞에 이르러 석굴에 제명을 하고 점심 식기를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중략) 다시 玉流洞으로 돌아와 큰 바위 위에서 점심 밥을 지었다.(至玉流洞, 題名於石窟中, 遂置午飯器於巖上. ……還出玉流洞, 巖上燒飯午點.)(安景漸 1996: 147)"라고 했다. 安景漸의 글을 통해, 오전에 玉流洞에 가서 제명을 하고 점심 식사 도구를 풀어 놓고서 九龍淵에 올랐다가, 구경을 마친 후 다시 玉流洞으로 내려와 점심 식사를 하던 당시 지식인들의 九龍淵 유람 코스를 알 수 있다. 제명은 반드시 본

인이 남긴 것은 아니었다. 睦萬中은 1771년에 지인 李彦秀(1713~ ?, 호는 觀井)와 함께 금강산 유람을 갔는데 李彦秀가 병에 걸려 玉流洞에 못 가게 되자 그를 대신하여 제명을 남겼다. 睦萬中의 『採芹錄』에 수록된「游玉流洞, 觀井病不偕, 余於石面並鑱其名而歸. 觀井有詩歎惋, 次以解之(睦萬中 2009: 26) 」라는 시 제목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玉流洞 제명의 성황 역시 李豊翼의 『東遊帖』에 가장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李豊翼은「題名詩六首」의 앞에 두 수에서 당시 유람객들과 스님들이 玉流洞에서 제명을 새기던 장면을 묘사하고 뒤에 네 수에서 題名文化에 대해 평가하였다.

1.
遊人到此輒題名, 石腹團圓不面平.
慣客山僧能解意, 擔釘攜棒已先行.
2.
白以銘之填以紅, 何須研琢費精工.
分明縱得今看好, 究竟磨風洗雨中.(李豊翼 2005: 465)

당시 유람객이 玉流洞에 오면 반드시 제명을 해야만 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람객들과 동행하여 玉流洞, 九龍淵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新溪寺 소속 스님으로, 玉流洞에 온 유람객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미리미리 징 메고 망치 들고 玉流洞으로 향했다. 거기서 유람객들의 부탁을 받아 정교한 솜씨로 암벽에 하얗게 새기고서 다시 물감으로 붉게 메워 놓았다. 조각을 하는 스님들은 산길 안내를 담당하는 스님들과 달리 그저 玉流洞에서 九龍淵으로 올라가는 유람객을 기다렸다가 제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즉시 조각 작업을 착수하였다. 19세기초 慶山縣令을 지낸 姜羲永(1783~?)은 1841년에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쓴 일기인 『金剛日記』에서 이러한 제명 진행 방식을 포착했다. 그는 그 해 4월 9일에 九龍淵을 보려고 이

른 아침에 푸른 색 가마를 타고 玉流洞을 지나 산에 올라 九龍淵을 만끽한 뒤 다시 玉流洞에 내려와 제명을 마무리하고 기다리고 있던 스님을 만났다.

> 急步下至玉流洞, 喫午饘. 返十里許, 藍輿僧率待, 蓋朝去時命刻手爲誌名, 故渠亦畢刻而留待也. 刻石則路左一大巖, 而往來人盡見處也. 字形不大不小, 僅爲中品, 久刓不知幾時, 而似勝於木板也(姜羲永 2005: 187-188).

"아침에 갈 때 이름을 새기는 스님들로 하여금 이름을 새기게 했던 까닭에 그들 역시 이름을 다 새긴 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한 姜羲永의 서술에 의하면, 이름을 새기는 스님들은 유람객들이 九龍淵에 다녀오는 시간을 이용해 玉流洞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李豊翼과 姜羲永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이름을 새기는 일이 일종의 장사가 되었던 듯하다. 즉 玉流洞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였던 유람객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미리 조각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챙겨 玉流洞에 와서 기다리다가, 제명 부탁을 받으면 유람객이 九龍淵에 다녀온 후 구경할 수 있도록 유람객이 다시 오기 전까지 제명 작업을 신속히 완수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성행하던 題名文化의 영향에서 생겨난 상업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李豊翼의 「題名詩六首」를 살펴보자. 그는 제5,6 수에서 제명에 대한 자신의 소감과 바람을 피로하였다.

> 5.
> 石如不轉也無窮, 洞木淵龍尙識同.
> 後若有人得相見, 將難謂我雪泥鴻.
> 6.
> 人皆懸壁我盤陀, 怒濤驚湍任盪磨.
> 身當紅塵名白石, 自今淸夢一生多(李豊翼 2005: 466).

李豊翼은 여기서 의인법을 이용해 바위가 옮겨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제자리에 있을 것이므로, 주변 동굴과 나무 그리고 연못과 九龍淵의 화신인 용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겠지만, 후세 사람들은 내 이름을 보면 내가 일부러 명예를 남기고자 이름을 새긴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도 題名文化가 성행하던 시대 분위기 속에 李豊翼은 결국 다른 사람이 다투어 이름을 남기고자 하던 높은 암벽 대신 비스듬한 바위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고 이를 성난 폭포와 세찬 여울에 맡겼다. 하지만 동시대 지식인으로서 李豊翼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문인 黃德吉(1750~1827)은 제명을 하면서 당시 스님들이 바위를 깎아 이름을 새기거나 이끼를 쓸어내느라 무척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斲石題名姓, 山僧掃碧苔.)을 묘사하고는, 당시 사람들이 산수 명승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爲留山水跡, 傳與後人來.)(黃德吉 2000: 273).

3.2. 玉流洞 巖刻文의 내용 및 형태

다음으로 필자가 玉流洞에서 巖刻文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玉流洞 巖刻文의 내용 및 형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경우, 암벽이나 바위에 이름이나 글을 새길 때 보통 붉은 색으로 글자를 쓰고(丹書) 조각하는 刻工이 陰刻 혹은 陽刻의 방식으로 글자를 새긴다. 陰刻은 바위에 쓰여진 글자를 깎아내는 조각법이고 陽刻은 글자가 드러내도록 글자 외에 다른 부분을 깔아내는 조각법이다. 陰刻은 大字와 小字의 차이가 있는데, 小字는 글씨를 쓴 다음에 바로 깎아내어 만드는 글자라면 大字는 글자의 윤곽을 그리는 雙鉤의 수법으로 글자를 쓴 다음에 내부를 깎아내어 만든 글자이다.[5] 현재 玉流洞에 남아 있는 巖刻文은 陰刻의 조각법으로 만든 해서체 글자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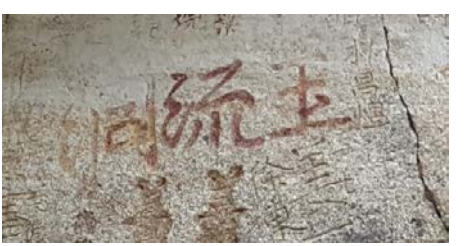
5 毛遠明(2009: 38-39). "書丹之後, 由刻工鐫刻成文, 若爲大字, 採雙鈎之法, 先鈎出輪廓, 再施鐫刻. ……鐫刻有陽刻、陰刻二類. 陰刻將文字筆畫刻入石面, 文字凹陷, 碑刻銘文絕大多數是陰刻. ……陽刻是鑿去無筆劃的石面, 文字筆劃凸起."

이다. 전서체로 쓴 글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적은 편이다. 해서체로 된 글자는 雙鉤로 새긴 大字와 小字 두 종류가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玉流洞 巖刻文의 내용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명을 표시한 地名 巖刻文이고 하나는 이름을 새긴 題名 巖刻文이다. 地名 巖刻文의 경우, 玉流洞 일대에 단 네 군데가 있고, 題名 巖刻文의 경우, 800 개가 넘는 이름이 존재한다. 이제 地名 巖刻文과 題名 巖刻文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楷書體 陰刻雙鉤大字와 陰刻小字　　篆書體

3.2.1. 地名 巖刻文



玉流洞에 들어가 왼쪽에 병풍처럼 크게 펼쳐진 암벽 위에 '九龍淵玉流洞門　申在植書'과 '玉流洞' 두 개, 그리고 '白石潭' 하나가 보인다. 두 개의 '玉流洞' 근처에 비슷한 글씨체로 새겨진 이름이 없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九龍淵玉流洞門' 뒤에 '申在植書'의 네 글자가 새겨져 있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申在植(1770~1843)의 자는 仲立, 호는 翠微, 180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弘文館의 벼슬을 거쳐 1818년 大司諫에 이어 江原道觀察使·吏曹參議를 지냈고, 大司憲·吏曹判書·實錄摠裁官 등을 역임하였다. 1826년 冬至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836년에 다시 冬至使의 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두 번의 연행에서 중국 문인들과의 필담과

수창시를 모아 『筆譚』과 『相看編』을 엮었는데 연행록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김철 2009: 27).

그는 江原道觀察使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금강산을 탐승하였는데 금강산의 여러 명승지 중에서 특히 九龍淵을 좋아하였다. 그는 「贈楓嶽山僧」에서 "曾入金剛住數年, 別來回首海東天. 烟霞舊業難忘處, 每見山人問九淵."(申在植1999: 554)라고 하여, 江原道觀察使로서 수년 동안 외직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제일 그리운 곳이 九龍淵이라고 자백했다. 이 시를 보면 당시 申在植이 玉流洞 암벽에 '九龍淵玉流洞門'을 새겼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地名 巖刻文처럼 작성자의 이름과 함께 새긴 것은 금강산의 다른 명승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九龍淵玉流洞門 申在植書'의 가치는 매우 각별하다.

3.2.2. 題名 巖刻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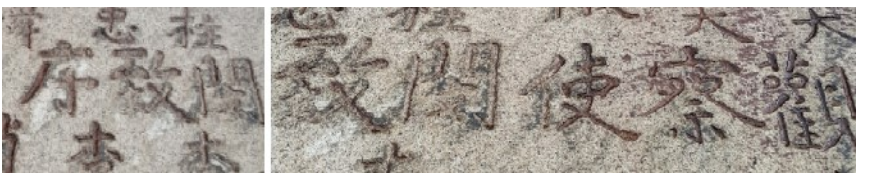
玉流洞 일대에 남아 있는 巖刻文은 대다수가 題名 巖刻文이다. 이는 앞서 말한 玉流洞 題名文化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玉流洞 題名 巖刻文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새긴 것과 제명 표시 형태 두 가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명 관련 정보 표시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제명을 할 때 단지 이름만을 새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玉流洞에 남아 있는 800 개 이상의 제명을 검토한 결과 아주 특이한 세 가지 제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제명자 자기의 관직을 표시한 제명, 제명 시기를 표시한 제명, 자기의 나이를 표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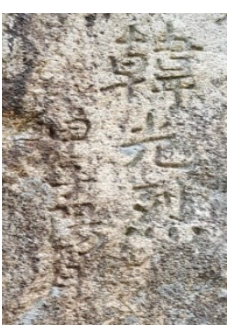
제명의 세 가지이다.

a. 관직명을 표시한 제명



관직명을 표시하는 제명은 玉流洞 일대에서 '觀察使金始淵', '觀察使南公', '觀察使閔致序' 세 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전 문헌을 확인한 결과 '觀察使南公'은 1800년에 江原道觀察使로 임명된 南公轍(1760~1840)임을 알 수 있다(한국민족민화대백과사전). 金始淵(1810~미상)은 1861년에 江原道觀察使로 임명되었다. 閔致序(1817~미상)는 1882년 2월2일에 江原道觀察使로 임명되고 2월 26일에 黃海監司로 체직되었다가 다시 1년 후 江原道觀察使로 임명되어 3년을 재직했다.[6] 그들은 江原道觀察使로 재직하던 중 금강산을 유람하여 제명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b. 제명 시기를 표시한 제명



제명 시기를 표시한 제명이 많지 않는데, '韓光烈'은 그 중 하나의 예이다. 韓光烈의 본관은 淸州로, 1748년에 태어나 정조16년(1792) 壬子 式年試 丙科 29위를 받았다. '甲子陽月'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韓光烈은 1804년에 玉流洞에 왔음을 알 수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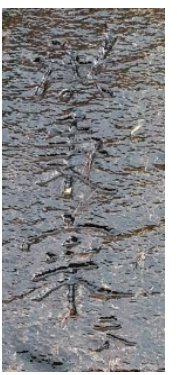
'金源百'의 경우,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6 『高宗實錄』 고종 19년 2월 2일 戊午 1번째기사, 고종 19년 2월 26일 壬午 2번째기사, 고종 20년 12월 4일 庚戌 1번째기사, 고종 23년 2월 20일 甲申 1번째기사.
7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또 조선 시대에 1441년, 1501년, 1561년, 1621년, 1681년, 1741년, 1801년, 1861년이 모두 辛酉年인데 金源百의 생몰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辛酉'가 몇 년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c. 나이를 표시한 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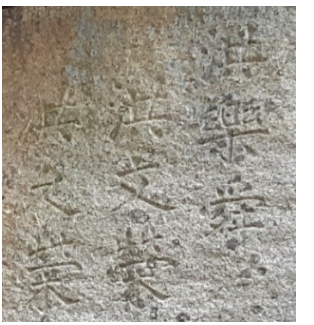
800개가 넘는 제명 중에서 洪秉宋는 유일하게 나이를 새긴 인물이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蔭職으로 縣監을 지내고 左贊成에 추증된 洪秉宋는 孝定王后의 증조부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기 이름 아래에 제명 시기와 관직명을 쓰지 않고 字號나 나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시 방법이다. 二八은 洪秉宋의 字號라고 하기 보다 나이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2) 제명 표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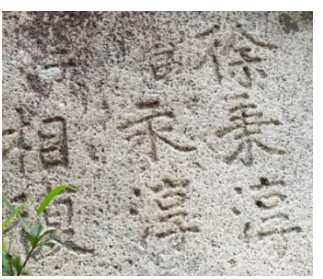
玉流洞의 제명 표시 형태는 유람 동반자에 따라 달라졌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가족과 함께 유람하면서 항렬과 나이 순으로 이름을 새긴 것이다. 즉 항렬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오른쪽,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을 왼쪽 끝에 배치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은 제명 표시의 첫 번째 형태이다. 두 번째 형태는 玉流洞에 제명을 한 조상의 이름 아래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 세 번째 형태는 지인과 함께 유람하면서 나란히 이름을 새긴 것이다. 다음으로 몇 가지 예시로 세 가지 제명 표시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 가족 제명 표시 형태



가족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하고 제명을 남길 때 항렬이나 서열이 다를 경우 항렬이나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을 오른 쪽에 새기고 다음 항렬이나 서열인 사람의 이름을 왼쪽에 한 칸 띄우거나 앞에 弟·子 혹은 孫을 붙여 새기도록 하였다. 가족 제명의 경우, 글씨체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洪樂舜(1732~1795)의 자는 伯能으로, 경화세족 豊山洪氏 출신이다. 掌樂主簿·英陽縣監·盈德縣令·平昌郡守를 역임했고, 정조 17년(1763)에 高城郡守에 임명되었다. 洪文榮은 그의 아들이다(『萬家譜』 9책, 豊山洪氏).



徐秉淳(1767~1836)의 자는 士執이고, 善山府使를 지냈다(歷史人物硏究所1995: 139). 徐永淳(1787~?)의 자는 敬允이다(歷史人物硏究所1995: 43). 徐秉淳은 大丘徐氏 15世 晩沙公 徐景雨(1573~1645)의 후손이고 徐永淳은 大丘徐氏 15世 典籤公 徐景霌(1575~1646)의 후손이지만, 두 사람은 모두 大丘徐氏의 23世 후손으로 서로 형제 사이로 칭했을 것이다. 때문에 徐永淳의 이름 앞에 아우 '弟'자가 새겨져 있다. 徐相復(1807~?)의 자는 七汝, 徐秉淳의 아들이다. 그의 이름 앞에 역시 아들 '子'자가 새겨져 있다.

또 항렬이 같으나 나이가 다를 경우, 나이 순서로 이름을 나란히 새겼다. 權用銓·權敬銓·權亨銓의 본관은 安東이고 증조부는 權世檍이다. 權用銓과 權亨銓은 형제 사이고, 權敬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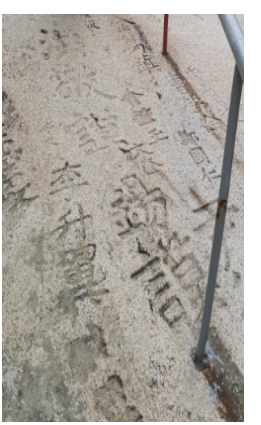
은 權用銓의 육촌동생이다(『萬家譜』 7책, 安東權氏).

b. 조상 제명 표시 형태

가족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하지 않았지만 제명에서 조상의 이름을 발견하면 그 아래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17·18 세기 서예와 금석문에 능하였다고 알려진 姜浚欽(1768~1833)이 금강산을 유람할 때 玉流洞에서 돌아가신 부친 姜世靖의 이름을 보고 다시 아래에 자기의 이름을 새겼다.

> 玉洞尋遺跡, 蒼苔字半明.
> 承顔如昨日, 忍淚獨餘生.
> 願把傳心畫, 留存繞膝情.
> 孫曾後必至, 家譜此間成(姜浚欽2010: 302).

「玉流洞盤石, 有先考題名, 繼刻」 시에서 보이듯이 그는 玉流洞을 유람하면서 우연히 부친의 이름을 본 것이 아니라 玉流洞에서 일부러 부친을 이름을 찾은 것이었다. 그가 부친의 이름 아래 자기의 이름을 새긴 행동에는 玉流洞에서 집안의 족보(家譜)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맥을 잇고자 하는 시도는 姜浚欽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다른 지식인이 남긴 제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의 대표문인 洪敬謨는 36세가 되던 1809년에 元子誕降 慶科增廣 文科別試에 丙科 제7인으로 급제하여 78세에 별세할 때까지 藝文館·弘文館·成均館·司憲府·司諫院 등의 淸要職을 두루 거쳤고, 六曺 중에서는 刑曹判書·工曹判書·兵曹判書·禮曹判書·吏曹判書를 맡았다(林侑毅 2015: 24). 그는 1816년에 參判 尹尙圭·應敎

趙民和와 함께 28일간 金剛山 일대를 유람하며[8] 시를 지어 사촌동생 洪錫謨(1781~1850)에게 편지를 보냈다. 洪錫謨는 1817년에 장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함경도로 떠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금강산에 들러 유람했다(이관성 2003: 111). 사진에서 洪敬謨 이름 아래에 洪錫謨의 이름이 새겨 있는데, 洪敬謨가 1816년에 금강산 유람을 할 때 제명을 했고 이듬해 洪錫謨가 금강산에 유람하면서 洪敬謨의 이름을 찾아 그 아래에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

1816년 洪敬謨와 함께 금강산을 떠났으며 通政大夫를 지낸 趙民和(1765~?)의 이름도 洪敬謨의 이름 근처에서 확인된다. 趙民和의 이름 왼쪽에 있는 趙然明은 바로 그의 아들이다(『萬家譜』 9책, 豊壤趙氏). 그러나 趙然明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그가 언제 부친의 이름 옆에 제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c. 지인 제명 표시 형태

제명 표시의 세 번째 형태는 지인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함께 제명해서 남긴 것이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성씨의 이름이 같은 글자 크기와 서체로 새겨져 있다. 玉流洞 일대에서 지인 제명은 흔히 볼 수 있으나 그들의 교유관계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오른쪽의 사진으로 든 '洪奭弼'·'朴履孝'·'金在恂'과 '林錫一'·'李濟觀'·'趙灝淳'의 사례를 보면 '洪奭弼'·'朴履孝'·'金在恂'은 한 일행이고 '林錫一'·'李濟觀'·'趙灝淳'은 또 다른 일행이다. 전자의 경우 관련 정보가 많지 않아, 『承政院日記』에서 나온

8 洪敬謨, 『冠巖紀年』 권2,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丙子(四十三歲) 四月十一日, 協尹參判尙圭·趙應敎民和作金剛之遊."

기록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洪奭弼은 1811년부터 1821년까지 訓鍊主簿·長連縣監·機張縣監·大邱營將·忠翊將 등을 역임했고, 朴履孝은 1774년부터 1802년까지 寫字官·都看役營裨折衝·景福宮衛將 등을 역임했고, 金在恂은 四學 儒生 幼學으로 『承政院日記』 1778년, 1778년, 1779년, 1806년에서 네 번 등장한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玉流洞에서 같은 스님에게 제명을 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후자의 경우, 관련 자료가 결여되어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남아 있어, 앞으로 조선시대 문학 집단이나 교유관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4. 결론

이상 본고는 2장에서 현전 문헌에 나타난 금강산 巖刻文의 상황과 당시 유행했던 題名文化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산수유람 문화의 하나인 題名文化에 대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식을 아울러 고찰해 보았다. 3장에서 문헌에 나타난 玉流洞 題名文化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자가 玉流洞에서 조사한 巖刻文을 바탕으로 외금강산 玉流洞 일대의 암벽에 남아 있는 巖刻文을 정리하여, 玉流洞 巖刻文의 내용과 형태를 분석해 보았다.

산수유람 문화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줄곧 있어 왔다. 특히 경치가 으뜸으로 꼽히던 금강산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산수유람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은 금강산을 방문하여 유산기를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시나 자신의 이름을 암벽이나 바위에 새기기도 하였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금강산 유람에서 빠질 수 없는 일종의 문화로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지식인들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특히 長寺安·表訓寺·楡岾寺·新溪寺 등 명승지에 가게 되면 의례적으로 조각을 잘 하는 스님들을 시켜 제명을 하게 하였다. 新溪寺는 외금강산 지역에서 경치가 가

장 으뜸인 九龍淵에 올라가기 전에 투숙하던 곳으로, 등산객들은 대개 이튿날 출발할 때 가마꾼과 산길 안내를 담당하던 新溪寺의 스님을 대동하였다. 新溪寺에서 九龍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玉流洞 일대에는 병풍처럼 펼쳐진 큰 암벽이 있었는데, 오전에 玉流洞에 이르러 스님을 시켜 제명을 하게 한 다음 九龍淵으로 올라가 유람하고, 돌아올 때 다시 玉流洞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명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현재 玉流洞 일대에는 무수한 제명이 남아있다.

현재 玉流洞에 남아 있는 巖刻文은 陰刻의 조각법으로 만든 해서체 글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巖刻文 내용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명을 표시하는 地名 巖刻文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새긴 題名 巖刻文이다. 題名 巖刻文의 경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800 개 이상의 이름이 존재한다. 이는 앞서 말한 玉流洞 題名文化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玉流洞 題名 巖刻文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새긴 것과 제명 표시 형태의 두 가지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제명 관련 정보를 새긴 경우가 지극히 적은 편인데 주로 제명자 관직명과 제명 시기, 제명 나이를 표시했다. 그리고 제명 표시 형태는 가족 제명 표시 형태, 조상 제명 표시 형태, 지인 제명 표시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관광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유람객들을 위한 길을 인위적으로 만든 결과 많은 巖刻文이 파괴되고 말았다. 현재 많은 지식인들의 제명이 이미 시멘트로 덮여 있다.

또 관광사업이 활발해짐에 때라 관광객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 玉流洞 일대의 제명들은 관광객들의 발길로 인해 점차 마멸되고있다. 물론 이러한 제명들이 수백 년 동안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발길을 견뎌 온 것도 사실이지만, 옛날에 금강산 유람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금강산을 찾은 유람객 역시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교통이 편리해져 금강산을 찾는 본국 및 외국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백명에 이른다. 제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등산길을 만들거나 통행

로 위에 있는 제명을 탁본으로 만들어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철(2009) 「『筆譚』을 통해 본 申翠微와 청대 문인 교류 양상 및 그 학문적 경향」, 『아시아문화연구』16,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7.

이관성(2003) 『陶厓 洪錫謀의 漢詩 硏究』,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11.

이상균(2011) 「조선시대 關東遊覽의 유행 배경」, 『인문과학연구』31, 인문과학연구소, 168-170.

이혜순 외(1997)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서울: 집문당, 11, 30-31.

최정훈·장용경(1988) 『금강산, 그 든든한 힘』, 서울: 도서출판 이토, 24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86) 「高城邑誌」, 『關東誌』, 서울: 亞細亞文化社, 447.

姜浚欽(2010) 「玉流洞盤石, 有先考題名, 繼刻」, 『金剛錄』, 『三溟詩集』七編, 韓國古典飜譯院(編)『韓國文集叢刊續』110, 서울: 韓國古典飜譯院, 302.

姜羲永(2005), 조용호 옮김, 『19세기 선비의 의주·금강산기행-『金剛日記 附 西遊錄』역주』, 서울 : 도서출판 삼우반, 187-188.

權近(1990) 「歷代帝王混一疆理圖誌」, 『陽村集』22, 民族文化推進會(編)『韓國文集叢刊』7,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220.

金錦園(1996)『湖東西洛記』, 鄭珉(編)『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3, 서울: 民昌文化社, 487.

金昌緝(1996) 「東游記」, 『圃陰集』6, 民族文化推進會(編), 『韓國文集叢刊』176,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455.

南孝溫(1988) 「遊金剛山記」, 『秋江集』5, 民族文化推進會(編), 『韓國

文集叢刊』16,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91.
申在植(1999) 「贈楓嶽山僧」, 『翠微大師集』, 韓國文集編纂委員會(編), 『韓國歷代文集叢書』245, 서울: 景仁文化社, 554.
安景漸(1996) 「遊金剛錄」, 『冷窩集』, 鄭珉(編),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3, 서울 :民昌文化社, 147.
魚叔權(1966) 『稗官雜記』, 民族文化推進會(編)『大東野乘』4, 780.
魚有鳳(1997) 「再遊金剛內外山記」, 『杞園集』20, 民族文化推進會(編) 『韓國文集叢刊』184,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220.
歷史人物硏究所(1995) 『大丘徐氏壬子譜』1, 晩沙公派, 대구: 鄕志文化社, 139.
歷史人物硏究所(1995) 『大丘徐氏壬子譜』2, 典籤公派, 대구: 鄕志文化社, 43.
睦萬中(2009) 「游玉流洞, 觀井病不偕, 余於石面並鑱其名而歸. 觀井有詩歎惋, 次以解之」, 『採芹錄』, 『餘窩集』2, 韓國古典飜譯院(編) 『韓國文集叢刊續』90, 서울: 韓國古典飜譯院, 26.
李景奭(1988) 『楓嶽錄·萬瀑洞有懷』, 『白軒集』10, 民族文化推進會(編) 『韓國文集叢刊』95,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500.
李東沆(1996) 「楓嶽總論」, 『遲庵文集』, 鄭珉(편)『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3, 서울: 民昌文化社, 347-349.
李秉烈(1996) 「金剛日記」, 『龍岡集』, 鄭珉(편)『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3, 서울: 民昌文化社, 381.
李宜顯(1997) 「遊金剛山記」, 『陶谷集』25, 『陶谷集』, 民族文化推進會(編)『韓國文集叢刊』181,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383-394.
李豊翼(2005), 이충구·이성민 역,『東遊帖』,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61, 465-466.
李薈(1402),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일본 龍谷大學 소장품 모사본
黃德吉(2000) 「刻名玉流洞石及萬瀑洞石」, 『下廬集』1, 民族文化推進

會(編), 『韓國文集叢刊』260,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273.
洪敬謨, 『冠巖紀年』2,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馬衡(2009) 『中國金石學概論』,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1-2.
毛遠明(2009) 『碑刻文獻學通論』, 北京: 中華書局, 38-39, 306.
林侑毅(2015) 『冠巖 洪敬謨의 淸代 文人과의 交遊와 燕行錄 硏究』,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4.
편자미상, 『萬家譜』9책, 豊山洪氏, 豊壤趙氏.
편자미상, 『萬家譜』7책, 安東權氏.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민족민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s://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한국어 문법단위 ‘구’와 ‘절’에 대하여

A Study of the Phrase and Clause in the Korean Language

全永根[1], 李善[2]
广东外语外贸大学

1. 들어가며

‘구’와 ‘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이상, 문장 이하의 단위로 인정되고 있으나,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이는 전통문법에서 ‘구’와 ‘절’에 대한 기왕의 분류가 단어와 문장을 기본으로 ‘단어 같은 것’과 ‘문장 같은 것’으로 보면서, ‘구’와 ‘절’을 단어와 문장 등 일차적인 단위를 통해 규정되는 이차적인 단위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단어나 문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조차도 아직 완전히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나 ‘절’과 같은 이차적인 단위에 대한 규정은 더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단어나 문장처럼 정의에 아직 여러 논의가 있더라도 이러한 논의를 거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본질에 접근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

1 Yong Gen Quan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Guangdong Universityof Foreign Studies)
2 Sun Lee (Lectur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 quanyonggen71@126.com

미에서 호칭, 단위의 한계, 그리고 서로의 상관성 등 '구'와 '절'에 산재해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변형문법을 비롯한 현대문법의 발전과 더불어 '구'와 '절'이 의미단위로서 응용가치가 점차 발현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언어와 기계언어의 유대에 있어서 그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구'와 '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주로 심층구조를 바탕으로 구분하는가, 아니면 표면구조를 바탕으로 구분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보기 1. ㄱ. 우리는 날씨가 좋기에 등산을 했다.

ㄴ. (사람은) 자유를 사랑함은 사람의 본질이다.

위의 보기 (1. ㄱ)에서 '날씨가 좋다'와 같이 표면구조에 주술관계를 다 갖추고 있는 내포문이 명사절로 됨은 누구도 이의(異議)가 없다. 그러나 (1. ㄴ)의 '자유를 사랑함'과 같이 완전한 주술관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심층구조를 바탕으로 '구'와 '절'을 구분하는 학자들은 심층구조에 '사람은'이라는 주어가 있다고 보기에 '자유를 사랑함'을 명사절로 보지만 표면구조를 바탕으로 구분하는 학자들은 '자유를 사랑함'에 주어가 없으므로 명사구로 본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표면구조에 주술관계를 다 갖추고 있다면 '구'와 '절'의 구분에 대하여 더 논의할 여지가 없지만 표면구조에 주술관계를 다 갖추고 있지 않는 문장에서는 '구'와 '절'의 경계와 상관성에 대하여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구'와 '절'에 대한 선행연구를 돌아보면서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찾아보고, 문법적 성격 특성 분석을 통해 두 문법단위를 구분하면서 두 문법단위의 경계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층구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최현배의『우리말본』(1982: 738-746)에서는 '월의 밑감(文의 素材)'을 그 구성에 따라 '낱말, 이은말(連語), 마디(節·句)'로 나누고 마디는 "끝나기만 하면 또는 따로 서기만 하면 월이 될 만한 짜임을 가진 말이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또는 따로 서지 아니하고, 다만 월의 한 조각이 됨에 그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이은말은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 겹친 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 곧 월은 물론이요 아직 마디도 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음의 보기를 들고 있다.

보기2. ㄱ. 강이 얼기를 기다려서 건너옵니다.(임자마디)
ㄴ. 토끼는 앞발이 짧다.(풀이마디)
ㄷ. 머리가 좋은 사람을 요구합니다.(매김마디)
ㄹ. 그 사람이 낯이 뜨뜻하게, 그런 소리를 잘해요.(어찌마디)
ㅁ. 꽃은 웃고, 새는 노래한다.(맞선마디)
ㅂ. 자유를 사랑함은 사람의 본질이다. (임자 이은말)
ㅅ. 그가 그 일을 잊어버렸다.(풀이 이은말)
ㅇ.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매김 이은말)
ㅈ. 그는 제 생각을 고집하여 굴하지 아니한다.(어찌 이은말)

여기서 '절'을 마디라 하고 '節, 句'와 같은 말로 보며, '구'는 이은말이라 하고 '連語'와 같은 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절'과 '구'를 대비시키는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과 구별된다. 아울러 상기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말본』에서 채용한 '이은말'(구)과 '마디'(절)의 구별은 실제로 발화된 표현 즉 표면에 나타난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면 구조를 기준으로 어떠한 필요성분의 유무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구', '절', '문장'의 구별이 명확하다. 즉 '구'는

주어 서술어의 짜임새를 갖추지 못한 단어들의 모임으로, '절'은 문장과 같이 주어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따로 서지 못하고 문장 안에서 특정한 자격으로 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문장은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따로선 것으로 보았다. 이같이 표면에 나타난 표현을 기준으로 하면 '구'와 '절'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관계되는 짝들의 상호 연관성을 무시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허웅(1983: 265-276)에서는 "주어(임자말)가 줄어 없어진 경우도 마디로 볼 수 있다"하면서 아래 보기3과 같은 보기를 들었다.

보기3. ㄱ. 가기(가) 싫다.(임자마디)
ㄴ. 밥을 너무 빨리 먹음은 건강에 해롭다.(임자마디)
ㄷ. 아름다운 꽃(매김마디)
ㄹ. 우물을 깊게 파라./우물을 [우물이 깊게] 파라.(어찌마디)

허웅은 이후에 펴낸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1999: 136)에서 '마디'란 "한 완전한 월에 약간의 손질을 더하거나 온월 그대로 큰 월의 한 조각으로 쓰이게 만들어진 언어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최현배에 이어 '마디'라는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나, 일정한 조건에서 줄어 생략된 성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디'(절)로 다루면서 문장의 심층구조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최현배의 '구'와 '절'의 정의와는 구분된다.

최현배와 허웅은 모두 '마디'를 정의하면서 '월'이라는 개념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것'이라는 내용을 대신하였다. 다만 허웅은 최현배와 달리 생략을 인정하면서 '풀이마디'나 '따옴마디' 혹은 온전한 월 그대로 쓰이는 절까지 '마디'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어문법에서의 절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다.

남기심·고영근의 『표준국어문법론』 (2014: 35, 239-240, 385)에서는 문장의 성분이 될 수 있는 말의 단위에는 '단어, 어절, 구(이은말), 절(마디)'이 있다고 하면서, '구'와 '절'에 대하여 각각 "둘 또는 그 이

상의 어절이 어울려서 큰 마디가 된 말”과 “주어 서술어를 다 갖춘 온전한 문장이 어느 한 품사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의 하위범주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를 구분하고 ‘절’의 하위범주로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을 들면서 아래 보기를 들고 있다.

보기4. ㄱ. 우리 집이 여기서 별로 멀지 않다.(명사구)
ㄴ. 무엇이 바빠서 그리 빨리 가느냐?(동사구)
ㄷ. 그 꽃송이가 무척 탐스럽다.(형용사구)
ㄹ. 그 집 앞에 아주 새 차가 한 대 서 있었다.(관형사구)
ㅁ. 오늘은 웬일인지 차가 무척 빨리 달리는 것 같았다.(부사구)
ㅂ. 그가 우리를 속였음이 분명하다.(명사절)
ㅅ. 농구선수들은 키가 대단히 크다.(서술절)
ㅇ. 나는 그가 떠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관형절)
ㅈ. 흰 눈이 소리도 없이 내려 쌓인다.(부사절)

『표준국어문법론』에서는 최현배와 허웅이 사용했던 ‘이은말’과 ‘마디’ 대신 ‘구’와 ‘절’을 용어로 사용했다. (4. ㄴ)의 ‘무엇이 바빠서 (너는) 그리 빨리 가느냐?’에서 ‘그리 빨리 가느냐?’는 주어 ‘너는’이 생략된 ‘주어 서술어를 다 갖춘 온전한 문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구’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허웅과는 달리 동 저서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를 ‘절’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상기 선행연구가 보여주듯 ‘구’와 ‘절’ 대신 학자들은 일찍이 ‘이은말’과 ‘마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만 ‘구’와 ‘절’이 오늘날 학교문법을 포함하여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구’와 ‘절’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단위로서 ‘구’와 ‘절’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 심층구조냐 표면구조냐의 문제, 즉 절에서 생략된 주어의 인정여부가 핵심문제이며,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 ‘구’의 범위도 영향을 받게 된

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절’과 ‘문장’의 구분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도 간략하게 검토해보도록 한다. 임홍빈·장소원(1995: 328)에서는 ‘절’을 ‘문’이나 ‘문장’과 같이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포문, 포유문, 보문, 접속문’ 등의 용어에 쓰인 ‘문’은 ‘절’이라는 용어 대신 편의상 쓰인 것이라고 했다. 이익섭·채완(1999: 379)에서는 더 큰 문장 속의 한 문장을 그대로 ‘문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흔히 절이라 부른다는 기술을 통해 문장과 절이 혼용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선웅·이은섭(2013)에서는 학교문법에서 절을 문장의 부분인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 실제 절과 문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절이 문장의 일부여야 한다는 조건을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법 단위 중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의 구성 단위로 정의하고 문장에는 절 하나로 이루어진 단문(홑문장)과 두 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복문(겹문장)이 있다고 하였다. 유현경(2015)은 상기 이선웅·이은섭의 절의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문장은 “문말 수행 억양을 가지는 것”이라는 조건을 더했다. 다시 말해서 주어와 서술어를 가진 절 중 문말 수행 억양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문장이 되고, 문말 수행 억양이 수반되지 않는 절은 문장의 유형이나 문장 종결에 관여하지 않는 단위라는 것이다. 결국 ‘절’과 문장의 구별에서 핵심은 ‘문말 수행 억양을 가지지 않는 것’과 ‘문말 수행 억양을 가지는’ 것으로 귀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절’은 홀로서기만 하면 문장이 되는, 다시 말해서 문말 수행 억양을 가지지 않으나 문장의 구성을 갖춘 문법단위이다.

앞서 보다시피 한국어 문법단위 중에서 문장과 절, 절과 구의 구별은 정의상 겹치는 부분으로 인하여 학자들의 인식이 다소 차이가 날수 밖에 없었다. 한 개 또는 다수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는 과정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규칙을 통사론 관점에서 본 문법의 주요 범주라면 그러한 규칙을 찾아내고 기술하는 것이 문법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구와 절의 본질은 한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문장에 앞서 먼저 이루게 되는 단위이다. 단어는 직접 단어와 결합하여 문장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선적으로 결합된 단어의 조합과 어울려서 문장 구성단위을 이룬다. 이러한 단어의 조합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정한 단위가 바로 '구'와 '절'인 것이다. 즉 '구'와 '절'은 모두 단어의 조합이며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라는 점에서 서로 일맥상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와 '절'을 이해하는데 있어 둘 사이의 한계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가 보여주듯이 '구'와 '절'의 단위적 한계기준 문제는 바로 표면에 나타난 표현중심의 단위설정 방식과 심층구조 인정 사이의 시각차이, 다시 말해서 줄어있는 것을 복원하여 문장의 구성으로 보는 것과 줄어 있는 표현 자체를 온전한 문장으로 보아 단위를 구분하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자들간의 의견차이이다.

서정수(2006: 174-175)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머리 속에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는 심리적 단계와 그것을 발화하는 생리적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의 심리적 단계에서는 대개 말하고자 하는 내용(뜻)이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상적 문장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흔히 기저구조 또는 심층 구조라 하고 실제 발화단계에서 드러나는 문장의 구조는 표면 구조라고 했다. 이런 표면 구조는 심층 구조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므로 그 의미는 심층 구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구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 심층 구조 단계에서 온전한 구조를 갖추었던 문장 성분들이 실제 발화에서 일부 생략된다든지, 놓이는 자리가 바뀐다든지 혹은 심층구조에서 제대로 갖추었던 주어나 서술어가 표면구조에서는 변형되거나 탈락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 모습은 본래 구조인 심층 구조를 바탕으로 분간하여야 정확할 것이다.

한국어는 최소주의 문법이론이 잘 통하는 언어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통상적으로 청자나 독자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는 주어를 생략한다. 즉, 홀로 있는 한 개의 단어로도 문장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이다. 표현중심의 단위설정 방식을 따라서 심층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법단위와 주어를 생략하는 문장구문법칙간의 모순도 간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특징에 맞추어 심층구조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구'와 '절'의 개념적 이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절'을 "주어와 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라고 설명하고,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 종류에 따라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따위로 구분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상의 사전적 설명을 기점으로 정체성 차원에서 문법단위인 '구'와 '절'의 개념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와 '절'은 단어가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문장에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단어와 단어의 일차적인 결합에 의해 때론 문장이 완성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우에 단어는 일차적으로 결합된 단어의 조합인 '구' 또는 '절'과 다시 결합하게 된다. 일차적인 결합에 의해 하나의 체언과 하나의 용언은 가장 단순한 기본구조(주어+ 술어)의 단문(홑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단어와 단어로 구성되는 기본구조의 문장을 포함하여 단어와 '구' 또는 '구'와 '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장은 단문이 되고, 문장으로 결합되는 과정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절'이 관여되면 복문(겹문장)이 된다. 한국어에서 단문의 구성은 도치와 같이 특별한 수사적 표현을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보기5.

S1: 명사 + 자동사 또는 형용사
주어 술어
=> 영화가 재미있다.

S2: 명사 + 동사구[명사 + 타동사]
주어 목적어 술어
=> 나는 밥을 먹는다.

S3: 명사구(관형사 + 명사) + 동사구[명사구(관형사 + 명사) + 동사구(부사 + 동사)]
주어 목적어 술어
=> 그 영화는 옛 이야기를 잘 표현했다.

S4: 명사구(관형사 + 명사) + 동사구{ 명사구(관형사 + 명사) + 동사구 [명사구(관형사 + 명사) + 동사구(부사 + 동사)]}
주어 부사어 목적어 술어
=> 그 사람은 순 우리말로 옛 노래를 잘 부른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이는 명사구와 술어로 쓰이는 동사구 이외에도 “매우 아름다운”과 같이 관형사로 쓰이는 ‘부사+ 관형사’ 구조의 관형사구와 “가장 빨리”와 같이 부사로 쓰이는 ‘부사+ 부사’ 구조의 부사구가 있을 수 있다. 이상 보기5의 일반적인 단문 구성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구절구조 규칙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기6. ㄱ. S→NP+ VP
ㄴ. VP→(NP1)(NP2)(Adv)V
ㄷ. NP→(Det)N
ㄹ. V→Vs+ T+ SE[3]

보기6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은 NP와 VP 즉 포괄적 의미의 명사 또는 명사구와 동사 또는 동사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동사구는 목적어가 되는 NP1과 부사어가 되는 NP2, 수식어 Adv 등 셋 중 하나 또는 둘과 술어가 되는 동사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명사구는 수식어 Det 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

3 T→시제, SE→종결어미

사의 수식어인 Det는 통상 “명사+ 속격조사”, 형용사, 그리고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등 관형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이들 중 형용사나 성상관형사[4]의 경우(특히 ‘-적’의 형태) 서술성을 가지는 속성 때문에 심층구조로 보면 복문에 해당하여 구로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사구는 “지시관형사+ 명사”, “수관형사+ 명사”와 “속격+ 명사”의 3가지 형태만 해당된다. 상기 구절구조 규칙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 밖에도 “무척 아름다운 밤이다”에서의 “무척 아름다운” 처럼 수식어끼리 먼저 결합하여 형용사구, 관형사구와 부사구를 이룬 다음 체언이나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구’의 하위 범주에는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 한국어의 구절구조 규칙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정리한 ‘구’의 정의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보기7. 구의 특징

ㄱ.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로 구성됨.

ㄴ. 한 쌍의 주술구조 속에서 해당 주술구조에 앞서 결합됨

ㄷ. 주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목적어, 술어 등 하나의 성분으로 기능을 함.

ㄹ. 하위범주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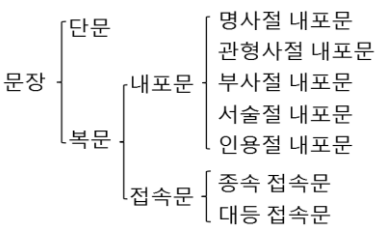
문장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단문과 복문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바, ‘절’ 단위에 대한 연구는 사실 복문 연구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이는 ‘절’이라는 단위 자체가 복문 속에 안겨 있는 문장의 구조를 가졌으나 채 끝나지 않은 성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절’은 복문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문장에 앞서 이루어지는 단위이고 복문을 쪼갤 때 생기는 가장 큰 단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절’을 제대로

4 예: 혁명적 동지가 나를 불렀다.
→a.동지가 혁명적이다.
→b.동지가 나를 불렀다.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의 복문 구조규칙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복문구조에는 구성으로 보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절'이 열거되면서 만들어지는 접속문과 '절'을 하나의 성분으로 안은 내포문 등 두 가지가 있다. 접속문은 또 앞뒤 접속절 사이에 종속관계나 대등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각 종속 접속문과 대등 접속문으로 나눌 수 있다. 내포문에서 '절'의 경우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사용되는 명사절, 술어로 사용되는 서술절,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 및 인용문 형태의 인용절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안은절 종류에 따라 내포문을 세분화하면 명사절 내포문, 관형사절 내포문, 부사절 내포문, 서술절 내포문, 인용절 내포문이 된다.

보기8. 복문의 종류



비록 본고에서 절의 하위범주로 접속문의 접속절과 내포문의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들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세분화된 분류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명사절과 관형절에 대한 학계 인식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으나, 이관규(200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절'의 연결관계에 있어서 종속절의 부사절 편입 문제, 인용절의 명사절 또는 부사절 인식 문제, 이중주어문의 복문 인정 즉 서술절 인정 문제 등에 대해서 학자들간에는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기8의 겹문장 분류에 따라 유형별로 아래 (9)와 같은 보기를 들 수 있다.

보기9.

ㄱ. 학생들이 끼리끼리 수군거리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웃음을 나누기도 했다. (대등접속문)

ㄴ. 진행자는 어리벙벙해져서 대꾸할 말을 잃고 두리번거렸다. (종속접속문)

ㄷ. 사람들이 빈틈없이 들어찬 실내에 갑자기 싸늘한 침묵이 끼쳤다. (관형절 내포문)

ㄹ. 송재형은 외삼촌의 일과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명사절 내포문)

ㅁ. 전유숙은 어깨가 떨리도록 눈물을 추슬렀다. (부사절 내포문)

ㅂ. 그 학생의 말은 엄숙함마저 풍기고 있었다. (서술절 내포문)

ㅅ. 할머니는 "허리 아파 죽겠네"하며 허리를 쿵쿵 두들겼다. (인용절 내포문)

한국어의 복문구조 체계는 실제로 이상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복잡하다. 이를테면 복문 자체가 크게 보아 접속문 형태로 '절'과 '절'이 나열된 형태일지라도 개개의 '절' 자체가 내포문의 구조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반대로 크게 보아 내포문 형태로 '절'이 성분으로 안긴 경우에도 안긴절 자체가 접속문의 구조형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복문을 구성함에 있어서 복수의 '절'의 결합방식에는 병렬구조와 내포구조 등 두 가지가 기본이 된다.

이상 한국어의 복문구조 규칙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정리한 '절'의 정의적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보기10. 절

ㄱ. 한 쌍의 주술구조와 그에 부대되는 목적어, 수식어 등 성분을 포함한 구조 또는 독립어로 구성됨.

ㄴ.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여 주술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인정함.

ㄷ. 독립하여 문말수행 억양이 더해질 경우 문장이 될 수 있음.

ㄹ. 복문 구성의 단위임.

ㅂ. 내포문을 구성한 경우 안은절에서 주어, 관형어, 부사어, 목적어, 술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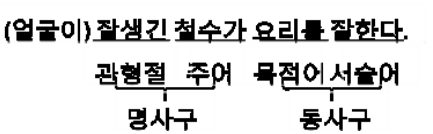
하나의 성분으로 기능을 함.

ㅅ. 하위 범주로 접속절,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음.

4. ‘구’와 ‘절’의 차이와 연관성

종래의 문장, 절, 구의 연관관계는 ‘문장≥절≥구’의 포함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구’와 ‘절’의 개념적 논의에서 보다시피, ‘구’는 결국 단문의 구성을 연구하는 단위이며 ‘절’은 복문의 구성을 연구하는 단위이다. 접속문에서 접속절이 대등 또는 종속 관계로 이어진 경우 ‘절≥구’라는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내포문의 주절에서 관형절이 주어 혹은 목적어를 수식할 때, 부사절이 서술어를 수식할 때는 각기 명사구와 동사구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문장의 재료적인 단위로서 ‘절≥구’라는 포함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

보기11.



보기11에서 “잘생긴”은 “얼굴이 잘생기다” 또는 “외모가 잘생기다”라는 주술관계에서 ‘잘생기다’라는 술어에 앞서 당연히 연상되는 ‘얼굴이’ 또는 ‘외모가’라는 주어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형절이라고 볼 수 있다.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형절은 안은절의 주어와 결합하여 우선 명사구를 이루고 다시 동사구인 ‘요리를 잘한다’와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내포문에서는 때로 ‘구>절’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일반적인’문장≥절≥구’의 포함관계가 꼭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내포문에서 안긴절을 포함한 전체 안은절을 하

나의 문장구성으로 보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내포문의 문장구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학계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안은절의 주술관계가 근간이 된다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즉 '얼굴이 잘생기다'와 '철수가 요리를 잘한다'를 각각 관형절과 안은절로 본다면, 문장의 근간은 안은절의 주술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간이 되는 안은절의 주어와 술어를 문장의 주어와 술어로 보고 문장구성을 상기 예시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구'와 '절'의 개념을 돌아보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와 '절'은 모두 여러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위이며, 구성상에서 '구'는 주술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 '절'은 주술구조를 갖춘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절' 속에 '구'가 포함될 수 있으나 내포문의 경우 이러한 포함관계가 꼭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는 단문의 구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정된 단위이며 '절'은 복문 구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정된 단위라는 점이다.

5. 나오며

'구'와 '절'의 범위 변화는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인정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생략의 문제는 '절'이나 '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문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일차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주어의 생략이 빈번한 한국어에서는 흔히 "불이야!", "가자!" 처럼 홀로 있는 한 개의 단어로도 문장을 이룰 수 있다. 표면상으로 주어나 술어의 완전한 짜임새를 이루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 이들이 문장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생략되었다고 보이는 언어표현에 '절'의 자격을 주는가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유목상(1969: 42)에서는 언어에 의한 사고의 외적표현의 법칙이 문법인 까닭에 우리는 발현된 언어 현상에서 문법규칙을 찾아야 할 것이

지 사고 그 자체를 표현이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굳이 문법단위의 설정 문제에서 심층구조를 단위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언어연구의 목표가 단순히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의 기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언어표현을 하게 된 사고의 출발점까지 파고들어 구체적으로 실현된 발화의 근거를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은 틀림없다. 하물며 한국어의 구문특징으로 보아 심층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법단위와 주어를 생략하는 문장구문법칙간의 모순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심층구조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구'와 '절'에 대한 선행연구를 되돌아보면서 '구'와 '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구'는 단문의 구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정된 단위로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이 한 쌍의 주술구조 속에서 해당 주술구조에 앞서 결합되어 하나의 문장성분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하위 범주로는 명사구, 동사구, 관형사구, 부사구를 들 수 있다. '절'은 한 쌍의 주술구조와 그에 부대되는 목적어, 수식어 등 성분을 포함하여 따로 서기만 하면 문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복문구성의 단위로서 내포문에서는 하나의 성분으로, 접속문에서는 각각의 마디로 기능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위 범주로 내포문의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과 접속문을 구성하는 접속절을 들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구와 절의 구분은 단문과 복문의 경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나 본고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단문과 복문에 대한 내용을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복문 중 내포문 구조에서는 종전에 인식되어 왔던 '절≥구'라는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내포문의 안은절을 어떻게 보느냐는 견해가 전제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권재일(2014) 『한국어문법론』, 태학사.

김기혁(1985) 「문장 구성에서 단위의 문제」, 『연세어문학』 1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32.

김기혁(1998) 「국어 문법의 단위」, 『논문집』 9, 상지대학교, 157-180.

김선혜(2014) 「한국어 내포문 체계에 대한 재고」,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131-156.

남기심·고영근(2014) 『표준 국어문법론』, 박이정.

문순표(1994) 「내포완형절의 해석적 사용」, 『어학연구』 4, 전주대학교 어학연구소: 75-96.

서정수(2006) 『국어문법』,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서정욱(2001) 「『표준 국어문법론』의 "구(句)/절(節)" 개념과 중고등학교 국어교재」, 『한국어문연구』 13, 한국어문연구학회, 1-20.

송정근(2011) 「학교문법의 부사절 설정과 관련된 몇 문제」, 『인문과학연구』 29, 강원대학교, 37-57.

최현배(1982) 『우리말본, 아홉번째 고침 펴냄』, 정음사.

유목상(1969) 「국어의 문장구성에 대한 고찰」, 『중앙대 논문집』 14.

유현경(2015) 「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서 절의 문제」, 『어문총론』 63, 한국문학언어학회, 63-87.

이관규(2002)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와 전망」,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105-147.

이선웅(2015) 「통사 단위 '절'에 대하여」,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77-104.

이선웅·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49-277.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임홍빈·장소원(1995) 『국국어문법론 Ⅰ』,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주세형(2004) 「학교 문법 다시 쓰기」, 『국어교육학연구』 20, 한국어교육학회, 461-498.
최규수(2007) 「학교 문법의 문장의 성분과 짜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글』 275, 한글학회, 165-192.
최낙복(2002) 「김규식 문법의 "문장법" 연구」, 『국어국문학』 21,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33.
최호철(1995) 「국어의 문법 단위와 문법 교육」,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637-657.
허웅(1983) 『국어학:우리말의 어제·오늘』, 샘문화사.
허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황병순(2004) 「한정 명사절과 비한정 명사절」,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5-25.

1910년~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이주

Japanese Colonial Policies and Korean Migration to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n the 1910s and the 1920s

정웅철[1]
조선사회과학원

1905년 '을사5조약'과 1907년 '정미7조약'의 날조로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1910년 8월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인민은 일제의 '총독'정치하에서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빈궁, 인간이하의 학대와 멸시, 식민지노예의 처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1910~1920년대에 있었던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이주는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정책과 그로 인한 전대미문의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만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강요당한 조선에서는 1910~1920년대에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조선사람들의 이주가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영향속에서 더욱더 급증하였다.

1 Ung Chol J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이 시기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조선사람들의 대량이주는 이전시기 경제적리해관계에 따라 이주하던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산생된것이였다.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 이주는 무엇보다도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정치적폭압에 원인이 있었다.

우선 1910년대('무단통치시기') 중국동북지방의 조선인 인구통계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재만조선인구	매년증가
1910년	20만2207명	
1911년	20만5517명	3477명
1912년	23만8403명	3만2886명
1913년	25만2517명	1만4114명
1914년	27만1388명	1만8871명
1915년	28만3115명	1만727명
1916년	32만8288명	4만6143명
1917년	33만7461명	9173명
1918년	36만1772명	2만4311명
1919년	43만1198명	6만9426명
1920년	45만9427명	2만8229명

출처 : 료녕민족출판사(2002), 40-47.

통계표에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10년 '한일합병'후 2년째인 1912년과 1919년 일제가 3.1인민봉기를 가혹하게 탄압말살한 후의 이주증가률이 매우 높은것을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1910년대 일제의 '한일합병'과 3.1인민봉기탄압을 비롯한 무단통치의 정치적폭압이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 이주가 급증의 결과를 산생시킨 기본원인이였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군대, 헌병, 경찰, 감옥과 같은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우리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조선을 자기들의 식량과 원료공급지로,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김일성전집 제2권 205페지)’.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한데 뒤이어 9월 30일에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발포하고 10월 1일 이른바 ‘총독정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즉시 ‘조선총독’에게 행정, 립법, 사법, 군사통수 등 무제한한 권력을 주었다.

1910년대 일제의 ‘총독통치’를 일명 ‘무단통치’라고 불렀는데 그 리유는 일제가 가장 포악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기때문이였다.

일본 ‘천황’은 칙령34호로 ‘조선주둔군 헌병조례’를 반포하여 조선에 주둔한 일제헌병들에게 군사권, 경찰권, ‘사회치안유지’ 행정권을 주었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면서 조선의 도시로부터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헌병경찰을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강점직후 일제는 162개소의 헌병경찰기관과 1만 6,291명의 헌병경찰들을 파견하였다(현대사자료 25권 조선편1: 9-10).

헌병경찰기구외에 일제는 1911년 10월 4일 ‘각 헌병대장을 지부장으로 하는 재향군인회지부를 설치하고 작부, 군을 지역으로 하는 분회를 설치할데’ 대한 이른바 ‘관통첩’ 285호를 발포하고 이른바 ‘재향군인회’를 조작하였으며 헌병, 경찰의 보조기관으로서 ‘소방대’를 조직하였다.

이것도 모자라서 일제는 ‘일본거류민단’이라는것을 조작하고 흉기를 쥐여주었으며 지어 문관에게까지 칼을 채우는 ‘문관대검제도’를 실시하여 행정, 사법관뿐 아니라 소학교 교원에게까지 군복과 같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채워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내몰았다.

일제는 1910년대에 '범죄즉결령'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탄압말살하였다.

1910년 12월 15일에는 '총독부'제령 10호로 '범죄즉결령'이란것을 반포하고 헌병분대장이나 경찰서장이 일정한 법적수속이나 제한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 49).

'범죄즉결령'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실시되였는가 하는것은 그의 구체적인 시행세칙으로 되는 식민지악법의 다른 하나인 이른바 '경찰범처벌규칙'(1912년 4월 1일부터 실시)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87개조항으로 된 '경찰범처벌규칙'에 의하면 집과 일자리를 잃고 살길을찾아 떠돌아 다니는 자(2조), 빌어먹는사람과 빌어먹도록 시킨자(7조), 집단적으로 청원서와 진정서를 내는 사람(20조), 밤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49조), 지어 개싸움 또는 닭싸움을 시키는 사람(53조)들에 대하여 재판수속없이 경찰이 직접 형벌을 가할수 있다는것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사람들을 제멋대로 체포, 처형할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11년부터 1918년사이에 '범죄즉결령'건수는 1만 2,099건으로부터 7만 1,279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탄압받은 인원수는 2만 1,388명으로부터 9만 4640명으로 늘어났다(조선전사 1980: 18-19).

일제는 이밖에도 1910년 9월에 '지문법', 1912년 3월에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1912년 8월에 '총포화약취체령', 1912년 3월에 '조선태형령'을 비롯한 각종악법들을 련이어 공포실시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각종악법들에 의한 야수적인 폭압하에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조선에서 '범죄'로 감금된자는 1907년에 400명이였는데 1912년에는 5만 2,000명, 1918년에는 14만 2,000명(조선인강제련행기록 1965: 268;조선전자 1980: 18)으로서 1912년에는 1907년보다

130배로, 1918년은 1907년보다 355배로 격증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정치적폭압과 각종 악법들에 의한 야수적인 탄압만행으로 하여 조선인민들의 반일감정은 더욱더 격화되였으며 이것은 1919년 3월1일 전인민적인 반일인민봉기로 폭발하였다.

일제는 3.1인민봉기를 비롯한 나라의 독립을 요구한 조선인민의 평화적시위투쟁에도 무차별적인 살륙을 감행하였다.

3.1인민봉기시기 일제의 잔인한 폭압에 대하여 일본의 한 학자는 "헌병주재소는 그시기 조선의 전지역에 98개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례외없이 발포하여 조선인민을 살해하였다. 그밖에 헌병파출소라는것이 877개소, 헌병통감소(후에 파출소로 개칭)가 43개소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시위운동에 대하여 거의 례외없이 발포하고있었다. 포화에 쓰러진 조선인들은 적어도 10만명은 될것이다. (일본통치하의 조선: 96)"고 밝혔다.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3.1인민봉기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식민지통치로부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종래의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야만적인 무단통치로부터 이른바 '문화통치'에로 이행하였다.
또한 1920년대('문화통치'시기) 중국동북지방의 조선인 인구통계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재만조선인구	매년증가
1921	48만 8656명	2만 9229명
1922	51만 5865명	2만 7209명
1923	52만 8027명	1만 2162명
1924	53만 1857명	3830명
1925	53만1947명	90명
1926	54만 2185명	1만 238명
1927	55만 8280명	1만 6095명
1928	57만 7052명	1만 8772명
1929	59만 7677명	2만 625명
1930	60만 7119명	9442명

1920년대에 무단통치로부터 이른바 '문화통치'에로 넘어갔지만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폭압통치체제에서는 본질상 다름이 없었다.

'문화통치'에로 이행한 일제는 정치적폭압기구를 더욱 개악하여 통치체제를 개편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기 위한 '조선총독부관제개혁'에서 조선총독의임명범위와 그 권한을 일부 변경시켰다.

여기서 일제는 종래에는 조선총독으로 륙해군대장급의 현역무관으로만 임명되였던것을 문관도 임명할수 있다는것을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통치'시기 일제는 '총독'을 한번도 문관으로 임명한적이 없었으며 사이또 마꼬도를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예비역으로부터 현역으로 복대시키고 사복을 입혀 조선에 들여보냈다.

또한 '관제개혁'을 통하여 일제는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었지만 조선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통치체제를 보다 정비보강하였을뿐이였다.

사실 헌병경찰제도시기보다 이시기 보통경찰제도시기 폭압력량은 더욱 확장되였다. 1918년에 경찰기관들을 751개 가지고있었다면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한 1920년대에는 그것이 일약 2,761개로, 1921년에는 다시 2,960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은 불과 2~3년사이에 폭압기구를 약 4배로 확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통계년보 1930: 334).

경찰수도 1918년에 5402명이였다면 1920년에는 1만 8376명, 1921년에는2만 75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20년대부터 시작된 조선공산주의 운동을 탄압말살할 목적으로 이미 일본에서 실시해오던것을 더욱 개악한 '특별고등경찰(특고경찰)제도'를 조작하고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는 경찰부, 경찰서들에 보통경찰들과는 별개의 체계를 가지고 조직되였다. '특고경찰'의 임무에 대하여 일제는 '반일사상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태도로써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에 대하여 반항기분을 가진다든가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하는자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요감시 대상자명부'를 만들어 놓고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을 탄압말살할 체계를 세우고있었다.

'문화통치'시기에 들어와서 일제의 폭압법은 한층 더 가혹하였다.

일제는 1919년 4월에 공포한 법규 '정치에 관한 범죄처결의 건'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 1928년에는 '신치안유지법'이라는 중세기적악법들을 조작하였다.

전문 7개조로 된 '치안유지법' 1조에는 일본의 '국체를 변형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자 또는 결사의 역원, 지도자가 된자를 사형, 무기직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일제는 이 '치안유지법'에 걸어 조선의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다.

일제 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4년부터 1929년까지의 5년동안에 검거건수는 87만 5522건, 검거된 조선사람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조선총독부 경무국 1928;1930).

1926년 6.10만세 시위투쟁, 전라남도 광주학생들의 봉기때에도 일제는 수많은 군경들을 내몰아 조선인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정치적폭압제도의 수립과 그것을 수단으로한 무차별적인 체포, 투옥, 학살로하여 수많은 정치단체들이 파괴되고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애국자들이 조국에 있지못하고 해외에로 망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895년부터 전개되여 오던 반일의병투쟁도 일제의 폭압으로 국내에서 투쟁을 계속 전개할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독립운동자들은 일제의 침략세력이 아직 깊숙히 뻗치지 못한 중국동북지방과 로씨야의 연해주지방으로 망명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처럼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인 정치적폭압과 탄압책동은 중국동북에로의 조선인 이주를 산생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조선인 이주는 다음으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파렴치한 식미지적경제략탈만행에 중요원인이 있다.

이 시기 동북지방 이주의 지역별상황을 보면 의연히 북부지역(평안도, 함경도)사람들의 이주가 큰 자리를 차지하지만 황해도, 강원도 및 그 이남지구의 조선인들의 이주도 현저히 증가된것을 찾아볼수 있다.

1912년~1926년사이 중국에 이주한 조선인가운데 북부조선(함경도, 평안도)인이 70.92%, 중부조선(황해도, 강원도, 경기도)인이 11.6%, 남부조선(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인이 17.48%를 차지하였다.

1926년 11월~ 1927년 3월사이 중국에 이주한 조선사람은 1만 1751명인데그중 북부조선인은 23%, 중부조선인은 57.51%, 남부조선인은 19.46%였다.

1928년에 이주해온 조선인은 1만 4 725명인데 그중 북부조선인은 38.21%, 중부조선인은 38.35%, 남부조선인은 23.44%였다.
1928년의 우리 나라 지역별 이주민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별	도별	호수	인구수
북부조선 이주민상황	함경북도	812	4052
	함경남도	47	328
	평안북도	67	328
	평안남도	100	437
	합계	1026	5245
중부조선 이주민상황	강원도	488	2453
	황해도	268	1405
	경기도	268	1405
	합계	1024	5263
남부조선 이주민상황	충청북도	137	701
	충청남도	82	448
	경상북도	146	835
	경상남도	91	432
	전라북도	57	296
	전라남도	115	595
	합계	528	3217

출처 : '중국조선민족발자취' 2 '불씨' 민족출판사(1995), 87-89.

우에서 제시한 통계표를 보면 1910년대후 조선중부와 남부지구의 조선이주민수의 증가는 이지구 농민들이 대를 이어 붙여오던 토지를 일제에게 수탈당하고 생활이 령락되여 살길을 찾아 동북으로 이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1910년대 일제가 감행한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비롯한 경제적략탈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파산되여 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이주의 중요한 원인이였다.

일제는 토지에 대한 대량적인 략탈, 조선산업에 대한 독점적지배권확립, 식민지화폐금융체계의 정비강화, 식민지운수체신체계의 정비강화 등 조선인민의 피와 땀을 깡그리 강탈할 식민지적인 수탈체계의 수립과 그 실현을 위하여 책동하였다.

그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략탈은 일제가 조선의 경제략탈을 위해 가장 발악적으로 감행한 침해행위였다.

우선 일제는 1910년 3월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하여 1918년 10월까지 약 8년 8개월간에 걸쳐 토지략탈을 감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총독부'기구로서 '림시토지조사국'을 내오고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법시행규칙'(이상 1910년 9월 공포), '토지조사사업'(1912년8월 공포) 등 악법을 조작하였으며 수많은 전문 조사성원들뿐 아니라군대, 경찰, 헌병들까지 동원하여 조선의 들판과 마을을 싸다니면서 토지수탈에 광분하였다.

또한 봉건국가 또는 황실이 소유하고있던 경작지, 산림지대, 황무지들을 모두 일제의 '국유지', '국유미개간지'로 강탈하였으며 동시에 새로 더 많은 토지를 략탈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조선농민들이 소유하고있던 논밭과 이미 개간한 땅을 대량적으로 수탈하고 그 일부를 일본인들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일제는 본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에서 토지제도, 지세제도, 지도제도를 완전히 수립하며 토지에 대한 통제의 기초를 건설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조선총독부 림시토지조

사국: 1)"고 떠벌였다.

일제가 떠든 토지제도란 토지의 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법적확인제도이며 지세제도란 토지에 대한 세금제도이며 지도제도란 모든 토지의 위치, 넓이, 형태 등을 도면으로 그려 지도적으로 제작하고 보관리용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 진짜 목적은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하여 조선전체의 토지에 대한 일제의 지배를 강화하며 일제가 조선에서 봉건지주들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토지의 상품화를 다그침으로서 토지의 대량적략탈의 길을 열어놓으며 당시 가장 큰 제정수입원천이였던 지세를 늘이며 토지에 얽매인 소직농민에 대한 봉건적착취제도를 법적으로 공고화함으로써 일제의 자본투자의 유리성와 안전성을 보장하자는데 있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명목으로 조선인민이 소유하고있던 대량의 경작지가 략탈당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령'에서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안에 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자의 소재, 지목(땅의 이름), 문표, 등급, 지적결수를 림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할것이다.'(4조)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복잡한 신고내용과 양식, 절차 등을 규정해놓고 그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없다는것을 선포한것이였다.
당시 대다수의 조선농민들은 이러한 신고제도가 설정된것을 알지못하거나 또 아는 경우에도 그 수속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그에 응할수 없었다. 혹시 응하는 경우에도 일제는 기만적방법으로 그 신고를 무효화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들의 소유처럼 신고하거나 지주의 수중에 들어갈수 있도록 꾸며서 많은 토지를 략탈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걸린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조선총독부', '동척'을 비롯한 일제의 수중에 토지들이 집중되였으며 일본인 지주들은 이과정에 조선에서 최대의 지주로 되였다.

일본인 개인토지소유는 1909년 말에 5만 2,436정보, 소유자 692명이였는데 1915년에는 소유면적 20만 5,538정보, 소유자 6,968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1915년까지의 5년사이에 일본인 지주가 그 수에 있어서 10배, 토지소유면적은 대략 4배로 늘어났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외에 각종 고리대착취, 세금부담은 조선농민들을 파산령락시키고 결과적으로 토지에서의 리탈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농민들의 토지가 대량 상실되고 소작농 또는 고농으로굴러떨어지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18~1920년사이에만도 지주는 대략 9,400호가 늘어나고 자작겸 소작농수는 2만 6,000호이상 감소하였으며 그대신 소작농은 7만 9,067호가 늘어났다(사회과학출판사 1976: 23).

조선농민의 토지에서의 리탈은 수많은 류랑민을 낳게 하였고 생존을 위해타지방으로 떠돌이생활을 하게 만든 근원중의 하나였다.

또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농산물략탈은 조선농민들에게 가해진 또하나의 커다란 타격이였다.

1919년에 조작되고 1920년부터 1931년까지 조선농촌의 '진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감행된 '산미증식계획'의 강행은 그 대표적실례였다. 결론적으로 볼때 '산미증식계획'의 목적은 일제가 조선에서 쌀략탈을 강화하여 난관에 빠진 저들의 식량문제해결과 그를 통한 일본에서의 정치경제적위기의 수습에 있었다.

'산미증식계획'의 시도는 그 기초가 일본의 과잉인구처리와 모자라는 식량략탈에 근본목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식량생산과 식량수요간의 불균형으로 하여 1918년 8월 일본내에서 '쌀소동'이라는 반정부폭동이 일어나는데 이르렀다. 이 폭동은 단순히 식량위기라는 경제적모순만을 반영한것이 아니라 로자간의 계급적모순의 격화를 반영하고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의 수습책을 일제는 조선에서의 대량적인 식량략탈계획인 '산미증식계획'의 실행으로 해결하려하였다.

또한 이 '계획'을 구실로 이민을 들여보내여 식민지토지의 지반을 더욱 강화하며 일본본토에서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과잉인구로 말미암아 격하되는 사회적위기를 수습해보려고 하였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 제1기로 규정한 15년간만 하여도 '경지확장'을 위하여 100만명, '농사개량'을 위하여 300만명 합계 400만명의 일본인들을 조선에 이주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실제적으로 조선농촌의 일본인 이민수는 1923년에는 3만 8850명, 1928년에는 4만 432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모두 '동척'토지 또는 '국유지'를 넘겨받아 지주 또는 부농경리로서 농촌을 지배하였다.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1년경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수는 51만 4666명으로서 그중 10만명은 관공서관계자 및 일본에 본점을 둔 은행회사관계자였고 실지 이주자는 40만명이였다. '이또 히로부미(<통감>)시기에 이미 8만명, 대정 12년(1923년)에는 40만의 소리를 들었고 매해 1만명의 인구증가률을 표시'하고있었다(조선공론사 1933: 25-26).

조선농촌에로 일본인들의 대량이주는 현지 조선농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아내고 쟁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조선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류랑하거나 이주를 산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였다.

식량략탈도 조선농민들의 생존토대를 빼앗는 중요한 요인이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과 같은 각종 식량략탈조건들을 꾸며내고 그것을 구실로 막대한 량의 알곡을 략탈하였다.
1912~1931년사이의 조선쌀의 생산량과 일본에로의 략탈량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조선쌀의 생산 일본에로의 략탈		일본에로의 략탈	
	수량(만석)	장성률(%)	수량(만석)	장성률(%)
1912~1915년	1203.3	100	105.6	100
1917~1921년	1410.1	115	209.6	208
1922~1926년	1450.1	118	434.2	411
1927~1931년	1579.8	128	660.7	626

출처 : '조선의 경제' (일문), 136.

통계표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1910년대 상반기에 비하여 조선쌀의 일본에로의 략탈량은 1920년말에는 무려 6배로 훨씬 늘어났다. 즉 조선쌀의 생산량은 겨우 28%밖에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그 략탈량은 626%늘어났던것이다.

조선쌀의 대량수출은 조선국내의 량곡위기를 초래하였다.

쌀을 수탈당한 조선농민들은 할수없이 동북에서 수입한 좁쌀이나 잡곡을 사서 먹지않으면 안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더 빈궁해졌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강요와 그로 인하여 산생된 대량적인 토지략탈과 일본인의 대량이주, 알곡략탈은 조선농민들을 토지에서 류리시켰고 기아와 빈궁의 나락에 몰아넣은 결정적원인의 하나로 되였다.

우에서 본바와같이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는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그 어떤 정치적자유와 안착된 경제적생활을 누릴수 없게 하였을뿐 아니라 사소한 민족적요소도 존재하지 못하게 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였다.

이것은 사실상 전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령토와 민족문화를 보존할수 없게하였을뿐 아니라 해외이민이라는 비극적결과물을 만들어낸 근본원인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은 해외이민을 산생시킨 기본문제로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일제의 출판물들에도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이주의 근본원인에 대하여 우의 론거를 부인하지 못하였다.

일부자료들에 의하면 동북조선인이주에 대하여 “조선인의 만주이주는 물가등귀에 의한 생활난에 기인하는것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일부의 원인을 표시한데 지나지 않는다.(재만선인론책 1930: 3)”, “… 이것을 개괄적으로 서술해보면 정치상의 불만과 경제상의 리익을 주로 한다.(재만선인론책 1930: 4)”고 실토하고있다.

이것은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이주가 철두철미 일제식민지통치의 결과물로서 조선인민에 대한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만행의 필연적결과물 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일제는 과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고 해외이주민이라는 민족적비극까지 산생시켰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죄악을 청산하지않고있는 일제의 죄악을 끝까지 밝가낼것이며 지난날 일제가 우리인민앞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반드시 청산하고야 말것이다.

【참고문헌】

『일본통치하의 조선』(일문), 이와나미서점, 96.
일제의 조선경제침략사2(1976), 사회과학출판사, 23.
조선공론사(1933) 『재만조선인민의 견실성』(일문), 25-26.
『조선인강제련행기록』(일문)(1965), 미래사, 268.
『조선의 경제』(일문), 136.
『조선전사』15권(198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8-19.
『중국조선민족발자취』2(1995),《불씨》, 민족출판사, 87-89.
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일문), 49.
조선총독부 림시토지조사국, 『토지조사사업보고서』(일문), 1.
조선총독부경무국(1928) 『조선경찰사개요』
조선총독부경무국(1930) 『조선경찰사개요』
『중국조선족사회와 문화의 재조명』(2002), 료녕민족출판사, 40-47.
『재만선인론책』(일문)(1930. 1), 3, 4.
『통계년보』(1930), 334.
『현대사자료』(일문) 25권, 조선편1, 9-10.

파스파 문자의 喩母와 훈민정음의 欲母
-왜 한글에서는 모음자에 /ㅇ/를 붙여 쓰는가?

Medial Sounds of Hunmin-jeongeum and Yokmo (欲母):
–Why is the Null Sound Letter /ㅇ/ Attached to a Vowel Letter in Hangul?

정광[1]
고려대학교

1. 들어가기

1.0. 훈민정음에서는 中聲, 즉 모음자로 11자를 제정하였다. 이로부터 모음을 독립한 음운으로 인식하고 문자를 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 대단한 음운론적 지식을 갖고 글자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학계에서는 평가한다. 그러나 중성, 즉 모음자를 단독으로 쓸 때에는 반드시 /ㅇ/를 붙여서 /ᄋᆞ, 으, 이/와 같이 쓰게 하였다. 그렇다면 왜 중성에는 /ㅇ/를 붙여 써야 하는가? 이러한 한글의 모음을 표기하는 방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졌을 이러한 의문에 우리 학계

1 Kwang Chung (Prof. Emeritus, Korea University)
E-mail : Kchung9@hanmail.net

는 어떤 해답도 찾지 못했다. 최근에 훈민정음의 중성에 대하여 Daniels(1990)에서 말한 음소문자와 음절문자의 중간에 있는 Abjad와 Abugida가 있고 후자는 모음자를 구별해서 쓰지만 전자는 모음자를 자음자에 포함시키는 문자이며 훈민정음은 후자에 속하는 우수한 문자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김주원 2016).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고찰하여 온 훈민정음의 중성에 대한 제정자의 의식을 고찰하고 왜 /ㅇ/를 붙여 쓰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모음자에 /ㅇ/를 붙여 쓰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음자에 /ㅇ/를 붙여 쓰는 것을 괴로워하였다. 그리하여 한 때 한글 풀어쓰기에서는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 즉, 1908년 12월에 대한제국의 국문연구소가 제출한 「국문연구안」에 풀어쓰기를 제안하였고 후대에 周時經선생이 이에 동조하였다. 주시경 선생이 붓으로 쓴 『말의 소리』(1914년 4월 13일) 말미에 '우리글의 가로 쓰는 익힘'이라고 하여 풀어쓰기의 보기를 보였다.

그리하여 주시경 선생의 뜻을 계승한 조선어학회에서는 1936년 11월 28일에 열린 학회 임시총회에서 '가로글씨안'에 풀어쓰기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 후에 주시경 선생의 뜻을 받드는 제자들로서 북한의 김두봉과 남한의 최현배 선생은 한글풀어쓰기를 제안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였다. 남한에서는 최현배를 회장으로 하는 한글가로글씨연구회가 결성되어 풀어쓰기를 독려하였고 1954년 4월에는 한글간이화 방안으로 한글의 풀어쓰기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글 풀어쓰기에서는 모두 모음자를 단독으로 쓸 때에 /ㅇ/를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한힌샘 선생, 즉 주시경이 가르친 '배달말 글모듬 서울온모듬'에서 발급한 수료증은 다음의 [사진 1]과 같이 모두 풀어쓰기로 표기하였다. 수료증 대신 'ㅁㅏㅈㅎㅣㄴㅂㅗㄹㅏㅁ'(맞힌 보람)으로 되었고 수료자의 이름도 尹福榮이지만 'ㅠㄴㅂㅗㄱㅕㅇ'(ㅠ보경)이어서 어디에도 /ㅇ/은 쓰이지 않았고 받침에 쓰이는 이응도 옛 이

응 /ㅇ/을 썼다. 그러나 풀어쓰기에서는 윤보경과 윤복영의 구별이 안 된다.

이러한 풀어쓰기는 훈민정음의 기본정신인 음절단위의 문자표기와 어긋나고 또한 한자음 표기에 부적절하여 言衆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1954년 문교부의 새 한글을 간소화하는 방안에서 모아쓰기를 택하였다. 북한에서도 남한과 다른 문자체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역시 모아쓰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남북한이 모두 당시 유행하던 타자기에 맞는 한글 자모를 의식하고 그에 맞추어 풀어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사진 1] 윤복영씨의 맞힌 보람[2]

1.2. 이것은 모음자에 왜 /ㅇ/를 붙여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한글의 자모를 영어의 알파벳으로 이해하려는 초창기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저질은 잘못이기도 하

2 이 증서의 사본은 연세대 윤형섭 명예교수로부터 20여 년 전에 받은 것이다. 윤교수의 허가를 얻어 여기에 공개한다. 윤형섭 교수의 교시에 의하면 이 수료증은 그의 先親이신 尹福榮선생께서 1913년 조선어 강습원 고등과 제1기로 수료하실 때에 받으신 것으로 원본은 연세대 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증서를 발급한 한글배곧(조선어 강습원)에는 제1기에 김두봉, 최현배, 현상윤, 이병기, 권덕규, 윤복영, 염상섭, 신성모 등 당대 청년 엘리트들이 다녔고 이 수료증의 주인공인 윤복영 선생은 최현배선생과 더불어 제1기에서 장원을 다투었다고 한다. 한글배곧, 즉 조선어 강습원은 원장인 남형우(솔벗메)가 어런, 교사인 주시경(한힌샘)은 스승으로 표시되었다.

다. 훈민정음의 세 종류의 해설서, 즉 <해례본>, <실록본>, <언해본>에서 왜 /ㅇ/를 붙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따라서 연구자들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모음자에 /ㅇ/를 붙이는 문제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즉, 이 문제는 한글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음의 표기인 中聲字의 단독 표기에서 훈민정음의 欲母로 볼 수밖에 없는 /ㅇ/를 붙여 쓰는 데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졌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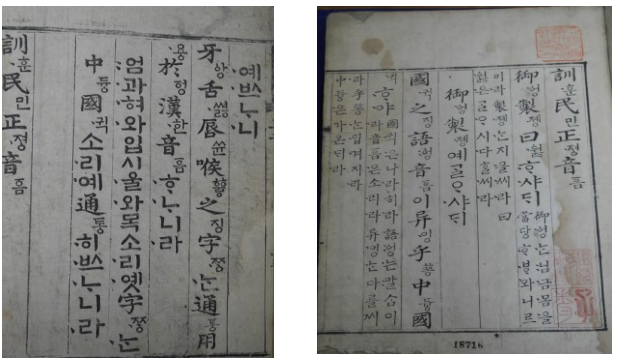
2. 훈민정음 <해례본>의 中聲

2.0. 훈민정음의 제정과 그 정서법에 대하여는 세 가지 <훈민정음>이란 문헌에서 설명되었다. 우선은 세종 28년 9월 上澣에 간행된 {해례본}『훈민정음』(이하 <해례본>으로 약칭)을 들 수 있다.[3] 이 <해례본>은 세종의 御製序文과 例義, 解例, 그리고 정인지의 後序까지 포함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훈민정음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는 『세종실록』(권113) 세종 28년 9월조에 "是月訓民正音成 -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로 시작하는 기사에 이어서 <해례본>의 '解例'만 빼고 御製序文과 例義, 鄭麟趾 後序를 모두 실은 {한문본}, 또는 {실록본}<훈민정음>(이하 <실록본>으로 약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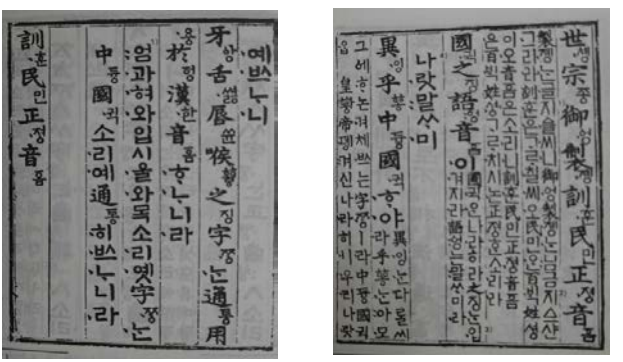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月印釋譜』 新編의 권두에 附載된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언해본}<훈민정음>(이하 <언해본>으로 약칭)으로 알려졌다. <해례본>의 어제서문과 例義의 석장 반을 언해하여 14장으로 편집하고 『월인석보』의 권두에 실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 同板으로 卷首題를 「訓民正音」이라고 하는 <언해본>이 별책이 고려대 도서관의 六堂문고에 소

3 { }안의 것은 원래 서명에는 없지만 관용적으로 불리는 서명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 같다.

장되었다. 안병희(2007: 5-6)에서 이것은 세조 5년에 간행된 『月印釋譜』에 附載된 <언해본>과는 동일판본이라고 보았으나 권수서명이 있는 첫 장만 서로 다르다. 이를 사진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2] 육당문고 소장의 <훈민정음>의 첫 반엽과 끝 반엽



[사진 3] <월석> 新編의 권두에 부재된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첫 반엽과 끝 반엽[4]

4 [사진 2]는 고려대 소장의 육당문고 소장의 <언해본>이며 [사진 3]은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으로 세조 5년에 간행된 초간본 『월인석보』의 권두에 실린 <언해본>이다. 육당문고본의 첫 장은 후대에 떨어져 나간 것을 필사하여 補綴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찍힌 落款이 효종 5년(1654) ~ 경종 2년(1722)에 살았던 子聞 南鶴鳴이어서 적어도 숙종 연간(17세기)에 보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세종어제훈민정음」을 보고 補寫한 것이라는 주장(안병희 2007)은 [사진 3]과 비교할 때에 첫 장의 권수서명을 비롯하여 너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서 타당하지 않다. 「훈민정음」의 다른 판본이거나 『월인석보』 구권의 것을 보고 필사하였을 것이다. 이 사진들은 졸저(2015: 219)에서 전재한 것이다.

[사진 2]로 보이는 육당문고 소장의 <훈민정음>의 존재는 세종의 생존 시에 간행된 <언해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제기시켰다. 왜냐하면 '世宗'이란 尊號는 왕의 死後에 내리는 것이므로 '세종어제'가 붙지 않은 「훈민정음」은 세종의 생존 시에 간행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졸고(2013)에서는 正統 12년(1449), 즉 세종 29년의 刊記가 있는『월인석보』의 玉冊을 증거로 하여 이보다는 이른 시기, 즉 세종 28년경에 『월인석보』의 舊卷이 간행되었으며[5] 이 책의 권두에 「훈민정음」이라는 <언해본>이 附載되었다가 단행본으로 전해진 것이 육당문고에 소장된 것으로 보았다(졸고 2013).

2.1. 훈민정음의 例義

훈민정음에 대한 것은 주로 <해례본>의 설명에 의존한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해레본>은 '세종의 어제 서문'과 '例義', '解例', 그리고 鄭麟趾의 後序를 갖춘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가장 완성된 해설서이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 살펴 본『세종실록』(권113) 세종 28년 9월조의 "是月訓民正音成 -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다"란 기사가 바로 <해례본>이란 해설서의 완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종실록』의 이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御製曰"로 시작하는 세종의 序文과 '例義', 그리고 정인지의 후서가 이어지며 이를 <실록본> 훈민정음이라 불렀다.

앞에서 언급한 '例義'란 『세종실록』(권113) 세종 28년 9월 29일 甲午 4번째 기사에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계해 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셨는데 간략하게 예와 뜻을 밝혀 제시하였으니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하다"라는 기사의 '略揭例義 - 간략하게 보기와 뜻을 들어 보였다'에서

5 졸저(2015: 226)에서는 세종 28년(1446) 10월경에 {舊卷}『월인석보』가 간행되었고 여기에 「훈민정음」이 附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新編}『월인석보』(1459)의 권두에 실린 <언해본>보다 13년의 차이가 있다.

따온 것이다. 훈민정음 28자에 대하여 간단한 문자의 예와 그의 음가에 대한 설명을 붙인 것이다.

즉, "ㄱ 牙音如君字初發聲(ㄱ은 어금니 소리이니 '군'자의 처음 펴나는 소리), [중략] ㆍ如呑字中聲(ㆍ자는 'ᄐᆞᆫ'자의 가운데 소리) [중략} 終聲復用初聲(종성은 초성을 다시 쓰다), [중략] ㅇ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ㅇ를 순음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되다), 入聲加點同而促急(입성은 점을 더하는 것은 같으나 빠르다)"까지 초성과 중성의 자형과 음가를 한자로 제시하고 순경음과 받침, 그리고 성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例義'라고 불렀다. 훈민정음 정서법의 大綱을 정한 것이다.

<언해본>은 『月印釋譜』의 권두에 실린 것으로 <해례본>이나 <실록본>의 어제서문과 例義를 그대로 언해한 것이 아니라 漢音 표기를 위한 齒頭와 正齒의 구별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해례본>이나 <실록본>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다. <언해본>은 세조 5년(1459)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新編에 게재된 「세종어제훈민정음」이 널리 알려졌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고(2013)에서는 같은 판본의 <언해본>이 단행본으로 편철되어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고려대 도서관의 육당문고 소장되었고 이 판본을 故 朴勝彬 교수는 훈민정음의 원본이라 했었다. 현재로는 「훈민정음」이란 <언해본>이 「세종어제훈민정음」의 것보다 오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2. 合而成音

<해례본>이나 <실록본>, 그리고 <언해본>에 공통적으로 실린 '例義'에는 말미에 "ㆍ, ㅡ, ㅗ, ㅜ, ㅛ, ㅠ, 附書初聲之下, ㅣ, ㅓ, ㅏ, ㅑ, ㅕ 附書於右, 凡字必合而成音"라는 기사를 붙였다. 그 동안 훈민정음의 附書, 즉 '부텨쓰기'의 원리로 알려진 이 규정은 중성의 붙여 쓰기가 기본자 /ㆍ, ㅡ, ㅣ/에서 /ㆍ, ㅡ/와 결합한 글자들은 /ㅇ/을 위에 붙여 쓰고 /ㅣ/와 결합한 것은 /ㅇ/를 왼쪽에 붙여 쓰는 규정을 말한다. 그리하여

/ᄋᆞ, 으, 오, 우, 요, 유/와 같이 /ㅇ/를 中聲字의 위에 붙여 쓰고 /이, 어, 아, 야, 여/처럼 /ㅇ/를 왼쪽에 붙여 쓰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기사의 마지막의 '凡字必合而成音'은 반드시 초성과 중성이 결합해야 발음이 된다는 뜻이니 음절 단위의 문자로 발음됨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고대인도의 毘伽羅論과 半字論에 의거하여 梵字가 体文(vyanjana, 자음)과 摩多(mātr, 모음)의 半字를 결합시켜 음절 단위로 표기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졸고 2016b). 中聲字에 /ㅇ/를 붙여 쓴 것은 초성 + 중성임을 알 수 있고 /ㅇ/이 초성이라면 후음의 不淸不濁의 欲母 /ㅇ/임을 알 수 있다. 즉, 훈민정음의 초성 17자와 全濁字 6개를 합한 동국정운 23자모 가운데 중성은 欲母에 속한다고 본 것인데 23자의 字母圖는 다음과 같다.

[표 1] 『東國正韻』 23자모(훈민정음 초성 17자와 전탁 6자)[6]

四聲 \ 五音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脣重音	脣輕音				
全淸	君 ㄱ	斗 ㄷ	彆 ㅂ	*非 ㅸ	卽 ㅈ	挹 ㆆ		
次淸	快 ㅋ	呑 ㅌ	漂 ㅍ	*敷 ㆄ	侵 ㅊ	虛 ㅎ		
全濁	虯 ㄲ	覃 ㄸ	步 ㅃ	*奉 ㅹ	慈 ㅉ	洪 ㆅ		
不淸不濁	業 ㆁ	那 ㄴ	彌 ㅁ	*微 ㅱ		欲 ㅇ	閭 ㄹ	穰 ㅿ
全淸					戌 ㅅ			
全濁					邪 ㅆ			

이 훈민정음의 17자의 자모를 감안하면 中聲을 단독으로 쓸 때에 喉音의 欲母 /ㅇ/를 붙여 쓴 것이지만 훈민정음의 <해례본>, <실록본>, <언해본>의 어디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왜 中聲字를 단독으로 쓸 때에 欲母와 함께 쓰게 될 것인가?

6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동국정운 23자모 이외에 추가 글자들은 韻目 한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중국의 전통 36자모에서 가져온 韻目字에는 *표를 붙였다. 이하 [표 2,3,4]에서도 같다.

3. 파스파 문자의 字母와 모음자

3.0. 몽고의 元 帝國에서는 중국의 통치를 위하여 몽고인의 한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때에 발음 표기를 위한 파스파 문자를 제정하였다(졸저 2009). 즉, 羅以智의 「跋蒙古字韻」에서 "頒行諸路, 皆立蒙古學, 此書專爲國字漢文對音而作, 在當時固屬通行本耳 - [이 문자를] 제 로(路)에 반행(頒行)하였으며 모두 몽고 학교를 세워 이 글자로 국자를 삼아 한문의 발음에 대응하도록 지었으니 당시에는 오로지 [이 문자로] 통행할 뿐이다"라고 하여 파스파 문자가 한자의 발음 표기를 위하여 制字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漢文對音'은 한자의 正音, 즉 표준음의 표음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正音의 규정은 과거시험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王朝가 세워지면 바로 황제의 명으로 간행되는 勅撰 韻書를 간행하여 표준적인 正音을 규정하였다. 자신들이 정한 한자음으로 과거시험을 치르게 하고 추종자들을 합격 시켜 통치 계급의 물갈이를 위한 것이다.

몽고의 元에서도 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파스파 문자가 제정되었고 바로 한자의 正音을 이 문자로 정리한 韻書가 간행되었다. 즉, 宋朝에서 正音으로 규정한 『禮部韻略』을 典範으로 삼아 한자음을 파스파자로 표기한 운서가 『蒙古韻略』이라고 추정한다. 蒙韻이라고 불리는 이 운서는 최세진의 『四聲通解』에도 그 서명이 보이는데[7] <예부운략> 계통인 『新刊韻略』을[8] 저본으로 하여 그 발음을 파스파 문자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7 졸저(2009: 71-82)에서는 『四聲通解』에서 인용한 『蒙古韻略』이 훈민정음의 제정에 관여한 申叔舟가 『四聲通攷』에서 인용한 것이며 당시 훈민정음에 제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이 운서를 알고 있거나 애용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蒙韻이라 불리는 <몽고운략>과 그 후의 각종 이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8 이 『新刊韻略』은 졸저(2009: 61)에 "正大 6년(1229)에 쓴 河閒 許古道의 서문에 의하면 王文旭이 平水韻의 새로운 <예부운략>을 校讎하고 주석을 더 하여 科擧 시험의 擧子들을 위한 운서로 간행한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이 운서는 졸저(2009: 81)에서 후대에 黃公紹의 『古今韻會』 등을 참고하여 修整되었고 이를 재편해서 『蒙古字韻』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으나 이것도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이를 다시 元代의 朱宗文이 증정하여 {增訂}『蒙古字韻』(이하 <증정본>으로 약칭)을 至大 元年(1308)에 간행하였고 이 <증정본>이 淸代 乾隆 연간에 필사되어 현재 大英도서관에 소장되었다.[9] 졸저(2009)는 <증정본>의 런던 鈔本에 대하여 『蒙古字韻』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필자는 이 <증정본>의 연구에서 파스파 문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었다. 그 동안 파스파 문자는 현전하는 문헌 자료가 매우 단편적인 것이어서 주로 金石文을 통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었다. 즉, 明 太祖의 철저한 胡元의 殘滓를 타파하는 과정에서 파스파 문자는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철폐의 對象이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에는 파스파 문자로 된 문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파스파자의 문헌으로는 영국 런던의 大英도서관에 전하는 『몽고자운』의 <증정본>을 필사한 鈔本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졸저(2009)에서는 런던 초본을 통하여 파스파자의 字形을 정리하고 모두 36개(실은 32개)의 字母를 확인하였으며 7개 모음자를 추가하여 43자를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喩母에 속한다고 본 7개의 모음자들 가운데 / [ɑ]/는 이미 36자모 속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ö, ü]는 中世몽고어의 [o, u]에 /e/자와 /i/자를 결합하여 만든 전설모음으로 보았다. 즉, 喩母의 //를 포함하여 /i, u, e, o, ɑ/의 5자를 기본으로 하고 [ö , ü]의 두 글자는 [o, u]의 //자에 [e]/ /자와 [i]//자를 결합시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졸고 2011).

이러한 주장은 훈민정음의 <해례본> '중성해'에서 ㅣ系 合用字 / ㆍㅣ, ㅡㅣ, ㅚ, ㅟ, ㅢ/를 제자한 것과 같은 원리로 파스파의 모음자를 제

9 『蒙古字韻』에 대하여는 졸저(2009)에서 출판 경위와 운서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이 책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2013년에 北京의 民族出版社에서 간행되었고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2015년에 東京 大倉 Info.에서 간행되었다.

정한 것으로 본 것이다. 중세몽고어에서 [ö, ü]는 [o, u]음의 전설 모음이어서 모음조화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몽고어 표기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3.1. 훈민정음 初聲과 『蒙古字韻』의 字母

훈민정음도 몽고-위구르 문자나 파스파 문자처럼 표음문자다. 훈민정음은 음절 초(onset)인 初聲의 子音으로 17자를 만들고 음절의 중심에 속하는 母音으로 中聲 11자를 만들었으며 終聲, 즉 음절 말의 받침(coda)의 위치에서 실현되는 子音을 별도로 인정하였다. 終聲은 다시 초성에 쓰인 문자로 쓰며 초성과 중성, 또는 초성, 중성, 종성을 아울러 음절 단위로 표기하였다.

[표 2] 훈민정음 <언해본>의 漢音 표음자 포함 32자

四聲 / 五音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脣重	脣輕	齒頭	正齒			
全淸	君 ㄱ	斗 ㄷ	彆 ㅂ	*非 ㅸ	卽 ㅈ	*照 ㅉ	挹 ㆆ		
次淸	快 ㅋ	呑 ㅌ	漂 ㅍ	*敷 ㆪ	侵 ㅊ	*穿 ㅊ	虛 ㅎ		
全濁	虯 ㄲ	覃 ㄸ	步 ㅃ	*奉 ㅹ	慈 ㅉ	*床 ㅉ	洪 ㆅ		
不淸不濁	業 ㆁ	那 ㄴ	彌 ㅁ	*微 ㅱ			欲 ㅇ	閭 ㄹ	穰 ㅿ
全淸					戌 ㅅ	*審 ㅅ			
全濁					邪 ㅆ	*禪 ㅆ			

이에 비하여 諺文은 비록 문자는 같지만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 즉 東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쓰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초성을 16자로 보기도 하였다. 즉, 『訓蒙字會』의 「諺文字母」에서는 /ㆆ/을 제외한 16자의 초성만을 인정한 것이다.[10] 즉, 挹母 /ㆆ/와 欲母 /ㅇ/를 구별하지

10 『訓蒙字會』 권두의 「諺文字母」에는 초성 16자라 하여 /ㆆ/을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諺文에서는 初聲에 /ㆆ/를 사용한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以影補來라 하여 오로지 받침, 終聲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않은 셈이다. 따라서 우리말 표기에서 이 둘은 구별되지 않는다.[11] 그러나 파스파 문자에서는 影母/ꡖ/와 喩母/ꡝ/를 구별하였다. 예를 들면 『蒙古字韻』의 <증정본>에서는 "ꡖꡦꡟꡃ 平 雍 [중략], ꡝꡦꡟꡃ 平 顒 [하략]"(上 10앞) 등과 같이 평성의 /雍/과 /顒/의 한자음 聲母, 즉 초성이 /ꡖ/와 /ꡝ/로 구별되었다. 東音에서는 이 한자의 발음이 모두 [옹]이다.

3.2. 파스파 문자의 41자

파스파 문자는 至元 6년(1269)에 팍스파 喇嘛가 41개의 자모를 만들어 元 世祖 쿠빌라이 칸이 元 帝國의 國字로 삼았다는 기사가 『元史』(권202) 「傳」(89) '釋老 八思巴'조에 실렸다. 그러나 元代 盛熙明의 『法書考』나 陶宗儀의 『書史會要』에는 43개의 자모를 만들었다고 하였다(졸저 2009: 179). 이 두 책에 보이는 글자의 숫자는 중국 전통의 『廣韻』에서 제시한 36자모에 喩母, 즉 모음의 7자를 더 하여 43자로 한 것이다.

元에서는 이 문자를 제정하고 바로 이 글자로 한자의 전통 한자음을 파스파 문자로 표음하여 『蒙古韻略』을 간행하였고 이어서 『蒙古字韻』과 {增訂}『蒙古字韻』을 간행하는데 이들을 모두 蒙韻이라고 부른다. 몽운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바로 『東國正韻』을 편찬한 것과 같이 파스파 문자를 제정하고 그 문자로 한자음을 표음하여 만든 韻書들이다.

元代에 파스파 문자를 제정하고 이 문자를 발음기호로 하여 한자음을 표기한 운서, 우리가 蒙韻이라고 부르는 『蒙古韻略』과 『蒙古字韻』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朱宗文이 至大 戊申(1308)에 이를 증보하고 수정한 {增訂}『몽고자운』을 간행하였다(졸저 2009: 33-38). 세 권의 蒙

11 訓民正音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표기에 사용된 발음기호의 체계라면 諺文은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 즉 東音의 표기에 사용된 문자를 말한다. 『세종실록』에서는 이를 혼동하였으나 후대에는 잘 구별하였다.

韻은 모두 失傳되었지만 마지막 <증정본>이 필사되어 전해오며 런던의 大英도서관에 소장되었다. 이 세 권의 蒙韻에는 모두 <증정본>의 「字母」와 같이 권두에 36 字母圖를 添載한 것으로 추정된다.

『蒙古韻略』은 오늘날 전하지 않으나 『四聲通解』 등에 인용된 이 蒙韻의 한자음을 추적해 보면 『廣韻』 계통의 『禮部韻略』의 卷頭에 부재된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에서 전통의 36聲母를 파스파 문자로 표음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四聲通解』의 권두에는 이 『蒙古韻略』의 권두에 附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字母」를 「廣韻三十六字母之圖」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蒙古字韻』은 『몽고운략』의 한자음이 元 帝國의 수도인 北京 漢兒言語의 현실 발음과 너무 차이가 남으로 이를 당시에 편찬된 『古今韻會』, 또는 『古今韻會擧要』에 따라 수정한 것이며 이 『蒙古字韻』의 권두에 실었을 「자모」를 『四聲通解』에서는 「韻會三十五字母之圖」로 제시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사본으로 현전하는 몽운의 <증정본>은 元代 至大 戊申(1308)에 朱宗文이 편찬하여 간행한 것이지만 原本은 失傳되었고 淸代 乾隆 연간, 즉 1737~1776 사이에 필사한 것이 남아 있다(졸저 2009: 101). 이 자료의 권두에 「 字母」라는 제목으로 36字母圖를 실었으나 실제는 32개의 서로 다른 파스파 글자만 제시되었다. 『四聲通解』에는 이 「字母」를 「洪武韻三十一字母之圖」로 정리하여 역시 권두에 제시하였다.

3.3. 『몽고자운』 런던 초본의 32 字母

졸고(2011)에서는 세 종류 蒙韻의 「字母」가 모두 申叔舟의 『四聲通攷』에 '廣韻', '韻會', 그리고 '洪武韻'으로 이름을 바꿔 게재된 것을 崔世珍이 그의 『四聲通解』에서 그대로 轉載한 것으로 보았다. 신숙주가 이렇게 자모도의 이름을 『蒙古韻略』, 『蒙古字韻』, {增訂}『몽고자운』 등으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제목을 바꾼 것은 당시 明의 눈치

를 본 것으로 추정하였다. 申叔舟가 활동할 당시는 明에서 胡元의 殘滓인 파스파 문자의 사용을 심하게 감시하였기 때문이다.[12]

朱宗文의 <증정본>의 런던 초본에는 전통적인 『廣韻』의 36자모를 옮기고 그에 해당하는 파스파 글자를 실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를 轉寫한 4개의 파스파자가 동일해서 실제로는 32개의 聲母, 즉 자음만을 인정한 셈이 된다. 그리고 이 32자모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漢音 표기를 위한 정음자와 일치한다.

현전하는 『古今韻會擧要』의 여러 異本에서 권두에 붙어 있는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蒙古字韻音同}[13]은 다음에 이어서 "韻書始於江左, 本是吳音。今以七音韻母通攷, 韻字之序, 惟以雅音求之, 無不諧叶。- 운서는 양자강의 왼 쪽에서 시작하여 본래 오음(吳音)이었다. 이제 칠음(七音)의 운모통고(韻母通攷)로서 운자(韻字)의 순서를 매기니 아음(雅音)에서 구하여 배열한 것이라 어울리고 화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添言을 덧붙였으나 실제로 자모도는 빠졌다. 다만 이 36모 通攷가 宋代 雅音, 즉 표준음으로 36자모를 배열한 것임을 밝혀둔 것이다. 이처럼 『몽고자운』 <증정본>의 런던 초본에서 볼 수 있는 36 字母圖는 그 동안 제목만 보인「예부운략 7음 36모통고」를 실제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표 3]의 자모도를 보면 舌上音과 正齒音의 파스파자가 /ꡈ, ꡉ, ꡊ/로 동일하여 3개가 줄고 또 脣輕音의 전청과 전탁이 동일하게 /ꡎ [v]/이어서 1개가 줄어서 파스파 글자로 표음한 36 聲母는 파스파자로 실제 32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이에 대하여는 졸고(2016b)를 참고할 것. 이 논문에는 四庫全書의 『古今韻會擧要』에는 분명하게 "蒙古字韻音同"으로 되었지만 이를 조선 세종 때에 漢陽에서 복각한 판본에는 "據古字韻音同"으로 '蒙古'의 '蒙'을 '據'로 바꾸었다. 얼마나 明의 감시가 두려웠던지 알 수 있다.

13 { } 안에 쓴 것은 夾註의 것이다. 필자의 논저에서는 협주를 이렇게 표시하였다.

[표 3]『몽고자운』 파스파 문자의 36 字母(졸저 2015: 312)

七音 / 四聲	牙 音	舌 音		脣 音		齒 音		喉 音	半 音	
		舌頭音	舌上音	脣重音	脣輕音	齒頭音	正齒音		半舌音	半齒音
全 清	見	端	知	幫	非	精	照	曉		
次 清	溪	透	徹	滂	敷	清	穿	匣		
全 濁	群	定	澄	並	奉	從	床	影		
不清不濁	疑	泥	娘	明	微			喩	來	日
全 清						心	審	(么)		
全 濁						邪	禪			

파스파 문자로 표음한 [표 3]과 같은 <증정본>의 字母圖는 아마도 『蒙古韻略』, 『蒙古字韻』에도 부재되었을 것이다. 다만 조금씩 자모의 수효와 淸濁, 七音의 순서가 각각 바뀌었다고 본다.[14]

앞에서 보인 [표 2]의 훈민정음 <언해본>의 32자와 [표 3]의 파스파 문자의 36자모를 비교하면 문자만 다를 뿐이지 32자모는 동일하다. 특히 훈민정음의 欲母 /ㅇ/와 파스파자의 喩母 /ꡂ/는 喉音의 不淸不濁으로 동일 음운을 표시한 것이다.

3.4. 훈민정음의 喉音 全濁의 /ㆆ/

훈민정음이 파스파 문자로 표음된 『몽고자운』의 자모도와 관련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ㆆ/을 들 수 있다. 앞에 보인 [표 2]에서 전탁자 6개 중 /ㄲ, ㄸ, ㅃ, ㅆ, ㅉ/의 5자는 각기 전청자를 各字竝書한 것이다. 즉, 牙音의 전청 /ㄱ/과 舌音의 전청 /ㄷ/, 脣音의 전청 /ㅂ/, 齒音의 전청 /ㅈ/과 /ㅅ/을 竝書하여 全濁字를 制字하였다. 그러나 喉音의 전탁은 차청의 /ㅎ/을 병서하여 /ㆅ/으로 하였다. 즉, 훈민정음 「例義」에 "初聲合用則竝書, 終聲同"이란 규정과 이에 대한 <언해본>의 "첫소

14 『몽고자운』 런던초본의 '字母'를 보여주는 사진도 졸저(2015: 312)에서 전재한 것이다.

리ᄅᆞᆯ 어울워 ᄡᅳᆞᆷ디면 ᄀᆞᆯᄫᅡ쓰라 乃終ㄱ소리도 ᄒᆞᆫ가지라"라는 언해문을 보면 初聲을 合用하여 쓸 수가 있지만 竝書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청자를 병서하여 전탁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竝書의 방법은 같은 초성을 겹쳐 쓰는 各字竝書와 서로 다른 초성을 겹쳐 쓰는 合用竝書의 방법이 있는데 같은 글자를 겹쳐서 쓰는 각자병서는 全濁字를 위한 것이었다. <해례본> 「제자해」의 초성에 대한 해례의 말미에 "全淸竝書則爲全濁 - 전청자를 병서하면 전탁이 되다"라 하여 全淸字를 各字竝書하여 全濁字, 즉 /ㄲ, ㄸ, ㅃ, ㅉ, ㅆ/과 같은 雙書字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喉音에서는 次淸의 /ㅎ/을 쌍서하여 전탁을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해례본>의 「제자해」에서 "唯喉音次淸爲全濁, 盖以ㆆ聲深不爲之凝, ㅎ比ㆆ聲淺, 故凝而爲全濁也. - 다만 후음만은 차청자가 [병서하여] 전탁이 되는데 대체로 /ㆆ/음이 소리가 깊어 엉기지 못하나 /ㅎ/이 /ㆆ/보다 소리가 얕아서 엉기므로 전탁이 되었다"라고 하여 /ㆆ/이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못하므로 그보다 앞에서 조음되는 /ㅎ/으로 병서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은 『훈몽자회』「諺文字母」에서 挹母 /ㆆ/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킨다.

여기서는 앞의 [표 2]와 [표 3]를 비교하여 파스파자의 聲母와 훈민정음의 初聲에 대한 글자제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표 2]의 동국정운 23자모도는 [표 3] 『몽고자운』 <증정본>의 32자모도와 매우 유사하며 서로 韻目의 漢字가 다를 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동국정운 23자모도의 牙音의 /君 ㄱ, 快 ㅋ, 虯 ㄲ, 業 ㆁ/이 파스파자의 32자모도에서 /見 , 溪 , 群 , 疑 /로 되어서 韻目의 한자와 이를 표음하는 글자가 서로 다르지만 두 문자가 全淸, 次淸, 全濁, 不淸不濁의 순서는 동일하고 서로 대비된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동국정운』 23자모와 『몽고자운』의 36자모의 韻目 한자 대조[15]

四聲 \ 五音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脣重音	脣輕音				
全淸	君:見	斗:端	彆:幫	*非	卽:精	挹:影		
次淸	快:溪	呑:透	漂:滂	*敷	侵:淸	虛:曉		
全濁	虯:群	覃:定	步:並	*奉	慈:從	洪:匣		
不淸不濁	業:疑	那:泥	彌:明	*微[18]		欲:喩	閭:來	穰:日
全淸					戌:心			
全濁					邪:邪			

『동국정운』의 자모순에 따르지 않고 『몽고자운』의 자모순에 따르는 경우가 '東國正韻序'의 以影補來에서도 발견된다. '以影補來'는 字音이 入聲임에도 불구하고 /ㄹ [r, l]/의 받침이므로 촉급하게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ㆆ/을 보충하여 /ㄹㆆ/로 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質'의 한자음 [짏]은 이것이 入聲이지만 받침 /ㄹ/로 인하여 음절이 弛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ㄹㆆ/로 한 것이 以影補來이다. 여기의 /影/과 /來/는 중국 전통의 36자모에 쓰인 운목자로서 『동국정운』의 23자모에서는 /挹/과 /閭/이다. 『동국정운』의 자모에 의하면 '以挹補閭'가 되어야 하지만 중국 성운학의 字母에 보인 한자에 의하여 /ㄹㆆ/을 '以影補來'라고 한 것이다([표3] 참조). [16]

15 蒙韻 <증정본>의 32자모는 『禮部韻略』 36자모의 韻目 한자와 동일하다. 반면에 훈민정음에서는 다른 한자를 운목자로 삼았다. 훈민정음에 정하지 않은 脣輕音의 운목자는 <예부운략>의 것을 따랐다.

16 '東國正韻序에 "[前略]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因俗歸正 [하략]"에서 '以影補來'가 등장한다.

4. 『蒙古字韻』의 喩母와 『동국정운』의 欲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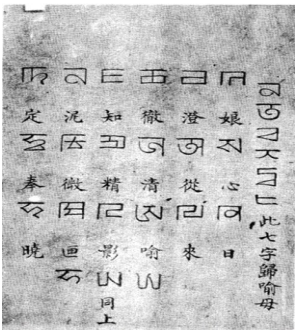
4.0 파스파 문자와 훈민정음은 졸저(20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 두 문자간의 관계는 훈민정음의 中聲字와 『蒙古字韻』의 「字母」에 첨부된 喩母 7자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파스파 무자의 모음자로 제정된 喩母의 7자가 바로 훈민정음의 基本字 / ·, ㅡ, ㅣ / 와 初出字 / ㅗ, ㅏ, ㅜ, ㅓ / 의 단모음 7자와 일치하기 때문이다(졸고 2011).

그 동안 금석문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낸 파스파 문자의 모음자는 8개(Poppe 1957;1965)로 소개되어 이것이 정설로 학계에서 인정하지만 졸고(2011)에서는 <蒙韻>의 「字母」에 제시된 喩母 7자가 바로 파스파자의 모음자이며 이처럼 모음자를 제자한 것은 이 문자가 모태로 삼은 西藏 문자에서도 인식하지 못한 획기적인 사실임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훈민정음에서도 중국 聲韻學의 韻을 더 나누어 中聲을 독립시킨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卓見으로 받아드렸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中聲이 파스파자의 喩母 7자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즉, 훈민정음의 中聲字는 파스파의 모음자에 맞추어 제정된 것이다(졸고 2011).

4.1. 『蒙古字韻』의 喩母字

필자의 파스파 문자 연구는 {증정}『몽고자운』의 런던 초본에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즉, <증정본>의 런던 鈔本의 권두에 첨부된 「 字母」에 " 此七字歸喩母 - [i, u, ü, o, ö, e]의 7자는 유모에 속하다"(上 6뒤)의 7자는 다음 [사진 4]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6자뿐이다.



[사진 4] {증정}『몽고자운』 런던 초본 권두의 「字母」 右端

그러나 졸저(2009: 201)에서 이 글자들은 파스파자의 모음자로서 '[i], [u], [iu], [ü], [o], [eu, ö], [e]'의 6자에 喩母의 '(ᠤ)[ɑ]'를 더 하여 7자가 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사진 4]의 <증정본> 런던초본의 「字母」 右側 중단에 보이는 '此七字歸喩母 [i], [u], [ü], [o], [ö], [e]'는 이미 36자모에 들어 있는 喩母의 '(ᠤ)[ɑ]'를 포함하여 7자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ü]와 [ö]는 모음조화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iu], [eo]로 두 자를 겹쳐서 제자하였다(졸고 2011).

앞의 [사진 4]에 보이는 파스파 문자의 喩母 7자는 중세몽고어의 모음체계에 의거하여 制字한 것으로 중세몽고어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서로 대립하는 모음체계를 가졌으며 이들은 같은 위치의 모음끼리만 결합하는 모음조화를 가졌다.

따라서 파스파자는 전설의 '[ü], [ö], [e]'와 후설의 '[u], [o], [ɑ]'를 문자로 대응시키고 모음조화에 관여하지 않는 [i]를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모음을 /[i], [ü], [ö], [e], [u], [o], (ᠤ)[ɑ]/와 같이 문자화한 것이다. 이것은 모음조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구개조화(palatal harmony)로서 알타이제어 가운데 중세몽고어는 이러한 모음조화의 전형으로 알려졌다.

4.2. 훈민정음의 中聲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을 표음하는 글자로 <해례본>의 '制字解'에서 中聲字 11개 글자를 만들고 그 제자 방법을 설명하였다. 즉, "中聲凡十一字, ㆍ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乎天也. 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闢於丑也. 形之平, 象乎地也, ㅣ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形之立, 象乎人也. - 중성은 모두 11자이니 'ㆍ'는 혀가 움츠려들고 소리는 깊다. 하늘은 자시(子時)에 열렸으니 모습은 둥글어 하늘을 본뜬 것이다. 'ㅡ'는 혀를 조금만 움츠리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다. 땅은 축시(丑時)에 펼쳐졌으니 모습이 평평하고 땅을 본뜬 것이다. 'ㅣ'는 혀를 움츠리지 않고 소리가 얕다. 사람은 인시(寅時)에 태어났으니 모습은 서 있고 사람을 본뜬 것이다"라고[17] 하여 天地人 三才를 象形한 기본자 3개 /ㆍ(天), ㅡ(地), ㅣ(人)/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세 글자를 서로 合用하여 /ㅗ, ㅏ, ㅜ, ㅓ/와 /ㅛ, ㅑ, ㅠ, ㅕ/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후자는 再出字이고 전자는 初出字라고 설명하면서 天地人이 어떻게 서로 교합하여 합용하는가를 설명하였다. 즉, "此下八聲, 一闔一闢, ㅗ與ㆍ同而口蹙, 其形則ㆍ與ㅡ同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ㅏ與ㆍ同而口張, 其形則ㅣ與ㆍ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 다음의 8소리는 하나가 오므라들면 하나가 펼쳐지는데 /ㅗ/는 /ㆍ/와 같으나 입을 오므리며 글자 모습은 /ㆍ/와 /ㅡ/가 결합해서 이룬 것이다. 천지가 처음 교합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ㅏ/는 /ㆍ/와 같으나 입이 펴지는 것이며 글자의 모습은 /ㅣ/와 /ㆍ/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천지의 쓰임이 사물에서 나오지만 사람을 기다려 완성되는 뜻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여 기본자 3개, 즉 천지인의 /ㆍ, ㅡ, ㅣ/를 결합시켜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基本 3자와 初出 4자의 7자가 단모음을 표음하는 글자로 제

17 훈민정음 <해례본>의 해석은 매우 여러 가지여서 오히려 혼란스럽다. 여기서는 홍기문(1946: 32)의 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필자의 어투로 조금 고쳤다. 이하 모두 같다.

정되었음을 말한다. 여기서 再出字들은 모두 ㅣ계 이중모음이기 때문이다.

4.3. 훈민정음 中聲의 29자와 合用

훈민정음에서는 기본자 /ㆍ, ㅡ, ㅣ/의 3에 /ㅗ, ㅏ, ㅜ, ㅓ/는 初出字이고 /ㅛ, ㅑ, ㅠ, ㅕ/는 再出字여서 모두 11자를 제자하였다. 그러나 <해례본> '중성해'에서 원래 11자의 중성자에다가 二字合用 4자 /ㅘ, ㅝ, ㅙ, ㅞ/와 一字 中聲의 10字와 /ㅣ/자와의 相合의 /ㆍㅣ, ㅡㅣ, ㅚ, ㅐ, ㅟ, ㅔ, ㅢ, ㅒ, ㅖ, ㅒ/ 10자, 그리고 앞의 二字 合用의 4자와 /ㅣ/의 相合字 4개 /ㅙㅣ, ㅞㅣ, ㅙㅣ, ㅞㅣ/를 더 하여 모두 29자의 中聲字를 制字하여 보였다. 이렇게 많은 中聲字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中聲을 11자로 한 것은 梵字의 摩多 12자에 맞춘 것임을 졸고(2016a)에서 언급하였다.[18]

원래 훈민정음 28자에 들어간 11개의 中聲字에서 /ㅣ/를 뺀 10자에다가 二字合用 4자를 더하여 14자를 만들고 이 모두에 /ㅣ/를 相合하여 29를 더 만든 것은 /ㅣ/가 모음조화에 관계없이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해례본> '중성해'의 마지막에 "侵之爲用最居多, 於十四聲徧相隨 - 'ㅣ(侵)'의 사용이 제일 많은 것은 14 소리에 두루 서로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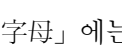
이것은 ㅣ계 이중모음의 형성이 가능한 우리말의 음운구조의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당시 우리말의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을 꿰뚫어 보고 글자를 制字하였음을 말해 준다. 비록 파스파 문자의 모음자를 근거로 하여 7자의 中聲字를 만들었지만 우리말의 음운 현상을 함께 감안하여 中聲의 모음 글자를 만든 것이다. 우리말에 대한 깊은 음운론적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8 梵字에서 摩多를 14자로 한 것도 있다. 즉, 『大般涅槃經』(권8) 「文字品」에서는 "是十四音名曰字本"이라 하고 이어서 모음 14음을 기본 글자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古代인도의 毘伽羅論, 즉 聲明記論을 익히 터득하고 우리말을 깊이 연구한 학자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에 옆에서 도와주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19] 毘伽羅論에서 음운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하여는 졸고(2016a)에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음운에 대한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라든지 모음에서 이중모음의 이해가 이미 이 이론에서 상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파스파 문자의 喩母字, 즉 모음자에서도 /ㅡ[i]/와 /ㄷ[e]/를 결합시켜 전설모음을 표기하는 글자로 / /와 //를 만들었다.

4.4. 『蒙古字韻』의 喩母와 모음자의 단독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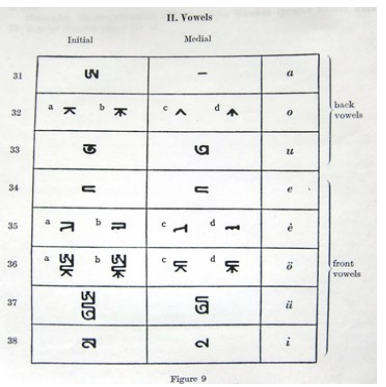
파스파자의 모음자는 모두 喩母에 속한다고 보았다. 앞의 [사진 4]에 보이는 <증정본>의 「字母」에는 右端 중앙에 "  此七字歸喩母"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몽고어의 모음 "[i], [u], [ü], [o], [ö], [e]"가 喩母에 속한다고 본 것이며 여기에 제시한 6자에다가 이미 36자모에 들어있는 喩母 /, [ɑ]/를 더하여 당시 몽고어의 7개 단모음을 문자화한 것이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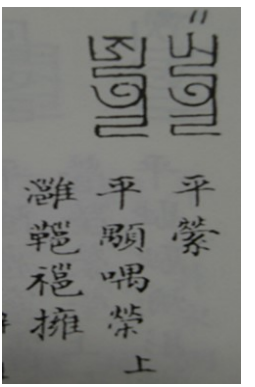
그 동안 금석문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낸 몽고어 모음의 파스파자는 Poppe(1957)에서 보인 바와 같이 8개의 모음이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몽고자운』의 「字母」에 제시된 喩母 7자가 바로 몽고어의 모음을 표기하는 글자였다. Poppe(1957)의 8개 모음과 차이가 나는 것은 服部四郎(1984)가 주장한 바와는 달리 [표 7]의 35 [ė]를 34 [e]

19 졸저(2015)에서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제정할 때에 고대인도의 毘伽羅論의 이론으로 도움을 준 學僧과 불교 전문가로 信眉와 그의 동생인 金守溫을 들었다. 이 둘은 首陽大君과 함께『增修釋迦譜』를 언해하여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기록한『釋譜詳節』을 편찬하였다(졸고 2013).

20 원래 [표 3]에서는 喩母//와 么母//를 구별했지만 [사진 4]에서 보이는 것처럼『몽고자운』의 런던 초본에서는 이 두 글자가 모두 喩母에 속하게 하였다. 또 影모에도 //와 //의 두 글자를 대입하여 이미 이러한 구분이 사라진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匣모에도 //와 曉모의 //를 나란히 써서 구별이 어려움을 표했다.

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문자로 보아서 7개로 한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졸고(2011)로서 일본 학계에 보고되었다.[21]





[사진 5] Poppe(1957: 24)의 8모음과 {증정} 『몽고자운』 런던 초본의 [üŋ][22]

파스파 문자의 모음자들을 중국 전통 聲韻學의 36聲母에서 喩母에 속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파스파 문자에서 모음자들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앞에 결합하여 쓸 聲母가 없을 때에는 喩母 /[illegible]/를 붙여 '/[illegible]/[o], /[illegible]/[u]'처럼 쓴다.[23] 실제로 Poppe(1957: 24)의 파스파자 vowel에서 initial의 [ö]를 표음하는 파스파 문자는 앞의 [사진 5]와 같이 '36 [illegible] [ö]'와 '37 [illegible] [ü]'로 표기하였다. 즉, [사진 5]의 왼

21 服部四郎(1984)에서는 파스파자의 모음자에서 [e]와 [ė]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통합하여 7개 모음자로 본 졸고(2011)는 服部四郎 박사가 수학하고 교수로 근무한 東京大學 言語學科의 논문집에서 권두 논문으로 게재된 것이다.

22 졸저(2009: 333)의 영인본에서 전재함. 沈鍾偉(2015: 178)에서는 이를 "[illegible] [Oyŋ], [illegible] [Jyŋ]"로 전사하였으나 적절한 轉寫로 보기 어렵고 특히 /[illegible]/를 j(yod)로 전사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23 파스파자를 두 자 이상 겹쳐서 사용할 때에는 편집상 옆으로 뉘었다. 이하 같음. [표 7]에서 [ü]와 [ö]를 제외한 다른 모음자들이 initial에서 이 표에 보인 것처럼 단독으로 쓰인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표 7]에서 32의 /[illegible](K)/[o]와 33의 /[illegible](Ɔ)/[u], 그리고 34의 /[illegible](U)/[e]는 /[illegible]/[o], /[illegible][u]/, 그리고 /[illegible]/[e]로 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蒙古字韻』에서는 /[illegible][o]、[illegible][u]、[illegible]e]/처럼 聲母와 같이 썼기 때문이다. <증정본>의 런던 초본에서는 喩母 /[illegible](ꡀ)/와 么母 /[illegible](ꡀ)/가 혼란되었다(졸고 2017).

쪽에 보이는 36 / /[ö]는 / ( ) + ( ) + ( )/, 그리고 37 / /[ü]는 / () + () + ( )/와 같은 방법으로 표음한 것이다. //[e]를 //[o]와 //[u]에 결합시켜 전설모음 [ö, ü]으로 만들고 앞에 다른 자음이 없기 때문에 유모 //를 앞에 쓴 것이다.

역시 [사진 5]의 오른 쪽에 보이는 {증정}『몽고자운』 런던초본의 " 平 顯 [하략]"도 위와 같이 / ( ) + () + ( ) + ( )/로 표음하여 [üng]을 전사하였다. 또 " ['i] 平 伊 [중략] 平 移 [하략]"(上 22앞)과 " ['jen] 平 延 [하략]"(下 10앞)에서도 喩母 / /대신 么母 / /를 썼다. <증정본>의 「字母」에서는 이 둘을 모두 喩母로 보았기 때문에 모음자의 앞에 聲母, 즉 初聲으로써 喩母를 쓴 것은 동일하다.

이러한 문자의 표기 방식은 훈민정음에서 /ㅇ + ㆍ + ㅡ [오] + ㅣ/와 /ㅇ + ㅡ + ㆍ [우] + ㅣ/를 결합하여 전설모음의 /외[ö], 위[ü]/를 제자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24]

4.5. 훈민정음 중성에 붙은 欲母 /ㅇ/

파스파 문자에서 모음자들을 喩母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자음과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모음자가 쓰일 때에 喩母 / /를 붙여 쓰는 방식으로부터 훈민정음에서도 모음인 中聲이 子音인 초성과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일 때에 /ㅇ/를 붙여 쓰게 되었다고 본다. 또 欲母의 /ㅇ/를 붙여 初聲과 中聲이 合而成音, 즉 합해야 음을 이룬다는 <해례본>의 「中聲解」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몽고자운』의 36자모에서 喉音의 喩母는 『東國正韻』의 17자모에서는 欲母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欲母의 /ㅇ/를 初聲으로 하고 이를 중성과 결합시켜 合而成音을 이루어 /ᄋᆞ, 으, 이, 오, 아, 우, 어, 요,

24 『蒙古字韻』의 런던초본은 졸저(2009)와 이의 중문판(졸저 2013), 일문판(졸저 2015)에 附載된 影印本을 참조할 것.

야, 유, 여/와 같이 표기하였다. 中聲字에는 초성의 欲母 /ㅇ/를 붙여 初聲과 中聲이 결합하여야 成音, 즉 음절을 이루어서 발음할 수 있다는 훈민정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의 2.2에서 언급한 中聲은 初聲과 '合而成音'이란 규정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6. 喩母 /ᠠ/와 欲母 /ㅇ/, 그리고 아래 /ㆍ/

蒙韻의 <증정본>에서 喩母 /ᠠ, ᠠ/는 聲母이기도 하며 동시에 모음 [ɑ]의 표음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파스파 문자의 연구자들이 모음 문자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 일본의 吉池孝一(2005)에서는 파스파 문자에서 모음 [ɑ]를 표기하는 글자는 없다고 極言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맹종하는 송기중(2016)의 졸저(2009)에 대한 서평에서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다.[25]

그러나 파스파 문자에서는 [ɑ]를 /ᠠ, ᠠ/로 문자화하였다. 예를 들면 <증정본> 런던초본의 六. 佳운에서 全淸의 [kɑ](/ᠬᠠᠶ/)로 '平 該, 上 改'(상 31뒤) 등이 있고 次淸의 [khɑ]/ᠬᠠᠶ/로 '平 開, 上 愷'(같은 곳) 등이 있다. 즉, <증정본>의 가(佳)운에는 평성 전청의 該[kɑ], 상성의 改[kɑ]와 次淸에서 평성의 開[khɑ]와 상성의 愷[khɑ]가 있다는 말이다. 모두 [ɑ]를 /ᠠ/로 표기한 예들이며 이것은 'ᠬᠠᠶ [pɑ] 擺. ᠬᠠᠶ [phɑ] 派'(상 32앞)도 찾을 수 있다. 또 'ᠬᠠᠶ [ɕɑ] 差' (같은 곳)의 예도 찾을 수 있다(졸저 2009). 이런 예를 보면 /ɑ/음의 표음자가 파스파 문자에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 만일 /아[ɑ]/가 파스파 문자에 없었다면 이러한 예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25 송기중(2016)에서는 파스파 문자에 /아/를 표음하는 문자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면서 졸저(2009)는 이런 상식도 모르는 연구서라고 酷評하였다. 그렇다면 [ɑ]의 파스파자를 인정한 파스파 문자의 논저, Pauthier(1862), Ligeti (1948;1973), Poppe(1957;1965), 照那斯圖(1981;2008)는 모두 이런 상식이 없이 쓰인 것이라는 말인가? 아무리 감정에 치우쳐서 쓴 서평이라도 이러한 억지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 거기다가 이 글이 정식학술지에 실린 서평임을 생각할 때에 이로 인하여 이 방면의 연구자들에게 준 혼란을 감안하면 서평자와 이를 게재한 편집인의 책임은 엄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파스파 문자의 子音字들이 단독으로 쓰여도 /아/로 발음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즉, 파스파 문자는 그의 모델인 티베트 西藏 문자의 영향으로 字母를 단독으로 쓸 때에 /아/를 붙여 발음한다. 예를 들면 / , , , , / 등을 [ka, ta, pa, ba, tsa/로 읽는다.[26] 즉, 음절 문자인 梵字와 그를 모방한 西藏 문자의 영향으로 단독으로 쓰인 자모를 개음절로 읽는 것이다.[27]

이것은 동아시아 여러 문자에 영향을 준 梵字의 半字論에서 자음을 표시한 글자들을 모음 [a]를 붙여 읽었다. 이로부터 파스파 문자는 모음 /아/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관례가 인도의 데바나가리, 그리고 티베트의 西藏문자와 파스파 문자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자음자에 [a]를 붙여 불렀다.

喩母 / ‘와 么母 / /는 [ɑ]를 표음하며 훈민정음의 欲母 /ㅇ/와 대응된다. 훈민정음의 중성은 ‘ㆍ, ㅡ, ㅣ’를 기본자로 하고 이들을 결합시켜 나머지 8자를 제자하였다. 그런데 이 기본자는 <해례본>의 「제자해」에 의하면 天地人 三才를 상형한 것이어서 /ㆍ/는 天圓, /ㅡ/는 地平, /ㅣ/는 人立을 상형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아래 /ㆍ/는 원래 하늘의 모습을 본떠서 4.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形之圓, 그러니까 동

26 김주원(2016)에서 이때의 [a]를 내재적 모음(inherent vowel)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梵字에서 자음의 体文을 迦[ka], 佉[kha], 誐[ga], 伽[gha], 哦[nga]와 같이 고대인도의 半字論에서 호칭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문자의 관례적 명칭이지 이 자음 속에 [a]가 내재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모음자를 독립적으로 제정하기 이전의 단계라는 주장은 문자의 역사에 대한 지식의 결여에서 온 것이다. 기원전 수세기 경에 만들어진 산스크리트 문자, 즉 梵字의 悉曇에서 모음자로 만들어진 摩多와 그 영향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주장이다. 悉曇에서는 摩多 12자, 또는 14자를 문자의 기본이라고하였다. 梵字는 인도의 데바나가리 문자를 비롯하여 많은 문자에 영향을 주었고 일본의 いろは 47자는 摩多 12자와 体文 35자를 말한 것이며 五十音圖의 ア行音은 悉曇의 摩多에서온 것이다.

27 파스파 문자의 이러한 예를 보면 훈민정음의 <언해본>에서“ㄱ눈 엄쏘리니, ㅋ눈엄쏘리니,”와 “ㄷ눈 혀쏘리, ㅌ눈 혀쏘리니”, “ㅂ눈 입시울 쏘리니, ㅈ눈니쏘리니”에 보이는 ‘ㄱ, ㅋ, ㄷ, ㅌ, ㅂ, ㅈ’을 /가, 카, 다, 타, 바, 자/로 읽었을 가능성이있다. 필자는 이를 ‘기, 키, 디, 티, 비, 지’로 읽었을 것임을 『훈몽자회』 「언문자모」의‘ㄱ其役, ㅋ*箕, ㄷ池*末, ㅌ治, ㅂ非邑, ㅈ之’을 예로 하여 주장한 바가 있다(졸고 2002). 여기서 *를 붙인 한자는 釋讀한다.

그라미였다. 그렇다면 欲母의 /ㅇ/와 같은 형상이다.[28] 따라서 아래 /·/는 欲母의 /ㅇ/와 같이 둥근 모습이며 [ɐ], 또는 [ɔ]의 음가를 갖는다. 파스파 문자의 喩母 /ꡐ/가 동시에 [ɑ]의 음가를 갖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실은 훈민정음의 제자에 얼마나 파스파 문자가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29]

다만 훈민정음은 파스파 문자의 제정에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이것으로 마치 한글이 파스파 문자를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 문자에서 모음을 喩母나 欲母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국의 聲韻學, 그리고 고대인도의 毘伽羅論과 聲明記論, 半字論의 이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이론으로 모음을 본 것은 비단 파스파 문자와 한글만이 아니다.

5. 마무리

5.0. 이상 훈민정음의 中聲字, 즉 한글의 모음자를 단독으로 쓸 때에 欲母 /ㅇ/를 붙여 쓰는 것이 파스파 문자에서 모음자들을 喩母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 喩母 /ꡐ/를 앞에 붙여 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중국 聲韻學에서 聲과 韻을 구별하고 이 둘의 결합이 하나의 한자음을 표기한다는 방식에 따른 것으로 合而成音, 즉 초성(자음)과 중성(모음)이 결합해야 발음이 가능하다는 <해례본>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

28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례」에 예로 들은 고유어의 표기에 등장하는 아래 ·는 모두 圓形이어서 검은 색의 둥근 圈點이었다. 아래 ·가 /ㅇ/일 가능성이 있다.

29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마치 훈민정음이 파스파 문자를 모방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개중에는 필자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貶毁하려는 의도로 이를 針小棒大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한글이 여러 면에서, 특히 자형에서 독창적이란 점을 자세히 설명한 졸고(2009b)가 있다. 이 논문은 일본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실어서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파스파 문자와 한글을 비교하여 두 문자의 차이를 논하고 한글의 독창성을 주장하였다. 이번에는 두 문자의 영향 관계만을 따진 것임을 밝혀둔다.

5.1. 훈민정음에서 初聲과 中聲을 구별한 것은 고대인도의 梵字를 毘伽羅論과 半字論, 滿字論에서 摩多(mātr, 모음)와 体文(vyaṇjana, 자음)으로 구별하고 이를 음절단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훈민정음에서는 파스파 문자의 영향으로 한 음절을 초성과 종성, 그리고 종성을 구별하고 중성을 모음으로 인식하여 글자를 따로 제정하였다.

음소 단위의 글자를 제정한 것이지만 한자음 표기를 위하여 음절단위의 모아 쓰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성과 중성, 또는 초성과 중성 및 종성이 결합하여야 한자음을 표음하는 글자가 된다고 훈민정음 제정자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한글보다 170여 년전에 파스파 문자를 만든 사람들과 같았다. 모두 고대인도의 滿字論과 중국 聲韻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5.2. 이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한자음"이란 의미의 訓民正音이 우리말, 즉 조선어를 표기하는 문자의 諺文이 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본고의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첨단적인 한글 연구자들이 한때 한글을 풀어 써서 /ㅇ/을 제외한 적이 있었지만 음절 단위로 써야 한다는 훈민정음의 정서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초성 + 중성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ㅇ/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言衆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5.3. 이것은 훈민정음의 <해례본>, <실록본>, <언해본>을 통하여 그 제자 원리와 정서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서양의 문자 이론에 의지하여 한글을 찬양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한글에 대한 <해례본>의 설명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한글이 우수한 문자인 것은 모음자를 최초로 制字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고대인도의 毘伽羅論이나 聲明記論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이론에 맞추어 문자를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완진 외 2인(1997), 金完鎭.鄭光.張素媛, 『國語學史』, 韓國放送大學校 出版部, 서울.

김주원(2016) 「세계 여러 문자의 모음 표기 양상과 훈민정음의 모음자」 『국어학』(국어학회) 80, 77-108.

송기중(2016) 「서평 정광 저 『몽고자운 연구』」, 『알타이학보』 26, 157-180.

이기문(2008) 「訓民正音 創制에 대한 再照明」, 『韓國語硏究』 5, 5-45

이기문·김진우·이상억(2000) 『개정증보판 국어음운론』, 학연사, 서울.

졸 고(2002) 「훈민정음 중성자의 음운대립」, 『문법과 텍스트』(서울대학교 출판부), 31-46.

____(2009a) 「훈민정음 中聲과 파스파 문자의 모음자」, 『국어학』(국어학회)56, 221-247.

____(2009b) 「訓民正音の字形の獨創性-『蒙古字韻』のパスパ文字との比較を通して-」, 『朝鮮學報』(일본朝鮮學會) 211, 41-86.

____(2011) 「<蒙古字韻>喩母のパスパ母音字と訓民正音の中声」, 『東京大學言語學論集』(東京大學言語學科)31, 1-20.

____(2013) 「<월인석보>의 舊卷과 훈민정음의 언해본 -正統 12년 佛日寺판 <월인석보> 옥책을 중심으로-」, 『國語學』(國語學會), 68, 3-49.

____(2016a) 「毘伽羅論과 훈민정음--파니니 <八章>에서 받은 한글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 『한국어사 연구』(국어사연구회) 2, 113-179.

____(2016b) 「反切考」(日文), 國際譯學書學會 第8次國際學術大會(일시: 2016년 7월 30~31일, 장소: 일본 요코하마 鶴見대학)의 기조 특강.

____(2017) 「훈민정음의 중성과 欲母」, 제68회 조선학회대회(주최: 일

본 朝鮮學會, 장소: 東京早稻田대학, 일시: 2017년 10월 7~8일).
졸 저(2006)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서울.
_____(2009) 『몽고자운 연구』, 博文社, 서울.
중문판(北京: 民族出版社, 2012), 일문판(東京: 大倉, 2015)
_____(2012)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도서출판 역락, 서울
_____(2015) 『한글의 발명』, 김영사, 서울.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上.下, 서울신문사 出版局, 서울.
홍윤표(2017) 「<초학자회(初學字會)>」, 국어사학회 월례발표회(일시: 2017년 3월 18일,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발표요지,
遠藤光孝(1994) 「<四聲通解>所據資料編纂過程」, 『論集』(青山學院大學)35, 117-126.
尾崎雄二郎(1962)「大英博物館本 蒙古字韻 札記」, 『人文』8, 162- 180.
中村雅之(1994) 「パスパ文字漢語表記から見た中期モンゴル語の音聲」, 『KOTONOHA』 1, 1-4.
_____(2003) 「四聲通解に引く蒙古韻略について」, 『KOTONOHA』 9, 1-4.
服部四郎(1984) 「パクパ字(八思巴字)について-特にeの字とėの字に関して (一、二)」, 服部四郎(1993: 216-235).
_____(1993) 『服部四郎論文集』(卷3), 三省堂, 東京.
吉池孝一(2005) 「パスパ文字の字母表」, 『KOTONOHA』(古代文字資料館) 37號, 9-10.
_____(2008) 「原本蒙古字韻再構の試み」,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국제학술 Workshop』(주최: 한국학 중앙연구원, 일시: 2008년 11월 18일~19일,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2층 세미나실, Proceedings pp. 141-260.
寧忌浮(1992) 「蒙古字韻校勘補遺」, 『內蒙古大學學報』(1992.8), 9~16.
_____(1994) 「『蒙古字韻』與 『平水韻』」, 『語言硏究』(1994.2), 128-132.

羅常培·蔡美彪(1959) 『八思巴文字與元代漢語』[資料汇編], 科學出版社, 北京.

沈鍾偉(2015) 『蒙古字韻集交』, 商務印書館, 北京.

照那斯图·楊耐思(1984) 「八思巴字研究」, 『中國民族古文字研究』, 中國民族古文字研究會, 374-392.

照那斯图·楊耐思(1987) 『蒙古字韻校本』, 民族出版社, 北京.

洪金富(1990) 『元代蒙古語文的教與學』, 蒙藏委員會, 臺北.

Daniels, Peter T. (1990), "Fundamentals of Grammatology," *Journal of American Oriental Society*, No. 110, 727-730.

Grierson, G. A. (1919), *Linguistic Survey of India*, Vol. 8, 1990년 재판.

Pauthier, G. (1862), "De l'alphabet de P'a-sse-pa," *Journal Asiatique*, ser. 5(19), 1-47.

Pelliot, Paul (1925), "Les systèmes d'écriture en usage chez les anciens Mongols", *Asia Major*, vol. 2, 284-289.

Poppe, N. (1957), *The Mongolian Monuments in ḥP'ags-pa Script*, Second Edition translated and edited by John R. Kruger, Wiesbaden: Otto Harrassowitz.

_____(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Pozdneev, A. M. (1895~1908), *Lektsīi po istorīi mongol'skoĭ literatury,* vol. I-III, Vladivostok: Tipo-lit. pri Vostochnom Institutiē.

Robins, R. H. (1997),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Linguistics Library, Fourth Edition.

한국대학생의 나눔경험이 향후 기부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rosocial Behavior Experience on Donation Intentions in the Future

趙衡範[1]
同志社大学大学院

1. 서론

영국 자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기부지수는 세계 153개국 중 64위에 그치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Charities Aid Foundation 2015). 개인 기부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 기부금 규모는 약 12조 5천원으로 추산된다(고경환외 2015). 적지 않은 규모 임에는 틀림없으나,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경제수준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만족 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기부의 양적 규모 큰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가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를 위한 건전한 재정의 비영리단체의 육성을 위해, 현재 우리 사회에 자선적 기부에 대

1 Hyung Beom Cho (Doctoral Program, Graduate School of Policy and Management, Doshisha University)
E-mail : hohobumi@gmail.com

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적어 보인다. 그 배경에는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증가하는데 반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 장기불황, 정부의 재정 수입의 한계 등과 같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 관점에서 논하자면, 기부문화의 성숙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 및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공고히하고 호혜성을 증진시키며 상호간 연계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Bekkers 2003: 596-615).

전술한 바와 같이, 기부의 필요성과 기능성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기부행동 그리고 시민의 개개인에 의한 기부행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우선 기부행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창순외 2002: 30-37;홍종필외 2004: 256-301;Sargeant외 2007: 257-307).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외에도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기부방식과 기부방식의 편리성 등이 기부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ervish외 1997: 235-260, 김근령 2000). 또한, 일반적으로 연령과 종교는 기부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령과 기부행동의 정적 상관관계는 소득의 증대와 함께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인하여 점차 자선적 기부에 대한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고 사회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젊은 세대일수록 기부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과거보다 두드러짐에 따라 향후 기부를 통한 비영리 조직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결과도 있다(Smith 2012). 특히, 최근 높아져만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과 “오포세대[2]” 라는 신조어로 대변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과 관련 지어

2 “오포세대”란 신조어로서, 사회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한 사포세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2030세대를 말한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23560&plink=ORI&cooper=NAVER, 2016.12.06)

생각해보면, 젊은 세대의 자선적 기부참여는 비영리 부문의 건전한 재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이 풍요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기부자나 재력을 갖춘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는 비교적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학생 기부자 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기부금액 역시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부 관련 선행연구들이 아직 주안점을 두고 조사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기부자로서 대학생의 기부행동 연구는 기부문화의 조성 및 정착을 위해 중요한 대상임을 착안하였다. 또한 "한 번 기부에 참여한 경험자는 계속하여 기부 할 가능성이 높다(이상철 외 2010: 117-149;노은별 2008;안효금 2005;유수진 2000)"는 직접적인 기부경험과 기부행동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부모의 나눔행위의 관찰, 나눔교육의 참여, 나눔관련 미디어 시청 경험이 등과 같은 간접적인 나눔경험이 기부행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연구결과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접경험뿐 만 아니라 간접경험(관찰학습) 또한 개인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직·간접적인 나눔경험에 주목하였다. 본인의 직접적인 나눔경험, 부모의 나눔참여의 관찰경험, 나눔교육의 경험, 나눔관련 미디어 시청 경험이 대학생들의 향후 기부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2.1. 기부와 나눔 개념

본 연구에서의 '기부'란 자선적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금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한다[3]. 즉, 개인이 이타주의 실천을 위하여 어려운 개인이나 이웃을 위해, 선행의 돈이나 물품 및 능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기존 기부연구에서 '기부'를 기부의 형태에 따라 '현금기부', '현물기부' 그리고 '시간기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물질기부', 그리고 '시간기부'를 '자원봉사'로 명명하는 경향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통념적으로 '물질기부'라는 용어보다는 '기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는 논의에서는 '물질기부'는 '기부'라는 용어로 총칭하고자 한다. 또한 '물질기부'와 '자원봉사'를 통칭하는 행위로는 '나눔행위', 이에 대한 경험을 '나눔경험'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사회학습이론과 나눔경험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은 경험에 의해 발생되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학습을 통한 행동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경험이다(Chance 1994). Bandura(1974)의 사회학습이론에서도 학습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진 다양한 종류의 행동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Bandura는 관찰학습이란 다른 사람(모델)의 행위를 흉내 내는 단순한 모방보다는

3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정, 노숙인 등을 돕기 위하여 모금함에 돈을 넣는 것, 사랑의 열매나 구세군냄비에 기부하는 것,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해피빈과 같은 인터넷기부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는 것, 아름다운가게에 자신의 물품을 기부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종교적인 기부(헌금, 십일조 등) 및 보시 등은 기부에서 제외한다.

훨씬 복잡한 개념으로써, 학습한 것을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 유리하게 행동하는 정보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모델을 관찰하고 학습한 내용을 모두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직접적인 외부적 강화(reinforcement)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과거에 경험한 결과를 거울삼아 어떤 종류의 행동이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어떤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의 경험은 실제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대리경험 또는 관찰과 같은 간접경험 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사람은 직접경험뿐만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들(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학습에 의해서도 어떤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때 학습한 내용을 모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며, 학습한 내용을 통해 인지적 과정에 따라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학습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모델)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람(모델)을 본보기로 하여 행동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믿는데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에 있어서 부모 및 가까운 주변인들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특히, 아동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이타적인 행동들은 자녀의 이타성을 학습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을 통한 학습이 행동변화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부행동에도 이 이론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눔과 관련한 다양한 관찰경험은,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학습과정을 통해 기부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기부행동과 나눔경험과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황창순과 강철희(2002: 30-37)는 어린 시절에 본인 스스로 친구나 이웃을 물질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준 경험이 있거나 자선모금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기부노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시절의 직적접인 나눔경험은 학습의 결과로 인하여, 성인으로 성장 하였을때 기부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나눔경험과 기부행동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Eisenberg(1990: 131-149)은 또래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직접 경험해 본 아동의 경우, 학습의 결과로 인해 향후에도 기부 및 자원봉사와 같은 도움 행동(helping behavior) 및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자면 직접적인 나눔경험은 기부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정리 할 수 있다.

한편 나눔경험이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 및 청소년기의 나눔경험들이 성인이 되어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으로 연결 혹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철희 2003: 161-2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던 직접적인 본인의 나눔경험 뿐 만 아니라, 교육경험 및 관찰경험과 같은 간접적인 나눔경험이 향후 기부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려 한다.

2.3.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기부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나눔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나눔경험과 기부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통계적 통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심리적 변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기부행동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이 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상존

한다. ‘여성’이 기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Bekkers 2004)와, ‘남성’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남성이 기부참여가 높다는 연구결과(김태홍외 2007: 83-105)도 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한다는 연구는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다(박태규외 2008: 79-100).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일수록 기부행위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는 연구(강철희외 2008: 1-38;강철희외 2009: 215-254)뿐 만 아니라,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연구(박태규외 2008: 79-100)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던 성별, 종교,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변수로서의 공동체의식과 기부행동에 관련한 논의이다. McMillan(1986: 53-76)은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이 소속감, 구성원들의 서로의 중요성을 인지 하는 것,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 된다고 믿는 것이라 정의 하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참여의 한 수단인 기부행동을 예측하는 한 요인으로 보고 되어 왔다. 기부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 및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기부 내적 및 외적 동기, 즉 기부태도에 영향을 주고, 기부행동에도 정적인 영향력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석훈 2009;이창식외 2013: 725-734). 또한,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람은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石盛외 2012: 22-29). 이처럼 공동체의식은 기부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변수로서 공동체의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학생으로 대학생 표집을 위하여 대전시, 용인시, 수원시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 사회과학계열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다. 조사의 절차는 먼저 본 조사의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각 대학의 교수에게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의 취지에 동의한 교수의 각 소속 대학교에 조사원이 강의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문의 목적 및 윤리적 배려(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에 동의 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기부 및 NPO의 개념과 같이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설문조사 전 약 10분간의 사전 설명을 진행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A대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 조사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204부의 설문지 중 결측값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20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부의향의 유무로 “귀하는 올해 또는 내년에 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 “없다”, “모르겠다”로 측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기부의향이 있다는 “1”로, 기부의향이 “없다”와 “모르겠다”는 “0”으로 이분형 코딩하였다.

3.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직접적인 나눔경험변수와 간접적인 나눔경험변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나눔변수로는 본인의 기부경험(1=있음), 본인의 자원봉사경험(1=있음)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간접적인 나눔경험변수로는, 부모의 기부행위의 관찰경험의 유무(1=있음), 부모의 자원봉사 참여의 관찰경험의 유무(1=있음), 나눔교육의 경험의 유무(1=있음), 나눔 관련 미디어 시청경험의 유무(1=있음)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변수는 분석을 위해 이분형으로 코딩하였다.

3.2.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성별(1=여성), 신앙여부(1=있음), 주관적 소득수준(1-5까지 범위)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심리학적 변수로는 공동체의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을 측정 하기 위해 최영아(2005)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8문항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점수의 합이 높을 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설계하였다.

3.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 척도 변수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구하였으며,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직・간접적 나눔경험이 기부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기부의향을 종속변수로 성별, 신앙, 주관적 소득수준, 공동체의식을 통제변수로 본인의 나눔경험, 부모의 나눔참여 관찰여부, 나눔교육의 경험여부, 기부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4]을 시행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125명, 62.2%)로 남성(76명, 3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88명(43.8%), 비종교인이 113명(56.2%)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계의 소득수준은 평균 2.77점으로 중간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적 변수로 공동체의식 척도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α=0.803으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의 평균값 3.23(SD=.57)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조석훈(2009)의 연구에서의 대학생의 공동체의식의 평균값 3.27(SD=.628)과 비교적 비슷한 결과로, 공동체의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 조사대상자의 본인의 직접적인 나눔경험을 살펴보면, 먼저 기부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2명(80.6%)이었고, 39명(19.4%)이 기부경험이 없었다. 자원봉사 경험의 경우, 경험자가 187명(93.7%), 비경험자가 14명(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모두 나눔행위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기

4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관계에 로짓함수를 적용하여 종속변수의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또한 모형 적합도는 -2LL 우도로 확인하며 상수항으로 구성된 모형과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모형간의 카이자승 차이값으로 모형의 유용성을 평가 할 수 있다. 회귀계수는 wald 의 유의여부로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하며 종속변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e-β를 사용하며 또한 각 회귀계수의 효과를 비교 할 수 있다.

부 및 포인트 기부 등의 활성화로 모금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생의 재능기부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간접적인 나눔경험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기부참여를 관찰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3명(51.2%), 부모의 자원봉사 참여를 관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명(36.8%)으로 부모의 기부참여를 관찰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기부참여의 관찰이 높은 이유는 대학생에 비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적은 부모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참여 보다는 금전적인 참여가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눔교육의 경우에는 112명(56%)이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TV,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로부터 기부 관련 기사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1명(80.1%)으로 미디어매체를 통한 간접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의향은 “귀하는 올해 또는 내년에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 총201명을 분석한 결과, 기부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자 수는 95명(47.3%)으로 나타났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라고 응답자 수는 106명(52.7%)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변수	요인	변수(M±SD)	내용	빈도
통제변수	일반적 사항	성별	남자	76
			여자	125
		신앙	있다	88
			없다	113
		주관적 가계소득 (2.77±0.79)	하	13
			중하	50
			중	109
			중상	27
			상	2
	사회 심리학적요인 (공동체의식)	8문항으로 구성된 5점척도 (3.23±0.57)	최소값	1.88
			중위값	3.25
			최대값	4.88
독립변수	직접적인 나눔경험	본인의 기부경험 유무	있다	162
			없다	39
		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	있다	187
			없다	14
	간접적인 나눔경험	부모의 기부참여 관찰 유무	있다	103
			없다	96
		부모의 자원봉사참여 관찰 유무	있다	74
			없다	127
		나눔교육경험 유무	있다	112
			없다	88
		나눔 관련 미디어 시청 유무	있다	161
			없다	39
종속변수	기부의향	올해 또는 내년의 기부의향 유무	있다	95
			없다, 모르겠다	106

4.2. 각 변수간의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회귀분석 시행에 앞서 각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며, 아울러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상관계수의 최대치가 0.298(나눔교육경험과 공동체의식)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 한 결과, 범위가 1.05~1.27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Multicollinerarity)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는 본인의 기부경험, 부모의 기부관찰, 나눔교육경험, 나눔 관련 미디어 시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성별	신앙	주관적 가계 소득수준	공동체 의식	본인의 기부경험	본인의 자원봉사경험	부모의 기부관찰	부모의 자원봉사관찰	기부 교육경험	기부 관련 미디어시청	기부 의향
성별	1										
신앙	0.077	1									
주관적 가계 소득수준	-0.077	-0.042	1								
공동체 의식	0.015	-0.023	0.08	1							
본인의 기부경험	-0.007	0.053	0.068	0.076	1						
본인의 자원봉사경험	-0.028	0.044	-0.077	0.044	.212**	1					
부모의 기부관찰	0.033	-0.085	0.129	0.095	.185**	-0.05	1				
부모의 자원봉사관찰	0.043	-0.091	0.046	0.115	0.062	0.128	.258**	1			
나눔교육경험	0.062	-0.035	0.028	.298**	0.123	0.073	.181*	0.116	1		
기부 관련 미디어 시청	-0.121	-0.09	0.099	.175*	0.113	0.066	0.022	0.137	.195**	1	
기부의향	-0.101	-0.112	0.041	.143*	.238**	-0.015	.242**	0.021	.218**	.317**	1

*P<.05, **P<.01, ***P<.001

4.3. 기부의향에 대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기부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나눔경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기부의향의 영향요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5]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기부의향에 대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n=201)

	B	S.E.	Wald	유의확률
성별	-0.378	0.341	1.226	0.268
신앙	-0.455	0.333	1.868	0.172
주관적 가계소득 수준	-0.111	0.209	0.281	0.596
공동체의식	0.144	0.299	0.234	0.629
본인의 기부경험	1.39**	0.497	7.831	0.005
본인의 자원봉사경험	-0.731	0.706	1.072	0.3
부모의 기부관찰	0.859**	0.326	6.932	0.008
부모의 자원봉사관찰	-0.586	0.358	2.682	0.101
기부교육경험	0.736*	0.348	4.486	0.034
나눔 관련 미디어 시청	1.77***	0.483	13.457	0
상수항	-2.591	1.341	3.733	0.053

Chi-square:51.290 (df=10. P<.001) -2Log likelihood 225.468 Nagelkerke R2=.302
*p<0.05, **p<0.01, ***p<0.001

먼저 직접적인 나눔경험요인에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기부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부의향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나눔경험(기부 및 자원봉사)이 향후 기부행동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상철외 2010;Kniwles외 2012;조석

5 카이제곱값은 Hosmer와 Lemeshow의 검정 통계량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 적합도를 보여준다. 이는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모형의 카이제곱값이 3.066이고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가 없음으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71%로 나타났다.

훈 2013)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부경험은 향후 기부의향에 영향을 주지만, 자원봉사경험은 향후 기부의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나눔경험 요인에서는 부모의 기부관찰(+), 기부교육경험(+), 나눔 관련 미디어 시청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향후 기부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부를 관찰하거나, 나눔교육과 나눔 관련 미디어 시청을 통해 기부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이러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 보다 향후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기부행동은 지속적인 나눔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학습과정을 통해 기부행동이 발생한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에 간접적인 나눔경험 요인 중, 부모의 자원봉사 관찰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인의 직접적인 기부경험과 관찰을 통한 기부관찰경험은 향후 기부의향에 영향을 주지만, 본인의 자원봉사 경험이나 부모의 자원봉사관찰경험의 경우에는 향후 기부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눔경험의 형태와 기부행동의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나눔경험 형태와 기부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건전한 재정의 비영리단체의 육성을 위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자선적 기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예비 사회인으로 대학생들의 자선적 기부참여는 비영리부문의 재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사

회자본이 풍요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생의 기부 및 직·간접적인 나눔경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진한 실정으로, 대학생 기부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눔경험과 관련된 기초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탐색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나눔경험요인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기부의향에 영향요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였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 신앙, 주관적 가계소득수준, 공동체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먼저 직접적인 나눔경험요인에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기부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부의향과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나눔경험 요인에서는 부모의 기부관찰(+), 나눔교육경험(+), 나눔관련 미디어 시청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향후 기부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론과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부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회학습이론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간접적인 나눔경험(부모의 나눔행위의 관찰경험, 나눔교육경험, 나눔 관련 미디어 시청 경험)과 기부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검증한 점은 본 연구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연구와는 달리 나눔경험의 형태에 따라 기부참가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점은 향후 관련 연구를 촉발하는 기초적 연구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직·간접적이 나눔경험이 기부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을 밝힘으로서 사회전반에 나눔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할

근거를 제시해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기부경험과 나눔교육 경험은 향후 기부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는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계층간 신뢰 및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강화 시킴으로서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강철희외 2008), 사회 전반에 걸쳐 나눔교육을 확대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촉진 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학생 기부는 현재 기부의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록 낮지만, 기부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부 촉진 캠페인을 기획, 실시 할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본인의 기부경험, 부모의 기부관찰 경험, 미디어의 시청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부캠페인을 설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손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기부참여의 방법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 기부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병행 하는 전략을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눔교육이 기부의향에 정적 영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눔교육의 중요성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시사해 준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 대표적인 모금기관들이 나눔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방법 및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있는데, 나눔 및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은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관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고 체계

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기부관찰 경험이 자녀의 기부의향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부모를 중심으로 한 나눔교육이 매우 중요한 주춧돌임을 제시한다. 현재 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나눔교육이 가정으로 연계되어 진행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정, 지역사회, 기관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부행동이 아닌 기부의향을 측정하였기에 때문에 실제 기부행동을 측정했을 때에는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은 편의표집을 통해 조사한 연구결과로서,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률적 표집 방법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어 일반화에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철희(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한국비영리학회, 161-205.

강철희·고언정·정혜영(2009)「기부노력에 대한 기부동기와 기부대상 인지매체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15-254.

강철희·정무성(2002)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한국사회복지학회 343-378.

강철희·주명관(2007) 「기부대상영역에서의 기부참여행동과 기부정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2), 한국비영리학회, 89-137.

강철희·주명관(2008)「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사회복지행정학』 10(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38.

고경환외(2015) 『나눔실태2014』,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김근령(2000)「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후원 행동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태홍·김난주·권태희(2007)「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평가」, 『한국인구학』 30(3), 한국인구학회, 83-105.

노은별(2008)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수용자 변인이 후원 캠페인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규·윤병호·정진욱(2008)「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한국재정학회, 79-100.

안효금(2007)「직장모금 캠페인 기부자들의 기부만족과 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이상철·홍환·박언하(2010)「정기적 기부 및 자원봉사 제고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17-149.
이창식·송국범(2013) 「청소년의 기부와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725-734.
유수진(2000) 「기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석훈(2009)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아(2005) 「지역사회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과 참여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종필·김유경(2004)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 행동 촉진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효과에 관한 연구: e-카드 사용자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8(1), 한국PR학회, 256-301.
황창순·강철희(2002)「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자선적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 한국비영리학회, 30-37.
石盛 真徳·岡本 卓也·加藤 潤三 (2013) 「コミュニティ意識尺度 (短縮版) の開発」, 『実験社会心理学研究』 53(1), 22−29.
Bandura, A. (1974)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Prentice Hall.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Bekkers, R. (2003) 'Trust, accreditation, and philanthropy in the Netherlands', Nonprofit and Quarterly32(4), 596-615.
Bekkers, R.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Ph. D. Dissertation, Utrecht University.
Eisenberg, N.,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 131-149.

McMillan, D. W.,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0, 53-76.

Sargeant, A., Woodiffe L. (2007) 'Gift giving: An interdisciplinary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2(4), 657-307.

Schervish, P. G., Havens, J. J. (1997). 'Social participation and charitable giving: A multivariate analysis', Voluntas 8(3), 235～260.

Smith, S. (2012) *The Growing Generational Divide in Charitable Giving: A Research Paper*, Charities Aid Foundation.

일제가 조작한 『인구정책확립요강』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The Reactionary Nature of the 'Outline for Population Policy Establishment' Compil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조희승[1]
조선사회과학원

인구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세우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인구과정을 조절통제해 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물론 인구문제와 그 정책은 계급사회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인간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

일제는 지난날 인구문제를 당시 저들의 침략정책에 따라 결정하였다. '명치유신'후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일본은 그 첫걸음부터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섰으며 20세기초부터는 조선을 비롯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통치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다. 침략과 략탈을 떠난 제

1 Hui Sung Jo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다.'(김정일전집 제4권 46페지)

일본자본주의의 걸음걸음은 침략으로 일관되였고 학살과 략탈, 파괴와 말살이 동반되였다.

일본제국주의에 있어서 인구정책은 이러한 피비린 침략을 담보해주는인적자원의 근본해결책이였다.

그런데로부터 이 시기 일본의 인구정책은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발전을 유린하고 오직 일본제국주의의 탐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침략적인 정책을 뒤받침한것으로 하여 반동적본질을 내포하고있다.

1941년 1월 22일 일본각의에서 결정된『인구정책확립요강』은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추구한 인구정책의 반동적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한 실례이다.

1940년대는 일본제국주의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시기였다.

이 범죄적인 침략전쟁에서 인구문제는 일제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였으며 저들이 추구하는 범죄적목적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 그 정책이 설정되게 되였다.

『인구정책확립요강』은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에 깊숙히 빠져들고 장차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던 때에 제창되였다.

그러므로 이 인구정책안은 일제가 저들의 침략정책의 집행수단으로 작성하고 비준공포한것이였으며 그로부터 자기의 범죄적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놓게 되였다.

이 인구정책안은 일제가 일본은 물론 식민지나라들에서 인적자원징발을 위해 조작한것이였으며 다른 나라, 다른 민족 특히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강요당한 나라들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부정적영향을 준것이였다.

그러므로 그 본질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이 문제연구에서 자못 중요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서 일제가 조작한 『인구정책확립요강』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일제가 조작한 『인구정책확립요강』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일제가 추구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침략정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데 있다.

일제는 『인구정책확립요강』조작의 취지에서 '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 그의 영구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것은 황국의 사명'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인구문제연구회 1942: 2).

일제가 떠든 '대동아공영권'은 한마디로말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내놓은 독점적식민지 '세력권'에 대한 침략망상이였다.

1938년 11월 제1차 고노에반동내각은 이른바 '동아신질서건설성명'이란것을 내놓았으며 이것은 1940년 7월 제2차 고노에반동내각이 내놓은 '기본국책요강'과 '세계정세의 추이에 따르는 시국처치요강'에 의하여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침락적망상으로 보충확대되였다.

당시 외상이였던 마쯔오까는 석유를 비롯한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지역에로 침략을 확대할것을 기도하면서 일본, 만주, 중국을 골간으로 하고 여기에 남양을 첨가한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력설하였다.

그 후 구체적인 '대동아공영권건설안'은 일제군부의 통제밑에 있던 '총력연구소'에 의하여 완성되였다.

1931년에 '9.18사변'을 도발로 중국동북지방을 강점하고 1937년 '7.7사변'을 도발하여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일제는 1940년에는 인도지나반도 북부지역을 강점하였다.

침략전쟁에서 령토팽창야망에 더욱 불타오른 일제는 1940년 9월에 일본, 도이췰란드, 이딸리아의 '3국군사동맹'을 체결하여 아시아에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하려고 날뛰였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그 실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담보할수 있는 인구였으며 그것을 정책적으로 규정한 국가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이였다.

그런데로부터 일제는 시급히 인구정책을 결정하게 되였는데 인구정책의 대의명분을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이라고 그 침략적목적을 드러내놓게 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대동아공영권'건설이 세기를 두고 완성해야할 문제이며 그 기초가 일본인구의 대대적인 증식에 기초한다는것이였다.

『인구정책확립요강』이 일본각의에서 결정된 해인 1941년 11월 제5차 인구문제전국협의회가 개최되였는데 여기에서 이 요강을 시급히 실천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인구정책실시촉진에 관한 건의서'가 채택되였다.

이 '건의서'에서는 명백히 일본의 '현하 지나사변성전완수와 동아공영권건설의 중대사명에 대응하여' 일본정부가 '인구정책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할것'(인구문제연구회 1942: 4)을 요구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일제는 『인구정책확립요강』의 요소요소에서 침략적인 '대동아공영권'건설이 인구정책의 기본정신이며 기초로 된다는것을 집요하게 설교하고 강압적으로 실현하려 하였다.

일제는 『인구정책확립요강』에서 "황국의 사명달성(즉 '대동아공영권'-인용자)은 내지인(일본인-인용자) 인구의 량적 및 질적발전을 기본조건으로 한다는 인식을 철저히 할것"(인구문제연구회 1942: 2)을 중요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즉 인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가 총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 지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동아공영권'의 침략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결국 일제가 조작공포한 『인구정책확립요강』이란 본질적으로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이라는 지배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침략적이며 반동적

인 인구정책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일제가 조작한 『인구정책확립요강』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일본의인구정책이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병력 및 로동력의 확보에 있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인구정책확립요강』에서 일본인구의 '급격하고 또 영구히 계속적인 발전증식과 그 자질'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릉가하도록'하는것을 인구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 목표의 근본목적은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 지배를 위하여 그에 소용되는 대량적인 병력과 로동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것이 였다.

일제는 인구장성과 관련한 정책을 "고도의 국방국가에 있어서 병력 및 로동력의 필요한 확보"(인구문제연구회 1942: 2)라고 로골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대량적인 인구증식의 목표를 초보적으로 1960년까지 총인구가 1억명에 이르게 한다는데 있다고 규정하였다(인구문제연구회 1942: 2).

이 시기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저들의 침략대상으로 식민지로 만들 야망을 품은 일제는 당시의 현존일본인구로써는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인구문제연구회 기획원 조사관이였던 미노구찌 도끼지로는 『인구정책확립요강』에 관하여 발언하면서 "오늘 지나(중국-인용자)라고 하는 나라만을 상대로 하는 정도의 전쟁에서조차 이 정도로 로력이라든지, 병력에 부족을 느낀다고 하는것은 좀처럼 장래 대동아의 공영권을 지켜간다는것이 도저히 불가능한것(인구문제연구회 1942: 4)"임을 보여준다고 당시의 형편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 고백은 비교적 솔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당시 일본의 인구형편은 대륙침략전쟁을 벌려놓은 일제에게 있어서 파국적이였다.

'9.18사변'으로 중국동북지방을 타고앉아 중국관내로 침략할 야망을

품고있던 일제는 '7.7사변'을 도발하고 대규모적인 병력을 중국 화북전선에 들이밀었다.

7월 말에는 베이징과 천진을 점령한데 이어 8월 중순에는 해군무력까지 끌어들여 상해를 공격하였다.

일제는 대병력으로 중국을 공격하여 '속전속결'로 전쟁을 결속하려 하였지만 중국인민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쳐 전선은 넓은 지역에 확대되였을뿐 장기전으로 넘게 되였다.

전쟁의 장기화는 일제에게 있어서 전선에 투입할 병력과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로동력확보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게 하였다.

인적자원의 확보가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것은 우선 1931년 '9.18사변'을 계기로 벌어진 중국경내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일제침략군이 대량적으로 녹아나고 군사동원력이 한계점에 이르게 된것과 관련된다.

1931~1935년까지의 기간에 일본륙군의 사상자수는 약 17만(륙군총무력의 근 37%)에 달하였다(천황 천황제의 력사 1986: 84).

그런데 1937년 7월부터 1939년기간의 륙군사상자만 하여도 매달 7400여명이였고 2년 반동안에 무려 22만 2000여명으로 늘어났다(일본파시즘과 동아시아 1977: 15).

1931~1939년기간에 일제침략군의 전상자와 부상자의 수는 60만명(중국전선에 투하한 병력의 약 60%)에 달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였다(일본파시즘과 동아시아 1977: 14-15;태평양전쟁사 1972: 150). 결국 이것은 중국령토에 대한 일제의 무력침공이 계단식으로 확대되는데 따라 군사동원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준다.

1938년 당시 중국에 전개된 일제침략군수는 100만명에 달하였지만 일본본토에는 1개사단정도의 무력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한 출판물에는 "전쟁(중일전쟁-인용자)개시이래 일본군은 명백한 전망도 없이 화북으로부터 화중에, 더우기 화남까지 전쟁을 확대하였지만 한구, 광동작전의 전개에 의하여 군사동원력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1938년 말에는 륙군은 내지(일본-인용자)에 고노에사단만이 남아있게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태평양전쟁사 1972: 162).”고 밝혔다. 이러한 형편에서 당시 일제침략군의 나이별구성을 보면 징병나이에 이른 자는 적고 장년, 로령의 병사들이 대다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선이 넓어지는 형편은 일제에게 있어서 병력의 절대적부족을 초래하였다.

일본국내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로동력의 부족도 심각한 형편이였다.

로동력의 부족은 우선 일본산업이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산업으로 전환되고 대량적으로 확대된것과 관련된다.

당시 일본의 철생산량가운데서 선철생산량의 85%, 강재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야하다제철소에서는 침략전쟁확대에 필요한 군대초모에 의하여 로동력이 1937년 말 현재 약 12%나 감소되였고 미쯔비시중공업, 히다찌기계제작소를 비롯한 중공업문에서도 로동력부족이 심각하였으며 그 후과로 생산능력을 훨씬 넘는 군수품조달계획을 미처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였다(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의 기록 1974: 63-64).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한 출판물에서는 “전쟁전야에 있어서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로동력부족은 명백히 나타났다. 1937년 6월 말 202개 공장을 조사한데 의하면 다음해의 직공부족예견수는 견습로동자 17%, 경험이 없는 로동자 29%, 경험로동자 27%, 숙련로동자 24%에 달하여 생산력확대의 장애로 될수 있었다(태평양전쟁사 1972: 177).”고 밝혔다.

일본에서 출생률의 감퇴도 로동력부족의 원인이였다고 할수 있다. 당시 일본의 로동력구성에서 가장 주력을 이룬것은 15~24살 정도의 청년들이였는데 이들은 병력과 로동력을 구성한 기본력량이였다.

그런데 그 나이를 보장할 인구장성률이 1914~1918년의 제1차세계대전시 침략전쟁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1930년대에 들어와 그 영향으로 로동할 나이에 이른 청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청년로동력의 부족은 '9,18사변'후 해마다 늘어나 중일전쟁 개시이래 한해에 5만명이상에 달하여 군수부문에 대한 로동력공급도 미처 보장하지 못할 형편에 있었다.
게다가 조선과 만주에 식민지지배를 위한 일본인들의 대량이주도 로동력감퇴를 가져오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가 일본국내에서는 물론 조선을 비롯한 모든 식민지나라와 지역들에서 대량적인 인적자원 략탈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인구정책확립요강』은 바로 이처럼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의 절실한 필요로부터 제창된것이였다.

일제는 병력 및 로동력의 수효를 위한 대책에서 강제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정신배양을 추구함으로써 그 반동적본질을 드러내놓았다.
우선 일제는 일본인구의 량적발전을 위하여 강압적인 출생률의 증가를 획책하였다.

출생률의 증가에서 기본방책으로 선정된것은 『인구정책확립요강』발포 이후 10년간의 혼인나이를 당시에 비하여 대략 3년 이르게 한다는것과 한부부에서 출생자수를 5명으로 하는것을 목표로 한다는것이였다(인구문제연구회 1942: 2).

1939년 당시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결혼나이를 보면 보통 남자는 25~29살, 녀자 20~24살이였다(조선에 있어서 인구에 관한 제통계 1943: 46).

이것이 당시 일본인들의 평균결혼나이라고 볼 때 이 시기 일본인들은 미성년을 벗어나자 곧 결혼을 강요당하게 되였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구정책확립요강』의 실무세칙의 하나인 '인구증가의 방책'에서 20살이 넘는 녀자고용자는 될수록 고용하거나 취업을 억제할것을 규정한것으로 보아도 이 시기 일제가 일본인녀성들의 결혼나이를 20살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인구문제연구회 1942: 2).

결혼은 인구재생산의 사회적형식이지만 본질상 사회적존재인 사람들

즉 남녀쌍방의 사회적관계이다.

결혼관계, 혼인관계는 해당 사회제도 특히 혼인제도와 도덕관계, 풍습 등에 의존한다.

더구나 결혼은 인간의 자주적권리의 하나로서 그것을 그 어떤 목적추구를 위하여 강요하는것은 초보적으로 인륜에 저촉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는 '대동아공영권'건설이라는 지배주의적인 침략야망으로부터 그 실현을 위한 병력 및 로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반인륜적인 결혼제도를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강박하였던것이다.

일제는 군국주의적인 결혼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단체 또는 국가기관등으로써 적극적으로 결혼을 소개, 알선, 지도'할것을 규정하였고 '결혼비용의 철저한 경감을 도모하는것과 함께 결혼자금대부제도를 창설'할 것도 규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사람들의 참다운 결혼과 복리를 위해 그 무슨 혜택을 베푸는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강제가 동반된 기계적이며 계획적인 결혼으로 미리 계산된수의 병력 및 인력원천을 생산해내기 위한데로부터 고안하고 강요한 반동적인 결혼제도의 실시였던것이다.

또한 일제는 병력 및 로동력생산에서 군국주의정신을 부식시키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인구정책의 반동적본질을 드러내놓았다.

일제의 인구정책이 '대동아공영권'실현이 총적목표였다는것은 이미 론의되였다.

일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생산되는 병력 및 로동력원천생산공정에 '천황숭배정신'을 골수에까지 사무치도록 주입하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일제는 『인구정책확립요강』의 내용인 '인구증가의 방책'에서 "인구증가의 기본적전제로서 불건전한 사상의 배제에 노력하는것과 함께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강화를 도모할것"과 "고등학교 및 녀자청년학교

등에 있어서는 모성의 국가적사명을 인식시키며 … 철저하고 건전한 모성의 육성에 노력할것(인구문제연구회 1942: 2)"을 규정하였다.

침략전쟁도 곧 국가적사명으로 인식되여야 하는것이 당시 일제가 사람들에게 강요한 침략전쟁에 대한 리해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생산에서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려는데로부터 그들에게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국민은 그것을 반대하는 그 어떤 저항도 불건전한것으로 보고 대하도록 정신적주입을 강요하였다.

'인구증가의 기본적전제로서의 불건전한 사상'이란 본질상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일제의 인구정책에 대한 저항이며 '모성의 국가적 사명의 인식'이란 침략전쟁수행을 국가적사명으로 외곡인식시켜 가장 존중받고 지켜져야할 모성의 사명을 일본제국주의의 희생물로 전락시키 기 위한 범죄적인것이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작한 인구정책이 인간의 결혼과 인구재생산, 모성의 귀중한 사명까지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린 범죄적인 정책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일제는 이것을 조선에도 주입하여 이른바 '국민적자각'을 가지도록 강요하였다.

조선에서 일제의 인적자원략탈에서 정신적으로 강요된것은 조선사람들속에 일제 '천황'에 대한 숭배로 민족의식이 마비된 정신적불구자 들을 대량육성하여 병력 및 로동력으로 끌어내는것이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체계적으로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설교하였고 대륙침략전쟁에 내몰 '일본인화'된 조선사람들을 키워내려고 갖은책동을 다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대륙침략을 계기로 노예교육이 더욱 강행되고 지원병제도와 창씨개명이 강요되였다.

이에 대하여 인구문제연구회 기획원 서기관 무라야마 미쯔오는 '제5회 인구문제전국협의회'에서 '내선일체화정책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언

하면서 ‘사변(‘7.7사변’-인용자)이래 조선인의 국민적자각을 앙양시킬 기회를 포착하여 최근에 특히 강화전진시키고있다. 여기서 특기할것은초등교육의 보급, 지원병제도의 창시, 창씨개명의’ 3가지를 들수 있다고 하였다(인구문제연구회 1942: 22).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한 ‘국민적자각’이란 곧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황국신민’의 자각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일제는 인구정책에서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짜내기 위하여 가능한 반동적인 정신적 및 물질적수단을 다 동원하였던것이다.

일제가 조작한 『인구정책확립요강』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일본의 인구정책이 야마도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자는데 있었다는것이다.

이미 일제는 침략전쟁을 개시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동방 여러 민족들가운데서 야마도민족의우월성과 그 무슨 지도자적위치에 대하여 떠벌였다.

‘대동아공영권’이나 ‘팔굉일우’, ‘오족협화’와 같은 망발들은 모두 그 본질이 야마도민족을 동방의 여러 민족우에 올려세우고 타민족을 지배하려는 지배주의적야망의 발현이였다.

『인구정책확립요강』은 일제의 인구정책이 타민족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목적으로 한것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우선 일제는 저들의 인구정책이 타민족에 대한 지배를 위한것임을 로골화함으로써 인구정책의 반동적본질을 드러내놓았다.

일제는 『인구정책확립요강』에서 인구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본인들이 “대동아공영권의 확립, 발전의 지도자라는 긍지와 책임과 임무를 자각할것(인구문제연구회 1942: 2)”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추구한 인구정책이 타민족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총적목표로 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일제가 인구정책에서 일본인구의 대량적인 증식을 추구한것은 단순

히 침략전쟁에 소요되는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것만이 아니였다.

일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생겨난 식민지와 식민지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인적자원도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인들속에 야마도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는 허망한 우월감을 불어넣어 지배자, 통치자로서의 의식을 심어주는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고 보았다.

이런데로부터 일제는 일본인들속에 '건전한 해외이주사상의 보급'을 주장하였고 '우수한 개척이주자의 양성강화'를 추구하였다(인구문제연구회 1942: 2).

일제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이고 지배주의적인 의식이 없이는 식민지통치의 명분도 세울수 없으며 그것을 지탱할수도 없다고 타산하였다. 이것은 곧 일본인들속에 반동적인 지배주의적의식을 심어주는것과 함께 식민지민족들에는 민족허무주의와 무저항주의의 부식, 민족의식, 민족적인 모든것의 말살이라는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하게 하는것이였다.

실제적으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가 말살의 위기에 처하였고 '천황숭배'가 강요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 신궁, 신사들이 세워지고 지어 집들에까지 가미다나가 설치되여 민족의식을 마비시켰다.

민족의 고유한 말과 글, 지어 성과 이름까지도 말살의 대상이 되였고 조선민족의 상징인 흰옷에는 먹물이 들씌워졌으며 왜색왜풍이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인 모든것을 어지럽혔다.

즉 일제가 인구정책에서 추구한 '동아제민족에 대한 지도력확보'와 '동아공영권의 확립, 발전의 지도자라는 긍지와 책임, 임무'란 곧 정신적측면에서 일본인들에게는 타민족에 대한 지배의식을 식민지민족에게는 굴종의 의무만을 초래하는 반동적인것이였다.

또한 일본인들을 대량 이주시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추구함으로서 반동적본질을 드러내놓았다.

『인구정책확립요강』에서는 일본의 인구정책이 "동아제민족에 대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적합한 배치(인구문제연구회 1942: 2)"를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제는 조선과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고 강점한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현지에서 그것을 담당할 일본인들을 대량 부식시켜왔다.

식민지들에 일본인을 이식시키는것은 곧 해당지역 민족들에 대한 일본인의 지배를 실제적으로 담보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가 인구정책에서 식민지들에 대량 이주시킬 일본인구에 대하여서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게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이런데로부터 일제는 "국토계획의 수행으로부터 인구의 구성 및 분포의 합리화를 도모할것"을 규정하였으며 "농촌이 가장 우수한 병력 및 노력의 공급원천지인 현상황에 비추어 내지(일본-인용자)농업인구의 일정한 수의 유지를 도모하는것과 함께 일본, 만주, 중국을 통하여 인구의40%(인구문제연구회 1942: 3)"는 농업인구로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인구정책실시촉진에 관한 건의서』에서는 "권내 ('대동아공영권'내- 인용자)에 있어서 내지인(일본인-인용자) 인구의 증강에 유감없기 위해 정식거주한 개척민에 대한 적절한 문화 후생시설을 배치'하며 '권내('대동아공영권'-인용자) 제민족인구에 관한 자료의 정비와 함께 조사연구의 철저화를 도모함으로써 내지인 인구의 지도력확보와 증강발전의 근본기초(인구문제연구회 1942: 5)"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촉구되였다.

『인구정책확립요강』의 채택과 관련하여 당시 일제의 인구정책전문가들은 식민지들에 이식되는 일본인구의 수에 대하여 론하였는데 도꾜제국대학 조교수 노마 우미조는 "우리 나라의 최대인구수용력과 재외인구배치에 대하여라는 발언에서 해외로 이식하는 일본인의 수에 대하여 1,700~1,800만명 혹은 2,000만의 인구를 재외인구로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인구문제연구회 1942: 18)."고 강조하였다.

일본인의 대량적인 해외이주는 곧 현지에서 해당민족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강화를 의미하는것이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분야에로 뻗쳐드는 일본인들의 현지이주는 곧 식민지들에서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의 기초로 되였고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생활의 령락과 해외이주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으로 되였다.

결국 일제가 추구한 인구정책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 지배와 예속을 목적으로 한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인구정책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일제의 이러한 인구정책은 침략전쟁수행과정에 조작되고 집행된것으로써 일본인들은 물론 식민지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강요한것으로 하여 철저히 전쟁범죄로 된다고 할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적인 인구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는 '징용', '징병', 일본군성노예의 명목으로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이 침략전쟁터에 끌려갔으며 그중 100여만명은 목숨을 잃었다.

오늘도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 과거 일제가 감행한 범죄행위를 되풀이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되는 일본의 재침책동이 지난날 일제가 우리 인민을 포함한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강요한 불행과 고통을 또다시 감행하려는 일본군국주의의 범죄행위의 연장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며 이에 공동으로 맞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지난날 일제의 피비린 침략사를 미화분식하고 범죄행위를 외곡하면서 철면피하게 날아댈수록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치며 일제가 저지른 과거죄악들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참고문헌】

인구문제연구회(1942) 『인구정책과 국토계획(일문)』 부록, 2, 4, 5, 22.
『일본파시즘과 동아시아(일문)』(1977), 아까시서점, 14-15.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의 기록(일문)』(1974), 현대사출판사,63-64.
조선후생협회(1943) 『조선에 있어서 인구에 관한 제통계(일문)』, 46.
『천황 천황제의 력사(일문)』(1986), 아까시서점, 84.
『태평양전쟁사(일문)』 3권(1972), 아오끼서점, 150, 162, 177.

한국 효사상과 문화문법 고찰

A Study on Korean HYO

—Thought and Culture Grammar

최태호[1]
중부대학교
이대현[2]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효는 통시적, 통념적, 통교적 속성이 있는 3통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기초윤리다. 그런 의미에서 효(孝)는 세계화하기 쉽고 세계화 되어야 하는 한국적 정신문화다.

인성교육의 기본은 효에서 시작한다. 효는 "덕의 근본이고 가르침의 시작이다(孝德之本 敎之所由生)"[3]라고 하였다. 효는 동양사상의 하나가 아니라 독립적인 학문이 되어야 한다[4]. 세상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없다. 물론 불교는 속세를 떠나야

1 Tae Ho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oongbu University)
2 Dae Hyun Lee (Doctoral Progra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E-mail : sirekald@daum.net
3 『孝經』 제1장
4 최성규, 『효가족, 효나라, 효세상』, 성산서원, 12.

하기 때문에 속가의 인연을 끊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재가신도들은 『부모은중경』 등을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인식하고 공경해야 한다. 기독교 또한 인간에 대한 첫 번째의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보편적인 서구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동양의 사고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효사상이 기본이념이다. 굳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동양에서는 한국(조선)이 효문화로 점철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효에 관해 관심을 보이며 효 관련 학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효는 인간이 생존하는 한 끝까지 계승해야 할 고상한 미덕이다. 『孝經』에 “五刑之屬 三千 不孝莫大焉(큰 형벌을 받을 것이 삼 천 가지 종류나 되지만 불효가 가장 크도다)”이라고 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불효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다. 그로 인해 효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한국인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문화 범주가 생성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독창적인 효사상을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개인과 사회구조, 역사, 종교 등 개방된 구조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문화문법 이론에 근거하여 각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일찍이 Holliday, A. R이 유럽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제안한 ‘소문화 개념을 확장’시킨 문화문법 이론 틀에 기반한다(Hollyday, A. R. 2011a;2011b;2013). 문화문법에서 논하는 세 개의 넓은 영역은 ‘특수한 사회 정치적 구조, 근원적인 보편 문화 과정, 그리고 특수한 문화적 산물들’이다. 보편적인 것을 제외한 문화적인 특수한 내용들은 의사소통 과정에 충돌을 일으키며 외국인학습자가 고유 내재된 문화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예로 한국에서는 군대와 관련된 많은 문화적인 관용어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외국인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다. “고무신 거꾸로 신다”라는 말은 입대한 남자친구를 배신하고 변심한 것을 말한다. 외국인학습자가 이러한 문화적인 관용어, 어휘, 특정

현상 등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설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효사상 또한 한국인에게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경로석' 등의 어휘의 예가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효문화를 문화문법 관점을 통해 고찰해 보고 한국의 효문화를 보다 더 활성화 하고 확장 발전시키기 위한 제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한국문화와 효사상

2.1. 한국 문화에 나타난 효사상

한국인에게 효사상은 각별하다. 현대에는 진부한 사상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반 세기 전만 해도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삶이었다. 어른을 보면 반드시 인사하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한국의 미덕은 효사상에서 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근자에는 개인주의적이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지하철에서도 자리 양보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졌다. 물론 경로석이 있어 거의 비어 있기도 하지만 경로석이 없는 경우도 이른바 수구리족(스마트폰에 열중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게임이나 카카오톡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대화를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메시지(혹은 카카오톡 등)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비단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추세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효사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성교육의 기본을 전통사상인 효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속담 중에는 효와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 있다.(부모되는 사람의 마음은 자식에 대하여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움에 차 있으나 자식 마음 속에는 부모를 대할 때 칼을 지닌 것 같다는 뜻. 부모

는 무한대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할 따름이라는 말)

② 한 부모는 열 자식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자식을 거느리고 살지만 부모가 늙은 다음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잘 모시고 살지 못한다. 형제 간에 말이 많아 마침내는 자식 많은 부모도 올 데 갈 데 없게 된다는 뜻)

③ 효자효녀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예전에 친상을 당하면 오래 거상을 했는데, 효자효녀는 이것을 꼬박 지키다가 일을 못하므로 생긴 말)

④ 긴 병에 효자 없다.(부모가 병을 앓으면 온 정성을 다 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면 그 정성이 혹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효자도리 수 없다는 뜻, 무슨 일이든지 너무 오래 걸리면 그 일에 대한 성의가 덜하게 된다는 말)

⑤ 잔병에 효자 없다.(부모의 병을 올 간호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

⑥ 삼 년 구병에 불효난다. (부모가 오래 병환으로 눕게 되면 자식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구환을 해도 어쩌다가 좀 성의가 덜 하는 때가 있게 되어 불효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무슨 일이나 오랜 시일이 걸리면 한결같이 정성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

⑦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孝子不如惡妻)

⑧ 효자 끝에 불효 나고 불효 끝에 효자 난다.(대대로 효자나 불효자만 나는 것이 아니라 효자가 나면 불효자도 나고 불효자가 나면 효자도 나게 된다는 말, 세상의 모든 일에는 흥망성쇠가 되풀이 된다는 말)

⑨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면 기적적인 천우신조도 있게 되는 법이라는 뜻,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효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 있다."는 내

리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늘 부모에게 기대어 뜯어갈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다. ②번 역시 동일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⑥까지는 효도하기가 어려운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다. 부모의 병을 간호하기가 어렵다는 듯인데, 부모는 자식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만 자식은 오랜 기간 간호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의 병간호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⑦번은 효성스런 자식보다도 곁에서 돌보는 아내가 더 낫다는 의미다. 악처라도 곁에 있는 편이 좋다고 볼 수 있다. ⑧은 흥망성쇠가 되풀이되면서 발생하듯이 효자도 계속 될 수 없고, 불효자가 계속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⑨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지극한 효성은 하늘이 응답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속담이나 격언 등 관용어에 효와 관련된 말들이 많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효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생활 속에 효를 실천해야 하는 한국인들은 효를 당연히 여기고 있다. 병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효에 관한 사상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학적 사고는 한나라 때에 이르러 『孝經』으로 집약되었다. 『孝經』은 신라시대 독서삼품과에서 필수과목으로 할 정도로 귀중한 덕목이었다. 조선이 유학을 국시로 삼으면서 『孝經』은 위력을 더욱 발휘하게 되었다. 『孝經』에서는 효만을 덕의 근본(孝德之本也)으로 강조했으며 모든 덕(교육)은 효에서 비롯된다(敎之所由生)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효사상을 접수하여 가부장가족이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확립되기를 기대하였다. 『孝經』에 나타난 효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지위에 따라 효를 이행하는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천자(天子)·제후(諸侯)·경대부(卿大夫)·사(士)·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고하에 따라 실천하는 효의 내용이 다르다. 이와 같

은 효사상이 조선시대를 통괄하여 내려오면서 인간의 가장 큰 덕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그 덕목이 조금씩 과장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5대봉사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서인들이 5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무덤의 봉분도 점차로 크게 만들어 권위를 상징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塚, 陵, 墓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묘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권위를 나타내는 폐단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현대까지 효는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보았다.

2.2. 공자와 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이후 효는 한국사상의 중심이 되었다. 물론 신라시대에도 효학(孝學)은 중요시되었으나 불교의 세력에 밀려나 있다가 태조의 숭유억불책에 의해 유학이 치국의 이념으로 되면서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삼국시대에 국학이 설립되고 유학이 유입된 때부터 이미 효사상은 존재하였다. 굳이 유학이 아니더라도 효와 관련된 설화는 구전으로 전수하고 있었다. '손순매아' 설화 같은 종류의 이야기가 많이 전하고 있었다. 6세기경 신라의 승려 원광(圓光)의 세속5계(世俗五戒)에도 '사친이효'(事親以孝)가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국학에서는 〈논어〉와 함께 『孝經』을 기초적인 교과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유교적 효사상은 지식인들의 기본교양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중국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조상숭배가 일종의 신앙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제사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품고 있어서 불교나 기독교가 전래할 때 전통적인 제사의례와 갈등이 많았다. 자식에 대한 욕심이 유난히 많아 불교의 절간 뒤에 산신당을 모셔놓고 있으며, 기독교에서도 추도예배를 도입하여 한국적인 면모를 갖추고 자리잡게 되었다. 고려시대

에는 국교는 불교였지만 일상생활은 유학적인 효사상이 시대를 지배하였다. 효행자를 표창하고 나이 많은 노비는 그 직을 면해주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무렵에 유학사상이 주된 정치사상으로 확립되었고, 『孝經』이 그 중심에서 자리잡았다. 즉 공자의 효사상이 정치이념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불교적 내세관이 민중이 삶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말기안향으로부터 성리학이 힘을 받기 시작했고 유학적 효사상은 불교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고려 말의 유학자들에 의해 유학적 효사상을 담은 효행담을 편찬했으며 『주자가례』를 보급하기도 하였다.

공자의 효사상은 증자와의 대화집인 『孝經』에 잘 나타나 있다. 『孝經』은 증자의 제자들이 공자와 증자와의 대화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孝經』이 지어진 이후 효사상이 체계화되었다. 천자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효를 실천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孝經』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孝經』이 신분에 따른 효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면 효행담은 효자의 실천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게 널리 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책이다. 이와 같이 『孝經』을 통해서 효이론이 정립되었고, 효행담을 통해 효의 실천윤리가 보급되었다. 국가에서 효를 치국의 덕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과거의 효사상은 중국을 능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2.3. 불교에 나타난 효사상

사실상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수행하면 살아가기 때문에 효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민족은 효의 관념이 워낙 뿌리깊게 내려 있어서 불교라 할지라도 부자 간의 정리는 쉽게 끊을 수 없었다. 특히 민중들의 심중에는 이미 『孝經』이 자리잡고 있어서 출세간에 있는 승려라 할지라도 민중들의 의식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라는

것도 만들고 세속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았다. 『부모은중경』은 정통 경전은 아니다. 불교는 현실보다는 사후의 극락왕생을 더 큰 덕목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후세계를 위하여 염불을 하며 기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불교는 원래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속가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은중경』 등을 통해 속가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부모은중경』은 대한민국에서 주로 읽는 경전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고1730-33>에 대한 해제에 따르면, 이 책의 간행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쳤다고 한다.[5]

① 1720년에 금산사에서 이 책의 목판이 제작되어 처음 간행되었고,
② 1741년에 전주의 남고사에서 금산사 간본을 바탕으로 번각하여 새로 간행했으며,
③ 1810년에 같은 목판(1741년에 번각한 목판)으로 다시 한 번 간행했다.

따라서 <고1730-33>의 최종적인 간행연도는 181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해를 제외하고 원문의 간행을 살펴본다면 1553년(명종8)이 처음으로 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1563년, 1564년, 1567년, 1592년[6] 등에 걸쳐 계속해서 『부모은중경』

5 해제는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속집(경자부)』, 457-460.

6 언해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1553년(명종 8)에 경기도 장단 화장사(華藏寺)에서 개판한 것이 있다. 변상도(變相圖)의 완벽함과 그 섬세함에 있어서는 정조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개간하도록 하고, 김홍도(金弘道)의 그림이 첨가되어 있는 수원용주사(龍珠寺)의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십 종의 판본이 전하는데, 이들은 모두 효도가 강조된 조선시대에 불교의 효를 강조함으로써 그 사회의 저변에서나마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였던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경의 언해본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책이 1553년 경기도 장단 화장사의 간행이므로 늦어도 16세기 중엽에는 번역,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화장사판은 현재 행방이 알려져 있지 않다.
국내의 현존본으로는 1563년 전라도 송광사 간행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화장사판의 사진과 대조하면,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송광사본은 화장사판이나 그에 앞선 원간본의 복각이

을 간행하였다. 『부모은중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懷耽守護恩 (나를 잉태하시고 지켜 주신 은혜)

여러 겁을 내려오는 인연이 중하여서 어머니의 태를 빌어 금생에 태어날 때
달이 가니 오장이 생겨나고 7·7일(49일) 접어드니 육정이 열렸어라
한 몸이 무겁기는 산악과 한가지요 가나오나 바람결 겁이 나며
아름다운 비단옷도 모두 다 뜻 없으니 단장하던 경대에는 먼지만 쌓였어라.

2. 臨産守苦恩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신 은혜)

아기를 몸에 품고 열 달이 다 차서 어려운 해산달이 하루하루 다가오니
하루하루 오는 아침 중병 든 몸과 같고 나날이 깊어가니 정신조차 아득해라
두렵고 떨리는 맘 무엇으로 형용할까 근심은 눈물 되어 가슴 속에 가득하니
슬픈 생각 머금고 친족들을 고할 때면 이러다가 죽지 않나 이것만을 걱정 하시네

3. 生子妄愚恩 (자식을 낳았다고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

자비하신 어머니가 그대를 낳으신 날 오장육부 그 모두를 쪼개고 헤치는 듯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가 끊어 졌네. 짐승 잡은 자리같이 피는 흘러 넘쳤어도
낳은 아기 씩씩하고 충실하다 말 들으면 기쁘고 기쁜 마음 무엇으로 비유할까
기쁜 마음 정해지자 슬픈 마음 또 닥치니 괴롭고 아픈 것이 온몸에 사무친다.

4. (중략)

10. 究竟憐愍恩(끝까지 자식을 위해 어여삐 여기는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 사랑하고 어여삐 여김 그칠 때 없네.
일어서나 앉으나 마음은 언제나 따르고, 멀거나 가깝거나 생각하는 정 서로 따르네.

라 하겠다. 혼란되지만 '△, '이 나타나고 방점은 없다. 방점 표기가 없어진 초기 문헌이다. 이 밖에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으로는 1564년 황해도 명엽사(明葉寺), 1567년 은진 쌍계사, 1592년 풍기 희방사의 판본 등이 있다. 모두 복각으로 보이며 판식과 언어 사실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어머님의 나이 백 살이 다 되셨어도 팔십 된 자식을 항상 걱정하시네.
알건대 이 恩愛 언제라고 그칠까. 이 목숨 다한 뒤라야 떠나리.[7]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불교는 유학적 효사상을 바탕에 두고 발전하였다. 『부모은중경』이 위작이라 할지라도 불가에서는 여전히 중하게 여겼고 후세에 전하여졌다. 1553년에 처음 간행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1810년에 『부모은중경』을 언해하여 민중에 알리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의 불교는 유학적 바탕에 기저를 두고 사후극락왕생을 목적으로 하는 유불습합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 기독교의 효사상

기독교의 효와 성경적 효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기독교는 제사를 부정하는 면에서 유학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추도예배(혹은 추모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기도 한다. 기독교에는 배타적일지라도 성경적 효라고 하면 부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를 섬겨 효도하는 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건

7 1. 懷耽守護恩:累劫因緣重 今來托母胎 月逾生五臟 七七六精開 體重如山岳 動止怗風災 羅衣都不掛 裝鏡惹塵埃 2. 臨産守苦恩 :懷經十個月 産難欲將臨 朝朝如重病 日日似昏沈 惶怖難成記 愁漏滿胸襟 含悲告親族 惟懼死來侵 3. 生子妄愚恩 :慈母生君日 五臟憁開張 身心俱悶絶 血流似屠羊 生已開兒建 歡喜倍可常 熹定悲還至 痛苦徹心腸 4. 咽苦吐甘恩 :父母恩深重 恩憐無失時 吐甘無所食 咽苦不嚬眉 愛重情難忍 恩深復倍悲 但令孩子飽 慈母不詞飢 5. 廻乾就濕恩 :母自身俱濕 將兒以就乾 兩乳充飢渴 羅袖掩風寒 恩怜恒廢寢 寵弄振能歡 但令孩子穩 慈母不求安 6. 乳哺養育恩 :慈母象於地 嚴父配於天 覆載恩將等 父孃意亦然 不憎無眼目 不嫌手足擊 誕腹親生子 終日惜兼憐 7. 洗濯不淨恩 :憶昔美容質 姿媚甚豊濃 盾分翠柳色 兩瞼奪蓮紅 恩深腋玉貌 洗濯損盤濃 只爲憐男女 慈母改顔容 8. 遠行憶念恩 :死別誠難忍 生離亦悲傷 子出關外出 母意在他鄉 日夜心相逐 流淚數千行 如猿泣愛子 憶念斷肝腸 9. 爲造惡業恩 : 父母江山重 深恩報實難 子告願代受 兒勞母不安 聞道遠行去 行遊夜臥寒 男女暫辛苦 長使母心酸 10. 究竟憐愍恩 :父母恩深重 恩憐無失時 起座心相逐 遠近意相隨 母年一百歲 常憂八十兒 欲知恩愛斷 命盡始分離

전한 가족제도가 확립되었고 자녀로 하여금 효도를 행하게 하여 효도 사상을 크게 발달시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효행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다(윤성범 1973: 3).

> 성경적 효라 함은 십계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는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한 것을 말한다. 다른 계명에는 토를 달지 않았는데[8] 비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다음에는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면서 혜택을 말하였다. 효에 관해 명확하게 진술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9] 라고 하였다.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그대로 기술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도리라고 하겠다. 예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죽음으로[10] 순종한 아들이었다. 예수는 자라날 때에 부모를 모시고 순종하여 효를 실천하였고(누가복음 25: 51),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요한복음 2: 1).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최후의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효를 실천하였다(요한복음 19: 26-27).[11]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본래 효를 바탕에 담고 있는 종교다. 다만 한국에 전래할 때 제사라는 의식과 갈등을 빚어 정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니 효실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

8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이 단순 명료하게 명령하고 있다.
9 『에베소서』, 6장 2-3절.
10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41절.
11 박창근, 『한국인의 효』, 서울언론인클럽, p.241.

3. 효와 한국 문화문법

3.1. 효의 개념과 의미 비교

먼저 효(孝: HYO)의 각 언어권에서의 대표적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사전 : 어버이를 정성으로 섬기는 일(한국어사전편찬회 편)
영어사전 : (formal) filial duty 부모를 효양하다 = take good care of one's parents
중국어사전 : : xiào ①孝順, ②舊時尊長死后在一定時期內遵守的禮俗, ③喪服, ④姓

영어사전에서 말하는 효는 '공식적인 자식의 의무'를 뜻한다. 또한 효도를 filial piety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경건한 의무(혹은 실현되기 힘든 바람 pious piety)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가 되면 독립하는 서양 문화에서는 부모 봉양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처럼 명절이 되었다고 부모님을 봬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추수감사절에 전화하거나 크리스마스 때 안부 묻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효의 한국적 의미와 서양의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순종과 복종(직언)을 포함한 스스로 실천하는 의미가 강하고, 서양에서는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 더 강하다. 한자는 '노인을 자식이 업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연장자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비단 내 부모에게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든 노인을 업고 있는 것처럼 모든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다가 공자시대에 이르러 직계존속에 대한 의미로 좁혀졌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는 생존 시 효도하는 것보다 사후 제사의식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孝服도 喪服의 의미가 있고, 孝衣 또한 사후 일정기간 입는 마의를 의미한다. 孝子는 '① 對父母孝順的人(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② 父母死後居喪的人(부모 상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중인 사람을 효자라고 하였다. 그

러므로 중국에서 '효'의 의미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와 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효라는 글자가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직 효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시가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본다. 주나라 때에 와서야 비로소 효라는 글자가 자주 나타난다. 『시경』·『서경』 등에도 효에 관한 내용이 많다. 주나라 때의 기록에 나타난 효는 '살아 있는 부모에 대한 봉양·존경·복종과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 대한 추모'로 나뉘며 특히 상례에 관한 형식이 정립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효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공자와 증자의 문답서인 『孝經』에서 비롯되었다. 공자는 인간답게 사는 덕목으로 효제충신을 들었다. 그 중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구체적인 효의 실천방법을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맹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자연스러운 애정이 효의 기초이지만 애정과 도덕적 의무를 명확히 구별하여 효는 엄격한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맹자』는 오륜(五倫)에서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을 가장 중요시했고, 이것은 공자의 정명사상과도 일치한다. 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은 자식이 자식다운 것을 말한다. 『논어』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父父子子)'이 바로 정명사상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맹 시대에는 효사상이 도덕적 의무감이 더욱 중요시 되어 왔다. 부모는 자애로워야 하고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

종합해서 본다면 '효(孝)'란 '자식이 어른을 섬기는 도리'라고 하겠다. 전통적인 효의 개념은 '치사랑'(혹은 올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이나 젊은이가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의 효는 화합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 갑과 을이 없고,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배려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현대적 효의 확장이다. Harmony의 개념으로 확장하면 가장 잘 부합한다.

3.2. 효와 문화문법

앞서 살펴본 효사상은 문화문법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특수한 문화적 산물', '특수한 사회 정치적 구조' 등이 작용하여 '특정 문화 범주'를 형성하고 지속 · 확장 된 것을 알 수 있다. 본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들은 효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연상한다. 우선 제사의식과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봉양이다. 제사는 한국인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다. 목욕재계하고 그릇 닦는 일부터 시작하여 정결한 몸가짐으로 음식을 만든다. 제사와 관련된 속담이 많다.[12] 예를 들면 "아무 소득이 없는 일에 수고만 한다."고 할 때는 "먹지도 못하는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한다."고 했고, "자손이 없는 쓸쓸한 제사"는 "까마귀도 모르는 제사"라고 하였다. "무슨 일을 빙자하여 이익을 얻을 때"는 "제사 덕에 이밥(쌀밥)이다."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영부영할 때"는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고 하여 풍자의 멋을 살리고 있다. 조상숭배와 관련된 많은 속담이나 격언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볼 때 평상시에 조상숭배를 효의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제사의식은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자시(子時)에 지내던 제사를 저녁 8시경에 지내는 집안도 많아졌다.[13] 제삿날에 조상님께 가장 먼저 음식을 올려야 하는 관계로 전날 음식을 차리고 기다렸다가 자정이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통례였다. 직장인이 출근하고 돌아와 다

12 제사와 관련된 속담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2.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3. 먹지도 못하는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한다.
4. 남의 집 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5. 가을에 못 지낸 제사 봄엔들 지낼까?
6. 제사 덕에 이밥이다. 등

13 최근 안동의 의성 김씨 청계종택은 2017년 5월 18일 저녁 8시부터 不遷位 제사를 지냈다. 300년 전통을 바꾼 것이다. 불천위는 조선시대 나라에 공훈을 세웠거나 학문이 높은 사람의 신주를 사당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된 신위다(조선일보, 2017.5.19.).

음날 다시 출근할 것을 생각하여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다. 전통과 현대에서 효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올바른 인간형성에 있다. 전통가정에서는 효교육의 목표는 입신행도(立身行道)라고 보았으며, 현대가정에서의 효교육의 목표를 자아실현(自我實現)으로 분석했다(김명운 2012). 이창환(2010)은 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첫째, 조선시대의 효는 우리 고유의 한 사상을 비롯한 무격신앙,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온 것으로 우리 민족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도덕적 의식이다.
>
> 둘째, 조선시대의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행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효는
>
> 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고 추진된 교육정책의 결과로 백성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었으며,
>
> ② 부모에 대한 보답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
> ③ 자식의 온 생활과 정성으로 실천되었으며,
>
> ④ 생전의 효는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養志)을 소중히 여겼고,
>
> ⑤ 부모 사후에도 변함없는 공경과 정성으로 받드는 것이었다.
>
>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에도 전통적 효를 위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실천으로 연결되기에는 과목의 비중이나 교과서의 관련 내용 부분이 부족하다.
>
> 넷째, 조선시대 효의 교육적 의미가 현대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
> ① 가정은 효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효 의식의 함양을 위해 부모의 언행이 모범적으로 자녀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
> ②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가정과의 연대 교육을 통하여 효 의식이 길러질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교과 간 연대 교육이나 효행 학생에 대한 표창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
> ③ 사회 교육의 측면에서는 모범적 효행자의 적극적 발굴과 표창 및 사

례집을 발간하여 국민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것과, 효행 표창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여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효사상의 변천과정을 잘 정리하였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14] 이 법에 의하면 "효행"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또한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5조 1항과 2항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닌 "실시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동일한 선상에서 1항에 있는 "초·중·고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효행교육은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사회에서 효에 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면 인천에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개교하면서 효에 대한 학술대회와 강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5]

현대에는 효의 개념이 조상숭배보다는 현실적인 개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현세와 내세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에서 시체의 훼손을 방지하고 존중'[16]하는 사고방

1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5 중국인민대학철학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2008.9.18.)
북경사범대학 및 인민대학에서의 '한국의 효사상' 특강(최성규 총장), (2009.4.16-18.)
중국산동사범대학에서 '효' 특강(최성규 총장), (2011.4.12.)
16 박창근, 앞의 책, 644.

식을 견지해 왔다. 그래서 조상신이라는 개념이 형성하게 되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제삿날이면 온 가족이 목욕재계하고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밀도살한 고기는 사용하지 않았고, 남자들은 지방을 쓰는 등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제사음식도 배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직장관계로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5대조까지 기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직계 조부까지 지내는 집안이 많다. 물론 종가에서는 아직도 5대봉사를 고집하고 있다. 조상신에 대한 정신은 일종의 보은사상이다. 또한 효의 근원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는 봉양을 좇아서 효도를 계속하는 것이다."[17]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사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어서 기독교가 정착하기 위해서 추모예배가 생겨나기도 했다.

4. 결론(효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제사의식 내지 조상숭배사상은 한국인에게는 효의 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다. 제례뿐만 아니라 경로 사상 역시 중하게 여겨 어른 공경이 삶의 일부였다. 이것은 공자의 『孝經』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민족성 자체의 순수함에서 기원한다. 이런 효사상으로 인해 불교가 전래된 후에도 『부모은중경』과 같은 문서가 나와 출세간을 지향하는 불교에서도 효를 중하게 여겼다. 현실에서는 유교적인 효를 구현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를 찾는 이중적인 양태로 발전하였다. 또한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제사의식과 충돌하는 경향이 많아 추도예배라는 형식을 빌어 제사의식을 수용하게 된다.

한국의 효사상은 민중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 효에 관한 속담과 제사에 관한 속담 등이 많다. 주로 이행하기 힘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효사상을 문화적을 접근하면 서양인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17 위의 책, 647.

서양에서는 18세가 되면 독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효사상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효의 개념도 수직적인 개념에서 수평적인 개념으로 변모해야 한다. 효는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상이다. 근자에 들어 다시 효에 관련된 학회와 학교가 생겨났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이 "노력하여야 한다."등으로 애매하게 되어있어 "시행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효과적인 효의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8]

우선, 국제학술대회개최를 통한 효학(孝學)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제효학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효사상을 국제화하고 서구의 사상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로사상의 보급은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한국 및 해외 청소년 초청 및 효장학생 유치, 효학 연수가 필요하다. 재원확보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한국드라마, 영화, K-Pop등에 효사상을 삽입하여 해외에 알려야 한다. 끝으로 효교재를 개발하고 논문을 영어로 번역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18 효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김시우 부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음.

【참고문헌】

금장태(1982) 「한국유교의 재조명」, 전망사.

김대연(1987) 「퇴계 율곡의 효사상과 경로교육」, 『홍대논총』 17, 홍익대학교.

김명운(2012) 「가정 교육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안기(1978) 「고대한국 효의 사상연구」, 『한국철학연구』 8.

김익수(1978) 「한국민족교육사상사」, 수덕문화사.

박창근(2005) 「한국인의 효」, 『서울언론인클럽』.

새마을연구회(1983) 「충효사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이기백(1983) 「신라불교에서의 효관념 - 삼국유사 효선편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이남구(1979) 「효의 본질과 그 체계에 관한 일연구」, 『대구교육대학 논문집』 15, 대구교육대학.

이범직(1991) 「한국중세예사상연구」, 일조각.

이창환(2010) 「조선시대 효의 의미와 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희덕(1972) 「고려시대의 효사상의 전개」, 『역사학보』 55, 역사학회.

윤성범(1973) 「효: 서양윤리, 기독교 윤리, 유교 윤리의 비교연구」, 『서울문화사』

하우봉(1983) 「세종대의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 효행록과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7, 전북대학교 사학회.

Holliday, A. R. (2011a)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ideology' London: Sage

Holliday, A. R. (2011b) 'Small cultures' In Zhu, H. (ed.) 'The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ader' London: Routledge: 196-218

Holliday, A. R. (2013) 'Understand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negotiating a grammar of culture' London: Routledge Inc, part of Taylor & Francis Croup LLC.

『국제고려학』 투고규정

1. 분량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언어

논문작성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3. 본문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4. 주석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과 출판년도, 쪽수를 밝혀, 홍길동(2007: 123-125)과 같이 표시한다. 내각주일 경우에는 (홍길동 2007: 123-125)으로 한다.

5. 예문 및 인용문

예문이나 인용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띄운다. 예문이 하나 이상일 때에는 붙인다.

6. 참고문헌

논문 서지 표기는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1) 한국어일 경우 :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편자명,∨『서적명』, 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홍길동(2006)「지식인의 역할」,『국제고려학』1, 국제고려학회, 100-111.

예) 홍길동(1997)「욕망과 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2) 일본어, 중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서지 작성 원칙에 준한다.

3) 서양논문일 경우 :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in∨편자(ed.)∨서적명(이탤릭),∨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예)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4)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논문 제목과 인터넷 주소, 검색일자를 병기한다. 인용부분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 주소는 html까지 그 페이지 주소창에 뜨는 부분을 모두 적어 준다.

예)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 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 lj/493_allen.ht ml, 2006.5.25)

7.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1) " " : 인용
2)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3) 『 』 : 서적명, 총서명, 원전, 단행본, 신문명, 음반 등
4) 「 」 : 논문명, 기사명, 글명, 작품명, 편명, 조명
5) · : 동일사항의 나열 예) 백두산·한라산·지리산

8. 기타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30-0047 日本 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4丁目5-5-506
『국제고려학』 편집위원회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4-5-5-506, Nishitenma, Kita-ku, Osaka, 530-0047, Japan
E-mail :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고려학회 임원

본부임원

회장	연재훈(영국 University of London)
부회장	宋南先(일본 大阪経済法科大学) 徐永彬(아시아분회 회장, 중국 对外经济贸易大学) Rainer Dormels(유럽지부 회장, 오스트리아 Vienna University) Michael Pettid(북미지부 회장,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서광웅(평양지부 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송창주(대양주지부 회장,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鄭雅英(일본지부 회장, 일본 立命館大学) 김성민(서울지회 회장, 한국 건국대학교)
편집위원장	尹靖水(일본 梅花女子大学)
사무총장	裴光雄(일본 大阪教育大学)
사무차장	伊地知 紀子(일본 大阪市立大学)

국제고려학 제17호

발행일 2018년 3월 31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연재훈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발행처 学術研究出版 / ブックウェイ
〒670-0933 姫路市平野町62
TEL: +81-79-222-5372 / FAX: +81-79-223-3523
HP : http://bookway.jp
인쇄소 小野高速印刷株式会社
ISSN 1347-7307
2018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BN978-4-86584-304-0

ISBN978-4-86584-304-0
C0039 ¥3000E

9784865843040

定価： 本体3,000円 ＋税

1920039030009

2018 • No.17 국제고려학

CONTENTS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Arirang - Lost and Regained

Foreword — Nam Sun Song
The "Arirang" Image Map of the Korean Society in China — Bao You Jiang
On the Origin of Poncyo Arirang — Myong Song Kong
About Social Construction of "Arirang" — Tomoomi Mori
Politics of Arirang: Tripartite Function and the Social Dynamics of a Korean Folksong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China — Byong Won Lee
Traditionality and Modernity of Arirang — Yong Shik Lee
Afterword — Tomoomi Mori

Articles

The Works and Sequels of the 'Avant-garde Poets' , Sparks of the Liberated Parnassus — Chol Hun Ko
A Study of Chinese and Korean Negative Purpose Complex Sentences —Centered on the Syntactic Features — Hong Ji Gao
Some Aspects of Syntactic Changes in Korea — Jae-il Kwon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and Mongolian Language in 18th Century through Mongoyuha — Guang Zhu Jin
Three Baekje Damuros/Provinces in Wa Japan — Yong Duk Kim
Investigation and Suggestions on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Language in China — Yong Shou Jin
The Comparative Study of Hyun Jin-gun's "A ruined man" and Katai Tayama's "Futon" — Ying Ji Jin
Kim Hakchol —His Life and Literature — Masuo Omura
The Ego Image of Jeong Lyae Jo Potrayed in His Novel Great Jungle — Ling Yi Piao
Analysis of Errors Made by German Learners and Korean Learners —Subject to Case and Postposition that Indicate a Place — Eun Joo Park
Standard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erms —Focusing on Loan Words — Kwang Ung So
An Empirical Study on Linguistic Interference that Includes the Translation of Koean & Chinese — Quan Shen, Mi Yeon Kim
Mutual-Aiding Culture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4-1960 — Duk Hee Lee
The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Mozi' s Thought: Associated with a Korean Situation — Byung Wook Lee
A Study on the Petroglyphs at Okryu-dong in Mt. Kumgang —Combined with the Culture of Superscription of Joseon Intelligentsias — Yu Yi Lin
A Study of the Phrase and Clause in the Korean Language — Yong Gen Quan, Sun Lee
Japanese Colonial Policies and Korean Migration to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n the 1910s and the 1920s — Ung Chol Jong
Medial Sounds of Hunmin-jeongeum and Yokmo (欲母): —Why is the Null Sound Letter /○/ Attached to a Vowel Letter in Hangul? — Kwang Chu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rosocial Behavior Experience on Donation Intentions in the Future — Hyung Beom Cho
The Reactionary Nature of the 'Outline for Population Policy Establishment' Compil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 Hui Sung Jo
A Study on Korean HYO —Thought and Culture Grammar — Tae Ho Choi, Dae Hyun Lee